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1031-01

경 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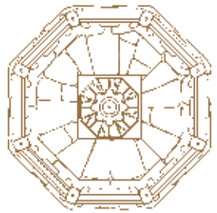
태봉태실 胎峰胎室

경 기 도 **태 봉 태 실** 조 사 보 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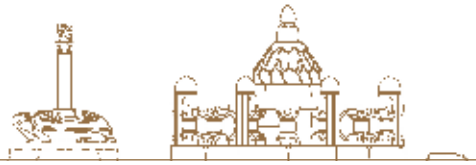
경기도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태봉태실 胎峰胎室

경기도·경기문화재연구원



비매품 ISBN 979-11-88558-87-5



경 기 도

태봉 胎峰
태실 胎室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목 차

Ⅰ. 머리말 ····· 06
1. 사업경과 ····· 07
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07

Ⅱ. 태실 개관 ····· 12
1. 태실의 기원과 전개 ····· 14
2. 태실의 입지와 구조 ····· 50
3. 태실 유물의 양식과 편년 ····· 72

Ⅲ. 지역별 조사내용 ····· 134

1. 가평군
1) 가평군 상색리 중종 태실 ····· 138
2) 가평군 태봉리 영창대군 태실 ····· 143

2. 고양시
1) 고양시 벽제동 태봉 ····· 148
2) 고양시 대자동 정소공주 태실(병장) ··· 149
3) 고양시 신도동 고종4남 태실(병장)····· 151
4) 고양시 지축동 성종왕녀 태실 ····· 152

3. 광주시
1) 광주시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 ····· 156
2) 광주시 원당리 왕자돈수 태실 ····· 161
3) 광주시 탄벌동 태봉 ····· 163
4) 광주시 태전리 성종 태실 ····· 164
5) 광주시 목현동 태봉(추정) ····· 170

4. 김포시
1) 김포시 고막리 신성군 태실 ····· 174
2) 김포시 고양리 태실 ····· 178
3) 김포시 조강리 인순공주 태실 ····· 180

5. 남양주시
1) 남양주시 광전리 왕자금수 태실 ····· 186
2) 남양주시 금곡동 태봉 ····· 188
3) 남양주시 내각리 배나무골 태봉 ····· 189
4) 남양주시 내각리 왕자 수장 태봉 ····· 192

6. 동두천시
1) 동두천시 안흥동 독도골 태봉 ····· 196

7. 성남시
1) 성남시 대장동 태봉 ····· 200
2) 성남시 율동 태봉 ····· 201

8. 시흥시
1) 시흥시 군자동 태봉 ····· 204
2) 시흥시 금이동 태봉 ····· 206
3) 시흥시 무지동 태실 ····· 207

9. 안산시
1) 안산시 고잔동 태실 ····· 210

10. 안성시
1) 안성시 배태리 태실 ····· 216
2) 안성시 성은리 영조옹주 태실 ····· 219
3) 안성시 화봉리 태봉 ····· 221

11. 양주시
1) 양주시 고읍동 태봉 ····· 224
2) 양주시 덕정동 태봉 ····· 225
3) 양주시 봉암리 태봉 ····· 226
4) 양주시 상수리 태봉 ····· 228
5) 양주시 울대리 태봉 ····· 230
6) 양주시 황방리 정혜옹주 태실 ····· 231

12. 양평군
1) 양평군 대흥리 왕자부수 태실 ····· 236

2) 양평군 수입리 태봉 ····· 241
3) 양평군 옥천리 제안대군 태실 ····· 242

13. 여주시
1) 여주시 태평리 대명산 태봉 ····· 246
2) 여주시 외평리 태봉 ····· 247

14. 연천군
1) 연천군 노동리 태봉 ····· 250
2) 연천군 도신리 태봉 ····· 252
3) 연천군 동막리 부물현 혜정옹주 태실 254
4) 연천군 동막리 샘골 태실 ····· 257
5) 연천군 두일리 태봉 ····· 259
6) 연천군 양원리 태봉 ····· 260
7) 연천군 옥계리 태봉 ····· 261
8) 연천군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 ····· 263
9) 연천군 적거리 태봉 ····· 267

15. 용인시
1) 용인시 신봉동 태봉 ····· 270
2) 용인시 주북리 태봉 ····· 271

16. 이천시
1) 이천시 제요리 종태봉 ····· 274

17. 파주시
1) 파주시 객현리 태봉 ····· 278
2) 파주시 어유지리 영산군 태실 ····· 279
3) 파주시 용산리 태봉 ····· 282
4) 파주시 정자리 왕자옥량 태실 ····· 284
5) 파주시 축현리 태실 ····· 287

18. 포천시
1) 포천시 가채리 태봉 ····· 292
2) 포천시 금주리 태봉 ····· 293
3) 포천시 만세교리 화완옹주 태실 ····· 294
4) 포천시 무봉리 영조 옹주 태실 ····· 296
5) 포천시 성동리 익종 태실 ····· 299
6) 포천시 송우리 태실 ····· 306
7) 포천시 주원리 태실 ····· 308

19. 화성
1) 화성시 송동(산척리) 선조왕녀 태실 ··· 312
2) 화성시 자안리 태봉 ·····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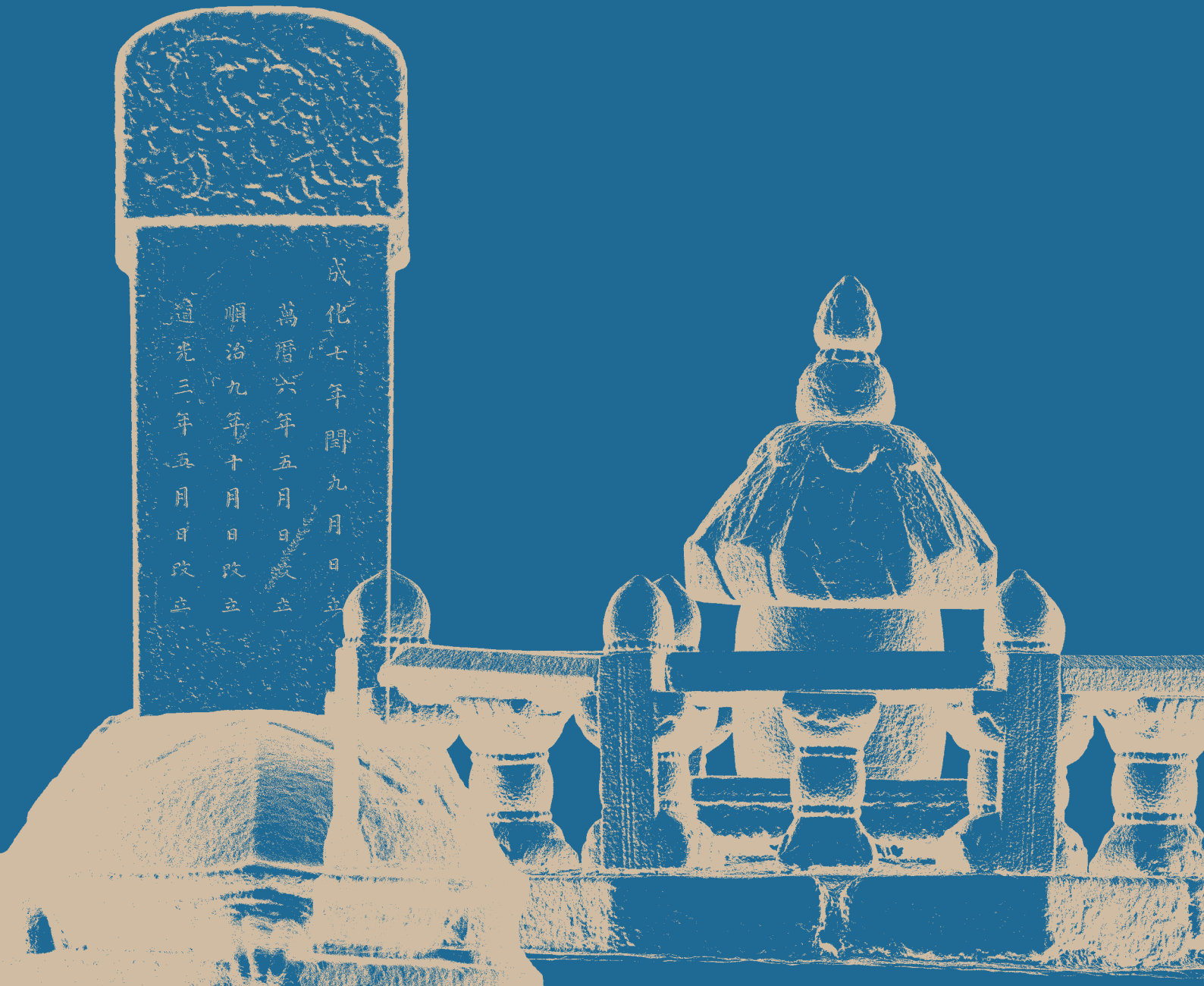
Ⅳ. 경기도 태봉 태실 조사 결과 ····· 316
1. 경기도의 태봉 태실 현황 ····· 318
2. 경기도 태실 유물 ····· 321
3. 태봉 태실의 훼손 ····· 330
4. 보존관리 ·····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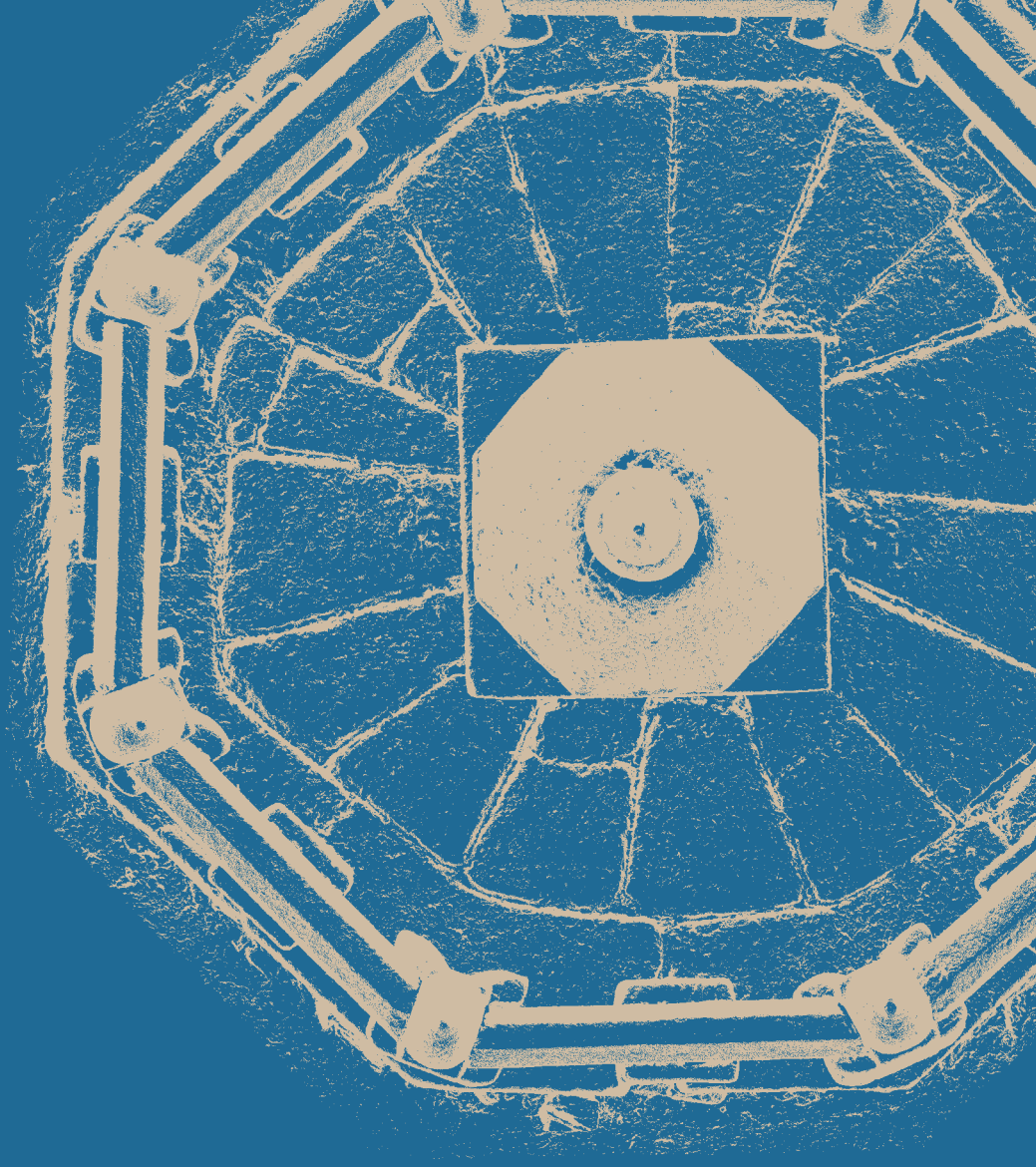
Ⅴ. 맺음말 ····· 336

참고문헌 ····· 340

부록 ····· 342
1.『成宗大王胎室碑石改竪儀軌』····· 343
2.『元子阿只氏藏胎儀軌』····· 357
3.『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369
4. 경기도 태실 관련 문헌자료 ····· 389

머리말





머리말

세계의 많은 민족에게서 태를 묻거나 태우는 장태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왕실의 안태문화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의 안위와 왕실의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례행위로 관리하고 의궤로 기록하는 등 제도화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문화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28년 이왕직李王職에 의해 전국의 태실 54위를 서삼릉으로 강제 이전하면서 훼손, 파괴되었고, 해방과 6.25전쟁,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방치되어 온 까닭에 전국에 태실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태실을 조사하여 정리한 사례는 몇몇 있지만, 광역단위의 태실조사는 1990년대 말 강원지역의 태실 조사가 처음이었다. 1999년에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전국의 태실을 조사하여 소개하였고,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선왕실의 태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보존과 정비방안을 수립할 목적으로 대표적인 태봉 유적을 선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태실연구를 집대성한 심현용 박사의 『한국 태실 연구』가 발간되었다. 2017년에는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경상북도의 태봉 10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조사를 시작하였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태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훼손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한 기초조사 결과와 2021년에 새롭게 확인한 자료와 조사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경기도내 태봉과 태실 65개소를 수록하였다.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경기도 태실과 태봉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방향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신희권 교수님,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용만 선생님과 조사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해석, 참고사례 등 다양한 의견과 성종태실 3D스캔 자료와 2010년 조사사진 등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신 한국태실연구소 심현용 소장님 등 자문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산군태실과 관련한 문헌자료를 제보해주신 강원대학교 홍성익 선생님, 안성 배태리 태실을 제보해주신 김희태 소장님, 양평 대흥리 태실 자료를 공유해주신 진한용 선생님과 개인 일기장을 공개해주신 김희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거나 잊혀진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계기로 태봉과 태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새로운 사실들이 더 많이 밝혀지기를 기대해본다.

01. 사업경과

- 2019.11~12 경기도내 태봉(태실) 실태조사 실시(13개 시·군, 26개소)
- 2020.02.06. 태봉 태실 조사방안 관계기관(경기도, 경기문화재연구원) 회의
- 2020.03.01. 경기도 태봉 태실 기초조사 사업신설(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 2020.03.11. 기조사자료 검토, 지명조사, 조사대상 71개소 선정
- 2020.04.13. TF 1차 : 경기도 태봉(태실) 실태조사 TF구성 및 학술자문
- 2020.08.19. 69개소 현장조사 완료(장소불명, 지뢰위험 등 2개소 제외)
- 2020.09.23. TF 2차 :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학술자문
- 2020.12.07. 추가 및 보완조사 완료
- 2020.12.18. TF 3차 : 조사결과보고
- 2021.02.15. 경기도-경기문화재연구원 대행위탁 업무협약체결
- 2021.05.28. 경기도 태봉 태실 학술세미나 개최
- 2021.10.12.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 발굴조사(~10.28)

0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은 문화유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태봉(태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경기문화재연구원, 자문위원으로 TF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TF 이름 : 경기도 태봉(태실) 실태조사 TF

- 운영기간 : 2020. 04. 01 ~ 2020. 12. 13
- TF 구성
  - 경기도 : 이정식(문화유산과장), 김선미(학예연구사)
  - 경기문화재연구원 : 이병훈(조사연구팀장), 김종헌(선임연구원)
  - 자문위원 :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용만(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심현용(한국태실연구소장)

조사는 사전조사, 태봉(태실) 분포도 작성 및 위성사진분석, 현장조사, 보완조사, 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기조사자료 정리,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재지리정보(GIS)를 조사하여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시·군의 향토자료와 지명유래를 조사하여 장태와 관련한 지명을 조사목록에 추가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선정된 조사대상은 위성지도(구글어스)에 위치를 표기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위성사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조사를 통해 태봉의 위치가 명확하게 알려진 유적 외에 정확한 위치를 비정할 수 없거나, 마을 단위의 지명이나 산 이름으로만 확인되는 태봉은 구글어스의 3D뷰 기능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태실의 입

지조건인 돌혈에 가까운 위치를 표기함으로써 조사범위를 좁혀 현장조사기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경기도의 태봉과 태실은 각 시·군의 시·군지, 향토사료집, 지명유래집 등에 개별로 소개되어 오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전국의 태실을 조사하여 1999년에 발간한 『조선의 태실』Ⅰ,Ⅱ,Ⅲ에 59개소가 처음으로 종합 수록되었다. 그리고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태봉 현황조사 및 복원정비계획(안) 수립' 사업에 의해 전국 소재 태봉 현황조사, 주요 태봉 현지표본조사 및 정밀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왕실의 태봉』을 발간하였는데, 경기도에는 태주가 확인된 태봉 25개소와 추정태봉 35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기도 태봉(태실) 실태조사」의 25개소도 이와 같다. 심현용의 『한국 태실 연구』(2016)에는 필자가 직접 조사하여 위치를 밝힌 조선시대 태실 143개소 중 25개소가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목록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조사자료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경기도에는 태주가 확인된 태실 25개소와 추정태봉 35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경기도 태봉 태실 기조사자료

1999년	2000년	2008년	2016년	2019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의 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지표조사보고서』	국립문화연구소 『조선왕실의 태봉』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기도 「경기도 태봉(태실) 실태조사」
59개소	7개소	60개소	25개소	25개소

TF 1차 회의(2020.04.16.)에서는 기조사자료의 태실 25개소와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추정태봉 35개소, 시·군지, 지형도, 지명유래, 문화유적분포지도 조사를 통해 추려낸 12개소를 추가하여 모두 71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는 2020년 4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하고, 9월 23일 중간보고 후 12월 7일까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1] 현장조사는 유적 위치(주소, GPS좌표)와 유적의 성격, 유물을 조사하고, 사진촬영, 드론촬영, 주민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결과 71개소 중 유적중복 4개소[2], 행정구역개편 1개소[3] 등 5개소를 조사목록에서 삭제하였다. 그리고 남양주 내각리 배나무골 태봉, 안성 배태리 태봉[4], 포천 가채리 태봉, 포천 주원리 태봉 4개소를 조사목록에 추가하여 조사대상목록을 70개소로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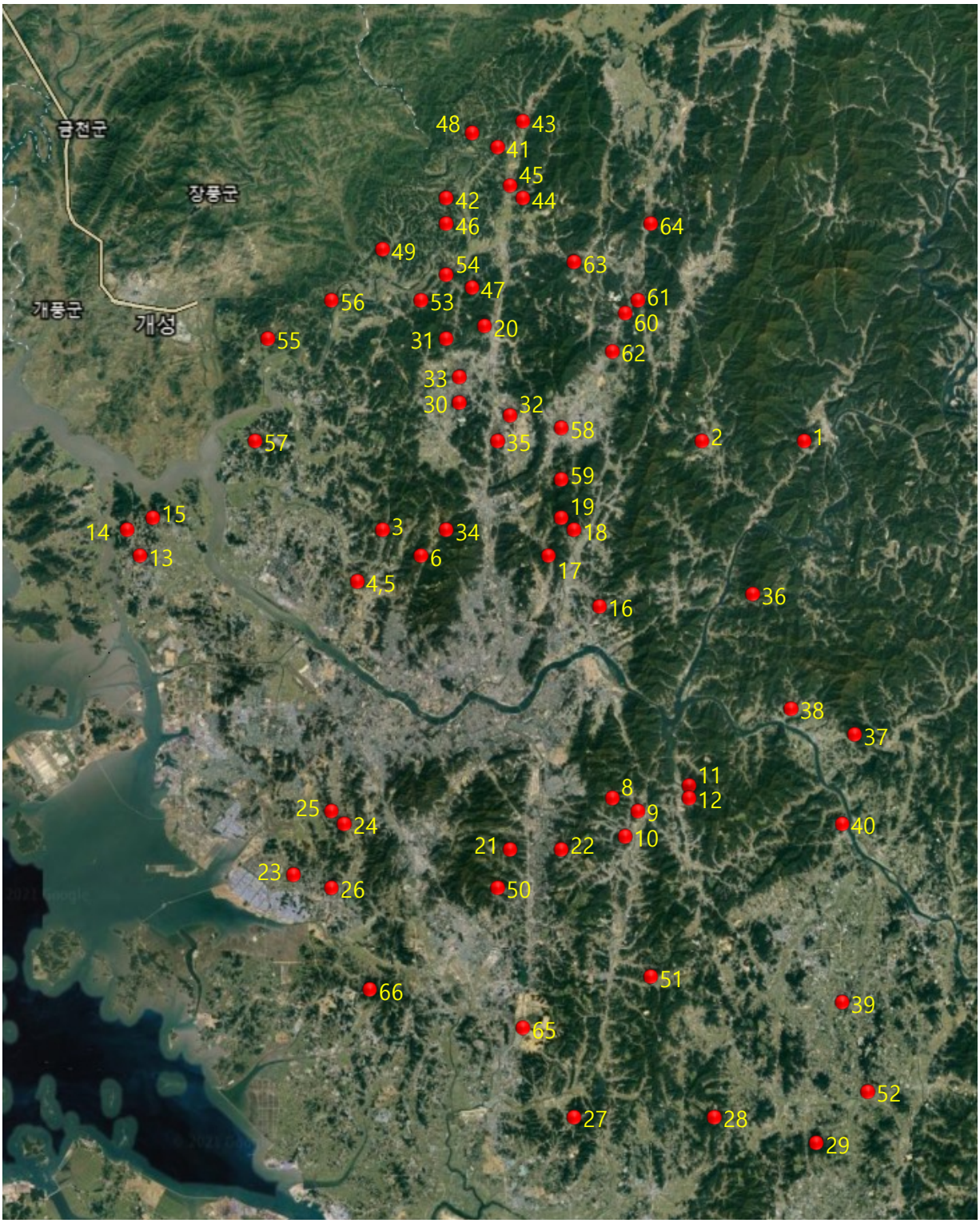
그리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산성에서 유래된 지명 등 왕실 장태와 무관한 4개소[5]를 추가로 삭제하였고, 고양 효자동 청담촌 왕자 성수 태실은 위치를 찾지 못해 조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번 보고서에는 모두 65개소의 태봉을 수록하게 되었다.

1 연천 적거리 태봉은 유실지뢰 위험이 해제된 2021년 4월 14일 조사하였다.
2 양평 수입리 태봉과 수입리 귀실 태봉, 양평 옥천리 태봉과 제안대군 태실은 같은 태봉으로 파악하였고, 파주 백연리 태봉은 정자리 태봉으로, 안성 미장리 삼태봉은 안성 배태리 태봉으로 수정하여 삭제하였다.
3 김포 대곡리 태봉은 1995년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통합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2020년 7월 7일 김희태(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장)의 민원에 의한 제보로 확인되었다.
5 남양주 내곡리 태묘산, 양주 한산리 태옥산, 용인 좌항리 태봉, 화성 관항리 태봉을 보고서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표 2> 경기도 태봉 조사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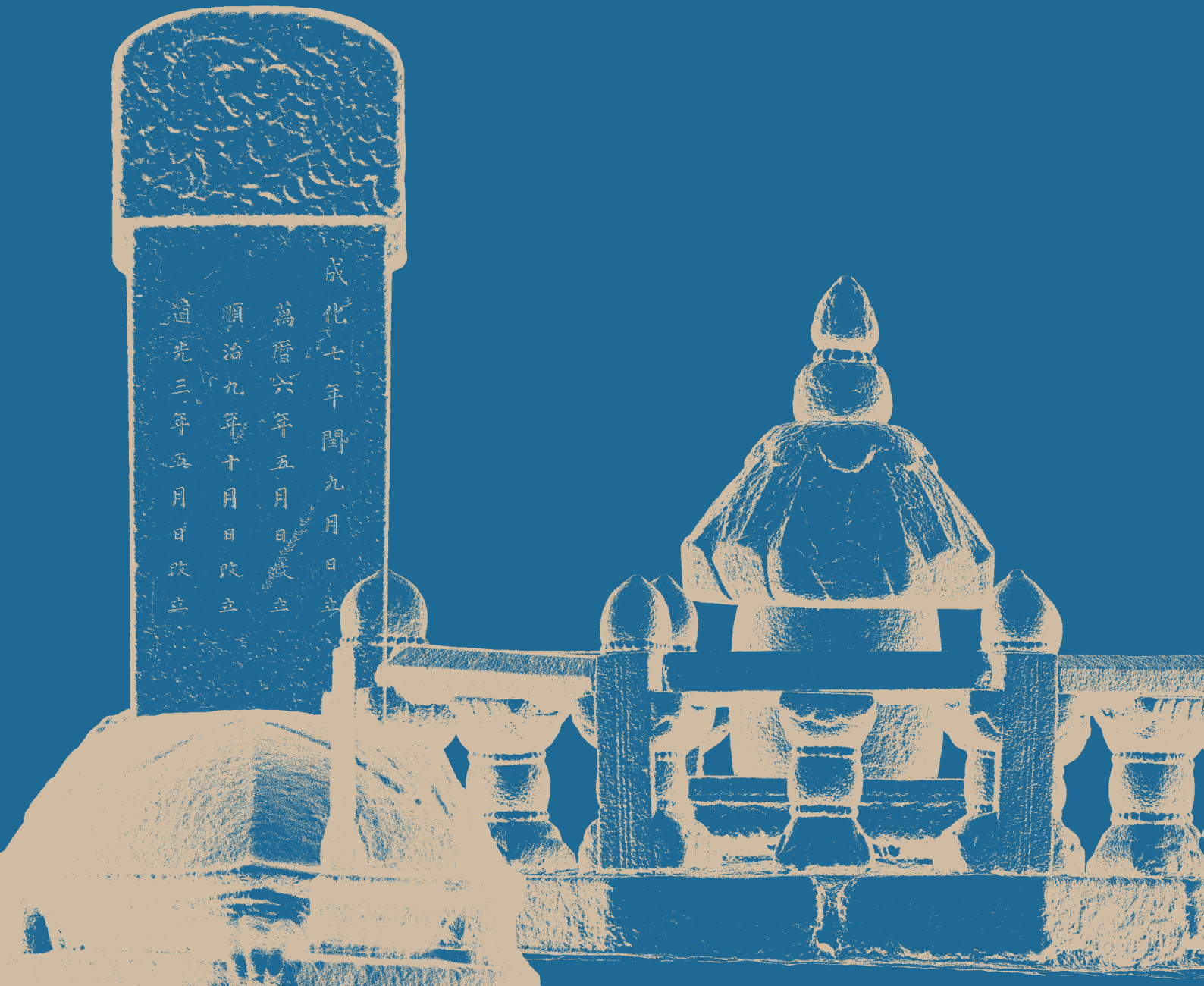
연번	지역	유적명	태주	주소	비고
1	가평	상색리 태실	중종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112	
2		태봉리 태실	영창대군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115-1	
3	고양	벽제동 태봉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63	
4		대자동 묘소병장 태실	정소공주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102(서삼릉)	분묘병장
5		신도동 묘소병장 태실	고종4남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102(서삼릉)	분묘병장
6		지축동 태실	성종왕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 1-11	
7		효자동 청담촌	왕자성수	?	미조사
8	광주	목현동 태봉		광주시 목현동 697-8	
9		탄벌동 태봉		광주시 탄벌동 산73	
10		태전리 태실	성종	광주시 태전동 265-1(창경궁)	
11		원당리 뒷태봉 태실	성종왕녀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11-1	
12		원당리 앞태봉 태실	왕자돈수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30	
13	김포	고양리 태실	?	김포시 고양리 산27-1	
14		고막리 태실	신성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65	
15		조강리 태실	인순공주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58-4	이전복원
16	남양주	금곡동 태봉		남양주시 금곡동 산64-12	
17		광전리 태실	왕자금수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39-2	
18		내각리 태실	(왕자수장)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0-2	
19		내각리 배나무골 태실	(왕녀영수)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811-1	
20	동두천	안흥동 독도골 태봉		동두천시 안흥동 산7-1	
21	성남	대장동 태봉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13	
22		율동 태봉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2-1	
23	시흥	군자동 태봉		시흥시 거모동 1769	태봉멸실
24		금이동 태봉		시흥시 금이동 43-5	
25		무지동 태실	?	시흥시 무지내동 산16	
26	안산	고잔동 태실	숙종왕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0(안산문화원)	태봉멸실
27	안성	성은리 태실	영조옹주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산31	
28		배태리 태실	성종왕자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46	
29		화봉리 태봉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124-1	태봉멸실
30	양주	상수리 태봉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19-1	
31		황방리 태실	정혜옹주	양주시 남면 황방리 87-1	태봉멸실
32		덕정동 태봉		양주시 덕정동 산3-1	
33		봉암리 태봉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45-11 / 산72-2	
34		울대리 태실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산62-2	
35		고읍동 태봉		양주시 회천읍 고읍동 산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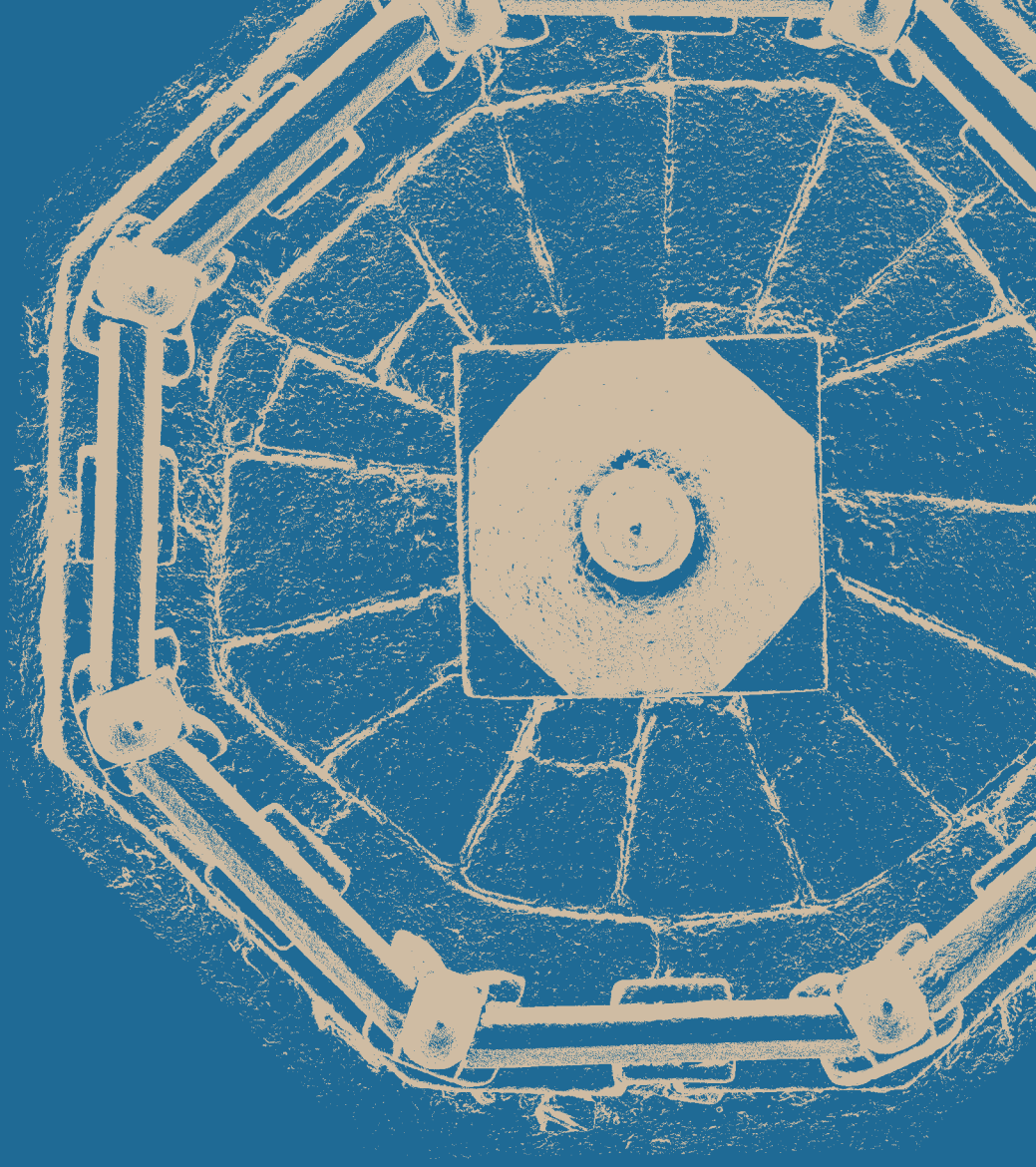
연번	지역	유적명	태주	주소	비고
36	양평	수입리 태봉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16	
37		대흥리 태실	왕자부수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324-5	
38		옥천리 태실	제안대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506-9	
39	여주	태평리 대명산 태봉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산30-1	
40		외평리 태봉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산36-2, 산36-7, 산45-1, 이포리 산5-1, 산5-9	
41	연천	옥계리 태봉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산150	
42		유촌리 태실	(화덕옹주)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산127	
43		도신리 태봉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33-1	
44		동막리 샘골 태실	?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55-2	
45		동막리 부물현 태실	혜정옹주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71-1	
46		노동리 태봉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산103	
47		양원리 태봉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278-1	
48		적거리 태봉		연천군 중 면 적거리 산117	
49		두일리 태봉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790-2	태봉멸실
50	용인	신봉동 태봉		용인시 수지구 신봉2동 태봉골 433-1	태봉멸실
51		주북리 태봉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산102-21	
52	이천	제요리 종태봉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산35-1	
53	파주	객현리 태봉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71, 산69	
54		어유지리 태실	영산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산76-1, 산77	
55		정자리 태실	성종왕자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67	
56		용산리 모녀봉 태봉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산7	
57		축현리 태실	?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산96-1	
58	포천	송우리 태실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산28-6	
59		무봉리 태실	영조8왕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32	
60		만세교리 태실	화완옹주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13-2	
61		금주리 태실	?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480	
62		가채리 태봉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14	
63		주원리 군자동 태실	?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248	
64		성동리 태실	익종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산95-1	
65	화성	송 동(산척리) 태실	선조왕녀	화성시 송 동 727(동탄면 산척리 212)	
66		자안리 태봉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5-2	



<그림 1> 경기도 태봉 분포현황도

태실 개관





01

태실의 기원과 전개

A. 태실의 기원

1. 신라시대 태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태胎를 처리하는 습속習俗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대에 와서도 태를 땅에 묻거나[埋胎], 불에 태우거나[燒胎], 물에 띄워 보내거나[水胎], 또는 태를 말려서 보관하는[乾胎] 등 다양하게 민간民間에 행해져 왔다.[1] 그러나 지금은 과학의 발달과 시대의 변화로 이러한 풍속風俗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장태방법과 달리 옛날 왕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독특한 방식으로 태를 처리하는 특유의 장태문화가 있었다. 즉 아기의 태를 태호胎壺에 담아 명당明堂·길지吉地에 해당되는 산山을 찾아 그 정상에 묻고 보호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태실胎室'이라 한다. 이와 같은 태실문화는 삼한시대부터 시행되었다고 전傳하나 신빙성이 떨어지며,[2] 문헌사료에 의하면 신라시대 김유신金庾信(595~673)의 태실이 최초로 확인된다.

> *① 만노군萬弩郡은 지금의 진주鎭州(지금 충북 진천)이다. 처음 유신庾信의 태胎를 높은 산[高山]에 묻었으므로 지금까지 태령산胎靈山이라 한다.*
>
> *(『삼국사기』(1145) 권41 열전1 김유신 상)*

> *② 진주 … 태령산【신라 때 만노군 태수 김서현의 아내 만명이 유신을 낳고 태를 현의 남쪽 15리에 묻으니 변하여 신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태령산이라고 이름 하였다. 신라 때부터 사우를 짓고 봄·가을로 향을 내려 제사를 지내니 고려에서도 그대로 하였다.】이 있다.*
>
> *(『고려사』(1451)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청주목 진주)*

> *③ 태령산胎靈山 : 신라 진평왕 때 만노군 태수 김서현의 아내 만명이 임신한지 20개월 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유신이라 하고 태를 현의 남쪽 15리에 묻었는데, 변하여 신神이 되었으므로 태*

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산속편-』 상·하; 임동권, 1999, 『한국의 민속』,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55~58쪽.

령산이라 하였다. 신라 때부터 사우를 짓고 봄·가을에 향을 내리어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따라 행하였다. 본조 태종 무인戊寅에[3] 이르러 처음으로 국가제사를 정지하고 소재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했다. 속칭 태산胎山이라 한다.

(『세종실록지리지』(1432) 권149 충청도 청주목 진천현)

④ 태령산을 지나다.

자주에 "김유신 태를 묻은 봉우리다."라 하였다.
장군께서 남긴 은택 사람들의 맘에 있어
태봉胎峯에다 제사 지냄 지금까지 내려왔네
뱃속에다 숨긴 병략 팔진八陳을 터득했고
허리춤의 우는 칼은 그 값어치 천금千金이네
당나라의 늙은 장수 제 맘대로 부렸으며
두 나라의 잔약한 왕 쉽게 사로잡았다네
만고萬古토록 웅풍 불어 그치지 아니하니
산 가득한 소나무는 용 울음을 우는구나

過胎灵山

自註 金庾信藏胎峯
將軍遺澤在人心
庙庾祀胎峯直到今
肚裏兵藏深八陣
腰間鉤吼直千金
大唐老將從頤指
兩國孱王易手擒
万古雄風吹不歇
滿山松檜作龍吟

(이승소, 『삼탄집』(1513) 권4 시)[4]

⑤ 길상산吉祥山 : 일명 태령산이다. 현의 서쪽 15리에 있으며, 보련산과 서로 연했다. 신라 진평왕 때 만노군 태수 김서현의 아내 만명이 임신한지 20개월 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유신이다. 태를 이 산에 묻고 인하여 길상吉祥이라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16 충청도 진천현 산천)

⑥ 길상산吉祥山 : 〈서쪽 15리에 있다. 목천을 보라〉 신라 김유신을 임신한지 20개월 있다가 낳았는데, 태를 여기에 묻은 까닭으로 또한 이름을 태령이라 하며, 김유신의 사당이 있다.

(『증보문헌비고』(1908) 권21 여지고9 산천3 충청도 진천)

⑦ 태장산胎藏山 : 즉 만노(산)의 한 가지인데 동쪽으로 뻗어 일어나 봉峯이 되었다. 즉 흥무왕 김유신 태를 묻은 곳으로 일명 태령이라 한다.

(『상산지』(1933) 권상 산천)

⑧ 태장산胎藏山 : 만노산 동쪽에 있다. 흥무왕 김유신 태를 묻은 곳이다.

(『조선환여승람』 진천군(1937) 산천)

3 태종 재위기간에 무인년이 없고 태조에 무인년(1398, 태조 7)이 있으므로 '태종'이 아니라 '태조'로 판단된다.
4 이승소(李承召, 1422~1484)의 『三灘集』은 1513년(중종 8)에 간행되었으나. 이 시는 이승소가 1465년(세조 11) 충청도 관찰사로 있는 동안 관내를 순행하면서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1465년에도 계속해서 태실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⑨ 성지城址 : 군중면 문봉리·상계리 : 태장산胎葬山 국유림 : 봉평리 부락의 서쪽 작은 구릉에 있음. 석축으로서 주위 150간 높이 4척 약간 완전함. 김유신의 태봉胎峯이라는 전설이 있음.

(조선총독부, 1942, 「충청북도 진천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93쪽)

사료 ①~⑨는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시작으로 만노군 태수 김서현의 부인 만명이 20개월 만에 김유신을 낳아 태를 진천현 높은 산[高山]에 묻었는데, 이로 인해 그 산을 태령산(태봉·길상산·태장산)이라 하였으며, 사후에는 사우를 짓고 국가에서 제사를 거행하였다는 내용이다.

김유신은 595년(신라 진평왕 17)에 출생하였으므로 6세기 말에는 신라에 장태풍속이 있었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김유신은 가야 왕족의 후손으로 김유신의 태를 묻은 사람은 그의 부모였으므로 장태풍속, 즉 태실 조성은 김유신의 부모세대 이전부터, 즉 늦어도 6세기 중엽부터 신라나 가야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당시 장태풍속과 태실 조성은 귀족이나 왕실을 중심으로 늦어도 6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유신의 장태 사례만 가지고 이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김유신 가문에만 이러한 풍습이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대의 다른 귀족층 또는 왕실에서도 장태가 행해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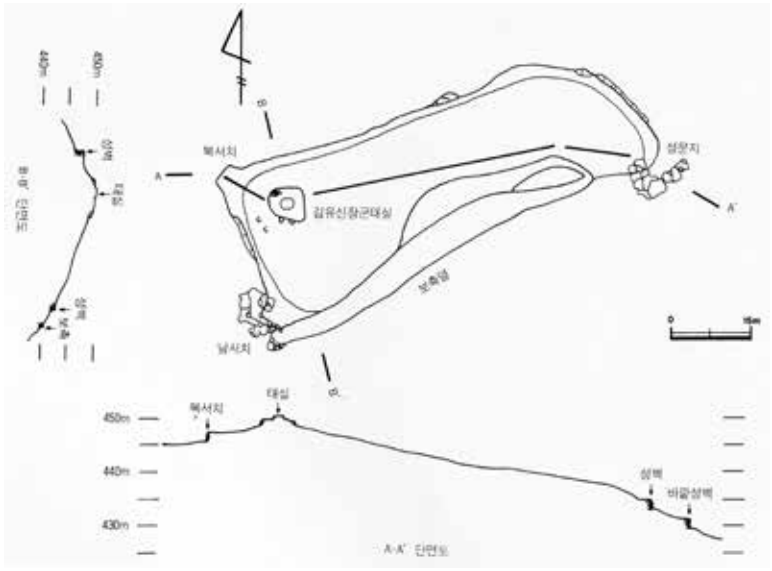
또 문헌사료의 김유신 태실은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진주鎭州와 진천鎭川은 지금 충청북도 진천으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산20번지의 태령산(해발 454m, 일명 태봉·태산·길상산·태장산) 정상에 김유신 태실이 있다.[5](그림 1-①)

① 태령산 원경(남동→북서)

② 김유신 태실 근경(현재)

5 이곳 주변에 있는 김유신장군 탄생지는 '김유신장군 유허지(金庾信將軍遺墟址)'라는 명칭으로 1988년 9월 30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79호로 지정되고, 김유신장군 태실은 '김유신태실 및 돌담'이라는 명칭으로 1997년 6월 27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되었다가, 이들을 합쳐 '진천 김유신 탄생지(鎭川 金庾信 誕生址)와 태실(胎室)'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11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14호로 지정되었다.

③ 김유신 태실과 태령산성 원경(현재)



④ 김유신 태실과 태령산성 평·단면도(현재)[6]

⑤ 김유신 태실 전경(1961년 2월 촬영)

〈그림 1〉 김유신 태실과 태령산성

현재 김유신 태실은 산 정상부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평면 원형으로 가장자리에 2~3단의 호석護石을 돌리고 그 안쪽에 흙을 넣고 상부를 편평하게 하여 잔디를 심은 형태이며, 주위로는 태령산성이 돌려져 있다. 태실 하단의 석축은 현고 약 1.2~1.8m, 직경 약 9m의 타원형으로 남아있으며, 태령산성은 높이 1.2~2m, 전체 둘레 약 190m이다. 특히 석축 위 태실은 원래 둥근 반구상半球狀이었는데 헬리포트 건설로 윗면이 유실된 것을 1986년 직경 3m, 높이 35㎝의 평면 원형 석단石壇을 만들고 잔디를 심어 복구하였다[7]고 한다.(그림 1-②~④) 그래서 김유신 태실의 원래 모습[原形]을 평면 원형·단면 반원형의 반구형半球形으로 무덤의 봉분封墳 형태를 한 것으로 추정[8]하여 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이 최근 밝혀졌다. 즉 원래 김유신 태실은 산 정상부에 직경 8m 가량의 둥글고 뾰족한 돌탑 형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5년 2월 군부대에서 이 돌무더기 모양의 태실을 파괴하여 삭평하고 군용헬리콥터장을 만들었으며, 이후 이를 안 관련 종친회의 복구요청으로 그해 5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잘못 복원되었다[9]라는 것이다. 이는 훼손되기 전의 1961년 2월에 찍은 김유신 태실의 사진(그림 1-⑤)에서도 확인되는데, 당시 사진에서 태실은 자연석을 쌓아 원추형 돌무더기 형태를 하고 있어 사실임이 입증된다.[10] 다만 태실 주변에 돌려져 있는 돌담 형태의 태령산성이 태실과 세트인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태령산성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김유신 태실과 같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후술하는 구형왕릉의 석축 담장의 예로 보아 산성이라기보다는 태실을 보호하기 위한 담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11]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의 '산청 전傳 구형왕릉仇衡王陵(사적 제214호)'이 참고 된다.(그림 2) 이 구형왕릉은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 16번지에 위치하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의 기슭에 경사면을 따라 앞쪽에 잡석으로 7단의 기단식 석단을 쌓고 맨 위단 정상부에 타원형의 반구형 돌무덤[封石]을 한 피라밋형 석릉石陵이다. 앞면 중앙에서의 전체 높이 7.15m, 하단 너비 25m이며, 4단 중앙에 높이·너비

6 정영호·조익현, 1999, 『진천김유신장군사적 학술조사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43쪽.

7 정영호·조익현, 1999, 『진천김유신장군사적 학술조사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38쪽; 조익현, 2000, 「진천지역의 김유신사적에 대한 재검토」, 『고문화』 5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60~61쪽;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1, 『문화유적 분포지도 -진천군-』, 128쪽.

8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34쪽;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64~68쪽.

9 김정하, 2018,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 태실에 대한 소고」, 『남강문학』 10, 남강문학회.

10 도문(道門)의 식자(識者)에 의하면, 김유신 태실은 관련 종친회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왔고, 그림 1-⑤의 사진은 종친회 관계자가 1961년 2월경 찍은 것이라 한다. 또 1961년 사진의 돌무더기 형태 김유신 태실은 경남 산청군 왕산의 가락국 전 구형왕릉과 매우 비슷하며, 태실 상부에 세워진 직경 약 10㎝, 높이 약 7~8m의 참나무 기둥 2개는 1958년 미군부대가 군사용 지도제작을 위해 세운 삼각점 표식이라 하였다. 그리고 태실 주변에서 고려~조선시대 파란색·하얀색 도자기편들이 수습되었는데, 이로 보아 옛날에도 지속적으로 태실에 제사를 지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종친회에서는 지금도 김유신 태실이 파괴되기 전의 모습으로 복원되기를 원하고 있다.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은 향후 더 상세히 파악하여 종친회의 바람처럼 하루바삐 파괴되기 전의 김유신 태실로 복원하여 그동안의 오류를 바로 잡았으면 한다. 1961년 2월의 김유신 태실 사진과 태령산 정상의 항공사진을 제공해준 종친회 관계자와 진천군청 이인석 학예연구사에게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11 '태령산성(胎靈山城)'으로 불러온 이 석축은 그동안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삼국시대 석성(石城)으로 인식하여왔다. 그러나 정영호·조익현(1999, 『진천김유신장군사적 학술조사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39쪽)은 산성을 겸해 축조된 태실 보호시설로 보았으며, 충북대학교 박물관(2001, 『문화유적 분포지도 -진천군-』, 128쪽)은 석축이 여느 산성과 달리 낮고 폭이 좁아 산성이라기보다는 태실을 보호하고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 담장으로 보았다. 또한 이경식(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전 -성곽·봉수편-』, 국립문화재연구소, 1217쪽)은 이 태령산성을 산성과 담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석축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필자도 두 번이나 현지 조사한 결과, 석축의 높이가 1.2~2m으로 매우 낮고 폭도 좁아 산성의 주 목적인 방어 기능을 하기에 매우 부족하며, 또 물[水]을 보관하는 집수정이나 못[池]이 없어 장기간 방어를 위한 산성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전 구형왕릉 앞면 전경

② 전 구형왕릉 앞·좌측면 전경

③ 전 구형왕릉 우측면 전경

④ 전 구형왕릉 봉석 좌측면·뒷면 전경

〈그림 2〉 전 구형왕릉 전경

40㎝, 깊이 68㎝의 감실을 설치하였다. 주변으로는 높이 1m 내외의 석축 담장을 돌려 왕릉을 보호하고 있다. 왕릉 주위에는 김유신 장군의 시능터[侍陵址]와 사대비射臺碑가 있다.

가야 구형왕릉은 가락국(금관가야)의 마지막 제10대 구해仇亥 또는 양왕讓王의 능이다. 이 구형왕릉은 6세기 중엽에, 김유신 태실은 6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조성 시기가 비슷하다. 구형왕(재위 521~532)은 김유신의 증조부로 전술했듯이 김유신 태실은 그의 아버지 김서현이 조성했다. 그런데 김유신 태실과 구형왕릉은 잡석으로 쌓은 돌무더기와 주변에 석축 돌담이 돌려져있는 등 전체적인 외형이 너무나 비슷하다. 그러므로 김서현이 아들 유신의 태실을 조성하면서 그의 조부인 구형왕의 능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추론으로 보아 1995년 2월 파괴되기 전의 원추형 돌탑모양(**그림 1-⑤**)은 김유신 태실 처음 조성 당시의 형태를 간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김유신 태실 구조는 원형과 다르게 잘못 복원된 것이다.

⑩ 서당西堂의 법을 이었고, 명주溟州(지금의 강릉)에서 살았다. 선사의 휘諱는 도의道義요, 속성은 왕王씨이다. 북한군北漢郡 사람이다. 임신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흰 무지개가 뻗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는 스님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니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부모는 깜짝 놀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런 상서로움을 보건대 반드시 성스러운 자식[聖子]을 얻을 것이오." 그 뒤로 반달이 지나자 태기가 있었는데, 태중에서 서른 아홉 달 만에 태어났다. 탄생하던 날 저녁에 갑자기 기이한 스님[異僧]이 석장錫杖을 짚고 문 앞에

와서 "오늘 낳으신 아기의 태[兒胎]를 강가의 언덕[臨河之埒]에 두시오"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마침내 스님의 말에 따라 태를 그곳에 묻으니[將胎埋之], 큰 사슴이 와서 한 해 내내 떠나지 않고 지켰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도 해치려는 생각을 내지 않았다. 이러한 상서祥瑞로 하여 출가出家하였기에 법호法號를 명적明寂이라 했다. … 그 밖의 것은 비문碑文과 같다.

(『조당집』(952) 권17 설악진전사원적선사)

사료 ⑩은 중국의 남종선南宗禪을 821년(헌덕왕 13) 신라에 전한 도의선사道義禪師(765년 전후~830년 전후)의 태를 묻었다는 기록이다. 도의선사가 태어난 저녁에 이승이 나타나 태를 강가 언덕에 매태埋胎하라고 일러주었고, 이에 따라 태를 묻으니 큰 사슴이 와서 지켰다는 것으로 도의선사가 765년(혜공왕 1) 전후에 태어났으므로 8세기 중엽 민간民間에 장태문화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사슴이 이곳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태와 매태 장소의 신성성을 암시한다. 결국 태를 소중히 하는 장태풍습은 신라 6세기 중엽부터 귀족층이나 왕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8세기 중엽에는 민간에까지 퍼져있었음이 확인된다.

2. 고려시대 태실

1) 태실의 현황

고려시대 태실에 대해 찾아보면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고려시대 태실 현황12

번호	시기/ 태주	위 치	전거	
			구전	사료
1	고려시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산86 (태봉산)	○	
2	고려시대	충남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리/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인산리 (태비산, 태봉)	○	○
3	고려시대	충남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327-3 (태봉산)	○	
4	고려시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18 (태봉산)	○	
5	고려시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산57-1 (태봉)	○	
6	고려시대(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불온면 삼성리/ 내가면 고천리 (태미산, 퇴미산, 퇴모산, 태봉산)	○	
7	고려시대(왕)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태봉, 구태봉)	○	
8	고려시대(왕)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산63 (태봉)	○	
9	고려시대(왕)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산52-1 (태봉산)	○	
10	고려시대(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태봉, 내태봉)	○	
11	고려시대(왕자)	죽령의 남쪽·안동의 북쪽 소백산 앞 순흥 (취화봉)		○
12	고려시대(왕자)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태봉, 만두산)		○
13	고려시대(왕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산28-6·산29 (태봉산, 옥녀봉)	○	
14	1대 태조(太祖)	경기도 개성시 박연리[대흥동 태안] (태봉산)		○
15	왕건(王建)의 큰 아들	전남 나주시 봉황면 황룡리 (태봉산)	○	
16	11대 문종(文宗)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1리 산356·산356-1 (태봉, 망산)	○	
17	12대 순종(順宗)	강성군[현, 경남 진주시] (장수사)		○
18	17대 인종(仁宗)	경남 밀양군 초동면 성만리 산107-2 (태봉산, 구령산)	○	○
19	18대 의종(毅宗)	신령군[현, 경북 영천시 신녕면·화산면·화북면·화남면과 경산시 와촌면 일대] (향복사)		○
20	22대 강종(康宗, 1172, 명종 2)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용문사, 용문산[북봉], 좌비봉)/ 기양현 승격	○	○
21	20대 신종(神宗, 1198, 신종 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태봉산)/ 김포현 승격	○	○
22	24대 원종(元宗)	황해도 서흥군/ 서흥현 승격		○
23	25대 충렬왕(忠烈王, 1274, 충렬왕 즉위년)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초암동, 소백산, 태봉산)/ 흥녕현 승격	○	○
24	충렬왕후 (제국대장공주)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소백산, 태봉산)		○
25	26대 충선왕(忠宣王, 1278, 충렬왕 4)	경상도 안동부[현, 경북 안동]		○

12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70~80쪽.

번호	시기/ 태주	위 치	전거	
			구전	사료
26	27대 충숙왕(忠肅王, 1313, 충숙왕 즉위년)	경북 영주시 순흥 (소백산, 경원봉)/ 흥주 승격	○	○
27	29대 충목왕(忠穆王, 1347, 충목왕 3)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17 (욱금동, 소백산, 태봉산, 문필봉)/ 순흥부 승격	○	○
28	31대 공민왕(恭愍王, 1353, 공민왕 2)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산104-1(치악산[군둔치=고둔치], 태봉산, 치악태봉) / 원주목 승격	○	○
29	31대 공민왕 때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태봉)	○	
30	32대 우왕(禑王, 1376, 우왕 2)	경북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산39(태봉, 태복등)/ 예안군 승격	○	○
31	32대 우왕(禑王)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874-3 (태봉산)	○	
32	33대 창왕(昌王)	?		○

이와 같이 고려시대 태실은 32개소가 조사된다. 이중 1·3·4·5·9·12·13·16번 등 8개소의 태실은 조선시대의 태함이나 아기비, 가봉태석 등이 확인된다.[13] 이렇게 조선시대 유물이 확인된 8곳을 제외한 24개소의 태실 중 태주를 알 수 없는 2번 고려시대 태실과 24번 충렬왕후인 제국대장공주 태실을 제외하면 22개소가 고려 태실로 볼 수 있으나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또 31번의 안동 사신리에서 조사되는 석물들은 태실과 전혀 관련없는 주변 축대에서 이동된 돌들로 밝혀졌다. 그리고 〈표 1〉 중 신빙성이 있는 문헌사료를 보면, 태조를 비롯하여 14개소 태실이 있는데, 이들은 고려시대 태실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태실들 중 고고학적 자료로는 현재까지 인종 태실만 확인되고 있다.

⑪ 구령산 : 수산현의 북쪽 15리에 있다. 고려 인종의 태가 이곳에 안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26 경상도 밀양도호부 산천; 『밀양부읍지』(1781~1785) 산천; 『교남지』(1867~1873) 권52 밀양군 산천)

⑫ 구령리 : 북쪽에 구령산이 있는데, 곧 덕성산 아래에 있는 하나의 작은 산이다. 이로 인해 마을 이름이 생겼다. 고려 인종의 태가 이곳에 안치되었다고 『승람』에 나온다.

(『밀주구지』(1661~1720) 상서면 방리; 『밀주지』(1932) 권1 밀양도호부지리 상서면)

⑬ 구령산 : 부의 남쪽 30리에 있다. 영현에서 뻗어 나온다. 고려 인종의 태가 이곳에 안치되었다.

(『여지도서』(1757~1765) 경상도 밀양도호부 산천)

⑭ 태봉 : 상서·초동면 성만리 : 토목국소관 : 수산진을 서북에 거리를 둔 약 1리에 있다. 기단부의 둘레 약 5간, 높이 약 4척이다. 『여지승람』에 "구령산은 수산현 북쪽 15리에 있다. 고려 인종

13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77~82쪽.

태를 이곳에 안치하였다.[龜齡山在守山縣北十五里高麗仁宗胎安于此]"라고 한다.

(조선총독부, 1942, 「경상남도 밀양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361쪽)

사료 ⑪~⑭는 경남 밀양 성만리 구령산龜齡山에 인종 태실이 있다는 문헌기록들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록이 있는데, 모두 동일한 내용들이다.[14]

고려 인종(1109. 10. 4.~1146. 2. 28., 재위 1122. 4.~1146. 2.)은 1115년(예종 10) 2월 7살에 왕태자에 책봉되었으며, 1122년(예종 17) 14살에 왕위에 올랐다. 고려시대에는 왕과 왕위를 이을 태자만 태실이 조성되었으므로 인종 태실은 후술하겠지만 1115년 2월~1146년 2월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2) 태실의 조성시기와 대상

우리나라 장태풍속은 고려시대에도 계속되는데, 문헌사료에 고려 초부터 확인된다.

⑮ … 대사는 법휘法諱가 형미逈微이고, 속성은 최씨崔氏이다. … 함통 5년(864) 4월 10일에 탄생하였다. 대사는 날 때부터 남과 다른 모습이었으며, … 다음 해(919) 3월에 드디어 문제자門弟子 한준과 화백 등을 불러 말하기를 "개주開州(개성)의 오관산五冠山은 진인眞人의 장태처藏胎處이다. 이 산은 산세가 매우 아름답고, 지맥地脈이 편평하고 안정되어 있어 무덤을 쓸 만한 곳으로 마땅하니, 반드시 종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님들과 유사有司는 빨리 산사山寺를 짓고 석탑을 조성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날에 이르러 먼저 절을 세우고, 또 높은 탑을 만들었다. 탑이 만들어지자 스님들이 울면서 시신을 받들어 (새로) 만든 무덤에 옮겨 장사를 지냈다. 2년이 지나 (임금께서) 조詔를 내려 말하기를, "선사의 덕을 널리 드러내기 위해서는 의당 아름다운 이름을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고 하였다. 시호를 내려 선각대사先覺大師라 하고 탑의 이름은 편광영탑遍光靈塔이라 하였다. 이에 절 이름을 내려 태안泰安이라 하였으니, 돌아가신 이를 추모하는 영화가 이보다 성한 사람이 없었다.

(「고려국고무위갑사선각대사편광영탑비명」(921))[15]

사료 ⑮는 '무위사 선각대사 편광탑비'의 비문이다. 이를 살펴보면 고려 태조 왕건은 무주(지금의 전남 광주) 출신의 선각대사 형미(864~917)가 죽자 919년(태조 2) 3월 그의 제자들에게 진인의 태가 묻힌 개주(지금

14 『경상도읍지』(1832) 밀양부읍지 산천; 『영지선 상 좌도』(1892) 밀양 산천; 『조선환여승람』 밀양군(1938) 산천; 『밀주지』(조선시대) 권1 명승급고적; 『밀주읍지』(조선시대) 산천.

15 김인호(1996, 「11. 무위사 선각대사 편광탑비」, 『역주 나말여초금석문(하) 역주 편』, 한국역사연구회 중세1분과 나말여초연구반, 226~245쪽)의 번역을 기본으로 하여 최연식(2011, 「2. 무위사 선각대사비」, 『한국금석문집성(19) 고려3 비문3(해설편)』,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 20~34쪽)의 번역을 참고하여 필자가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이 선각대사 형미(864~917)의 정식 탑비명은 '高麗國故無爲岬寺先覺大師遍光靈塔碑銘'으로 921년 최언위가 비문을 지은 후 형미 사후 30년째인 946년(정종 1)에 묘탑이 있는 개성 오관산 태안사가 아닌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에 있는 무위사에 비(보물 제507호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를 건립하였다.

황해도 개성)의 오관산에 추모하는 절을 짓고 그의 유골을 봉안하는 탑을 세우게 하였으며, 921년(태조 4) 절과 탑이 완성되자 최언위로 하여금 형미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을 짓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려 태조가 919년(태조 2)에 개성에 있는 오관산이 진인의 장태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이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겠지만, 당시 나말여초에는 장태습속이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의 〈표 1〉에서도 고려 1대 태조(877~943, 재위 918~943)부터 태실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17대 인종(1109~1146, 재위 1122~1146)과 19대 명종(1131~1202, 재위 1170~1197) 이후부터 대부분 조성되었다.

> *⑯ … 좌승선 이준의가 아뢰기를 "여러 주의 임내 53현에 각기 감무를 두고, 안동 임내 보주甫州는 태자(강종)의 태를 묻은 곳이므로 현령으로 올리고, 고성현에는 위 1원을 두소서."라고 하거늘 왕이 군신에게 명하여 의론하게 하니, … 시비하는 이가 없었다.*
>
> *(『고려사』(1451) 권19 세가19 명종1 명종 임진 2년(1172) 6월)*

사료 ⑯을 보면, 태자인 강종의 태를 보주(지금 경북 예천군 용문)에 묻었다고 하여 기양현으로 그 읍격을 승격시켰다. 이후 임금의 태를 묻은 곳은 모두 읍호를 승격시키고 있는 것이 〈표 1〉에서 확인된다. 또 태실이 조성된 지역은 명종 때부터 모두 그 읍격邑格이 한 등급 승격된다. 이러한 승격제도는 고려시대 와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태실 조성은 고려 초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제도적으로 성립된 것 같다. 특히 다음의 문헌사료에서 고려 왕실이 태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 알 수 있다.

> *⑰ … 왜구가 바야흐로 일어남으로 … 신우가 안동부사 이충부에게 내구의 말을 하사하면서 말하기를, "힘을 다해 방어하여서 태실을 보호하라."고 하였다.*
>
> *(『고려사』(1451) 권135 열전48 신우 계해 9년(1383) 7월)*

사료 ⑰은 1383년(우왕 9) 왜구가 침입해 왔을 때 우왕(1365~1389, 재위 1374~1388)이 경상도 안동에 있는 자신의 태실을 보호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왕이 직접 말을 하사할 정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였음이 잘 나타난다. 즉 고려시대에는 태실 조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제도적으로 시행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고려의 과거제도에서도 파악된다.

> *⑱ …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채용하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였으며, 이때로부터 문풍文風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법은 대체로 당나라 제도를 많이 채용한 것이다. … 과거에는 제술, 명경 두 과가 있었고 의복, 지리, 율학, 서학, 산학, 삼례, 삼전, 하론 등 잡과가 있었는데 각기 그 전문 과목에 대하여 시험치고 출신出身을 주었다. … 지리업地理業의 방식은 첩경貼經 방법으로 2일 내에 실시하되 첫날에는 『신집지리경新集地理經』에 10조條를, 다음날에는 『유씨서劉氏書』에 10조를 첩경 시험 쳐 이틀 동안 것이 모두 6조 이상씩 통通하여야 한다. 『지리결경地理決經』 8권, 『경위령經緯令』 2권 합하여 10권을 읽히는데, 문리와 글 뜻을 잘 안 것이 여섯 궤机가 되어야 하며, 문*

리 잘 안 것이 네 궤가 되어야 하며, 『지경경地鏡經』 4권, 『구시결口示決』 4권, 『태장경胎藏經』 1권, 『가결訶決』 1권 합하여 10권을 읽는데, 문리와 글 뜻을 잘 안 것이 여섯 궤라야 하는데, 문리를 잘 안 것이 네 궤가 되어야 한다. 또 소씨서 10권을 읽는데, 그 안에서 문리를 잘 안 것이 한 궤가 되어야 한다.

(『고려사』(1451) 권73 지27 선거1 과목1 과거 인종 14년(1136) 11월)

사료 ⑱에서 잡과 지리업 과거시험에 『태장경』을 읽게 하여 문장을 파독把讀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증보문헌비고』[16]에서도 확인된다. 이 『태장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다.

⑲ 풍수학風水學에서 아뢰기를, "『태장경胎藏經』에 이르기를, '대체 하늘이 만물을 낳는데 사람으로써 귀하게 여기며, 사람이 날 때는 태胎로 인하여 장성하게 되는데, 하물며 그 현명할지 어리석을지[賢愚]와 잘될지 못될지[盛衰]가 모두 태에 달려 있으니 태란 것은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릇 태에서 내려온 지 3월에는 명칭을 화정태和正胎라 하고, 5월에는 연장태軟藏胎라 하고, 3년에는 장응태壯應胎라 하고, 5년에는 중부태中符胎라 하고, 7년에는 향양태向陽胎라 하고, 15년에는 과양태過陽胎라 하니, 이를 육안태법六安胎法이라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경서에 이르기를, '남자가 15세가 되면 학문에 뜻을 둘 나이고, 여자가 15세가 되면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라.'하였으니, 그렇다면 남자는 마땅히 연장태·중부태·향양태 중의 연월에서 간수하여 학문에 뜻을 둘 나이를 기다려야만 하고, 여자도 또한 화정태·장응태·과양태의 연월에서 간수하여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를 기다려야만 하니, 남자가 만약 좋은 땅을 만난다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구경九經에 정통精通하며 단상團爽하여 병이 없으며, 관직이 높은 곳에 승진되는 것입니다.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1450) 9월 8일(기유))

이렇게 태를 묻는 시기와 이유를 기록한 『태장경』이 풍수관료의 과거시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풍수사의 고유 업무 중 하나가 장태였으며, 국가차원에서 태실이 조성되어 제도로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성립 시기는 고려 인종 전후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려 왕실의 태실문화는 의례화되어 제도적으로 성립·시행되었으나,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성행盛行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에 태실 조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다음의 기록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⑳ 풍수학 제조 전 중추원 조비형이 아뢰기를, " … 전날 고려 때에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지리의 서적(풍수서적)을 청했던 바, 송 태조가 필사본을 보냈기에 그것에 따라서 시행은 하였으나 그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고, 겨우 이 이치를 조금 안다는 자도 아직 오활하고 괴망하여 상식없는 말을 면하지 못하여서 유식한 학자들에게 미워서 싫어함 이 되었으니, 어찌 음양학의 죄라 하겠습니까. 우리 왕조에서 옛 것을 고치고 새 것을 정함에 있어 모든 학문에 다 훈도訓導를 두어서 정밀

16 『증보문헌비고』(1908) 권191 선거고9 과거제도8 잡과 고려 인종 14년(1136).

하게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사온 데, 오직 풍수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논설하는 자들이 각기 편벽된 소견을 가지고서 모두 제가 옳다하고 서로 배척하여 시비를 다투오니, 어찌 음양의 일에 정한 이치가 없어서 한결로 귀착되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몸으로서 두 번째 제조의 어명을 받자오매, 이 학문이 잘못 쓰이고 있음이 깊이 걱정되옵니다. 원하건대 유신들 중에 뜻있는 자를 명하시어 훈도를 삼아서 여러 서적을 참고하고 징 험하여 깊이 깊이 연구하여 한결로 귀착되게 하여 신진의 길을 열어 주시면, 사람들이 여러 갈림길에 미혹하지 아니하고 술법이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예조에 서 의논하여 아뢰게 한 바,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조에 명하여 적당한 자를 가리어 훈에 임명하게 하소서."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7월 22일(계유))

사료 ⑳은 조선 초 조비형이 세종에게 풍수지리에 대한 연구를 국가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하며 허락을 얻어내는 과정으로 고려시대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동안 한국의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과 결부되어 고려시대에 풍미하였다[17]고 한다. 그러나 사료 ⑳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풍수사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선 초에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려 왕실의 태실 제도는 실시되었으나, 풍수사상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조선 왕실에서 행해진 것처럼 왕성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술한 〈표 1〉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왕과 왕위王位를 이을 세자의 태실뿐이다. 강종과 충선왕은 태자 때 태실이 조성되고, 순종·의종은 알 수 없으나, 나머지는 왕위에 오른 후에 장태되었다. 또 순종·의종과 강종은 태장소胎藏所로서 장수사長壽寺·향복사嚮福寺·용문사龍門寺 등의 사찰이 지정되고 있다. 태장胎藏된 곳의 사원寺院이 왕실 원당願堂으로써 태실 수호사찰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18]

그런데 왕녀의 태실은 전혀 조사되지 않는다. 다만 유일하게 왕비로서 충렬왕(1236~1308, 재위 1274. 6.~1298. 1., 복위 1298. 8.~1308. 7.)의 비인 제국대장공주 장목왕후(1259~1297)의 태가 순흥에 묻혔다고 한다. 이는 『고려사』(1451)에서 확인되지 않고, 『해동지도』(1750~1751) 경상도 풍기현지도 주기의 산천에 '草庵洞 在小白山藏高麗忠烈王后胎[초암동은 소백산에 있으며, 고려 충렬왕후의 태를 묻었다]'라 하여 처음 나오고, 이후 『증보문헌비고』(1908)에 똑같이 기록된다.[19]

그러나 초암동은 이미 충렬왕의 태가 묻힌 곳으로 문헌사료에 나타나므로[20] 이는 오기誤記로 보아야 한다. 즉 '忠烈王胎(충렬왕태)'가 '忠烈王后胎(충렬왕후태)'로 잘못 기록된 것이다. 또 장목왕후는 중국 원 세조의 딸로서 1272년(원종 13)부터 원에 입조해 있던 태자(충렬왕)와 1274년(원종 15) 혼인하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자 1274년 11월 고려에 왔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그녀의 태를 우리나라에 가져와 장태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17 이병도, 1986, 『고려시대의 연구 -특히 도참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18 한기문, 1998,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238~239쪽.

19 『증보문헌비고』(1908) 권231 직관고18 외관2 도호부사 경상도 인동도호부사.

20 『고려사』(1451)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안동부 흥주; 『경상도지리지』(1425) 경상도 순흥도호부; 『세종실록지리지』(1432) 권150 순흥도호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25 경상도 풍기군 산천·고적; 『여지도서』(1757~1765) 경상도 풍기군 산천·고적 및 경상도 순흥부 건치연혁.

3) 태실의 구조

고려시대 태실 중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전술하였듯이 인종 태실뿐이다. 인종 태실은 경남 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산107-2번지의 태봉산에 있다. 태실은 북쪽의 주산인 덕대산(해발 634m)의 지맥이 남쪽으로 내려오다 다시 돌출되어 솟아오른 태봉산(해발 131.8m)의 정상에 있는데, 평면 타원형·단면 반원형의 반구형 봉토(현고 1.2×장축 11m, 장축방향은 남-북)를 하고 있으며, 가운데에 방형의 태함이 도굴로 인해 노출되어 있다. 태봉산의 주위로는 좌청룡·우백호가 돌려져 있고 앞쪽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노출된 태함은 함신과 함개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평면 사각형이며,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함신은 여러 개의 돌로 조립하였는데, 네 면의 각 벽체는 4개의 장대형 석재로 4단을 쌓아올렸으며, 내부 바닥에는 편평한 판석 1개를 깔았다. 함개는 한 돌로 된 판석이다.(그림 3)

① 태봉산 ② 노출된 태함 ③ 도기편 및 자기편

〈그림 3〉 인종 태실과 출토유물

이 태함 내부에서 편 2점이 수습되었다.[21] 편 ①은 동체의 극히 일부가 삼각형편으로 남았는데, 원형을 복원하기 어렵다. 표면에는 유약이 얇게 시유되어 있는 도기다.(그림 3-③-①) 편 ②도 동체의 극히 일부가 사각형편으로 남았는데, 원형을 복원하기 어렵다. 내면에 소성이 불량한 유약이 밝은 황색을 띠고 있어 청자편으로 판단된다. 외면에서는 유약이 관찰되지 않으며 갈회색을 띤다.(그림 3-③-②) 이 편들은 태를 담았던 태호편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는 고려시대이다. 편 2개가 다른 재질로 보아 조선시대처럼 내호와 외호로 된 이중 태호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태함의 내부 바닥에서 작은 회灰 덩어리들이 조사되었는데, 태함 내부의 벽면 틈새를 메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인종 태실은 평면 원형, 단면 반원형의 반구형 봉토를 하여 무덤의 형태를 취한다. 또 인종 태함은 조선시대 태종(1401)과 화의군(1425)·금성대군(1426)·단종(1441)의 평면 방형의 상자형 태함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22]

21 그동안 편 ①은 '연유자기'로 추정하였으나(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3~44쪽;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95~96쪽) 2017년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시 때 필자의 요청으로 유물을 재검토한 결과, '도기'로 판명(국립김해박물관, 2017, 『밀양』, 255~256쪽)되어 이 글에서 바로 잡는다.

22 심현용, 2005,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연구」, 『박물관연보』 2, 강릉대학교박물관.

B. 태실의 전개

1. 조선 전기 태실제도의 확립

조선시대에는 앞 시기와 달리 전국에 수많은 태실이 조성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태실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태실 현황[23]

번호	태주	부	출생일	장태일 / 가봉일	원 위치/ 이전 위치	비고
1	태조 (太祖)	환조 (이자춘)	1335.10.11.	?/ 1393.1.7.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8리 산4 (만인산, 태봉산, 태실산)/ 금산군 추부면 마전9리 산1-8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39 (서삼릉1)	가봉태실, 진주 승격, 의궤
2	정종 (定宗)	태조	1357.7.1.	?/ 1399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산84-2·산84-3 (황악산, 태봉산, 북봉)/ 서삼릉2	가봉태실, 김산군 승격, 직지사
3	태종 (太宗)	〃	1367.5.16.	?/ 1401.10.8.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봉2리 산65 (조곡산)/ 서삼릉3	가봉태실, 성주목 승격, 태봉사
4	세종 (世宗)	태종	1397.4.10.	?/ 1418.8.~11.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산27(소곡산, 큰태봉산)/ 서삼릉4	가봉태실, 곤남군 승격, 서봉사, 의궤
5	소헌왕후 심씨 (昭憲王后 沈氏)	심온	1395	?/ 1438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2리 산22-2 (태봉산)	가봉태실, 초암사
6	문종 (文宗)	세종	1414.10.3.	1439/ 1450	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2 (명봉산, 앞태봉)/ 서삼릉5	가봉태실, 풍기군 승격, 명봉사
7	세조 (世祖)	〃	1417.9.24.	1438.3.10./ 1462.8.~9.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2리 산8 (선석산, 태봉)/ 서삼릉6	가봉태실, 선석사
8	정희왕후 윤씨 (貞熹王后 尹氏)	윤번	1418	?/ 1455~1468	강원도 홍천군 동면 덕치리 산1 (공작산, 태능산)	가봉태실, 수타사
9	안평대군 (安平大君)	세종	1418.9.19.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2리 산8 (선석산, 태봉)	선석사
10	임영대군 (臨瀛大君)	〃	1420.1.17.	1439.5.29.	〃	〃
11	광평대군 (廣平大君)	〃	1425.5.2.	1439.5.24.	〃	〃

23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8~54쪽;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101~112쪽. 이후 추가 조사된 태실을 포함하였다.

번호	태주	부	출생일	장태일 / 가봉일	원 위치/ 이전 위치	비고
12	금성대군 (錦城大君)	〃	1426.3.28.	?	〃	〃
13	평원대군 (平原大君)	〃	1427.11.18.	1439.5.26.	〃	〃
14	영응대군 (永膺大君)	〃	1430.4.11.	1439.8.8.	〃	〃
15	화의군 (和義君)	〃	1425.9.5.	?	〃	〃
16	계양군 (桂陽君)	세종	1427.8.12.	1439.5.24.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2리 산8 (선석산, 태봉)	선석사
17	의창군 (義昌君)	〃	1428.4.10.	1438.3.11.	〃	〃
18	한남군 (漢南君)	〃	1429.8.14.	1439.5.24.	〃	〃
19	밀성군 (密城君)	〃	1430	1439.8.8.	〃	〃
20	수춘군 (壽春君)	〃	1431.1.28.	1439.8.8.	〃	〃
21	익현군 (翼峴君)	〃	1431	1439.8.8.	〃	〃
22	영풍군 (永豊君)	〃	1434	?	〃	〃
23	영해군 (寧海君 玶璋)	〃	1435.3.20.	1439.8.8.	〃	〃
24	담양군 (潭陽君 玶璟)	〃	1439.1.8.	1439.5.24.	〃	〃
25	단종 (端宗)	문종	1441.7.23.	1441.윤11.26.	〃	1차 아기태실, 선석사
				1451. 1.22.~3.6./ 1452~1455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2리 산10 (법림산, 태봉)	2차 아기태실, 가봉태실, 법림사
26	왕자 당 (玶璫)	세종	1442.7.24.	1442.10.23.	〃	
27	예종 (睿宗)	세조	1450.1.1.	1462.10.15./ 1578.10.2.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158 (태실산, 태봉, 큰태봉)/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02 (경기전), 서삼릉7	가봉태실
28	월산대군 (月山大君)	덕종	1454.12.18.	1462.11.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291-1 (우면산, 태봉)	
29	성종 (成宗)	〃	1457.7.30.	1458.3.1./ 1471.윤9.	경기도 광주시 태전1동 265-1 (가정령, 태산, 태봉)/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 서삼릉8	가봉태실, 의궤
30	폐비 윤씨 (廢妃 尹氏)	윤기견	1455.윤6.1.	?/ 1478. 11.12.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산83 (용문사) / 서삼릉24	가봉태실
31	인성대군 (仁城大君)	예종	1461.11.30.	1462.4.29.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38 (작은태봉산)/ 서삼릉23	단종태실로 착각하고 가봉함(의궤)
32	제안대군 (齊安大君)	〃	1466.2.13.	1466.?.2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1리 1130-8 및 옥천리 산506-9 (태봉산)	
33	왕녀 수정 (壽貞)	성종	?	147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 (수태임봉, 죽도)	

번호	태주	부	출생일	장태일 / 가봉일	원 위치/ 이전 위치	비고
34	왕녀 (王女)	〃	?	1476.6.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태지석
35	왕녀 (王女)	〃	?	1476.6.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6 (고려대학교 내 애기능)	
36	왕녀 (王女)	〃	?	1477.6.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1-11·산4 (태봉산, 태산, 태뫼)	인흥군의 1녀·2남 장태
37	왕녀 수란 (壽蘭, 惠淑翁主)	〃	1478.4.26.	1478.6.21.	서울 광진구 광장동 5-11 (아차산, 태봉)	
38	왕녀 (王女)	〃	?	1481.7.2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11-1 (뒤태봉산)	
39	왕녀 (恭愼翁主?)	성종	1481.3.11.	1481.7.24.	〃	
40	왕녀 (王女)	〃	?	1481.10.9.	경남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산13·산18 (태봉산)	동쪽
41	왕녀 (王女)	〃	?	1481.10.9.	〃	서쪽
42	왕자 수장 (壽長, 鳳安君?)	〃	1482.2.23.	1482.6.2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리 산150-2 (순강원 오른쪽 태봉) 또는 내각2리 811-1 (배나무골 태봉) 중 한 곳/ 서삼릉27	
43	왕자 수견 (壽堅)	〃	?	1483.10.15.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산15~18 (안태봉, 태봉산)	
44	왕자 수담 (壽聃, 安陽君)	〃	1480.1.5.	1484.10.10.	경북 상주시 모동면 상판2리 산51 (태봉산)/ 서삼릉25	
45	왕자 수석 (壽石, 完原君)	〃	1480.12.29.	1484.10.10.	〃 / 서삼릉26	
46	왕자 수정 (壽禎, 甄城君)	〃	1482.5.5.	1486.9.1.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 산1 (태봉산)/ 서삼릉28	
47	왕녀 합환 (合歡, 敬淑翁主)	〃	1483.8.9.	1485.8.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산107-1·산107-2·산112 (태봉산, 문필봉)	
48	왕녀 복란 (福蘭, 靜順翁主)	〃	1486.10.13.	1486.12.29.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산57 (태봉)/ 원주시 태장2동 1266-11 (태봉우성 2차 아파트)	복원
49	왕자 견석 (堅石)	〃	1486.12.6.	1487.4.7.	경북 울진군 평해읍 삼달2리 산66 (신래태봉)	
50	왕녀 정복 (貞福, 敬徽翁主)	〃	?	1489.9.29.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1리 산257~259 (태봉산)	
51	중종 (中宗)	〃	1488.3.5.	1492.9.7. / 150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1리 산112 (태봉산, 벌태봉, 색현)/ 서삼릉9	가봉태실, 가평군 승격
52	왕녀 승복 (承福, 靜惠翁主)	〃	1490.3.6.	1492.7.17.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1리 87-1 (태봉산)	
53	왕자 금수 (金壽)	〃	?	1493.5.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1리 산37-7·산38·산39-2 (태봉산)	
54	왕자 (王子)	〃	?	1493.9.8.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67 (태봉)	
55	왕자 (王子)	〃	?	1493.10.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45-5·산46 (중태봉)	
56	왕자 (王子)	〃	?	1494.8.2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1리 409	
57	왕자 복숭 (福崇, 寧山君)	〃	1490.윤9.24.	1494.8.2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1리 산78 (태봉산)/ 서삼릉52	

번호	태주	부	출생일	장태일 / 가봉일	원 위치/ 이전 위치	비고
58	왕녀 수억 (壽億)	연산군	1493.9.22.	1494.7.5.	?	태지석
59	원자 쇠돌이 [金乭伊]	〃	1497.12.29.	1501.7.2.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2리 377-1 (태봉산)/ 서삼릉29	
60	왕자 강수 (康壽, 陽平君)	〃	1498.11.27.	1499.3.17.	?	태지석
61	공주 복억 (福億)	〃	1499.3.12	1499.5.9.	강원도 삼척시 자원2동 산56 (태봉산)/ 서삼릉32	
62	대군 인수 (麟壽)	〃	1500.5.22.	1504.1.29.	?	태지석
63	왕녀 복합 (福合)	연산군	1501	1501.6.17.	황해도 황주군 인교면 능산리/ 서삼릉33	
64	왕자 돈수 (敦壽)	〃	1501.2.4.	1505.2.19.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30 (앞태봉산)	
65	대군 인수 (仁壽)	〃	1501.5.14.	1501.9.12.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2리 산30-1·산30-2 (태봉산)/ 서삼릉30	
66	왕녀 영수 (靈壽)	〃		1502.11.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리 150-2 (순강원 오른쪽 태봉) 또는 내각2리 811-1 (배나무골 태봉) 중 한 곳/ 서삼릉31	
67	왕녀 정수 (貞壽)	〃	1505.3.11.	1505.5.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동 433-1 (태봉산)	
68	왕자 태수 (泰壽)	〃	1506.3.17.	1516.6.18.	?	태지석
69	왕자 학수 (鶴壽)	중종	1509.9.16.	1515.3.6.	?	태지석
70	공주 옥하 (玉荷, 孝惠公主)	〃	1511.5.18.	1511.7.28.	?	태지석
71	왕자 화수 (和壽, 錦原君)	〃	1513.6.9.	1519.2.7.	?	태지석
72	옹주 석환 (石環, 惠靜翁主)	〃	1514.10.10.	1514.12.2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1리 산71-1 (부물현 태봉)24	
73	인종 (仁宗)	〃	1515.2.25.	1521.1.17. / 1546.5.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4 (태봉산, 태실봉)/ 서삼릉10	가봉태실, 백지사 (은해사)
74	옹주 월환 (月環)	〃	1516.3.11.	1516.5.27.	경북 경산	태지석
75	옹주 순환 (舜環, 孝靜翁主)	〃	1520.10.29.	1520.12.17.	?	태지석
76	공주 옥혜 (玉惠, 懿惠公主)	〃	1521.3.26.	1523.윤4.13.	충남 부여군 규왕면 함양리 42-1 (태봉)/ 부여군 규왕면 함양리 97, 서삼릉53	

24 전주이씨대동종약원(1999, 『조선의 태실』 II, 80·189~190쪽)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1리 산55-2번지에 위치한 '샘골 태봉'을 혜정옹주(왕녀 석환) 태실로 보았다. 그러나 『해동지도』 연천현 지도에 '태봉'의 위치는 임장서원 서쪽에 그려져 있다. 현재 동막1리에는 태실이 2개소 있는데, 동막1리 산71-1번지에 위치한 '부물현 태봉'은 임장서원 서남쪽 약 500미터 떨어져 있고, 동막1리 산55-2번지에 위치한 '샘골 태봉'은 임장서원 남동쪽 약 1.1㎞ 떨어져 있다. 고지도와 비교해보면 서남쪽에 있는 부물현 태봉이 혜정옹주(왕녀 석환)의 태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여기서 바로 잡는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2000, 「연천군」,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 448쪽)는 샘골마을 동쪽 태봉(샘골 태봉)을 주인공 비정 없이 그냥 '동막리 태봉'으로 지칭하고 있을 뿐이며, 이 샘골 태봉에는 반구형 함개가 노출되어 있다.

번호	태주	부	출생일	장태일 / 가봉일	원 위치/ 이전 위치	비고
77	공주 옥린 (玉麟, 孝順公主)	〃	1522.4.2.	1522.6.24.	?	태지석
78	왕자 숭수 (崇壽, 德陽君)	〃	1524.9.25.	1528.3.13.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48 (안태봉)/ 국립경주박물관	
79	봉성군 (鳳城君)	〃	1528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23(태봉산)	
80	왕자 환수(歡壽, 德興大院君)	〃	1530.3.5.	1530.7.16.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7리 산1-63 (태봉)/ 서삼릉34	
81	명종 (明宗)	〃	1534.5.22.	1538.2.21. / 1546.10.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태봉산)/ 서삼릉11	가봉태실, 문수사
82	인순공주 (仁順公主)	중종	?	1544.4.17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1리 산58-4 (태봉산)	태봉산 멸실
83	원자 곤령 (崐齡, 順懷世子)	명종	1551.5.28.	1555.2.28.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율동리	
84	선조 (宣祖)	덕흥 대원군	1552.11.11.	?/ 1570. 10.21.	충남 부여군 충화면 청남리 산227 및 오덕리 산1-17 (태봉산) / 서삼릉12	가봉태실, 오덕사
85	광해군 (光海君)	선조	1575.4.26.	1581.4.1. / 160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1동 산135 (태봉, 탯등, 태등산, 연화봉)	가봉태실
86	왕녀 (貞惠翁主?)	〃	1584.3.22.	1584.5.24.	?	태지석
87	왕자 후 (珝, 信城君)	〃	?	1584.7.25.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1리 산65 (태봉)	
88	왕녀 (王女)	〃	?	1588.7.11.	경기도 화성시 송동 727 [구, 동탄면 산척리 183-1] (안태봉산, 태봉산)	
89	인성군 (仁城君)	〃	1588.10.29.	1589.2.2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산덕리 411 (태봉산)/ 서삼릉35	
90	왕자 (義昌君?)	〃	?	1589.5.8.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1리 산72-24 (태봉산)	
91	왕녀 (王女)	〃	?	1595.2.26. 이후	경기도	
92	인조 (仁祖)	원종 (정원군)	1595.11.7.	?/ 1626. 8.1.이후	황해도 황주군 해주면 남본정 (정토사의 앞봉우리)/ ?	가봉태실, 정토사
93	경창군 (慶昌君)	선조	1596.9.23.	1596.11.12. 이전	황해도 해주	
94	세자 (世子)	광해군		1599.2.28.	황해도 신계군 사지면[현, 곡산군 신계면] 태봉리 (태봉산)/ ?	
95	경평군 (慶平君)	선조	1600.6.18.	1608.10.7.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80-3 (태봉산)/ 대전시립박물관, 서삼릉54	
96	원자 (元子)	광해군	1600.12.29.	1601.4.3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42·산42-3 (태봉)	
97	왕녀 (貞明公主)	선조	1603.5.19.	1605.4.1.	경북 경주	태지석
98	인흥군 (仁興君)	〃	1604.2.7.	1608.11.7.	경북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109-1 (고산, 태봉산)/ 서삼릉36	의궤
99	왕자 (王子)	〃	1604.2.17.	1606.5.26.	?	태지석
100	영창대군 (永昌大君)	〃	1606.3.5.	1606.7.28.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1리 산115-1 (태봉산)	
101	왕자(王子)	광해군	?	1610.3.25.	강원도 금성현[현, 금화군] (태봉)	

번호	태주	부	출생일	장태일 / 가봉일	원 위치/ 이전 위치	비고
102	소현세자 (昭顯世子)	인조	1612	1626.8.1. 이전	황해도 황주군 해주면 남본정 (정토사의 앞 봉우리)/ ?	정토사, 인조와 같은 곳
103	왕녀 (王女)	광해군	1619.6.23.	1619.11.4.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4리 산65 (태봉산)	
104	용성대군 (龍城大君)	인조	1624.9.3.	1625.3.25.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121-2일원 (만두산, 태봉)/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05	숭선군 (崇善君)	〃	1639.10.17.	1643.10.25.	충북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229-3(태봉산)	북쪽
106	숙명공주 (淑明公主)	효종	1640.1.25.	1660.10.2.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1리 531 (궁을산, 궁을자산, 태봉산)/ 서삼릉37	
107	현종 (顯宗)	〃	1641.2.4.	1647/ 1681.10.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189-46 (태봉산)	가봉태실, 대흥군 승격
108	낙선군 (樂善君)	인조	1641.11.7.	1645.8.24.	충북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229-3 (태봉산)	남쪽
109	숙휘공주 (淑徽公主)	효종	1642.2.27.	1662.11.25.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3리 1974-1 (운산태봉, 태봉재, 태봉치)	
110	숙정공주 (淑靜公主)	〃	1646.11.7.	1662.11.25.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3리 1974-1 (운산태봉, 태봉재, 태봉치) / 서삼릉38	
111	숙경공주 (淑敬公主)	〃	1648.1.29.	1660.10.2.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1리 531 (궁을산, 궁을자산, 태봉산)/ 서삼릉39	
112	명선공주 (明善公主)	현종	1653.11.15.	1660.2.17.	충남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선72-2 (태봉, 태산)/ 서삼릉40	
113	숙종 (肅宗)	〃	1661.8.15.	1661.12.25./ 1683.10.15.	충남 공주시 태봉1동 산64-9 (태봉산) / 서삼릉13	가봉태실, 의궤
114	명혜공주 (明惠公主)	〃		1670.3.13.(?)	충남 부여군 충화면 가화1리 산131 (구태봉, 태봉)	
115	명안공주 (明安公主)	〃	1665.5.18.	1670.3.13.	〃	
116	왕녀 (王女)	숙종	?	1675~1696.1.2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 [구, 고잔동 산18] (태봉) / 안산문화원	태봉산 멸실
117	경종 (景宗)	〃	1688.10.28.	1689.2.22./ 1726.9.8.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34-1 (왕심산 태봉, 태봉산) / 서삼릉14	가봉태실
118	영조 (英祖)	〃	1694.9.13.	1695.1.28./ 1729.10.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1리 산5 (태봉산) /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1리 산6-1 (태봉산), 서삼릉15	가봉태실, 의궤
119	연령군 (延齡君)	〃	1699.6.13.	1699.9.29.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1리 산54-2 (태봉산) / 서삼릉41	
120	화덕옹주 (和德翁主)	영조	1728.8.3.	1728.10.8.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3리 산127 (태봉산)	
121	제5왕녀 (王女)	〃	1729.12.12.	1730.2.21.	경기도 개성부 서면 능리 (입모봉, 갓모봉)	
122	제6왕녀 (翁主)	〃	1732.1.1.	1732.3.27.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1리 산30·산31 (망해산, 천덕산, 태봉산) / 안성시 원곡면 성은1리 32-1 (노인회관)	청원사
123	화협옹주 (和協翁主)	〃	1733.3.7.	1733.5.2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2리 791·산1 (태봉골)	
124	장조 (莊祖, 思悼世子)	〃	1735.1.21.	1735.윤4.4. / 1785.3.8.	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2 (뒤태봉) / 서삼릉16	가봉태실, 추존왕, 명봉사

번호	태주	부	출생일	장태일 / 가봉일	원 위치/ 이전 위치	비고
125	제8왕녀 (王女)	〃	1735.9.1.	1735.11.2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산132 (태봉)/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480-1 (마을회관)	
126	화완옹주 (和緩翁主)	〃	1738.1.19.	1738.3.26.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1리 산13-2	
127	화유옹주 (和柔翁主)	〃	1740.9.29.	1740.1.(?)	충남 당진시 순성면 성북1리 산188-1(태봉산)/ 서삼릉42	
128	의소세손 (懿昭世孫)	장조	1750.8.27.	1750.12.25.	경북 영주시 고현동 산7 (태봉산)/ 서삼릉45	
129	정조(正祖)	〃	1752.9.22.	1753.1.21./ 1801.10.2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210-1 (계족산, 정양산, 태봉)/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33·산134 (계족산), 서삼릉17	가봉태실, 정양사, 의궤
130	화령옹주 (和寧翁主)	영조	1753.3.2.	1753.5.13.	충남 예산군 광시면 월송1리 229·230-1 (태봉산)/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106-1 (대흥면사무소 옆 대흥동헌), 서삼릉43	
131	화길옹주 (和吉翁主)	영조	1754.5.19.	1754.7.25.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4리 산58-5 (태봉)/ 서삼릉44	
132	청연군주 (淸衍郡主, 公主)	장조	1754.7.14.	175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133	문효세자 (文孝世子)	정조	1782.9.7.	1783.9.6.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산82 / 서삼릉46	용문사, 의궤
134	순조(純祖)	〃	1790.6.18.	1790.8.12./ 1806.10.12.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태봉)/ 서삼릉18	가봉태실, 법주사, 의궤
135	숙선옹주 (淑善翁主)	〃	1793.3.1.	1793.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후원)	주합루 북쪽 돌계단 아래 장태
136	문조(文祖, 孝明世子, 翼宗)	순조	1809.8.9.	1809.12.21./ 1836.3.21.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2리 산95-1 (태봉산)/ 포천시 영중면 성동5리 640-1 (영평천변 소공원)	가봉태실, 추존왕, 의궤
137	왕녀(王女)	〃	?	1819.3.2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납석제 태합
138	헌종(憲宗)	문조	1827.7.18.	1827.11.11./ 1847.3.21.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2리 산6-2 (가야산, 명월봉, 태봉)/ 서삼릉19	가봉태실, 덕산군 승격, 의궤
139	원자(元子)	철종	1858.10.17.	1859.2.25.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1리 산356 (망산, 태봉산)/ 서삼릉47	의궤
140	순종(純宗)	고종	1874.2.8.	1874.6.8./ ?	충남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366-38 (태봉)/ 서삼릉20	의궤, 가봉 안했을 가능성 높음, 태봉산 멸실
141	영(친)왕(英(親)王, 李王殿下)	〃	1897.9.25.	1897.1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후원)/ 서삼릉21	창덕궁 태봉 위치도(정유태봉)
142	덕혜옹주 (德惠翁主)	〃	1912.4.9.	1912.4.23.	〃 / 서삼릉48	〃 (임자태봉)
143	제8왕자 (王子)	〃	1914.윤5.11.	1914.6.7.	〃 / 서삼릉49	〃 (갑인태봉)
144	제9왕자 (王子)	〃	1915.7.10.	1915.8.3.	〃 / 서삼릉50	태지석
145	진전하 (晉殿下)	영친왕	1921.8.18.	1934.6.8.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키요이츠 1-2 아카사카 프린스 클래스 하우스 (동경 저택)/ 서삼릉51	태지석
146	왕세자 구 (玖)	〃	1931.12.29.	1932.1.25.	〃 / 서삼릉22	태지석

조선 왕실은 초기부터 태실에 관심이 지대하였다. 국가에서 태실을 조성할 때 먼저 태실도감을 임시로 설치하고 풍수지리에 능통한 대신大臣을 선정하여 태실증고사로 삼아 전국으로 명당을 찾게 하였다. 태실지로 마땅한 곳을 찾게 되면 지형地形을 그림으로 그려 왕에게 바쳤다. 태조는 권중화를 태실증고사로 삼아 길지를 찾게 하였는데, 권중화는 산수형세도를 그려 바쳤다.[25] 태종은 하륜으로 태실증고사를 삼았으며,[26] 세종도 정이오를 태실증고사로 삼아 태실산도를 바치게 했다.[27] 이렇게 태실 주변의 지형을 그린 태봉도는 현재 장조, 순조, 헌종의 것이 남아있다.

태실 조성을 관장하는 태실도감의 설치는 세종 때 처음 확인된다.

> *① 예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장차 길한 때를 가리어 태를 안치할 것이오니, 청컨대 전례前例에 좇아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설치하여 길지吉地를 택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좇았다.*
>
>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8월 14일(신묘))*

태실도감은 예조에서 태실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기구로 태실 조성이 완료되면 해체된다. 그러나 전례前例를 따라 설치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설치되었다.

태조·정종·태종은 민간인 때 장태되었던 태를 옮겨와 길지에 태실을 조성하였다.

태조(1335~1408, 재위 1392~1398)는 함경도 영흥 준원전 연못(龍淵·瑤樂池)에 장태된 태를 옮겨와 전라도 진동현(진산군: 지금 충남 금산) 만인산에 가봉태실을 조성하고 진주로 승격시켰다.[28] 정종(1357~1419, 재위 1398~1400)과 태종(1367~1422, 재위 1400~1418)도 함경도 함흥 태조의 옛 저택인 경흥전에서 태를 옮겨오는데, 정종은 경상도 김산현(지금 경북 김천) 황악산에 가봉태실을 조성하고 군으로 승격시켰으며,[29] 태종도 경상도 경산부(지금 경북 성주) 조곡산에 가봉태실을 조성하고 성주목으로 승격시킨다.[30] 세종(1397~1450, 재위 1418~1450)도 진주 곤명현(지금 경남 사천)에 가봉태실을 조성하고 남해현과 합쳐 곤남군으로 승호昇號하였다.[31] 문종(1414~1452, 재위 1450~1452)도 경상도 은풍현(지금 경북 예천)에 있는 아기태실을 가봉하고 기천현과 합하여 풍기군으로 승격시켰다.[32]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전통을 계승한다.

25 『태조실록』 태조 2년(1393) 1월 2일(무신).
26 『태종실록』 태종 1년(1401) 7월 23일(경술).
27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10월 25일(신축).
28 『태조실록』 태조 2년(1393) 1월 7일(계축);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33 전라도 진산군 건치연혁; 『여지도서』(1757~1765) 전라도 보유 진산군 건치연혁·고적·산천; 위창조(1703~1771), 『북도릉전지』(1758) 준원전; 이유원(1814~1888), 『임하필기』 권31, 순일편.
29 『정종실록』 정종 1년(1399) 4월 5일(을사); 『경상도지리지』(1425) 상주도 김산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27 경상도 김산군 건치연혁·산천; 『여지도서』(1757~1765) 경상도 김산군 건치연혁·산천.
30 『태종실록』 태종 1년(1401) 10월 8일(계해); 『경상도지리지』(1425) 상주도 성주목관;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상주도 성주목;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27 경상도 성주목 건치연혁·산천; 『여지도서』(1757~1765) 경상도 성주목 건치연혁·산천.
31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3월 27일(신미); 『경상도지리지』(1425) 진주도 곤남군;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진주도 곤양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31 경상도 곤양군 건치연혁; 『세종실록지리지』(1432) 경상도 진주목 곤남군; 『여지도서』(1757~1765) 경상도 곤양군 건치연혁·산천.
32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1450) 7월 4일(병오) 및 문종 1년(1451) 9월 28일(계해); 『세조실록』 세조 5년(1459) 1월 29일(임자);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안동도 풍기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25 경상도 풍기군 건치연혁·산천; 『여지도서』(1757~1765) 경상도 풍기군 건치연혁·산천.

세종은 1397년(태조 6) 태종의 정안군 시절 사저私邸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태종은 태조의 5자였으므로 태실을 조성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민간습속民間習俗에 의한 장태를 하였는데 세종이 왕으로 즉위된 후 가봉태실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33]

당시 상왕인 태종은 세종의 가봉태실에 시위하는 품관 8명과 수호 8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으며,[34] 가봉태실을 조성할 때 돌난간[石欄干]을 설치하면 지맥地脈을 손상시키니 나무난간[木欄干]을 만들게 하였고, 썩거든 다시 만드는 것을 법식으로 삼게 하였다.[35][36] 그러나 소헌왕후와 문종의 가봉태실에 석난간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37]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세종은 성주 선석산에 원손인 단종(1441~1457, 재위 1452~1455)의 아기태실을 조성할 때 도국 안에 있는 고총古塚과 사사社寺가 태실에 흉하다고 철거하게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주변에 있는 이장경의 묘를 옮긴 것이다.[38] 이로보아 금표구역은 이전부터 설정되었다.[39] 또 태실을 수호하는 군사들에게 한정한 곳 밖에 접해서 거주함을 금하게 하고, 3년에 한 번씩 관원을 보내어 살피게 하고, 잡목을 뽑도록 하였다.[40] 소헌왕후 가봉태실에는 품관 8명과 군인 8명을, 동궁(문종) 아기태실에는 품관 4명과 군인 4명으로 수호하게 하여[41] 가봉태실과 아기태실에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태실에 수지기를 두는 것은 태종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태종 가봉태실에는 태실 시위품관 4명과 수호인 10호를 두었다.[42]

그리고 세종은 태를 옮겨 봉안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② 예조에서 계하기를, "태실을 진주晋州(지금 경남 사천)로 이안할 때 안태처에는 채붕綵棚(채색으로 장식한 큰 문)을 짓고 나희儺戲(여러 가지 놀이)를 베풀게 하며, 그 지나가는 주·현에는 관문館門에만 채색 누각을 짓고 의장儀仗과 고악鼓樂을 갖추어 교외에서 맞이하게 하고, 각 도의 감사와 수령은 자기의 관내를 넘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하니, 그 말을 따랐다.*
>
>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11월 5일(신해))*

33 윤진영(2013, 「조선 후기 안태의례의 개선과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67, 조선시대사학회, 396~397쪽)은 여말선초에 출생 직후 태를 가안치(假安置)해 두는 가안태(假安胎)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세종의 경우가 정상적인 태실 조성과정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안태라는 것은 정식으로 태실을 만들지 않고 임시로 태를 묻어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세종의 왕자들에게까지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태조·정종·태종·세종은 민간습속에 의해 장태되어 있다가 왕이 된 후 처음으로 태실(가봉)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전의 장태는 가안태로 볼 수 없다. 태조의 비인 신의왕후 한씨(1337~1391)도 태어났을 때 태를 함경도 함흥 관아의 동쪽 15리에 있는 태봉에 묻었다(『여지도서』(1757~1765) 함경남도 함흥부읍지 산천)고 하였는데, 이도 당시 민간 태 처리 습속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의 왕자들에게는 가안태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태실조성시기를 기다리기 위해 태를 보관해 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태실 조성과정을 보여 주는 첫 사례로 세종 가봉태실을 들었는데, 이는 처음 조성되는 아기태실이 아니라 왕이 된 후 가봉태실 조성이었으므로 첫 사례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종의 왕자들의 태실인 성주 선석산 태실이 그 첫 사례라 하겠다.

34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11월 1일(정미).

35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11월 3일(기유).

36 그동안 이 기사의 주체를 세종으로 보아왔으나 태종으로 밝혀졌기에 바로 잡는다.(전인혁, 2021, 「조선왕실 태실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구 -서삼릉 태실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32쪽)

37 『세조실록』 세조 9년(1463) 3월 4일(계사).

38 『세종실록』 세종 25년(1443) 12월 11일(신묘)·12월 29일(기유) 및 세종 26년(1444) 1월 3일(계축)·1월 5일(을묘)·1월 7일(정사).

39 김용숙(1999, 「부록: 태봉연구」,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363쪽)은 선덕연간(宣德年間, 1426~1435, 세종 8~17)에 시작되었으며, 보수제한도 이때 했다고 보았다.

40 『세종실록』 세종 18년(1436) 7월 20일(계축).

41 『세종실록』 세종 21년(1439) 1월 16일(을미).

42 『태종실록』 태종 1년(1401) 10월 8일(계해).

즉, 안태사가 태를 이안할 때 안태처에 채붕을 짓고 나희를 베풀며, 지나가는 고을에는 관문에 채색 누각을 짓고 위의를 갖추어 교외에서 맞이하게 하였으며, 각 도의 감사와 수령은 자기 관내를 넘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안태사가 지나가는 고을에서 채붕을 세우고 놀이를 베풀며 군용을 갖추어 맞이하기 때문에 농사를 폐할 정도로 백성들이 바쁘게 되니 군용의 위의를 갖추지 말게 한 적도 있다.[43] 또 안태 후 3년에 한 번씩 지내는 태실안위제를 태조와 정종 때 행하지 않았다하여 폐지시켰으나,[44] 장태안위제는 실시하여[45] 의례절차를 규정해 나갔다.

그리고 문종의 태는, 1436년 8월 왕위에 오름을 기다려 장태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안태법에 어긋나니 일행과 왕악의 태를 간수하는 법에 의해 길지에 장태하여 미리 수와 복을 기르자는 정앙의 건의를[46] 결국 받아들여 1439년 경상도 기천에 태실을 조성하였다.[47] 또 1438년 소헌왕후의 태를 이장하여 경상도 풍기 소백산 윤암봉에 가봉태실을 조성하는데,[48] 이때 개기開基·봉실封室·위안제慰安祭에 진물예도眞物禮度와 신위향배神位向背에 대해서도 옛 제도를 참작하여 자세히 정하게 하였다.[49]

세종은 진양대군(세조)를 비롯한 대군과 왕자 등 18명의 아들과 원손(단종)의 태실을 1438년 3월~1442년 10월 성주 선석산 태봉 한 곳에 조성하였다.[50] 이로써 고려시대 왕과 태자에 한해 태실을 조성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그 범위를 넓혀 왕위를 잇지 않는 아들과 왕비까지 태실을 조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종 때 태실 조성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즉 고려 왕실의 태실제도 전통은 조선 왕실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세종은 태실 주변 고총이나 사사를 철거하게 하고, 왕비의 가봉태실을 조성하며, 장태 시 예법을 정비하였다. 특히 다음의 기사가 참고 된다.

> *③ 풍수학 제조 전 중추원 부사 조비형이 아뢰기를, "가만히 보오니, 풍수의 학문[風水之學]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여 옛 사람들의 술법術法이 정미精微하옵거늘,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게다가 왜곡되게 배운 것으로 외곬으로만 고집하는 무리들이 속된 습관에 만족하고 좁은 소견에 구애되어서, 이미 자기의 그른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나라로부터 송나라에 이르는 동안 여러 번 유신들에게 명하여 사천감司天監을 맡아 영도하게 하고, 또 비각秘閣의 책들을 내어주며 초야의 술법 학자를 찾아 가지고 다르고 같은 것은 교열하고 검토하여 모두 이치에 맞게 하여 세상에 통용되게 함으로서 정치에 유익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집을 짓고 무덤을 쓰는 것은 산 사람을 기르고 죽은 이를 보내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날 고려 때에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지리 서적[地理書]을 청했던 바, 송 태조가 필사본[寫本]을 보냈기에 그것에 따라서*

43 『세종실록』 세종 20년(1438) 4월 8일(임술).
44 『세종실록』 세종 3년(1421) 10월 10일(기해).
45 『세종실록』 세종 21년(1439) 1월 10일(기축).
46 『세종실록』 세종 18년(1436) 8월 8일(신미).
47 『세종실록』 세종 21년(1439) 1월 10일(기축)·1월 16일(을미)·1월 28일(정미)·2월 3일(임자).
48 『세종실록』 세종 20년(1438) 1월 20일(을미)·3월 17일(신축)·5월 15일(무술); 『여지도서』(1757~1765) 경상도 풍기군 산천 및 순흥부 산천; 심현용, 2014,, 「조선 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조성과 구조 복원」, 『영남고고학』 68, 영남고고학회.
49 『세종실록』 세종 20년(1438) 3월 17일(신축).
50 심현용, 2014, 「성주 선석산 태실의 조성과 태실구조의 특징」,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시행은 하였으나 그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고, 겨우 이 이치를 조금 안다는 자도 아직 우활迂闊하고 괴망怪妄하여 상식 없는 말을 면하지 못하여서 유식한 학자들에게 미워서 싫어함이 되었으니, 어찌 음양학의 죄[陰陽之罪]라 하겠습니까. 우리 왕조에서 옛 것을 고치고 새 것을 정함에 있어 모든 학문에 다 훈도를 두어서 정밀하게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사온데, 오직 풍수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논설하는 자들이 각기 편벽된 소견을 가지고서 모두 제가 옳다하고 서로 배척하여 시비를 다투오니, 어찌 음양의 일에 정한 이치가 없어서 한 결로 귀착되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몸으로서 두 번째 제조의 어명을 받자오매, 이 학문이 잘못 쓰이고 있음이 깊이 걱정되옵니다. 원하건대 유신들 중에 뜻있는 자를 명하시어 훈도를 삼아서 여러 서적을 참고하고 징험하여 깊이깊이 연구하여 한 결로 귀착되게 하여 신진新進의 길을 열어 주시면, 사람들이 여러 갈림길에 미혹하지 아니하고 술법이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예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게 한 바,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조에 명하여 적당한 자를 가리어 훈도에 임명하게 하소서."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7월 22일(계유))

사료 ③은 고려~조선 초의 풍수가 체계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풍수학 제조 조비형은 고려시대의 풍수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국가차원에서 풍수를 연구하자고 건의한다. 풍수에 관심이 많던 세종은 이에 의해 풍수학을 일제히 정리하는데, 영의정을 도제조都提調로 하고 전대제학前大提學을 제조提調로 삼아 풍수학을 전심강습專心講習토록 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 체계를 확립시켰다.[51] 이와 관련하여 태실 제도도 정비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 때 왕실의 대부분 의례가 체계화되는데, 장태 의례도 함께 체계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한국의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과 결부되어 고려시대에 풍미豐味하였다고[52] 보아왔다. 그러나 사료 ③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풍수사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초에도 여전하였다. 그러므로 고려 왕실의 태실조성은 의례화되어 제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조선 왕실처럼 성행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문종 때는 왕세자인 단종의 태실이 성주 선석산 태봉에 여러 대군의 태실과 한 곳에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하여 경기도와 하삼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서 이장지를 선정하게 하였는데,[53] 결국 경상도 성주 가야산(법림산)에 택정된다.[54] 이는 세종 때 세자(동궁)로 있던 문종처럼 일반 왕자와 다른 대우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태실 주변 사방에 금표비를 세우는데, 동쪽과 남쪽에는 9천 6백 보, 서쪽 9천 5백 9십 보, 북쪽 4백 7십 보로 하여[55] 이 구역 안으로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것이 보수제한의 첫 기록이다.

그러나 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와 다르게 품관 8명, 백성 6명으로 인원수를 늘려 태실을 수호하게 한

51 최창조, 1990,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풍수사상」, 『한국문화』 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477쪽.
52 이병도, 1986, 『고려시대의 연구 -특히 도참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53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1450) 9월 8일(기유).
54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3월 6일(을사); 『세조실록』 세조 4년(1458) 7월 8일(계사).
55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3월 6일(을사).

다. 또 중추원 부사 박연이 태봉 아래의 집과 밭을 없애지 않도록 상언하자 문종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도국 밖으로 옮기되, 태봉 부근의 절은 축령祝靈하는 곳으로 삼아 옛날 태실의 예例와 같이 하도록 했다.[56]

앞의 〈표 1〉을 살펴보면, 정종은 직지사, 문종·장조는 명봉사, 세조는 선석사, 인종은 백지사(은해사), 선조는 오덕사, 인조는 정토사, 순조는 법주사 등등 사찰이 확인된다. 이는 문종이 옛날 태실의 예와 같이 하게 한 것으로 보아 고려 순종·의종·강종 등의 예처럼 그 전통을 이어받아 태봉산 주변에 있는 절을 태실 수호사찰, 즉 원당願堂으로 지정한 것이다.[57]

단종(1441~1457, 재위 1452~1455)도 재위 시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였다. 이는 성주 법림산 태봉 정상에 현존하는 가봉석물들로 확인된다.[58]

그러나 세조(1417~1468, 재위 1455~1468)는, 자신의 태실이 선석산에 여러 대군 및 군의 태실과 같이 있으므로 장소를 택하여 이안하고 선왕先王의 구례舊例에 따라 가봉하자는 예조의 건의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표석(아기비)을 없애고 비(가봉비)만 세워 구별하게 하였다.[59] 세조 이전의 역대 가봉태실에 현존하는 가봉비가 모두 후대의 것이라 그 전에 가봉비가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세조에서 처음으로 귀부와 이수를 갖춘 가봉비가 확인된다. 더 나아가 세조는 태종처럼 앞으로 왕은 물론이고 왕세자, 원손의 태실에도 돌난간[石欄干]을 금하도록 하였다.[60] 돌난간은 태주胎主가 임금이 되면 아기태실을 가봉할 때 설치되는 것이므로 왕세자나 왕손은 원래 설치되지 않는다. 세조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왕의 가봉태실에 모두 석난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예종(1450~1469, 재위 1468~1469)도 재위 시 전라도 전주에 있는 자신의 태실을[61] 가봉하지 않았으며, 선조가 재위 11년(1578)에 가봉시킨다.

성종(1457~1494, 재위 1469~1494)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신의 태실을[62] 1471년(성종 2)에 가봉한다. 그러나 성종은 풍수설을 그리 믿지 않았다. 풍수설은 허탄하므로 그동안 하삼도에 하던 장태를 멀고 가까운 곳에 관계없이 길지를 찾아 가까운 경기도에서 택정하도록 지시하였다.[63] 그러나 가까운 곳에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 택정은 〈표 1〉을 보면 이미 세조 때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성종 때부터 태실조성의 대상자가 다시 확장된다. 왕녀, 즉 딸도 1476년(성종 7)부터 길지를 찾아 태실이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표 1〉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성종 때 왕녀의 태실이 처음 조성되며, 그동안 왕과 아들에 한해 설치되던 태실 제도에서 딸의 태실까지 조성되어 조선시대의 태실 제도는 완전히 확립되었던 것이다.[64] 이는 성종이 길례吉禮·가례嘉禮·

56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1월 22일(임술).
57 이러한 태실 수호사찰을 『비변사등록』 정조 11년(1787) 4월 5일에 의하면, '주봉사(主峰寺)'라 칭한다.(전인혁, 2021, 「조선왕실 태실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구 -서삼릉 태실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9~30쪽)
58 심현용, 2012,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문화재』 45-3, 국립문화재연구소.
59 『세조실록』 세조 8년(1462) 9월 14일(을사);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상주도 성주목.
60 『세조실록』 세조 8년(1462) 8월 22일(갑신).
61 『여지도서』(1757~1765) 전라도 보유 완산지 산천.
6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6 경기 광주목 산천; 『여지도서』(1757~1765) 경기도 가평군지지 건치연혁·산천·태봉.
63 『성종실록』 성종 7년(1476) 11월 28일(무진).
64 그러나 이보다 앞선 시기에 왕녀의 태호가 확인된다. 세종의 장녀인 정소공주(1412~1424)의 묘를 1939년 옮겨 갈 때 분청자 사이호

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와 통치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을 완성하고 반포하여 조선의 전반적인 체제를 완성하였는데, 그 일련의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태실 제도의 확립은 태호·태함·아기비·중앙태석 등 유물의 변천에서도 파악되는데,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이 성종 때 들어와 모두 정형화定型化되기 때문이다.

성종은, 폐비 윤씨가 1476년 왕비로 책봉되자 1477년 법에 따라 태실에 수호군을 두자는 신하의 건의를 허락하지 않으면서도,[65] 1년 후 태실증고사 겸 안태사로 서거정을 파견하여 1478년 왕비의 가봉태실을 조성한다.[66] 또 1493년(성종 24) 권정이 태봉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여아女兒의 경우, 특히 옹주의 태는 한 곳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묻자고 건의한다.

> *④ 첨지충주부사 권정은 아뢰기를, "강원도·황해도는 태봉을 많이 얻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신의 생각은 왕자군王子君의 태 외에 옹주翁主의 태는 한 곳에 묻도록 하고, 또 삼각산 근처에 땅을 택해서 묻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적당한가 않은가를 관상감에 묻도록 하라."하였다.*
>
>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10월 10일(신미))*

사료 ④에서 보듯이 성종은 이 제안이 합당한지를 관상감에게 알아보게 하였는데, 실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표 1〉에서 보듯이 경기도 광주의 성종 왕녀 2개소 태실(1481. 7.), 경북 밀양의 성종 왕녀 2개소 태실(1481. 10.) 및 경북 상주의 성종 왕자인 안양군과 완원군 태실(1484. 10.)이 한 곳에 장태되어 이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었다.

연산군(1476~1506, 재위 1494~1506)도 자녀의 태를 길지에 장태하여 태실을 조성하는데, 〈표 1〉에서 알 수 있다.[67]

(四耳壺)로 된 태호 2개가 출토되었다. 이렇게 태를 담은 태호를 1424년(세종 6) 묘소에 함께 묻은 것[墓所並藏]은 세종이 아들들의 태실을 처음 조성한 시기(1438~1442)보다 훨씬 빠르다. 이는 1438년(세종 20) 세종 때 왕자들의 태실이 아직 보편화되기 전이며, 또한 1476년(성종 7) 성종 때 왕녀들의 태실이 보편화되기 전이다. 그러므로 조선 초부터, 특히 성종 이전부터 딸의 태실도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세종의 다른 딸과 그 이후 문종, 세조, 예종의 딸 모두 아직 태실이 보고된 바가 없고, 정소공주 태를 묘소 병장 했기 때문에 이를 태실로 볼 수 없으므로 왕녀 태실 축조가 일반화된 시기는 성종 때부터라 하겠다.

65 『성종실록』 성종 8년(1477) 1월 5일(갑진).

66 『사가집』(1488) 보유3 시류 여지승람; 「서거정의 묘지석」(1488).(심현용, 2014, 「조선 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조성과 구조복원」, 『영남고고학』 68, 영남고고학회, 84~85쪽)

67 그동안 연산군 태실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차문성(2015, 「파주 축현리 태실과 연산군 태봉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파주연구』 9,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3리 산96-1번지에서 가봉태실 석물인 연엽동자석과 상석을 발견하고 이곳을 연산군 태실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현지 조사(2017. 6. 5.)한 결과, 산봉우리 정상에 반구형의 민묘가 있고 둘레에는 호석이 일부 돌려져 있었으며, 앞에는 파손된 석등 1기가 세워져 있고 좌우로 문인석 2기가 눕혀져 있었으며, 주변으로 호석 등 여러 석물들이 파손되어 흩어져 있었다. 즉 연엽동자석으로 본 것은 석등이었으며, 상석은 호석으로 태실이 아니라 조선시대 민묘였던 것이다. 또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태함의 실 출토지인 축현리 태실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조사하였다. 즉 땅이 너무 커서 지번은 맞으나 실제 태실(태봉산)로 내려오는 지맥의 다른 곳을 조사하였던 것이다. 현재 축현리 태실에는 큰 도굴구가 있으며, 아기비의 비대도 남아있다.
한편, 조선 임금 중에 연산군, 효종, 철종과 고종은 아직까지 태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산군의 경우, 아버지인 성종의 자녀 중 10남 12녀의 태실이 확인되고 어머니인 폐비 윤씨도 태실이 조성되며, 연산군의 자녀 중 6남 5녀의 태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세자인 연산군도 태실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효종도 아버지인 인조와 그의 자녀 6남 1녀 중 소현세자를 비롯한 4남의 태실이 확인되고, 효종의 자녀 중 현종을 비롯한 1남 4녀의 태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봉림대군이었던 효종 역시 태실이 설치되었

중종(1488~1544, 재위 1506~1544)은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고 가평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68] 또 성종처럼 풍수설은 황당하여 믿을 수 없다 하면서 태실증고사를 파견하여 백성들의 폐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따로 파견하지 말고 지리관을 보내어 해당 도의 감사와 함께 길지를 찾게 하며, 장태지藏胎地도 경기도에서 선정하게 한다.[69] 그러나 〈표 1〉에서 보듯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종(1515~1545, 재위 1544~1545)은 자신의 태실을 가봉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명종(1534~1567, 재위 1545~1567)이 재위 1년에 인종의 태실을 가봉(1546. 5.)시키며, 그 후 자신의 태실도 가봉(1546. 10.)한다. 그리고 재위 10년(1555)에 원자인 순회세자 태실을 황해도 해주에 조성한다.[70]

특히 선조(1552~1608, 재위 1567~1608)는 임금으로 등극한 후 자신의 태실 조성(가봉)에 관심이 많았다. 재위 3년(1570)에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저택 정원 북쪽 소나무 숲 사이에서 자기의 태를 찾아 강원도 춘천을 태실지로 택정했으나, 전에 태를 묻었던 자리라하여 다시 황해도 강음으로 옮긴다. 하지만 이곳도 깨끗하지 못하다 하여 결국 충청도 임천(지금 충남 부여)으로 옮겨 가봉태실을 조성한다.[71] 이렇게 풍수적 조건이 좋은 길지를 찾기 위해 세 번이나 장소를 옮겼는데, 이는 선조가 풍수에 집착한 결과다.[72]

전술하였듯이 세종·세조가 태실 가봉 시 돌난간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종이 왕비 태실에 수호군을 두지 않고 가봉비만 설치하도록 하거나, 성종·중종이 도성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태실지를 선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모두 태실 조성으로 생기는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려한 방안이었다. 특히 세종 때 모든 아들의 태실이 조성되고 성종 때 모든 딸의 태실까지 조성되어 태실 조성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백성들에게 그 피해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파악한 왕들은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은 개국 후 고려 왕실의 태실문화를 계승하여 지속·발전시켰다. 고려시대 왕과 세자의 태실만 조성하던 전통을 조선 초에 그대로 계승하다가 15세기 중엽 세종 때부터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나 모든 아들의 태실을 조성하여 그 대상 범위를 확장하였고, 또 태실조성에 대한 절차나 의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15세기 후엽 성종 때 딸까지 태실을 조성하고, 제작되는 유물도 정형화하여 조선 왕실의 태실 제도는 완전히 확립·정착되었던 것이다.

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철종과 고종은 적손(嫡孫)이 아니라 방계혈통(傍系血統)으로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태실이 조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당사자가 왕이 되면 가봉태실이 조성되는데, 방계혈통인 선조와 인조도 가봉태실이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방계혈통인 철종과 고종도 임금이 된 후 가봉태실을 조성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민간 태처리 풍속인 매태(埋胎) 등으로 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태가 없어서 태실이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태를 보관하지 않았던 철종과 고종을 제외한 연산군과 효종을 비롯한 25명의 왕은 태실이 조성되었을 것이며, 연산군과 효종의 태실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을 뿐으로 생각된다.(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189~190쪽)

68 『중종실록』 중종 2년(1507) 10월 16일(병술)·10월 25일(을미) 및 중종 3년(1508) 4월 15일(임오) 및 중종 4년(1509) 5월 24일(을묘); 『여지도서』(1757~1765) 경기도 가평군지지 건치연혁·산천·태봉; 『대동지지』(1862~1866) 권3 경기도 가평 연혁.

69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11월 23일(을미).

70 『여지도서』(1757~1765) 황해도 토산현 고적.

71 『선조수정실록』 선조 3년(1570) 2월 1일(기해); 『연려실기술』(1736~1806) 별집2 사전전고 장태.

72 윤진영, 2013, 「조선 후기 안태의례의 개선과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67, 조선시대사학회, 400쪽.

2. 조선 후기 태실제도의 변화

임진왜란(1592~1598) 이후 조선의 태실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평시平時에 태실증고사를 뽑아 태봉으로 합당한 곳을 찾아 3등으로 나누고 장부를 만들어 관상감觀象監[73]에 보관해 두었다가 태실 조성할 시기가 오면 임금에게 보고하여 추천한 3곳 중 1곳을 낙점落點 받아 장태하는 것이 전례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태봉 장부가 불타 없어지자 1602년(선조 35) 선조는 태실증고사를 파견하지 않고 각 도道의 도사에게 그 일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그 도사가 관상감의 지리학 관원을 데리고 태실지로 적합한 곳을 미리 살펴 등급을 분류하여 장부를 만들어 두어 사용하게 한 것이다.[7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517년(중종 12) 중종도 이러한 지시를 하였는데,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선조 때 와서 태실증고사를 파견하던 관행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광해군(1575~1641, 재위 1608~1623)도 재위 1년(1609)에 자신의 태실을 가봉시킨다.[75]

특히 인조(1595~1649, 재위 1623~1649)는 태실 가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례에 따라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자는 예조의 건의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성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르게 된다하여 결국 가봉한다.[76] 그리고 자신의 태실과 왕세자인 소현세자의 태실에 수직군守直軍을 두지만 나무와 꼴 베는 것만을 금지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만 지시하였다.[77] 또 1643년(인조 21) 세 아기의 태를 나이 순서에 따라 한 봉우리에 같이 장태하도록 하여 태실조성에 드는 공역工役을 줄이고자 하였다.

> *⑤ … 두 왕자 아기씨의 장태는 8월에 정하되 … 지난 계미년(1643) 장태 때 세 아기씨의 태실을 장유 순서에 따라 한 봉우리 위에 함께 묻으라는 별도의 전교를 받고 그대로 거행하였습니다.*
>
> *(『태봉등록』 인조조 을유(1645, 인조 23) 윤6월 17일)*

이 결과, 충북 충주의 숭선군 태실(1643. 10.) 아래에 낙선군 태실(1645. 8.)을 추가한다.

이후 효종도 경북 김천에 숙명공주와 숙경공주의 태를 한 산에 묻고(1660. 10.), 강원도 원주에 숙휘공주와 숙정공주의 태실을 함께 조성(1662. 11.)하며, 현종(1641~1674, 재위 1659~1674)도 충남 부여에 명혜공주와 명안공주의 태실을 한 곳에 조성(1670. 3.)한다.

현종은 재위 시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가봉을 건의하였으나 백성들의 농사에 피해

73 조선 태조 원년(1392) 7월에 '文武百官官制(문무백관관제)'에서 관상감의 조직과 업무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같은 해 8월에 '入官補吏法(입관보리법)'에 의해 음양과(陰陽科)가 설치되며, 태종 6년(1406)에는 음양풍수학이 포함된 '十學(십학)'이 설치되며, 성종대 완성된 『經國大典(경국대전)』(1485)에서는 관상감의 생도와 업무내용, 그리고 관제가 구체적으로 정착된다.(이수동, 2013, 「조선시대 음양과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0~42쪽)

74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6월 25일(을묘).

75 심현용, 2005, 「대구 광해군태실 고」, 『향토문화』 20, 대구향토문화연구소.

76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8월 1일(경자).

77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8월 1일(경자).

를 준다며 계속 미루다가[78] 결국 시행하지 않았다. 숙종(1661~1720, 재위 1674~1720)도 재해와 흉년으로 미루다가 재위 7년(1681) 현종 태실을 가봉하고 대흥현을 군으로 승격시켰으며,[79] 충청도 공주에 있는 자신의 태실도 재위 9년(1683)에 가봉한다.[80]

또 앞으로는 태봉을 각각 설치하지 말고 산 하나를 골라 한꺼번에 나열하여 묻고 표석(아기비)만 세우게 하였다.[81] 이는 태실 하나가 산봉우리 정상 하나를 다 차지하는 폐단을 지적한 것이나, 전술한 〈표 1〉을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종(1688~1724, 재위 1720~1724)도 재위 시에 충청도 충주에 있는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지 못하였는데, 풍흉豊凶으로 미루다가[82] 시행 못하고 죽었다.

이후 영조(1694~1776, 재위 1724~1776)가 재위 2년(1726) 경종 태실을 가봉하여 300보에 화소비를 세우고 해자垓字를 파 금단禁斷하고 수직군 8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83]

특히 영조는 지금까지 어느 임금보다도 태실 제도를 정비하여 폐단을 해소하고자 여러 차례 강도 있게 노력하였다. 자신의 태실 가봉 시 당초 200보였던 금표구역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84] 1729년(영조 5) 가봉할 때 석물도 다른 가봉태실보다 감축하였다.[85] 그는 민폐民弊 감소 효과가 별로라는 신하들의 거부를 뿌리치고 오늘의 민폐뿐만 아니라 뒷날의 민폐까지 줄이려는 방법이라 하면서 가봉석물의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금표범위는 결국 줄이지 못하고 300보로 하였다.[86]

또 영조는 1735년(영조 11) 왕세자(사도세자)의 태실을 경상도 풍기 문종 태실이 있는 명봉산의 같은 산등성이에 조성하며,[87] 1753년(영조 29) 원손(정조)의 태실을 강원도 영월에 조성한 후[88] 태실 조성에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가까운 곳에 조성하고자 하였다.

> *⑥ 하교하기를, "봉태封胎하는 한 가지 일은 원손 이외에 대군·왕자도 차등을 두어야 한다. 세자의 여러 중자衆子·군주郡主·현주縣主의 장태에는 안태사를 차출하지 말고 다만 중관中官이 관상감의 관원과 함께 묻어 두되 석함은 쓰지 말며, 석물군石物軍에 5명을 쓰고 담여군擔舁軍에 2명을 써서 가자架子에 담아 유둔油芚으로 덮고 돌을 세워 두었다가 봉태하기를 기다려 거행하라. 무릇 장태하는 곳은 번번이 먼 도로 의정하여 들이는데, 이 뒤로는 반드시 가까운 도에 정하여 민폐를 덜도록 하라."하였다.*
>
> *(『영조실록』 영조 30년(1754) 3월 22일(임신))*

78 『현종실록』 현종 3년(1662) 6월 23일(갑자)·7월 13일(갑신); 『현종개수실록』 현종 3년(1662) 6월 23일(갑자)·7월 14일(을유).
79 『숙종실록』 숙종 7년(1681) 8월 23일(계모)·10월 12일(신묘) 및 숙종 8년(1682) 1월 23일(신미); 『정조실록』 정조 8년(1784) 9월 15일(정묘); 『여지도서』(1757~1765) 충청도 대흥군 건치연혁.
80 『경종실록』 경종 4년(1724) 7월 23일(갑자).
81 『태봉등록』 숙종조 무오(1678, 숙종 4) 6월 24일.
82 『경종실록』 경종 4년(1724) 7월 23일(갑자).
83 『영조실록』 영조 2년(1726) 9월 4일(계사); 『태봉등록』 영종조 병오(1726, 영조 2) 9월 13일.
84 『영조실록』 영조 2년(1726) 9월 25일(갑인).
85 『영조실록』 영조 5년(1729) 8월 29일(신미); 『여지도서』(1757~1765) 충청도 청주목 능침.
86 『영조실록』 영조 5년(1729) 8월 29일(신미); 『태봉등록』 영종조 기유(1729, 영조 5) 9월 초5일.
87 『여지도서』(1757~1765) 경상도 풍기군 산천.
88 『영조실록』 영조 26년(1750) 10월 6일(을해) 및 영조 29년(1753) 1월 14일(경오); 『비변사등록』 영조 29년(1753) 정월 14일; 『여지도서』(1757~1765) 강원도 영월부 능침.

이러한 사료 ⑥의 조치는 영조가 왕실의 의례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정례度支定例』(1749), 『국혼정례國婚定例』(1749), 『선혜청정례宣惠廳定例』(1750), 『상방정례尙方定例』(1752)를 펴낸 일련의 업적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 영조는 재위 34년(1758)에 지금까지의 개선 방안보다 더 획기적인 '태봉윤음'을 반포한다.

⑦ 임금이 숭문당에 나아가서 승지에게 명하여, 태봉윤음胎峰綸音을 입으로 불러 쓰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이제 상고해 온 『실록』을 보니, 광묘光廟(세조)의 잠저潛邸 때 태봉이 성주 선석산에 있는데, 여러 대군과 여러 왕자의 태봉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조에서 다시 봉封하기를 청하매, 그때 민폐를 위하여 동태의 교[同胎之敎]가 있었는데, 단지 다시 돌만 세우게 하였으니, 아름답고 거룩하다. 이로써 보건대, 근래에 태봉을 반드시 봉우리 정상에 하는 것은 바로 그릇된 예이고 또 예조의 초기草記 중 '동강同崗' 두 자를 보더라도 정상頂上이 아님을 가히 알 수 있다. 동태同胎의 아우를 형의 태봉 아래에 묻고 손아래 누이를 손위의 누이 태봉 아래에 묻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하물며 예전의 고사故事가 있으니, 비록 동강에 묻는다 하더라도 무슨 혐의로움이 있겠는가? 지금은 한 태를 묻는 데에 문득 한 고을을 이용하니, 그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것도 마땅히 조종의 제도를 본받아야 될 것이니, 이 뒤로는 새로 정하지 말고 차례로 이어서 묻되, 한 산등성이가 비록 다하였을지라도 한 산 안에 또 다른 산등성이를 이용할 것이며, 그 이어서 묻는 곳은 서로의 거리가 2, 3보에 지남이 없도록 하라. 이른바 동생을 형의 태봉 아래에 묻는다는 것이다. 세자와 여러 서자의 장태는 이미 그냥 두라고 명하였으나, 이 뒤에는 비록 여러 적자와 군주가 있을지라도 원손과 두 군주의 장태한 산을 같이 이용할 것이며, 일후에 대군·왕자 이하의 장태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대代의 멀고 가까움을 구애하지 말고 산등성이가 다하는 것으로 한정할 일을 운관에 분부하라."하였다.

(『영조실록』 영조 34년(1758) 3월 24일(경술))

사료 ⑦의 '태봉윤음'은, 영조가 세조 태실이 성주 선석산 태봉에 여러 대군·군 태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형제·자매의 태를 같은 산등성이[同岡]에 차례로 이어 묻고, 한 산등성이가 다하면 한 산 안에 또 다른 산등성이를 이용토록 한 것이다. 이는 전술한 성종의 1493년 지시, 인조의 1645년 지시, 그리고 숙종의 1678년 지시인 '동태동강론同胎同岡論'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이의 시초는 세종에 의해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성주 선석산 태실 한 곳에 다수의 태실을 조성한 것이 바로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영조는 7년 후(1765) 장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길지에 묻지 말고 궁궐 어원御苑에 묻게 하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린다.

⑧ 경복궁의 위장衛將이 옛날 궁궐[舊闕]의 곁에서 석함石函 하나를 얻어서 바쳤다. 임금이 가져오게 하여 보니, 곧 석함에 봉태封胎한 것이었는데, 석면石面에 '王子乙巳五月日寅時生[왕자는 을사 5월 일 인시에 태어남]'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임금이 옥당에 명하여 『보략譜略』을 상고하여 찾아 아뢰라고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국초의 헌릉 능위에 있는 사방석이 민폐가 크다고 하여 성

조聖祖께서 친히 능소陵所에 나아가시어 양편석兩片石으로 고치게 하셨다. 『국조능지國朝陵誌』에 옛날에는 돌로써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정축년(1757) 이후에 열조의 검소한 덕을 우러러 본받아 도자기[磁]로 대신하게 하였다. 막중한 곳인 능도 오히려 그러하였거든, 하물며 그 다음 가는 것이겠는가? 장태하는 폐단은 내가 익히 아는 바이다. 옛 예[古例]를 고치기 어려우나, 지금 구궐에서 장태 석함을 얻었는데, 이는 중엽 이후의 일이다. 전에 이미 봉태한 것은 지금에 와서 논할 것이 없고, 지금부터 장태는 반드시 어원御苑의 정결한 곳에 도기 항아리[陶缸]로 묻게 하고 이로써 의조儀曹에 싣게 하라."하고, 드디어 정식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영조 41년(1765) 5월 13일(정해))

사료 ⑧의 조치는 영조가 옛 궁궐에서 우연히 찾은 석함(태함)으로 인한 것이다. 1765년(영조 41) 영조는 구궐에 태함을 장태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의 일이라 하면서 1758년(영조 34)의 '태봉윤음'을 변경하여 어원의 정결한 곳에 도기 항아리에 태를 담아 묻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하는 '을유년(1765) 수교'를 내렸다. 이로보아 '중엽 이후'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장태의식이 궁궐의 후원後園에서 치러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정조(1752~1800, 재위 1776~1800)도 선왕(영조)의 예를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태실 가봉은 백성들의 농사에 피해를 준다고 계속해서 미루었다.[89] 또 영조의 '을유년(1765) 수교'를 받들어 1783년(정조 7) 원자(문효세자)의 태를 어원에 묻으려 하였다. 그러나 원자는 왕위계승자이므로 1등 태봉에 택정해야 한다는 신하들에 반대에 부딪쳐 결국 예천에 태실을 조성하게 된다.[90] 이로 인해 영조가 어원에 장태하라는 '을유년(1765) 수교'는 2등 이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를 '계묘년 결론'이라 하겠음)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후 원자(순조)도 1등 길지를 찾아 보은에 장태하게 되는데,[91] 대신 태함은 연석으로 만들고 승군僧軍을 사역시키지 않는 등 물력物力과 인력人力을 감축하도록 '경술년(1790) 수교'라는 개선책을 제시한다.[92]

한편, 정조는 1785년(정조 9)에 왕위에 오르지 못한 아버지 사도세자(1735. 1.~1762. 윤5.)의 태실을 가봉한다.

⑨ … 작년(1783)에 안태사가 내려갈 때에도 하교한 바가 있었는데, 경모궁 태봉景慕宮 胎封을 아직도 가봉하지 않고 있으니, 비록 근거할 전례前例가 없지만 어찌 규례를 만들어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조 당상 1원이 나아가서 상황을 봉심하고 돌아와 아뢴 뒤에 품처하라."하였다.

(『일성록』 정조 8년(1784) 9월 15일(정묘))

사료 ⑨로써 전례가 없지만 새 규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하였다. 한 달 후에는 내년 봄에 가봉하도록 지시한다.[93] 이로 인해 다음 해(1785) 1월에는 관상감에 가봉할 길일吉日을 잡게 하고,[94] 가봉비에 '景慕宮胎室

89 『정조실록』 정조 12년(1788) 1월 13일(병자).
90 『정조실록』 정조 7년(1783) 4월 27일(정해)·4월 28일(무자)·7월 5일(갑오)·8월 5일(갑자)·8월 29일(무자).
91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7월 7일(을유)·8월 17일(을축).
92 『원자아기씨안태등록』(1790).
93 『일성록』 정조 8년(1784) 10월 8일(경인).
94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1월 19일(기사); 『일성록』 정조 9년(1785) 을사 1월 19일(기사).

(경묘궁태실)'로 쓰게 하며, 금표는 200보에서 300보로, 수호군은 2명에서 8명으로 증가시켜[95] 그 해 3월에 가봉을 완료하였다.[96] 이때 공사를 담당했던 책임자들의 명단이 지금 명봉사 일주문 주변 자연 바위에 각자되어 있어 문헌사료의 기록을 입증하고 있다.[97] 이러한 경모궁 태실의 가봉 과정은 『춘관통고春官通考』(1788)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98]

즉, 정조는 1784년(정조 8) 9월 아버지 경모궁(사도세자)의 태실이 아직도 가봉되지 않았으니, "비록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지만 어찌 새로 규례를 만들어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면서 관원으로 태실을 살펴보게 하고, 가봉(1785)시켰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정조는 1776년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시호를 장헌세자로 바꾸고 무덤을 수은묘垂恩墓에서 영우원永祐園으로, 사당을 수은묘垂恩廟에서 경모궁景慕宮으로 추승追昇했다. 또 왕으로 추존하려고 하였으나 노론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다. 결국 사도세자는 고종 때(1899. 7.) 왕(장종)으로 추존되며, 곧이어(1899. 11.) 황제(장조 의황제)로 격상된다. 그러므로 사도세자는 태실이 가봉될 때 왕으로 추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태실이 가봉될 자격이 되지 않는데, 정조는 사도세자에게 추존왕명을 올리기 전인데도 이례적으로 규례를 바꾸어 임금의 예에 준하여 사도세자의 태실을 가봉하였던 것이다. 정조의 이러한 행위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시키지 못하게 되자 태실이라도 가봉하여 아버지를 임금과 같은 지위로 격상시키고, 영조로부터 왕위 전승과정을 보충하여 정조 자신의 국왕 승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정조는 영조의 '을유년(1765) 수교'를 집행하여 새로 태어난 옹주의 태를 궁궐에 묻는다.

> *⑩ 신생 옹주新生翁主의 태를 내원內苑에 묻었다. 우리나라의 고사에 왕자나 공주·옹주가 태어날 때마다 유사가 장태할 곳 세 곳을 갖추어 올려 낙점을 받아서 안태사를 보내 묻곤 하였다. 그런데 영종 갑술년(1754)에는 명하여 군주郡主의 태를 묻을 적에 안태사를 보내지 말고 다만 중관을 시켜가 묻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을유년(1765)에 장태 석함을 경복궁의 북쪽 성 안에서 얻고서야 비로소 중엽 이전의[99] 옛 규례는 내원에 묻었음을 알았다. 명하여 앞으로 장태는 반드시 내원의 정결한 땅에 묻도록 하였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유사有司가 옹주의 장태 의식 절차를 품하자, 임금이 선조先朝(영조)의 수교를 준행하여 이 날 주합루宙合樓의 북쪽 섬돌[北砌]에 장태하게 하였다.*
>
>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4월 8일(경오))*

95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1월 25일(을해); 『일성록』 정조 9년(1785) 을사 1월 25일(을해).

96 『정조실록』 정조 9년(1785) 3월 18일(정묘);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3월 18일(정묘); 『일성록』 정조 9년(1785) 을사 3월 18일(정묘).

97 이 각석문은 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 1-1번지에 위치하며, 자연 바위의 앞면에 가로 76 × 세로 99㎝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얕게 파고 그 안에 '雲觀提擧 洪良浩/ 都巡察使 鄭昌順/ 豊基郡守 李大永/ 榮川郡守 鄭來鼎/ 監役官 安思彦'라고 음각되어 있다. 각석문은 '예천 명봉리 경모궁 태실 감역 각석문'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23호(2014. 10. 20.)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태실을 중수하고 주변에 기록을 남긴 것이 있는데, 경북 김천 직지사 경내에 정종 가봉태실의 석물을 중수한 '정욱제 불망비'가 그것이다. 비신에 '胎室石物重修鄭公旭濟不忘碑/ 雨洗風打 石欄頹圮 獨辦千貨 非忠易爲/ 甲戌十月 日立[태실석물중수 정욱제 불망비. 비에 씻기고 바람에 깎여 돌난간 무너졌네 홀로 재물을 많이 들여 분명하게 하였으니(중수하였으니) 충성이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여겼으리라. 갑술(1874) 10월 일 세움]'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98 『춘관통고』(1788) 권68 가례 태봉.

99 『영조실록』 영조 41년(1765) 5월 13일(정해)에는 궁궐 내에 장태한 것은 '중엽 이후'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중엽 이전'이라 하여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술했듯이 왕위 계승자가 아닌 2등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생 옹주는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숙선옹주다. 이와 같이 숙종의 '무오년(1678) 수교', 영조의 '태봉윤음(1758)'과 '을유년(1765) 수교', 그리고 정조의 '경술년(1790) 수교' 등 일련의 개선 방안은 모두 태실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 애민정신愛民精神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정조는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지 않았다.

순조(1790~1834, 재위 1800~1834)는 재위 1년(1801)에 정조의 태실을 가봉하였는데, 경모궁 태실의 예에 따라 시행하였다.[100] 또 순조도 아버지(정조)의 개선책을 준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재위 9년(1809) 효명세자(문조)의 태를 경기도에 장태하면서 정조의 '경술년(1790) 수교'에 따라 연석을 사용하고 인력을 줄였으며,[101] 재위 27년(1827) 원손(헌종)의 태를 공충도(지금 충청도) 가야산에 장태하면서도[102] 이를 준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재위 19년(1819) 순조 왕녀의 태가 강원도 평창에 장태되는데, 이 예를 제외하고는 영조의 '을유년(1765) 수교' 이후 2등 이하는 어원에 묻는 것이 정착되었다.[103] 이는 앞의 〈표 1〉에서 잘 확인된다. 또 순조는 자신의 태실을 재위 6년(1806)에 가봉하고 전례에 따라 보은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104]

헌종(1827~1849, 재위 1834~1849)은 자신의 태실을 재위 13년(1847)에 가봉하며, 철종(1831~1863, 재위 1849~1863)도 재위 10년(1859)에 원자의 태실을 강원도 영월에 조성하였다.[105] 고종(1852~1919, 재위 1863~1907)도 재위 11년(1874)에 원자인 순종(1874~1926, 재위 1907~1910)의 태실을 충청도 홍성군에 조성한다.[106] 또 고종은 제4남 왕자인 영친왕(영왕·이왕전하)의 태를 1897년(고종 광무 1) 창덕궁 금원에 장태하였다.

한편, 순종 때 1908년(순종 융희 2) 5월에 헌종의 가봉태실이 훼손되자 덕산 군수가 중수하는데,[107] 조선 말기에도 태실은 계속해서 관리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왕실에서는 태실에 대한 관념이 다른 왕조의 왕실보다 강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태실 제도를 유지·관리하였다. 긴 기간 동안 당시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발전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1910~1945) 들어와 일제는 이왕직을 시켜 전국의 수많은 태실을 파괴하고 54위의 태를 서삼릉으로 옮겨 조선 왕실 태실의 맥을 끊어 놓았다.[108]

100 『순조실록』 순조 1년(1801) 8월 10일(갑인)·10월 9일(임자)·11월 8일(신사)·11월 11일(갑신);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1801).
101 『원자아기씨장태의궤』(1809).
102 『원손아기씨장태등록』(1827).
103 윤진영(2013, 「조선 후기 안태의례의 개선과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67, 조선시대사학회, 413·417쪽)은 영조의 을유년 수교 이후로는 2등 이하는 궁궐에 묻는 것이 예외 없이 실행되었던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
104 『순조실록』 순조 6년(1806) 10월 20일(계사) 및 순조 10년(1810) 5월 25일(무인).
105 『원자아기씨장태의궤』(1859).
106 『원자아기씨장태의궤』(1874).
107 『황성신문』 1908년 5월 3일.
108 심현용, 2016, 「일제강점기의 태실 정책」,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종합적 검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02

태실의 입지와 구조

A. 태실의 입지와 조성 이유

1. 태실의 입지

태실이 조성되는 태봉산의 입지立地 조건은 다음의 문헌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음양학을 하는 정앙이 글을 올리기를, "당나라 일행一行이 저술한 『육안태』의 법[六安胎之法]에 말하기를, '사람이 나는 시초에는 태로 인하여 자라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그가 어질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은 모두 태에 관계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는 15세까지 태를 간수하게 되나니, 이는 학문에 뜻을 두고 혼가婚嫁할 나이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남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이 높으며, 병이 없는 것이요, 여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하여 남에게 흠앙欽仰을 받게 되는데, 다만 태를 간수함에는 묻는데 도수度數를 지나치지 않아야만 좋은 상서祥瑞를 얻게 된다. 그 좋은 땅이란 것은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는 듯 해야만 길지吉地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 왕악王岳의 책을 보건대, '만 3개월을 기다려 높고 고요한 곳을 가려서 태를 묻으면 수명이 길고 지혜가 있다.'하였으니, 사왕嗣王(문종)의 태는 그가 왕위에 오름을 기다려 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안태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으니, 원컨대, 일행과 왕악의 태를 간수하는 법[藏胎之法]에 의거하여 길지를 가려서 이를 잘 묻어 미리 수壽와 복福을 기르게 하소서."하였다. 풍수학에 내리어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상서한 것이 적당하다고 하므로, 명하여 내년 가을에 다시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18년(1436) 8월 8일(신미))

② 임금이 말하기를, "태실 도국 안에 고총古塚이 있으면 길흉이 어떠한고."하니, 의생이 아뢰기를, "『안태서安胎書』에 이르되, '태실은 마땅히 높고 정결한 곳이라야 한다.'하였은즉, 장경의 묘는 속히 철거함이 마땅하옵니다."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 1월 5일(을묘))

③ 대왕 태봉은 둘레를 300보로 제한하고 수지기를 두어서 태봉을 돌보게 합니다. 왕자와 여러 아기씨의 태봉은 100보로 제한하고 따로 수지기를 두지 않습니다. 지난 선조 때인 만력 33년

(1605)에 공주 태봉은 200보로 제한한다는 정탈을 예조에서 받아 시행했다는 기록이 지금 『관상감등록』에 올라있습니다. 무릇 태봉은 산 정상에 쓰는 것이 예例이며, 내맥來脈(來龍)이나 좌청룡·우백호[龍虎]나 안대案對(案山)는 원래 간택하는 일[看擇之事]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 왕녀의 태봉 보수步數는 선조 때 규정[定式]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할 듯 하오니 …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태봉등록』 현종조 임인(1662, 현종 3) 2월 초1일)

④ 안태사 민점이 아뢰기를, … 하니, 임금이 따랐다. 안태하는 제도[安胎之制]는 고례古禮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반드시 들판 가운데의 둥근 봉우리[野中圓峰]를 택하여 그 정상에 태를 묻고 태봉胎峰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표식을 하여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릉의 제도와 같이 하였다. 임금에서부터 왕자와 공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태봉이 있었으니, 이러한 우리나라 풍속의 폐단에 대해서 식견 있는 자들은 병으로 여겼다.

(『현종개수실록』 현종 11년(1670) 3월 19일(병자))

⑤ 형조판서 윤유는 이르기를, '신이 … . 태실의 땅 점유는 높고 뾰족한 곳 정상에 있는 것이 예例로 민전民田을 측량해도 금표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좌부승지 이광보가 아뢰기를, "태실은 토산土山의 높고 뾰족한 곳에 두기 마련입니다. 요즈음 와서 사람은 많아졌고 땅은 귀하게 되었으니, 산허리 이상은 어디든지 개간하려 듭니다. 17결의 농지가 금표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 결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 .

(『태봉등록』 영종조 신해(1731, 영조 7) 3월 27일)

이 문헌사료들은 태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의 입지를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육안태』와 『안태서』 등의 책을 근거로 태가 묻힐 땅의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사료 ①·②·⑤는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높고 뾰족하여 공중을 받치는 듯해야 하며, 또 높고 고요하고 정결한 곳이 길지여서 이곳에 태실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며, 사료 ③은 태실은 산 정상에 쓰는데, 내맥來脈이나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와 안산案山은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고, 사료 ④는 반드시 들판 가운데의 둥근 봉우리 정상에 태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중 사료 ①·②·⑤는 태실의 개념적인 입지조건을 설명한 것이고, 사료 ③·④는 풍수지리적 입지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태실이 조성되는 길지는 단맥斷脈되어 내맥이 없는 들판 가운데에 홀로 우뚝 솟은 산봉우리 정상으로 좌청룡·우백호나 안산 등은 신경 쓰지 않는 지형을 말한다. 그러므로 태실의 입지는 풍수지리적으로 주산主山이나 사신사四神砂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산이 있고 혈穴 주위에 사신사가 감싸고 혈 앞에 물이 흐르는 곳에 무덤[墓]를 쓰는 것과 달리 태실의 입지는 들판에 홀로 솟은 산봉우리 정상이라고 연구되어 왔다.[109]

109 김영진, 1993, 「청원 산덕리태실에 대하여 -그 성격과 복원을 중심으로-」,『청주대학교 박물관보』 6, 청주대학교 박물관, 63쪽; 김용숙,

하지만 이는 실제 태봉산을 직접 답사하여 조사하지 않고 사료 ③·④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전국에 분포해 있는 전술한 제1부 제Ⅱ장의 〈표 1〉인 조선시대 태실을 현지 조사해보면, 그 입지조건이 전술한 사료 ③·④와 다른 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즉 전술한 문헌사료의 기록처럼 태봉산은 산맥이 연결되지 않고 들판에 홀로 솟은 곳이 아니라 주산을 뒤로 하여 맥이 연결된 우뚝 솟은 반구형 또는 삿갓형의 산봉우리 정상에 태실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으로는 좌청룡·우백호가 감싸고 그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안산이 위치하고 있다.[110]

태봉산의 형상은 높은 주산에서 맥脈이 내려오면서 혈처穴處까지 경사가 낮아지다가 혈 뒤에서 솟구쳐 돌혈突穴을 이루고 정상에 혈장穴場을 형성한 후 다시 급경사로 낙맥落脈하며, 주위로는 좌청룡·우백호가 감싸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안산이 있는 형국形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료 ③·④에서 내맥이 연결되지 않고 들판 가운데 우뚝 솟은 원봉圓峯으로 표현한 것은 올바른 입지조건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평지 돌혈을 취한 태봉산의 앞쪽에서 지형을 바라보면 뒤쪽의 내맥이 보이지 않아 들판에 홀로 우뚝 솟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사료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시대 태실 중 문헌사료의 표현대로 내맥 없이 들판 가운데 우뚝 솟은 태봉산으로는 성종·인성대군·옥혜공주·인흥군·순종의 태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지도를 살펴보면, 이 5개소의 태봉산이 현재의 지형과 다르게 모두 산맥山脈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5개소의 태실들은 후대의 개발로 산맥이 끊겨 지형이 변하여 현재 들판에 홀로 솟은 독봉獨峯처럼 보였을 뿐이다.[111]

또한 문헌사료에서 태실의 입지가 풍수지리와 깊은 관련이 있음도 알 수 있다. 문헌사료 상 태실은 주산을 고려하지 않고 주위의 사신사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며, 우뚝 솟은 산봉우리 정상만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나 실제 지형을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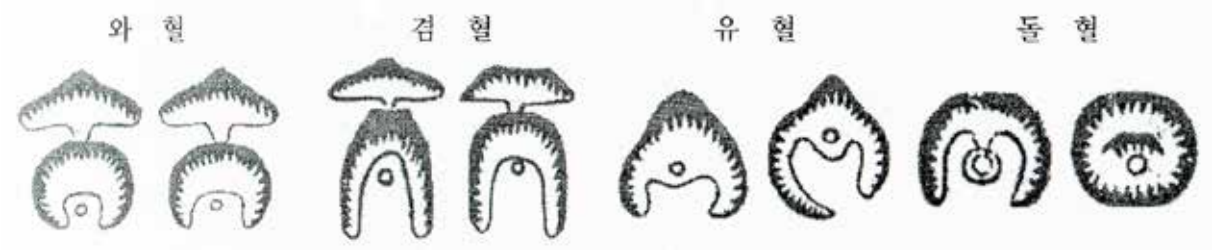
태실의 입지조건은 풍수지리적으로 내룡맥來龍脈이 잘 연견된 사상혈四象穴(窩·鉗·乳·突) 중 돌혈突穴에 해당한다.[112](그림 1·2)

1999, 「부록: 태봉연구」,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356~358쪽; 윤석인, 2000,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서삼릉 이장 태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28쪽; 윤석인, 2000, 「조선왕실의 태실석물에 관한 일연구 -서삼릉 이장 원 태실을 중심으로-」, 『문화재』 33, 국립문화재연구소, 103쪽; 강수연, 2002, 「조선시대 백자태항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쪽; 박주헌, 2004, 「태봉의 풍수지리학적 입지특성 연구(순조, 세종 왕자, 예종 태봉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쪽; 김지영, 2014, 「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 -문화적 실천양상과 그 의미-」, 『역사와 세계』 45, 효원사학회, 59쪽.

110 심현용, 2008, 「Ⅱ. 조선왕실의 태봉」, 『조선왕실의 태봉』, 국립문화재연구소;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의 입지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118, 대구사학회.

111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158~160쪽.

112 김두규, 1998, 『우리 땅 우리 풍수』, 동학사, 109쪽; 박주헌, 2004, 「태봉의 풍수지리학적 입지특성 연구(순조, 세종 왕자, 예종 태봉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0쪽; 박대윤, 2011, 「조선시대 국왕태봉의 풍수적 특성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0·287쪽.
그러나 태실이 산봉우리 정상에 택지하기 때문에 혈처의 모양인 명당을 만들지 못하여 사상혈로 나누는 것 자체가 곤란하므로 돌혈로 볼 수 없다는 견해(김태일, 2013, 「조선의 왕릉과 태봉의 비교 연구 -동기감응론과 풍수이론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7~150·154쪽)도 있다.



〈그림 1〉 혈의 네 가지 종류[四象穴][113]

돌혈이란 혈이 우뚝하게 솟은 것으로 그 특징은 혈장穴場이 평탄하며, 혈장 바로 뒤의 산줄기가 꺼졌다가 다시 치솟는 형상이다. 그 모양에 의해 가마솥을 엎어놓은 모습 또는 물 위에 거북이 떠 있는 모습 등으로 비유되기도 하며, 위치에 따라 높은 산에 있는 산곡돌山谷突(藏風突)과 평지에 있는 평양돌平洋突로 나뉘며, 모양에 따라 대돌大突·소돌小突·쌍돌雙突·삼돌三突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114]

① 돌혈의 앞 모습(정면)　② 돌혈의 옆 모습(측면)

〈그림 2〉 돌혈의 전경(울진 나곡리 광해군 왕녀 태봉산)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태실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삼국시대 김유신 태실이며, 그 다음이 고려시대 인종 태실이다.

풍수지리적으로 신라 김유신 태실은 돌혈의 형국을 하지 않은 고산준령高山峻嶺에 위치하나, 고려 인종 태실은 전형적인 돌혈에 해당된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 가장 빨리 조성된 태조 태실을 비롯하여 모든 태실이 돌혈에 해당되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돌혈의 형국이 태봉산으로 활용된 것은 고려 인종 태실이 가장 빠르며, 이로보아 태실의 입지조건으로 돌혈이 택정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인종태실이 조성된 1115년 2월~1146년 2월 사이이다.

113 김두규, 2005, 『풍수학 사전』, 비봉출판사, 234쪽.
114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33쪽; 村山智順 저, 鄭鉉祐 역, 1996, 『한국의 풍수』 3판, 명문당, 103~114쪽; 김두규, 2005, 『풍수학 사전』, 비봉출판사, 127~129·588쪽.

또 앞의 사료 ①에서 태실의 입지를 중국 당나라 일행(683~727)의 『육안태』와 명나라 왕악(1485~1505)의 책을[115]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사료 ②에서도 언제 누구의 저술인지 알 수 없지만 『안태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 다음의 문헌사료에서는 『태장경』의 땅을 가리는 법에 의하여 길지를 구하게 한 것이 확인된다.

> *⑥ 풍수학에서 아뢰기를, "『태장경胎藏經』에 이르기를, '대체 하늘이 만물을 낳는데 사람으로써 귀하게 여기며, 사람이 날 때는 태로 인하여 장성하게 되는데, 하물며 그 현명할지 어리석을지[賢愚]와 잘될지 못될지[盛衰]가 모두 태에 달려 있으니 태란 것은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릇 태에서 내려온 지 3월에는 명칭을 화정태和正胎라 하고, 5월에는 연장태軟藏胎라 하고, 3년에는 장응태壯應胎라 하고, 5년에는 중부태中符胎라 하고, 7년에는 향양태向陽胎라 하고, 15년에는 과양태過陽胎라 하니, 이를 육안태법六安胎法이라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경서에 이르기를, '남자가 15세가 되면 학문에 뜻을 둘 나이고, 여자가 15세가 되면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라.'하였으니, 그렇다면 남자는 마땅히 연장태·중부태·향양태 중의 연월에서 간수하여 학문에 뜻을 둘 나이를 기다려야만 하고, 여자도 또한 화정태·장응태·과양태의 연월에서 간수하여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를 기다려야만 하니, 남자가 만약 좋은 땅을 만난다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구경九經에 정통精通하며 단상團爽하여 병이 없으며, 관직이 높은 곳에 승진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세자[단종]의 태실이 성주의 여러 대군들의 태실 옆에 기울어져 보토한 곳에 있으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태경胎經(『태장경』을 지칭)』의 땅을 가리는 법[胎經擇地之法]에 의하여 길지를 경기와 하삼도下三道에서 널리 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1450) 9월 8일(기유))*

이 『태장경』은 고려시대 과거제도에서 잡과雜科 중 지리과地理科를 선발하는 시험과목으로 인조 14년(1136) 11월에 채택되었는데,[116] 풍수관료의 과거시험에 이 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 왕실에서는 장

115 왕악이 지은 책은 『왕악산서(王嶽産書)』로 여기에 기록된 '태를 묻는 방법[藏胎衣法]'은 세종 16년(1434) 내의원에서 노중례(盧重禮, ?~1452)가 편찬한 『태산요록(胎産要錄)』(1434) 하권(下卷) 장포의법(藏胞衣法)에 그대로 인용되었는데, "『왕악산서』에 태반을 묻는 방법은 먼저 맑은 물[淸水]로 씻고 청주(淸酒)로 씻은 다음 동전 한 개를 문양을 앞으로 해서 태반 속에 넣고 새 사기 항아리 안에 담아 비단으로 그 윗부분을 싼 다음 주둥이를 밀봉하여 조용한 곳에 둔다. 만 3개월을 기다려 좋은 땅[吉地]의 볕이 잘 들면서 높고 고요한 곳에 3척 정도 땅을 파내어 항아리를 묻고 항아리 위로 1척 7촌만큼 흙을 덮고 꾹꾹 다진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장수(長壽)하고 지혜롭게 된다"고 하였다.(김지영, 2014, 「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 -문화적 실천양상과 그 의미-」, 『역사와 세계』 45, 효원사학회, 54쪽; 진갑곤, 2015, 「태실 관련 문헌과 기록의 가치」,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세계유산 등재, 어떻게 할 것인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52~153쪽)

116 『고려사』(1451) 권73 지27 선거1 과목1 인종 14년 11월; 『증보문헌비고』(1908) 권191 선거고9 과거제도8 잡과 고려 인종 14년.
이 『태장경』에 대해서 저자와 제작시기 등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윤석인(2000,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서삼릉 이장 태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쪽)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책으로 추정하였으며, 윤진영(2013, 「조선후기 안태의례의 개선과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67, 조선시대사학회, 393쪽)은 중국 당대(618~907)에 지어져 여말선초에 한국에 전래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김두규(2015,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풍수」,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21~227쪽)는 『태장경』이 중국의 어떤 특정한 책의 별칭이 아니라 출산과 태에 관한 중국의 여러 산서(産書)들을 바탕으로 고려왕조가 하나의 책으로 편찬한 것으로 원래 풍수서적이 아니었으나 불교의 생명관을 담는 등 그 내용면에서 고려의 국가 풍수관과 일치하여 지리업 과목으로 채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중국 송(宋) 초의 『태평어람(太平御覽)』(983) 권722 방술부3(方術部三) 의2(醫二)에 "장중경(張仲景, 150~219)의 『방서(方序)』에 이르기를, "위범(衛泛)은 의술을 좋아하여 어려서부터 중경을 스승으로 삼았고 재주와 식견이 있었다. 『사역삼부궐경(四逆三部厥經)』과 『부인태장경(婦人胎藏經)』, 『소아노신방(小兒顱囟方)』 등 3권을 지었는데, 모두 세상에 행해졌다[張仲景 方序曰

태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장태는 풍수사風水師의 고유 업무였던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시험과목에 포함된 시기부터는 태실이 풍수지리의 원칙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보다 앞서 광종 9년(958)에 고려의 과거제도가 처음 시행되는데, 이때 잡과에서 복卜과 지리地理 관리를 선발하고 있는 것이[117]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전술한 여러 책들이 현재 전해지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태실이 조성될 장소인 생기生氣가 뭉쳐있는 곳, 즉 '돌혈'의 형국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른 시기에 이미 확립되어 적용되었으며, 그 시기는 『태장경』이 과거시험 과목에 채택되는 시기(1136년 11월)와 인종 태실이 조성되는 시기(1115년 2월~1146년 2월)가 거의 일치하므로 늦어도 1115년 2월~1136년 11월 사이로 추정된다.[118]

그리고 전술한 선각대사 형미의 기록으로 보아 그 시기는 나말여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즉 919년(고려 태조 2) 이전 개성의 오관산에 진인의 태를 묻었다고 하였다. 이 오관산五冠山은 산 정상에 다섯 개의 작은 봉우리가 둥그렇게 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119] 현재 북한에 있어 가볼 수 없지만 이런 둥근 봉우리는 풍수지리상 돌혈의 형국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진인眞人[120], 즉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저명한 도사道士로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10세기 초, 즉 나말여초에 벌써 돌혈에 장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도선道詵(827~898)이 한국의 풍수사상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또 이렇게 돌혈을 선택하여 산 정상에 태실을 조성하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산봉우리 정상의 응축된 힘센 기氣를 받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상에 있는 태실이 아래의 산 전체와 한 몸이 되어 외관상 거대한 태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백성들이 높고 우뚝 솟은 산 정상에 위치한 태실을 보려면 자연스럽게 올려다보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태봉산을 올려보아 우러러보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외감과 존경 및 위엄을 느끼게 되며 신성시 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도 얻게 되므로 돌혈이라는 풍수지리적 형국을 선정하여 태실을 조성하였던 것 같다.

衛泛好醫術 少師仲景 有才識 撰 四逆三部厥經 及 婦人胎藏經 小兒顱囟方 三卷 皆行于世]"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부인태장경』이 나오는데, 『태장경』과 동일한 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후한 말 2~3세기에 『태장경』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종류의 책들이 있었다. 그리고 1136년(인종 14) 지리과 과거시험 과목으로 『태장경』이 채택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전에 한국에 전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7 『고려사』(1451) 권73 지27 선거1 광종.

118 이필영(2001, 「민속의 지속과 변동 -출산의례 중의 안태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3, 한국역사민속학회, 16쪽)은 『고려사』(1451)의 일부 기록을 참고하여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처럼 안태사나 태실증고사와 같은 직분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오류이다.

119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12 경기 장단도호부 산천.
"오관산(五冠山)은 부(府)의 서쪽 30리에 있다. 산 꼭대기[山頂]에 다섯 개의 작은 봉우리가 둥그런 관(冠) 같으므로 이로 인해 이름하였다."

120 진인(眞人)은 도교나 불교에서 깊은 진리를 깨닫거나 세속을 초월한 사람을 말한다.(한글학회, 1995, 『우리말 큰사전』 2, ㈜어문각, 3931쪽;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하, 두산동아, 5821쪽; 이희승, 2007, 『국어대사전』 제3판 수정판, 민중서림, 3641쪽) 즉, 도가·도교·불교·선도 등에서 도(道)와의 합일(合一)을 이룬 종교적 수행자를 가리키며, 『장자(莊子)』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다.

2. 태실의 조성 이유

우리나라 태실은 그 입지조건에서 풍수적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조선시대 들어와 태실 제도가 확립되어 태실이 활발히 조성되었다.

태胎는 산모와 아기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연결하는 매체이기에 출산 뒤에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었다. 민간에서는 태를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물에 떠내려 보내는 장태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태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운國運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여 민간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다루었으며, 더 나아가 태를 모시는 태실을 조성하여 관리하였다. 태실이 완성된 후에는 수호군을 두어 보호·관리하였는데, 태실을 훼손하거나 금표 구역에서 벌목, 채석, 개간 등을 하는 일은 엄격히 규제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처벌을 하였다. 이때 지방관도 태실을 제대로 수호하지 않았다하여 함께 처벌하였다. 그리고 태실을 조성하거나 보수할 때 태봉도나 의궤(또는 등록)를 편찬하고, 지도 제작 시에도 태실을 표시하여 백성들에게 그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켰다.

이렇게 조선 왕실에서 태를 신성시하고 중요시하여 태실 제도를 확립하고 자녀의 태를 전국 길지에 묻어 태실을 활발히 조성하였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⑦ 음양학을 하는 정앙이 글을 올리기를, "당나라 일행一行이 저술한 『육안태』의 법[六安胎之法]에 말하기를, '사람이 나는 시초에는 태로 인하여 자라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그가 어질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은 모두 태에 관계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는 15세까지 태를 간수하게 되나니, 이는 학문에 뜻을 두고 혼가婚嫁할 나이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남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이 높으며, 병이 없는 것이요, 여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하여 남에게 흠앙欽仰을 받게 되는데, 다만 태를 간수함에는 묻는데 도수度數를 지나치지 않아야만 좋은 상서祥瑞를 얻게 된다. 그 좋은 땅이란 것은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는 듯 해야만 길지吉地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 왕악王岳의 책을 보건대,'만 3개월을 기다려 높고 고요한 곳을 가려서 태를 묻으면 수명이 길고 지혜가 있다.'하였으니, 사왕嗣王(문종)의 태는 그가 왕위에 오름을 기다려 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안태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으니, 원컨대, 일행과 왕악의 태를 간수하는 법[藏胎之法]에 의거하여 길지를 가려서 이를 잘 묻어 미리 수壽와 복福을 기르게 하소서."하였다. 풍수학에 내리어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상서한 것이 적당하다고 하므로, 명하여 내년 가을에 다시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18년(1436) 8월 8일(신미))

⑧ 부지돈녕부사 권총이 글을 올리기를, " … 대궐을 바라보며 황공하고 전월戰越할 뿐이오나, 또 태胎를 감추는 것은 수壽를 기르고 병病을 막는 방비입니다. 지금 성주목사 유지례가 권세가와 결탁하고 감사에게 아양을 부려, 위로는 성상聖上을 무시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괴롭히오매, 사람들이 거꾸로 달아 맨 것같이 괴로워하며, 만인의 입이 쑤군거리어 모두 지례의 고기를 먹고자 합

니다. 이 말이 경내에 파다합니다. 그 죄가 열 가지가 있는데 모두 유죄流罪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감히 다 진달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태산胎山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 아문衙門 1백 40여 칸을 짓고, 그 고을의 품관 한 사람도 따라서 벌목하여 산림이 거의 벗어졌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와 같은 무리가 함부로 선왕의 태실을 움직이고 동궁東宮의 태봉을 짓밟아서 나라 근본을 흔드니, 장릉長陵의 한 줌 흙을 취하고, 태복太僕에 들어가 마추馬芻를 차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성仁聖은 깊이 재도裁度하소서." 하니, 임금이 보고 사헌부에 내려 총의 사혐私嫌으로 무고誣告한 죄를 논핵하여 그 직임을 파면시키매, 헌부憲府에서 율에 의하여 치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리를 알지 못하는 자를 한결같이 법률에 의하여 다스릴 수 없다."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30년(1448) 4월 9일(갑자))

⑨ 풍수학에서 아뢰기를, "『태장경胎藏經』에 이르기를, '대체 하늘이 만물을 낳는데 사람으로써 귀하게 여기며, 사람이 날 때는 태로 인하여 장성하게 되는데, 하물며 그 현우와 성쇠가 모두 태에 매여 있으니 태란 것은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릇 태에서 내려온 지 3월에는 명칭을 화정태和正胎라 하고, 5월에는 연장태軟藏胎라 하고, 3년에는 장응태壯應胎라 하고, 5년에는 중부태中符胎라 하고, 7년에는 향양태向陽胎라 하고, 15년에는 과양태過陽胎라 하니, 이를 육안태법六安胎法이라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경서에 이르기를, '남자가 15세가 되면 학문에 뜻을 둘 나이고, 여자가 15세가 되면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라.'하였으니, 그렇다면 남자는 마땅히 연장태·중부태·향양태 중의 연월에서 간수하여 학문에 뜻을 둘 나이를 기다려야만 하고, 여자도 또한 화정태·장응태·과양태의 연월에서 간수하여 남편을 따라야 할 나이를 기다려야만 하니, 남자가 만약 좋은 땅을 만난다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구경九經에 정통精通하며 단상團爽하여 병이 없으며, 관직이 높은 곳에 승진되는 것입니다.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1450) 9월 8일(기유))

사료 ⑦~⑨에서 보듯이, 조선 왕실에서 전국의 명당에 태실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태를 잘 묻음으로 인해 병을 막아 수와 복을 길러 무병장수無病長壽하게 하고, 또 어질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이 모두 태에 달려있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태가 자녀의 운명까지 결정하고, 왕이나 왕자 및 왕세손의 경우는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되어 나라의 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과 관념이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풍수지리의 핵심이론인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에 따른 것이다. 즉 태를 좋은 땅에 묻어 좋은 기氣를 받으면 그 태의 주인이 무병장수하여 왕업王業의 무궁무진한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태실 제도가 조선 세종 때 관련 절차나 의례 등이 확립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세종 때 풍수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중국 전래의 무위자연적 도가사상道家思想과 주역周易의 술법적 성격이 풍수지리설의 지기쇠왕사상志氣衰旺思想의 기초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세종 때 풍수사상이 제대로 정착됨으로 인해 태는 인신人身이 깃들인 체기體氣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풍수지

리설에 입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실 조성 시 전문 풍수학 관리가 관여하였다.

전술한 사료 ⑦~⑨로 보아 겉으로 드러난 태실의 조성이유는 무병장수이지만, 그 속내에는 역성혁명으로 나라를 창업한 이씨 왕실이 끊기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계승·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무병장수와 복보다는 장래 왕업지속을 위한 축원祝願이 깔려있으며, 왕조에 위협적인 인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명당을 먼저 선점先占하여 태실을 조성하거나 기존 사대부나 일반 백성들의 명당을 빼앗아 태실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면裏面에는 조선 왕조에 위협적인 인물이나 세력이 배출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 같다.[121]

또한 태실은, 왕릉들이 도성都城을 중심으로 10리 밖 100리 이내에 조성되는 것과[122] 달리 가까운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먼 곳까지 택정하여 조성하는데, 이는 왕실의 영향력을 멀리 떨어진 지역에 까지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안태사가 태를 봉송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왕실의 위엄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왕실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전국에 태실을 조성하는 것은 왕실의 번영을 보여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왕실의 권위와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금이 되었을 때 아기태실을 가봉하는 것은 다른 왕자녀의 태실과 구별하여 국왕의 신분과 체모에 어울리게 정비하여 위엄을 높여 더욱 신성시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아기태실보다 많이 태실 수호군의 인원을 8명으로 증가시키고 금표구역도 300보로 확장하였던 것이다. 또 가봉하는 과정에서 왕의 태실이 위치한 지역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리는 기능도 하였다.

고려 및 조선시대 왕의 태실이 조성된 지역의 읍격을 승격시켜 특혜를 준 것도 모두 왕실에 충성을 유도하고 백성들이 자기 마을에 모셔진 태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123] 그러므로 고려시대 '왕씨王氏' 왕조보다 조선시대 들어와 태실 제도가 확립되고 더 활발하게 태실이 조성되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백성들에게 왕실의 위엄과 번영을 알리고 명당을 선점하여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자손대대 왕업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이씨李氏' 왕조의 통치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21 김두규, 1998, 『우리 땅 우리 풍수』, 동학사, 104쪽; 김두규, 2015,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풍수」,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27~231쪽.
김두규는 태실의 조성이유로 ① 풍수지리의 핵심이론인 동기감응론을 따른 것이다. 즉 태를 좋은 땅에 묻어 좋은 기를 받으면 그 태의 주인이 무병장수하여 왕업의 무궁무진한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② 기존 사대부나 일반 백성들의 명당을 빼앗아 태실을 만듦으로써 왕조에 위협적인 인물이나 세력이 배출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함이다. ③ 태실이 조성되는 지방의 행정구역 승격 등 특별우대를 하여 왕조의 은택을 일반 백성에게까지 누리게 하여 왕실과 백성과의 유대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 ④ 태실을 전국에 분포시킴으로써 국토관리를 통한 지방세력 견제 및 권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등을 들었다.

122 이창환, 1999,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4~57쪽.

123 고려 충목왕(1344~1348) 때 안축(1282~1348)의 『근제선생집』 권2 가사 죽계별곡에 경상도 풍기지역의 소백산 취화봉에 모셔진 고려 왕실의 태실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로 보아 당시 백성들이 왕실의 태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B. 태실의 구조와 유물

1. 아기태실

1) 아기태실의 구조

아기태실은 왕의 정실正室과 후실後室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남·녀 아기의 태를 태봉산에 장태하고 처음 조성한 태실을 말한다.(그림 1·2) 현존 대부분의 아기태실에는 봉토封土가 남아있지 않으나 강릉 경휘옹주 태실에서 봉토의 형태 또는 관련된 구조가 확인되어 조선시대 아기태실 중 그 원상이 가장 잘 남아있다. 경휘옹주 태실은 삭평되어 현고 약 50~80㎝ × 너비 약 6.6m 크기의 봉토가 남아 있으며, 이 봉토는 평면 원형, 단면 반원형의 반구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봉토 앞에는 아기비가 약 1.5m 떨어져서 세워져 있다. 또 현재 복원된 원주의 복란 태실과 숙정·숙휘공주 태실, 그리고 청원의 인성군 태실도 반구형의 봉토를 하고 그 앞에 아기비가 세워져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아기태실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태봉산의 정상부를 편평하게 정지한다. 그 후 지하에 토광土壙을 파고,[124] 토광 내부를 정지한 후 가운데에 함신과 함개로 이루어진 태함을 안치한다.[125] 태함 중 함신을 먼저 안치하며, 함신의 감실 중앙에 태가 든 태호를 안치하고 태호의 앞쪽 감실 벽에 태지석을[126] 글자면이 태호 쪽으로 향하게 세워놓는다. 태호는 내·외호로 이루어진 이중 태호로 내호 안 바닥 중앙에는 글자면을 위로 한 동전 1개를 놓고 그 위에 씻은 태를 올려놓으며 입구를 청색 천으로 막는다. 다시 내호를 외호 안에 넣고 움직이지 않게 내호와 외호 사이를 솜 등으로 채우고 밀봉한다. 함신의 감실에 봉안물이 모두 안치되면 함신 위를 함개로 덮고 틈새를 유회油灰로 밀봉한다. 그리고 토광의 빈공간과 태함 상부에는 황토·모래·회를 섞은 흙[三物]으로 메우고 단단하게 다진다.[127]

124 지금까지 발굴조사 결과, 토광의 평면 형태는 원형, 사각형, 팔각형의 3가지로 확인되는데, 사각형과 원형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개념이, 팔각형은 8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125 광해군 태실은 현 지면에서 약 1.2m 아래 함개 상부가 노출되었으며, 인성군 태실은 현 지면에서 전체 깊이 약 1.9m이고 왕녀 복란 태실도 전체 깊이 약 1.8m이며, 인종 태실도 지반층을 약 1.5m 팠고, 예산 입침리 태실은 현 지표에서 약 1.6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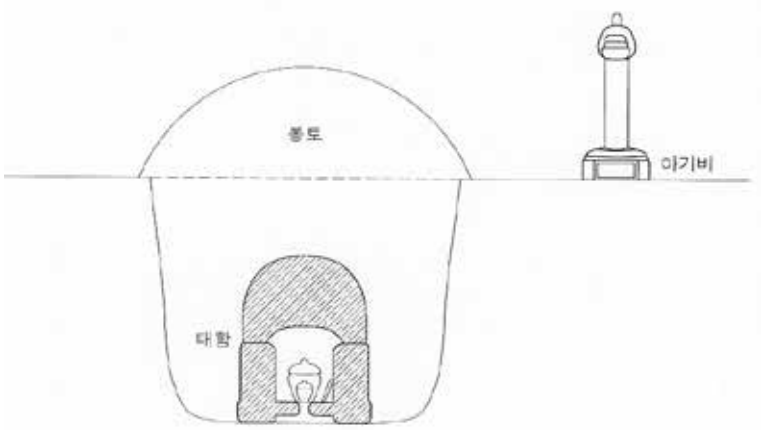
126 태지석은 아기태실의 태지석과 가봉태실의 태지석으로 나뉘는데, 가봉태실의 태지석은 왕으로 등극한 후 태실을 가봉할 때 다시 제작된 것이라는 견해(이규상, 2005,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114쪽)가 있으나, 후술하듯이 가봉태실은 아기태실의 지하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므로 가봉 시 태지석을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오류이다. 또 태지석을 태호 앞에 두는 것은 뒤쪽의 주산에서 내려오는 맥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27 토광을 메우고 상부를 다질 때 주로 황토와 모래 및 회를 섞은 삼물(三物)을 사용하였다. 풍수설에서 명당에 있는 혈의 흙이 콩가루를

① 경휘옹주 태실 전경　　② 숙정·숙휘옹주 태실 전경(복원)

〈그림 1〉 아기태실 전경

① 울진 나곡리 광해군 왕녀 태비도(1917) 128



② 아기태실 구조도

〈그림 2〉 아기태실 구조

빻아 놓은 것 같이 곱고 부드러우면서도 누른 흙[黃土]으로 되어 있으면 최상의 길지로 친다고 하였고 음양오행설에서는 누런 색[黃色]은 중앙을 나타내며, 또 민간에서 주술적 의미로 붉은 색은 악귀를 물리치거나 예방한다는 벽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태실에서도 붉은 색의 황토를 사용하였으며, 또 태실을 견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회를 섞은 것이다.

128 이동철·조미애·윤정우, 2017, 『경북의 태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55쪽.
이 실측도는 1917년 12월 4일 「조선총독부 신라왕녀 태비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신라왕녀'라 하였지만 실제는 조선시대의 광해군 왕녀 태실(심현용, 2001, 「울진지역 태실에 관한 시고」, 『고문화』 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68~173쪽)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태실 중에 아기태실의 봉토가 완전하게 남아있어 실측된 최초의 자료로 그 동안의 의궤에 기록된 내용을 입증하고 있다.

이후 지하의 토광이 메워지면 지상에는 흙을 쌓아 높이 3자, 지름 10자, 둘레 30자의[129] 반구형 봉토를 만든다.[130] 또 봉토의 정면正面으로 3자 떨어져서 아기비를[131] 세운다.[132] 특이하게도 태실을 보호하기 위해 뒤쪽에 C자형으로 둥그렇게 태실 봉토를 감싸면서 돌려진 사성莎城(곡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133] 그리고 주변에는 잔디를 심어 사초지莎草地를 만들어 아기태실을 완성한다. 그리고 태봉산 주변으로는 태실을 보호하기 위해 백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구역으로 금표구역禁標區域과 화소지역火巢地域을 설정한다. 이 금표와 화소구역 안에서는 백성들의 경작이나 벌목, 벌채 및 가축방목 등은 하지 못하게 하였다. 금표구역에는 태실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의 사방에 금표비를 세운다.

이 금표구역은 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왕과 원자 및 원손은 300보, 대군과 공주는 200보, 왕자와 옹주는 100보로 규정하였다.[134] 그러므로 금표구역의 넓이는 태실을 중심으로 왕·원자·원손은 동-서 600보, 남-북 600보이며, 대군·공주는 동-서 400보, 남-북 400보이며, 왕자·옹주는 동-서 200보, 남-북 200보이다.

또 금표구역 밖으로는 띠 모양으로 둘러싼 잡풀지대인 화소지역을 설정하여 화재가 나는 것을 방지하였는데, 금표구역과 화소지역 사이에 산불로부터 태실을 보호하기 위해 땅을 파서 해자垓字를 만들기도 하고 돌을 쌓아 경계를 정하기도 하였다.[135] 이렇게 금표와 화소지역을 만든 것은 태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겠지만, 일반 백성들이 태실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여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봉토와 아기비를 갖춘 아기태실의 형태와 구조가 무덤과 동일하다. 이는 태실이 돌혈이라는 음택자리에 조성되기 때문에 음택풍수의 대표인 무덤[墓]을 본 따서 동일한 구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129 『원자아기씨 안태등록』(1783); 『원자아기씨 장태의궤』(1809); 『원자아기씨 장태의궤』(1874).
이 『원자아기씨 안태등록』(1783)은 문효세자, 『원자아기씨 장태의궤』(1809)는 효명세자(익종=문조), 『원자아기씨 장태의궤』(1874)는 순종의 태실의궤다.

130 그러나 성주 선석산 태실은 아기태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봉토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사방석·중동석·개첨석으로 이루어진 중앙태석을 설치하였는데, 특이한 예라 하겠다. 또 서울 월산대군 태실은 현재 태함의 상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즉 태함의 함신 상부와 함개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인 아기태실 구조는 지하에 태함을 묻고 지상에 봉토를 하는데, 이 태실은 그렇지 않다. 혹시 원래 태함을 묻고 상부에 봉토를 하였던 것이 세월이 흘러 봉토가 훼손되어 없어지고 현재처럼 태함이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태함의 함신이 상당부분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문제이다. 만약 원래 땅에 묻혀 있다면 지상에 설치되는 아기비보다 더 아래에, 즉 현 지표에서 1m 이상의 깊이에 묻혀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태실의 태함 깊이를 보면 대부분 1m 이상에서 확인된다. 이로보아 월산대군 태실은 현재 태함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원래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봉토도 덮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처음 조성되는 아기태실인 선석산 태실의 구조는 일반적인 가봉태실과 아기태실의 구조를 조합한 특수한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이후 월산대군 태실에서 중앙태석은 사라지고 태함만 설치되는데, 선석산 태실을 모방하여 태함을 중앙태석처럼 어느 정도 지상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다시 고려대학교 애기능 태실에서 태함이 완전히 지하로 내려가 이때부터 전형적인 구조의 아기태실이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31 『원자아기씨 안태등록』(1783).

132 고려 및 조선 초까지는 1자[尺]를 32.2㎝로 했으나, 세종 12년(1430)의 개혁 시에 31.22㎝로 바뀌었다가 1902년에 30.303㎝로 통용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서삼릉태실』, 363쪽)

133 현재 수많은 태실 중 사성이 돌려진 태실은 경남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산13·산18번지의 태봉산에 있는 성종의 두 왕녀 태실만 확인된다.

134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3월 6일(을사)에는 단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의 태실 사방경계를 동쪽과 남쪽을 각 9,600보, 서쪽을 9,590보, 북쪽을 470보로 하여 표를 세웠다하였으며,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6월 25일(을묘)에는 원자와 원손은 1등, 대군과 공주는 2등, 왕자와 옹주는 3등으로 태봉의 등급을 구분하였다. 또 『태봉등록』(1643~1740) 서문에는 천계 5년 갑자(1624) 대군태봉등록, 대왕 1등 태봉 300보, 대군 2등 태봉 200보, 왕자 3등 태봉 100보라 하였고, 『대전회통』(1865) 권3 예전 잡령에는 대왕 태실 300보, 대군 태실 200보, 왕자 태실 100보로 규정하였다. 이로보아 초기에는 금표구역이 일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대왕·원자·원손은 300보, 대군·공주 200보, 왕자·옹주 100보로 확정된 것 같다.

135 『태봉등록』 숙종조 계사(1713, 숙종 39) 윤5월 초5일.

2) 아기태실의 유물

(1) 태호

태호胎壺는 태를 담은 항아리를 말하는데, '태항胎缸', '태옹胎甕' 또는 '태胎항아리'라고도 한다. 태호는 태를 담은 작은 내호內壺와 내호를 담은 큰 외호外壺로 구분되며, 이들은 다시 몸체인 호壺와 뚜껑인 개蓋로 구분된다.(그림 3-①)

내호의 내부 바닥 가운데에 글자 면이 위로 향하게 동전 1개를 넣은 후 그 위에 씻은 태를 넣고 기름종이와 남색 비단으로 입구를 막고 붉은 끈으로 묶은 후 뚜껑으로 덮는다. 그리고 외호 안의 바닥에 솜을 깔고 내호를 외호 안에 넣는다. 다시 솜으로 외호와 내호 사이의 빈틈을 단단하게 메워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솜은 호의 입구 조금 아래까지 넣으며, 상부를 가지런하게 한 뒤 종이[草注紙]로 솜 위를 덮는다. 또 솜으로 두껍게 종이 위를 덮고 엿[甘糖]으로 입구를 밀봉한 후 뚜껑으로 덮는다. 그리고 붉은 끈으로 호의 네 귀와 뚜껑의 손잡이에 있는 네 구멍을 관통시켜 서로 묶는다. 마지막으로 외호 뚜껑에 홍패를 매단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태호의 구성과 달리 특이하게 맨 밑에 대접을 두고 그 안에 호를 놓고 이 호를 대접으로 덮는 성주 선석산 태실의 경우도 있다.

(2) 동전

동전銅錢은 태를 넣기 전에 내 태호의 바닥 가운데에 넣는데, 글자 면이 위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동전을 태호에 넣는 것은 무덤에 동전을 넣는 풍습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②)

(3) 금판과 은판

금판金板이나 은판銀板은 종이처럼 아주 얇고 작은 금속으로 대부분 직사각형을 하고 있으며, 무늬는 없다. 금판 또는 은판의 부장은 전술한 동전과 같이 태주胎主에게 금이나 은 등의 재물 복이 가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길 기원하기 위해서이다.(그림 3-③·④)

(4) 홍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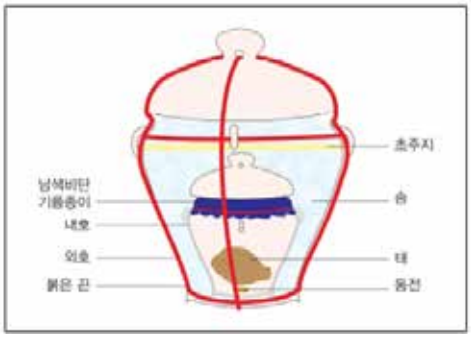
홍패紅牌는 나무로 만들며 직사각형으로 상부 가운데에 구멍을 뚫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를 태호에 담아 장태되기 까지 길한 곳에 보관하는데, 이때 누구의 태인가를 알리기 위해 홍패를 태호에 매단다. 이 홍패에는 태지석처럼 태주에 관한 정보를 적는데, 앞면에는 출생일시와 어머니 및 남·녀 성별을, 뒷면에는 이를 담당한 차지내관과 의관의 이름을 묵서한다.(그림 3-⑤)

(5) 태지석

태지석胎誌石은 출생일시와 장태일시가 기록되어 태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흑색·청색·백색 등의 돌로 만들며,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 또는 사각형을 하고, 표면은 매끄럽게 잘 다듬었다. 태지석에는 태주의 신분이나 아명, 출생년일시, 그리고 장태년일시 등이 세로로 음각되는데, 지상에 설치된 아기비의

명문과 거의 동일하다. 주로 앞면에만 글씨가 음각되는데, 뒷면까지 기록되기도 한다. 또 계선界線을 그어 그 안에 글씨를 음각하기도 한다. 음각된 글씨에는 주칠朱漆이나 백칠白漆을 하기도 한다. 이 태지석은 함신의 감실 벽에 태호 앞에 세워놓는데, 글자면이 태호 쪽을 향하게 한다.(그림 3-⑥)

①-① 태호(숙종)



①-② 이중 태호 예상도

② 동전(순종)

③ 금판(숙명공주)

④ 은판(장조)

⑤ 홍패(고종 8남)

⑥ 태지석(왕녀 복란)

⑦ 태함(울진 월송리)

⑧ 아기비(광해군 왕녀)

⑨ 금표비(철종 원자)

〈그림 3〉 아기태실의 유물

(6) 태실 석함

태실 석함胎室石函(이하 '태함'이라 함)은 태를 담은 태호를 보호하는 석실石室로 돌로 만들며, '석옹石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태함은 다시 하부의 몸체인 함신函身과 상부의 덮개인 함개函蓋로 구성된다. 함개는 하부 상면을 얕게 팠다. 함신은 대부분 원통형으로 태호와 태지석을 부장하기 위하여 내부에 평면 사각형四角形이나 원형圓形 또는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 등의 큰 감실龕室을 파고, 그 안 바닥 가운데에 다시 작은 구멍을 관통貫通시켰는데, 뚫리지 않은 것도 있다.(그림 3-⑦)

(7) 아기태실비

아기태실비阿只胎室碑(이하 '아기비'라 함)는 아기태실의 주인공과 장태시기 및 건립시기를 알려주는 것으로 표석標石·表石 또는 태묘비胎墓碑, 태봉비胎峰碑로도 부른다. 돌로 만들었으며, 비대와 비신 및 비수로 구분된다. 비대는 지면地面에 놓아 비신을 받는 것으로 직사각형을 하고 있다. 비신은 비대 위에 세워지며, 긴 직사각형을 하고 있다. 비수는 비신의 상부에 올리는 덮개로 개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비신에는 태주의 신분이나 아명, 출생년일시, 장태년일시 등이 해서체로 세로로 음각된다. 앞면에 태주의 탄생일과 장태일을 모두 기록하기도 하고, 앞면에는 태주의 탄생일을, 뒷면에는 비를 세운 날짜[立碑日]를 기록하기도 한다.(그림 3-⑧)

(8) 금표비

금표비禁標碑는 일반 백성이 태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서·남·북의 사방四方에 통제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것이다. 금표비는 직사각형의 비대에 긴 직사각형의 비신을 올렸는데, 한 돌로 만들었다.(그림 3-⑨)

2. 가봉태실

1) 가봉태실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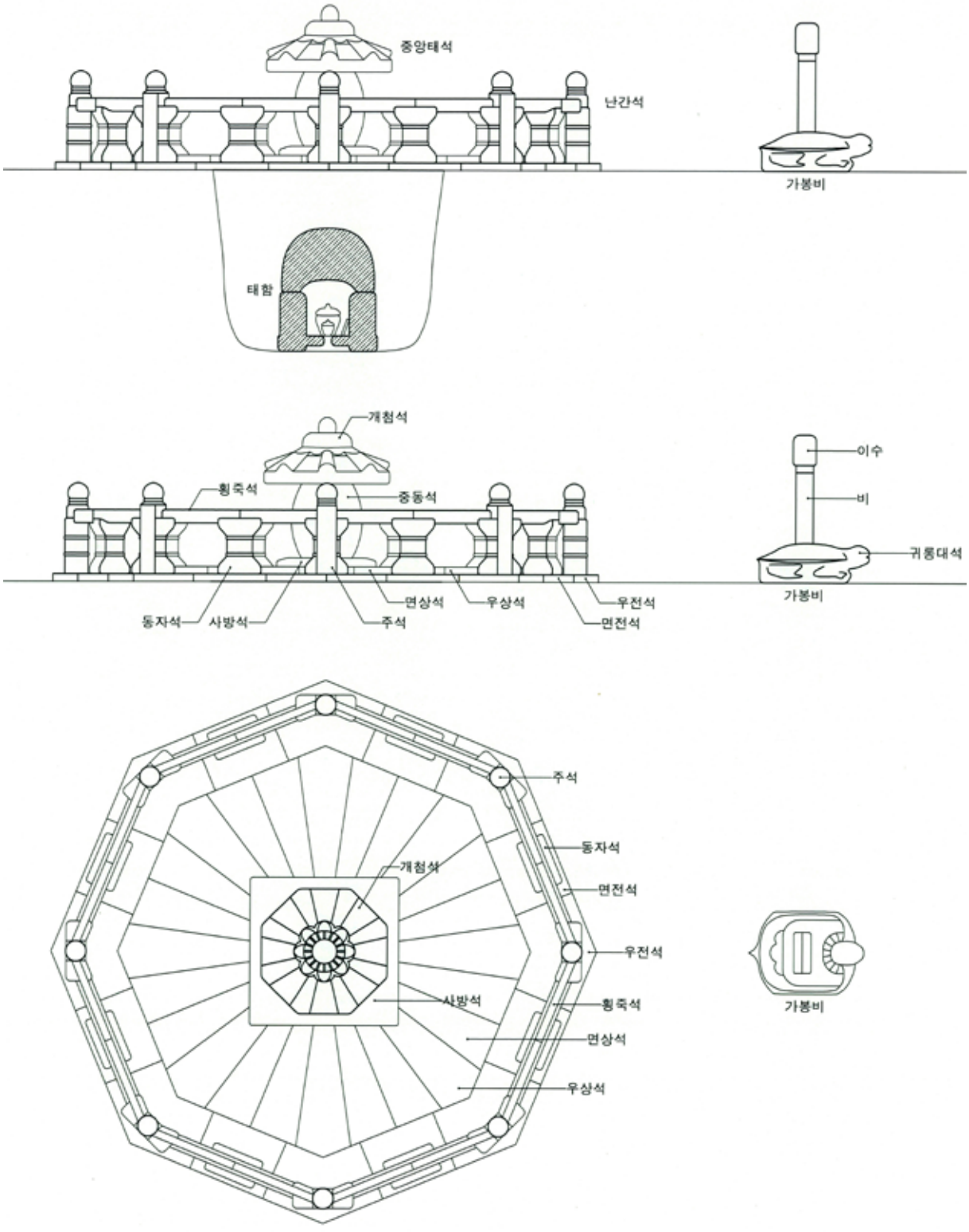
가봉태실加封胎室은 아기태실의 주인공이 임금으로 등극하면 기존의 아기태실에 화려한 석물을 치장하여 가봉한 태실을 말한다.(그림 4·5) 그러나 왕 이외에 예외적으로 왕비인 소헌왕후 심씨·폐비 윤씨·정희왕후 윤씨와 추존왕인 장조·문조의 가봉태실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가봉태실의 원상原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원 위치에서 이전되었거나 복원되었더라도 원형과 다르게 복원되어 원 모습을 갖춘 것이 많지 않다.

가봉태실은 기존의 아기태실의 지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지상의 구조만 정비하기 때문에 지하 구조에는 변동이 없다.[136] 가봉태실을 조성할 때에는 먼저 지상에 있는 아기태실의 봉토는 없애고 터를 편평하게 정지한 후 지표면을 회를 섞은 흙으로 견고하게 다진다.[137] 이후 그 위에 난간이 있는 평면 팔각형의 석

〈그림 4〉 성종 가봉태실 전경(창경궁)

136 지하 구조인 태함을 가봉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처음 태를 담은 당시의 상태로 그대로 둔 이유에 대해서 태실의 근본인 태를 다시 교란시키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일부 태지석이 개수 시 제작된 것으로 보아 가봉 또는 개수 시 태함을 개봉하기도 한다는 견해(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조선의 태실』Ⅰ, 234쪽)가 있다. 하지만 현존 태지석 중에 개수 시 제작된 것은 세종 가봉태실의 태지석 뿐이며, 이는 임진왜란 시 왜군에 의해 태실이 대대적으로 파괴되어 임란 후 개수하면서 없어진 태지석과 파손된 태호를 새로 제작하여 봉안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가봉이나 개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봉 또는 개수 시에 태함을 개봉하기도 한다는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137 인종 태실은 함개 상부는 지반층 위에 20~30㎝ 가량의 두께로 다진 다음 그 위에 상석을 배설하였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999,『인종태실 발굴조사보고서』, 26쪽)


중앙태석
난간석
가봉비
태함
개첨석
횡죽석
중동석
이수
비
귀룡대석
가봉비
동자석
사방석
주석
면상석
우상석
우전석
면전석
주석
동자석
개첨석
면전석
우전석
사방석
횡죽석
면상석
우상석
가봉비

〈그림 5〉 가봉태실 구조도

물을 배설排設하는데, 먼저 가장 외곽에 전석을 안치하고 그 다음 중앙에 사방석을 두고 안쪽에 상석을 배치한다. 또 사방석 위에 중동석을 올리고 임시로 개첨석을 안치한다. 그리고 전석 위에 주석과 동자석을 세우고 그 위에 횡죽석을 걸친다. 그 다음 다시 개첨석을 조정하여 완전히 안치하고 가봉태실의 정면으로 1보 앞에 가봉비를 세운다.[138] 이때 팔각난간 모서리[隅]와 가봉비가 일직선一直線이 되게 한다. 그리고 주변에는 사초지를 만든다. 또 기존의 아기비는 태실에서 10보 떨어진 곳[139] 또는 주변 깨끗한 곳을 구하여 땅에 묻는다.[140] 그리고 금표비의 보수를 확장하여 300보에 다시 옮겨 세워 가봉태실을 완성한다.

2) 가봉태실의 유물[141]

(1) 가봉태실비

가봉태실비加封胎室碑(이하 '가봉비'라 함)는 가봉태실의 주인공과 건립시기를 알리는 표석이表石다. 이 가봉비는 팔각난간석형 가봉태실의 앞면 모서리의 1보 앞에 주산에서 맥脈이 내려온 방향과 일치되게 세운다. 돌로 만들며, 귀부와 비신 및 이수로 구성된다. 하부는 지대석 위에 귀부를 올리고 귀부의 등 가운데에 비좌공碑座空을 팠으며, 중부에는 비신을 비좌공에 꽂아 세우고 상부에는 비신 위에 이수를 올려 덮었다. 지대석과 귀부를 '귀룡대석龜籠臺石' 또는 '귀대석龜臺石'으로 부르기도 한다.(그림 6-①)

(2) 중앙태석

중앙태석中央胎石은 가봉태실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지하에 있는 태함의 상부에 장식된다. 돌로 만들며, 사방석四方石·중동석中童石·개첨석蓋簷石으로 구성되는데, 하부에 사방석을 두고, 중부에는 사방석 위에 중동석을 올렸으며, 상부에는 중동석 위에 개첨석을 올려 덮었다. 사방석은 '중앙대석中央臺石', '중대석中臺石' 또는 '좌대석坐臺石'이라고도 하는데, 지대석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팔각형과 사각형이 있으며, 연잎문蓮葉紋과 안상眼象 또는 만자문卍字紋 또는 방승문方勝紋이 장식되기도 한다. 중동석은 신석身石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원통형, 편구형, 타원형(계란형) 또는 팔각형이 있으며, 만자문과 연환문連環紋이 장식되기도 한다. 개첨석은 지붕 역할을 하는 개석蓋石으로 원형과 육각형, 팔각형이 있으며, 상부 정상에 노반과 복발을 모방하거나 연봉형 보주을 장식하여 상륜부를 이룬다. 또 개첨석 표면에는 연잎과 연줄기를 장식하고 하부에는 옥개형을 표현하기도 한다.(그림 6-②)

138 『태봉등록』 영종조 신해(1731, 영조 7) 4월 27일.

139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1801) 신유년(1801, 순조 1) 10월 27일.

140 『태봉등록』 숙종조 경신(1680, 숙종 6) 4월 26일에 의하면, 가봉태실을 조성하거나 개수할 때는 과거에 썼던 석물은 주변의 깨끗한 곳을 택하여 땅에 묻는다고 하였다. 현재 세조·중종·명종·숙종·경종·영조의 가봉태실에는 아기비가 함께 세워져 있는데, 이는 태실의 가봉 또는 개수 때 아기비를 주변 땅에 묻었는데, 현대에 보수·정비하면서 아기비가 발견되어 가봉비 옆에 다시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가봉태실에는 아기비를 묻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봉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2개의 비를 함께 세운다는 견해(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 Ⅰ, 202쪽; 이규상, 2005,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99쪽; 박대윤, 2011, 「조선시대 국왕태봉의 풍수적 특성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42쪽)는 잘못된 것이다.

141 가봉태실의 지하 구조는 아기태실의 지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므로 지하에 매납·봉안되는 유물은 전술한 아기태실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상석과 전석

상석裳石과 전석磚石은 가봉태실의 바닥에 까는 돌이다. 상석은 '지대석地臺石'으로도 부르는데, 중앙태석의 주변으로 안쪽에 까는 것이며, 전석은 '지배석地排石'으로도 불리며, 상석의 외곽으로 바깥쪽에 까는 것이다. 이들의 조립이 완성되었을 때 평면 형태는 팔각형이다. 상석은 다시 그 위치에 따라 우상석隅裳石과 면상석面裳石으로 구분된다.

우상석은 평면 오각형으로 모퉁이에 놓이며, 면상석은 평면 사다리꼴로 우상석 사이에 까는 부재이다. 상석은 바깥쪽을 전석 위에 올리고 안쪽은 중앙태석의 사방석 측면에 걸친다. 우상석의 바깥쪽 측면 양쪽에는 운문이 장식되기도 하며, 면상석의 바깥쪽 측면에는 여의두문如意頭紋이 장식되기도 한다. 전석도 그 위치에 따라 우전석隅磚石과 면전석面磚石으로 구분된다. 우전석은 평면 오각형으로 모퉁이에 깔며, 면전석은 사다리꼴로 우전석 사이에 까는 것이다. 이 전석의 안쪽 끝은 상석의 바깥쪽 아래에 놓여 상석을 받친다. 그리고 우전석의 바깥쪽 상면에는 주석을 꽂는 구멍이 있고 면전석의 바깥쪽 윗면에는 동자석을 꽂는 구멍이 있기도 한다.(그림 6-③)

① 가봉비(문종)

② 중앙태석(정조)

③ 상석과 전석(정조)

④ 난간석(순조)

⑤ 하마비(순조)

⑥ 금표비(순조)

⑦ 화소비(순종)

〈그림 6〉 가봉태실의 유물

(4) 난간석

난간석欄干石은 돌로 만들며, 주석柱石·동자석童子石·죽석竹石으로 구성된다. 주석은 '연엽주석蓮葉柱石'으로 부르기도 하며, 우전석 바깥쪽 윗면의 홈에 꽂아 세우는 기둥으로 상부는 연봉형의 보주가 있고 기둥 좌우에는 횡죽석을 받치는 받침대가 있다. 그리고 연줄기와 연잎이 장식되기도 한다. 동자석은 '연엽동자석蓮葉童子石' 또는 '동자주童子柱'로 부르기도 하며, 주석과 주석 사이의 면상석에 세워 횡죽석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줄기와 연잎이 장식되기도 한다. 죽석은 '횡죽석橫竹石' 또는 '횡대석橫帶石'으로 부르기도 하며, 주석과 주석 사이를 가로로 걸치는 난간대[돌란대(廻欄臺)]로 단면 팔각형의 긴 막대모양이다. 죽석의 양 끝부분은 사선斜線으로 절단되었다. 평면 형태는 옆으로 긴 직사각형이다.(그림 6-④)

(5) 하마비

하마비下馬碑란 태실 근처에 세우는 표석이다. 태실구역이 성스러운 곳이므로 이곳에 도착하면 말에서 내려 걸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마비는 직사각형의 비대에 긴 직사각형의 비신을 올렸다. 경종 하마비와 순조 하마비는 비산과 비대를 별석으로, 문조는 한 돌로 제작하였다.(그림 6-⑤)

(6) 금표비

태실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구역을 설정하는데, 이때 태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의 통제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표석을 금표비禁標碑라 한다. 금표비는 직사각형의 비대에 긴 직사각형의 비신을 올렸으며, 한 돌로 만들었다.(그림 6-⑥)

(7) 화소비

화소火巢란 산불이나 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태실 주변에 해자垓字를 파고, 그 밖으로 풀이나 나무를 제거하여 빈 공간으로 남겨 불이 태실까지 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알리는 표석이 화소비火巢碑이다. 화소비는 직사각형의 비대에 긴 직사각형의 비신을 올렸다.(그림 6-⑦)

03

태실 유물의 양식과 편년

A. 아기비의 양식과 편년

1. 아기비의 현황과 시기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아기비는 모두 73기가 확인되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먼저 아기비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명문을 검토하여 비를 세운[立碑] 시기를 밝혀보겠다.

〈표 1〉 조선시대 아기비의 현황

번호	태주	입비 시기	원 위치/ 현 위치	비고
1	진양대군 (세조)	1438.3.10./ 세종 20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2리 산8 (선석산, 태봉)	
2	의창군	1438.3.11./ 세종 20	〃	
3	광평대군	1439.5.24./ 세종 21	〃	
4	계양군	1439.5.24./ 세종 21	〃	
5	왕자 거 (담양군)	1439.5.24./ 세종 21	〃	
6	평원대군	1439.5.24./ 세종 21	〃	
7	임영대군	1439.5.29./ 세종 21	〃	
8	영흥대군	1439.8.8./ 세종 21	〃	
9	밀성군	1439.8.8./ 세종 21	〃	
10	수춘군	1439.8.8./ 세종 21	〃	
11	익현군	1439.8.8./ 세종 21	〃	
12	왕자 장 (영해군)	1439.8.8./ 세종 21	〃	
13	원손 (단종)	1441.윤11.26./ 세종 23	〃	
14	안평대군	?	〃	반파
15	왕자 당	1442.10.23./ 세종 24	〃	
16	월산대군	1462.11.18./ 세조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291-1 (우면산)	
17	제안대군	1466.?.20./ 세조 12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1리 1130-8 및 옥천리 506-9 (태봉산)	

번호	태주	입비 시기	원 위치/ 현 위치	비고
18	지축동 (성종 왕녀)	1477.6.19./ 성종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1-11·산4 (태봉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 어울림누리 수장고)	
19	왕녀 수란 (혜숙옹주?)	1478.6.21./ 성종 9	서울 광진구 광장동 5-11 (아차산, 태봉)	
20	원당리1 (성종 왕녀)	1481.7.21./ 성종 12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10-1·산11-1 (뒷태봉산)	동쪽
21	원당리2 (성종 왕녀)	1481.7.24./ 성종 12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10-1·산11-1 (뒷태봉산)	서쪽
22	삼태리1 (성종 왕녀)	1481.10.9./ 성종 12	경남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산13·산18 (태봉산)	남쪽
23	삼태리2 (성종 왕녀)	1481.10.9./ 성종 12	〃	북쪽
24	왕자 수견	1483.10.15./ 성종 14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산15~18 (안태봉, 태봉산)	
25	경숙옹주	1485.8.6./ 성종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산107-1·산107-2·산112 (태봉산)	
26	왕녀 복란	1486.12.29./ 성종 17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산57 (태봉)/ 원주시 태장2동 1266-11 (태봉우성 2차 아파트)	
27	왕자 견석	1487.4.7./ 성종 18	경북 울진군 평해읍 삼달2리 산66 (신래태봉)	사료 (비문)
28	경휘옹주	1489.9.29./ 성종 20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1리 산257~259 (태봉산)	
29	왕녀 승복	1492.7.17./ 성종 23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1리 87-1 (태봉산)	
30	중종	1492.9.7./ 성종 2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1리 산112 (태봉산, 벌태봉)	
31	왕자 금수	1493.5.4./ 성종 2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1리 산37-7·산38·산39-2 (태봉산)	사료 (비문)
32	정자리	1493.9.8./ 성종 24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67 (태봉)	
33	배태리	1493.10./ 성종 24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45-5·산64 (중태봉)	
34	대덕리	1494.8.22./ 성종 2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1리 409	
35	원자 쇠돌이	1501.7.2./ 연산군 7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2리 377-1 (태봉산)	
36	왕자 돈수	1505.2.19./ 연산군 1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30 (앞태봉산)	
37	인종	1521.1.17./ 중종 16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4 (태봉산)	
38	옥혜공주	1523.4.13./ 중종 18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42-1 (태봉산)/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97	
39	덕양군	1528.3.13./ 중종 23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48 (안태봉)/ 국립경주박물관	
40	덕흥대원군	1530.7.16./ 중종 25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7리 산1-2·산1-63 (태봉)/ 금산역사문화박물관	반파
41	명종	1538.2.21./ 중종 33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태봉산)	
42	인순공주	1544.4.17./ 중종 39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1리 산58-4 (태봉산)	
43	광해군	1581.4.1./ 선조 14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1동 산135 (태봉, 탯등, 태등산, 연화봉)	
44	신성군	1586.12.6. 개립/선조 19 (1584.7.25. 초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1리 산65 (태봉)	
45	송동 (선조 왕녀)	1588.7.11./ 선조 21	경기도 화성시 송동 727 [구, 동탄면 산척리 183-1] (안태봉산, 태봉산)	
46	인성군	1589.2.25./ 선조 2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산덕리 411 (태봉산)	

번호	태주	입비 시기	원 위치/ 현 위치	비고
47	덕두원리 (의창군?)	1589.5.8./ 선조 22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1리 산72-24 (태봉산)	
48	산현리 (광해군 원자)	1601.4.30./ 선조 3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42·산42-3 (태봉)	
49	영창대군	1606.7.28./ 선조 39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1리 산115-1 (태봉산)/ 가평군 상면 태봉1리 308	
50	광해군 왕녀	1619.11.4../ 광해군 11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4리 산65 (태봉산)	
51	숭선군	1643.10.25./ 인조 21	충북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229-3 (태봉산)	매몰
52	낙선군	1645.8.24./ 인조 23	〃	
53	현종	1647.?.?./ 인조 25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189-20·189-21 (태봉산)/ 예산문화원	
54	숙명공주	1660.10.2./ 현종 1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1리 산68 (궁을산, 태봉산)	
55	숙경공주	1660.10.2./ 현종 1	〃	
56	숙종	1661.12.25./ 현종 2	충남 공주시 태봉1동 산64-9 (태봉산)	
57	숙휘공주	1662.11.25./ 현종 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3리 1974-1 (운산태봉, 태봉재, 태봉치)	
58	숙정공주	1662.11.25./ 현종 3	〃	
59	명혜공주	1670.3.13./ 현종 11	충남 부여군 충화면 가화1리 산131 (구태봉, 태봉산)/ 부여정림사지박물관	
60	경종	1689.2.22./ 숙종 15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34-1 (왕심산 태봉, 태봉산)	
61	영조	1695.1.28./ 숙종 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1리 산5 (태봉산)/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1리 산6-1 (태봉산)	
62	연령군	1699.9.29./ 숙종 25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1리 산54-1 (태봉산)/ 충남대학교박물관	
63	화덕옹주	1728.10.8./ 영조 4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3리 산127 (태봉산)	
64	영조 6왕녀	1732.3.27./ 영조 8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1리 산30·산31 (망해산, 천덕산, 태봉산)/ 안성시 원곡면 성은1리 32-1 (노인회관)	
65	화협옹주	1733.5.24./ 영조 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2리 791·산1 (태봉골)	
66	장조	1735.윤4.4./ 영조 11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산2 (뒤태봉)	
67	영조 8왕녀	1735.11.26./ 영조 1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산132 (태봉)/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480-1 (마을회관)	
68	화완옹주	1738.3.26./ 영조 14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1리 산13-2	
69	화유옹주	1740.11.28./ 영조 16	충남 당진시 순성면 성북1리 산188-1 (태봉산)/ 순성초등학교142	
70	정조	1753.1.21./ 영조 2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210-1(계족산, 정양산, 태봉)/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33·산134 (계족산)	
71	화령옹주	1753.5.13./ 영조 29	충남 예산군 광시면 월송1리 산57 (태봉산)/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106-1(대흥면사무소 옆 대흥동헌)	
72	화길옹주	1754.7.25./ 영조 30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4리 산58-5 (태봉)	
73	문효세자	1783.9.6./ 정조 7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1 (태봉)	

142 아기비의 비대는 태실지에 남아있으나, 한 돌로 된 아기비의 비수와 비신은 순성초등학교로 이동되었다.

1) 조선 전기의 아기비

(1) 세종 14왕자와 단종

세종의 아들인 진양대군(세조)를 비롯한 14왕자와 원손(단종) 등 15기의 비가 남아있는데, 안평대군의 비만 반파되어 비문碑文이 확인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원형이 잘 남아있다. 비는 비대, 비신 및 비수를 모두 한 돌[一石]로 만들었으며, 모두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비수는 윗면을 편평하게 하고 옆면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은 말각형抹角形이다. 비수는 비신면보다 앞으로 약간 돌출시켜 비수를 표현하였으며, 진양대군과 왕자 당만 비수에 초화문을 장식하고 나머지는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비신은 긴 직사각형이며, 앞면에 비문碑文을 세로로 두 줄 음각하였다. 비대는 직사각형으로 무늬가 장식되지 않았다.

비문은, 진양대군(세조)은 '晉陽大君王柔胎藏/ 皇明正統三年戊午三月十日甲午立石'라 하였으며, 임영대군은 '臨瀛大君璆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五月二十九日丙子立石', 광평대군은 '廣平大君璵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五月二十四日辛未立石', 평원대군은 '平原大君琳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五月二十六日癸酉立石', 영흥대군(영응대군)은 '永興大君琰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八月初八日△△立石', 계양군은 '桂陽君璔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五月二十四日辛未立石', 의창군은 '義倉君玜胎藏/ 皇明正統三年戊午三月十一日己未立石', 밀성군은 '密城君琛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八月初八日癸未立石', 수춘군은 '壽春君玹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八月初八日癸未立石', 익현군은 '翼峴君王運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八月初八日癸未立石', 왕자 장인 영해군은 '璋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八月初八日癸未立石', 왕자 거인 담양군은 '王渠胎藏/ 皇明正統四年己未五月二十四日辛未立石', 왕자 당은 '瑭胎藏/ 皇明正統七年壬戌十月二十三日庚戌立石', 그리고 원손(단종)은 '元孫胎藏/ 皇明正統六年辛酉閏十一月二十六日己丑立石'로 되어 있다. 안평대군은 파손으로 글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보아 진양대군(세조)은 1438년 3월 10일 입비되었으며, 의창군은 1438년 3월 11일, 광평대군·계양군·담양군·평원대군은 1439년 5월 24일, 임영대군은 1439년 5월 29일, 영흥대군·밀성군·수춘군·익현군·영해군은 1439년 8월 8일, 원손(단종)은 1441년 윤11월 26일, 그리고 왕자 당은 1442년 10월 23일에 입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시기는 1438년 3월 10일~1442년 10월 23일이다. 안평대군도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그림 3-①~④)

(2) 월산대군

비는 모두 한 돌로 만들었다. 비수는 말각형이나 비수와 비신을 구분하지 않았다. 비대는 직사각형으로 문양은 없다. 명문은 '月山君婷胎室(앞) 天順六年五月十八日立石(뒤)'로 비는 1462년 5월 18일 세웠다.(그림 3-⑤)

(3) 제안대군

비는 모두 일석一石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말각형으로 윗면 가운데가 파손되어 약간 파여 있으며, 비수와 비신을 구분하지 않았다. 비대는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비문이 '王世子男小孫胎室(앞) 成化二年△月二十日立石(뒤)'이므로 비는 1466년 ?월 20일 세웠다.(그림 3-⑥)

(4) 지축동

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윗면이 둥근 반원형으로 하부下部에는 연잎을 뒤엎고 그 위쪽에는 연줄기(이하 '연대'라 함)가 각출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원좌圓座가 없는 연꽃 봉오리(이하 '연봉'이라 함)모양의 보주를 올려 전체적으로 연꽃을 형상화(이하 '연화문(蓮花紋)'이라 함)하였다. 비수 옆면은 연잎을 3단으로 말아 올렸다. 비대는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비문이 '王女胎室(앞) 成化十三年六月十九日立石(뒤)'이므로 비는 1477년 6월 19일 세웠다.(그림 4-①)

(5) 왕녀 수란

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둥근 방원형으로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올렸다. 문양은 연화문으로 측면은 2단이다. 비대는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비문은 '王女胎室(앞) 成化十四年六月二十一日立石(뒤)'이므로 비는 1478년 6월 21일 세웠다.(그림 4-②)

(6) 원당리1·2

두 기의 비가 같은 산 능선의 동남쪽 사면에 동쪽(원당리 1)과 서쪽(원당리 2)에 각각 떨어져 있다.[143] 두 기 모두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올렸다. 문양은 연화문으로 측면은 3단이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원당리 1의 비문은 '王女胎室(앞) 成化十七年七月二十一日立石(뒤)'로 비를 세운 시기는 1481년 7월 21일이며, 원당리 2의 비문은 '王女胎室(앞) 成化十七年七月二十四日立石(뒤)'로 입비 시기는 1481년 7월 24일이다.(그림 4-③·④)

(7) 삼태리1·2

두 기의 비가 남쪽(삼태리 1)과 북쪽(삼태리 2)에 각각 떨어져 세워져 있는데, 두 비 모두 같은 형식이다. 이 비들은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상부에는 연봉형 보주를 장식하였으며, 원좌는 없다. 문양은 연화문이며, 측면은 3단인데, 삼태리 1은 얕게 말아 올렸다. 비수 앞·뒷면의 양 옆면 가장자리 부근에 물끊이 홈을[144] 세로로 팠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문은 2기 모두 '王女胎室(앞) 成化十七年十月初九日立石(뒤)'로 비는 1481년 10월 9일 세웠다.(그림 5-①·②)

(8) 왕자 수견

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마멸이 심하며,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

143 원당리2와 같은 내용의 태지석(皇明成化十七年辛丑三月十一日生/ 王女阿只氏胎成化十七年七月二十四/ 日丁時藏)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전주이씨대동종약원(1999, 『조선의 태실』 II, 57·173쪽)은 이 태지석의 주인공을 성종의 딸인 공신옹주로 추정하면서도 태실의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10-1·산11-1번지의 '뒷 태봉산'에서 앞쪽(서쪽) 산 끝단 정상부 동남쪽 경사면에서 위 태지석과 동일한 내용의 아기비를 찾게 되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최근 발굴조사로 출토된 공신옹주 묘지석에 1481년 3월 29일~1549년 2월 7일로 생몰년이 확인되어 공신옹주로 추정한 것도 오류이다.

144 '물끊이 홈'은 비수의 앞·뒷면의 좌·우 옆면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깊게 판 음각선을 지칭한다. 이는 연잎 주름 문양의 역할도 하겠지만, 빗물 등이 아래로 흐르도록 하여 비수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옆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기능적 역할도 겸한 것으로 판단되어 설명의 편의 상 '물끊이 홈'이라 명명하였다.

는데, 파손되었다. 문양은 연화문이며, 측면은 1단이다. 비수에 물끊이 홈이 있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문이 '王子壽堅胎室(앞) 成化十九年十月十五日立(뒤)'로 입비 시기는 1483년 10월 15일이다.(그림 5-③)

(9) 경숙옹주

비는 비신 하단부가 묻혀 있으나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마멸이 심하다.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는데 파실破失되었으며, 문양은 연화문으로 측면은 3단이다. 비수에는 물끊이 홈이 있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문이 '王女合歡阿只氏胎室(앞) 成化二十一年八月初六日立(뒤)'로 입비 시기는 1485년 8월 6일이다.(그림 5-④)

(10) 왕녀 복란

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문양은 세련된 연화문이며, 측면은 3단이다. 비수에는 물끊이 홈이 있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문이 '王女福蘭胎室(앞) 成化貳拾貳年拾貳月貳拾玖日立(뒤)'인 것으로 보아 1486년 12월 29일 입비되었다.(그림 5-⑤)

(11) 왕자 견석

비는 현존하지 않으며, 문헌사료에서 비문만 확인된다. 비문은 '王子堅石阿只氏胎室(앞) 成化二十三年四月初七日午時立(뒤)'이며,[145] 입비 시기는 1487년 4월 7일이다.

(12) 경휘옹주

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이며, 문양은 연화문으로 물끊이 홈이 있고 측면은 3단이며,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문이 '王女貞福阿只氏胎室(앞) 弘治二年九月二十九日巳時立(뒤)'으로 입비 시기는 1489년 9월 29일이다.(그림 5-⑥)

(13) 왕녀 승복

비는 파손되어 비수와 비신 상부만 남아 있는데,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대는 파실되었지만 비신과 일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측면은 3단이고 물끊이 홈이 있다.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문은 '王女△福阿只 …(앞) … 弘治五年七月 …(뒤)'이고, 태지석의 '皇明弘治三年三月初六日巳/ 時生/ 王女承福阿只氏胎/ 弘治五年七月十七日酉/ 時藏(앞)'라는 기록으로 보아 입비 시기는 1492년 7월 17일이다.(그림 5-⑦)

(14) 중종

비는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을 하였고 측면은 3단이며, 물끊이 홈이 있다. 상부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문은 '大君△金△△只氏胎室(앞) 弘治五年九月初

145 『관동읍지』(1871) 권2 평해군 산천; 『강원도평해군읍지』(1900) 산천.

七日亥時立(뒤)'이며, 태지석은 '皇明弘治元年三月初五日/ 丑時生/ 大君仇等隱金伊阿只氏胎/ 弘治五年九月初七日亥/ 時藏(앞)'으로 입비 시기는 1492년 9월 7일이다.(그림 5-⑧)

(15) 정자리

비는 모두 한 돌로 만들었다. 비수는 말각형으로 비수와 비신을 구분하지 않았다. 비대는 직사각형으로 문양은 장식되지 않았다. 명문은 '王子玉良阿只氏胎室(앞) 弘治六年九月初八日立(뒤)'로 비는 1493년 9월 6일 세웠다.(그림 5-⑨)

(16) 배태리

비는 모두 한 돌로 만들었다. 비수는 말각형이나 측면의 말각을 심하게 하여 삼각형을 하고 있다. 비수와 비신을 구분하지 않았다. 비대는 직사각형으로 문양은 없다. 명문은 '王子△△胎室(앞) 弘治六年十月△△△日子時立(뒤)'로 비는 1493년 10월 ??일 세웠다.(그림 5-⑩)

(17) 왕자 금수

비는 현존하지 않으며, 문헌사료에서 비문만 '王子金壽男胎室(앞) 弘治六年五月初四日立碑(뒤)'로 확인되는데[146], 비는 1493년 5월 4일 세웠다.

(18) 대덕리

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으며, 두 부분으로 깨어져 있다. 비수는 말각형이며, 비대는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비문은 '王子△△(△)胎室(앞) 弘治七年八月二十二日卯時立(뒤)'으로 비는 1494년 8월 22일에 세웠다.(그림 5-⑪)

(19) 원자 쇠돌이

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는데, 비신의 앞·뒷면이 바뀌어 세워져 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을 하였고 물끊이 홈이 있으며, 측면은 3단이다. 상부는 염주형 원좌를 둔 연봉이 장식되었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특이하게 비신 측면 모서리를 ㄱ 모양으로 안으로 깎아 내었다. 비문이 '元子胎室(앞) 弘治十四年七月初二日立石(뒤)'인 것으로 보아 비는 1501년 7월 2일 세웠다.(그림 5-⑫)

(20) 왕자 돈수

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앙련仰蓮을 두어 3단처럼 보이게 했다. 상부에는 연봉만 장식하였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문이 '王子敦壽阿只氏胎室(앞) 弘治十八年二月十九日亥時立(뒤)'인 것으로 보아 입비 시기는 1505년 2월 19일이다.(그림 5-⑬)

146 조선총독부(1942, 「경기도 양주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51쪽)에 의하면, 비문은 '王子金壽男胎室(앞) □治六年五月初四日立碑(뒤)'이다. 여기서 '□治'는 '弘治'를 말하는 것으로 1493년(성종 24) 5월 4일 입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 인종

비는 반파된 비대와 비수의 일부 편만 남아있다. 비대에 비좌공碑座孔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대와 비신은 별석別石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파손된 편으로 보아 연화문이 장식되었으며, 물끊이 홈이 있고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으며, 옆면은 3단으로 추정된다. 비대는 윗면에 이중단판 복련二重單瓣伏蓮의 문양이 장식되었는데, 간엽間葉도 있으며, 잔존 복련으로 보아 연잎은 12개로 추정된다. 앞·뒤·양 옆면에는 문양이 없다. 태지석의 '皇明正德十年/ 二月二十五日/ 戊時生/ 世子山告胎正德十/ 六年正月十七/ 日午時藏(앞)'라는 기록으로 보아 입비 시기는 1521년 1월 17일이다.(그림 5-⑭)

(22) 옥혜공주

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3단이다.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대는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가 있는데, 복련을 윗면에서 옆면까지 내려오게 조각하였다. 앞·뒤·양 옆면에는 문양이 없다. 비문은 '王女(玉蕙阿)只氏胎室(앞) (嘉靖二年閏)四月十三日巳時立(뒤)'이며, 태지석 명문은 '皇明正德十六年三月/ 二十六日寅時生/ 王女公主玉蕙阿只氏胎/ 嘉靖二年閏四月十三/ 日巳時藏(앞)'이다.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523년 윤4월 13일이다.(그림 5-⑮)

(23) 덕양군

비는 파손되어 비신 상단과 중부 일부와 비수 및 비대가 남아있다. 비수와 비신은 일석으로 만들었으나 비대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 장식되었으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3단으로 말았다. 상부의 연봉은 파실되었는데, 원좌는 없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문은 '胎室(앞), … 年月日 …(뒤)으로, 태지석의 '皇明嘉靖三年九/ 月二十五日亥時/ 生/ 王男崇壽阿只氏胎/ 嘉靖七年三月十/ 三日子時藏(앞)'라는 명문으로 보아 1528년 3월 13일 입비하였다.(그림 5-⑯)

(24) 덕흥대원군

비는 파손되어 비수와 비신 일부만 남았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 장식되었으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3단이다. 상부의 연봉은 파실되었는데, 원좌는 없다. 비문은 '王子歡壽 … (앞) 嘉靖九年七 …(뒤)'만 확인되나, 태지석의 '皇明嘉靖九年三/ 月初五日午時生/ 王男歡壽阿只氏胎/ 嘉靖九年七月十/ 六日卯時藏(앞)'라는 명문으로 보아 입비 시기는 1530년 7월 16일이다.(그림 5-⑰)

(25) 명종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세련된 연화문이 장식되었으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3단이다. 상부의 연봉은 파실되었는데, 원좌는 없다. 비대는 긴 사각형으로 윗면에는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을 18개 장식하였고, 앞·뒷면에는 각 2개의 안상을, 양 옆면에는 각 1개의 안상을 장식하였다. 비문은 '大君椿齡阿只氏胎室(앞) 嘉靖十七年二月二十一日卯時立(뒤)'으로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538년 2월 21일이다.(그림 6-①)

(26) 인순공주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 도식화되었으며, 측면은 연대로 구분하여 3단처럼 보이게 조각하였다. 상부에는 연봉만 장식되었다. 비대는 마멸이 심하나 윗면에는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앞·뒷면에는 안상 각 2개, 양 옆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조각하였다. 비문은 '公主玉堅阿只氏胎室(앞) 嘉靖貳拾參年肆月拾柒日癸時(立)(뒤)'으로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544년 4월 17일이다.(그림 6-②)

(27) 광해군

비는 비수와 비신만 남아있는데, 파손이 심하나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간결한 연화문이며, 측면은 3단이다. 상부에는 염주형念珠形 원좌圓座를 둔 연봉이 있다. 비문은 '王子慶龍阿只氏胎室(앞) 萬曆 …(뒤)'이며, 태지석의 명문은 '皇明萬曆三年四月/ 二十六日卯時生/ 王子慶龍阿只氏胎/ 萬曆九年四月初/ 一日癸時藏(앞)'이다.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581년 4월 1일이다.(그림 6-③)

(28) 신성군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2단이다. 연봉은 파실되었는데, 원좌는 없다. 비대는 마멸이 심하나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윗면에 조각하였고, 앞·뒷면에는 안상 각 2개, 양 측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장식하였다. 비문의 '王子翊阿只氏胎室(앞) 萬曆十二年七月二十五日立/ 萬曆十四年十二月初六日改立(뒤)'라는 기록으로 보아 비는 1586년 12월 6일 다시 만들어 세웠다.[147](그림 7-①)

(29) 송동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대의 앞·뒷면이 바뀌어 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인데, 매우 간략화되었고 측면은 연대로 구분하여 2단처럼 보이게 조각했으며, 물끊이 홈이 있다. 상부는 무문 원좌를 둔 연봉이 장식되어 있다. 비대는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윗면에 장식하였고, 앞면에는 안상 각 2개를 조각하였으나 뒷면에는 없으며, 양 옆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조각하였다. 비문은 '王女阿只氏胎室(앞) 皇明萬曆十六年七月十一日乙時立(뒤)'으로 비는 1588년 7월 11일 세웠다.(그림 7-②)

(30) 인성군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대는 최근 무문의 긴 사각형으로 만들어 넣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측면은 2단이다. 상부의 연봉은 파실되었는데, 원좌는 없다. 비신은 마멸이 심하며, 비문은 '萬曆十六年戊子△△△阿只氏胎室(앞) (皇)明(萬曆)十△年二月二十五日巳時立(뒤)'이고, 태지석의 명문은 '皇明萬曆十六年十月/ 二十九日辰時生/ 王子阿只氏胎萬曆十/ 七年二月二十五日/ 辰時藏(앞)'이다. 이로 보아 비는 1589년 2월 25일 세웠다.(그림 7-③)

147 전주이씨대동종약원(1999,『조선의 태실』II, 195쪽)은 이 비를 1584년(선조 17) 처음 세우고 1589년(필자 주: 1586년의 오기임)에는 글자만 고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려면 첫 입비 시의 명문은 가운데 각자(刻字)되고 추가 명문은 그 옆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명문이 가운데가 아닌 양 옆에 나란히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이 비는 글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1586년(선조 19) 새로 만들어 세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31) 덕두원리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2단이다. 상부에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대는 마멸이 심하나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윗면에, 앞·뒷면에는 안상 각 2개를, 양 측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조각하였다. 비문은 ' …(앞) 皇明萬曆十七年五月初八日巳時立(뒤)'으로 이로 보아 비는 1589년 5월 8일 세웠다.(그림 7-④)

2) 조선 후기의 아기비

(1) 산현리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옆면에는 음각선을 2줄 그어 3단처럼 보이게 하였다. 상부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대는 윗면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조각하였고, 앞면에는 안상 각 2개를 장식하였으나 뒷면에는 없으며, 양 옆면에 안상 각 1개를 조각하였다. 비신은 마멸이 심하며, 비문은 '皇明萬曆二十八年十二月二/ 十九日亥時生/ 王孫男阿只氏胎室(앞) 萬曆二十九年四月三十日立(뒤)'이다. 이로 보아 비는 1601년 4월 30일에 세웠다.(그림 8-①)

(2) 영창대군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신은 앞·뒤가 바뀌어 세워져 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얕은 음각선을 그어 3단처럼 보이게 하였다. 상부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대는 윗면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 앞·뒷면에는 안상 각 2개, 양 측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장식하였다. 비문은 '皇明萬曆三十 …(앞) 萬曆三十四年七月二十八日立(뒤)'으로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606년 7월 28일이다.(그림 8-②)

(3) 광해군 왕녀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음각선을 그어서 3단처럼 보이게 하였다.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대는 윗면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앞·뒷면에는 안상 각 2개, 양 옆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장식하였다. 비문은 '皇明萬曆四十七年六月二十三日生王女阿只氏胎室(앞) 萬曆四十七年十一月初四日立(뒤)'이다.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619년 11월 4일이다.(그림 8-③)

(4) 숭선군

비는 땅에 묻혀서 사진으로만 확인되는데, 비수와 비신 상부 일부분만 확인된다.[148] 비신과 비수는 일석으로 만들었으며,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고 물끊이 홈이 있으며, 옆면은 2단이다. 상부에는 무문

148 김현길, 1983, 「중원군 엄정면 소재 태실비에 대하여」, 『예성문화』 5, 예성동호회, 39·57쪽.

의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문은 '己卯十月十七日卯時生一(王子阿只氏胎室)(앞) 崇德八年十月二十五日(立)(뒤)'으로 이로 보아 비는 1643년 10월 25일 세웠다.(그림 8-④)

(5) 낙선군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2단이다. 상부에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대는 마멸이 심하나 상부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앞면에는 안상 각 2개를 장식하였으나 뒷면에는 없으며, 양 옆면에는 초화문草花紋 각 1개를 장식하였다. 비문은 '辛巳年十一月初七日丑時生二 王子阿只氏胎室(앞) 順治二年八月二十四日立(뒤)'이다. 이로 보아 비는 1645년 8월 24일 세웠다.(그림 8-⑤)

(6) 현종

비는 비수와 비신만 남아있는데,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대는 최근 만들어 넣었으며, 뒷면은 마멸이 심하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 장식되었으나 도식화되었으며, 물끊이 홈이 있고 측면은 2단이다. 상부에는 염주형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문은 '大淸崇德六年二月初四日丑時生 元孫阿只氏胎室(앞) 順治四年 …(뒤)'이다. 이로 보아 비는 1647년 ?월 ?일 세웠다.[149](그림 8-⑥)

(7) 숙명공주와 숙경공주

비들은 현존하지 않고 이왕직의 『태봉胎封』에 간략히 그려진 실측도면에서 확인된다.[150]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은 알 수 없고 측면은 3단이다. 상부는 염주형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대는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으나, 실측 시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은, 숙명공주는 '淑明公主阿只氏胎室(앞) 順治十七年十月日(뒤)', 숙경공주는 '淑敬公主阿只氏胎室(앞) 順治十七年十月日(뒤)'이다.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660년 10월 2일이다.(그림 8-⑦·⑧)

(8) 숙종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화려한 연화문이며, 측면은 2단이다. 상부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대는 긴 사각형으로 윗면에 간엽있는 철형凸形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앞·뒷면에는 초화문 각 2개, 양 옆면에 초화문 각 1개를 장식하였다. 비문은 '順治十八年八月十五日卯時生元子阿只氏胎室(앞) 順治十八年十二月二十五日辰時立(뒤)'으로 이로 보아 1661년 12월 25일 입비하였다.(그림 8-⑨)

(9) 숙휘공주와 숙정공주

비들은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측면은 2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하였다. 숙정공주 비의 비신 상부와 비수는 파실되어 최근 새로 만들어 넣었다. 비대는 윗면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149 규장각에 소장(청구기호: 奎9138)된 『강화부외규장각봉안책보보략지장어제어필급장치서적형지안』(1856)의 목록에 '元孫安胎儀軌一冊 順治丁亥 大興'이는 기록과 『태봉등록』 인조조 정해(1647, 인조 25) 6월 17일에 원손(현종)의 장태기록이 있어 입비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150 이왕직, 1928~1934, 『태봉』, 113~114쪽.

복련 18개를 장식하였으며, 앞면에는 초화문 각 2개를 조각하였으나 뒷면에는 없으며, 양 측면에는 초화문 각 1개를 장식하였다. 비문은, 숙휘공주는 '淑徽公主阿只氏胎室(앞) 康熙元年十一月二十五日巳時立(뒤)'이며, 숙정공주는 '(淑)靜公主阿只氏胎(室)(앞) (康熙)元年十一月二十五日巳時立/ 咸豊五年三月十七日六代孫基鎬(뒤)'이다.[151] 이로 보아 비는 1662년 11월 25일 세웠다.(그림 8-⑩·⑪)

(10) 명혜공주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 장식되었으며, 옆면은 1단으로 물끊이 홈이 없다. 상부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을 두었다. 비대는 윗면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장식하고 앞면에 초화문 2개와 양 옆면에 초화문 각 1개를 장식하였는데, 뒷면에는 장식하지 않았다. 비문은 '明惠公主阿只氏胎室(앞) 康熙九年三月十三日立(뒤)'으로 입비 시기는 1670년 3월 13일이다.(그림 9-①)

(11) 경종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신의 앞·뒤가 바뀌어 새워져 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 도식화되었으며,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대는 윗면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앞·뒷면에는 초화문 각 2개, 양 옆면에 초화문 각 1개를 조각하였다. 비문은 '康熙二十七年十月二十八日酉時生/ 元子阿只氏胎室(앞) 康熙二十八年二月二十二日立(뒤)'으로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689년 2월 22일이다.(그림 9-②)

(12) 영조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신의 앞·뒤가 바뀌어 세워져 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 완전 도식화되었으며,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하였다. 비대는 윗면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앞·뒷면에는 초화문 각 2개, 양 측면에는 초화문 각 1개를 장식하였다. 비문은 '康熙三十三年九月十三日寅時生/ 王子阿只氏胎室(앞) 康熙三十四年正月二十八日立(뒤)'이다.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695년 1월 28일이다.(그림 9-③)

(13) 연령군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 완전 도식화되었으며,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원좌없는 연봉만 장식하였다. 비대는, 윗면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돌렸으며, 앞면에는 초화문 2개를 장식하였으나, 뒷면은 장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양 측면에는 초화문 각 1개를 장식하였다. 비문은 '康熙三十八年六月十三日寅時生 王子阿只氏胎室(앞) 康熙三十八年九月二十九日立(뒤)'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699년 9월 29일이다.(그림 9-④)

151 숙정공주의 뒷면 명문 중 첫 줄은 비신 중앙에 위치하고 후손 이름이 기록된 둘째 줄은 비신 중앙 옆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명문의 위치와 재질(화강암) 및 낡음 정도가 숙휘공주와 같은 것으로 보아 숙정공주는 후손인 손기호가 함풍 5년(1855, 철종 6)에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강희 원년(1662, 현종 3) 아기비를 다시 정비하고 명문을 추가한 것 같다. 이는 후술하는 아기비의 양식에서도 파악되는데 두 비가 같은 Ⅲ-②단계에 해당한다. 만약 후손이 제작·설치하였다면 시기 차이로 이 단계의 비가 제작되지 않아야 한다.

(14) 화덕옹주[152]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대없이 연잎만 장식된 연화문이며, 옆면은 연잎을 도드라지게 하여 2단으로 보이게 하였다. 상부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대는 윗면의 모서리를 모줄임한 말각형이며, 문양은 없다. 비문은 '雍正六年八月初三日申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雍正六年十月初八日卯時立(뒤)'라고 각자되어 있다. 이로 보아 비는 1728년 10월 8일 세웠다.(그림 10-①)

(15) 영조 6왕녀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완전 도식화된 연화문이며, 옆면은 2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하였다. 비대는 상부 모서리를 말각하였으며, 문양은 없다. 비문은 ' 雍正十年正月初一日寅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雍正十年三月二十七日卯時立(뒤)'이다. 이로 보아 비는 1732년 3월 27일 세웠다.(그림 10-②)

(16) 화협옹주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완전 도식화된 연화문이며, 옆면은 2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하였다. 비대는 말각형으로 문양은 장식되지 않았다. 비문은 '雍正十一年三月初七日寅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雍正十一年五月二十四日辰時立/ 書標官承文院博士金徵慶(뒤)'으로 이로 보아 비는 1733년 5월 24일 세웠다.(그림 10-③)

(17) 장조

비는 비대만 남아있는데,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대는 말각형으로 문양이 없다. 비문은 '雍正十三年正月二十一日丑時生元子阿只氏胎室(앞) 雍正十三年閏四月初四日巳時立(뒤)'로 추정된다.[153] 그러므로 입비 시기는 1735년 윤4월 4일이다.(그림 10-④)

(18) 영조 8왕녀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삼각형으로 연잎만 장식하여 완전 도식화되었으며,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되는데, 연봉 상부가 일부 파실되었다. 비대는 말각형이며, 문양이 없다. 비문은 '雍正十三年九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雍正十三年十一月二十六日辰時立(뒤)'이다.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735년 11월 26일이다.(그림 11-①)

(19) 화완옹주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신의 앞·뒤가 바뀌어 세워져 있다. 비수는 삼각형으로 연잎만 장식되어 아주 간략화 되었고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되었는데, 아주 약화되었다. 비대는 말각형이며, 문양

152 전주이씨대동종약원(1999,『조선의 태실』II, 120·221~222쪽)은 태주를 '영조 제4왕녀 화억옹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화억옹주는 영조 제1왕녀이며, 생몰년도 1717년 4월 22일~1718년 4월 8일로 아기비의 비문과 다르다. 영조 제4왕녀는 화덕옹주이며, 생몰년은 1728년 8월 3일~1731년 2월 18일로 아기비의 비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화억옹주 태실이 아니라 화덕옹주 태실이므로 여기서 바로 잡는다.

153 『태봉등록』 영종조 을묘(1735, 영조 10) 3월 14일·3월 20일에 장조의 출생일시와 장태일이 기록되어 있고,『태봉』(이왕직, 1928~1934, 72쪽)에 장조의 출생일이 적혀있어 필자가 비문을 추정 복원하였다.

이 없다. 비문은 '乾隆三年正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乾隆三年三月二十六日午時立(뒤)'으로 이로 보아 비는 1738년 3월 26일 세웠다.(그림 11-②)

(20) 화유옹주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삼각형으로 아주 간략화된 연화문이며,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염주형 원좌를 둔 연봉이 장식되었다. 비대는 말각형이며,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비신의 명문은 '乾隆五年九月二十九日子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乾隆五年十一月二十八日卯時立(뒤)'로 보아 비는 1740년 11월 28일 세웠다.(그림 11-③)

(21) 정조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신의 앞·뒤가 바뀌어 세워져 있으며, 비대는 최근 만들어 넣은 것이다. 비수는 삼각형으로 아주 간략화된 연화문이며,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되었다. 비문은 '乾隆十七年九月二十二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室(앞) 乾隆十八年正月二十一日立(뒤)'이다. 이로 보아 비는 1753년 1월 21일 세웠다.[154](그림 11-④)

(22) 화령옹주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이며, 연봉이 비대해졌다. 문양은 아주 간략화된 연화문이며,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대는 말각형이며, 문양이 없다. 비문은 '乾隆十八年三月初二日戊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乾隆十八年五月十三日立(뒤)'이다.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753년 5월 13일이다.(그림 12-①)

(23) 화길옹주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이나 직선화되었으며, 연화문이 아주 간략화되었고,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원좌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대는 말각형으로 문양이 없다. 비문은 '乾隆十九年甲戌五月十九日未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乾隆十九年七月二十五日辰時立(뒤)'이다. 이로 보아 비는 1754년 7월 25일 세웠다.(그림 12-②)

(24) 문효세자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도식화된 연화문이며, 옆면은 앙련을 장식하여 1단처럼 보이게 했다. 상부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대는 말각형이며, 문양이 없다. 비문은 '乾隆四十七年九月初七日寅時生 元子阿只氏胎室(앞) 乾隆四十八年九月初六日立(뒤)'으로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783년 9월 6일이다.(그림 12-③)

154 『강화부외규장각봉안책보보략지장어제어필급장치서적형지안』(1856)의 목록에 『원손장태의궤』가 있는데, '壬申', 즉 1752년(영조 28)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태지석의 명문(壬申年九月二十二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앞) 乾隆十八年正月二十一日午時藏(뒤))과 『영조실록』 영조 29년(1753, 계유) 1월 14일(경오)의 기록으로 보아 이는 '癸酉'의 오기로 정조의 아기태실 조성은 1753년이다.

2. 아기비의 유물별 형식 분류와 편년

앞에서 검토한 아기비의 입비시기와 형상形狀을 바탕으로 먼저 부분별 유물의 양식을 검토해 보고, 아기비의 전체적인 양식을 설정하여 그 변화과정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비는 크게 비대碑臺, 비신碑身 및 비수碑首로 구성된다. 이중 비신은 긴 직사각형으로 변화없이 지속되나, 시간적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것이 비수와 비대이다. 그래서 비수와 비대를 편년의 결정적 속성으로 축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유물별 형식 분류

(1) 비수의 형식 분류

비수는 크게 말각형, 반원형,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형태는 세부적인 속성에 의해 다시 분류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A형 (말각형)	B-1형 (반원3단 무홈형)	B-2형 (반원3단 유홈형)	C-1형 (반원2단 무홈형)
C-2형 (반원2단 유홈형)	D-1형 (반원1단 무홈형)	D-2형 (반원1단 유홈형)	E형 (삼각형)

〈그림 1〉 비수의 유형 분류

- A형 - 비수碑首는 윗면이 편평한 수평水平이고 옆면의 모서리를 비스듬히 깍아 모줄임한 말각형抹角形이다. 그러나 옆면을 심하게 말각하여 상부가 삼각형三角形을 한 것도 있다. 문양은 대부분 장식되지 않으나 초화문草花紋이 장식되기도 한다.

- B형 - 비수는 윗면이 둥근 반원형半圓形이다. 하부에는 연잎[蓮葉]을 뒤집었고 그 위쪽에는 연줄기[연대]를 장식하였으며, 상부에는 연꽃이 피기 전에 뭉쳐져 있는 연꽃 봉오리[연봉] 모양의 보주를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연꽃을 형상화한 연화문蓮花紋을 하였다. 연봉 아래에는 무문형無紋形 또는 염주형念珠形의 원좌圓座를 받치기도 하고 받치지 않기도 한다. 비수의 옆면은 연잎을 말아 올려 층(단)을 이루었는데, 3단이다. 또 비수 앞·뒷면의 양 옆면 쪽에 빗물을 모아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물끊이 홈을 세로로 파는데, 이 홈이 없는 무홈형[1형]과 홈이 있는 유홈형[2형]으로 세분된다.

• C형 - 비수는 윗면이 둥근 반원형이다. 연화문을 한 반원형이나, 옆면의 층이 2단이며, 원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물끊이 홈이 없는 무홈형[1형]과 있는 유홈형[2형]으로 세분된다.

• D형 - 비수는 윗면이 둥근 반원형이다. 연화문을 한 반원형이나, B·C형보다 문양이 간략하게 도식화되었다. 옆면의 층이 1단이며, 원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물끊이 홈이 없는 무홈형[1형]과 있는 유홈형[2형]으로 세분된다.

• E형 - 비수는 윗면이 뾰족한 삼각형三角形이다. 문양은 연화문을 하였는데, 연잎은 거의 대부분 사려지고 연대를 주로 장식하여 퇴화되었다. 비수의 옆면은 1단이며, 원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물끊이 홈은 없다.

(2) 비대의 형식 분류

비대는 모두 직사각형으로 비신과 일석 또는 별석으로 제작되며, 문양이 있고 없음[有無]에 의해 다시 세분되므로 〈그림 2〉와 같이 분류하였다.

Ⅰ형 (무문 上편평형)	Ⅱ-1형 (유문 上원 12연 下무문형)	Ⅱ-2형 (유문 上원 12연 下안상형)	Ⅱ-3형 (유문 上원 12연 下안상초화형)
Ⅱ-4형 (유문 上원 12연 下초화형)	Ⅲ-1형 (유문 上원 18연 下안상형)	Ⅲ-2형 (유문 上원 18연 下초화형)	Ⅳ형 (무문 上말각형)

〈그림 2〉 비대의 유형 분류

• Ⅰ형 - 비대碑臺는 직사각형[長方形]으로 윗면을 편평하게 처리하고 문양을 장식하지 않은 무문형無紋形이다. 비대와 비신이 대부분 한 돌[一石]로 만들었으나, 일부 별도의 돌[別石]로 제작되기도 한다.

• Ⅱ형 - 비대는 직사각형[장방형]으로 윗면을 둥글게 처리한 반원형半圓形이다. 윗면에 12개의 이중단판 복련二重單辦伏蓮을 장식한 유문형有紋形으로 하부의 앞·뒤·좌우 옆면에 문양이 장식되지 않은 무문형[1형]과 앞·뒷면에 각 2개의 안상眼象을, 양 옆면에 각 1개의 안상을 장식한 안상형[2형], 그리고 앞·뒷면에 각 2개의 안상을, 양 옆면에 각 1개의 초화문草花紋을 장식한 안상초화형[3형]과 앞·뒷면에 각 2개의 초화문을, 양 옆면에 각 1개의 초화문을 장식한 초화형[4형]으로 세분된다. 비대와 비신碑身은 대부분 별석으로 제작되나, 일석인 것도 있다.

• Ⅲ형 - 비대는 직사각형[장방형]으로 윗면을 둥글게 처리한 반원형이다. 윗면에 18개의 이중단판 복련을 장식한 유문형으로 하부의 앞·뒷면에 각 2개의 안상을, 양 옆면에 각 1개의 안상을 장식한 안상형[1형]과 앞·뒷면에 각 2개의 초화문을, 양 측면에 각 1개의 초화문을 장식한 초화형[2형]으로 세분된다. 비대와 비신이 모두 별석으로 제작되었다.

• Ⅳ형 - 비대는 직사각형[장방형]으로 윗면의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모줄임한 말각형抹角形이다. 상부와 하부 모두 문양이 장식되지 않은 무문형이며, 비대와 비신은 모두 별석으로 제작되었다.

2) 유물별 양식과 편년

앞의 형식 분류에 의해 각 부분별 속성을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그리고 비수와 비대의 속성에 따라 순서배열한 후, 그 속에서 편년적으로 의미있는 속성을 가려내고 각 속성상태의 변화 시기를 살펴 양식 단계를 설정해 보겠다.

〈표 2〉 비수와 비대의 속성 분석[155]

변화속성 / 태주	비수								비대								
	말각형	반원형 3단	반원형 2단	반원형 1단	삼각형 1단	물끊이홈	원좌 무문	원좌 염주	무문형 상편평형	무문형 상말각형	유문형 상면 반원형 상 복련 12 하 무문	유문형 상면 반원형 상 복련 12 하 안상	유문형 상면 반원형 상 복련 12 하 안상초화	유문형 상면 반원형 상 복련 12 하 초화	유문형 상면 반원형 상 복련 18 하 안상	유문형 상면 반원형 상 복련 18 하 초화	비신과 일석
세종 14왕자, 단종(1438~42)	■								■								■
월산대군(1462)	■								■								■
제안대군(1466)	■								■								■
지축동(1477)		■							■								■
왕녀 수란(1478)			■						■								■
원당리1·2(1481.7.)		■							■								■
삼태리1·2(1481.10.)		■				■			■								■
왕자 수견(1483)				■		■			■								■

155 기호 중 ■는 유물이 확인된 것, ▣는 일부 확인된 것, □는 확인되지 않아 추정한 것이며, 이하 동일하다.

변화속성 / 태주	비 수								비 대								
	말각형	반원형			삼각형	물끊이홈	원좌		무문형		유문형						비신과일석
											상면 반원형						
											상 복련 12				상 복련 18		
		3단	2단	1단	1단		무문	염주	상 편평형	상 말각형	하 무문	하 안상	하 안상 초화	하 초화	하 안상	하 초화	
경숙옹주(1485)		■				■			■								■
왕녀 복란(1486)		■				■			■								■
경휘옹주(1489)		■				■			■								■
왕녀 승복(1492.7.)		■				■			□								□
중종(1492.9.)		■				■			■								■
정자리(1493.9.8.)	■								■								■
배태리(1493.10.)	■								■								■
대덕리(1494.8.)	■								■								■
원자 쇠돌이(1501)		■				■		■	■								■
왕자 돈수(1505)		■				■			■								■
인종(1521)		□				■					■						
옥혜공주(1523)		■				■					■						■
덕양군(1528)		■				■			■								
덕흥대원군(1530)		■				■			□								
명종(1538)		■				■									■		
인순공주(1544)		■										■					
광해군(1581)		■						■				□					
신성군(1586)			■			■						■					
송동(1588)			■			■	■					■					
인성군(1589.2.)			■			■						□					
덕두원리(1589.5.)			■			■	■					■					
산현리(1601)		■					■					■					
영창대군(1606)		■				■	■					■					
광해군 왕녀(1619)		■				■						■					
숭선군(1643)			■			■	■					□					
낙선군(1645)			■			■	■						■				
현종(1647)			■			■		■					□				
숙명·숙경공주(1660)		■				□		■					□				
숙종(1661)			■				■							■			
숙휘·숙정공주(1662)			■													■	
명혜공주(1670)				■			■							■			
경종(1689)				■			■							■			
영조(1695)				■										■			
연령군(1699)				■										■			
화덕옹주(1728)			■				■			■							
영조 6왕녀(1732)			■							■							
화협옹주(1733)			■							■							
장조(1735.윤4.)			□							■							
영조 8왕녀(1735.11.)					■					■							
화완옹주(1738)					■					■							
화유옹주(1740)					■			■		■							
정조(1753.1.)					■					□							
화령옹주(1753.5.)				■						■							
화길옹주(1754)				■						■							
문효세자(1783)				■			■			■							

지금까지 검토한 비수와 비대의 각 양식 단계는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표 3〉 비수와 비대의 순서배열과 단계

태주 \ 형식	비수 A	B1	B2	C1	C2	D1	D2	E	단계		비대 I	II1	II2	II3	II4	III1	III2	IV	단계	
세종 14왕자, 단종(1438.3.~1442.10.)	■								I		■								I	
월산대군(1462.11.)	■										■									
제안대군(1466.?.)	■										■									
지축동(1477.6.)		■							II	①	■									
왕녀 수란(1478)				■							■									
원당리1·2(1481.7.)		■									■									
삼태리1·2(1481.10.)			■							②	■									
왕자 수견(1483.10.)							■				■									
경숙옹주(1485.8.)			■								■									
왕녀 복란(1486.12.)			■								■									
경휘옹주(1489.9.)			■								■									
왕녀 승복(1492.7.)			■								▣									
중종(1492.9.)			■								■									
정자리(1493.9.8.)	■									③	■									
배태리(1493.10.)	■										■									
대덕리(1494.8.)	■										■									
원자 쇠돌이(1501.7.)			■							④	■									
왕자 돈수(1505.2.)			■								■									
인종(1521.1.)			▣									■							II	
옥혜공주(1523.4.)			■									■								
덕양군(1528.3.)			■								■									
덕흥대원군(1530)			■								□									
명종(1538.2.)			■													■				
인순공주(1544.4.)		■								⑤			■						III	①
광해군(1581.4.)		■											▣							
신성군(1586.12.)					■				III	①			■							
송동(1588.7.)					■								■							
인성군(1589.2.)					■								▣							
덕두원리(1589.5.)					■								■							
산현리(1601.4.)		■								②			■							
영창대군(1606.7.)			■										■							
광해군 왕녀(1619.11.)			■										■							
숭선군(1643.10.)					■					③			▣							②
낙선군(1645.8.)					■									■						
현종(1647)					■									▣						
숙명·숙경공주(1660.10.)			▣											▣						
숙종(1661.12.)				■						④					■					③
숙휘·숙정공주(1662.11.)				■													■			
명혜공주(1670)						■									■					
경종(1689.2.)						■									■					
영조(1695.1.)						■									■					
연령군(1699.9.)						■									■					
화덕옹주(1728.10.)				■														■	IV	
영조 6왕녀(1732.3.)				■														■		
화협옹주(1733.5.)				■														■		
장조(1735.윤4.)				▣														■		
영조 8왕녀(1735.11.)								■	IV	①								■		
화완옹주(1738.3.)								■										■		
화유옹주(1740)								■										■		
정조(1753.1.)								■										▣		
화령옹주(1753.5.)						■				②								■		
화길옹주(1754.7.)						■												■		
문효세자(1783.9.)						■												■		

3. 아기비의 양식과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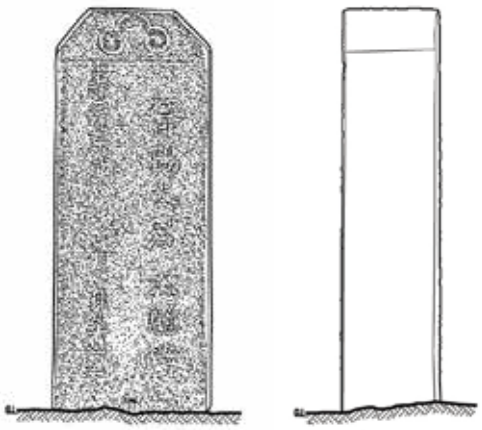
전술한 비수와 비대의 부분별 유물 속성을 조합해서 아기비의 전체적인 속성에 따라 순서 배열하고, 그 변화 시기를 살펴 아기비의 양식 단계를 설정해 보면 〈표 4〉와 같다. 이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1) Ⅰ단계

이 시기의 비는 AⅠ형(말각형 비수/ 무문 상편평형 비대)만 나타난다. 비수는 말각형(A형)으로 대부분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으나, 일부 초화문을 장식(진양대군, 왕자 당)하기도 한다. 또 대부분 비신과 비수를 구분하였으나 구분하지 않은 것(월산대군, 제안대군)도 있다. 이러한 말각형은 고려 후반(12세기 후반~14세기 후반)에 유행하는 규수형을 이어 받은 것이다. 비대는 직사각형으로 윗면이 편평하고 문양이 장식되지 않는 무문 상편평형(Ⅰ형)이며, 비신과 일석으로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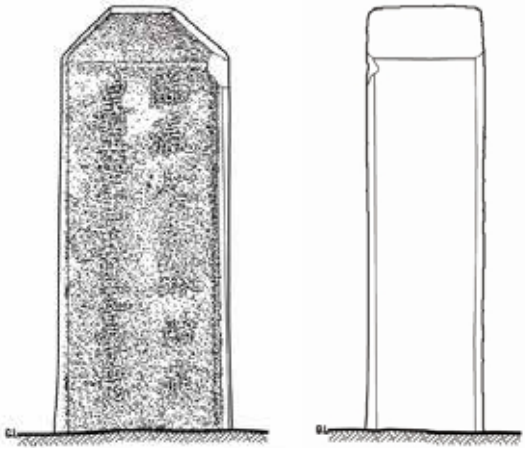
이 단계의 비는 세종의 14왕자, 단종, 월산대군, 제안대군 등으로 시기는 15세기 2/4분기(1438. 3.)~15세기 3/4분기(1466)이다.(그림 3)

①-① 진양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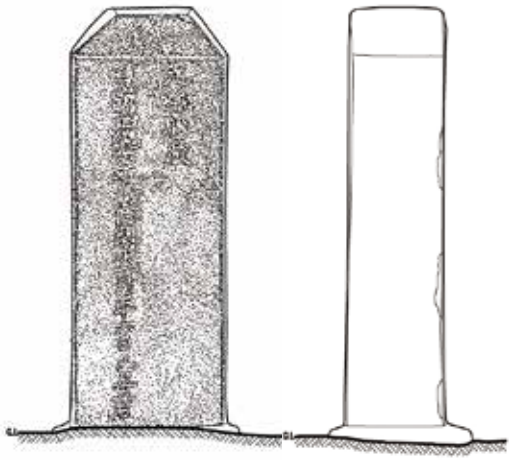
①-② 진양대군(실측도)

②-① 임영대군



②-② 임영대군(실측도)

③-① 단종



③-② 단종(실측도)

④-① 왕자 당

④-② 왕자 당(실측도)

⑤ 월산대군

⑥ 제안대군

〈그림 3〉 아기비의 Ⅰ단계(1438. 3.~1466)

2) Ⅱ단계

이 시기에는 7개의 유형이 등장한다. 비수는 말각형에서 반원형으로 새 모양이 창출되고, 비대는 처음으로 비신과 별석으로 제작되는 것이 출현한다. 반원형 비수는 연화문 장식으로 화려해지고 옆면의 층수가 대부분 3단이나 1단과 2단도 일부 보인다. 또 비수에 물끊이 홈이 처음 출현하여 성행하며, 원좌는 처음 나타나나 성행하지 않는다. 이 Ⅱ단계를 3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1) Ⅱ-①단계

이 시기 비는 B1 I 형(반원3단 무홈형 비수/ 무문 상편평형 비대)과 C1 I 형(반원2단 무홈형 비수/ 무문 상편평형 비대)이 나타난다. 비수는 앞 단계의 말각형에서 반원형으로 변하여 새로운 형태가 창출된다. 문양은 화려한 연화문이 조각되고 정상에 연봉을 부착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소멸될 때까지 연화문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된다. 아직 물끊이 홈이 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대는 무문형의 상편평형(I 형)이다. B1 I 형은 비수 측면이 3단이며, C1 I 형은 비수 옆면이 2단이다.

〈표 4〉 아기비의 순서배열과 양식단계

碑形 / 胎主	A I	B1 I	B1 II 2	B2 I	B2 II 1	B2 II 2	B2 II 3	B2 III 1	C1 I	C1 II 4	C1 III 2	C1 IV	C2 II 2	C2 II 3	D1 II 4	D1 IV	D2 I	E IV	단계	
세종 14왕자, 단종(1438.3.~1442.10.)	■																		I	
월산대군(1462.11.)	■																			
제안대군(1466.?.)	■																			
지축동(1477.6.)		■																	II	①
왕녀 수란(1478)									■											
원당리1·2(1481.7.)		■																		
삼태리1·2(1481.10.)				■																②
왕자 수견(1483.10.)																	■			
경숙옹주(1485.8.)				■																
왕녀 복란(1486.12.)				■																
경휘옹주(1489.9.)				■																
왕녀 승복(1492.7.)				▣																
중종(1492.9.)				■																
정자리(1493.9.8.)	■																			
배태리(1493.10.)	■																			
대덕리(1494.8.)	■																			
원자 쇠돌이(1501.7.)				■																
왕자 돈수(1505.2.)				■																
인종(1521.1.)					▣															
옥혜공주(1523.4.)					■															
덕양군(1528.3.)				■																
덕흥대원군(1530)				▣																
명종(1538.2.)								■												③
인순공주(1544.4.)			■																	
광해군(1581.4.)			▣																	
신성군(1586.12.)													■						III	①
송동(1588.7.)													■							
인성군(1589.2.)													▣							
덕두원리(1589.5.)													■							
산현리(1601.4.)			■																	②
영창대군(1606.7.)						■														
광해군 왕녀(1619.11.)						■														
숭선군(1643.10.)													▣							
낙선군(1645.8.)														■						
현종(1647)														▣						
숙명·숙경공주(1660.10.)							▣													
숙종(1661.12.)										■										
숙휘·숙정공주(1662.11.)											■									
명혜공주(1670)															■					③
경종(1689.2.)															■					
영조(1695.1.)															■					
연령군(1699.9.)															■					
화덕옹주(1728.10.)												■								④
영조 6왕녀(1732.3.)												■								
화협옹주(1733.5.)												■								
장조(1735.윤4.)												▣								
영조 8왕녀(1735.11.)																		■	IV	①
화완옹주(1738.3.)																		■		
화유옹주(1740)																		■		
정조(1753.1.)																		▣		
화령옹주(1753.5.)																■				②
화길옹주(1754.7.)																■				
문효세자(1783.9.)																■				

① 지축동 ②-① 왕녀 수란 ②-② 왕녀 수란(실측도) ③ 원당리1 ④ 원당리2

〈그림 4〉 아기비의 Ⅱ-①단계(1477. 6.~1481. 7.)

이 단계에는 B1 I 형 → C1 I 형 → B1 I 형 순으로 변화하는데, B1 I 형은 지축동, 원당리1·2 등이고, C1 I 형은 왕녀 수란으로 그 시기는 15세기 4/4분기(1477. 6.~1481. 7.)이다.(그림 4)

(2) Ⅱ-②단계

이 시기의 비는 B2 I 형(반원3단 유홈형 비수/ 무문 상편평형 비대)·D2 I 형(반원1단 유홈형 비수/ 무문 상편평형 비대)·A I 형(말각형 비수/ 무문 상편평형 비대)·B2Ⅱ1형(반원3단 유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무문형 비대)이 나타나는데, B2 I 형이 주류다. 비수는 반원형의 옆면 3단이 주류다. 원좌는 대부분 없으나 잠시 출현(원자 쇠돌이)하며, 물끊이 홈이 이 단계에 와서 처음 출현한다. 또 반원형 비수의 옆면 층수가 1단(왕자 수견)도 일시적으로 생기며, 말각형 비수도 잠시 발생(정자리, 배태리, 대덕리)하나, 이 단계에서 완전히 소멸된다. 특히 배태리는 비수 측면의 말각을 심하게 하여 상부가 뾰족한 삼각형을 하였다. 비대는 앞 시기의 무문형의 상편평형(I 형)이 주류다. 일시적으로 유문형 중 Ⅱ1형(유문 상원12연 하무문형 비대)의 비대(인종, 옥혜공주)가 새로 출현한다. 비대는 거의 대부분 비신과 일석인데, 나중에 별석(인종, 덕양군, 덕흥대원군)으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는 B2 I 형 → D2 I 형 → B2 I 형 → A I 형 → B2 I 형 → B2Ⅱ1형 → B2 I 형 순으로 변화한다. B2 I 형은 삼태리1·2, 경숙옹주, 왕녀 복란, 경휘옹주, 왕녀 승복, 중종, 원자 쇠돌이, 왕자 돈수, 덕양군, 덕흥대원군 등이고, D2 I 형은 수견왕자이며, A I 형은 정자리, 배태리, 대덕리 등이고, B2Ⅱ1형은 인종, 옥혜공주 등으로 그 시기는 15세기 4/4분기(1481. 10.)~16세기 2/4분기(1530)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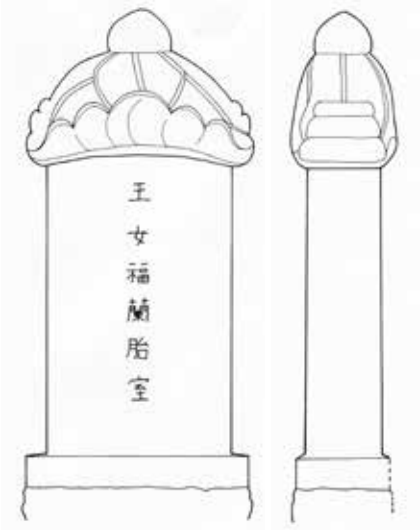
① 삼태리1

② 삼태리2

③ 왕자 수견

④ 경숙옹주

⑤-① 왕녀 복란



⑤-② 왕녀 복란(실측도)

⑥ 경휘옹주

⑦ 왕녀 승복(비수·비신)[156]

⑧ 중종

⑨ 정자리

⑩ 배태리

156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조선의 태실』II,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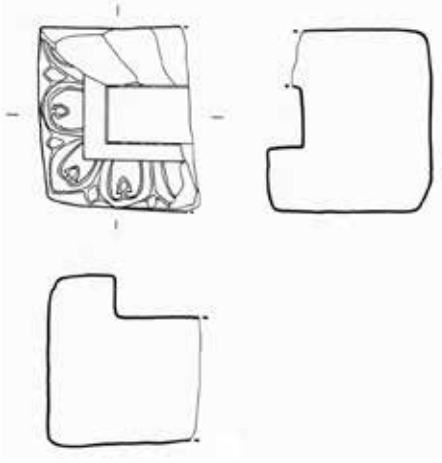
⑪ 대덕리

⑫ 원자 쇠돌이

⑬ 왕자 돈수

⑭-① 인종(비수)

⑭-② 인종(비대)



⑭-③ 인종(비대 실측도)

⑮ 옥혜공주

16-① 덕양군(비수·비신)

16-② 덕양군(비대·비신)

7 덕흥대원군(비수·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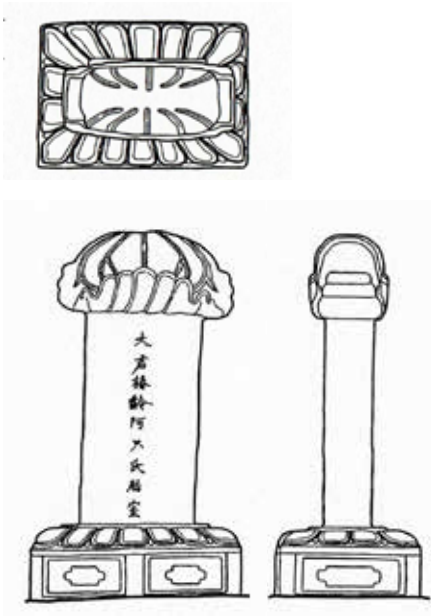
〈그림 5〉 아기비의 Ⅱ-②단계(1481. 10.~1530)

(3) Ⅱ-③단계

이 시기의 비는 B2Ⅲ1형(반원3단 유홈형 비수/ 유문 상원18연 하안상형 비대)과 B1Ⅱ2형(반원3단 무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안상형 비대)이 나타난다. 비수는 반원형의 옆면 3단이 지속되고 물끊이 홈과 원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비대는 유문형으로 하부에는 안상이 처음 나타나며, 상면에는 복련이 18개와 12개로 구분되어 장식된다. 특히 복련 18개(명종)의 새 형태가 출현하는데 일시적이며, 이 단계에서만 나타난다. 비대는 이 단계부터 소멸될 때까지 별석으로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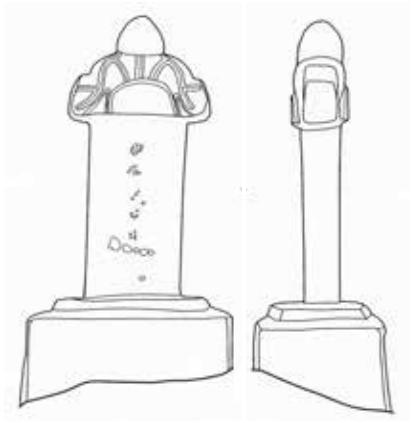
이 단계에는 B2Ⅲ1형 → B1Ⅱ2형 순으로 변화하는데, B2Ⅲ1형은 명종이고 B1Ⅱ2형은 인순공주, 광해군 등으로 그 시기는 16세기 2/4분기(1538. 2.)~16세기 4/4분기(1581. 4.)이다.(그림 6)

①-① 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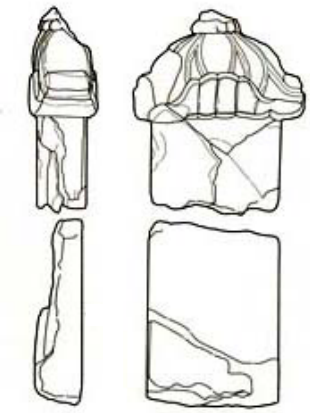
①-② 명종(실측도)

②-① 인순공주



②-② 인순공주(실측도)

③-① 광해군(비수·비신)



③-② 광해군(실측도)

〈그림 6〉 아기비의 Ⅱ-③단계(1538. 2.~1581. 4.)

3) Ⅲ단계

이 시기에는 9개의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반원형 비수는 측면이 3단·2단·1단 모두 나타나나 2단이 주류다. 2단은 Ⅱ-①단계에서 잠시 나타난 것이 다시 유행하며, 1단은 Ⅱ-②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 단계에서 다시 출현하였다. 물끊이 홈과 원좌도 장식되다가 나중에 소멸된다. 비대는 무문형과 유문형 모두 나타나며, 유문형 중 복련 12개가 주류나 복련 18개도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나중에 무문형의 상말각형이 새로 출현한다. 비대 하부의 문양도 안상형·안상초화형·초화형으로 나뉘는데 초화형이 처음으로 추가된다. 이 Ⅲ단계를 다시 세분하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Ⅲ-①단계

이 시기의 비는 C2Ⅱ2형(반원2단 유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안상형 비대)만 출현한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옆면이 2단으로 축소되는데 Ⅱ-①단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왕녀 수란의 형태를 잇는다. 물끊이 홈이 모두 있으며, 원좌는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비대는 Ⅱ-③단계에서 처음 출현한 Ⅱ2형(유문 상원12연 하안상형 비대)을 지속하여 정착한다.

이 단계는 신성군, 송동, 인성군, 덕두원리 등으로 그 시기는 16세기 4/4분기(1586. 12.~1589. 5.)이다.(그림 7)

(2) Ⅲ-②단계

이 시기 비는 B1Ⅱ2형(반원3단 무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안상형 비대)·C2Ⅱ2형(반원2단 유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안상형 비대)·B2Ⅱ2형(반원3단 유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안상형 비대)·C2Ⅱ3형(반원2단 유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안상초화형 비대)·B2Ⅱ3형(반원3단 유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안상초화형 비대)·C1Ⅱ2형(반원2단 무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안상형 비대)·C1Ⅲ2형(반원2단 무홈형 비수/ 유문 상원18연 하초화형 비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수는 반원형 옆면 3단과 2단으로 나뉜다. 물끊이 홈과 원좌도 대부분 장식된다. 비대는 Ⅱ2형(유문 상원12연 하안상형 비대)과 Ⅱ3형(유문 상원12연 하안상초화형 비대)이 주류이나 나중에 Ⅱ4형(유문 상원12연 하초화형 비대)과 Ⅲ2형(유문 상원18연 하초화형 비대)의 새 유형이 잠시 출현한다.

이 단계에는 B1Ⅱ2형 → B2Ⅱ2형 → C2Ⅱ2형 → C2Ⅱ3형 → B2Ⅱ3형 → C1Ⅱ4형 → C1Ⅲ2형 순으로 변화하는데, B1Ⅱ2형은 산현리이고 B2Ⅱ2형은 영창대군, 광해군 왕녀 등이며, C2Ⅱ2형은 숭선군이고 C2Ⅱ3형은 낙선군, 현종 등이며, B2Ⅱ3형은 숙명공주, 숙경공주 등이고, C1Ⅱ4형은 숙종, C1Ⅲ2형은 숙휘공주, 숙정공주 등으로 그 시기는 17세기 1/4분기(1601. 4.)~17세기 3/4분기(1662. 11.)이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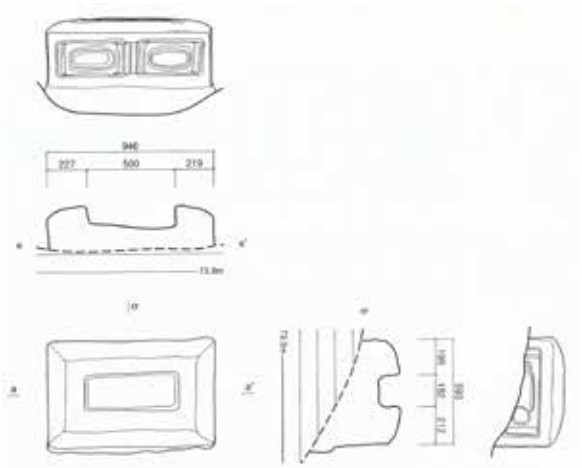
(3) Ⅲ-③단계

이 시기 비는 D1Ⅱ4형(반원1단 무홈형 비수/ 유문 상원12연 하초화형 비대)만 나타난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측면이 1단인데 Ⅱ-②단계 왕자 수견의 형태가 여기서 다시 재현된다. 물끊이 홈은 이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원좌는 있었다 없었다 한다. 비대는 Ⅱ4형(유문 상원12연 하초화형 비대)만 나타난다.

이 단계에는 명혜공주, 경종, 영조, 연령군 등으로 그 시기는 17세기 3/4분기(1670)~17세기 4/4분기(1699. 9.)이다.(그림 9)

①-① 신성군(비수·비신)

①-② 신성군(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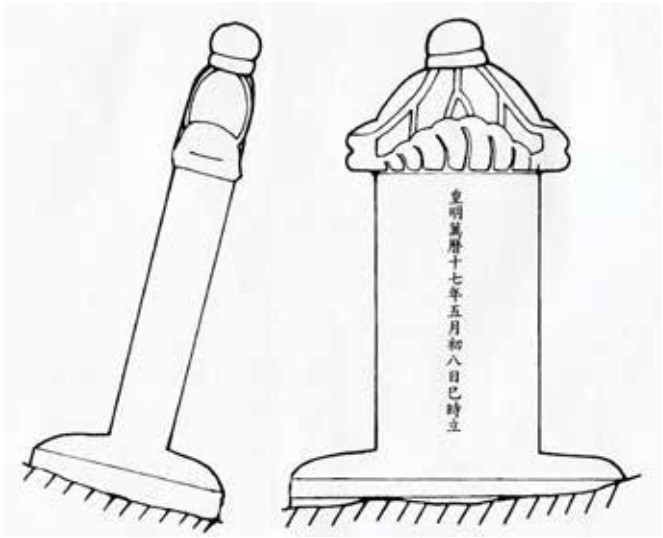


①-③ 신성군(실측도)

② 송동

③ 인성군(비대 복원)

④-① 덕두원리



④-② 덕두원리(실측도)

〈그림 7〉 아기비의 Ⅲ-①단계(1586. 12.~1589. 5.)

① 산현리

② 영창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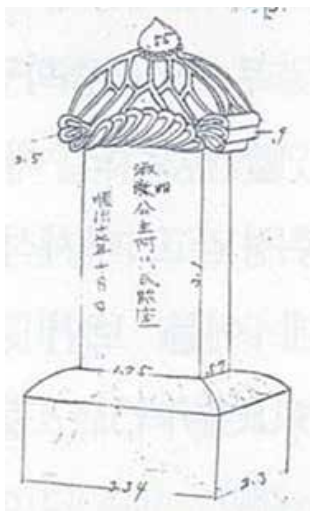
③-① 광해군 왕녀

③-② 광해군 왕녀(3D스캔)

④ 숭선군(비수·비신)[157]

⑤ 낙선군

⑥ 현종(비대 복원)



⑦ 숙명공주(실측도)

⑧ 숙경공주(실측도)

⑨ 숙종

⑩ 숙휘공주

⑪ 숙정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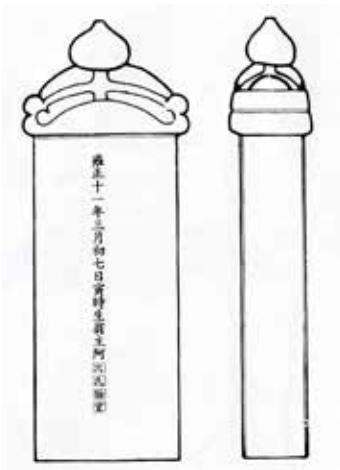
〈그림 8〉 아기비의 Ⅲ-②단계(1601. 4.~1662. 11.)

157 김현길, 1983, 「중원군 엄정면 소재 태실비에 대하여」, 『예성문화』 5, 예성동호회, 39·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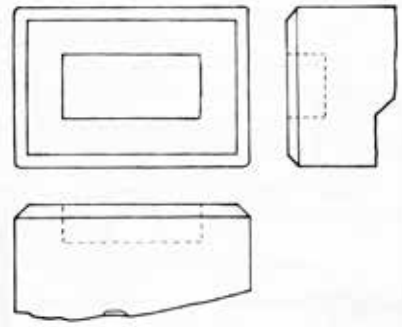
① 명혜공주 ② 경종 ③ 영조 ④ 연령군

〈그림 9〉 아기비의 Ⅲ-③단계(1670~1699. 9.)

① 화덕옹주 ② 영조 6왕녀 ③-① 화협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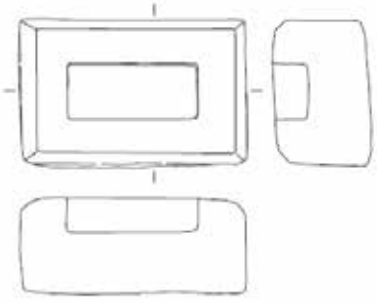


③-② 화협옹주(비수·비신 실측도)



③-③ 화협옹주(비대 실측도)

④-① 장조(비대)



④-② 장조(비대 실측도)

〈그림 10〉 아기비의 Ⅲ-④단계(1728. 10.~1735. 윤4.)

(4) Ⅲ-④단계

이 시기 비는 C1Ⅳ형(반원2단 무홈형 비수/ 무문 상말각형 비대)만 나타난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옆면 2단이다. 원좌는 대부분 없으나 있는 것(화덕옹주)도 있다. 비대는 무문형이 재현되나 윗면이 말각형(Ⅳ형)으로 변하여 소멸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단계는 화덕옹주, 영조 6왕녀, 화협옹주, 장조 등으로 그 시기는 18세기 2/4분기(1728. 10.~1735. 윤4.)이다.(그림 10)

4) Ⅳ단계

이 시기에는 2개의 유형이 나타난다. 비수는 삼각형과 반원형으로 나뉘나 삼각형이 처음 출현한다. 연화문은 퇴화되었다. 물끊이 홈은 사라졌으며, 원좌는 가끔씩 장식되기도 한다. 비대는 모두 무문형의 상말각형으로 앞 Ⅲ-④단계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 Ⅳ단계를 다시 세분하면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Ⅳ-①단계

이 시기 비는 EⅣ형(삼각형 비수/ 무문 상말각형 비대)의 새 유형만이 나타난다. 비수는 삼각형의 모양이 처음 창출되고 옆면 층수는 1단으로 축소된다. 연화문에서 연잎은 대부분 사라지고 연대만 주로 장식되어 거의 퇴화되었다. 원좌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있는 것(화유옹주)도 있다. 비대는 Ⅳ형(무문 상말각형 비대)이 지속된다.

이 단계는 영조 8왕녀, 화완옹주(영조 9왕녀), 화유옹주(영조 10왕녀), 정조 등으로 그 시기는 18세기 2/4분기(1735. 11.)~18세기 3/4분기(1753. 1.)이다.(그림 11)

(2) Ⅳ-②단계

이 시기의 비는 D1Ⅳ형(반원1단 무홈형 비수/ 무문 상말각형 비대)의 새 형태만 나타난다. 비수는 연화문이 장식되었으나 퇴화되었으며, 반원형이 재현되나 옆면은 1단이다. 원좌는 대부분 없으나 있는 것(문효세자)도 있다. 비대는 Ⅳ형(무문 상말각형)이 유지된다.

이 단계는 화령옹주(영조 11왕녀), 화길옹주(영조 12왕녀), 문효세자 등으로 그 시기는 18세기 3/4분기(1753. 5.)~18세기 4/4분기(1783. 9.)이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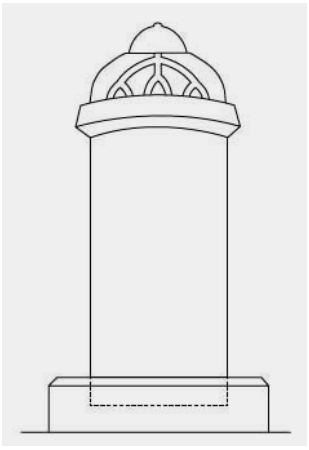
① 영조 8왕녀

② 화완옹주

③-① 화유옹주(비수·비신)

③-② 화유옹주(비대)[158]

④-① 정조(비대 복원)



④-② 정조(정면도)

〈그림 11〉 아기비의 Ⅳ-①단계(1735. 11.~1753. 1.)

① 화령옹주

② 화길옹주

③ 문효세자

〈그림 12〉 아기비의 Ⅳ-②단계(1753. 5.~1783. 9.)

158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 Ⅱ, 125쪽.

B. 태함의 양식과 편년

1. 태함의 현황과 시기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조선시대 태함은 모두 54기[159]가 확인되는데, 〈표 1〉과 같다. 먼저 태함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금석문 자료나 문헌사료를 참고하여 태함의 매납 시기, 즉 제작 시기를 밝혀보겠다.

〈표 1〉 조선시대 태함의 현황

번호	태주	장태일	원 위치/ 현 위치	비고
1	태종	1401.10.8.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봉2리 산65 (조곡산)/ 이전	
2	화의군	1438~1442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2리 산8 (선석산, 태봉)	
3	금성대군	1438~1442	〃	
4	원손(단종)	1441.윤11.26.	〃	
5	월산대군	1462.5.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291-1 (우면산)	
6	애기능	15세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6 (애기능)/ 고려대학교 박물관	
7	왕녀 수정	147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 (수태임봉, 죽도)	
8	지축동 (성종 왕녀)	1477.6.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1-11·산4 (태봉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13-1 (민가)	
9	왕녀 수란 (혜숙옹주)	1478.6.21.	서울 광진구 광장동 5-11 (아차산, 태봉)	
10	폐비 윤씨	1478.11.12.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1 (용문사)	
11	원당리1 (성종 왕녀)	1481.7.2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10-1·산11-1 (뒷태봉산)	동쪽 태실
12	삼태리1 (성종 왕녀)	1481.10.9.	경남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산13·산18 (태봉산)/ 무안면 삼태리 650 (마을입구)	
13	수견왕자	1483.10.15.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산15~18 (안태봉, 태봉산)	
14	안양군	1484.10.10.	경북 상주시 모동면 상판2리 산51 (태봉산)	
15	완원군	1484.10.10.	〃	
16	복란왕녀 (정순옹주)	1486.12.29.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산57 (태봉)/ 국립춘천박물관	

159 심현용(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3·205~206쪽;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318·347쪽)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5리 640-1번지의 영평천변 소공원에 옮겨져 있는 함신을 문조의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 경기도 태실조사에서 포천시 영중면 금주3리 480번지(태봉산) 금주리 태실에서 옮겨온 것으로 밝혀져 이 글에서 제외하였다.

번호	태주	장태일	원 위치/ 현 위치	비고
17	견석왕자	1487.4.7.	경북 울진군 평해읍 삼달2리 산66 (신래태봉)	
18	승복왕녀	1492.7.17.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1리 87-1 (태봉산)/ 국립중앙박물관	
19	중종	1492.9.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1리 산112 (태봉산, 벌태봉)	
20	금수왕자	1493.5.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1리 산37-7·산38·산39-2 (태봉산)	
21	원자 쇠돌이	1501.7.2.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2리 377-1 (태봉산)	
22	인수대군	1501.9.12.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2리 산30-1·산30-2 (태봉산)	
23	인종	1521.1.17.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4 (태봉산)	
24	옥혜공주	1523.윤4.13.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42-1 (태봉산)/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97	
25	덕양군	1528.3.13.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48 (안태봉)/ 국립경주박물관	
26	덕흥대원군	1530.7.16.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7리 산1-2·산1-63 (태봉)/ 금산역사문화박물관	
27	인순공주	1544.4.17.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1리 산58-4 (태봉산)	
28	광해군	1581.4.1.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1동 산135 (태봉, 탯등, 태등산, 연화봉)	
29	신성군	1584.7.25.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1리 산65 (태봉)	
30	인성군	1589.2.2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산덕리 411 (태봉산)	
31	산현리 (광해군 원자)	1601.4.3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42·산42-3 (태봉)	
32	경평군	1608.10.7.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태봉산)/ 대전시립박물관	
33	용성대군	1625.3.25.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만두산, 태봉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34	현종	1647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189-20·189-21 (태봉산)	
35	숙명공주	1660.10.2.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1리 산68 (태봉산)	
36	숙경공주	1660.10.2.	〃	
37	숙종 왕녀	1675~1696.1.2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 [구, 고잔동 산18](태봉산)/ 안산문화원	
38	영조	1695.1.2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1리 산5 (태봉산)/ 문의문화재단지 문화유물전시관	
39	연령군	1699.9.29.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1리 산54-2 (태봉산)/ 예산군 대술면 궐곡1리 80 (함신), 충남대학교 박물관 (함개)	
40	화덕옹주	1728.10.8.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3리 산127 (태봉산)	
41	영조 6왕녀	1732.3.27.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1리 산30·산31 (망해산, 천덕산, 태봉산)/ 원곡면 성은1리 32-1 (마을회관)	
42	화협옹주	1733.5.2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2리 791·산1 (태봉골)	
43	장조	1735.윤4.4.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산2 (뒤태봉)	
44	영조 8왕녀	1735.11.2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산132 (태봉)/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480-1 (마을회관)	
45	화완옹주	1738.3.26.	경기도 포천시 신북읍 만세교1리 산13-2	
46	화유옹주	1740.11.28.	충남 당진시 순성면 성북1리 산188-1 (태봉산)	매몰
47	의소세손	1750.12.25.	경북 영주시 고현동 산7 (태봉산)	
48	정조	1753.1.2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210-1 (계족산, 정양산, 태봉)/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33·산134 (계족산)	
49	화령옹주	1753.5.13.	충남 예산군 광시면 월송1리 산57 (태봉산)/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106-1(대흥면사무소 옆 대흥동헌)	
50	화길옹주	1754.7.25.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4리 산58-5(태봉) /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152-17 (함개)	
51	문효세자	1783.9.6.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산82 (태봉)	
52	순조	1790.11.?.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태봉)	
53	철종 원자	1859.2.25.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1리 산356·산356-1 (망산, 태봉산)	
54	순종	1874.6.8.	충남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366-38 (태봉)/ 구항초등학교	매몰

1) 조선 전기의 태함

(1) 태종

태함은 도면과 유물로 확인된다. 이왕직의 『태봉胎封』에 '石函盖(석함개)' 와 '內瓮(내옹)'이라 적고 간략히 그린 실측도면이[160] 있는데, 석함개는 '함개'를, 내옹은 '함신'을 뜻한다. 이 도면에 의하면, 함개는 한 쪽 모서리가 말각된 평면 사각형으로 윗면과 아랫면이 모두 편평한 판석형板石形인데, 현재 깨어져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 함신은 평면 원형에 내부 큰 원형의 감실龕室을 파고 그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었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장태 시기는 1401년 10월 8일로 추정된다.[161](그림 3-①)

(2) 화의군

태함은 1977년 보수 시 조사된 사진으로 확인된다. 함개는 평면 사각형의 편평한 판석형이다. 함신은 평면 사각형으로 5개의 별석으로 구성되었는데, 네 면을 판석으로 엇갈리게 조립하여 큰 감실을 만들고, 그 바닥면에는 중앙에 평면 원형, 단면 반원형의 약간 큰 홈을 팠는데, 다시 그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한 판석을 끼웠다. 장태 시기는 1438년으로 추정된다.[162](그림 3-②)

(3) 금성대군

태함은 1977년 보수 시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다. 태함은 평면 사각형의 함신만 확인된다. 함신은 네 면을 판석으로 엇갈리게 조립하여 내부에 사각형의 큰 감실을 만들었으며, 그 바닥 중앙에 평면 원형, 단면 반원형의 약간 큰 홈을 파고, 그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관통한 판석을 끼웠다. 함신은 모두 5개의 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태 시기는 1438~1442년 사이로 추정된다.[163](그림 3-③)

(4) 단종

태함은 1977년 보수 시 사진으로 확인된다. 태함은 평면 사각형의 함신만 확인되는데, 화의군과 금성대군의 함신과 동일하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441년 윤11월 26일이다.(그림 3-④)

(5) 월산대군

함개와 함신 상부의 일부가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사각형으로 밑면은 편평하나, 윗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볼록하게 돌출되어 단면 오각형에 가깝다. 함신은 평면이 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이며, 옆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내경內頃한 단지형이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462년 5월 18일이다.(그림 3-⑤)

160 이왕직, 1928~1934, 『태봉』, 115~116쪽.

161 심현용, 2010, 「성주지역 태실과 생명문화관 전시방안」,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관 컨텐츠 및 전시 방향 모색을 위한 관련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성주군, 48·51쪽.

162 심현용, 2014, 「성주 선석산 태실의 조성과 태실구조의 특징」,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37쪽.

163 심현용, 2014, 위와 같음.

(6) 애기능

함개는 평면 원형의 편평한 판석형이다. 함신은 평면의 두 면은 직선이고 나머지 두 면은 둥근 원형인 편원통형이다.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제작 시기는 분청자인화문 태호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15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164](그림 3-⑥)

(7) 왕녀 수정

태함은 함신만 확인된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문헌사료에 기록된 아기비의 명문 '成化六年壽貞胎封'[165]으로 보아 장태 시기는 1470년 ?월 ?일이다.(그림 4-①)

(8) 지축동

태함은 함개만 확인되는데, 태봉산 아래 민가民家로 이동되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하부 내부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477년 6월 19일이다.(그림 4-②)

(9) 왕녀 수란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관통되었다. 함신의 윗면 안쪽에 함개를 받는 턱받이가 돌출되었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478년 6월 21일이다.(그림 4-③)

(10) 폐비 윤씨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며,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외면을 제대로 다듬지 않고 채석한 상태로 두었는데, 상면에 평면 원형으로 제작하려던 흔적인 원형선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평면 원형으로 깎아 원통형을 만들려고 하였던 것 같다.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장태 시기는 태지석의 '景泰六年閏六月初一日生/ 王妃尹氏胎成化十四年十一/ 月十二日午時藏(앞)'라는 명문과 가봉비의 '王妃胎室(앞) 成化十四年十一月十二日(뒤)'라는 비문으로 보아 1478년 11월 12일이다.(그림 4-④)

164 전주이씨대동종약원(1999, 『조선의 태실』 III, 5~7쪽)은 이 태함에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제177호 분청사기인화문 태호(내·외호)가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고려대학교 박물관 배성환 학예연구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와 다름으로 여기서 바로잡고자 한다. 즉 당시 공사 중 애기능에서 2개소의 태실이 인접하여 발견되었는데, 국보 제177호 태호가 안치되었던 태함은 발견 당시 깨어져 있어서 버렸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 야외에 전시된 태함에서 출토된 태호는 분청자인화문 태호였는데, 지금은 이 태호의 행방을 알 수 없으며, 당시 태지석도 찾아보았으나 공사로 인해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65 김유동, 1929, 『전선명승고적』 강원도 양양군 고적 "수태임봉(壽胎臨封)은 북쪽 20리에 있으며, 작은 비가 있는데 '成化六年壽貞胎封' 8자가 새겨져 있다[壽胎臨封 在北二十里하니 有小碑에 刻曰成化六年壽貞胎封八字라]".

(11) 원당리1

함개의 상부만 일부 지상에 노출되어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다. 이로 보아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으로 추정된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481년 7월 21일이다.(그림 4-⑤)

(12) 삼태리1

태봉산 아래 마을입구에 함개가 있다. 이는 태봉산 정상의 남쪽 태실이 도굴되면서 이동된 것이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옆면 반원형이다. 하부 내부는 평면 원형으로 얕게 감실을 팠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481년 10월 9일이다.(그림 4-⑥)

(13) 수견왕자

함개와 함신의 상부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함신은 상부 일부만 확인되지만, 평면 원형의 원통형이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483년 10월 15일이다.(그림 4-⑦)

(14) 안양군과 완원군

함개 2개와 함신 1개가 확인된다. 함개는 상부만 일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다. 함신은 작은 구멍이 관통된 하부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장태 시기는 안양군과 완원군 모두 1484년 10월 10일이다.[166](그림 4-⑧)

(15) 복란왕녀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함개의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관통되었다. 장태 시기는 태지석의 '皇明成化貳拾貳年拾/ 月拾參日辰時生/ 王女福蘭胎成化貳拾/ 貳年拾貳月貳拾玖/ 日藏(앞)'라는 명문과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486년 12월 29일이다.(그림 4-⑨)

(16) 견석왕자

함개와 함신이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함개의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장태 시기는 태지석의 '皇明成化二十二年十/ 二月初六日亥時生/ 王子堅石胎成化二十/ 三年四月初七日午/ 時藏(앞)'라는 명문과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487년 4월 7일이다.(그림 4-⑩)

166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 II, 43·45쪽.

(17) 승복왕녀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태지석의 명문으로 보아 1492년 7월 17일이다.(그림 4-⑪)

(18) 중종

태실이 잘못 복원되어 태함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그나 정상부는 약간 편평하게 하였으며,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함개의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하였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와 태지석의 명문으로 보아 1492년 9월 7일이다.(그림 4-⑫)

(19) 금수왕자

함개 상부 일부와 함신 상부 일부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내부에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는데, 함개는 평면 원형에 단면 반원형으로 추정된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하였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493년 5월 4일이다.(그림 4-⑬)

(20) 원자 쇠돌이

태함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를 둥글게 하였으나 정상부에서는 약간 편평하게 하였으며,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이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501년 7월 2일이다.(그림 4-⑭)

(21) 인수대군

함개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태지석의 '皇明弘治十四年五/ 月十四日午時生/ 大君仁壽阿只氏胎/ 弘治十四年九月十/ 二日丑時藏(앞)'라는 명문으로 보아 장태 시기는 1501년 9월 12일이다.(그림 4-⑮)

(22) 인종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하였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태지석의 명문으로 보아 1521년 1월 17일이다.(그림 4-16)

(23) 옥혜공주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함개 하부의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다. 장태 시기

는 전술한 아기비와 태지석의 명문으로 보아 1523년 윤4월 13일이다.(그림 4-17)

(24) 덕양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함개 하부의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하였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태지석의 명문으로 보아 1528년 3월 13일이다.(그림 4-18)

(25) 덕흥대원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그나 맨 위는 편평하게 했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관통되었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와 태지석의 명문으로 보아 1530년 7월 16일이다.(그림 4-19)

(26) 인순공주

함개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544년 ?월 ?일이다.(그림 4-20)

(27) 광해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으로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옆에는 4개의 돌기(귀)가 장식되어 있으나 1개는 파손되었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큰 감실을 파고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와 태지석의 명문으로 보아 1581년 4월 1일이다.(그림 5-①)

(28) 신성군

함개만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으로 옆면에는 4개의 돌기가 장식되어 있으나 1개는 파손되었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584년 7월 25일이다.(그림 5-②)

(29) 인성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으로 옆면에는 4개의 돌기가 장식되어 있으며, 하부의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방형의 원통형으로 측면에 4개의 돌기가 장식되어 있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와 태지석의 명문으로 보아 1589년 2월 25일이다.(그림 5-③)

2) 조선 후기의 태함

(1) 산현리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함개 하부의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601년 4월 30일이다.(그림 6-①)

(2) 경평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함개 하부의 내부에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태지석의 '皇明萬曆二十八年六月十八日寅時生/ 王子阿只氏胎(앞) 皇明萬曆三十六年十月初七日藏(뒤)'라는 명문으로 보아 장태 시기는 1608년 10월 7일이다.(그림 6-②)

(3) 용성대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안으로 약간 들어간 단면 반원형이며,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태지석의 '皇明天啓四年九月初三日辰時誕生/ 王男大君阿只氏胎/ 天啓五年三月二十五日藏(앞)'라는 명문으로 보아 장태 시기는 1625년 3월 25일이다.(그림 6-③)

(4) 현종

태함은 사진으로 확인된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이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647년 ?월 ?일이다.(그림 6-④)

(5) 숙명공주와 숙경공주

두 태함은 간략히 그린 실측도면[167]으로만 살펴 볼 수 있는데,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으로 측면에는 4개의 돌기가 장식되어 있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했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660년 10월 2일이다.(그림 7-①·②)

167 이왕직, 1928~1934, 『태봉』, 115·119쪽.

(6) 숙종 왕녀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안으로 얕게 파인 단면 반원형으로 측면에는 4개의 돌기가 장식되어 있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팠으며, 바닥에는 구멍이 없고 외부 측면에도 돌기가 없다. 장태 시기는 『태봉등록』으로 보아[168] 1675~1696년 1월 21일 사이다.(그림 7-③)

(7) 영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의 정상부가 뾰족하고 하부는 편평하여 단면 오각형에 가까운 원뿔형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함신 윗면에는 뚜껑받이 턱이 있고 내부는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으나, 바닥면의 평면 형태는 사각형이다. 그리고 바닥 가운데에는 구멍이 없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695년 1월 28일이다.(그림 7-④)

(8) 연령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그나 위가 편평하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측면에는 4개의 돌기가 장식되어 있고 하면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평면 원형으로 측면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상광하협上廣下狹의 절구형이다. 내부는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는데, 측면은 상광하협의 형태를 하고 있다.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으나 관통시키지 않았다. 장태 시기는 『태봉등록』의 기록으로 보아[169] 1699년 9월 29일이다.(그림 7-⑤)

(9) 화덕옹주

태함은 일부 노출되어 있는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에 보주를 부착한 원뿔형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추정되는데, 내부에 평면 원형의 큰 감실을 팠으며, 내부 바닥에는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728년 10월 8일이다.(그림 8-①)

(10) 영조 6왕녀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옆면을 수직으로 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뾰족하게 하였으며,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상부에 연봉형 보주를 장식하였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이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732년 3월 27일이다.(그림 8-②)

(11) 화협옹주

함개만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측면을 수직으로 하고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상부에 보주를 장식하였는데, 보주는 파실되어 평면 사각형의 흔적만 확인된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733년 5월 24일이다.(그림 8-③)

168 『태봉등록』 숙종조 병자(1696, 숙종 22) 정월 21일·정월 22일·2월 15일.
169 『태봉등록』 숙종조 기묘(1699, 숙종 25) 윤7월 초4일·10월 초3일.

(12) 장조

함개는 평면 원형이며, 측면을 수직으로 하고 상부는 둥근데 정상부가 약간 뾰족하고, 하부는 편평하나 가운데 부분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서 단면 오각형에 가까운 원뿔형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태지석의 '雍正十三年正月二十一日丑時生元子阿只氏胎(앞) 雍正十三年閏四月初四日巳時藏(뒤)'라는 명문으로 보아 장태 시기는 1735년 윤4월 4일이다.(그림 8-④)

(13) 영조 8왕녀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측면을 수직으로 하고 상부는 나지막하게 둥글며,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상부에는 아주 낮게 돌출된 평면 원형의 보주가 있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이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735년 11월 26일이다.(그림 8-⑤)

(14) 화완옹주

함개만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옆면을 수직으로 하고 상부는 나지막하게 둥글며,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상부에는 아주 낮게 돌출된 평면 원형의 보주가 있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비문으로 보아 1738년 3월 26일이다.(그림 8-⑥)

(15) 화유옹주

함신만 노출되어 있다. 함신은 원통형으로 내부에 한 면이 둥근 사각형의 감실을 팠다.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장태 시기는 1740년 11월 28일이다.(그림 8-⑦)

(16) 의소세손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옆면을 수직으로 하고 하부는 안쪽으로 얕게 파내어서 바닥이 들린 모습의 원뿔형이다. 상부에는 무문의 원좌가 있는 보주를 장식하였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전방후원형 감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했다. 태지석의 '庚午八月二十七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앞) 乾隆十五年十二月二十五日午時藏(뒤)'라는 명문으로 보아 장태 시기는 1750년 12월 25일이다.(그림 9-①)

(17) 정조

태함은 사진과 실측도면으로 확인된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옆면을 수직으로 하고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상부에는 약간 돌출된 보주의 흔적만 있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의 감실은 평면 형태는 알 수 없고 단면만 확인되는데,170 단을 이룬 상광하협의 감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

170 윤석인(2013,「조선 정조대왕 태실 연구 -태실석물의 구조와 봉안유물의 특징-」,『문화재』46-1, 국립문화재연구소, 85쪽)은 함신 내부 중앙에 평면 원형의 감실이 파였다고 하였는데, 복원 시 함신 내부를 본 영월군청 안병윤 문화재팀장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 한다.

는 작은 구멍을 팠으나 관통하지 않았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753년 1월 21일이다.(그림 9-②)

(18) 화령옹주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옆면을 수직으로 하고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상부에는 보주를 장식하였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는 평면 전방후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관통하였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753년 5월 13일이다.(그림 9-③)

(19) 화길옹주

함신은 도로의 개설로 태봉산 정상에서 약간 아래로 이동되어 있으며, 함개는 산 아래 민가에 이동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이며, 옆면을 수직으로 한 원뿔형으로 상부에는 보주를 장식하였다. 함신은 상면이 노출되었는데,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전방후원형 감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관통하였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754년 7월 25일이다.(그림 9-④)

(20) 문효세자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뾰족하며,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으로 옆면이 둥근 단지형이다.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 장태 시기는 전술한 아기비의 명문으로 보아 1783년 9월 6일이다.(그림 10-①)

(21) 순조

태함은 사진으로만 확인된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약간 뾰족하면서 둥글며 옆면은 수직이나 약간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으로 옆면이 둥근 단지형이다. 태지석의 '乾隆五十五年庚戌六月/ 十八日生/ 純祖肅皇帝胎/ 乾隆五十五年庚戌十一月/ 藏于報恩郡俗離面/ 昭和四年 月 日移藏(앞)'라는 명문으로 보아 장태 시기는 1790년 11월 ?일이다.(그림 10-②)

(22) 철종 원자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옆면을 수직으로 하고 상부 모서리는 약간 말각하였으며, 윗면은 편평하고 하부 내면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판 단면 직사각형의 판석형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평면 원형의 큰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 구멍을 관통시켰다.(그림 11-①)

이 태실의 조성시기에 대해서, 서삼릉 출토 태지석(1929)은 '咸豊元年辛亥生/ 王子阿只氏胎/ 咸豊元年辛亥二月/ 藏于寧越郡兩邊面/ 昭和四年 月 日移藏(앞)'라 기록하고, 『원자아기씨장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1859)는 "무오년(1858) 10월 17일 신시에 탄생한 원자아기씨의 일등 태봉을 강원도 원주부 주천면 복

그러나 기억이 부정확하고, 또 이 시기의 감실 형태와 다르므로 필자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일단벽 호형의 방형인 전방후원형 감실로 추정하고자 한다.

결산 아래 임좌 병향으로 낙점하였으며, 태를 묻을 길일과 길시는 오는 기미년(1859) 2월 25일 오시午時입니다."라 하여 서로 다르다. 그러나 태봉산 아래 금표비에 '禁標(앞) 咸豊九年二月 日(뒤)'라는 명문으로 보아 1858년(철종 9) 10월 17일 출생한[171] 철종의 원자로 『원자아기씨장태의궤』(1859)의 기록이 옳다. 그러므로 서삼릉으로 이안하면서 태지석을 새로 만들어 넣을 때 오기誤記한 것이다. 장태 시기는 1859년 2월 25일이다.

(23) 순종

함개만 사진으로 확인된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옆면이 수직이며, 윗면은 편평하고 아랫면은 내부에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판 단면 직사각형의 판석형이다. 함신은 『원자아기씨장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1874)로 알 수 있는데, 원통형에 평면 원형 감실을 파고 그 바닥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추정된다. 장태 시기는 『원자아기씨장태의궤』(1874)의 기록으로 보아 1874년 6월 8일이다.(그림 11-②)

171 『철종실록』 철종 9년(1858) 10월 17일(기미).

2. 태함의 유물별 형식 분류와 편년

이 장에서는 장태 연대와 태함의 형상을 바탕으로 태함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기별로 그 변화과정을 찾아 태함의 형식과 변천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태함은 개석蓋石인 함개函蓋와 신석身石인 함신函身으로 구성되며, 함개와 함신 모두 시간적인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편년의 결정적 속성으로 축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형식을 설정해 보았다.

1) 유물별 형식 분류

(1) 함개의 형식 분류

함개는 일석으로 만들었으며, 크게 판석형, 반구형, 귀반구형 및 원뿔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형태는 다시 그 세부적인 속성에 의해서 〈그림 1〉과 같이 분류된다.

〈그림 1〉 함개의 유형 분류

- A형 - 판석형板石形으로 함개의 평면이 사각형[方形]과 원형圓形으로 나뉜다. 평면 방형은 단면에 의해, 윗면과 아랫면이 모두 편평하여 단면 직사각형[細長方形, 1형]과 아랫면은 편평하나 윗면의 상부가 볼록하게 올라와 단면 오각형五角形[2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평면 원형인 것은 윗면과 아랫면이 모두 편평하여 단면 직사각형[細長方形, 3형]이다.

- B형 - 반구형半球形으로 함개의 평면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하며, 하부 내부[下面]에는 위로 얕은 감실龕室을 판 단면 반원형半圓形이다.

• C형 - 귀반구형[耳半球形]으로 함개의 평면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하며, 하부 내부[下面]에는 위로 얕은 감실을 판 단면 반원형이나, 옆면에 4개의 돌기[耳]가 장식되었다.

• D형 - 원뿔형[圓錐形]으로 함개의 평면이 원형이고 옆면은 수직이며,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둥글게 뾰족하고 하부는 편평하여 단면 오각형에 가깝다. 이는 다시 정상부에 연봉형 보주가 장식되지 않은 것[무보주, 1형]과 장식된 것[유보주, 2형]으로 구분된다.

(2) 함신의 형식 분류

함신函身은 대부분 일석一石으로 만들었으나, 별석別石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형태에 따라 상자형, 단지형, 편원통형, 원통형, 귀원통형과 절구형으로 구분되는데, 〈그림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table>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Ⅰ형
(상자형)</td><td>Ⅱ형
(단지형)</td><td>Ⅲ형
(편원통형)</td><td>Ⅳ-1형
(원형 감실의 원통형)</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Ⅳ-2형
(원방형 감실의 원통형)</td><td>Ⅳ-3형
(전방후원형 감실의 원통형)</td><td>Ⅴ형
(귀원통형)</td><td>Ⅵ형
(절구형)</td></tr>
</table>

〈그림 2〉 함신의 유형 분류

• Ⅰ형 - 상자형箱子形으로 평면 사각형[方形]이며, 단면은 직사각형[細長方形]이다. 내부에는 감실龕室이 파였는데 평면 사각형[방형]이다. 바닥 가운데에 평면 원형, 단면 반원형의 약간 큰 반구형半球形 홈을 파고 그 안 가운데에 다시 평면 원형圓形의 작은 구멍을 뚫었다.

• Ⅱ형 - 단지형으로 평면이 사각형[방형]에 가까운 원형이며, 옆면은 상부로 올라가면서 내경하여 좁아지는 형태이다. 내부 감실의 평면은 원형으로 바닥 가운데에 평면 원형의 작은 구멍을 뚫었다.

• Ⅲ형 - 편원통형扁圓筒形으로 평면의 두 면이 직선으로 편편하나 나머지 두 면은 둥근 원형을 한 형태이다. 내부 감실의 평면은 원형으로 바닥 가운데에 평면 원형의 작은 구멍을 뚫었다.

• Ⅳ형 - 원통형圓筒形으로 평면 원형이다. 내부 감실의 평면 형태에 의해, 원형[1형]과 한 면이 둥글고 나머지 세 면이 직선인 일단벽 호형弧形의 사각형인 원방형圓方形[2형] 및 한 면이 직선이고 나머지 세 면이 둥근 열쇠구멍모양의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3형]으로 세분된다. 감실 바닥 가운데에 평면 원형의 작은 구멍을 뚫었다.

• Ⅴ형 - 귀원통형으로 평면 원형이며, 원통형(Ⅳ형)과 동일하나 옆면에 4개의 돌기[耳]가 달렸다. 내부 감실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바닥 가운데에 평면 원형의 작은 구멍을 뚫었다.

• Ⅵ형 - 절구형으로 평면 원형이며, 단면은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상광하협上廣下狹의 사다리꼴형이다. 내부 감실은 평면 원형으로 매우 크게 팠으며, 상부가 넓고 하부는 좁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 평면 원형의 구멍을 팠다.

2) 유물별 양식과 편년

전술한 형식 분류에 의해 각 유물별 속성을 분석해보면, 〈표 2〉와 같다. 그리고 태함의 각 유물별 속성에 따라 순서배열한 후, 그 속에서 편년적으로 의미있는 속성을 가려내고 각 속성상태의 변화 시기를 살펴 양식 단계를 설정해 보겠다.

〈표 2〉 함개와 함신의 속성 분석172

변화속성 / 태주/ 장태일		함 개							함 신							
		판석형			반구형	귀반구형	원뿔형		상자형	단지형	편원통형	원통형			귀원통형	절구형
		평면방형		평면원형			무보주	유보주	방형 감실	원형 감실	원형 감실	원형 감실	원방형 감실	전방후원형 감실	원형 감실	원형 감실
		단면편평	단면볼록	단면편평												
태 종	1401.10.8.	■										■				
화의군	1425.9.5.	■							■							
금성대군	1426.3.28.	□							■							
단 종	1441.11.26.	□							■							
월산대군	1462.11.18.		□							■						
애기능	15C 중엽			■							■					
왕녀 수정	1470				□							■				
지축동	1477.6.19.				■							□				
왕녀 수란	1478.6.21.				■							■				
폐비윤씨	1478.11.12.				■							■				
원당리1	1481.7.21.				▣							□				
삼태리1	1481.10.9.				■							□				

172 기호 중 ■는 유물이 확인된 것, ▣는 일부 확인된 것, □는 확인되지 않아 추정한 것이며, 이하 동일하다. 다른 기호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표기하겠다.

태주/ 장태일	변화속성	함 개							함 신							
		판석형			반구형	귀반구형	원뿔형		상자형	단지형	편원통형	원통형			귀원통형	절구형
		평면방형		평면원형			무보주	유보주	방형 감실	원형 감실	원형 감실	원형 감실	원방형 감실	전방후원형 감실	원형 감실	원형 감실
		단면편평	단면볼록	단면편평												
수견왕자	1483.10.15.				▣							▣				
안양군/완원군	1484.10.8.				▣							■				
복란왕녀	1486.12.29.				■							■				
견석왕자	1487.4.7.				■							■				
승복왕녀	1492.7.17.				■							■				
중 종	1492.9.7.				▣							▣				
금수왕자	1493.5.4.				■							■				
원자 쇠돌이	1501.7.2.				▣							▣				
인수대군	1501.9.12.				▣							▣				
인 종	1521.1.17.				■							■				
옥혜공주	1523.윤4.13.				■							■				
덕양군	1528.3.13.				■							■				
덕흥대원군	1530.7.16.				■							■				
인순공주	1544.4.7.				▣							□				
광해군	1581.4.1.					■						■				
신성군	1584.7.25.					■									□	
인성군	1589.2.25.					■									■	
산현리	1601.4.30.				■							■				
경평군	1608.10.7.				■							■				
용성대군	1625.3.25.				▣							■				
현 종	1647.?.?.				■							■				
숙명공주/ 숙경공주	1660.10.2.					■						■				
숙종 왕녀	1675~ 1696.1.21.					■						■				
영 조	1695.1.28.						▣					▣				
연령군	1699.9.29.					■										■
화덕옹주	1728.10.8.							■				■				
영조 6왕녀	1732.3.27.							▣				▣				
화협옹주	1733.5.24.							■				□				
장 조	1735.윤4.4.						■					■				
영조 8왕녀	1735.11.26.							▣				▣				
화완옹주	1738.3.26.							▣				□				
화유옹주	1740.11.28.							□					■			
의소세손	1750.12.25.							■						■		
정 조	1753.1.21.							■						▣		
화령옹주	1753.5.13.							▣						■		
화길옹주	1754.7.25.							■						■		
문효세자	1783.9.6.						■			■						
순 조	1790.11.?.						■			▣						
철종 원자	1859.2.25.			■								■				
순 종	1874.6.8.			■								□				

앞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각 유물별 양식단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표 3〉 함개와 함신의 순서배열과 단계

형식 / 태주/장태일		함 개									함 신									
		A1	A2	A3	B	C	D1	D2	단계		I	II	III	IV1	IV2	IV3	V	VI	단계	
태 종	1401.10.8.	■							I					■					I	
화의군	1425.9.5.	■									■									
금성대군	1426.3.28.	▣									■									
단 종	1441.11.26.	▣									■									
월산대군	1462.11.18.		■									■								
애기능	15C 중엽			■									■							
왕녀 수정	1470				□				II	①				■					II	①
지축동	1477.6.19.				■									▣						
왕녀 수란	1478.6.21.				■									■						
폐비윤씨	1478.11.12.				■									■						
원당리1	1481.7.21.				▣									▣						
삼태리1	1481.10.9.				■									▣						
수견왕자	1483.10.15.				■									▣						
안양군/완원군	1484.10.8.				■									■						
복란왕녀	1486.12.29.				■									■						
견석왕자	1487.4.7.				■									■						
승복왕녀	1492.7.17.				■									■						
중 종	1492.9.7.				■									▣						
금수왕자	1493.5.4.				■									■						
원자 쇠돌이	1501.7.2.				■									▣						
인수대군	1501.9.12.				■									▣						
인 종	1521.1.17.				■									■						
옥혜공주	1523.윤4.13.				■									■						
덕양군	1528.3.13.				■									■						
덕흥대원군	1530.7.16.				■									■						
인순공주	1544.4.7.				■									▣						
광해군	1581.4.1.					■				②				■						
신성군	1584.7.25.					■											▣			②
인성군	1589.2.25.					■											■			
산현리	1601.4.30.				■					③				■						③
경평군	1608.10.7.				■									■						
용성대군	1625.3.25.				■									■						
현 종	1647.?.?.				■									■						
숙명공주/숙경공주	1660.10.2.					■			III	①				■						
숙종 왕녀	1675~1696.1.21.					■								■						
영 조	1695.1.28.						■							▣						
연령군	1699.9.29.					■												■		
화덕옹주	1728.10.8.							■		②				■						
영조 6왕녀	1732.3.27.							■						▣						
화협옹주	1733.5.24.							■						▣						
장 조	1735.윤4.4.						■							■						
영조 8왕녀	1735.11.26.							■						▣						
화완옹주	1738.3.26.							■						▣						
화유옹주	1740.11.28.							□							■					
의소세손	1750.12.25.							■								■			III	①
정 조	1753.1.21.							■								▣				
화령옹주	1753.5.13.							■								■				
화길옹주	1754.7.25.							■								■				
문효세자	1783.9.6.						■			③		■								②
순 조	1790.11.?.						■					▣								
철종 원자	1859.2.25.			■					IV					■					IV	
순 종	1874.6.8.			■										▣						

3. 태함의 양식과 변천

앞에서 살펴본 각 유물별 속성을 종합해서 태함의 전체적인 속성에 따라 순서배열하여 그 변화 시기를 살펴 양식단계를 설정해 보면 〈표 4〉와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표 4〉 태함의 순서배열과 양식단계173

태주/ 장태일 \ 변화속성		A1 I	A1 IV1	A2 II	A3 III	A3 IV1	B IV1	C IV1	C V	C VI	D1 II	D1 IV1	D2 IV1	D2 IV2	D2 IV3	단계	
태 종	1401.10.8.		■													I	
화의군	1425.9.5.	■															
금성대군	1426.3.28.	◒															
단 종	1441.11.26.	◒															
월산대군	1462.11.18.			■													
애기능	15C 중엽				■												
왕녀 수정	1470						◒									Ⅱ	①
지축동	1477.6.19.						◓										
왕녀 수란	1478.6.21.						■										
폐비윤씨	1478.11.12.						■										
원당리1	1481.7.21.						◓										
삼태리1	1481.10.9.						◓										
수견왕자	1483.10.15.						■										
안양군/완원군	1484.10.8.						■										
복란왕녀	1486.12.29.						■										
견석왕자	1487.4.7.						■										
승복왕녀	1492.7.17.						■										
중 종	1492.9.7.						■										
금수왕자	1493.5.4.						■										
원자 쇠돌이	1501.7.2.						■										
인수대군	1501.9.12.						■										
왕녀 석환	1514.12.26.						▣										
인 종	1521.1.17.						■										
옥혜공주	1523.윤4.13.						■										
덕양군	1528.3.13.						■										
덕흥대원군	1530.7.16.						■										
인순공주	1544.4.7.						◓										
광해군	1581.4.1.							■									②
신성군	1584.7.25.								◓								
인성군	1589.2.25.								■								
산현리	1601.4.30.						■										③
경평군	1608.10.7.						■										
용성대군	1625.3.25.						■										
현 종	1647.?.?.						■										

173 기호 중 ◒는 함신만 확인된 것이며, ◓는 함개만 확인된 것을 나타낸다.

태주/ 장태일 \ 변화속성		A1 I	A1 IV1	A2 II	A3 III	A3 IV1	B IV1	C IV1	C V	C VI	D1 II	D1 IV1	D2 IV1	D2 IV2	D2 IV3	단계	
숙명공주/숙경공주	1660.10.2.							■								Ⅲ	①
숙종 왕녀	1675~1696.1.21.							■									
영 조	1695.1.28.											■					
연령군	1699.9.29.									■							
화덕옹주	1728.10.8.												■				②
영조 6왕녀	1732.3.27.												■				
화협옹주	1733.5.24.												◓				
장 조	1735.윤4.4.											■					
영조 8왕녀	1735.11.26.												■				
화완옹주	1738.3.26.												◓				
화유옹주	1740.11.28.													◒			
의소세손	1750.12.25.														■		③
정 조	1753.1.21.														◓		
화령옹주	1753.5.13.														■		
화길옹주	1754.7.25.														■		
문효세자	1783.9.6.										■					Ⅳ	①
순 조	1790.11.?.										■						
철종 원자	1859.2.25.					■											②
순 종	1874.6.8.					◓											

1) 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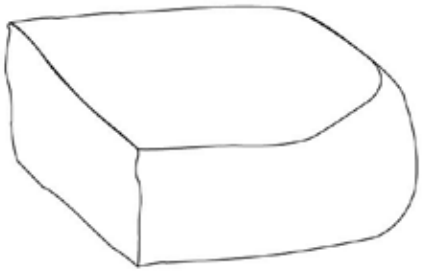
이 시기의 태함은 A1Ⅳ1형(평면 방형의 판석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A1Ⅰ형(평면 방형의 판석형 함개/ 방형 감실의 상자형 함신), A2Ⅱ형(평면 방형의 블록 판석형 함개/ 원형 감실의 단지형 함신)과 A3Ⅲ형(평면 원형의 판석형 함개/ 원형 감실의 편원통형 함신) 등 4개의 유형이 나타난다. 이중 A1Ⅰ형이 주류를 이룬다.

함개는 평면 방형과 평면 원형의 판석형 함개로 나뉘며, 함신은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방형 감실의 상자형 함신, 원형 감실의 단지형 함신, 원형 감실의 편원통형 함신으로 구분되어 초창기의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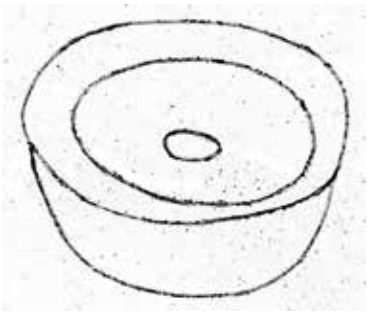
조선 최초의 태함은 A1Ⅳ1형(태종)인데, 함개는 평면 방형의 판석형 함개로 고려 인종의 함개를 계승하나, 함신은 원형 감실의 원통형으로 고려 인종의 평면 방형의 상자형 함신과 다르다. 그러나 이후 A1Ⅰ형의 태함이 나타나 고려 인종의 상자형 태함을 다시 계승한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태함의 양식을 계승하려고 하면서도 새로운 유형을 창출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는데, A2Ⅱ형과 A3Ⅲ형이 그것이다. A2Ⅱ형은, 함개는 평면 방형의 판석형이나 상부가 올라가면서 볼록해지는 단면 오각형(A2형)이며, 함신은 측면이 둥근 단지형(Ⅱ형)이다. A3Ⅲ형은, 함개는 평면 원형의 판석형(A3형)으로 방형의 평면에서 원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함신은 평면의 두 면이 직선이고 두 면은 둥글어 거의 원형에 가까운 편원통형(Ⅲ형)이다. 이 두 형태는 다음 단계의 반구형 함개나 원통형 함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이하게 지하에 묻히던 태함이 월산대군 태실에서 함신 상부와 함개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이는 성주 선석산 태실의 중앙태석을 모방하여 지상에 노출시킨 것으

로 아기태실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의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 단계는 A1Ⅳ1형 → A1Ⅰ형 → A2Ⅱ형 → A3Ⅲ형 순으로 변화하는데, A1Ⅳ1형은 태종이고, A1Ⅰ형은 화의군, 금성대군, 단종 등이며, A2Ⅱ형은 월산대군이고, A3Ⅲ형은 애기능으로 그 시기는 15세기 1/4분기(1401. 10.)~15세기 중엽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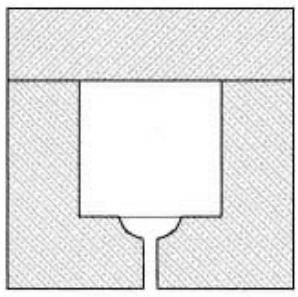
①-① 태종(함개 실측도)



①-② 태종(함신 실측도)

②-① 화의군(함개)

②-② 화의군(함신)



②-③ 화의군(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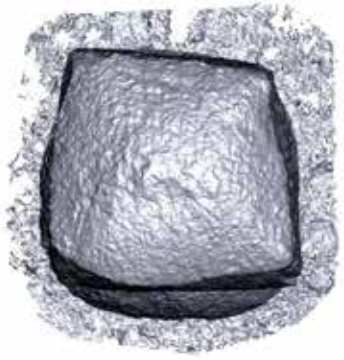
②-④ 화의군(함신 평면도)

③ 금성대군(함신)

④ 단종(함신)

⑤-① 월산대군

⑤-② 월산대군(정면3D스캔)



⑤-③ 월산대군(평면3D스캔)

⑥ 애기능

〈그림 3〉 태함의 Ⅰ단계(1401. 10.~15C 중엽)

2) Ⅱ단계

이 시기에는 3개의 유형이 나타나나 BⅣ1형(반구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이 주류를 이룬다. 함개는 반구형과 귀반구형이 처음 나타나며 반구형이 주류다. 함신은 Ⅰ단계의 Ⅳ1형(원형 감실의 원통형)을 계승하여 주류를 이루는데, 옆에 귀[耳]가 부착되는 귀반구형도 잠시 나타난다. 이 Ⅱ단계를 다시 세분하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Ⅱ-①단계

이 시기의 태함은 BⅣ1형(반구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만 나타나 앞 시기와 다른 새로운 형이 창출되었다. 함개는 반구형(B형)으로 평면은 원형이다. 이 단계에는 앞 시기 방형의 판석형 함개가 완전히 사라지고 반구형 함개로 정착되는 시기이다. 함신은 원통형으로 내부 감실이 평면 원형(Ⅳ1형)이다.

이 단계는 왕녀 수정을 시작으로 지축동, 왕녀 수란, 폐비 윤씨, 원당리1, 삼태리1, 수견왕자, 안양군, 완원군, 복란왕녀, 견석왕자, 승복왕녀, 중종, 금수왕자, 원자 쇠돌이, 인수대군, 인종, 옥혜공주, 덕양군, 덕흥대원군, 인순공주 등으로 그 시기는 15세기 3/4분기(1470)~16세기 2/4분기(1544)이다.(그림 4)

(2) Ⅱ-②단계

이 시기의 태함은 CⅣ1형(귀반구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과 CⅤ형(귀반구형 함개/ 귀원통형 함신)이 나타난다. 함개는 모두 평면 원형의 반구형인데, 옆면에 4개의 돌기(C형)가 장식되어 귀반구형을 이룬다. 이는 Ⅱ-①단계의 반구형 함개(B형)에 돌기[耳]가 추가된 것이다. 함신은 처음에 평면 원형 감실의 원통형(Ⅳ1형)으로 Ⅱ-①단계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귀반구형 함개(C형)를 따라 옆면에 4개의 돌기가 부착되는 귀원통형(Ⅴ형)으로 변한다. 이 단계 태함은 처음에는 함개에만 돌기가 부착되는 과도기(광해군)를 거치다가 함신에도 돌기가 부착된다. 이렇게 함개와 함신에 돌기가 부착되는 것은 고리가 부착된 태호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계는 광해군을 시작으로 신성군, 인성군 등으로 그 시기는 16세기 4/4분기(1581. 4.~1589. 12.)이다.(그림 5)

(3) Ⅱ-③단계

이 시기의 태함은 Ⅱ-①단계에 출현했던 BⅣ1(반구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이 다시 재현된다. 이 단계는 산현리를 시작으로 경평군, 용성대군, 현종 등으로 그 시기는 17세기 1/4분기(1601. 4.)~17세기 2/4분기(1647)이다.(그림 6)

① 왕녀 수정(함신)

② 지축동(함개)

③ 왕녀 수란

④ 폐비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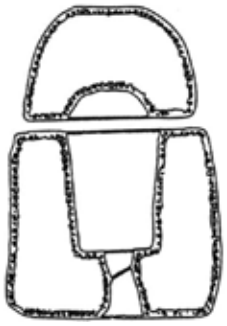
⑤ 원당리1(함개)

⑥ 삼태리1(함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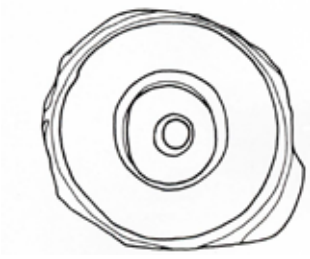
⑦ 수견왕자

⑧ 안양군과 완원군

⑨-① 복란왕녀



⑨-② 복란왕녀(단면도)



⑨-③ 복란왕녀(함신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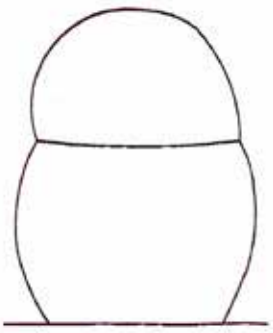
⑩-① 견석왕자(함신)

⑩-② 견석왕자(함개)

⑪-① 승복왕녀(함개)

⑪-② 승복왕녀(함신)

⑫-① 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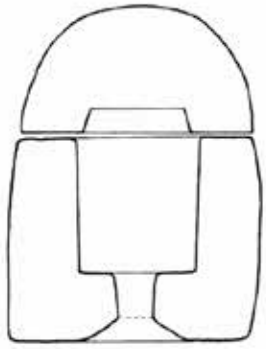
⑫-② 중종(정면도)

⑬ 금수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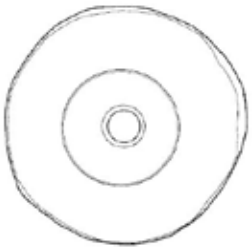
⑭ 원자 쇠돌이

⑮ 인수대군(함개)

⑯-① 인종



⑯-② 인종(단면도)



⑯-③ 인종(함신 평면도)

⑰ 옥혜공주

⑱-① 덕양군(함개)

⑱-② 덕양군(함신)

⑲ 덕흥대원군

⑳ 인순공주(함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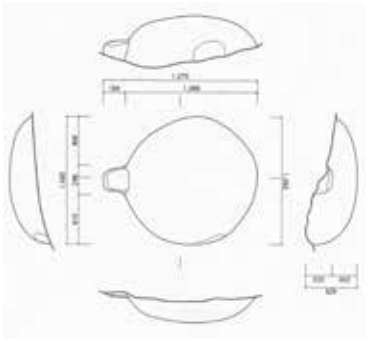
〈그림 4〉 태함의 Ⅱ-①단계(1470~1544)

①-① 광해군

①-② 광해군(단면도)

①-③ 광해군(함신 평면도)

②-① 신성군(함개)



②-② 신성군(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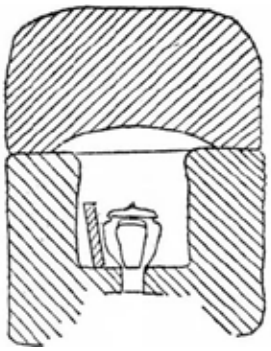
③-① 인성군

③-② 인성군(단면도)

〈그림 5〉 태함의 Ⅱ-②단계(1581. 4.~1589. 12.)

① 산현리[174]

②-① 경평군



②-② 경평군(단면도)

③ 용성대군

④ 현종[175]

〈그림 6〉 태함의 Ⅱ-③단계(1601. 4.~1647)

174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 Ⅱ, 103쪽.
17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6, 『예산군 태실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41쪽.

3) Ⅲ단계

이 시기에는 6개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D2Ⅳ1형(유보주 원뿔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과 D2Ⅳ3형(유보주 원뿔형 함개/ 전바후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이 주류를 이룬다. 함개는 Ⅱ-②단계의 귀반구형(C형)이 다시 재현되며, 원통형의 새로운 형이 창출되어 주류를 이룬다. 함신은 Ⅱ-③단계의 원형 감실의 원통형(Ⅳ1형)을 계승하여 주류를 이루나 나중에 원방형 감실(Ⅳ2형)의 과도기를 거쳐 전방후원형 감실(Ⅳ3형)로 변화한다. 특이하게 절구형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나 바로 사라진다. 이 Ⅲ단계를 다시 세분하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Ⅲ-①단계

이 시기에 와서 태함은 CⅣ1형(귀반구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D1Ⅳ1형(무보주 원뿔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CⅥ형(귀반구형 함개/ 절구형 함신) 등의 3형식이 나타난다. 태함은 귀반구형 함개에 원통형 함신이 주류를 이룬다.

함개는 처음에 Ⅱ-②단계에 나타난 귀반구형(C형)이 재현되며, 보주없는 원뿔형(D1형)도 처음 나타난다. 함신은 Ⅱ-③단계의 원형 감실의 원통형(Ⅳ1형)을 계승하였는데, 나중에 절구형(Ⅵ형)이 일시적으로 출현하였다 사라진다.

① 숙명공주(실측도) ② 숙경공주(실측도) ③ 숙종 왕녀

④ 영조 ⑤-① 연령군(함신) ⑤-② 연령군(함개)

⑤-③ 연령군(함신 단면도) ⑤-④ 연령군(3D스캔)

〈그림 7〉 태함의 Ⅲ-①단계(1660. 10.~169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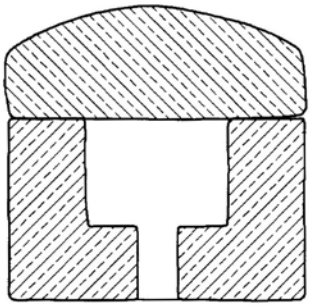
① 화덕옹주[176]

② 영조 6왕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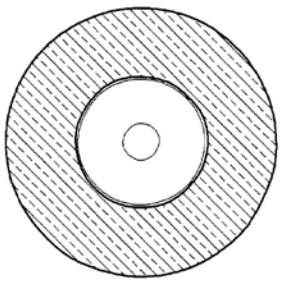
③ 화협옹주(함개)

④-① 장조(함신)

④-② 장조(함개)



④-③ 장조(단면도)



④-④ 장조(함신 평면도)

⑤ 영조 8왕녀

⑥ 화완옹주(함개)

⑦-① 화유옹주(함신)

⑦-② 화유옹주(감실)[177]

〈그림 8〉 태함의 III-②단계(1728. 10.~1740. 11.)

17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연천군』,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 502쪽.
177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 II, 126쪽.

이 단계는 CⅣ1형 → D1Ⅳ1형 → CⅥ형 순으로 변화하는데, CⅣ1형은 숙명공주, 숙경공주, 숙종 왕녀 등이고, D1Ⅳ1형은 영조며, CⅥ형은 연령군으로 그 시기는 17세기 3/4분기(1660. 10.)~17세기 4/4분기(1699. 9.)이다.(그림 7)

(2) Ⅲ-②단계

이 시기의 태함은 D2Ⅳ1형(유보주 원뿔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D1Ⅳ1형(무보주 원뿔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D2Ⅳ2형(유보주 원뿔형 함개/ 원방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등 3형식이 나타나는데, D2Ⅳ1형이 주류다.

함개는 Ⅲ-①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무보주 원뿔형(D1형)이 이 단계에서 정착된다. 그러나 대부분 상부에 보주가 부착(D2형)되어 새로운 형을 창출하였다. 함신은 앞 시기의 원형 감실의 원통형Ⅳ1형을 이어받는데, 감실에서 한 면이 둥글고 나머지가 방형인 원방형(Ⅳ2형)이 일시적으로 나타나 다음 Ⅲ-③단계의 전방후원형 감실(Ⅳ3형)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인다.

이 단계는 D2Ⅳ1형 → D1Ⅳ1형 → D2Ⅳ1형 → D2Ⅳ2형 순으로 변화하는데, D2Ⅳ1형은 화덕옹주, 영조 6왕녀, 화협옹주, 영조 8왕녀, 화완옹주 등이고, D1Ⅳ1형은 장조이며, D2Ⅳ2형은 화유옹주로 그 시기는 18세기 2/4분기(1728. 10.~1740. 11.)이다.(그림 8)

(3) Ⅲ-③단계

이 시기의 태함은 D1Ⅳ3형(무보주 원뿔형 함개/ 전방후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만 나타나 새로운 형태가 창출되었다.

함개는 Ⅲ-②단계의 유보주 원뿔형(D2형)을 그대로 이어받으나, 함신은 앞 단계와 다른 한 면이 ㄷ모양을 하고 나머지 면이 원형인 전방후원형 감실(Ⅳ3형)이 새롭게 출현하여 정착된다.

이 단계는 의소세손을 시작으로 정조, 화령옹주, 화길옹주 등으로 그 시기는 18세기 2/4분기(1750. 12.)~18세기 3/4분기(1754. 7.)이다.(그림 9)

4) Ⅳ단계

이 시기에는 2개의 유형이 나타난다. 함개는 무보주 원뿔형(D1형)과 원형의 판석형(A3형)으로 나뉘고, 함신은 단지형(Ⅱ형)과 원형 감실의 원통형(Ⅳ1형)으로 구분된다. 판석형 함개와 단지형 함신은 가장 빠른 Ⅰ단계에서 잠시 출현하였다가 사라졌는데, 이 단계에서 다시 출현한다. 이 Ⅳ단계를 다시 세분하면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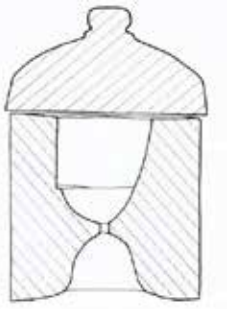
(1) Ⅳ-①단계

이 시기의 태함은 D1Ⅱ형(무보주 원뿔형 함개/ 단지형 함신)로 새로운 형태가 출현한다. 함개는 Ⅲ-③단계의 원뿔형(유보주)을 계승하였으나 보주가 없다(D1형). 그동안 무보주 원뿔형(D1형)은 Ⅲ-①·②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단계에서 정착하였다. 함신은 Ⅰ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단지형(Ⅱ형)이 다시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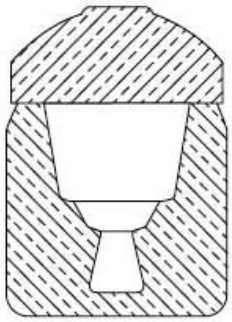
이 단계는 문효세자, 순조 등으로 그 시기는 18세기 4/4분기(1783. 9.~1790. 11.)이다.(그림 10)

①-① 의소세손(함신)

①-② 의소세손(함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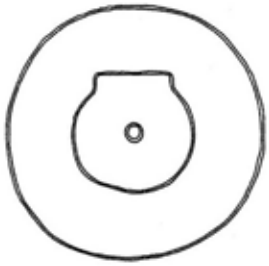

①-③ 의소세손(단면도)

②-① 정조[178]


②-② 정조(단면도)

③-① 화령옹주

③-② 화령옹주(단면도)


③-③ 화령옹주(함신 평면도)

④-① 화길옹주(함개)

④-② 화길옹주(함신)

〈그림 9〉 태함의 Ⅲ-③단계(1750. 12.~1754. 7.)

① 문효세자

② 순조[179]

〈그림 10〉 태함의 Ⅳ-①단계(1783. 9.~1809. 8.)

178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조선의 태실』Ⅰ, 93쪽.
179 이규상, 2005,『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106쪽.

(2) Ⅳ-②단계

이 시기의 태함은 A3Ⅳ1형(원형의 판석형 함개/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만 나타난다. 함개는 평면 원형이며, 단면은 위·아랫면이 편평한 판석형(A3형)으로 Ⅰ단계의 함개(애기능)가 재출현한 것이다. 함신은 원형 감실의 원통형(Ⅳ1형)으로 이미 조선시대 함신 중 가장 유행하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다시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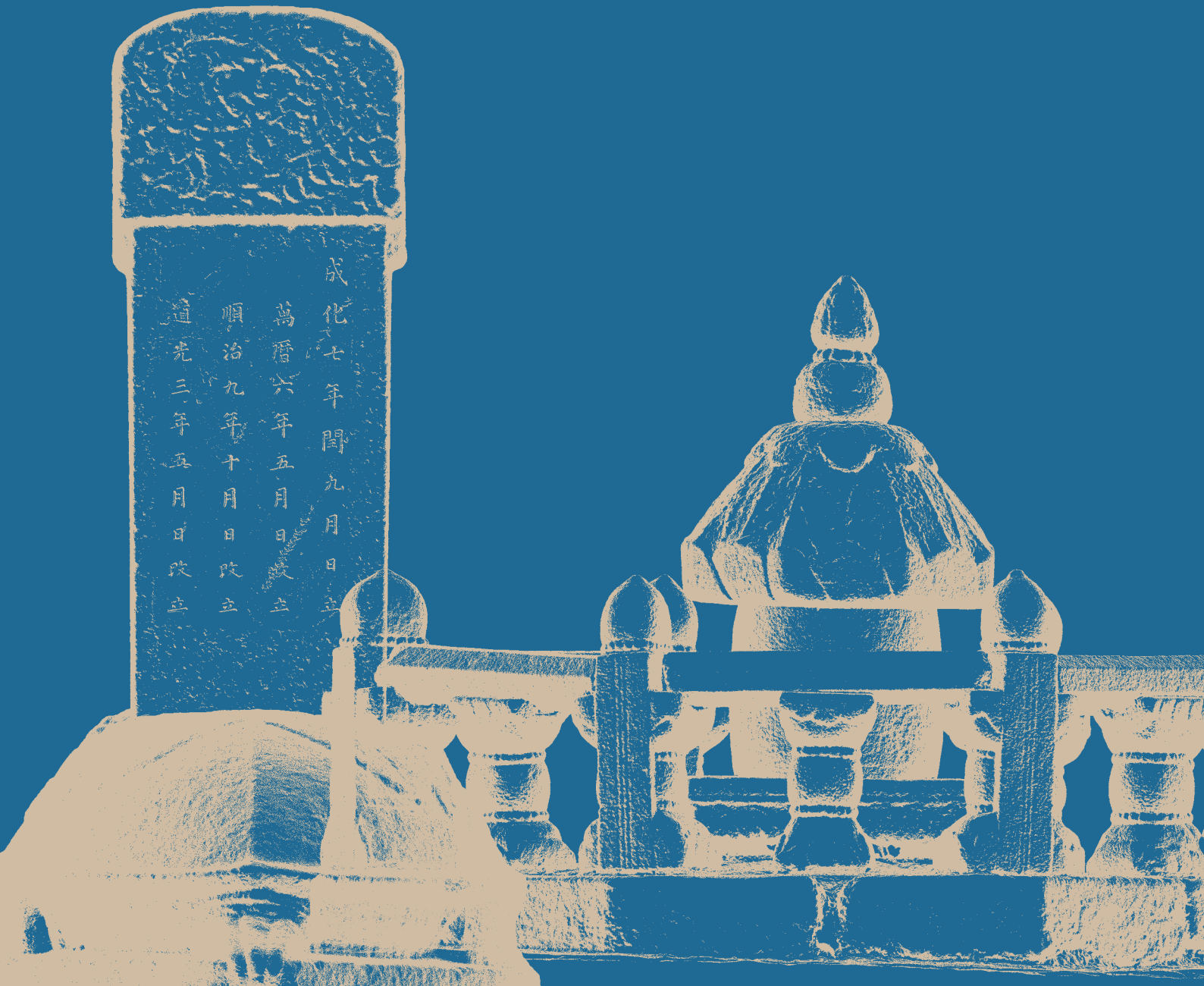
이 단계는 철종 원자, 순종 등으로 그 시기는 19세기 3/4분기(1859. 2.~1874. 6.)이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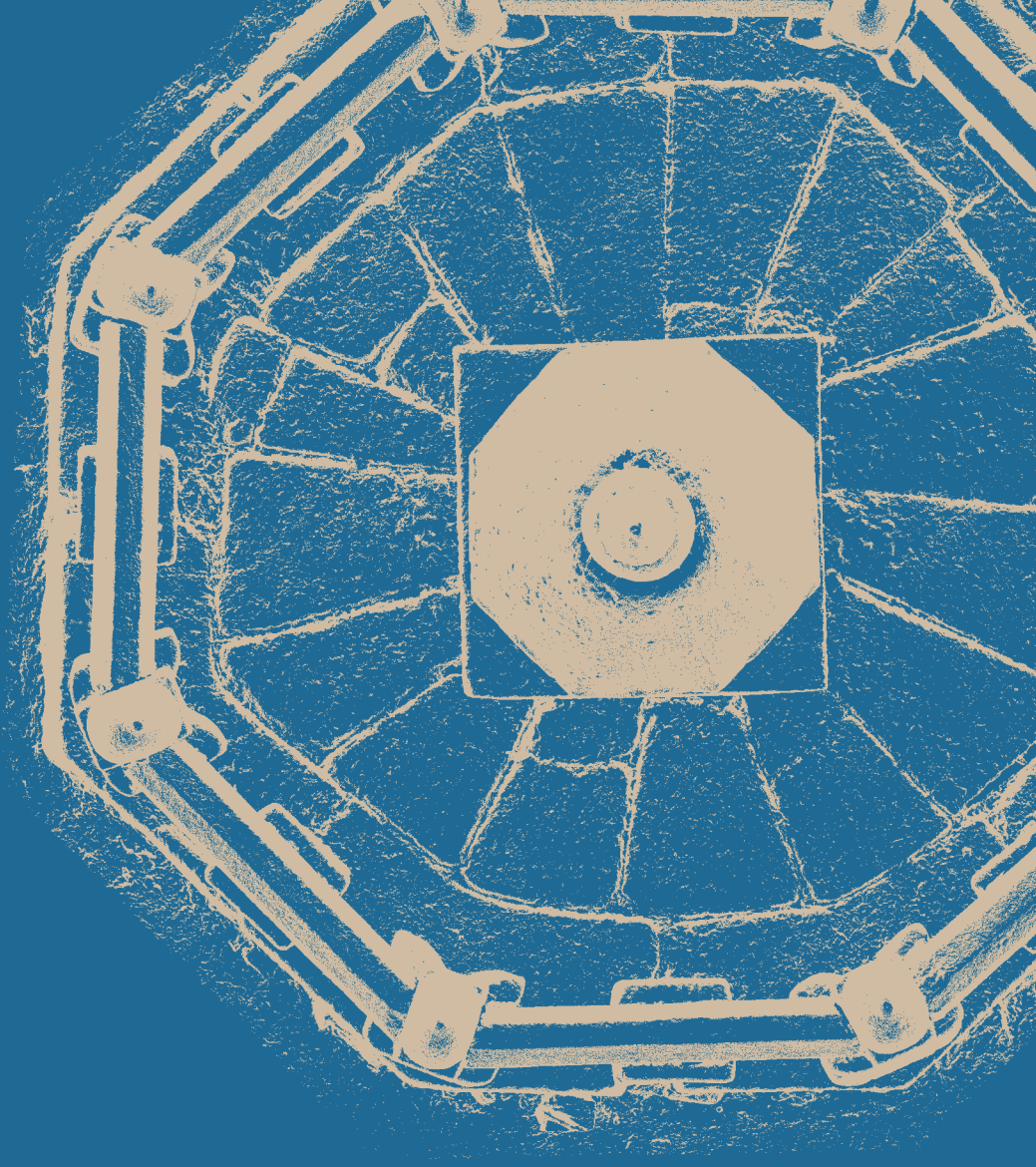
①-① 철종 원자(함개) ①-② 철종 원자(함신) ② 순종(함개)[180]

〈그림 11〉 태함의 Ⅳ-②단계(1859. 2.~1874. 6.)

180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조선의 태실』Ⅰ, 1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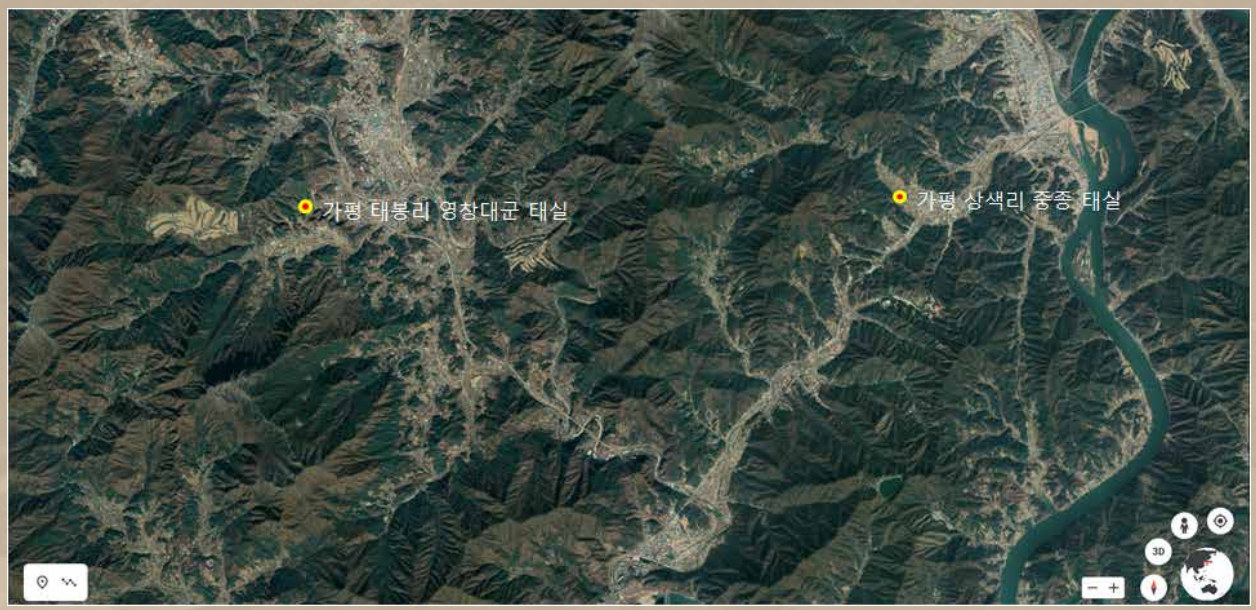
지역별 조사내용





가평군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 가평군

1) 가평군 상색리 중종 태실
2) 가평군 태봉리 영창대군 태실

1)

가평군 상색리 중종中宗 태실

(가평군 향토문화재 제6호)

태 주	중종(1488~1554.11.15.)
소재지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112
좌 표	37°48′16″N / 127°28′43″E

가평 상색리 마을회관에서 서쪽 300m 거리에 우뚝 솟은 산이 태봉산이다. 이 태봉산은 불기산(601m)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이 끝에서 솟구쳐 오른 모양새로 돌혈자리에 해당한다.

중종 태실은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중종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이듬해인 1507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 가봉태실을 만들었다. 중종 태실을 만들면서 가평현加平縣이 가평군加平郡으로 승격되었다.[01]

태주인 중종中宗은 조선 11대 임금으로 이름은 이역李懌이고 자는 낙천樂天이다. 성종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호尹壕의 딸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이다. 1494년 진성대군晉城大君에 봉해졌다.[02] 1506년 9월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 등이 반정反正을 일으켜 연산군을 쫓아낸 뒤 왕으로 추대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태실을 고양시 서삼릉 구역으로 옮겼는데, 중종 태실도 이 때 훼손되어 방치되었다. 이후 1982년 산 주인이 장례

01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10월 16일 병술 5번째 기사. 경기 가평현(加平縣)을 올려 군(郡)으로 삼고, 현감(縣監) 유면(柳沔)을 체임시켰으니, 이 곳은 주상(主上)의 태실(胎室)이 있는 곳이다.

02 『성종실록』 297권, 성종대왕 묘지문

를 치르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발견되었으며, 흩어져 있던 태석을 인근의 상색초등학교로 옮겨 보관해오다가 1987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03]

복원된 태실은 전석 위에 주석과 동자석을 놓고 횡죽석을 올려 팔각으로 둘렀으며, 안쪽에는 사방석 위에 태함이 놓여 있다. 가봉비는 태실 뒤에서 태실을 바라보도록 세워져 있다. 주변에는 안태비와 태석 일부가 함께 놓여 있다.

태실비는 대리석 재질로 비신 중간 부분이 파손되어 사라진 것을 복원하였으며, 귀부도 머리가 파손된 상태이다. 비문은 파손과 마모로 일부만 알 수 있는데 '主(上殿下)△△胎藏(앞) 正德十年二月△日立(뒤)'이며 설립연대는 중종 10년(1515) 2월이다.

태실 근경

태실전경

03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 I , 1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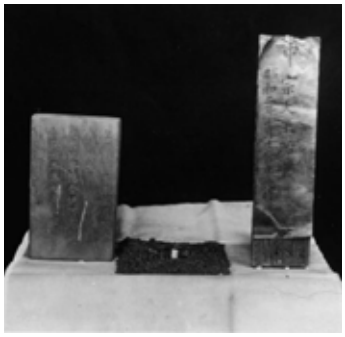
1 2 3 1. 안태비 2. 태실비 3. 태함

안태비는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을 하였고 측면은 3단이며, 물끊이 홈이 있다. 상부는 원좌 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문은 '大君△金△△只氏胎室(앞) 弘治五年九月初七日亥時立(뒤)'이며, 태지석은 '皇明弘治元年三月初五日/ 丑時生/ 大君仇等隱金伊阿只氏胎/ 弘治五年九月初七日亥/ 時藏(앞)'으로 입비 시기는 1492년 9월 7일이다.[04]

이러한 현재 모습은 가봉태실의 원형과 많이 다르게 복원된 것이다. 태봉이 뻗은 산줄기 방향을 따라 태실의 팔각난간 모서리가 돌출되어야 하고 가봉비의 위치는 태실 뒤가 아니라 태실 앞 상색리 마을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야 한다. 태함은 지상이 아닌 땅 속에 있어야 하고, 태함이 놓인 자리에는 중동석과 개첨석이 놓여야 하며, 사방석은 상석 위에 놓여야 한다. 또한 태실 주변에 가봉태실의 태석 일부와 안태비가 같이 보관되어 있는데, 안태비는 가봉태실을 조성할 때 주변의 깨끗한 곳을 택하여 땅에 묻는다고 하였지만[05], 현재 대부분의 가봉태실이 안태비를 함께 세워 복원하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활용 측면에서도 주변의 적당한 위치에 거리를 두어 복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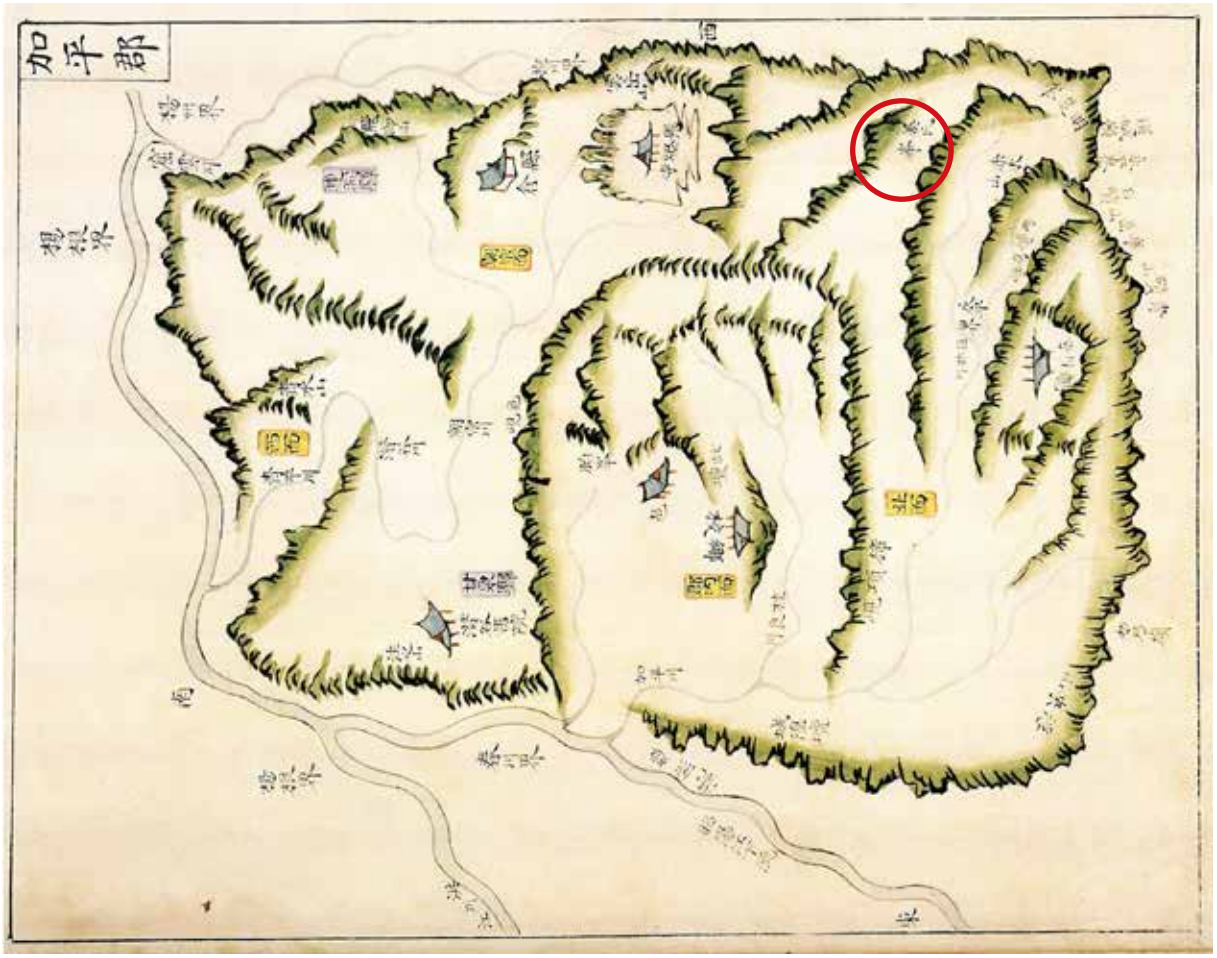
04 심현용, 2016, 『한국태실연구』, 261쪽.
05 심현용, 위의 책, 228쪽, 『태봉등록』 숙종조 경신(1680, 숙종6) 4월 26일.

서삼릉의 중종 태실은 199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 모습이 확인되었다.[06] 표비석 전면에는 '中宗大王胎室', 후면에는 '自京畿道加平郡郡內面移封 △年五月'이라 새겨져 있다. 태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태항아리는 외호만 남아 있으며, 뚜껑을 동쪽으로 향한 채 받침석 상면에 넘어져 있었다. 태항아리 몸체에는 4개의 'ㄷ'자형 귀가 붙어 있으며, 표면에는 봉합천과 주칠 끈 자국이 남아 있다. 뚜껑은 단추형 손잡이 밑으로는 장방형의 투공이 4개 뚫려 있다. 외면에는 봉합천과 주칠끈 자국이 남아 있다. 태항아리의 크기는 37.1×20cm이다. 태지석은 태항아리 밑에 넘어져 깔려 있었다. 장방형 오석烏石으로 크기는 16.4×27.3×4cm이다. 명문은 '皇明弘治元年三月初五日丑時生 大君환等隱金伊阿只氏胎 弘治午年九月初七日亥時藏'이 깊게 새겨져 있다. 태실 출토유물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 2
3
4 5 6 7

1. 서삼릉 중종 태실(앞) 2. 서삼릉 중종 태실(뒤)
3. 서삼릉 중종태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9,『서삼릉태실』)
4. 태지와 금편(국박, 건판 37787) 5. 태항아리(외호) 6 태지석 7. 금편



1. 광여도 가평군 2. 해동지도 가평군

2)

가평군 태봉리 영창대군永昌大君 태실

태 주	영창대군(1606.3.5.-1613.2.10)
소재지 (안태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115-1 (가평군 상면 태봉리 308)
좌 표	37°48′12″N / 127°19′51″E

37번 국도 연하교차로에서 387번 지방도를 따라 가평수목원 방향으로 가다 연하초등학교 쪽으로 접어들어 월사 이정구선생묘(경기도기념물 제79호)를 찾아가면 월사집 목판장판각 앞, 길 옆에 안태비가 서 있다. 태봉 마을 입구(태봉리 산114)에 있던 것을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이다.

태봉은 안태비에서 서쪽으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태봉마을 뒷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의 끝이 솟구친 돌혈 자리에 해당한다. 현재는 태봉 정상부에 축대를 쌓아 평탄하게 만든 흔적과 민묘를 이장한 흔적만이 남아 있는데, 30~40년 전 경에 월사 선생 후손의 묘가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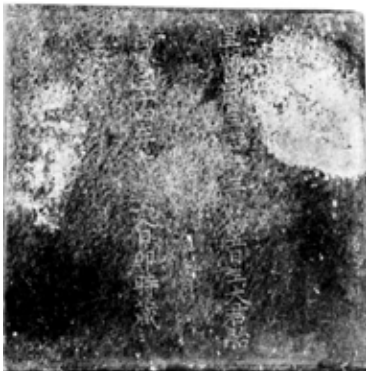
태봉에 있던 태실은 광해군 때 파괴되었고, 이후 인조 때 태봉 주변 일대를 월사 이정구(1564-1635)선생의 유택幽宅으로 내려 소위 사패지가 되었다.

영창대군永昌大君은 선조宣祖와 인목왕후仁穆王后 소생의 대군大君으로 휘는 의璟 이다. 광해군 때 북인들의 주청에 의해 서인庶人이 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강화부사 정항鄭沆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시호는 소민昭愍이다.

1. 근경(심현용, 2010년) 2. 정상부 축대

안태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신은 앞·뒤가 바뀌어 세워져 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얕은 음각선을 그어 3단처럼 보이게 하였다. 상부는 무문의 원좌를 둔 연봉이 있다. 비대는 윗면에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 앞·뒷면에는 안상 각 2개, 양 측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장식하였다. 비문은 '皇明(萬)曆三十 …(앞) 萬曆三十四年七月二十八日立(뒤)'으로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606년 7월 28일이다.[07]

태지석은 국립중앙박물관(본관 11374)에 소장되어 있는데, 명문은 '皇明萬曆三十四年三月初五日生大君胎 萬曆三十四年七月二十八日卯時藏'이라 새겨 있어 1606년(선조 39) 3월 5일에 태어난 대군의 태를 같은 해 7월 28일 묘시에 장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2010년 태봉마을 앞 안태비(심현용, 2010) 2. 2020년 안태비 3. 태지석(국박, 본관 11374)

07 심현용, 앞의 책, 267쪽.

고양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2 고양시

1) 고양시 벽제동 태봉
2) 고양시 대자동 정소공주 태실(병장)
3) 고양시 신도동 고종 제4남 태실(병장)
4) 고양시 효자동 성종왕녀 태실

1)

고양시 벽제동 태봉산

태 주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63
좌 표	37°42′59″N / 126°53′38″E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뒷산(241m)을 태봉이라고 부른다. 벽제동 태봉에 왕자 태실이 있는 것으로 구전되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알 수 없다. 현재 산 정상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평탄화된 상태이며, 산 북쪽에는 올림픽CC 골프장이 정상 바로 아래에 들어서 있다.

태봉 정상 근린공원

서삼릉 정소공주 묘

2)

고양시 대자동 정소공주 태실

태 주	정소공주(貞昭公主:1412-1424)
(초장지) (서삼릉)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67-1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102
좌 표	37°39′54″N / 126°51′34″E

정소공주의 아버지는 세종世宗이고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이다. 1424년(세종 6) 2월 사망하자 예장도감禮葬都監과 조묘도감造墓都監을 설치하여 장례를 주관하였다. 사후인 1424년(세종 6) 3월 중국 송나라 수국공주隋國公主의 예에 따라 정혜貞惠로 추증하였다가 같은 해 4월에 정소貞昭로 개정하였다.

초장지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이다. 묘지명은 예문제학 윤회尹淮가 찬술하였다. 현재 초장지로 추정할 수 있는 사성莎城이 확인되며, 주위에 망주석과 상석床石, 묘비 좌대座臺로 보이는 석물이 확인된다. 1936년 5월 17일에 서삼릉 경내로 이장되었다.[01]

현재 서삼릉 왕자·왕녀묘역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봉분 앞에 새로 제작한 묘비석이 세워져 있고 묘비석 옆면에 태실병장胎室幷藏을 표기하였다.

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40-41쪽.

1. 내호 2. 외호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장할 때 묘소에서 태항아리 2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내항아리[內壺]와 외항아리[外壺]가 함께 출토되었는데, 외항아리(外壺, 높이 21.2cm, 입지름 8.2cm, 몸통지름 14.9cm)는 몸통 가운데 꽃무늬 도장을 촘촘하게 찍는 인화기법을 사용하였다. 풀꽃 무늬가 있는 내항아리(內壺, 높이 19.1cm, 입지름 7.5cm, 몸통지름 14cm)는 주로 상감기법을 써서 무늬를 넣었다.[02] 이렇게 내호와 외호로 구분하였으나 태항아리의 크기로 보아 내호가 외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외호 구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항아리가 묘소에서 출토되는 사례는 태실을 마련하기 전에 태주가 사망해서 묘에 함께 묻거나, 태실 조성 대상이 왕과 왕의 아들에서 왕의 딸에게까지 확대되기 전이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왕녀의 태실이 조성되는 시기는 성종 때부터로 보고 있다.[03] 정소공주의 남자형제들이 모두 태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3세에 사망한 정소공주의 태항아리가 묘에 묻힌 까닭은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0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검색 :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502#
03 심현용, 2010, 『한국태실연구』, 경인문화사, 122쪽.

1
2 3

1. 서삼릉 왕자·왕녀 묘역
2. 서삼릉 고종대군 (제4남) 묘
3. 태실병장

3)

고양시 신도동 고종 제4남 태실

태 주	고종제4남(1878.2.18.-1878.6.5.)
(초장지) (서삼릉)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경릉 우이강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102
좌 표	37°39′54″N / 126°51′34″E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소생 대군大君이다. 1878년 2월 18일 인시寅時에 출생하였고,[04] 1878년(고종 15) 4월 장태가 결정되었으며, 안태사安胎使는 아경으로 결정되었다.[05] 1878년(고종 15) 6월 5일(계미) 사망하였으며, 초장지는 덕종과 소혜왕후의 능인 경릉敬陵 우이강右二岡다. 1935년 서삼릉 경내로 강제 이장되었다.[06]

현재 서삼릉 왕자·왕녀묘역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봉분 앞에 새로 제작한 묘비석이 세워져 있고 묘비석 옆면에 태실병장胎室幷藏을 표기하였다. 태실도 세우기 전에 사망하여 태를 묘에 함께 묻은 것으로 추측한다.

04 고종실록 권15, 고종 15년 2월 18일 무술 1번째 기사. 인시(寅時)에 대군(大君)이 탄생하였다.
05 고종실록 권15, 고종 15년 4월 17일 병신 1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군(大君) 안태사(安胎使)는 아경(亞卿)으로 임명하고, 적왕손(嫡王孫) 안태사는 당상(堂上官)으로 차하(差下)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0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앞의 책, 38쪽.

4)

고양시 지축동 성종왕녀 태실

태 주	성종왕녀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1-1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77 어울림누리)
좌 표	37°41′22″N / 126°57′51″E

둘레길 이정표

북한산성 입구에서 63번 도로를 따라 의정부방향으로 가다보면 다리고개 오른쪽으로 불룩 솟은 태봉이 나타난다. 북한산 상장봉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이 남쪽으로 꺾은 끝에 약간 솟은 봉우리이다.

태봉에는 능선을 따라 북한산 둘레길의 충의길 구간이 조성되어 있다. 태봉 정상에 둘레길 이정표가 서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함몰구덩이를 낙엽이 두텁게 덮고 있다.

지축동 태실은 태봉산 정상에 군부대 헬기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발견되었으며, 안태비와 태함 개석은 태봉 아래로 옮겨졌다고 한다.[07] 태함의 함신이 정상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태함 개석은 태봉 정상에서 북쪽으로 약 400m 거리에 있는 지축동 7번지 주택 정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현재는 출입이 어려워 확인하지 못했다.

07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앞의 책, 172쪽.

1. 성종왕녀 안태비(어울림누리 수장고) 2. 태함 개석(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 II)

인흥군仁興君(선조 왕자)의 자녀 태실

유물명 : 인흥군 제일녀 백자 태지 및 태호(내·외)
인흥군 제이소주 백자 태지 및 태호(내·외)
발견일 : 1976년 6월 16일
장 소 : 경기 고양군 신도읍 지축리 산1-2

선조(宣祖)의 아들인 인흥군(仁興君)의 자녀 2명의 태항아리 4개(내외 2조)와 태지 2개가 효자동 성종왕녀 태실 석함에서 나왔다. 성종 8년(1477)에 조성된 태실 석함에 인조 5년(1627)과 인조 6년(1628)에 태어난 선조의 손자녀들의 태를 안치한 것이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성종왕녀의 태실을 인흥군이 자녀 태실 자리로 이용한 것이다. 또한 성종왕녀의 안태비를 그대로 둔 이유도 알 수 없다.

인흥군(仁興君) 자녀 태호와 태지석
(문화재관리국, 1989,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제1집))

안태비는 태봉의 오른쪽 입구에 세워져 있던 것을 고양시 어울림누리 수장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비는 하나의 화강암으로 비수, 비신, 비대를 일체형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112×31×9cm이다. 비수는 전체적으로 연꽃을 형상화하였고, 비수 옆면은 연잎을 3단으로 말아 올렸다. 비대는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비문이 '王女胎室(앞) 成化十三年六月十九日立石(뒤)'이므로 비는 1477년 6월 19일 세웠다.[08]

08 심현용, 2020, 앞의 책, 258쪽.

광주시
GWANGJU CITY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3 광주시

1) 광주시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
2) 광주시 원당리 왕자 돈수 태실
3) 광주시 탄벌동 태봉
4) 광주시 태전리 성종 태실
5) 광주시 목현동 태봉

1)

광주시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

태 주	성종왕녀
소재지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11-1
좌 표	37°26′15″N / 127°19′04″E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는 태봉이 두 곳 있다. 경안천에 가까운 태봉이 뒤태봉이고, 뒷산에 가까운 태봉이 앞태봉이다. 뒤태봉에는 성종왕녀 태실이 있고, 앞 태봉에는 연산군 왕자 돈수敦壽 태실이 있다.

뒤 태봉은 원당리 마을 뒷산에서 남서방향으로 내려 뻗은 산자락이 솟구친 돌혈자리이며, 정상부가 편평하게 30m 가량 길게 뻗어 있다. 태봉 정상에 태함 1기와 안태비편 1기가 남아 있고, 동쪽 사면의 북쪽(해발 94m, 원당리 1)과 남쪽(해발 88m, 원당리 2)에 안태비가 각각 누워 있다.

안태비는 2기 모두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모두 하나의 돌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상부에는 원좌없는 연봉을 올렸다. 문양은 연화문으로 측면은 3단이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원당리 1의 비문은 '王女胎室(앞) 成化十七年七月二十一日立石(뒤)'로 1481년 7월 21일에 비를 세웠고, 원당리 2의 비문은 '王女胎室(앞) 成化十七年七月二十四日立石(뒤)'로 1481년 7월 24일에 비를 세웠다.[01]

01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258쪽.

뒤태봉은 경기문화재연구원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태실유구 3기와 비좌대 수혈 2기를 확인하였고, 태함 3기(함개, 함신)가 출토되었으며, 유구는 모두 도굴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태실은 북동쪽부터 남서쪽으로 태실1, 태실2, 태실3으로 구분하였다.

태실은 3기가 5m 간격으로 조성되었으며, 기반암을 원형으로 깊게 파고 내부에 태함을 안치하였다. 태함은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함개와 함신 내면은 매끈하게 만든 반면 장태의식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 함신 외면은 거칠게 다듬었다. 함개는 평면 원형의 반원형이고, 안쪽에 얕은 감실을 팠으며,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원통형 또는 바닥이 좁은 상광하협형 감실을 파고 바닥에 구멍을 관통하였다. 태함의 크기는 함개는 지름 93~100cm, 높이 40~42cm이고, 함신은 지름 90cm, 높이 67~70cm로 3기 모두 대체로 비슷하다. 태실3의 함개의 감실 내면에는 녹청색이 칠해져 있는데, 이는 악귀를 쫓는 벽사적 의미와 미생물 생성 방지를 위해 바른 뇌록磊綠으로 추정된다.[02]

태실 내부의 층위는 태실 조성 당시 함신 밖을 채운 1차 충진토와 태항아리를 안치하고 함개를 덮은 후 채운 2차 충진토가 확인되었다.[03] 1, 2차 충진토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고운 암갈색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어 흙을 채로 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태실1, 2와 달리 태실3은 굴착과정에서 나온 황갈색의 풍화암반파쇄토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를 1매씩 2차례 메운 후 함신 상면부터는 고운 암갈색사질점토를 채웠다. 이는 태실1, 2에 사용하고 남은 충진토가 태실3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하여 하부는 풍화암반파쇄토로 채우고 상부만 고운 흙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02 심현용, 앞의 책, 218-219쪽. 뇌록(磊綠)은 단청에서 옥색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초록색 광물로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뇌성산에서 산출된다. 의소세손 태함과 장조 태함 감실 내부에서 확인된 바 있다.

03 심현용, 앞의 책, 204쪽. 기조사된 문종 태실, 인종 태실, 광해군 태실, 복란 태실, 월송리 태실, 장조 태실, 의소세손 태실 등의 토광 내 흙은 대부분 회를 섞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은 회를 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태실1, 2의 남서 방향 약 2m~3.5m 앞에는 안태비를 세우기 위해 판 수혈이 각각 확인되었다. 태실3의 남쪽 부분은 도굴과정에 이루어진 굴착행위에 의해 교란되어 비좌대 수혈이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결과 태실 3기와 안태비 2기, 안태비편 1기 등 태실과 안태비 수가 일치하지만, 태실 3기가 모두 도굴되어 태실의 주인과 안태비의 위치를 비정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태지석의 명문 '皇明成化十七年辛丑三月十一日生王女阿只氏胎成化十七年七月二十四 日丁時藏'의 장태일(1481년 7월 24일)이 안태비2의 명문과 일치하여 1481년 3월 11일에 태어난 왕녀의 안태비임이 확인된 바 있다.[04]

1
2 3
4 5

1. 태실 전경
2. 미상 석재
3. 태함 개석
4. 안태비(원당리 1)
5. 안태비(원당리 2)

04 심현용, 앞의 책, 258쪽. 전주이씨대동종약원(1999, 『조선의 태실』II, 57, 173쪽)은 이 태지석의 주인공을 성종의 딸인 공신옹주(恭愼翁主)로 추정하였으나, 2010년 별내지구에서 발굴된 공신옹주 묘지석에 생몰년이 1481년 3월 29일~1549년 2월 7일로 확인되어 출생일이 다르다.(한백문화재연구원, 2012, 『남양주 별내 유적』I, 493쪽)

1 1. 광주 원당리 태실 조사 전경
2 3 2. 태실1 3. 태실1 토층
4 5 4. 태실2 5. 태실2 토층
6 7 6. 태실3 7. 태실3 토층

	태실1	태실2	태실3
함개			
함신			
함신 내부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 유구분포도(1:40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태항아리와 태지석(『조선의 태실』II)

2)

광주시 원당리 왕자 돈수敦壽 태실

태 주	왕자 돈수(敦壽: 1501.2.4-1506)
소재지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30
좌 표	37°26′10″N / 127°19′15″E

광주 원당리의 앞 태봉에 연산군 왕자 돈수 태실이 있다. 연산군의 막내 아들로 어머니가 누군지는 전하지 않으며, 중종반정 후 5세에 우봉牛峯으로 유배되었다가[05] 20여일 후 사사되었다.[06]

앞 태봉은 마을 뒷산에서 서쪽으로 내려 뻗은 산자락이 솟구친 돌혈 형국에 자리한다. 태봉의 서쪽사면에는 민묘 여러 기가 조성되어 있고, 최근에 묘 단장을 위해 장비가 들어가면서 정상부 일부가 훼손되었다.

1. 2010년 정상부 모습(심현용 촬영) 2. 2020년 정상부 모습

안태비

이 태실은 1961년 5월 중순 경에 도굴되었다가 다행히 바로 발각되어 도굴된 유물을 회수하였다. 유물은 대소 한 벌의 백자태항아리와 대리석질의 지석 한 개이며, 원형의 석함 속에 넣어서 땅 속 깊이 파묻혀 있었다. 백자 태항아리의 외호는 높이 36cm, 구경 21.3cm, 덮개 23.5cm, 내호는 높이 21.5cm, 구경 9.2cm, 덮개 11.5cm이다. 태지석의 크기는 31.2×31.4×5.2cm이고, 태지석의 명문은 皇明弘治十四年二 月初四日未時生 王子敦壽阿只氏胎 弘治十八年二月十 九日亥時藏이다. 원형 태함은 지표에서 5척 깊이에 있었으며, 직경과 높이가 3척 가량 된다. 뚜껑을 열어 보니 그 속에 태항아리가 들어있었데 작은 항아리가 큰 항아리 속에 들어 있었으며, 지석은 항아리 전면(서남쪽)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문자를 새긴 면이 항아리 쪽으로 닿게 하도록 뒤집어서 놓여 있었다고 한다.[07]

안태비는 남쪽 사면에 앞면이 위를 향한 채 놓여 있는데, 2010년 심현용 조사 때 비문 확인을 위해 돌려진 상태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안태비는 모두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앙련仰蓮을 두어 3단처럼 보이게 했다. 상부에는 연봉만 장식하였다. 비대는 문양이 없다. 비의 전체 크기는 170×63×33cm이고, 비신은 80×51×22cm이다. 비문이 '王子敦壽阿只氏胎室(앞) 弘治十八年二月十九日亥時立(뒤)'인 것으로 보아 입비 시기는 1505년 2월 19일이다.[08]

돈수 태실 태항아리와 태지석
(출처: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

05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5번째 기사. 박원종 등이 폐세자 등의 안치 문제를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다.
06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4일 경자 3번째 기사. 폐세자 이황·창녕대군 이성·양평군 이인·이돈수 등을 사사하다.
07 윤무병, 1965,「廣州 元堂里 胎封」,『考古美術』, 한국미술사학회.
08 심현용, 2016, 앞의 책, 258쪽.

3)

광주시 탄벌동 태봉

태 주	
소재지	광주시 탄벌동 산73
좌 표	37°25′01″N / 127°14′35″E

45번 국도 장지IC에서 광주시청 방향으로 가다보면 벌원교차로에서 서쪽으로 400m 거리에 태봉이 있다. 서쪽의 주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자락의 끝에서 솟은 돌혈자리에 해당한다. 태봉산 주위로 많은 민묘가 들어서 있다.

1960년대에 주민 유창근옹이 선친 묘소를 태봉 정상에 마련하려던 중에 석함을 발견하였는데, 그 후 몇 달이 지나 태봉의 석함은 누군가에 의하여 도난되어 움푹 파인 자리만 남았다고 전한다.[09] 현재는 태봉 정상에서 함몰구덩이를 포함하여 태실과 관련한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앞으로 태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구글어스 영상

09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I, 13쪽.

4)

광주시 태전동 성종 태실

태 주	성종(成宗 : 1457.7.30.-)
소재지	광주시 태전동 265-1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
좌 표	37°23′32″N / 127°13′54″E

태전동 태봉은 광주시 태전IC에서 남서쪽으로 400m 거리에 위치하며, 태봉산 아래에 태봉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태전동 도심지 한가운데에 홀로 솟아 있어 평지 돌혈처럼 보이지만,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에 솟아 있는 고불산에서 동남쪽으로 길게 뻗은 산자락이 아흔아홉봉산을 거쳐 현재의 태봉까지 이어졌었는데 산줄기가 도시개발로 인해 끊어지고 평지화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근세지도(1911)에는 산줄기가 태봉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태봉로, 태봉교회, 태전IC 등 지명과 상호명에 태봉이 많이 쓰이고 있을 정도로 익히 알려진 유적이다. 조선후기 해동지도海東地圖(1750년대) 광주부廣州府에 태봉胎峰으로 표기되어 있고, 근세지도(1911)에도 태봉胎峯과 태전리胎田里가 잘 나타나 있다.

태봉 정상에 있던 성종 태실은 1928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창경원(현 창경궁)으로 이전되었고, 태함에 있던 태항아리(내·외호)와 태지석은 서삼릉에 안치되었다.

성종 태실은 국왕 태실 가운데 형태가 가장 온전하게 남아 있어 일제 강점기에 이왕직李王職이 성종 태실 석물을 창덕궁 뒤 비원에 이전하여 새로 건설되는 태봉의 표본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리

1. 해동지도 광주부 2. 근세지도(1917년) 태봉

고 1928년에 서울 창경원으로 옮겨 복원하였다.[10]

창경궁내 성종 태실은 편평한 땅 위에 전석을 팔각으로 두르고 중앙에 사방석을 놓은 후 그 사이에 상석을 배치하였는데 사방석 옆면의 가운데 홈을 파서 상석을 끼우게 하였고 옆면 상부에 앙련을 조각하였다. 사방석 위에 중동석, 개첨석을 차례로 올렸다. 중동석은 원통형으로 무문양이며 개첨석과 별석으로 만들었다. 개첨석은 평면 팔각형으로 낙수면에는 연줄기와 뒤집은 연잎을 장식하였는데, 상부에도 연잎을 덮고 이중의 연봉을 두었다.[11] 전석 위에는 주석과 동자석을 놓은 후 횡중석을 올려 난간을 둘렀다. 태실의 규모는 직경 380cm, 높이 260cm이다.

가봉태실비는 팔각난간석 면에서 90cm 앞에 서 있다. 귀부와 비신, 이수로 구성되는데, 귀부는 지대석과 일석으로 만들고 등 가운데에 홈을 파 비좌공을 만들었다. 비신과 이수는 일석으로 만들었는데 이수의 옆면이 비신으로 내려와 귀(耳)모양을 하고 있다. 크기는 170×120×230cm이다. 비문은 成宗大王胎室(앞), 成化七年閏九月日立 萬曆六年五月日改立 順治九年十月日改立 道光三年五月日改立(뒤) 이며, 성종 2년(1471)에 비를 세우고 선조 11년(1578), 효종 3년(1652), 순조 23년(1823)에 다시 세운 것이다. 순조 23년(1823) 개수 전말은 규장각 소장 『成宗大王胎室碑石改竪儀軌』[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실 유물은 서삼릉 태실집장지 오석烏石비군에 안치되어 있다가 199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를 거쳐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발굴 당시 서삼릉 태실은 지표 밑에 직경 95cm의 원통형 콘크리트관을 묻고 태실유물을 매납하였으며, 그 위에 방형 콘크리트 덮개를 올려놓았다. 지표 위에는 표비석을 세웠다.

10 심현용, 2016, 앞의 책, 140쪽.
11 심현용, 2016, 위의 책, 390쪽.
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 https://kyudb.snu.ac.kr/book/view.do.

창경궁내 성종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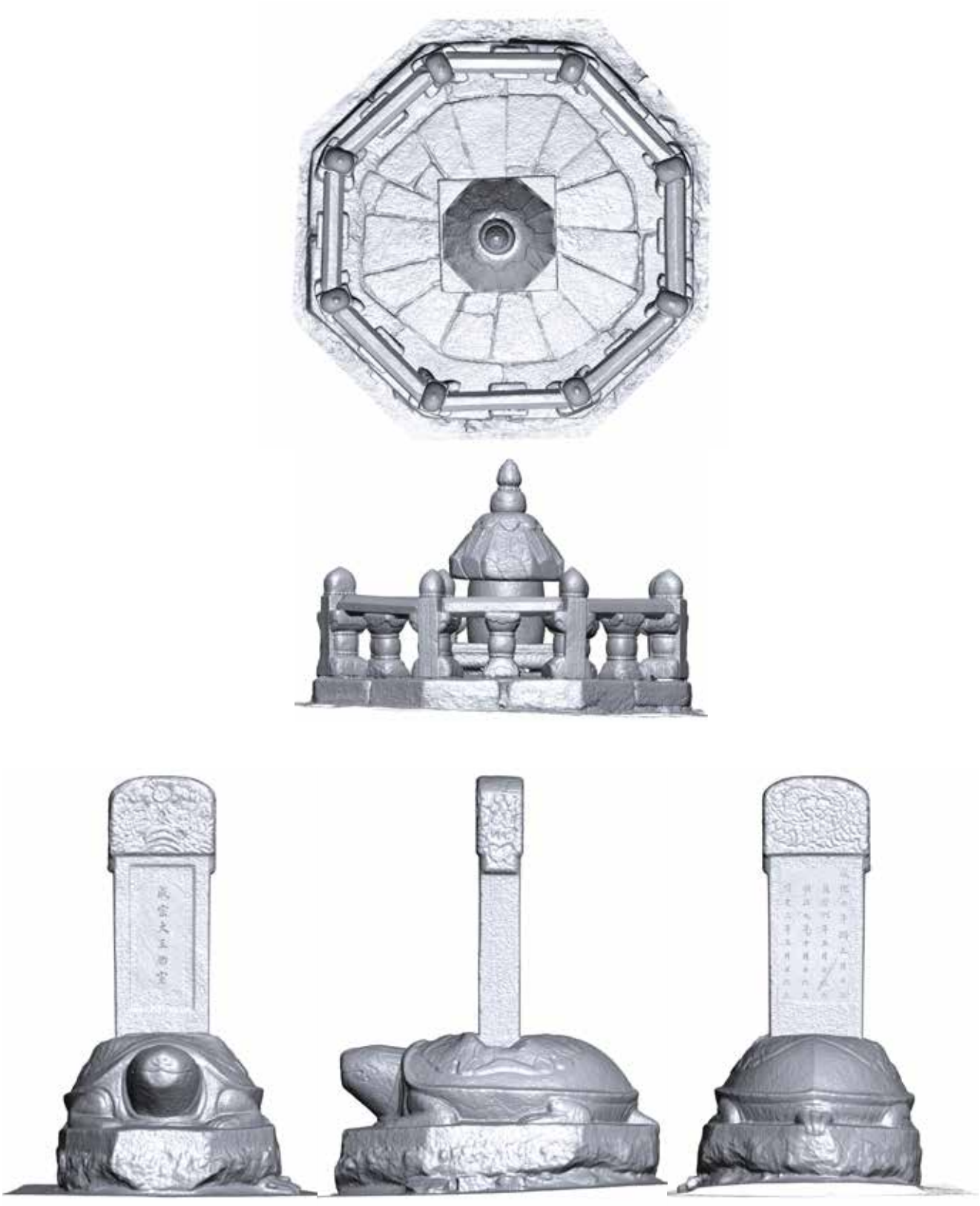
1 2 3
4 5

1. 서삼릉 성종대왕 태실
2. 성종 태지석(능원 20-1)
3. 동전(능원 20-6)
4. 유리건판사진(국박, 건판 37139)
5.성종 태항아리(내·외호, 능원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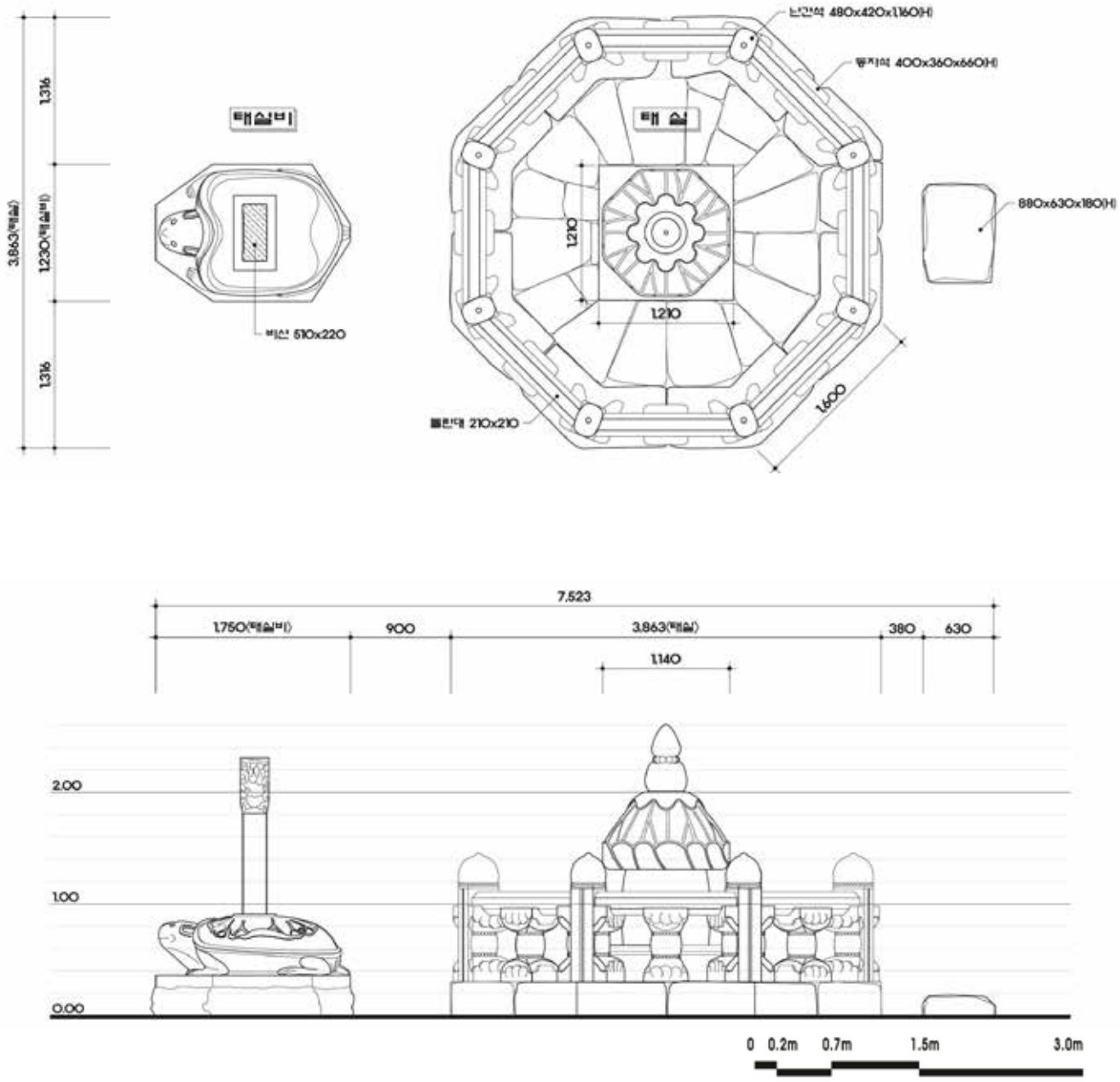
서삼릉 성종 태실 표비석 전면에는 成宗大王胎室, 후면에 自京畿道廣州郡慶安面移封△年五月이라고 새겨져 있다. 태항아리는 북벽에 4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세워져 있으며, 몸체 상면부에는 4개의 'ㄷ'자형 귀耳가 붙어 있다. 뚜껑 손잡이는 단추형으로 밑에는 4개의 방형 투공이 있다. 지석은 장방형으로 태항아리 몸체 하단부에 기대어 기울어져 있다. 지석 명문은 '皇明天順元年七月三十日戊時生 懿敬世子男慶新胎 天順二年三月初一日戊子子時藏'이며 제작시기는 세조 4년(1458)이다. 동전은 가운데 방형 구멍이 뚫린 원형의 동전으로 '朝鮮通寶'가 양각되었다.[13]

그런데 태항아리 중 외호가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사진(국박, 건판37139)과 서삼릉에서 발굴되어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호(능원 20-4) 사진과 일치하지 않는다. 유리건판사진의 외호는 동체에서 바닥에 이르는 선이 직선에 가까운데 반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외호는 동체에서 곡선을 이루며 떨어지는 선이 바닥에 이르러 약간 외반한다. 또한 귀의 안쪽 홈이 'ㄷ'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반해 유리건판사진은 타원형으로 보인다. 뚜껑도 유리건판사진에는 같은 재질로 보이는 백자뚜껑 위에 연잎과 줄기가 표현된 뚜껑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전할 때 뒤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14]

13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서삼릉태실』, 28-29쪽.
14 위의 책, 414쪽.



성종태실 3D스캔(심현용 제공)



성종 가봉태실 실측도(심현용 제공)

5)

광주시 목현동 태봉(추정)

태 주	연산군(燕山君) 추정
소재지	광주시 목현동 697-8
좌 표	37°23′32″N / 127°13′54″E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경기 광주목廣州牧 산천山川 조에 '佳丫嶺。在州東四十五里。安成宗御胎。梨嶺。在州南三十里。安今上御胎。'이라는 어태御胎 봉안에 대한 기록이 있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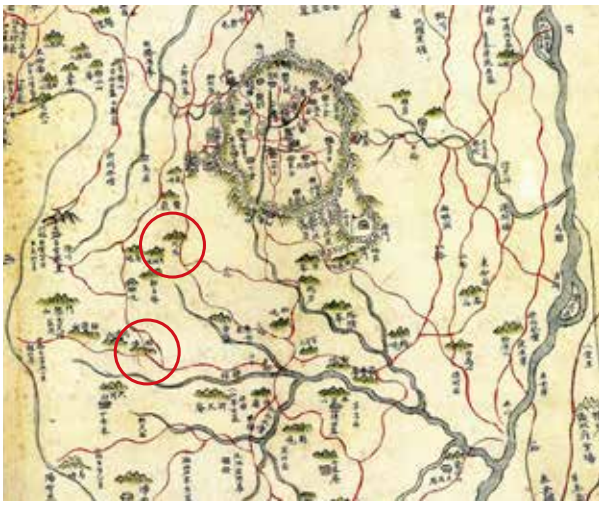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은 55권 25책으로 구성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로, 세 차례의 수교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고,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1차 수교가 이루어져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 풍속, 인물편목에 대한 교정과 고적편목, 성씨, 봉수 조가 신설되었다. 2차 수교는 1499년(연산군 5) 임사홍任士洪, 성현成俔에 의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이 가해졌다. 3차 수교는 증보를 위한 것으로 1530년(중종 25) 속편 5권을 합쳐 55권으로 완성하였다.[16]

'佳丫嶺。在州東四十五里。安成宗御胎。梨嶺。在州南三十里。安今上御胎'에는 성종成宗과 재위중인 임금을 금상今上이라 지칭하였다. 즉 성종成宗 사후인 2차 또는 3차 수교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금상今上의 주인공은 연산군과 중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성종의 가봉

15 홍성익(강원대학교) 님의 제보로 확인하였다.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태실은 광주시 태전동에 있고, 중종의 가봉태실은 가평군 상색리에 조성되어 있어 이령梨嶺에 봉안된 금상은 연산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령梨嶺은 광주시 목현동에서 성남시 상대원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현재 지명은 이뱃재(이배재)이다.[17] 『여지도서』에는 '이현梨峴은 관아의 남쪽 12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이현利峴의 남동쪽에 태봉胎峰(태전리 태봉)이 표기되어 있다. 이배재가 걸쳐 있는 광주시 목현동과 성남시 상대원동 일대에서 장태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광주시 목현동 안태골安泰이 있다.[18]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발간한 『조선의 태실』Ⅲ에는 '목현동에서 안태골은 마을에서 세운 장승이 서있는 뒤편 골짝으로, 이 지명이 안태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민간에서 안태 풍습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오래 전에는 안태지安胎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9] 『조선의 태실』Ⅲ에서 가리키는 안태골은 광주시 목현동 산6번지와 산8번지 사이의 골짜기로, 왕실에서 태를 봉안하는 지형조건과는 맞지 않다. 오히려 망덕산과 두리봉, 이배재와 남쪽의 산지(뉴서울CC)로 둘러싸인 분지에 발달한 여러 개의 산줄기 중에 장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특히 J원골프연습장이 들어선 목현동 697번지의 구릉이 태실의 입지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구릉의 대부분을 골프연습장이 자리하고 있고 서쪽 일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장태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남아 있는 구릉 일대에 대한 조사에서도 장태와 관련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海東地圖』 廣州牧

연산군은 폐위된 임금으로, 광해군 태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산군 태실도 폐위 후 파괴되고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목현동 일대에서 왕실의 장태와 관련한 지명이나 전설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도 연산군의 폐위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향후 목현동 일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태실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1. 광주시 목현동 일대 항공사진 (국토정보플랫폼, 2006년) 2. 2008년 항공사진(Daum 스카이뷰)

17 한글학회, 1985, 『한국지명총람』 제1편, 8쪽.
18 한글학회, 1985, 앞의 책, 9쪽.
19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Ⅲ, 13쪽.

FULL LIFE
GIMPO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4 김포시

1) 김포시 고막리 신성군 태실
2) 김포시 고양리 태실
3) 김포시 조강리 인순공주 태실

1)

김포시 고막리 신성군 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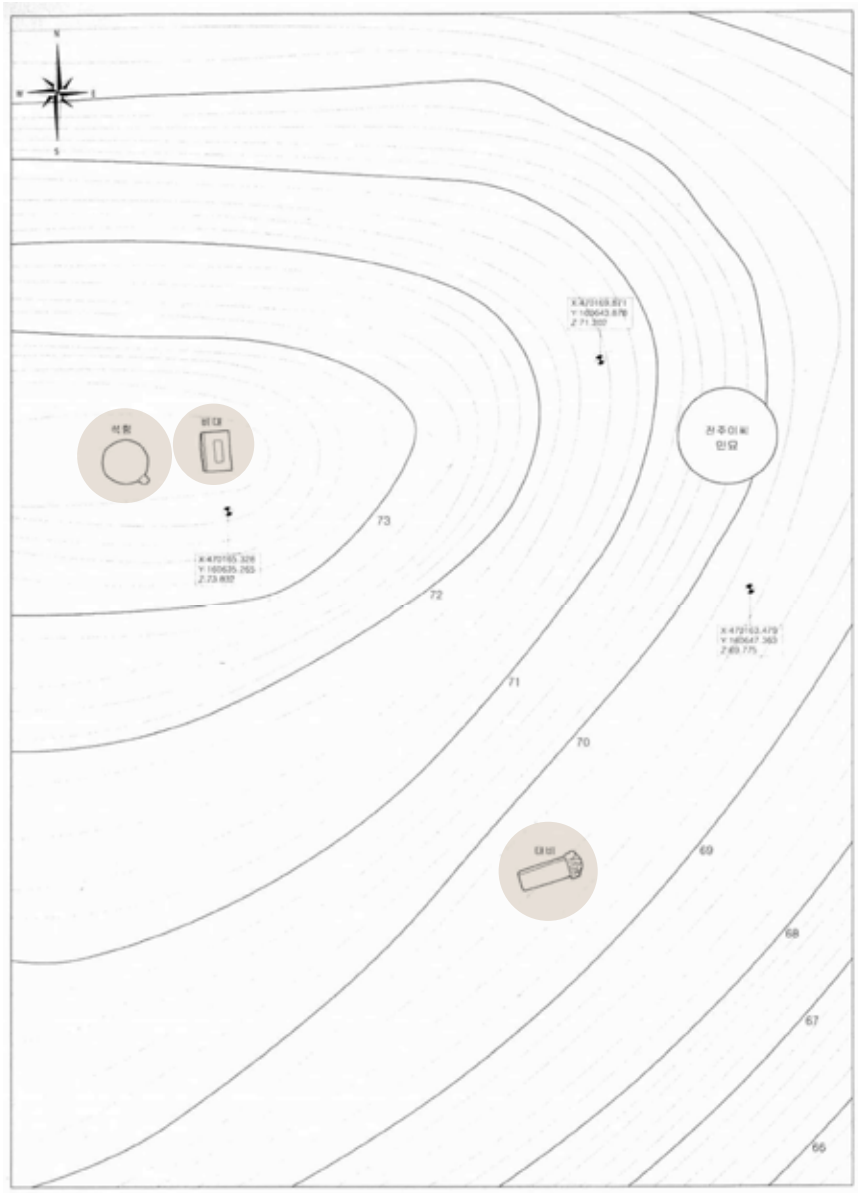
태 주	신성군(信城君) (1578.12.10-1592.11.00)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65
좌 표	37°43′59″N / 126°33′15″E

문수산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의 끝에 솟아오른 봉우리가 태봉이다. 정상부가 동-서 방향으로 좁고 긴 평탄면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부 주변에는 군 참호와 교통호 흔적이 남아 있다.

태실은 정상부 평탄면에 조성되어 있는데 태함 개석과 안태비의 비대가 정위치에 놓여 있고, 비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13m 떨어진 능선(해발 72m)에 태비가 뒷면이 위로 향한 채 누워 있다. 일제강점기 때 도굴된 것을 비석만 원상태로 세웠으나 마을에 사고가 잦아지자 비석을 뽑아 지금처럼 굴렸다고 한다. 비문은 '王子翊阿只氏胎室(앞) 萬曆十二年七月二十五日立 萬曆十四年十二月初六日改立(뒤)'[01]라는 기록으로 보아 태주는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이고, 1584년 7월 25일 장태하여 1586년 12월 6일 다시 세웠다.

신성군信城君은 선조宣祖와 인빈김씨仁嬪金氏의 2남으로, 태지석의 지문 '皇明萬曆六年十二 月初十日卯時生 王子珝阿只氏胎 萬曆十二年七月 二十五日癸時藏'에 따르면 1578년 12월 10일 생이며,

01 심현용, 앞의 글, 265쪽.



태실 전체 평면도(고려대문화재연구원, 2020, 『김포시 소재 태실 학술조사 보고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종묘와 사직의 위패를 모신 종묘관원을 따라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하다 1592년 11월 의주에서 병사하였다.[02] 사후 선조 37년(1604)에 호성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 2등에 봉하였다.[03] 신성군의 묘는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순강원에 있다.

02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5일 신유 7번째 기사.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11월 1일 丁巳 3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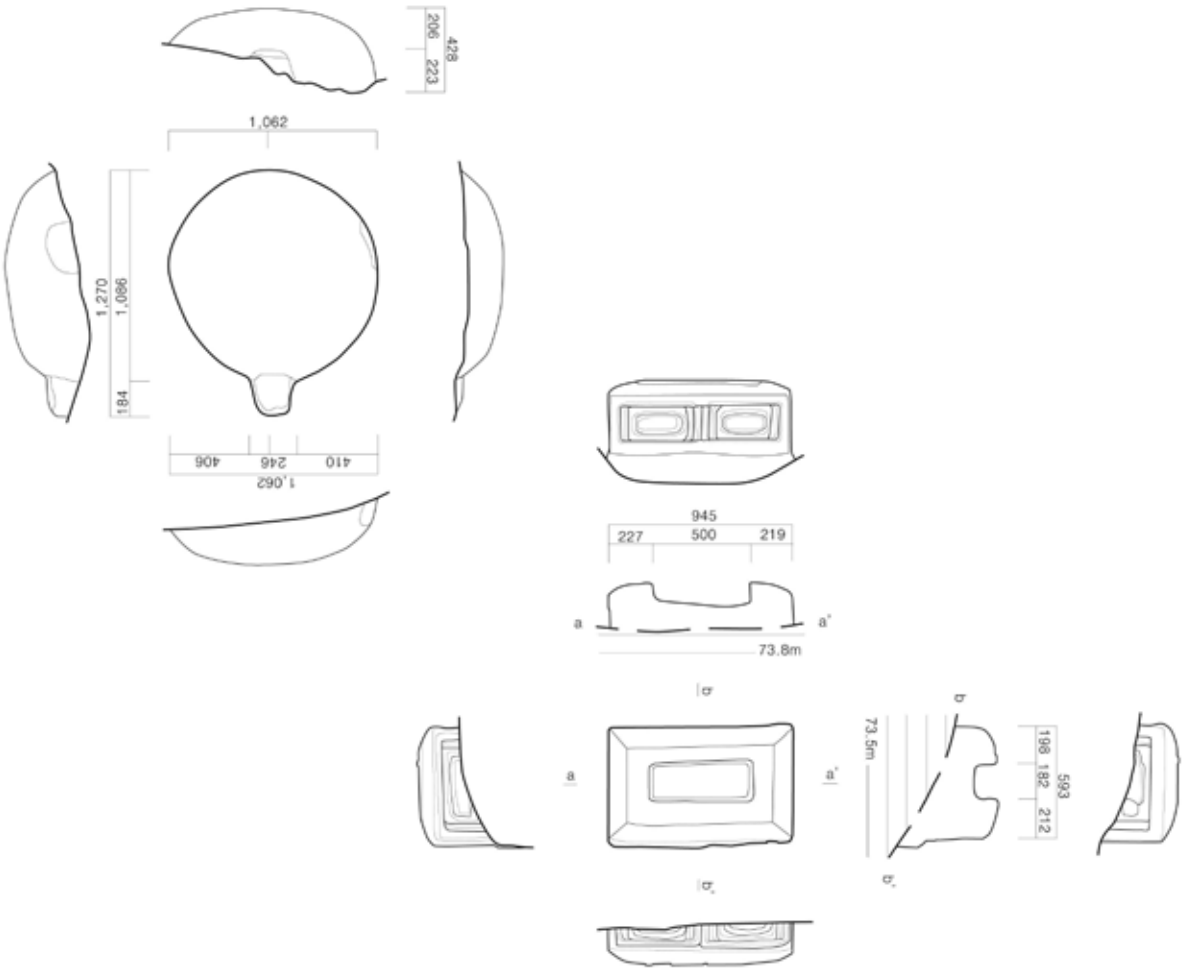
03 선조실록 175권, 선조 37년 6월 25일 갑진 7번째 기사.

1 1. 태실 전경
2 3 2. 태함 개석 3. 비대
4 5 4. 안태비 5. 신성군 태지석(건판 23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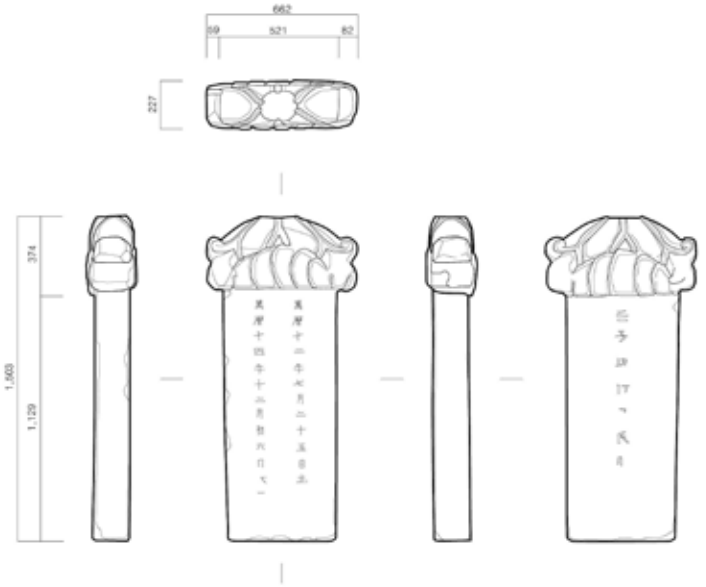
태함은 개석의 일부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데, 크기는 직경 약 100cm이다. 평면 원형에 4개의 귀를 가진 형태이며 북동쪽 귀는 깨진 상태이다. 태함 내부는 이미 도굴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태지석 유리건판사진(건판 23883)이 남아 있다.

안태비는 태함에서 동쪽으로 1.2m 떨어져 있으며 비대와 비신을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물끊이 홈이 있고 옆면은 2단이다. 연봉은 파실되었는데, 원좌는 없다. 비신 크기는 150×50×13cm이다. 비대는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윗면에 조각하였고, 앞·뒷면에는 안상 각 2개, 양 측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장식하였다.[04] 크기는 94.5×59.3×50cm이다.

04 심현용, 앞의 책, 265쪽.



석함 및 비좌(고려대문화재연구원, 2020,『김포시 소재 태실 학술조사 보고서』)



태비(고려대문화재연구원, 2020,『김포시 소재 태실 학술조사 보고서』)

신성군(이후) 태지석(유리원판사진)

태실 원경

2)

김포시 고양리 태실

태 주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산27-1
좌 표	37°41′15″N / 126°33′28″E

고양1리 마을 입구에서 북동쪽에 태봉산이 솟아 있다. 오봉산(104.9m)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자락이 솟구친 돌혈자리에 해당한다.

태봉 정상부는 3.5m 크기의 큰 구덩이가 파여 있고 능선 주위로 오래된 군 참호가 파여 있는데, 199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군사보호구역 지표조사[05] 당시에 확인된 것이다.

이범호(85세)에 따르면 비석이 산 중턱에 내려와 있었는데, 1990년 즈음에 면 경계석으로 쓰기 위해 갖고 내려와서 글씨를 돌로 쪼았다고 한다. 나중에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땅 속에 묻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 당시까지도 태실비가 길 옆에 묻혀 있었으나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창성스틸 입구 주변에 해당한다.

0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京畿道篇)』, 356-357쪽.

태봉 정상부

안태비는 일석으로 만들었는데 표면을 쪼아 비문은 확인할 수 없다. 비수는 연꽃모양에 연봉도 부러지고 없다. 당시 비의 크기는 높이(비신~비수) 112cm 이상, 너비(비수) 60cm로 측정되었다.

태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는 깊이 1m에 이르는 구덩이가 파여 있고 낙엽이 두텁게 덮여 있어 태함의 부존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안태비(1999)

3)

김포시 조강리 인순공주 태실

태 주	인순공주(1542~1545)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58-4
좌 표	37°44′49″N / 126°34′16″E

김포 조강리 태실은 조강저수지 서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몇 년 전 이루어진 개발행위와 재해예방공사로 인해 태봉이 깎여나갔다. 태봉 정상에 있던 태실은 2015년 9월 24일 입회조사를 거쳐 북서쪽에 위치한 이장묘 자리로 임시 이전하였다가, 2020년 10월 26일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였다. 복원장소는 2015년 입회조사 당시 태실이 위치했던 측량좌표이며 해발고도(75m→41m)만 낮아졌다.[06]

2015년 태실 이전을 위한 입회조사에서 조강리 태실의 원형이 기록되었는데,[07] 태봉산 정상에 태함 개석이 옆으로 누워 지표에 일부가 드러나 있었고, 안태비는 함개에서 남동쪽으로 2.1m 떨어져 있었다. 안태비는 비대 위에 시멘트로 고정되어 있었다. 트렌치 조사에서 태함의 함신이나 다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함신은 오래 전에 마을에서 방앗간 확돌로 썼다거나,[08] 조강1리 마을 어

06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태실(산58-4번지 일원 이전·복원 결과보고서』.
07 강병학·박천택, 2015, 「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한양문화재연구원.
0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京畿道篇)』, 355쪽.

1 1. 복원된 조강리 태실

2 3 2. 2010년 조강리 태봉산(2010.7.15, 심현용) 3. 2020년 조강리 태봉산(2020.12.14.)

느 집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09] 또한 조강리 태실이 60~70년대 사이에 어디에선가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인근 군부대에서 교량의 부재로 사용하다가 현 위치로 복원한 것이라고도 한다.[10]

현재 조강리 태실은 경계석을 두른 5×5m의 사각형 부지를 조성하고 안태비와 함개석을 안치한 후 잔디를 식재하여 복원하였다. 그리고 토양과 이끼·지의류에 오염되었던 안태비는 보존과학 전문가에 의해 세척, 강화처리 등 보존처리가 된 상태이다.

09 고려문화재연구원, 2020, 『김포시 소재 태실 학술조사 보고서』, 104쪽.

10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앞의 책,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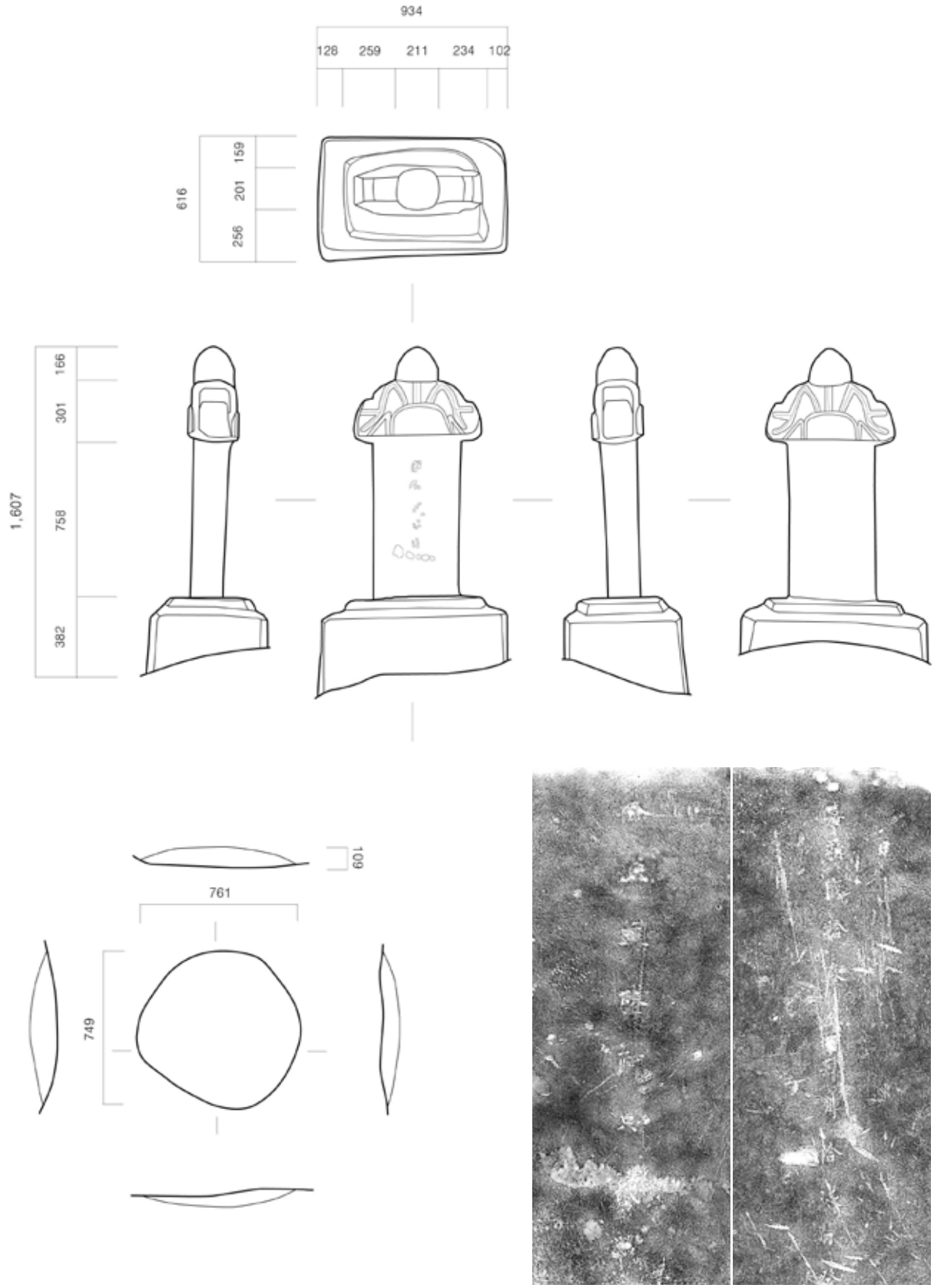
안태비의 비문은 2020년 비문 탁본으로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명문 일부를 판독하였다.[11] 비문은 '(公)(主)玉堅阿只氏胎室(앞) 嘉靖貳拾參年肆月拾柒日癸時(立)(뒤)'로, 괄호 안의 글자는 유력한 한자를 추려 넣은 것이다. 입비시기는 1544년 4월 17일이며, 태주는 인순공주仁順公主(1542-1545)로 추정된다. 인순공주는 중종中宗과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넷째 딸로 인종 1년(1545)에 4세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였다. 묘는 서삼릉 왕자·왕녀 묘역에 안치되어 있다.

함개석의 재질은 화강암이고, 크기는 지름 59.5cm, 높이 45cm이며, 안쪽에 너비 20cm, 깊이 20cm의 구멍이 파여 있다.

안태비는 비신과 비대를 별석으로 만들었는데 비신은 운모편(마)암 석재이고, 비대는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 도식화되었으며, 측면은 연대로 구분하여 3단처럼 보이게 조각하였다. 상부에는 연봉만 장식되었다. 비대는 마멸이 심하나 윗면에는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앞·뒷면에는 안상 각 2개, 양 옆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조각하였다. 비신 크기는 123×66×20cm이고, 비대 크기는 90×52×42cm이다.

1 2
3
1. 보존처리 전 2. 보존처리 후
3. 함개석

11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태실(산58-4번지 일원 이전·복원 결과보고서』, 13쪽. 비문 탁본에서도 판독되지 않았던 태주 '玉堅', 입비날짜 '肆月拾柒日'은 심현용 박사가 판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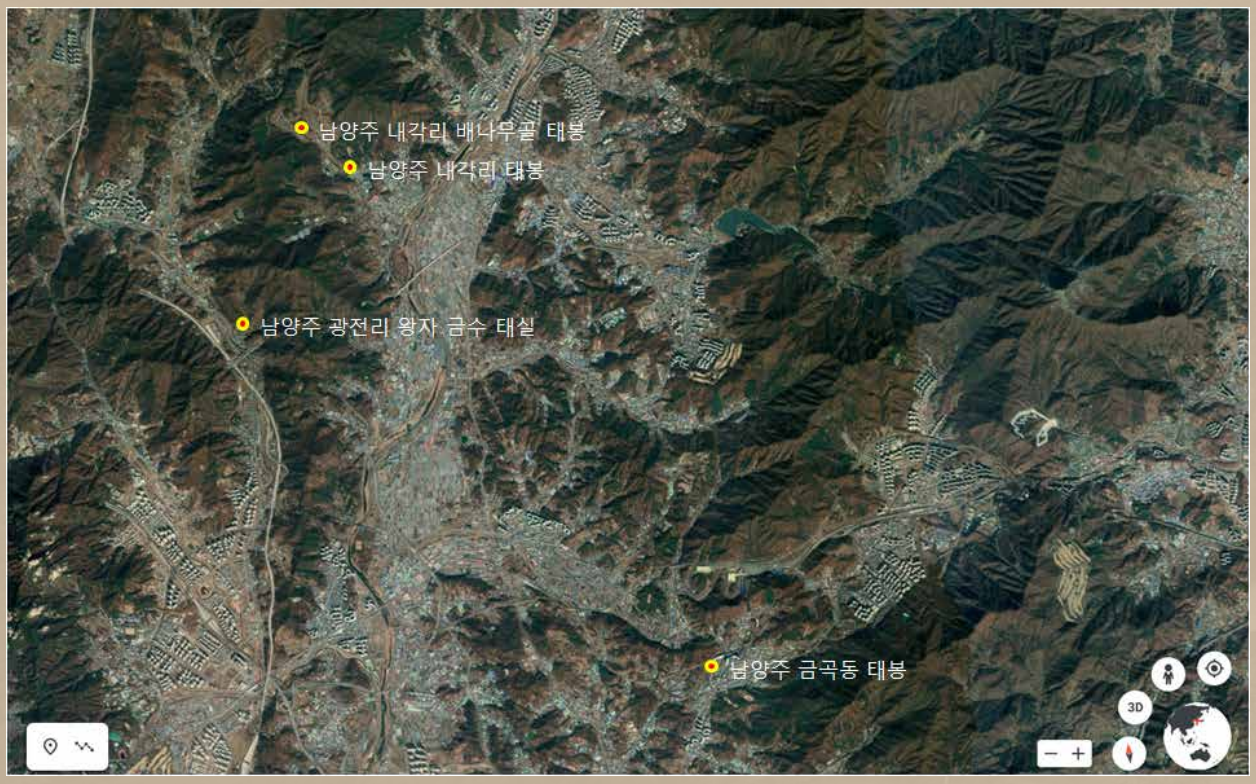


태비 및 석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朝鮮王室의 胎室』수정)

안태비 탁본(앞, 뒤)

남양주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5 남양주시

1) 남양주시 광전리 왕자 금수 태실
2) 남양주시 금곡동 태봉
3) 남양주시 내각리 배나무골 태봉
4) 남양주시 내각리 태봉

1)

남양주시 광전리 왕자 금수 태실

태 주	왕자 금수(金壽)
소재지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39-2
좌 표	37°41′32″N / 127°08′05″E

43번 국도 광전IC 바로 앞 용암천 건너에 있는 작은 마을이 태봉마을이다. 조선 초기에 어느 왕이 탄생하였는데 후산한 태를 묻을 곳을 물색 중 지관이 이곳 산을 정하여 태를 묻은 후부터 태를 품은 산이라 하여 태봉胎峯부락으로 불리웠다고 전한다.[01]

태실 노출모습

01 경기도, 1987, 『地名由來集』, 228쪽.

퇴뫼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산자락이 남쪽으로 방향을 꺾어 내린 끝에 태봉이 있다. 태봉 정상에는 직경 3.5m의 큰 구덩이 파여 있고, 구덩이 안쪽에 석함 개석과 함신 일부가 드러나 있다. 태봉의 8~9부 능선에는 오래된 교통호와 참호가 파여 있다. 1920년대에 도굴당하여 지금과 같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태함은 화강암 재질이며, 반구형 개석의 크기는 90×42cm이고 안쪽에 42×15cm 크기의 홈이 파여 있다. 함신은 길이는 알 수 없으나 너비 103cm이고 직경 40cm의 원통형 감실이 파여 있으며 바닥에 홈이 파여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산 정상 중앙의 웅덩이 안에 직경 3척(90cm) 크기의 석표가 있고, 남쪽으로 약 72~90m 떨어진 계곡에 높이 5척(150cm)의 사각형 비석이 있는데, 표면에 '王子金壽男胎室(앞) △治六年五月初四日立碑(뒤)' 새겨 있고, 주변에 도자기편이 산포하는데, 1자는 불명이다.'[02] 라 기록되어 있다. 연호 1자가 불명인데, 治를 쓴 연호는 皇治(前秦, 351), 弘治(後秦, 399), 至治(元, 1321-1323), 弘治(明, 1488-1505), 同治(清, 1862-1874)이다. 반구형 함개와 원통형 함신이 주로 만들어진 시기를 15세기 후엽~17세기 전엽(1477~1625)으로 보고 있어[03] 이 시기에 해당하는 연호 弘治가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弘治 6년은 성종 24년(1493)이며, 태주는 1493년 이전에 태어난 성종의 왕자 金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金壽를 아명으로 가진 왕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 성종의 왕자 16명 중에서 아명이 명확하지 않은 이성군利城君(1489-1552), 경명군景明君(1489-1526), 전성군全城君(1490-1505), 무산군茂山君(1490-1525) 중 1명 일 것으로 추정한다.

1 2
3

1.『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2. 태함 개석
3. 태함 함신

02 조선총독부, 1942,『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51쪽
03 심현용, 2016,『한국 태실 연구』, 219쪽.

2)

남양주시 금곡동 태봉

태 주	
소재지	남양주시 금곡동 산64-12
좌 표	37°38′11″N / 127°12′19″E

경춘선 금곡역에 인접해 있으며 북쪽의 해발 122m 주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자락에 솟은 태봉이다. 왕자의 태실이 있었다고 전할 뿐 장태와 관련된 어떤 유구도 전하지 않는다. 봉우리 정상에 민묘가 들어섰고, 또 1983년에 이 민묘를 개축하고 단장하면서 대거 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한다.[04]

1999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사 때에는 경춘선이 태봉 남쪽으로 지나갔으나, 2000년대 들어서 경춘선을 복선화하면서 선로가 태봉 북쪽으로 옮겨졌으며, 금곡역이 태봉 동쪽에 맞닿아 위치한다.

1. 태봉 전경 2. 태봉 정상부 민묘

04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朝鮮의 胎室』III, 25쪽.

3)

남양주시 내각리 배나무골 태봉

태 주	왕녀 영수(靈壽) 추정
소재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811-1
좌 표	37°41′32″N / 127°08′05″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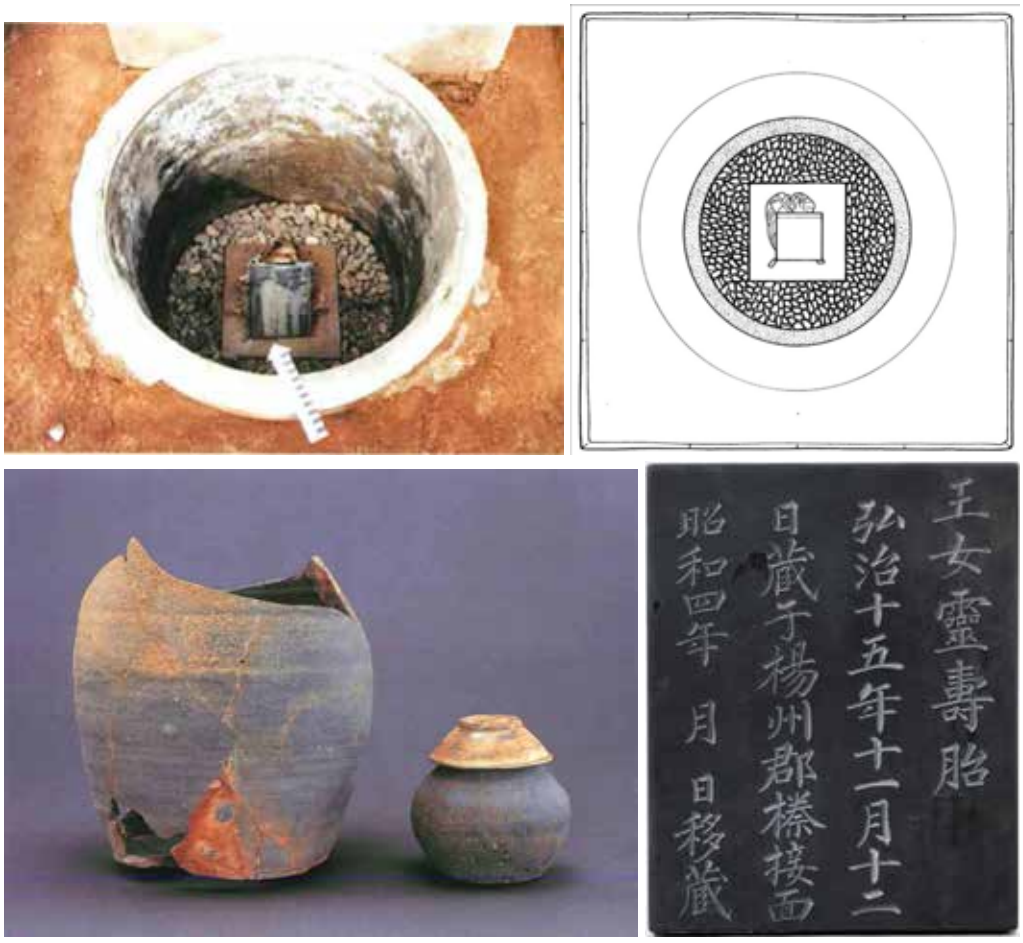
서삼릉 태실 집장지에 일제 강점기에 남양주 진접읍에서 옮겨 온 왕자 수장壽長과 왕녀 영수靈壽 태실 2기가 있다. 2기 모두 남양주 진접읍 내각리에서 이전된 것으로, 하나는 순강원順康園의 서쪽 산左岡이고, 다른 하나는 3062부대 내의 배나무골에 자리잡고 있다. 두 태봉에는 한 동안 태비가 남아 있었다고 전하지만 현재는 모두 자취를 찾을 수 없다.

배나무골 태봉은 현재 부대 내에 위치하는데 주변 일대에 군 시설을 조성하여 지형변화가 심한 상태이다. 보안관계상 사진촬영은 하지 않았다.

서삼릉 왕녀 영수 태실의 태항아리는 시멘트 받침석 중앙에 천으로 봉합되어서 놓여 있는데, 깨져서 노출되었다. 태항아리 남쪽에 지석이 기대어 기울어져 있으며, 지석 밑에는 2개의 자갈돌이 받쳐져 있다. 지석이 항아리 위에 얹혀 있는 점으로 보아 이장 전에 이미 깨졌던 것으로 보인다. 태지석은 일제 강점기에 이장하면서 만든 것이다.[05]

05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西三陵 胎室』, 40쪽.

1. 서삼릉 왕녀 영수 태실(앞) 2. 서삼릉 왕녀 영수 태실(뒤)



1 2 1. 서삼릉 왕녀 영수 태실 조사전경(1999) 2. 서삼릉 왕녀 영수 태실 도면
3 4 3. 왕녀 영수 태실(외·내호) 4. 왕녀 영수 태지석

태항아리는 내·외호 모두 회청색 경질도기이며, 외호는 구연과 동체 일부가 깨진 상태다. 외호의 크기는 잔고 19.8cm, 저경 15.5cm이다. 내호는 배가 부른 단지형의 기형으로 높이 9.2cm, 구경 6.9cm, 저경 7.3cm이다. 내호 위에 놓인 분청자기 소형 접시를 뚜껑 대용으로 사용했다. 구연은 약간 벌어졌으며, 저부는 안굽으로 태토비짐 자국이 남아 있다.[06]

태지석은 일제 강점기에 만든 것으로 크기는 23.2×29.3×2.4cm이고, 내용은 '王女靈壽胎 弘治十五年十一月十二 日藏于楊州郡榛接面 昭和四年 月 日移藏'이며, 연산군 8년(1502)에 장태하였고, 1929년에 이장되었다. 태주인 왕녀 영수靈壽는 연산군과 숙용장씨(淑容張氏, 張綠水)의 딸로 생몰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07]

06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87쪽.
07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8일 병오 1번째 기사.

4)

남양주시 내각리 왕자 수장 태봉

태 주	왕자 수장(壽長) 추정
소재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0-2
좌 표	37°42′41″N / 127°09′23″E

일제 강점기에 서삼릉 태실 집장지로 옮겨진 남양주 진접읍 내각리의 태실 중 순강원 서쪽에 있는 태봉으로 군 부대 경계에 인접해 있다.

천견산(393m)의 남서쪽 산자락의 끝단으로 봉우리가 솟은 돌혈 자리에 해당한다. 태봉 정상은 편평한 편이며 조사 당시 수목 식재를 위한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배나무골 태봉과 마찬가지로 한 동안 태비가 남아 있었다고 하며, 순강원 좌강의 태비는 배나무골 태비와 달리 비갓이 있었다고

태봉 정상부 모습

1 2
3 4 5

1. 서삼릉 왕자 수장 태실 조사전경(1999) 2. 서삼릉 왕자 수장 태실 도면
3. 유리건판사진(건판 37798) 4. 태항아리(능원 38-2) 5. 태지석(능원 38-1)

전한다.[08] 현재는 태실과 관련한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서삼릉의 왕자 수장壽長 태실 표비석에는 '王子壽長胎室(앞) 京畿道楊州郡榛接面移藏(뒤)'이라고 새겨져 있다. 태항아리는 북벽에 치우쳐서 뚜껑이 열려 깨진 채 넘어져 있으며, 안에 내항아리는 없었다. 지석은 받침석 중앙에 넘어져 있었다.[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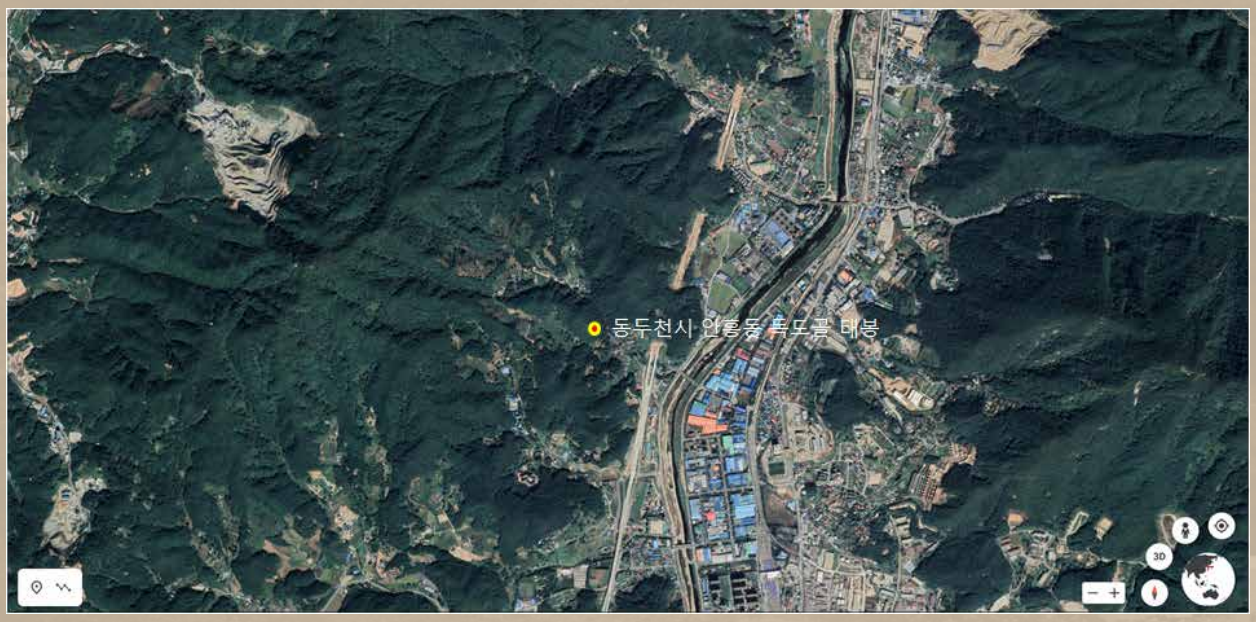
태항아리는 백자 외호 1점만 남아 있다. 장신의 백자 항아리로 어깨에서 벌어지다 바닥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기형으로 어깨에 두껍고 큰 고리 4개가 달려 있다. 크기는 높이 37.6cm, 구경 20cm, 저경 16.5cm이다. 뚜껑은 납작한 보주형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손잡이 목에는 둥근 구멍 4개가 뚫려 있다.

태지석은 오석 재질로 크기는 20×25.6×3.5cm이며, 명문은 '皇明成化十八年二月二十三日辰時生 王子壽長胎 成化十八年六月二十三日巳時藏'이라 새겨져 있다. 태주인 왕자 수장壽長은 성종 13년(1482) 2월 23일 태어났는데, 성종 왕자 가운데 봉안군鳳安君(1482-1505)이나 일찍 세상을 뜬 왕자일 가능성이 있다.[10]

08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朝鮮의 胎室』II, 165쪽.
09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38쪽.
10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朝鮮의 胎室』II, 165쪽.

동두천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6 동두천시

1) 동두천시 안흥동 독도골 태봉

1)

동두천시 안흥동 독도골 태봉

태 주	
소재지	동두천시 안흥동 산7-1
좌 표	37°56′26″N / 127°02′34″E

안흥동에는 밖안흥과 내안흥 2개의 마을이 있는데, 밖안흥에 독터골陶谷이 있다. 독터골은 마차산 동쪽 사면의 좁은 계곡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 중엽부터 이곳에서 질그릇을 굽는 가마터가 있는 마을이라 독터골이라고 불렀다 전한다.[01]

동두천 시내에서 안흥교를 건너 신천을 따라 가다 마차산 용암사 쪽으로 접어들면 독터골이 나오는데, 마을 바로 뒤에 높게 솟은 봉우리가 안흥동 태봉이다. 태봉은 마차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의 끝에서 솟은 돌혈자리에 해당한다. 산 정상은 암반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태실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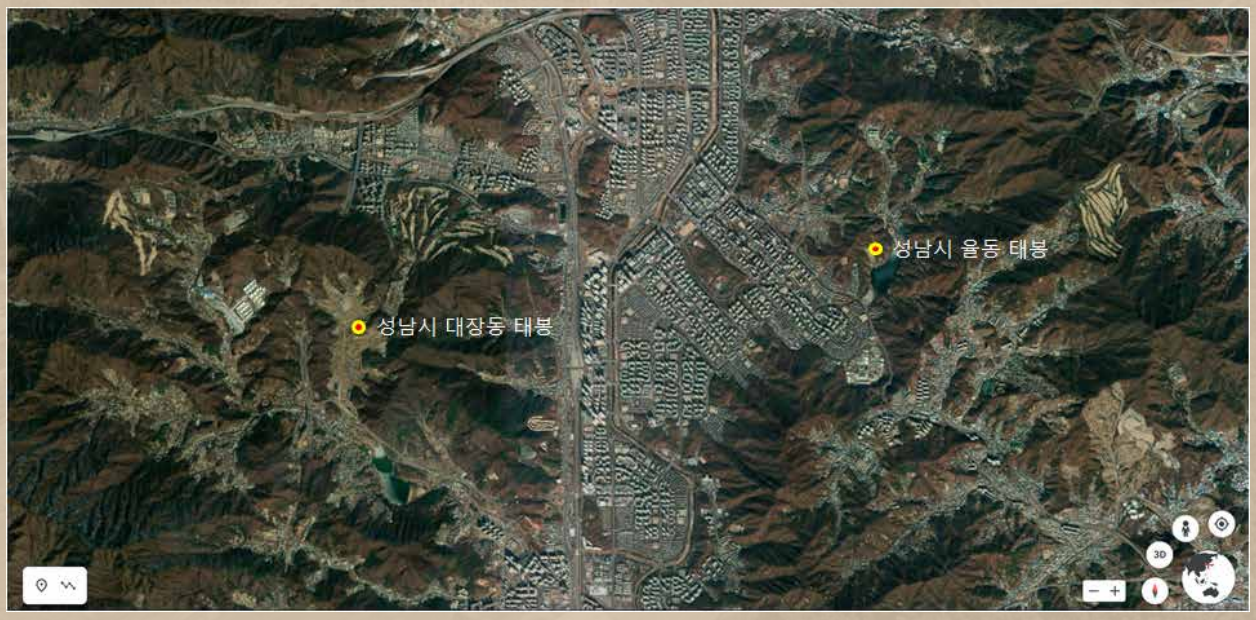
정기호(91)에 의하면 광주정씨문중 종중산으로 문필봉이라 부르기도 하고, 태봉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부르는지 연유는 모른다고 하였다.

01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1998, 『동두천시사』 下, 469쪽.

1. 태봉산 2. 태봉 정상부 모습

성남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7 성남시

1) 성남시 대장동 태봉
2) 성남시 율동 태봉

1)

성남시 대장동 태봉

태 주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13
좌 표	37°37′03″N / 127°07′12″E

동막골 낙생저수지를 지나 고기리유원지 삼거리에서 북쪽방향으로 진입하면 대장동에서 가장 큰 마을인 태릉이 있었는데, 현재 성남판교대장지구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태릉 마을은 사라진 상태이다.

대장동 태봉은 태릉마을이 있었던 사업구역의 동쪽 경계에 있는 높이 172.2m의 나지막한 산으로 태봉산(390m)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이 태릉마을 앞에서 약간 솟아 반구형을 이루는 봉우리이다. 현재 태봉 정상에는 평간공平簡公 전성군全城君 이예장李禮長(1406~1456)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태실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지명총람』(1985)과 『성남시사』(1993)에 의하면, 조선 인조의 태胎를 이곳에 묻었으므로 태장산胎藏山 또는 태봉胎峯이라 부른다고 하였고, 『조선의 태실』(1999)에서는 조선 성종의 태실이 있었다가 경기도 광주로 옮겨갔고 그 뒤로도 계속 태봉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편 『성남지명총람』(2016)에 '고양시 서삼릉에 가보면 인조仁祖 태실 비석이 있는데 광주廣州에서 이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서삼릉 태실에는 인조 태실 비석이 없다.[01]

이예장 묘역

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

성남시 율동 태봉

태 주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산2-1
좌 표	37°28′01″N / 127°14′75″E

성남시 율동공원내 책테마파크 북쪽에 문정공文靖公 한계희韓繼禧와 공간공恭簡公 한사문韓斯文 묘역이 있고, 두 묘역 사이에 불룩하게 솟은 나지막한 구릉이 태봉이다. 바로 뒤 주산에서 내려오는 산자락이 솟구치는 돌혈자리에 해당하며, 《淸州韓氏族譜》의 〈墳山圖〉에 잘 나타나 있다.

『淸州韓氏族譜』 분산도(墳山圖)

율동 태봉은 조선 성종의 태를 안치하였던 곳으로 이 일대가 청주 한씨의 사패지로 하사되면서 성종의 어태를 광주 태전리 태봉산으로 옮긴 것이라고 전한다.[02]

태봉 정상은 남쪽 부분이 편평하게 삭평된 상태이고, 북쪽이 약간 높게 남아 있어 묘를 이장해간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았다.

02 한국토지공사·성남시, 2001,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83쪽.

시흥시
SIHEUNG CITY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8 시흥시

1) 시흥시 군자동 태봉
2) 시흥시 금이동 태봉
3) 시흥시 무지동 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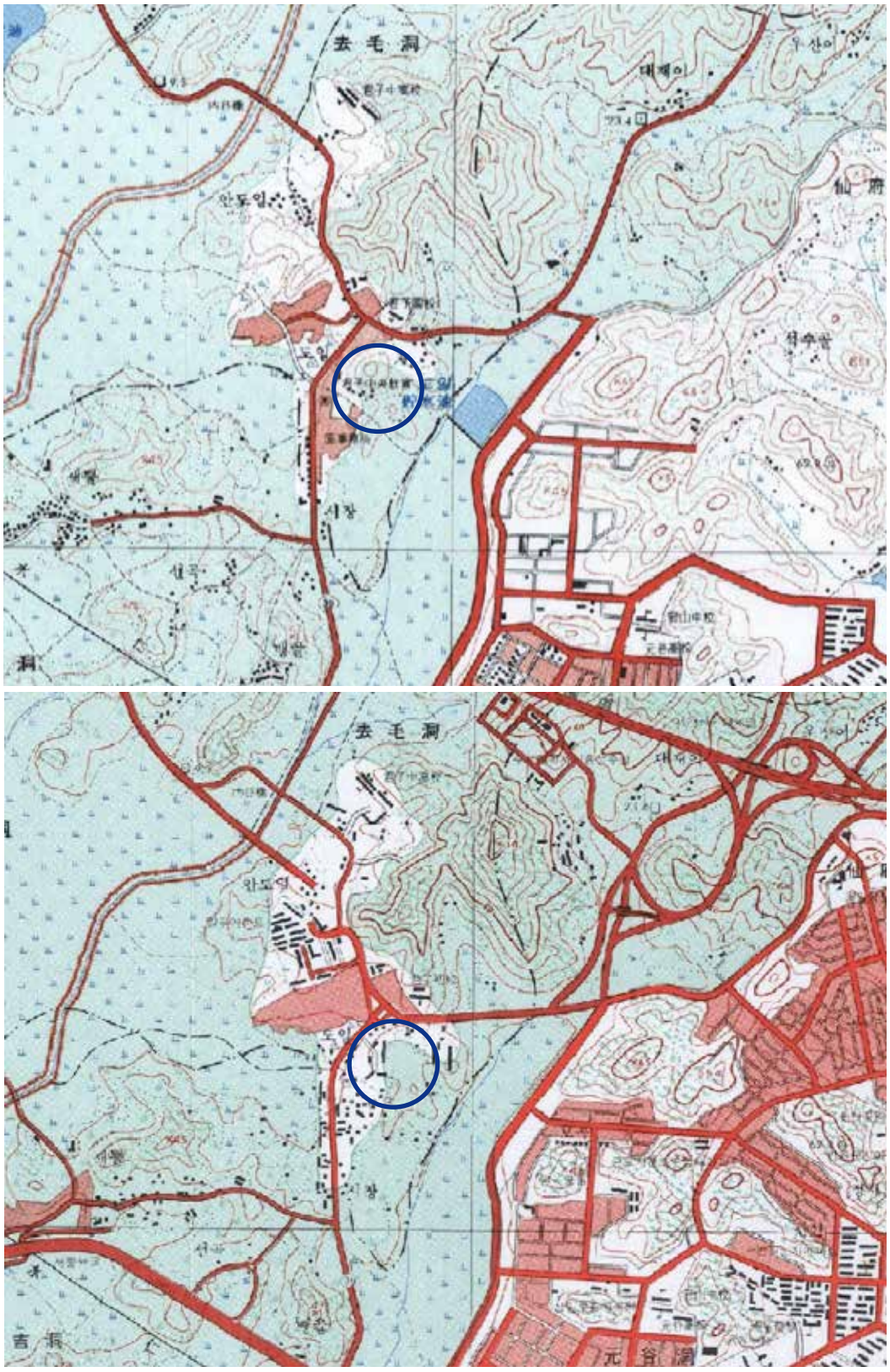
1)

시흥시 군자동 태봉

태 주	
소재지	시흥시 군자동 1769
좌 표	37°20′32″N / 126°47′12″E

군자초등학교 남쪽에 있었던 태봉이지만 주택건립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라졌다. 태봉이 있었던 위치에는 현재 동원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아파트 앞에 조성된 작은 태봉공원 이름에서만 태봉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지형도까지는 북쪽의 군자봉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산줄기 끝에서 솟구쳐 오른 봉우리(44.3m)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안산시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태봉 일대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태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1980년대 지형도(국토정보플랫폼) 2.1990년대 지형도(국토정보플랫폼)

2)

시흥시 금이동 태봉

태 주	
소재지	시흥시 금이동 43-5
좌 표	37°24′04″N / 126°50′44″E

칠리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태봉이다. 서쪽의 주산(118m)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자락이 끝에서 약간 솟아 오른 형상이다.

태봉산에서 밭을 일구고 계신 신인철(77)씨에 따르면, 옛부터 태봉이라고 불렀는데 비석이나 석물은 듣거나 본 기억이 없고, 산꼭대기에 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태봉산 정상에는 문인석과 망주석, 상석을 갖춘 묘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수목이 우거지고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이다. 묘주는 알 수 없다.

무지동 태실(구글어스)

3)

시흥시 무지동 태실

(시흥시 향토유적 제6호)

태 주	
소재지	시흥시 무지내동 산16
좌 표	37°25′11″N / 126°49′58″E

397번 지방도를 따라 가다보면 토탄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군부대가 나타난다. 이 부대 안쪽에 해발 75m 봉우리가 솟아 있는데 태봉이라 부른다. 남북으로 뻗은 봉재산에서 동쪽으로 짧게 내리 뻗은 산줄기가 솟구친 돌혈인데, 현재는 군사도로 개설로 산자락과 이어진 산줄기가 끊어져서 분지 내의 독립구릉 형태로 남아 있다.

현재 정상부에 석함 개석이 노출되어 있고, 주변에 간이 울타리를 둘러 보호하고 있다. 암반층을 너비 2.5m, 깊이 2m로 파낸 후 그 속에 석함을 묻었다. 석함 개석은 화강암을 다듬어 반구형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직경 85cm, 높이 47cm이다.[01] 안쪽에는 홈이 파여 있는데 지름 50cm이나 깊이는 측정하지 못했다.

무지동 태봉은 1988년 시흥군지 편찬위원회 상임위원 故이한기씨가 『시흥군지』의 지명유래 집필을 위해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제보로 확인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도굴되었고, 태함 앞에 비석이 있었는데 1960년대에 없어졌다고 한다.[02] 태주는 알 수 없다.

무지동 태실 석함 개석

01 『시흥군지』, <문화재안내판>, 『조선의 태실』III에서 모두 태함 개석의 소재를 대리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화강암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02 시흥시문화원, 2006, 『시흥시 지명유래』, 227쪽.

안산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9 안산시

1) 안산시 고잔동 태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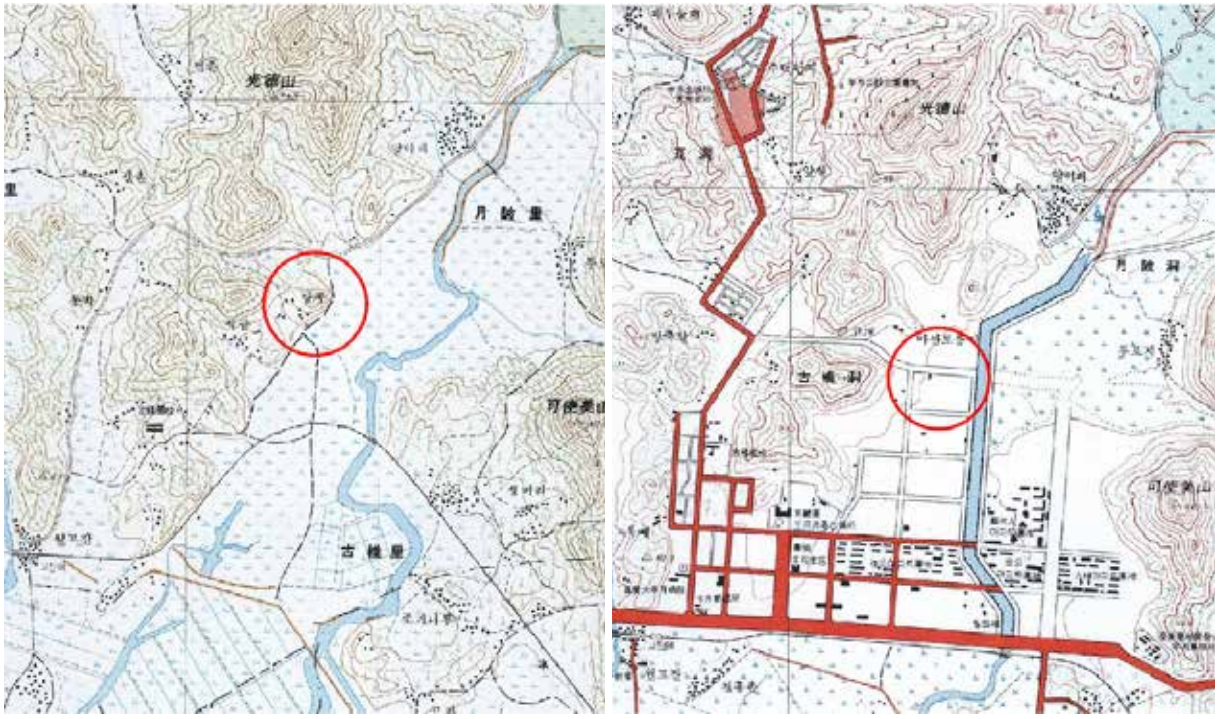
안산시 고잔동 태실

태 주	숙종왕녀
소재지 (태함)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0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좌 표	37°29′22″N / 126°84′76″E

고잔동 태봉은 당곡마을 뒷산으로 현재는 주공아파트 7단지가 들어서 있다. 태함은 현재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박물관의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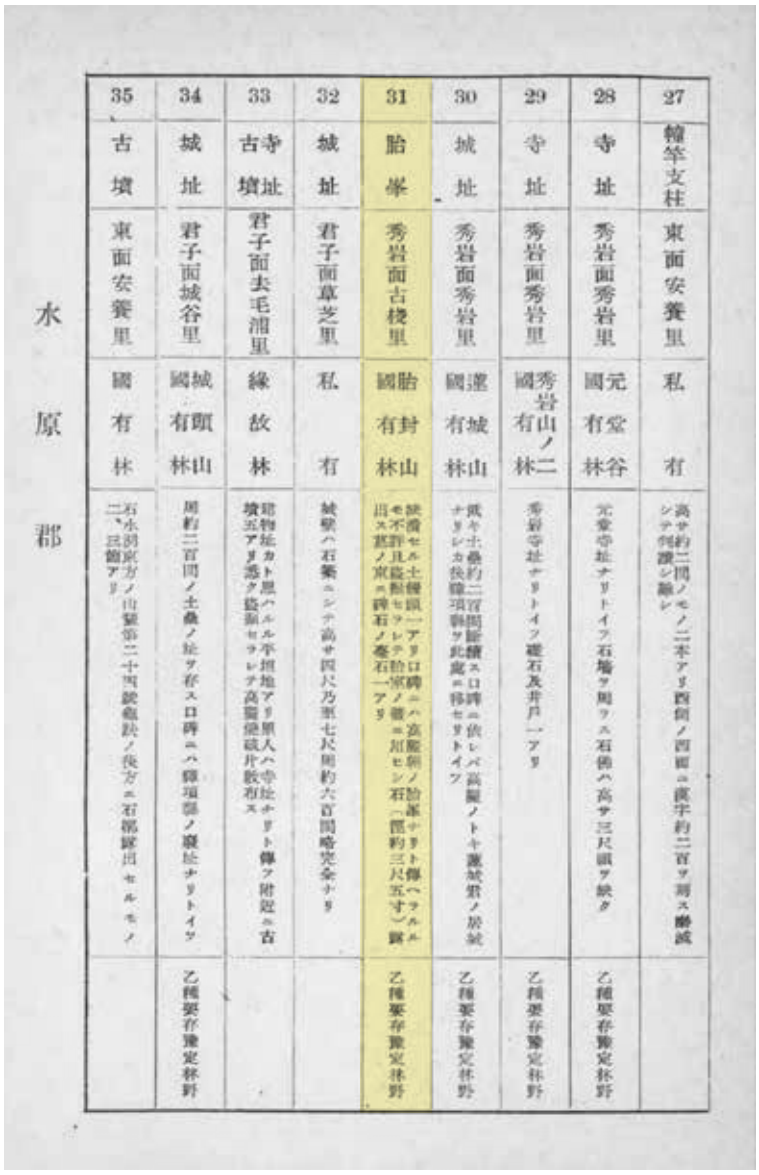
고잔동 태봉은 1980년대 안산시의 도시개발로 고잔동 일대가 주거단지로 조성되면서 깎여나갔다. 1970년대까지는 당곡 마을 뒷산(50m)이 볼록하게 솟아 있지만, 1980년대에는 택지가 구획되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 2011년 편찬된 『안산시사』에 수록된 사진에서 태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1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安山市史』 제4권, 373쪽.



1970년대 지형도(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1980년대 지형도(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1970년대 고잔동 태봉 사진(『안산시사』8권, 2011)



水原郡

35	34	33	32	31	30	29	28	27
古墳	城址	寺址古墳	城址	胎峯	城址	寺址	寺址	韓竿支柱
東面安養里	君子面城谷里	君子面去毛浦里	君子面草芝里	秀岩面古棧里	秀岩面秀岩里	秀岩面秀岩里	秀岩面秀岩里	東面安養里
國有林	城頭山國有林	緣故林	私有	胎封山國有林	蓬城山國有林	秀岩山ノ二國有林	元堂谷國有林	私有
石水洞東方ノ山麓第二十四號墳ノ後方ニ三個アリ	周約二百間ノ土壘ノ址ヲ存スロ碑ニハ歸項墓ノ塚址ナリトイフ	墳五アリ悉ク盜掘セラレテ良質燒成井數有ス	城壁ハ石築ニシテ高サ四尺乃至七尺周約六百間略完全ナリ	現今土壘約二百間許殘スロ碑ニ依レバ高麗ノトキ蕙城君ノ墓ニ移セリトイフ	秀岩寺址ナリトイフ礎石及井戸一アリ	元堂寺址ナリトイフ石塔ヲ周ラス石燈ハ高サ三尺許ヲ缺ク	高サ約二間ノモノ二本アリ西側ノ四個ハ廣宇約二百ヲ周ス磨滅シテ判讀シ難シ	
	乙種要存殘定林野			乙種要存殘定林野	乙種要存殘定林野	乙種要存殘定林野	乙種要存殘定林野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시흥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02]에 고잔동 태봉에 대한 조사기록이 남아 있다.

> *'태봉, 수암면 고잔리, 태봉산 국유림, 태봉은 무너지고 흐트러진 흙으로 된 만두형태이다. 전설에는 고려조의 태봉이라고 전하나 상세하지는 않다. 도굴되었고 태실의 뚜껑으로 쓰였던 돌(지름 약 3척 5촌)이 노출되었다. 묘의 동쪽에 태비의 대석이 하나 있다.'*[03]

02 조선총독부, 1942,「始興郡」,『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9쪽.
03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朝鮮의 胎室』II, 220쪽.

1999년 편찬된 『안산시사』<문화유산> 편에는 구조와 현황, 역사와 유래를 기록하였다.

'태함은 도굴된 상태이고 일부는 매몰되어 있는데 약 1.32×0.6m 정도 겉으로 드러나 있다. 비좌碑座는 93×57×50cm이다.', '고려시대 왕자의 태를 묻은 곳이라 하여 태봉이라 전해오는 곳으로 태를 묻었던 흔적과 비좌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산봉에 태를 담아 매장했던 솥과 같이 생긴 석조물이 있었는데, 이 비가 세워지면서부터 이곳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월피동 부녀자들이 바람이 나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어, 1940년 경 이곳 주민들이 비의 윗부분을 산 아래로 굴려 버려 논바닥에 묻혀 있게 되었다고 한다.'

같은 책 <구비문학>편에는 '간혹 왕자의 태라는 얘기도 하지만 전해오는 얘기로는 공주의 태야'라는 주민의 증언을 수록하였다. 즉 고잔동 태봉의 주인공이 고려시대 왕자라는 설과 정확하지 않지만 공주라는 두 가지 설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다.[04]

고잔동 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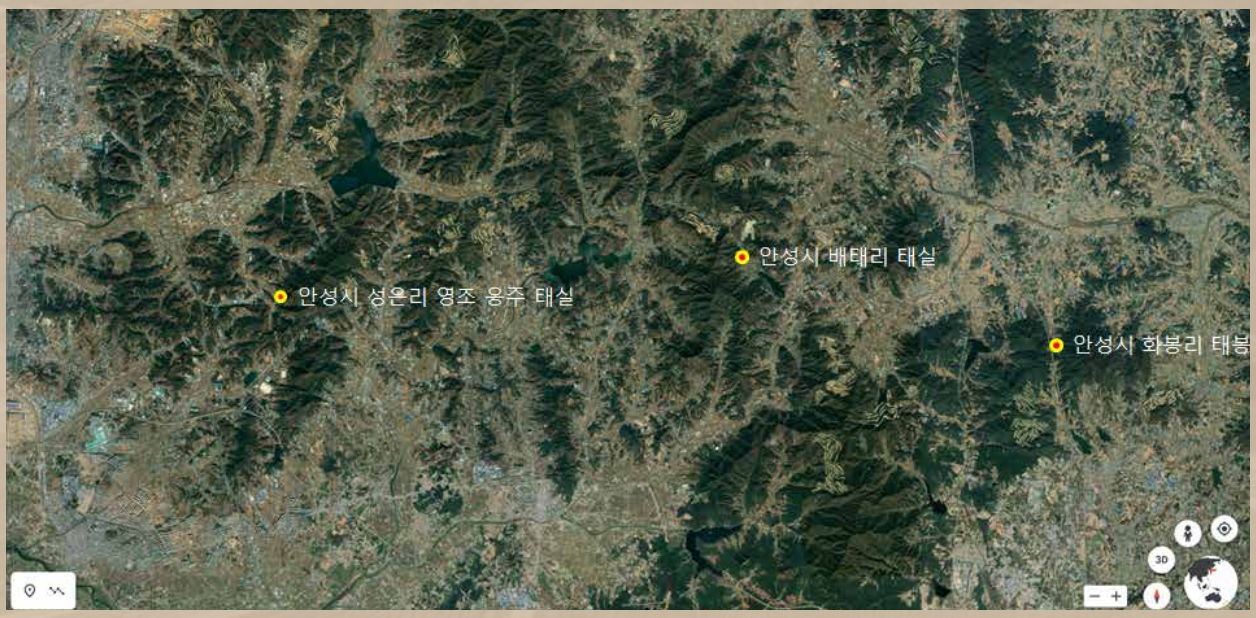
안산문화원 야외에 전시된 태함은 함신의 대부분이 땅 속에 묻혀 있고, 함개가 함신 위를 덮고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의 반구형으로 옆면에 4개의 돌기가 있는 모양이며 김포 고막리 태실, 파주 축현리 태실 함개와 같은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석함 개석이 만들어진 시기는 심현용의 양식편년[05]에 따르면 Ⅱ-②단계, 귀반구형 함개와 귀원통형 함신이 제작되는 시기(1581-1589)와 Ⅲ-①단계, 귀반구형 함개와 원형감실의 원통형 함신이 제작되는 시기(1645-1699)이다.

그리고 『태봉등록』 숙종肅宗 丙子(1696) 정월 21일[06]에 '안산安山 잉화곡면仍火谷面에 있는 왕녀 태봉이 한 길 남짓 도굴되었다고 하였는데...', 또 병자 2월 15일 '안산에 있는 왕녀 태봉 개수 길일은 오는 2월 초 6일 진시와 13일 진시가 좋다...' 기록이 있다.[06] 이로 미루어 안산 고잔동 태봉이 왕녀 태봉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태주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04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4쪽.
05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371-378쪽.
0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역 태봉등록』, 107-108쪽.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0 안성시

1) 안성시 배태리 태실
2) 안성시 성은리 영조 옹주 태실
3) 안성시 화봉리 태봉

1)

안성시 배태리 태실

태 주	성종 왕자
소재지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46, 산45-5
좌 표	37°05′11″N / 127°21′01″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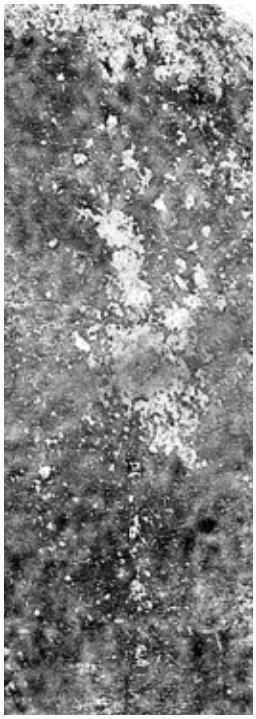
안성시 삼죽면 덕산저수지를 지나 고개를 넘기 전 양촌마을 서쪽에 삼태봉이 있다. 삼태봉 중에서 철탑이 없는 중태봉 정상에 배태리 태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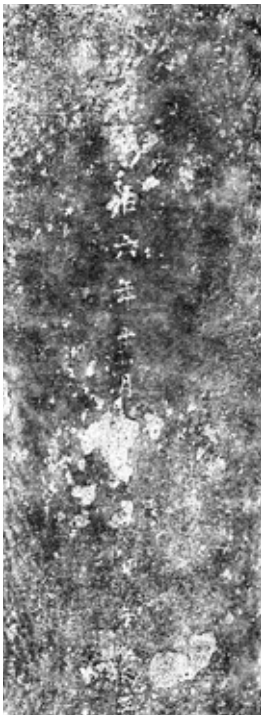
태봉 정상은 편평하고 중앙에 야트막한 봉분이 남아 있는 민묘가 있고, 편평한 정상부의 북동쪽 끝에 안태비가 서 있다. 민묘는 정동 방향을 바라보고 자리하고 있고, 안태비는 민묘보다 북쪽으로 50° 정도 치우쳐 있는데, 안태비의 방향이 산줄기의 능선방향에 더 가깝다.

배태리 태봉은 약 50여 년 전에 도굴되어 그곳에서 나온 태항아리도 다시 매몰되었다고 한다.[01]

안태비는 모두 한 돌로 만들었다. 비수와 비신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비수는 삼각형을 하고 있다. 비대는 직사각형으로 문양은 없다. 명문은 '王子△△阿只氏胎室(앞) 弘治六年十月△△△日子時立(뒤)'로 비는 1493년(성종 24) 10월 △△일에 세웠다. 파주시 정자리

01 안성시지편찬위원회, 2011, 『안성시지』1 역사와 지리, 1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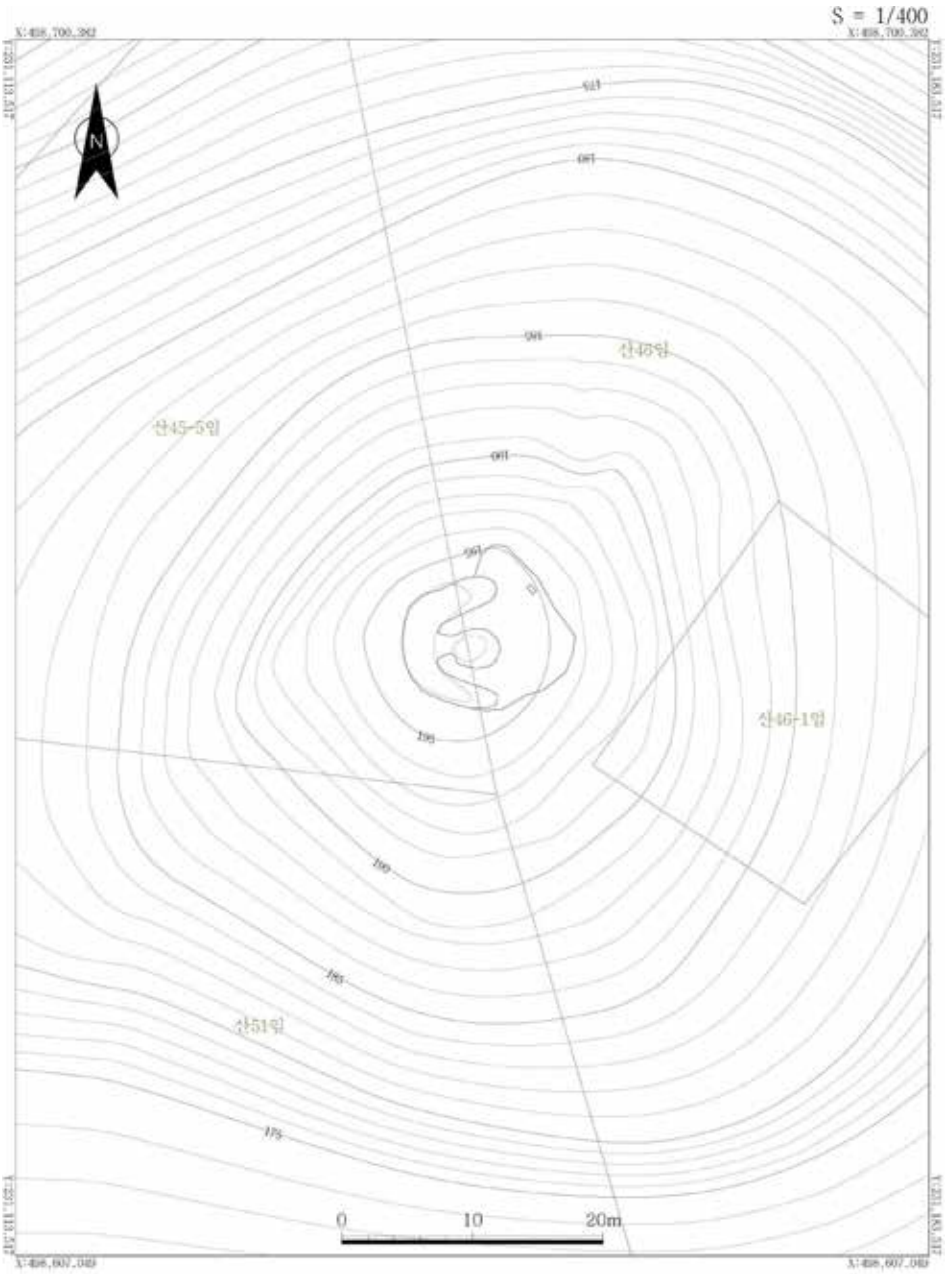


1 1. 배태리 태봉 정상 모습

2 3 4 5 2. 안태비(앞) 3. 탁본(앞) 4. 안태비(뒤) 5. 탁본(뒤)

[1493년(성종 24) 9월 8일], 남양주시 금곡동 왕자 금수 태실[1493년(성종 24) 5월 4일]과 같은 해에 조성된 태실이다.

태주는 아명이 판독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성종의 왕자 가운데 태실이 확인되지 않은 익양군益陽君(아명 石壽), 이성군利城君, 경명군景明君(아명 忠福), 전성군全城君, 무산군茂山君, 운천군雲川君(아명 鉄壽), 양원군楊原君(아명 舞壽)이 해당될 수 있다.[02]



안성 배태리 태실 측량도 (1:400)

02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 167쪽.

2)

안성시 성은리 영조 옹주 태실

태 주	영조 옹주
소재지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산31
좌 표	37°04′26″N / 127°10′00″E

천덕산 서쪽에 있는 태봉 정상에 있던 태실이 일제 강점기에 도굴된 뒤 산 아래로 굴러내려 땅에 묻혀 방치된 것을 1960년에 마을 4H회원들이 산기슭 길옆에 모아 세웠다가 2003년 12월 10일 통심동회관을 세울 때 같이 옮겨 세웠다.

태봉 정상은 560×310cm 크기의 평탄면을 갖고 있으며, 평탄면 가운데에 태함이 있었던 자리에 함몰 구덩이가 남아 있다.

태봉 정상 모습

1. 마을회관 앞 태함과 안태비 2. 안태비 3. 태함

안태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완전 도식화된 연화문이며, 옆면은 2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하였다. 비대는 상부 모서리를 말각하였으며, 문양은 없다. 크기는 비수 45×70×26cm이고, 비신 106×58×22cm, 비대 40×95×60cm이다. 비문은 '雍正十年正月初一日寅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雍正十年三月二十七日卯時立(뒤)'이며, 1732년 3월 27일 세웠다.

『태봉등록』영조 壬子(1732)년 2월 20일, '임자년 1월 1일 寅時生 翁主阿只氏의 藏胎를 경기도 양성군 서면 승양원(陞良院) 망해산 청원사(淸源寺) 洞口 卯坐酉向...' 기록이 안태비 명문과 일치하며, 『선원계보기략』에 기록된 왕녀 서열과 영조 왕녀의 출생년도 등을 바탕으로 태주는 영조의 제6녀로 추정하였다.[03]

태함의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옆면을 수직으로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하게 하였으며, 상부에 연봉형 보주를 장식하였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이다. 함개의 크기는 직경 100cm, 높이 40cm이고, 함신은 직경 100cm, 높이 70cm이다.

0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역 태봉등록』, 240쪽.;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 222-223쪽.

3)

안성시 화봉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124-1
좌 표	37°03′36″N / 127°28′38″E

망이산성이 있는 마이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산자락의 끝에 태봉이 있었고, 그 일대에 태봉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1999년 편찬한『조선의 태실』Ⅲ에는 태봉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태봉 자리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멸실되었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외지인이 봉우리를 밀어내고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하며, 비석이나 석함 같은 태실 관련 유물은 없었다고 한다. 태봉 정상에는 무덤이 있었고, 예부터 태를 묻었다고 전하고 태봉 이름만 전해졌다고 한다. 현재는 마을 이름과 버스정류장 이름에서 태봉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 태봉마을 이정표
2. 태봉 버스정류장

Yangju
양주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1

양주시

1) 양주시 고읍동 태봉
2) 양주시 덕정동 태봉
3) 양주시 봉암리 태봉
4) 양주시 상수리 태봉
5) 양주시 울대리 태봉
6) 양주시 황방리 정혜옹주 태실

1)

양주시 고읍동 태봉

태 주	
소재지	양주시 고읍동 산43
좌 표	37°48′40″N / 127°04′02″E

2002년 양주문화원에서 편찬한 『양주 땅이름의 역사』에 고장산 태봉으로 소개되었다. 고암동 남쪽 끝에 있는 고장산의 남쪽 봉우리로 높이는 208m이며, 일명 태봉胎峰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여러 자료에 갈립산葛立山으로 추정되는 산으로, 이곳에서 옥이 생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01] 행정구역상 덕계동, 고읍동과 경계를 이루며, 주변에는 고장동 마을이 있다.

태봉 정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평탄하게 삭평되었고 주민들을 위한 벤치가 놓여 있다. 장태와 관련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태봉 북쪽의 다른 봉우리는 군 시설이 들어서 있고, 태봉 동쪽에는 경동대학교 양주메트로폴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다.

태봉 정상 모습

01 양주문화원, 2002, 『양주 땅이름의 역사』, 132쪽

2)

양주시 덕정동 태봉

태 주	
소재지	양주시 덕정동 산3-1
좌 표	37°50′30″N / 127°04′25″E

2002년 양주문화원에서 편찬한 『양주 땅이름의 역사』에 덕정리 태봉으로 소개되었다. 은골 남동쪽 회암동과 접한 봉우리로 왕실의 태를 묻었기에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추정되나 누구의 태를 묻었는지는 알 수 없다.[02]

태봉 정상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평탄화된 상태이다. 벤치, 운동기구 등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적삼각점을 2001년 7월 4일 설치하였다. 장태와 관련한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태봉 정상 모습

02 양주문화원, 2002, 『양주 땅이름의 역사』, 45쪽

3)

양주시 봉암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산72-2, 산45-11
좌 표	37°53′31″N / 127°00′42″E

양주시 재활용선별장이 들어서 있는 산이 봉암리 태봉산이다. 운암리와 봉암리, 하패리의 경계 지점에 걸쳐 있는 산으로, 옛날에 이 산 정상에 태를 묻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봉우리 정상에는 태를 보관한 큰 돌이 있었다고 전한다.[03] 양주시에 전하는 여러 개의 태봉 중에서 양주 황방리 정혜옹주 태봉과 더불어 태봉의 흔적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태봉산 정상에는 청송심씨 가족묘가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 주변 일대에서 장태와 관련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태봉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자락 끝 봉우리에서는 고구려 유적인 태봉산보루가 조사되었다. 2014년 시굴조사에서 보루의 석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과 치 2개소, 집수지, 건물지 등 고구려시대 유구와 고구려 갑주, 토기, 철촉, 철모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04]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장태와 관련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03 양주문화원, 2002, 『양주 땅이름의 역사』, 460쪽.
04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8, 『양주 태봉산 보루Ⅲ·Ⅳ』, 69쪽.

1. 태봉 정상 청송심씨묘역 2. 태봉산 보루 안내판

4)

양주시 상수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양주시 남면 상수리 산19-1
좌 표	37°51′25″N / 127°00′26″E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은현면 도하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1869년(고종 6) 조선 숙종의 태를 공주에서 이곳으로 옮겨 묻었다고 전한다. 또는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후 태를 묻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05] 조선 숙종의 태와 관련된 이야기는 마을 전설일 뿐, 현재 서삼릉에 있는 숙종 태비에는 1928년 공주 이인에서 옮겨왔다고 적고 있다.

태봉산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산세를 이루고 있는데 정상부가 다시 불룩 솟은 모양새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태봉의 모습과 비슷하다. 태봉 정상은 군 참호, 교통호 등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장태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05 양주문화원, 2002, 『양주 땅이름의 역사』, 587쪽.

1. 태봉산 정상 모습 2. 태봉산 정상 군사시설

5)

양주시 울대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산62-2
좌 표	37°42′57″N / 126°59′04″E

송추골 옆에 있는 봉우리로 왕자의 태를 땅에 묻고 돌로 덮어둔 봉우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태항아리로 사용한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누군가 굴려버렸다고 한다. 산62-2번지 북쪽 끝부분과 산56-8번지의 경계에 위치한다.[06]

용인반점 김광희(78)씨에 의하면 '태봉 정상에 비석과 큰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비석이 불그스름한 색을 띠고 '강왕자태실'이라고 새겨 있었다. 비석은 받침 없이 쓰러져 있었고 비석 위에는 용이 새겨져 있었다. 뚜껑은 동쪽 계곡으로 굴러 내려가서 5년 전까지 계곡에 반쯤 묻혀 있었고, 몸체는 너무 커서 산 아래로 굴리면 남의 집을 덮칠까봐 놔뒀다. 근래는 나이 들어 다리가 아파서 산에 올라가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 태봉 아래 주민에 따르면, 4~5년 전에 태봉 밑에 묘를 만들었는데, 그 전까지 보이던 비석이 묘 단장이 끝난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재 태봉 봉우리와 주변 능선에는 참호, 벙커 등 군사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태함이나 비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계곡에는 곳곳에 사방공사를 해놓았고, 낙엽과 부토가 두텁게 쌓여 태함 개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정밀한 지표조사와 인근 군부대 탐문조사가 필요하다.

태봉 정상 군사시설

06 양주문화원, 2002, 『양주 땅이름의 역사』, 759쪽.

6)

양주시 황방리 정혜옹주 태실

태 주	정혜옹주(靜惠翁主, 承福)
소재지	양주시 남면 황방리 87-1
좌 표	37°55′31″N / 126°59′52″E

감악산 동쪽 산자락 끝에 있는 태봉이다. 375번 지방도를 따라 가다보면 봉암저수지 끝에 황방리 마을이 나온다. 좌측으로 가면 조소앙선생기념관이 나오고, 직진방향으로 250m 앞에 깎여나간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이 태봉산이다.

1999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편찬한 『조선의 태실』Ⅱ에 황방리 태봉의 조사경위가 나와 있다. 이 태봉은 은현면 봉암리 태봉댁 바깥주인인 남정현씨 제보로 알려졌다. 태봉 근처에 사는 주민 신영균씨에 의하면 이 태실은 왕 자녀의 태이며 태는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가져갔다고 한다. 당시에는 태비편과 석함편이 태봉 오른쪽 아래에 굴러 내려와 있었고, 태비에 남아 있는 명문으로 1490년 태어난 숙용정씨淑容鄭氏 소생의 아명이 승복承福인 정혜옹주靜惠翁主임을 밝혔다.[07]

07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앞의 책, 176쪽. 승복(承福) 이름은 수종사 불상 내부에서 나온 발원문에 의하면 정혜옹주이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태지석(신수6276)의 명문 '承福阿只氏胎誌'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태어난 해를 1489년이라 했는데, 태지석의 弘治三年 1490년의 오기로 보인다.

황방리 태봉 멸실전 모습 (2010년, 심현용 제공)

그리고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서는 태봉산 남쪽에 있는 식당(고향가든)의 입구에서 석함 뚜껑으로 추정되는 석물을 발견하였는데, 이 석물은 위에 『조선의 태실』Ⅱ에 수록된 석함과는 그 형태가 차이가 있어 다른 석물로 보았다.[08]

현재 황방리 태봉은 완전히 멸실된 상태이다. 황방1리 이장님(박상덕, 61)에 의하면 2017년 경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산을 깎았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석함이 1개 발견되어 양주시에 신고하였고 양주 회암사지 전시관에 옮겨졌다고 한다. 당시 발견된 석함은 태함의 함신으로 원통형 몸체에 원통형 감실이 파였으며,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차 인수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태함의 개석(2008년 발견)과 함신(2017년 발견)이 한 쌍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의 태실』Ⅱ에 수록된 석함이 함신의 아랫부분이 맞다면 황방리 태봉에 태실이 2개가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조선의 태실』Ⅱ에 수록된 안태비와 석함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태봉이 멸실된 까닭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1999년 발견 석함(52×34cm)은 함신의 일부로 심하게 파손되어 하부만 남은 것으로, 작은 구멍이 관통되었다. 2008년 발견 개석은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0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조선왕실의 태봉』, 125쪽.

1 2 1. 안태비(『조선의 태실』Ⅱ) 2. 석함(『조선의 태실』Ⅱ)
3 4 3. 태함 개석(2010년, 심현용 제공) 4. 태지석(국립중앙박물관)
5 6 7 5. 2017년 발견 당시 함신(박상덕 이장님 제공) 6. 양주 회암사지전시관 야외 전시 함신(김희태 제공) 7. 함신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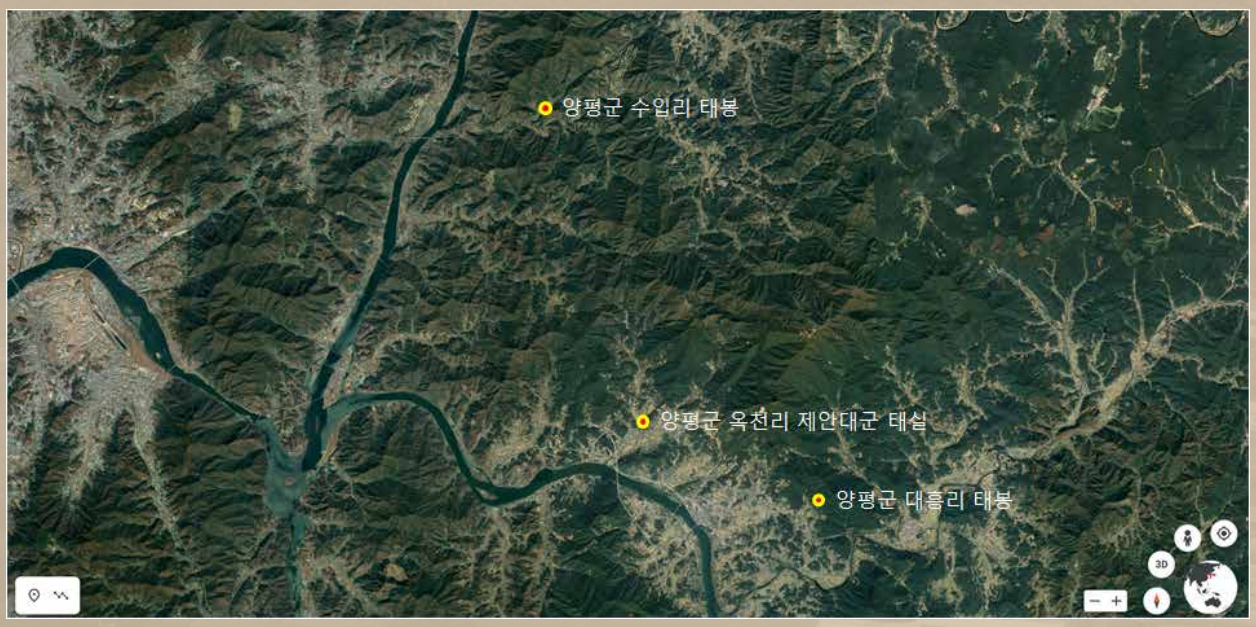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함개의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크기는 94×46cm, 감실 47×14cm이다.

안태비는 비수와 비신 상부만 남아 있는데, 일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반원형으로 연화문이며, 측면은 3단이고 물끊이 홈이 있다. 상부에는 원좌 없는 연봉을 장식하였다. 비문은 '王女△福阿只 …(앞) … 弘治五年七月 …(뒤)'이고, 태지석의 '皇明弘治三年三月初六日巳 時生 王女承福阿只氏胎 弘治五年七月十七日酉 時藏(앞)'라는 기록으로 보아 1490년 3월 6일생이며, 입비 시기는 1492년 7월 17일이다.[09]

09 심현용, 2016, 앞의 책, 261쪽.

맑은행복
양평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2

양평군

1) 양평군 대흥리 왕자 부수 태실
2) 양평군 수입리 태봉
3) 양평군 옥천리 제안대군 태실

1)

양평군 대흥리 왕자 부수富壽 태실

태 주	왕자 부수(富壽)
소재지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324-5
좌 표	37°29′45″N / 127°32′53″E

양평 대흥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대곡리와 신흥리를 합친 마을 이름이다. 대흥리 태봉은 새골 뒤의 봉우리로 왕자의 태를 묻어 영릉이라고도 하였다.[01]

천변마을 뒤에 병풍처럼 펼쳐진 주산(태봉, 절토봉, 큰골봉)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의 끝에 봉긋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철탑이 없는 가운데 봉우리가 태봉이다. 정상부는 편평하게 삭평된 모습이며, 묘를 이장해간 흔적이 남아 있다. 태봉을 포함하여 주변 일대에 벌목작업이 진행되어 있어 어떤 개발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봉 정상에는 1980년 이전까지 뚜껑과 밑에 구멍이 뚫린 함신을 모두 갖춘 석함이 있었고, 그 뚜껑을 열면 갈색 빛을 띠는 태항아리가 보였다고 한다. 이후 도굴당하면서 태항아리는 파손되었고, 태함은 양평읍내 어느 석재상에서 읍내로 가져갔다고 한다. 이 석함은 1989년 11월 28일자로 발견매장문화재 국고귀속수입 유물

01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양평군지』 中 양평의 문화유산, 889쪽.

태봉 근경

로 등록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었다가[02] 2003년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야외정원인 현묘의 정원에 전시되어 있다.

태함은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는데, 태항아리가 안치되는 감실은 정연하게 깎은 반면, 바깥쪽은 매우 거칠게 다듬어 정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특히 함신은 측면에서 보면 부정형으로 자연석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위에서 보면 원형에 가깝게 다듬어진 것으로 보인다. 태를 안치할 때 땅 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은 대충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반면 함개는 바깥쪽도 비교적 반구형에 가깝게 정성을 들인 모습이다. 함개의 크기는 높이 60cm, 너비 100cm이고, 안쪽에는 65×19cm크기의 반원형 감실을 팠다. 함신은 높이 80cm, 너비 110cm이고, 안쪽에 47cm 깊이의 감실을 팠는데 윗지름 63cm, 바닥지름 27cm로 좁아지는 형태이다. 감실 바닥에는 지름 5cm, 깊이 20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02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조선의 태실』Ⅲ, 28쪽. 이희원님의 일기에 의하면 1972년 3월 2일에 도굴되었으며, 태항아리(내·외호)는 도굴꾼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태봉에는 태비가 없고, 태지석도 도굴되어 태주가 누군지 알 수 없었는데, 최근 태지석 명문을 기록한 일기가 발견되어 성종의 왕자 태실임을 확인하였다.[03] 1972년 3월 2일에 작성된 이희원(1939년생, 양평 백안리)님의 일기[04]에는 도굴되던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1972年 三月 二日. 水. 晴. 陰 一月 十七日.

이희원님

婦人들이 덕원네서 노는데 전축을 잠깐 보러 갔다가 소주를 먹고 미안해서 소주 1餠을 사들여 보내고 젊은 분들과 같이 해영네 가서 소주를 먹다 화투를 2장씩 뽑아 갖이고 가서 보니 1,2 셋 끝 밖에 안되어 진 사람 5명 중에 끼여 50원을 썼다. 또 윳을 뛰어서 또 져서 100원을 또 썼다.

저녁때 집에 와서 물을 먹을려다 잘못 실수를 해서 왼쪽 발을 삐었다. 대단찮으리라 생각했는데 도통 딪질 못하겠다. 새마을 가꾸기 회에 못갔다.

저녁에 동네 아이들이 새꼴 뒤에서 가져왔다는 지석을 보았는데 웬 두 사람이 새꼴 뒤서 무엇을 파길래 아이들(기봉, 장현, 영철, 광수)이 가니 흙을 파던 사람이 도망을 가길래 아이들이 흙을 팔려하니 도루 와서 파길래 같이 팠다고 한다. 그런데 한 길 흙을 파고 그 속에 바위를 파서 항아리를 넣고 큰 돌을 덮고 석회로 때웠다 한다. 그런데 그 속에 항아리를 넣고 그 속에 또 작은 항아리를 넣고 접시도 또 대접 1개가 있었다고 한다. 자기는 네 꼭지가 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200원을 주고 가라고 해서 아이들은 그냥 오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지석이 하나 있었는데 몰래 가져 왔다고 하길래 보니 下記와 같이 적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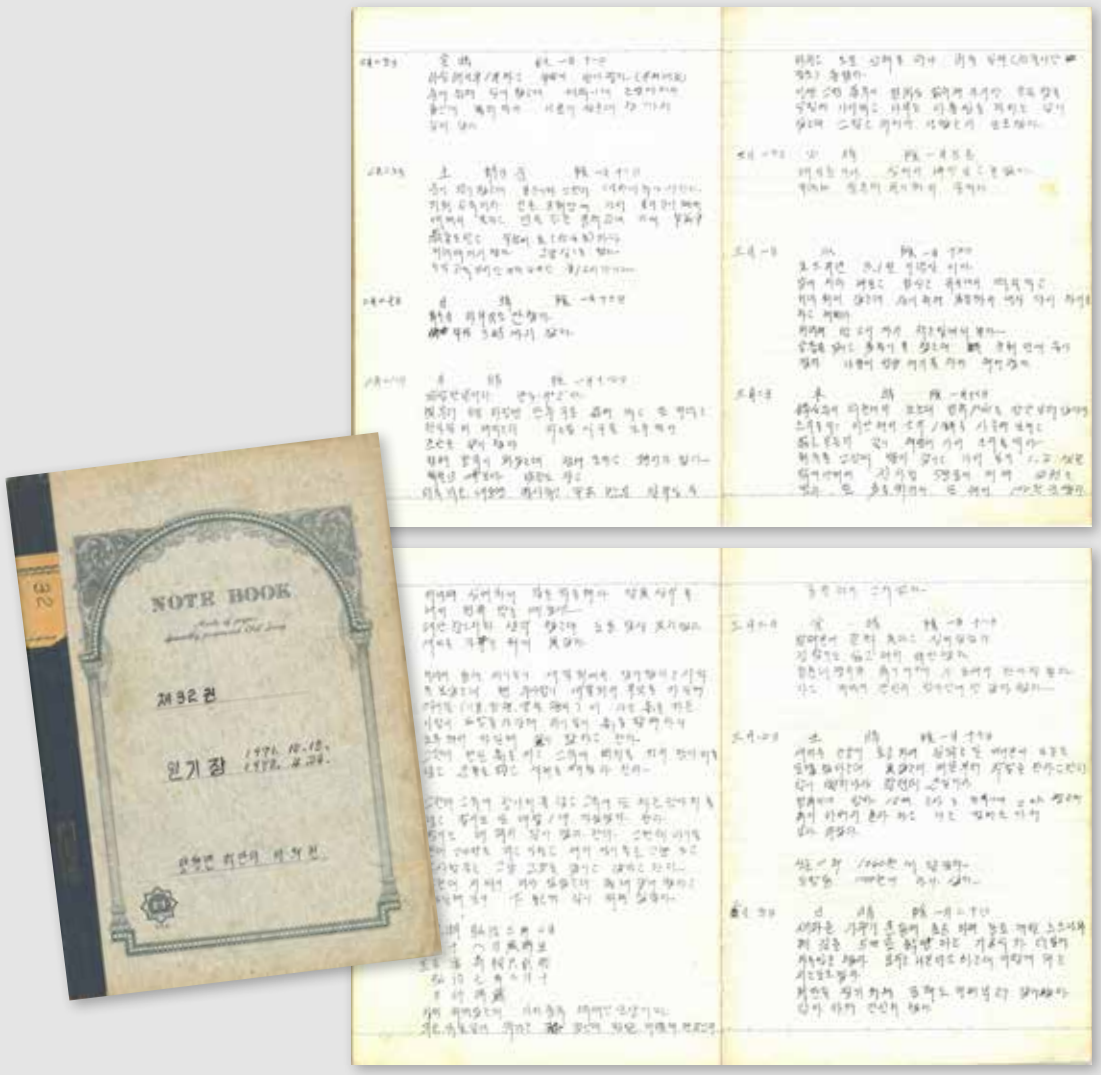
皇明弘治三年二月	*황명홍치삼년이월*
二十八日辰時生	*이십팔일진시생*
王子富壽阿只氏胎	*왕자부수아기씨태*
弘治七年六月十日卯時藏	*홍치칠년육월십일묘시장*

이라 적여 있는데 아마 중국 역대인 모양이다.

무슨 국보급에 속하는 것인데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03 김희태(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장)이 제보하였으며, 관련내용은 진한용(고려금석원장)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ksrub/222275365614)에서 확인하였다.

04 이희원님(1937년, 83세)은 1957년부터 2019년까지 일기를 작성하였다. 2007년 마을 발표회 때 태실 관련 내용을 발표하여 마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2021년 진한용님이 현장답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여 채록한 글을 블로그에 남기게 되면서 이번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었다.



이희원님 일기장

이 외에 일기장 기록에 없는 내용은 '아이들의 말이 도굴꾼들의 생김새와 말씨가 중국인 같았다고 하였으며, 아이들이 새골 뒤에서 들고 온 태지석은 검은 오석으로 정사각형이었고, 태지석을 탁본을 본떠놨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아이들이 태지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문화재를 신고도 없이 함부로 들고 다닌다'고 경찰서장에게 뺨만 맞았다고 하며, 그 후로 태지석의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도굴당한 후에 마을사람들과 같이 태봉에 올라갔을 때 '석함의 뚜껑과 밑에 구멍이 뚫린 태신胎身이 있었고, 태호 중에 외부 태호가 깨진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그 파편들의 일부는 태실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옮겨 적은 태지석의 명문 '皇明弘治三年二月二十八日辰時生 王子富壽阿只氏胎弘治七年六月十日卯時藏'으로 태주는 1490년(성종 21) 2월 28일 진시에 태어난 왕자 부수富壽이고, 1494년(성종 25) 6월 10일 묘시에 장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1490년(성종 21)에 태어난 성종의 왕자는 4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대흥리 태봉의 태주인 1490년 2월 28일생 부수富壽는 『선원계보기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군호를 받기 전에 사망한 왕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1490년(성종 21)생 성종왕자

비빈명	군호	아명	생몰연대	태실
숙원권씨 淑媛權氏	전성군(全城君)	?	1490 - 1505	
명빈김씨 明嬪金氏	무산군(茂山郡)	?	1490.01.14 - 1525	
숙용심씨 淑容沈氏	영산군(寧山君)	복숭(福崇)	1490.윤9.24 - 1538.06.11	파주 어유지리
숙의홍씨 淑儀洪氏	운천군(雲川君)	철수(鐵壽)	1490.11.24. - 1524.05.14	
?	?	부수(富壽)	1490.02.28. - ?	양평 대흥리

1 2 1. 태함 함신 2. 함신 안쪽
3 4 3. 태함 개석 4. 개석 안쪽

2)

양평군 수입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16
좌 표	37°38′48″N / 127°24′51″E

수입2리 마을회관에서 86번 지방도를 따라 북쪽으로 1km 거리에 수입리 귀실 마을이 있다. 물이 마을 앞으로 돌아 흐르는 데서 수입리라 하고, 마을 뒷산에 왕실에서 태를 갖다 묻었다 해서 능골陵谷이라 하는데 그 때 귀한 분이 머물렀다 하여 귀실마을이라 불렀다.[05]

화야산(755m)과 고동산(600m)으로 이어지는 높은 산줄기에서 남동쪽으로 내리뻗은 산자락이 귀실마을 앞에서 4개의 봉우리를 만들었는데, 가운데 두 개 봉우리가 높게 솟았고 양 끝은 비교적 낮고 편평한 편이다. 높은 봉우리 중 서쪽 봉우리를 태봉이라 부르는데 전형적인 돌혈 모양을 갖추고 있다. 태봉 정상은 5×7m 정도 편평한 면을 갖고 있고, 가운데에는 함몰흔적이 남아 있는데, 도굴에 의한 것인지, 묘를 이장한 흔적인지는 알 수 없다.

마을 주민 박은예(85), 진명재(80)에 따르면 '태를 묻었다는 얘기는 어릴적 어른들에게 들었지만 비석이나 항아리 같은 것은 보지 못했고, 태봉 정상에 묘가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이장했다'고 한다.

태봉 주변에서 장태와 관련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태봉 정상 모습

05 경기도, 1987, 『지명유래집』, 755쪽.

3)

양평군 옥천리 제안대군 태실

태 주	제안대군(齊安大君, 1466-1525)
소재지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506-9 / 신복리 1130-8
좌 표	37°31′27″N / 127°27′58″E

6번 국도 양평 고읍교차로에서 옥천면사무소 방향으로 가면 옥천2리 마을회관 앞에 태봉이 솟아 있다. 편전산(376m) 남서방향으로 뻗은 산자락의 끝에 건지산(142m)이 있는데 건지산의 산세가 낮아지다 솟구쳐 오른 돌혈에 해당한다. 옛날에 어느 왕자의 태를 이 산에 묻고 그곳에 비를 세워 두었기에 '태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06]

태봉 정상부 근경

06 경기도, 1987, 『지명유래집』, 762쪽.

1. 2010년 옥천리 태봉(동→서, 심현용 제공) 2. 2020년 태봉 동쪽 사면 훼손 모습

2010년 이후 태봉산의 동쪽과 서쪽 사면에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쪽사면에서 벌어지는 토목공사로 인해 안태비 바로 옆까지 사면을 깎아 중장비가 드나드는 큰 길이 나 있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안태비는 태봉 정상에 약간 기울어진 채 서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비석 둘레에 잡석으로 장방형 단을 쌓고 흙을 채워 기단을 만들었다. 2010년 조사 때에는 기단 없이 일석으로 만든 비대가 노출된 상태로 비교적 곧게 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 비석이 이동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태비의 석재는 화강암이며 비신과 비대를 하나로 만들었다. 비수는 말각형으로 윗면 가운데가 약간 파여 있으며, 비수와 비신을 구분하지 않았다. 비대는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비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비의 규모는 길이 93cm, 너비 33cm, 두께 14cm이다. 비문은 '王世子男小孫胎室(앞) 成化二年△月二十日立石(뒤)' 음각되어 있어 1466년 △월 20일 세운 것을 알 수 있다.[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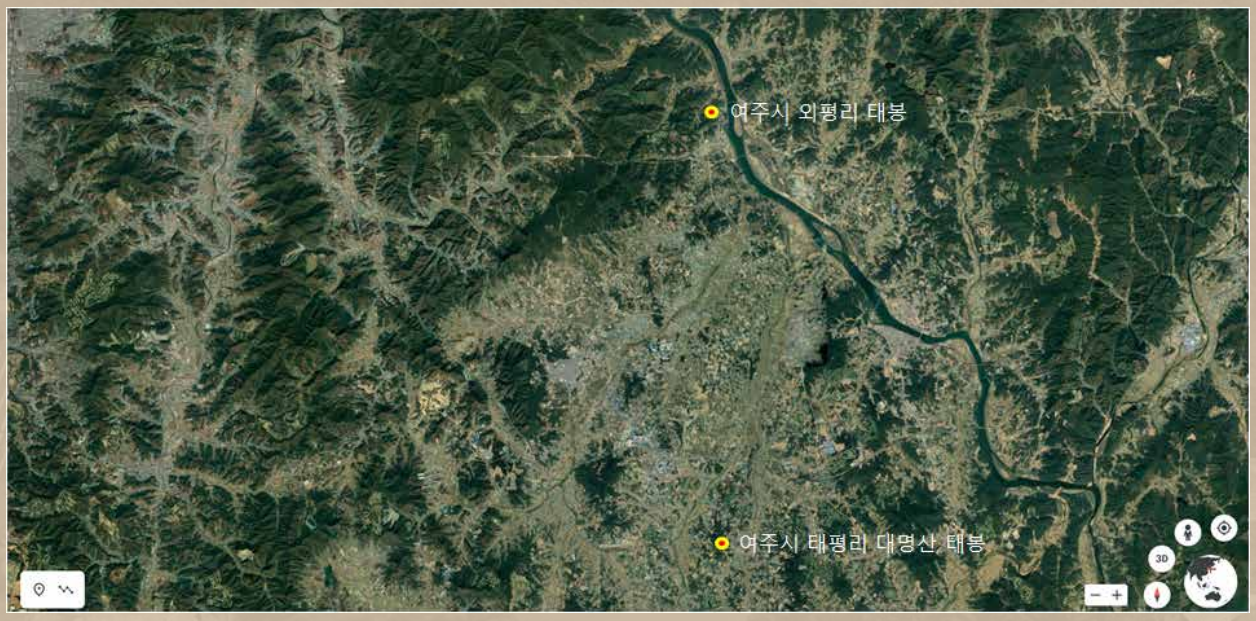
태비명문의 王世子는 세조의 세자 예종睿宗이고, 小孫은 세조의 어린 손자이다. 이 시기에 출생한 왕손이 제안대군이다. 제안대군 군호는 성종 1년(1470), 5살 때에 부여되었다. 제안대군은 예종睿宗과 안순왕후安順王后 한씨韓氏의 소생으로 예종 승하 후 왕위 계승 제 1후보자였으나 4세의 어린 나이를 이유로 세조의 비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반대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08]

1. 2010년 제안대군 안태비(심현용 제공)
2. 2020년 제안대군 안태비

07 심현용, 앞의 책, 257쪽.
08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조선의 태실』Ⅱ, 162쪽.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3 여주시

1) 여주시 태평리 대명산 태봉
2) 여주시 외평리 태봉

1)

여주시 태평리 대명산 태봉

태 주	
소재지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산30-1
좌 표	37°12′19″N / 127°31′44″E

여주시 가남읍 서쪽에 있는 산으로 여주시와 이천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조선의 태실』Ⅲ에서는 여주시 가남면 태평리 대명산 태봉이라 했지만, 태봉 정상의 현재 지번은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산30-1이다. 대명산 아래로 지하철 경강선의 연장노선(공사중)이 지나간다.

옛날 조선시대 왕가에서 왕자王子를 낳으면 이곳에 태始를 묻었다고 하여 원래는 태봉太峯이라 부르다가 언제부터인지 태명산太明山으로 불리었고 현재는 대명산大明山으로 불리우고 있다.[01]

장태와 관련한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01 여주군사편찬위원회, 2005, 『여주군사』, 545쪽.

2)

여주시 외평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산36-2, 산36-7, 산45-1, 이포리 산5-1, 산5-9
좌 표	37°23′59″N / 127°31′34″E

남한강 이포보 서쪽에 있는 산이 외평리 태봉이다. 동서방향으로는 완만한 산세를 이루고 남쪽과 북쪽은 가파른 경사를 보인다. 산의 정상이 봉긋하게 솟아 있고 정상부 가운데에 큰 구덩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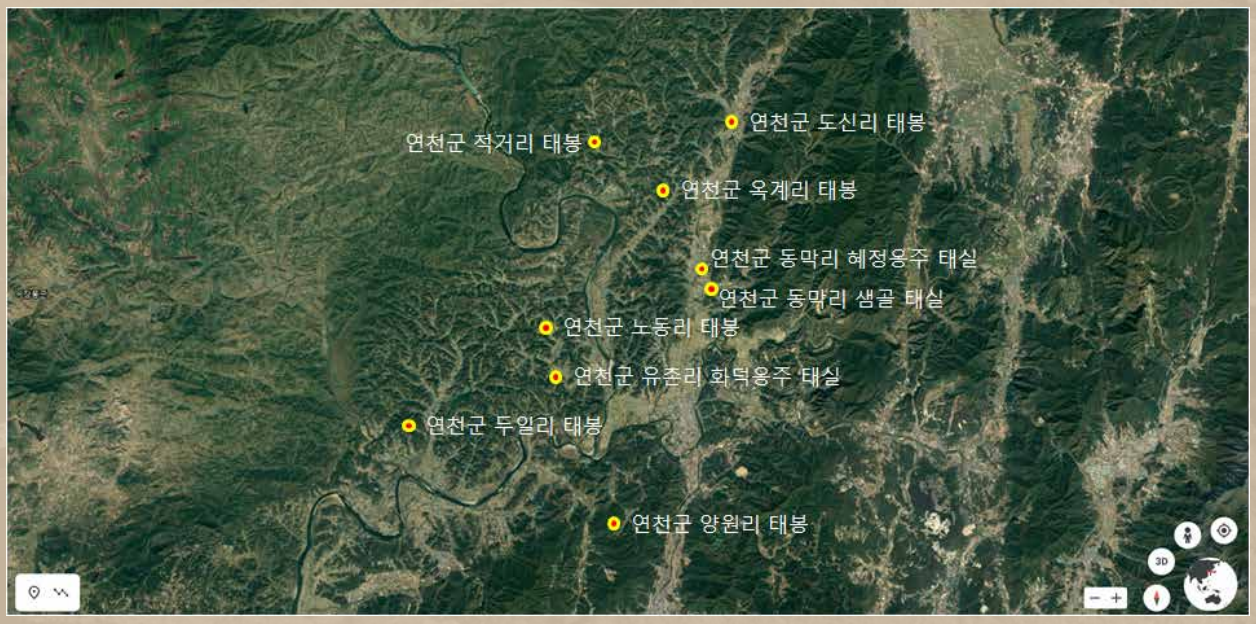
외평1리 정동호(68) 이장의 외삼촌이 태봉 아래에서 논농사를 지금까지 짓고 있는데, 예부터 태봉이라 불렀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하였다. 『조선의 태실』Ⅲ에서는 '왕의 태를 묻었다는 전설만 있을 뿐 태실과 관련된 어떤 유물도 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이전 또는 민간의 태를 묻는 장소'로 추정하기도 하였다.[02]

1. 태봉 정상 모습
2. 정상부 구덩이 모습

02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Ⅲ, 29쪽.

연천군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4

연천군

1) 연천군 노동리 태봉
2) 연천군 도신리 태봉
3) 연천군 동막리 부물현 혜정옹주 태실
4) 연천군 동막리 샘골 태실
5) 연천군 두일리 태봉
6) 연천군 양원리 태봉
7) 연천군 옥계리 태봉
8) 연천군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
9) 연천군 적거리 태봉

1)

연천군 노동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산103
좌 표	38°04′14″N / 126°58′50″E

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km 북쪽에 노동5교가 나온다. 노동5교를 지나서 서쪽으로 난 소로길을 따라가면 약 400m 거리에 태봉이라 부르는 작은 봉우리가 나타난다. 이 봉우리는 서쪽에 위치한 두리산(184m)에서 동쪽으로 뻗은 야트막한 산줄기의 한 갈래이며, 능선이 낮아지다가 끝에서 솟구친 돌혈자리에 해당한다.

연천문화원이 발간한 『향토사료집』에 '장승모탱이 서쪽 들에 광대가 살았다고 전하는 광대터가 있고, 광대터 서쪽 골짜기 안에 있는 작은 봉우리를 태봉이라 부른다. 예전에 왕실에서 태胎를 봉했다 하나, 현재 아무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01] 고 한다.

태봉 정상(97m)에는 교통호와 참호 등 오래된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태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01 연천문화원, 1995, 『鄕土史料集』, 292쪽.

1. 노동리 태봉 근경 2. 태봉 정상부 군사시설(교통호) 모습

2)

연천군 도신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33-1
좌 표	38°10′03″N / 127°05′18″E

도신리 태봉은 원앞산 북쪽, 경원선 철로변에 있는 봉우리로 예전에 궁실에서 왕족의 태를 봉했다고 전해진다.[02] 서쪽의 국사봉(266m)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자락의 끄트머리에 해당하며, 낮아지던 능선이 약간 솟구친 돌혈 모양이다. 태봉 앞에는 차탄천이 흐르고 있고, 남쪽에는 경원선이 지나가며, 서쪽에도 도로가 나면서 현재는 섬처럼 고립된 모양새다.

태봉의 봉우리 정상에는 콘크리트 시설, 참호, 교통호 등 군사시설이 촘촘하게 조성되어 있어 태봉의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02 연천문화원, 1995, 『鄕土史料集』, 362쪽.

1. 도신리 태봉 근경 2. 태봉 정상 군사시설

3)

연천군 동막리 부물현 혜정옹주 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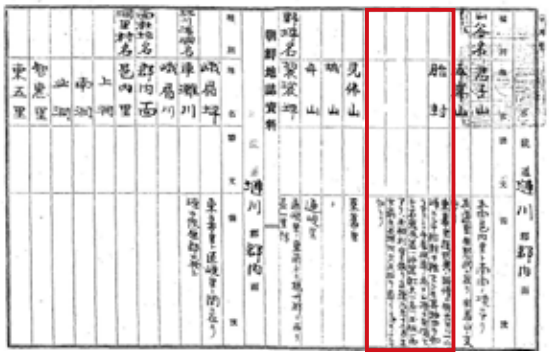
태 주	혜정옹주(惠靜翁主)
소재지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71-1
좌 표	38°05′27″N / 127°04′34″E

동막리 부물현(夫武夷洞) 태봉은 조선후기에 간행된 《海東地圖》 〈漣川縣〉, 《廣輿圖》 〈漣川縣〉 지도에서 임장서원臨漳書院을 둘러싼 산줄기 끝에 표기되어 있다. 현재는 부물현을 가로지르는 3번 국도의 확장으로 동쪽의 산지와 분리되어 독립 구릉처럼 보이지만, 1919년 근세지도에는 동쪽의 양금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이 차탄천 앞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편찬한 《朝鮮地誌資料(1911~1913)》[03] 에 "덮개가 있는 석함과 사기로 제작된 태항아리 내·외호, 명문이 있는 옥판을 함께 발굴하였는데, 명문에는 '皇明正德九年十月初 十日卯時生 王女翁主石環阿只氏胎 正德九年十二月二十六日丑時藏'이라 쓰여 있다.

태주는 조선 중종 9년(1514) 10월 10일에 태어난 옹주 석환으로, 중종과 경빈 박씨敬嬪 朴氏의 소생 혜정옹주惠靜翁主[1544년 10월 27일[음력 10월 10일)-1580년]이다.

03 경기문화재단, 2008, 『朝鮮地誌資料』 京畿篇, 경인문화사, 83쪽.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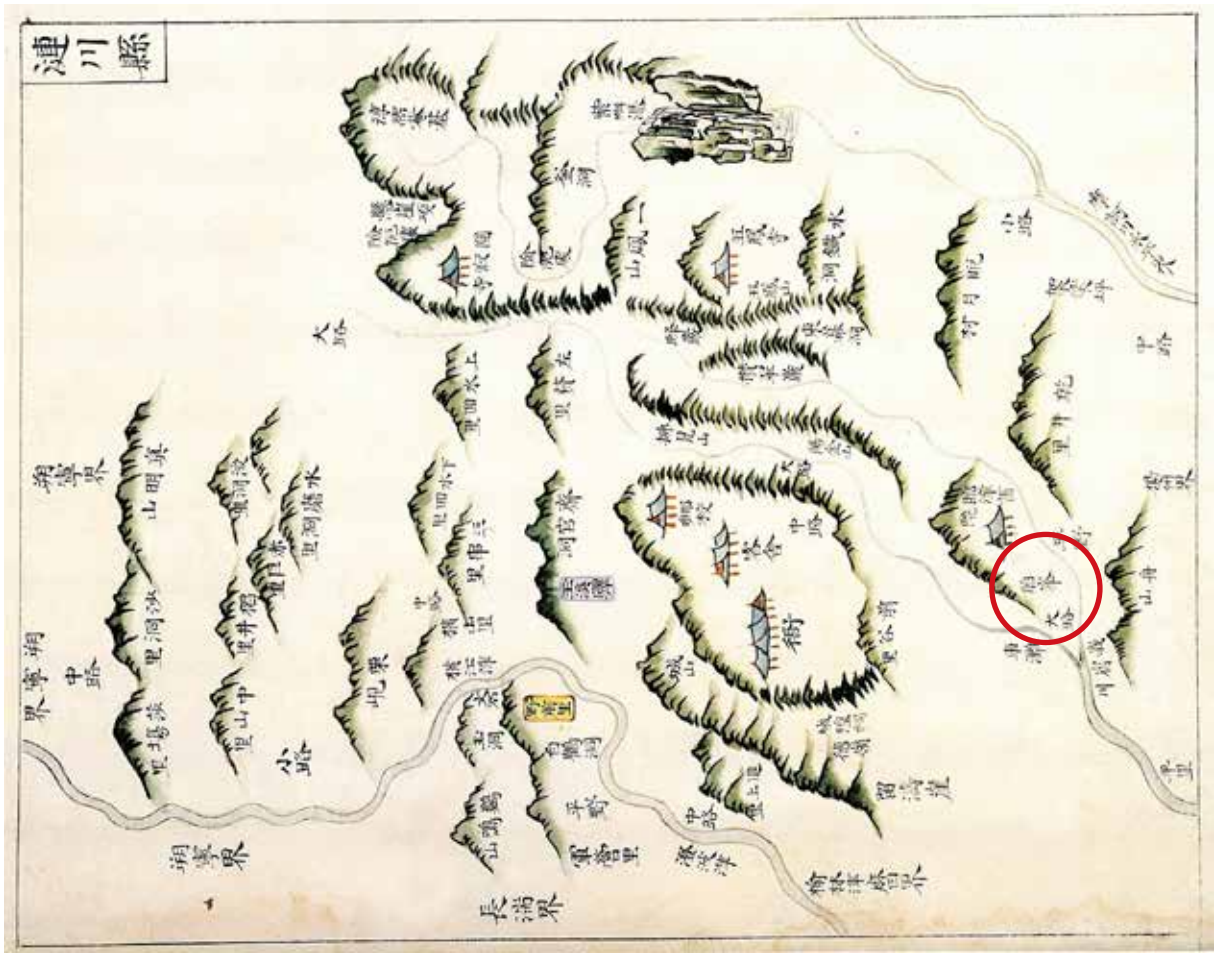
1. 태봉 근경
2. 석환 옹주 태지석
3. 조선지지자료(1911-1913)
경기도 연천군

1919년 근세지도

태실은 일제강점기 때의 발굴 이후 방치되다 민묘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멸실되었으며, 현재는 민묘도 다른 곳으로 이장한 후 방치된 상태이다.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출토된 대리석제 태지석은 장서각에 있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태지의 명문은 『海東金石苑』에도 채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에 이미 파손 또는 도굴되었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위의를 갖춰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04] 그러나 태항아리 내·외호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다. 화강암으로 만든 태함도 1980년대까지 산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나 지금은 알 수 없다.[05]

04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 190쪽.
05 연천문화원, 1995, 『鄕土史料集』, 617쪽.



1. 광여도 2. 해동지도

4)

연천군 동막리 샘골 태실

태 주	
소재지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55-2
좌 표	38°05′04″N / 127°05′18″E

동막리 부물현 혜정옹주 태실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 거리에 위치한 동막1리 샘골마을의 뒷산봉우리가 태봉이다. 이미 오래 전에 도굴당한 상태여서 태주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태봉은 성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산자락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태봉 주변에는 참호, 교통호 등 군사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태봉 근경

태봉 정상에는 화강암제 태함 개석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데, 태실은 오래전에 도굴당한 상태여서 태주는 알 수 없다. 노출된 개석은 지름 80cm, 높이 20cm이다. 태함 앞에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고,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성산숲길 안내도에는 성산1등산로에 태실 위치와 사진을 표기하였다.

1. 태함 개석과 안내석 2. 태봉 앞 성산숲길 안내도

5)

연천군 두일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790-2
좌 표	38°01′13″N / 126°54′05″E

박진 장군 묘역(경기도기념물 제110호)의 서쪽, 두일리 장곡 마을의 중간에 동남향의 원추형으로 솟아 있는 봉우리에 태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 봉우리 정상에 왕실의 태를 봉했던 태실이 있었으나, 그 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자세하지 않고, 태실과 관련된 석조물 역시 정상부의 굴토흔적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에 도굴된 것으로 판단된다.[06] 2019년 태봉 자리에 HK솔라두일리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태봉이 멸실되었다.

두일리 태봉 멸실 전 모습
(출처 :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06 문화재청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https://intranet.gis-heritage.go.kr/)

연천 양원리 태봉 위성사진(출처 : 구글어스)

6)

연천군 양원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278-1
좌 표	37°58′37″N / 127°01′30″E

37번 국도에서 양원리 보건진료소 앞의 양원2교를 지나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정면으로 약 1km 거리에 태봉이 높이 솟아 있다. 이 봉우리는 무쇠봉에서 동북쪽으로 나지막하게 휘어 뻗은 능선이 솟구쳐오른 형상이다. 양원리 태봉은 약물바위 위에 있는 봉우리로 예전에 이 봉우리 정상에 태를 묻었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전해오지 않는다.[07] 주변 일대의 군사시설로 인해 사진촬영이 불가능하다.

07 연천문화원, 1995, 『鄕土史料集』, 130쪽.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편찬한 『조선의 태실』III(32쪽)에 수록된 양원리 태봉산 사진은 양원리 산27번지의 산을 잘못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7)

연천군 옥계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산150
좌 표	38°07′57″N / 127°03′21″E

78번 국도변의 필리핀참전비에서 남쪽으로 약 560m를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옥계교를 건너 작은밤골로 들어가는 소로길이 나온다. 소로길 우측에는 우사가 들어서 있고, 우사 뒤의 좁은 골짜기는 논과 밭을 경작 중이다. 우사에서 약 300m 거리에 태봉이 있다.

옥계리 태봉은 작은밤골에 있는 봉우리로 예전에 궁실에서 태를 봉했던 곳이라 전하는데 1926년 무렵 도굴되었다고 한다.

태봉 정상부 주변에는 오래된 참호, 교통호 등의 군사시설 흔적이 남아 있고, 태실과 관련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태봉이 돌혈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정혈에 해당하는 정상부에 약 5×5m 크기의 편평한 면이 남아 있어 태실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옥계리 태봉 근경 2. 태봉 정상부 모습

8)

연천군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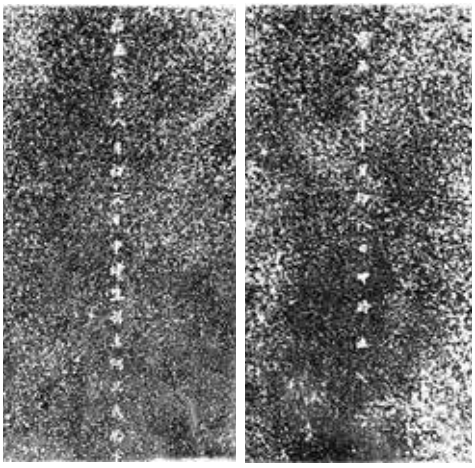
태 주	화덕옹주(和德翁主, 1728~1731)
소재지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산127
좌 표	37°58′37″N / 127°01′30″E

유촌리 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북쪽으로 180m가량 가다보면 서쪽으로 두루갈이 마을 진입로가 나온다. 태봉말로도 불리는 두루갈이 마을 안쪽에 태봉이 있다. 산 정상에 있는 태실은 일제강점기 때 도굴 당한 채 방치되었다가 1994년 3월 21일 유촌리 원로들이 태함과 개석, 태실비를 원래 모습대로 정비해놓은 것이다. 유촌리 태봉은 조선후기 지도인 《廣輿圖》와 《海東地圖》 〈麻田郡〉에 향교 북동쪽에 표시된 태봉에서도 확인된다.

유촌리 태실 정상 모습

태봉은 솔터고개 남쪽의 주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이 솟아오른 돌혈자리에 해당한다. 태봉 정상은 잡목이 짙게 우거져 있는데 편평하게 조성되어 있고 화강암 안태비가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앞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태실 정비 중 확인된 화강암 태함은 백자 내·외호와 지석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안지름 60cm, 높이 60cm, 두께 13cm 크기에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덮개돌은 전체 지름 93cm, 높이 30cm이고 윗부분에 보주형의 꼭지를 조각하였다. 안태비는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전체 높이는 150cm이고, 비신 114cm, 너비 57cm, 두께 28cm이며, 대좌는 가로 103cm, 세로 70cm, 높이 45cm이다. 비석 앞면에 '雍正六年八月初三日申時生 翁主阿只氏胎室', 뒷면에 '雍正六年十月初八日卯時立'이라고 쓰여 있어 1728년(영조 4) 8월 3일 태어난 옹주의 태실을 같은 해 10월 8일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08]



1. 탁본(앞) 2. 탁본(뒤)

이 옹주의 장태기록은 『태봉등록』 영조 무신년(1728) 8월 15일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09]

『태봉등록』 영조 무신년(1728) 8월 15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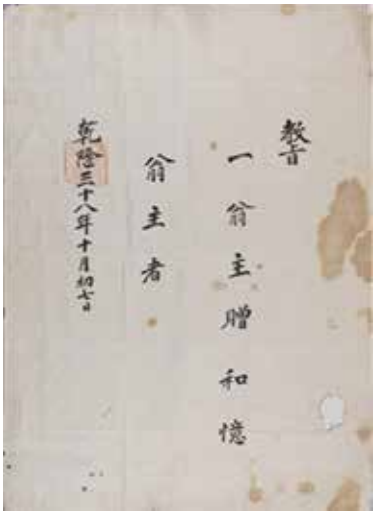
> *금년 戊申 8월 초3일 申時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의 일을 전교받았습니다. 일등 태봉은 경기도 麻田縣 東面 柳村 申坐寅向으로 낙점하옵신 바로, 장태 길일인 오는 10월 초8일 묘시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
> *(『태봉등록』 영조 무신 8월 15일)*

태함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0년에 발간한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함이 일부 노출되어 있는데,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에 보주를 부착한 원뿔형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추정되는데, 내부에 평면 원형의 큰 감실을 팠으며, 내부 바닥에는 작은 구멍을 관통시켰다.[10]

개석과 석함(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08 연천문화원, 1995, 『鄕土史料集』, 이화상사, 618쪽.
0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역태봉등록』, 188-189쪽.
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편, 502-503쪽.

유녀향염광지(幼女香艷壙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공식블로그)



화억옹주추증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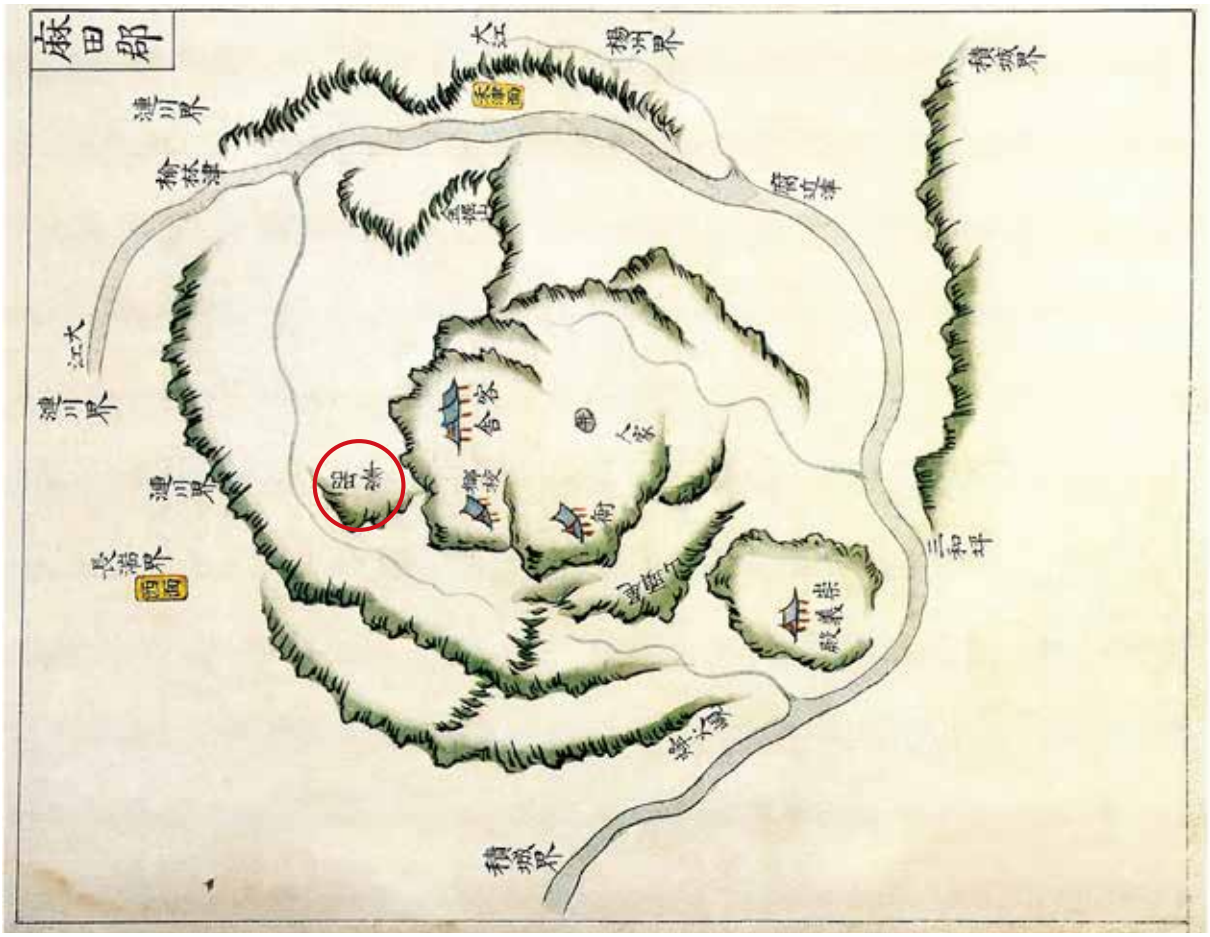
유촌리 태실의 태주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1999년 편찬한 『조선의 태실』Ⅱ에서 영조와 정빈이씨靖嬪李氏 소생의 화억옹주和億翁主로 명시한 이후 대부분의 자료가 이를 따르고 있다.[11] 그런데 《幼女香艷壙誌》[12]에 따르면 영조의 첫째 딸 향염은 영조와 정빈이씨의 소생으로 1717년 4월 22일에 태어나 1718년 4월 8일 돌을 보름 정도 앞두고 병으로 요절하였다. 그리고 향염이 죽고 55년이 지난 영조 80년에 화억옹주로 추증된다. 따라서 화억옹주 향염의 탄생일과 안태비 비문의 탄생일인 1728년 8월 3일과는 11년의 시차가 발생하여 유촌리 태실의 태주를 화억옹주로 볼 수 없다.

영조와 영빈이씨暎嬪李氏 소생으로는 화평옹주和平翁主(1727.04.27.~1748.06.24.)와 화협옹주和協翁主(1733.03.07.~1752.11.27.), 사도세자인 장헌세자莊獻世子(1735.01.21.~1762.윤5.21), 화완옹주和緩翁主(1738.03.09.~1808.05)가 있으며, 화평옹주와 화협옹주 사이에 요절한 옹주 3명이 있다. 그 중에 화덕옹주和德翁主(1728.8.3.~1731.2.18.)의 생몰연대가 안태비 비문과 일치한다.[13]

1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편 ; 연천군 2014, 『연천금석문대관』.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radaks/221655895980) 박용만의 글. 영조가 갓 돌이 지난 첫째 딸 향염이 어머니 상중인 1718년 4월 8일에 죽자 다음 날 외할아버지 산소 옆에 서둘러 매장하였다가 8월에 어머니의 묘 옆에 자리를 잡아 옮겼는데, 이 때 지은 글이 '어린 딸 향염의 무덤에 넣는 지문(幼女香艷壙誌)'이다. 접으면 7.4×6.6cm의 작은 책자이다.

13 심현용(한국태실연구소장) 박사의 제보로 알게 된 사실이며, 화덕옹주(和德翁主, 1728.8.3.~1731.2.18.)의 생몰연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임도 밝힌다. 다만, 2019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조선왕실 화협옹주의 얼굴단장> 특별전시 관련 블로그(https://blog.daum.net/nasaro1/222)에서 파악했을 뿐이다.


麻田郡
大江
楊洲界
漢川界
楡林津
楊古津
漢川界
漢川界
楊洲界
楊洲界
楊洲

9)

연천군 적거리 태봉

태 주	
소재지	연천군 중면 적거리 산117
좌 표	38°09′24″N / 127°00′55″E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한 태봉이다. 적거리 태봉은 쇠똥골 남쪽에 있는 갱명두산(201m)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산자락의 끝에서 솟구친 봉우리이다. 태봉 남쪽에는 6.25 전까지 5가구가 살던 태봉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통선 북쪽이라 마을은 없어진 상태이다.

예전에 궁실에서 태를 묻었던 곳으로 전해 오지만 일제 강점기 때 봉우리 정상에 강씨가 묘를 써 그 당시 태실이 파괴된 것으로 전한다.[14] 태봉 아래에서 농사짓고 있는 차우현(67)씨에 의하면 '옛부터 태봉으로 불러왔는데, 일제강점기 때 강장군의 후손(왕징면 북삼면 거주)들이 태봉 정상에 묘 3봉상을 이장하고 매년 10월 10일에 시제를 지내왔다는데, 언제부턴가 발길이 끊겼다'고 한다. 또한 장태와 관련한 석함이나 비석, 항아리 등에 대해서는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한다.

태봉 정상에는 민묘(강씨묘)가 들어서 있다. 봉분과 상석, 망주석, 장대석 기단이 조성되어 있다. 봉분과 주변에 낮은 잡목이 자라고 있어 근래에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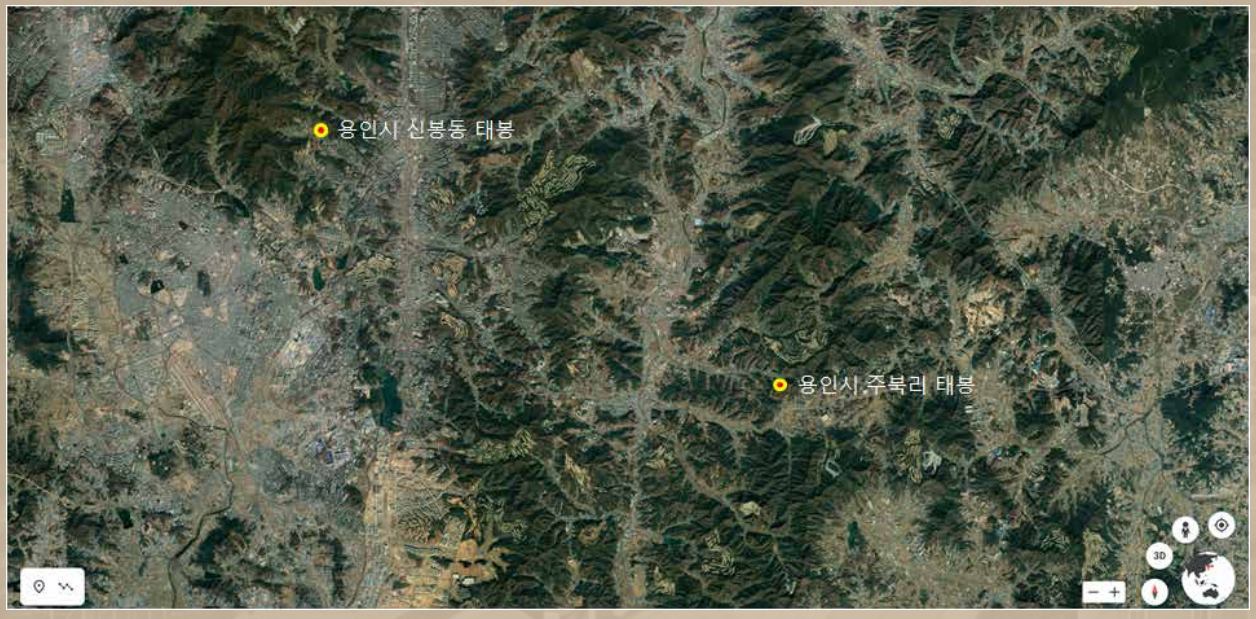
태봉 정상과 주위에서 장태와 관련한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태봉 정상 강씨묘

14 연천문화원, 1995, 『鄕土史料集』, 이화상사, 413쪽.

용인시
YONGIN CITY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5

용인시

1) 용인시 신봉동 태봉
2) 용인시 주북리 태봉

신봉동 태봉 자리

1)

용인시 신봉동 태봉골

태 주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33-1
좌 표	37°20′03″N / 127°03′46″E

신봉마을6단지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서쪽에 택지개발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곳에 강태봉, 또는 태봉이란 지명이 있었다. 현재는 사면을 따라 평탄화 되어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2018년 항공사진(Daum 지도)에 태봉을 깎아 채취한 토사를 낮은 곳으로 옮겨 성토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용인 지역에서 장태 이야기가 전해지는 유일한 곳으로, 성남 대장동 태봉을 조사할 때 고기리 주민(금토부동산)도 태를 묻은 태봉은 신봉동 태봉으로 알고 있었다. 1960년에 용인지방에서 출토되었다는 연산군의 왕녀 貞壽阿只氏의 장태지로 추정하기도 하였다.[01]

1. 2008년 항공사진(Daum 지도)
2. 2018년 항공사진(Daum 지도)

0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I, 33쪽.

주북리 태봉 전경

2)

용인시 주북리 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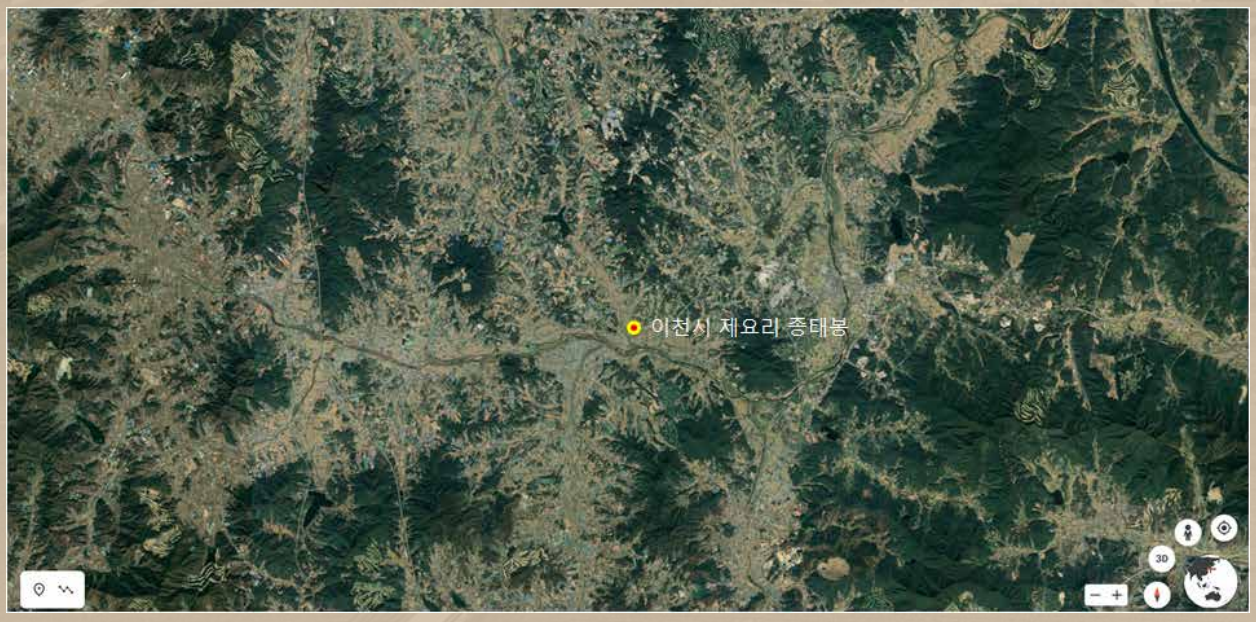
태 주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산102-21
좌 표	37°23′59″N / 127°31′34″E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뒤, 북서쪽에 위치한 완만한 산세를 가진 산으로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이 태봉산 동쪽 능선 아래에 뚫려 있다.

태봉산이라 불리울 뿐 장태와 관련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A·R·T
이천시
Icheon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6

이천시

1) 이천시 제요리 종태봉

1)

이천시 제요리 종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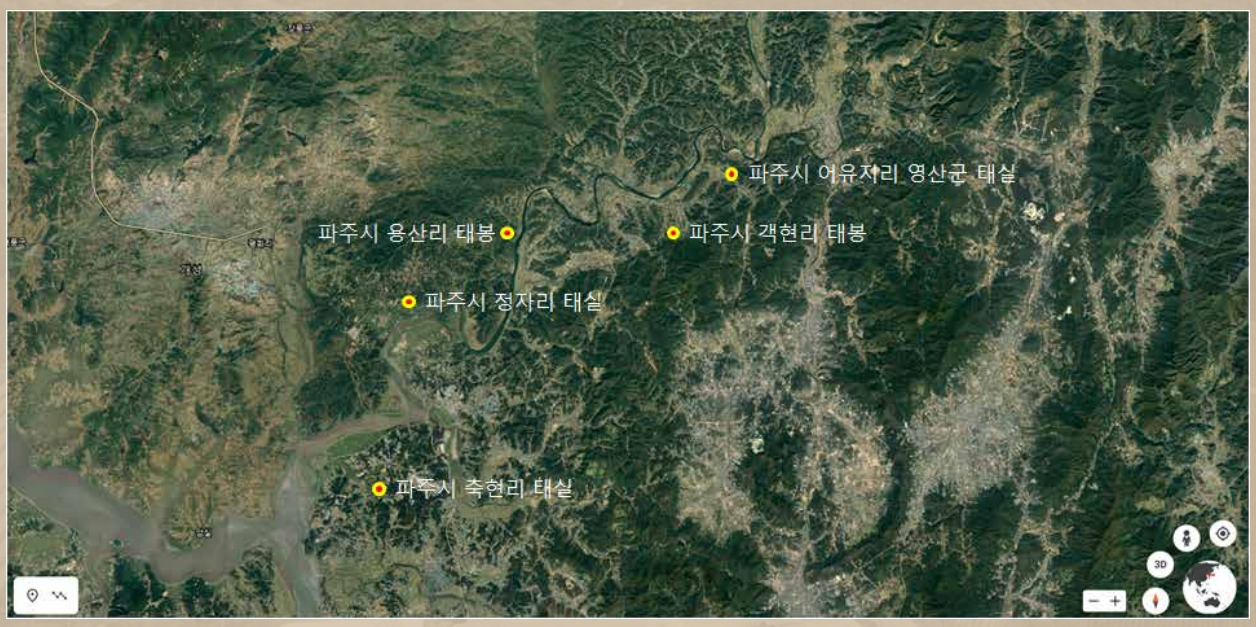
태 주	
소재지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산35-1
좌 표	37°06′23″N / 127°33′31″E

제요3리 마을회관 남동쪽에 있는 구릉이다. 마을 뒷산을 어느 왕의 태를 묻은 곳이라고 하여 '종태봉宗胎峯' 또는 삼태봉三胎峯이라 부르는 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종태봉宗胎峯의 종宗은 종鍾의 오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마을 앞에 넓은 궁전宮田이 있어 많은 일꾼들을 동원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종을 매달아 놓고 이것을 울려 일꾼들을 통제했던 데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01] 장태유적은 전하지 않는다.

01 경기도, 1987, 『지명유래집』, 801쪽.

PAJU
파주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7

파주시

1) 파주시 객현리 태봉
2) 파주시 어유지리 영산군 태실
3) 파주시 용산리 태봉
4) 파주시 정자리 태실
5) 파주시 축현리 태실

1)

파주시 객현리 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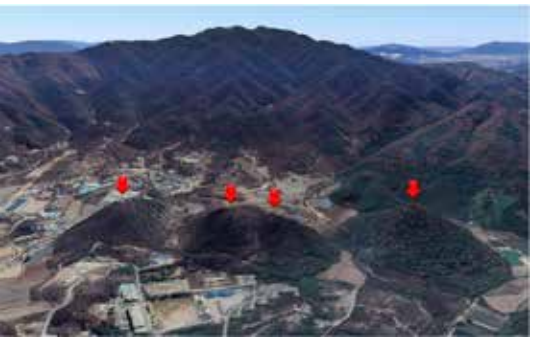
태 주	
소재지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71, 산69
좌 표	37°57′44″N / 126°57′13″E

감악산(675m) 북쪽 산자락의 끝단에 봉우리 네 개가 나란히 솟아 있다. 객현1리 마을회관에서 남쪽 정면에 솟아 있는 감악산 아래에 갓태봉이 있고, 서쪽으로 비슷한 모양의 봉우리 4개가 연이어 솟아 있다. 가운데 봉우리 두 개는 붙어 있고, 좌, 우측 봉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다. 현재 객현리 마을에 태봉이란 지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태봉이란 지명의 연유도 전해오지 않고 있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편찬한 『조선의 태실』Ⅲ에는 동쪽의 가장 큰 태봉이 마을 쪽에 있다 하여 갓(邊)태봉, 안쪽에 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태봉을 장군태봉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이들 태봉은 왕실의 태를 묻었거나 하는 전설은 전하지 않고 있다.[01] 서쪽의 봉우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갓태봉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갓태봉은 정상에 대공초소가 들어서 있고, 8~9부 능선상에는 교통호, 참호 등 군사시설이 있다. 장군태봉 정상에도 참호, 교통호 등의 군사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장태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객현리 태봉 구글어스 3D뷰



0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Ⅲ, 35쪽.

2)

파주시 어유지리 영산군 태실

태 주	영산군(寧山君:1490.9.24.-1538.6.11)
소재지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산 76-1, 산77
좌 표	37°59′42″N / 126°59′44″E

어유지리 태봉은 어유지리 태일台日[02] 마을 뒤에 위치한 봉우리로 왕자의 태를 묻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현재 태일 마을이 있었던 곳에는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어유지리 태봉은 남동에서 북서방향으로 길게 뻗은 산자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끝이 솟아오른 돌혈모양을 하고 있다. 태봉 정상에는 오래된 군사시설이 남아 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유지리 태실은 일제 강점기에 서삼릉으로 옮겨진 후 정상에 민묘가 들어서면서 훼손되었고, 이후 군 초소가 들어섰다. 태함 함신은 1980년대까지 남아 있었으나 태봉 아래로 굴러떨어져 밭에 묻혀 있다고 하며, 안태비는 지금도 태봉 정상에 묻혀 있다고 한다.[03]

02 파주군, 1995, 『파주군지』 中 문화재와 민속, 938쪽. 감악산 동맥 골짜기를 흘러내린 물이 이 마을을 지나는데 홍수 때 물난리를 겪게 되자 해가 나기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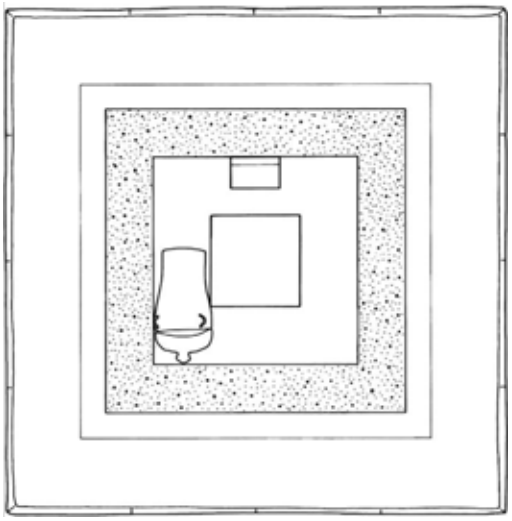
03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 169쪽.

1 2 1. 어유지리 태봉 근경(동→서) 2. 태봉 정상부 모습
3 4 3. 서삼릉 영산군 태실(앞) 4. 서삼릉 영산군 태실(뒤)

어유지리 태봉에 있던 태실은 일제 강점기 때 서삼릉으로 옮겨진 성종成宗과 숙용심씨淑容沈氏의 소생 영산군寧山君 태실이다. 서삼릉 태실의 영산군 태실 비문 뒷면에는 '自漣川郡積城面移藏'이라 새겨있는데, 어유지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연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11월에 파주군으로 편입되었다.

서삼릉의 영산군 태실은 다른 태실이 원형 시멘트관에 안치된 것과 달리 방형의 틀을 짜서 만들었다. 바닥 중앙에는 대리석 받침(36×36×9cm)이 놓여 있고, 덮개돌은 4개의 돌을 얹었다. 태실에서는 태항아리 내·외호, 태지석, 동전이 출토되었다. 태항아리는 서남쪽 벽에 치우쳐서 뚜껑이 남쪽을 향한 채 누워 있었다. 내호는 21.8×8.9cm, 외호는 34.7×20.5cm이다. 장방형의 대리석으로 만든 태지석(20.5×24×3.3cm)은 북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04] 태지석 명문은 '皇明弘治三年閏九月二十四日亥時生 王子福崇阿只氏胎 弘治七年八月二十五日寅時藏'이다. 동전은 朝鮮通寶이며 태항아리 내호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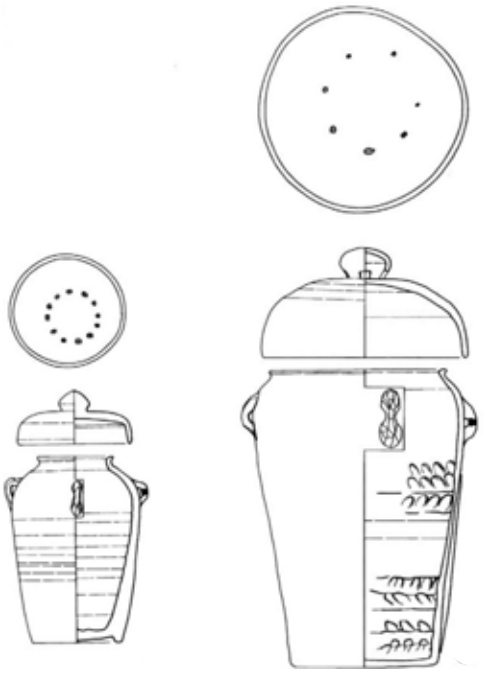
0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서삼릉 태실』, 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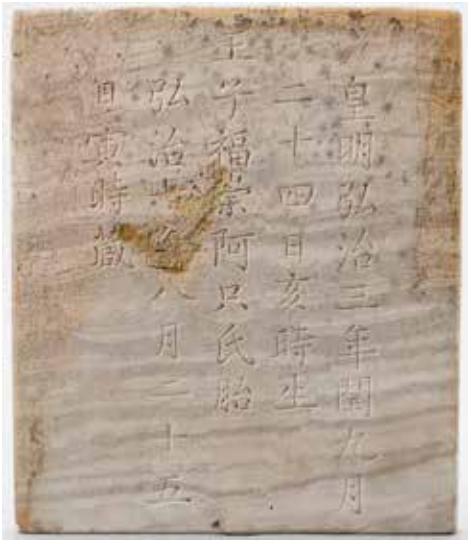


1 2 1. 서삼릉 영산군 태실 2. 서삼릉 영산군 태실 실측도면

3 4 3. 영산군 태항아리 외·내호(능원 63-4,2) 4. 영산군 태항아리 실측도면

5 6 5. 영산군 태지석(능원 63-1) 6. 영산군 태실 출토 조선통보(朝鮮通寶)





용산리 태봉 3D 뷰(구글어스)

3)

파주시 용산리 태봉

태 주	
소재지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산7
좌 표	37°57′29″N / 126°49′36″E

용산리 태봉은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2~1993년 실시한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그 존재를 알렸다. 당시 임진강이 바라보이는 비룡산 모녀봉(99.8m) 정상에서 진지공사 도중 백자소호와 접시를 발견하여 수습한 병사를 조사단이 발견하고 일대를 조사하였다. 봉우리 정상을 50~60cm 삭토하여 교통호와 참호를 만들었는데, 주위에 치석된 석재가 많이 보여 석축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05]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장태와 관련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모녀봉 정상 주위에서 수습한 유물도 장태와 무관한 유물이었다. 태봉 위치도 모녀봉 정상으로 추정하였으나, 주변일대의 지형지세를 살펴볼 때 모녀봉보다는 골짜기 안쪽에 위치한 작은 봉우리가 태봉의 형상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는 모녀봉을 비롯한 주변 일대가 군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다.

0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편, 281쪽.

1. 용산리 태봉 추정지 2. 용산리 모녀봉

4)

파주시 정자리 태실

태 주	
소재지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67
좌 표	37°55′15″N / 126°44′59″E

정자리 태봉은 옛날부터 태봉으로 알려져 왔다. 『海東地圖』와 『廣輿圖』 長湍府에 백련촌白蓮村에 태봉을 표시했는데, 정자리 태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06] 그러나 당시에는 민통선 이북지역으로서 태실과 관련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었다. 이후 2019년 파주향토문화연구소의 민통선 조사 에서 정자리 태실이 확인되었다.[07]

정자리 태실은 수내천을 내려다보는 나지막한 구릉의 정상에 위치한다. 주변 일대의 구릉 대부분이 낮은 잔구성 구릉을 이루는 상황에서도 태봉은 구릉 끝에서 솟구쳐 오른 돌혈형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자리 태실은 정혈 부분이 움푹 파여 있어 도굴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2m 가량이며, 구덩이 중심에서 동쪽으로 3m 떨어진 약간 낮은 곳에 안태비가 있다.

0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260쪽. 2008년 『조선왕실의 태봉』(2008)에서는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태봉산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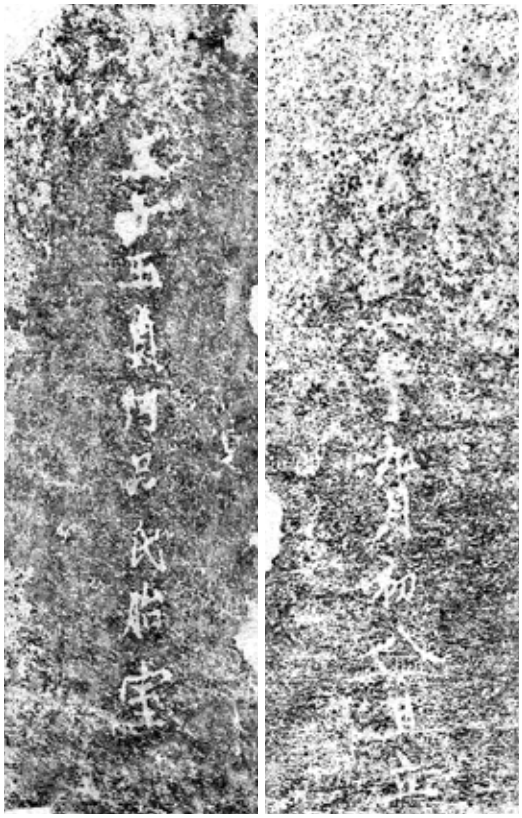
07 차문성, 2019, 「정자리 胎室 현황보고」, 『파주민통선, 문화유적보고서』, 파주문화원, 266-269쪽.

1
2 3

1. 태봉 정상
2. 정자리 안태비(앞)
3. 정자리 안태비(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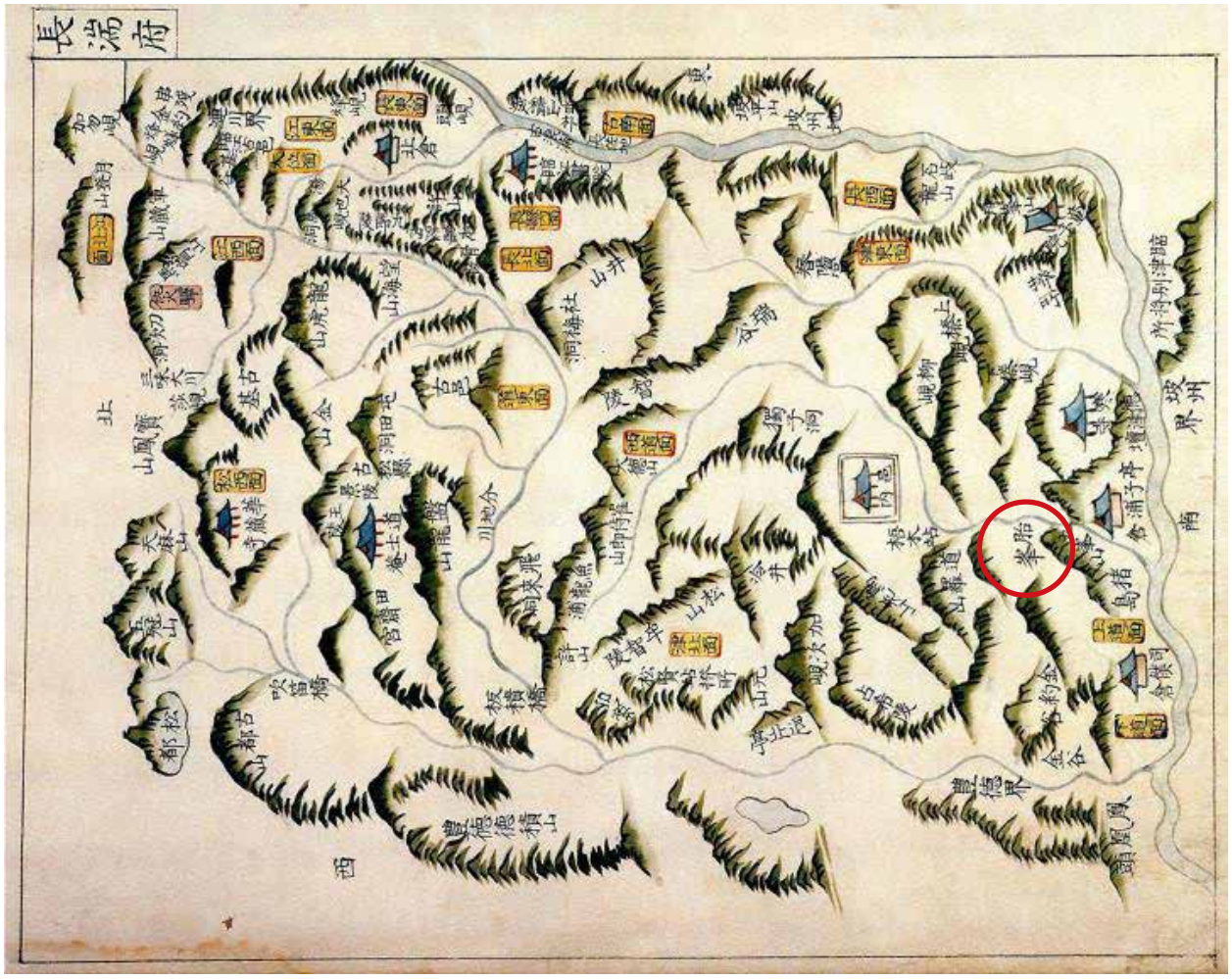
안태비는 모두 한 돌로 만들었고, 비수는 말각형으로 비수와 비신을 구분하지 않았다. 비대는 직사각형으로 문양은 장식되지 않았다. 크기는 땅에 묻힌 기단을 제외하고 길이 107cm, 너비 47cm, 두께 29cm이며, 명문은 '王子玉良阿只氏胎室(앞) 弘治六年九月初八日立(뒤)'로 1493년(성종 24) 9월 8일에 세웠다. 비석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총탄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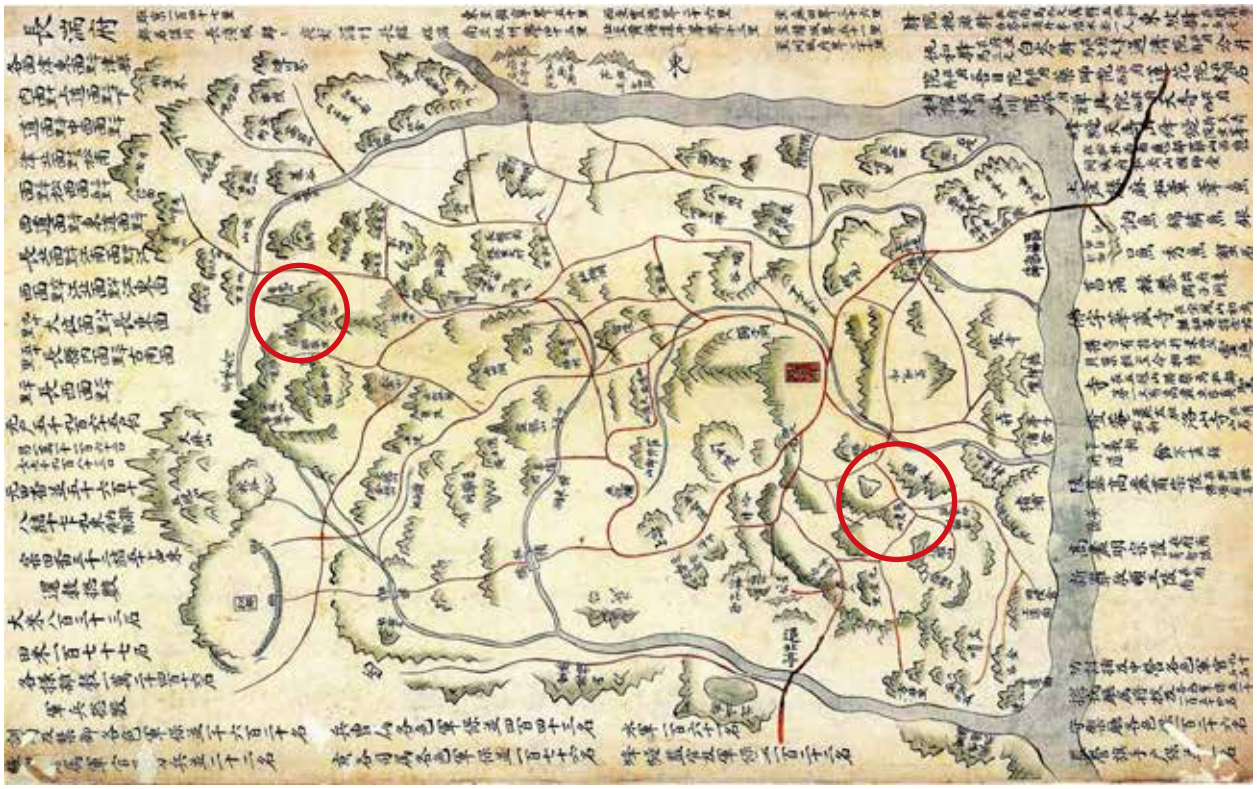
태주는 아명이 玉良인 1493년 9월 8일 이전에 태어난 성종의 왕자임을 알 수 있으나, 성종의 왕자 가운데 玉良이란 아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성종의 왕자 가운데 弘治6年 이전에 태어났고 태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명도 명확하지 않은 이성군利城君(1489-1552), 경명군景明君(1489-1526), 전성군全城君(1490-1505), 무산군茂山君(1490-1525) 가운데에 어느 한 분이 태주일 가능성이 있다.[08]



1. 탁본(앞) 2. 탁본(뒤)

08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 II, 167쪽.





1. 광여도 장단부 2. 해동지도 장단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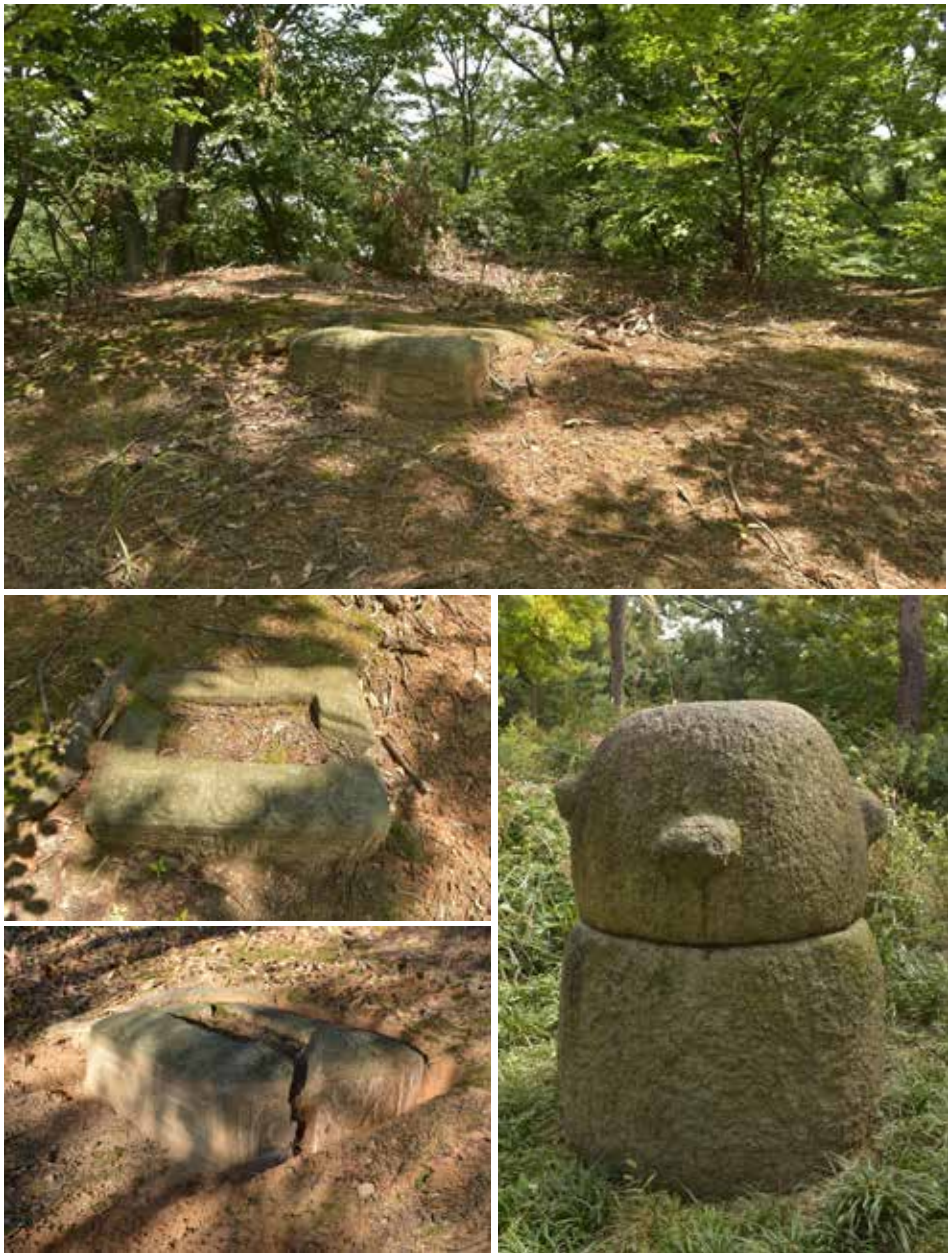
파주시 축현리 태실

태 주	
소재지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산96-1
좌 표	37°48′32″N / 126°43′59″E

탄현면에서 축현리 방향으로 가다 덕술교를 지나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200m 거리에 축현리 태봉이 있다. 태봉안이라고도 부르며 태봉 아래 마을을 태봉골이라 한다.[09] 축현리 태봉은 월롱산에서 북쪽으로 내리뻗은 산자락의 서쪽 능선에 해당하며, 능선 끝에서 솟아오른 돌혈모양을 갖추고 있다. 태봉 뒤쪽에는 진성군珍城君 이해령李海齡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태봉 정상에는 비석받침이 남아 있고, 태함이 있었던 자리에는 직경 3m 크기의 함몰구덩이가 남아 있다. 태함은 1981년 11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되어 박물관 앞뜰에 전시되어 있다. 현재 주민들 중에 태비를 봤거나 기억하는 이는 없지만, 『조선의 태실』Ⅲ[10]에는 해방 초기까지 태비가 남아 있었고, 주민들에 따르면 태봉 정상 주변에 매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09 파주군, 1995, 『파주군지』 中 문화재와 민속, 792-793쪽
10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I, 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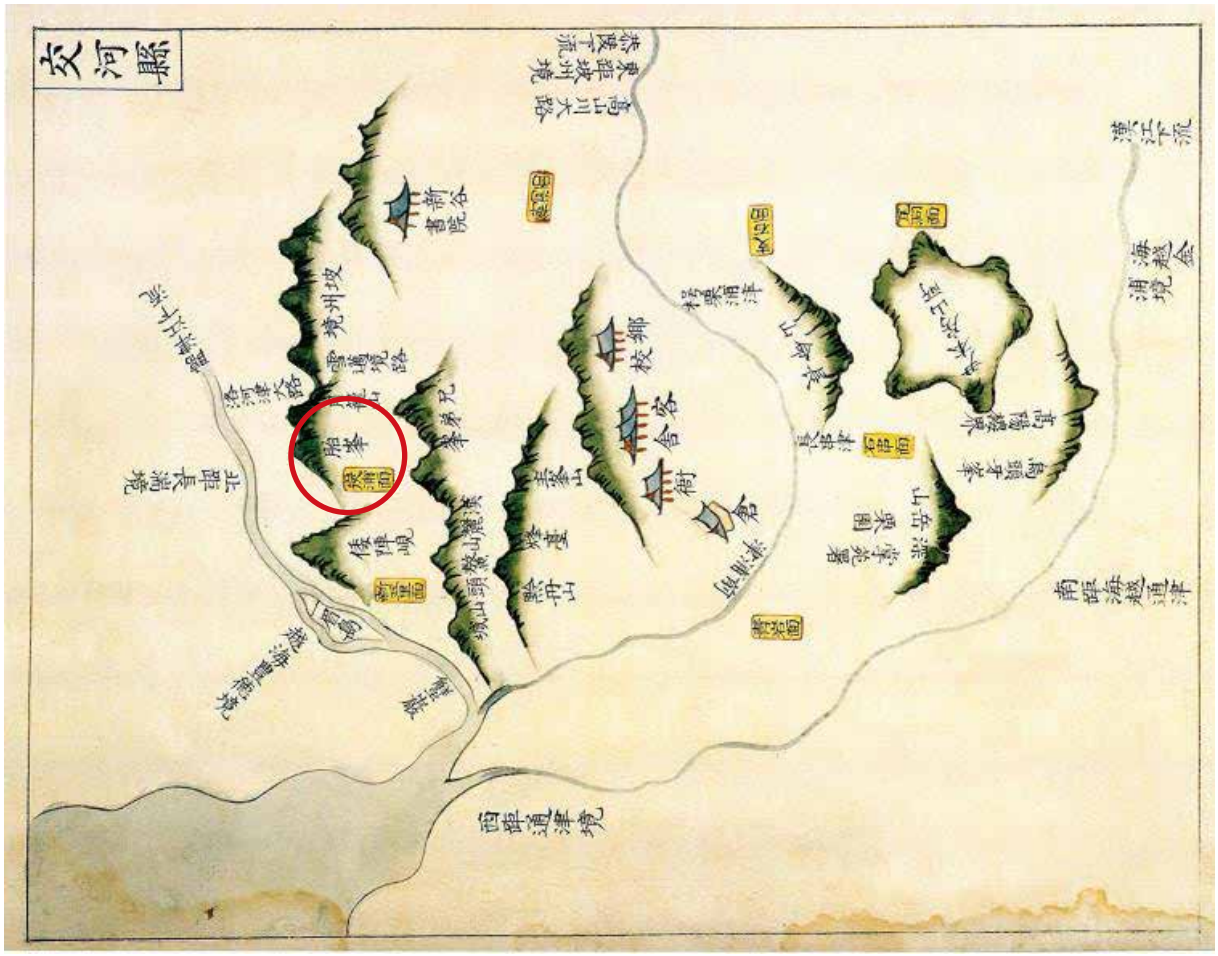


1
2 3
4

1. 태봉 정상부 모습
2·3. 비대(안상문과 초화문)
4. 태함(국립중앙박물관)

비대는 두 조각으로 깨진 상태이며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윗면에 조각하였고, 앞·뒷면에는 안상 각 2개를 장식하였으며, 양 측면에는 초화문 각 1개를 새겼다. 드러난 크기는 87×64×25cm이다. 태함의 함개는 네 개의 귀가 달린 반구형이며, 함신은 원형 감실의 원통형이다. 이런 모양의 태함이 조성된 시기는 17세기 중후반(1645~1699)으로 보고 있다.[11]

11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3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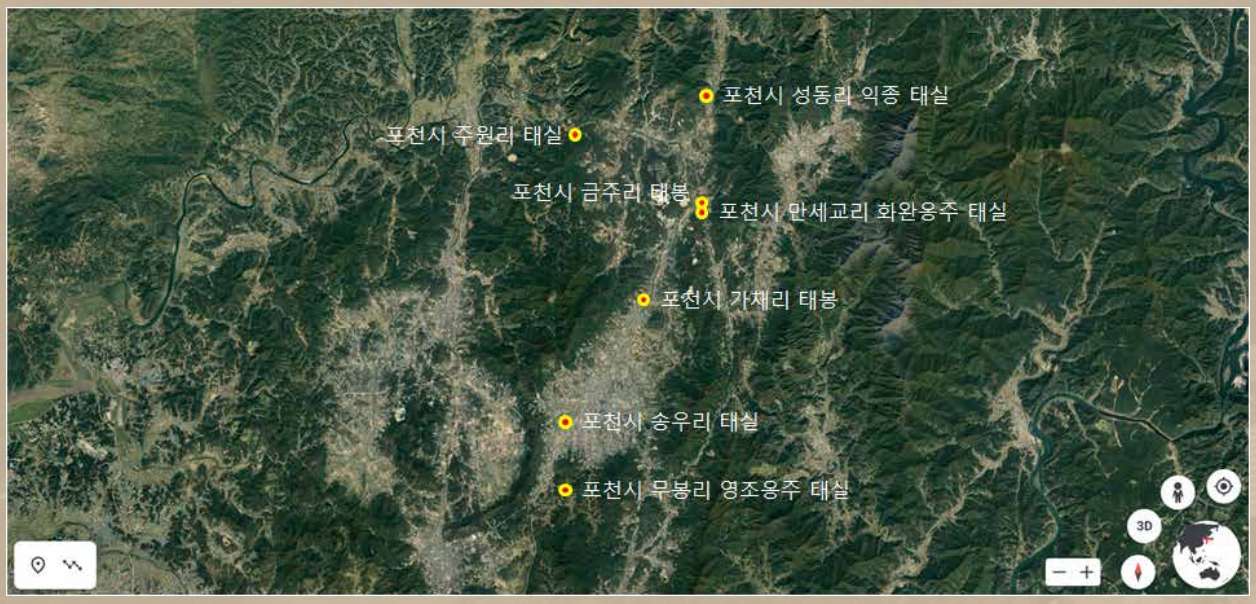


광여도 교하현

해동지도 교하군

평화로 만들어 가는 —
행운의도시 포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8

포천시

1) 포천시 가채리 태봉
2) 포천시 금주리 태봉
3) 포천시 만세교리 화완옹주 태실
4) 포천시 무봉리 영조옹주 태실
5) 포천시 성동리 익종 태실
6) 포천시 송우리 태실
7) 포천시 주원리 태실

1)

포천시 가채리 태봉

태 주	
소재지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14
좌 표	37°54′34″N / 127°12′31″E

포천 가채리 태봉은 지형도 조사과정에서 지명을 확인한 것이다. 서쪽의 원수봉(404m)에서 동쪽으로 내리뻗은 산자락의 끝에 솟은 봉우리이다. 주산에서 이어지는 산줄기 능선에는 최익현 선생을 기리는 사당인 채산사(경기도기념물 제30호)가 있다.

가채리 태봉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태봉의 생김새와 주변지형조건을 보면 전형적인 돌혈자리임을 알 수 있다.

태봉 정상은 교통호, 참호 등 오래된 군사 시설이 조성되면서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봉의 북쪽 일부가 깎여나간 상태이다.

장태와 관련한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2)

포천시 금주리 태봉

태 주	
소재지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480
좌 표	37°58′08″N / 127°15′24″E

만세교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m 거리에 금주리 태봉이 솟아 있다. 금주리 태봉은 평지에 솟은 평지돌혈로 금봉[01]이라고도 부른다. 태봉 정상과 주변에는 오래된 군 참호와 교통호가 남아 있고, 남쪽 사면에는 민묘가 들어서 있다. 금주리 태봉의 태실은 일제 강점기에 도굴되었다고 전한다. 1980년대에는 군부대 공사시 둘레가 1m 가량 되는 가마솥 모양의 석재가 뒤집어진 채로 출토되었으나 다시 매몰하였다고 한다.[02] 또한 이응수씨(67)에 의하면 군 참호를 파다가 태함이 나왔는데, 뚜껑은 태봉 북쪽사면에 다시 묻었고, 함신은 영평천변의 익종태봉공원에 옮겨놓았다고 한다. 『조선의 태실』Ⅲ에는 금주리 태실의 태석을 성동천변의 익종태봉공원으로 옮기면서 익종 태실의 태석과 뒤섞이게 되었는데, 작은 碑臺를 금주리 태실의 것으로 보고 있다.[03] 그러나 현재 익종태봉공원에는 비대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금주리 태실의 태주는 전하는 말에 따르면 조선 인종仁宗의 어린 딸인 아기공주의 태실이라고 전하지만, 인종은 후사가 없었다.

익종태봉공원내 금주리 태실 태함(추정)

01 포천문화원, 2006, 『포천의 지명유래집』, 376쪽.
02 단국대학교사학과·포천군, 1998,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98쪽.
03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Ⅲ, 39쪽.

3)

포천시 만세교리 화완옹주 태실

(포천시 향토유적 제23호)

태 주	화완옹주(和緩翁主)
소재지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13-2
좌 표	37°57′52″N / 127°15′08″E

만세교에서 동쪽으로 300m 거리에 만세교리 태봉이 있다. 금주리 태봉에서는 약700m 남쪽에 위치한다. 산 아래에는 한국불교금강선원대원사가 있다. 태봉 일대에는 군사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태실 바로 아래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도굴되어 태항아리와 태지석은 없어진 상태이다. 태봉 정상에 안태비와 태함 개석이 있는데, 군데군데 파헤쳐지면서 안태비의 비대 한쪽 바닥이 드러난 상태이다. 태실의 보존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안태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는데, 비신의 앞·뒤가 바뀌어 세워져 있다. 비수는 삼각형으로 연잎만 장식하여 아주 간략화 되었고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되었는데, 아주 약화되었다. 비대는 말각형이며, 문양이 없다. 비문은 '乾隆三年正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乾隆三年三月二十六日午時立(뒤)'이며, 1738년 3월 26일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04] 안태비의 크기는 비대 85

04 심현용, 2016, 『한국태실연구』, 경인문화사, 274쪽.

×60×35cm, 비신 133×43×18cm이다. 태함은 함개만 노출되어 있는데, 평면 원형으로 옆면을 수직으로 하고 상부는 나지막하게 둥글며,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상부에는 아주 낮게 돌출된 평면 원형의 보주가 있다.[05]

태주는 영조 14년(1738) 1월 19일 출생한 옹주이며, 출생년도가 1738년인 영조의 왕녀는 화완옹주和緩翁主 뿐이다. 태실 건립 기록은 『胎峯謄錄』 무오(1738)년 2월 18일 기사가 있다.[06]

> *관상감의 첩정에 '금년 무오년 정월 19일 축시丑時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 장태사를 전교 받았습니다. 태봉은 경기도 포천현 북면北面 만세교萬世橋 동쪽 을좌신향乙坐辛向으로 낙점하셨으므로, 장태 길월吉月을 오는 3월 26일 오시午時로 하였습니다...*[07]

1 1. 만세교리 태실 정상 근경
2 3 2. 안태비 3. 태함 개석

05 심현용, 위의 책, 342쪽.
06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 224쪽. 책에는 태봉등록 무오(戊午, 1738) 2월 16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2월 18일의 오기로 보인다.
0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역태봉등록』, 300쪽.

4)

포천시 무봉리 영조옹주 태실

태 주	영조 8왕녀
소재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32
좌 표	37°47′05″N / 127°08′36″E

무봉2리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 보호수 울타리 안에 안태비와 태함이 있다. 무봉리 태봉산에 있던 석물을 옮겨온 것이다. 윤지용(85)에 의하면 '무봉리에서 이곡초등학교로 고개를 넘어 학교를 다녔는데, 고갯길에서 좀 더 올라가면 태봉이 있었다. 태봉 정상에 석함과 비석이 있었고 석함 뚜껑은 아래 골짜기에 있었는데, 개인이 가져간 것을 마을 주민들이 다시 회수한 것이다. 그 일로 태봉 정상에 누워 있던 비석과 석함도 지게로 져서 마을회관 앞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태봉은 무봉리 마을에서 절골로 올라가는 길 우측의 태봉골에서 이곡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남쪽 능선에 뾰족하게 솟아 있다.[08] 정상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길게 뻗은 장방형으로 편평하다. 정상 가운데에 함몰구덩이가 남아 있고, 무봉리를 바라보는 북쪽 3.5m 거리에 비대 자리로 추정되는 작은 구덩이 있다.

비는 별석으로 만들었다. 비수는 삼각형으로 연잎만 장식하여 완전 도식화되었으며, 옆면은 1단이다. 상부는 연봉만 장식되는데,

08 포천군지편찬위원회, 1997, 『포천군지』下, 504쪽.

무봉리 태봉 전경

연봉 상부가 일부 파실되었다. 비대는 말각형이며, 문양이 없다. 비문은 '雍正十三年九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胎室(앞) 雍正十三年十一月二十六日辰時立(뒤)'이다. 이로 보아 입비 시기는 1735년 11월 26일이다.[09]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측면을 수직으로 하고 상부는 나지막하게 둥글며, 하부는 편평한 원뿔형이다. 상부에는 아주 낮게 돌출된 평면 원형의 보주가 있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이다.[10]

태주는 안태비 명문대로 영조와 귀인조씨貴人趙氏 소생의 영조 8왕녀이다. 『태봉등록』 영조 을묘년 10월 21일 기사에 장태 기록이 나온다.

"금년 을묘년 9월 19일 축시丑時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 장태의 일을 전교 받았습니다. 일등태봉으로, 경기도 포천현 서쪽 소흘산면所屹山面 약사동藥師洞 병좌임향丙坐壬向으로 낙점하셨으므로, 장태 길일을 오는 11월 26일 진시辰時로 하였습니다.
공사 시역은 이달 10월 25일 진시로, 개기開基는 오는 11월 19일 진시로, 고후토제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먼저 거행하며, 발태는 오는 11월 25일 묘시卯時에, 태신 안위제는 봉토 뒤에 적당한 때에 행하며, 사후토제는 일이 다 끝난 뒤에 적당한 때에 실행하기로 통틀어서 추택推擇하였습니다." 라고, 예조의 계목에 점련하여 첩정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태어난 옹주 아기씨의 장태 길일吉日과 길시吉時는 첩정대로 시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옹정 13년 10월 21일, 좌부승지 남태경南泰慶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11**

09 심현용, 2016, 앞의 책, 273~274쪽.
10 -------, 2016, 위의 책, 342쪽.
1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역 태봉등록』, 292~293쪽.

1 1. 태봉 정상 근경
2 3 2. 무봉2리 마을회관 앞 태실 석물 3. 안태비와 태함
4 5 4. 안태비 5. 태함

5)

포천시 성동리 익종 태실

(포천시 향토유적 제30호)

태 주	문조(文祖) 익종(翼宗) 효명세자(孝明世子)
소재지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산 95-1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640-1)
좌 표	38°02′11″N / 127°15′33″E

성동리 익종 태봉은 불무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자락 끝이 솟구친 돌혈자리에 위치한다. 태봉 정상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익종 태실은 일제강점기 전국의 태실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해체되었다. 남아 있던 연엽주석과 옹석 등 석조물은 한국전쟁 이후 육군 제5군단에서 인수하여 보관하였다고 전해지며, 1977년 영평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전하였다.

익종 태실 석물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신 이응수(67)님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에 영평천 일대에 방어진지 구축을 했었는데, 그때 석물들이 많이 흩어진 것을 5군단에서 모아 보관하다가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그리고 금주리 태봉에서도 진지공사를 하다가 태함과 덮개돌이 나왔는데, 태함은 소공원으로 옮겼고, 개석은 태봉 북쪽 능선에 다시 묻었다고 한다.

익종翼宗은 조선 순조純祖의 아들, 헌종憲宗의 아버지로, 이름은 영, 자는 덕인, 호는 경헌으로 어머니는 순원왕후 김씨이다. 1812년(순조 12)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827년(순조 27)부터 순조의 명으로 대리청정을 하면서 왕권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4년 후에 22세로 죽었다. 헌종 즉위 후 익종으로 추존되었다. 이에 따라 태

실도 가봉하게 되었다.

익종태실의 가봉은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836년(헌종 2) 3월 경기 영평현 익종대왕 태실에 돌난간을 둘러 가봉하였고, 가봉석물은 석비1좌, 귀대석 1좌, 개첨석 1좌, 중동석 1좌, 사방석 1좌, 연엽주석 8좌, 동자석 8좌, 죽석 8좌, 우전석 8좌, 면전석 8좌, 우상석 8좌, 면상석 8좌, 금표석 1좌로 구성된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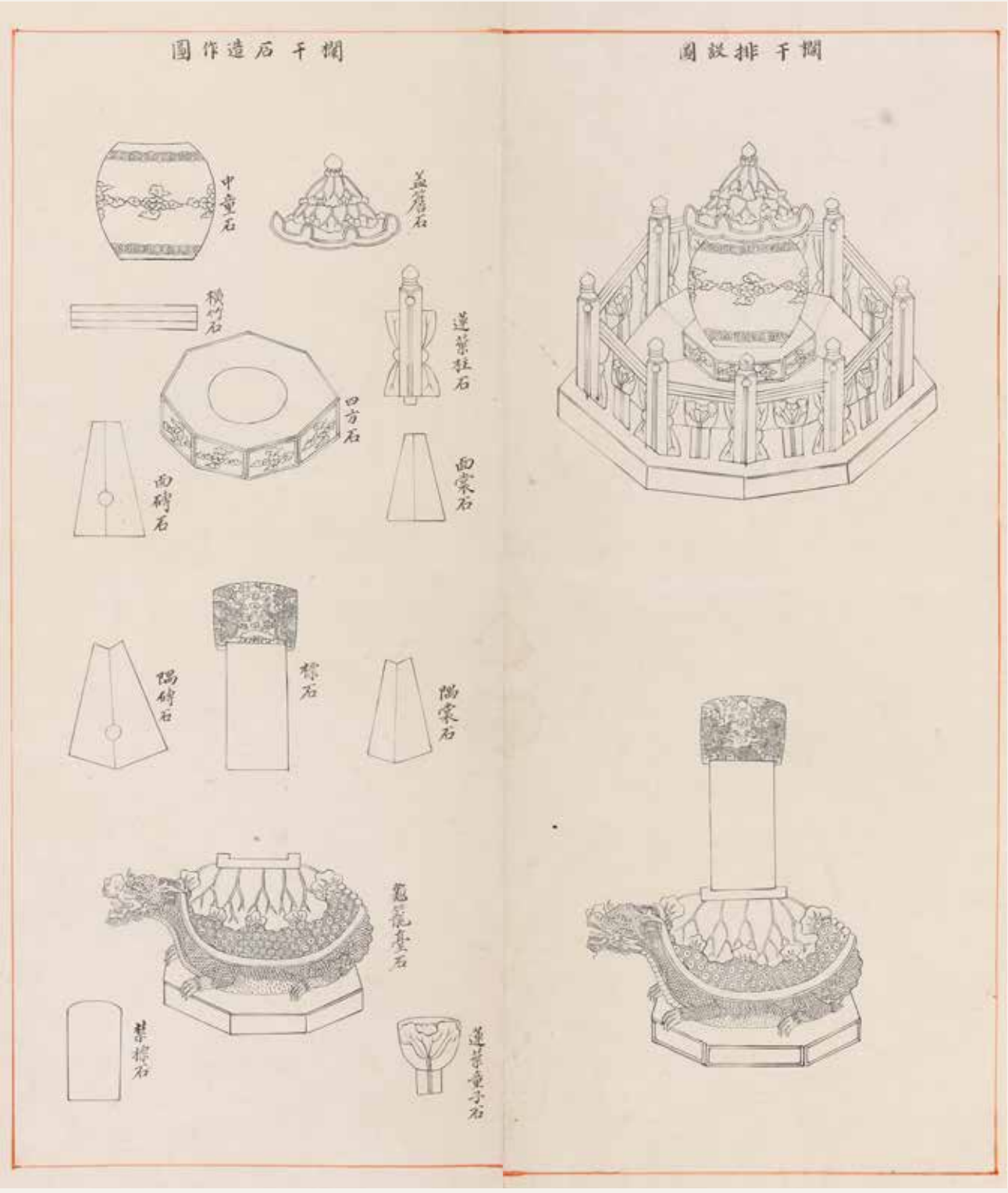
현재 소공원입구에는 연자방아 2기와 하마비가 서 있고, 구릉 위에는 귀롱대석, 중동석, 개첨석, 사방석편, 연엽주석 6기, 동자석 1기, 횡죽석 1기, 상석과 전석 11기, 함신 1기, 태실비 이수편 1기, 사모지붕 이수 1기 등 26개의 석조물이 있다. 연엽주석 2기는 산정호수모텔 정문에 서 있던 것을 2015년 12월 11일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회장 이응수)가 회수한 것이다.

영평천변 소공원 전경

그런데 『조선의 태실』 I 에 수록된 사진에는 소공원에 있는 석물 외에 상석과 전석으로 보이는 다수의 석물과 태함으로 보이는 석물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가봉태실비편도 좀 더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

12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https://kyudb.snu.ac.kr/pf01/rendererImg.do)

13 단국대학교사학과, 1998,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97쪽. 전석 10매(상면에 원형홈이 있는 면전석 6매, 면상석 4매), 우상석 8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귀롱대석 위에는 가봉태실비의 이수편이 옆으로 서 있고, 그 위에 사모지붕 이수를 올려놓았다. 귀부는 머리 정상과 비좌가 수평을 이루며 목이 짧다. 발은 몸체에 붙었으며, 꼬리는 우측으로 향해 있다. 크기는 길이 198cm, 폭 107cm, 높이 85cm이다.

태실비는 용과 여의주가 새겨진 이수 부분만 일부 남아 있다.

사모지붕 이수는 그 전에는 하마비 위에 있다가 다시 옮겨진 것이다. 사모지붕 이수의 형식과 크기는 하마비와도 맞지 않아[14] 태실 석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개첨석은 위에 연봉을 올렸던 자리와 주공이 있고, 정상으로부터 내려온 줄기를 중심으로 8엽의 연꽃잎이 장식되었다. 낙수면 하부에는 합각을 표현하였고, 아랫면에는 부연을 장식하였다. 크기는 높이 79cm, 폭 95cm이다.

중동석은 원통형이며 상하단에 중첩된 고리문을 양각하였고, 측면에는 운문이 있다. 중동석의 크기는 높이 82cm, 폭 79cm이며, 윗면과 아랫면 지름은 52cm이다.

사방석은 팔각형의 절반만 남아 있는데, 안쪽에는 중동석을 놓을 수 있도록 원형 홈이 파여 있다. 옆면에는 중동석 운문과 같은 운문을 작게 양각하였다. 크기는 118cm이고, 안쪽 원형 홈의 지름은 58cm이다. 땅에 묻혀 있어 높이는 알 수 없다.

연엽주석은 바깥쪽에 간지와 팔괘가 새겨져 있다. 子, 卯, 午, 酉 4개의 간지와 乾, 巽 팔괘 2글자가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영조태실까지는 나타나지 않다가 정조태실 연엽주석에서부터 나타난다. 크기는 높이 120cm, 너비 43cm, 폭 30cm이다.

한편 향후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량작업 도중 태봉 북쪽 사면에서 상석으로 보이는 석물 1기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로 미루어 태봉 주변 일대에 석물이 더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봉석물 외에 안태비, 태함, 태항아리 등 아기태실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산정호수모텔 연엽주석 회수 모습(이응수)

2015년 11일 회수한 연엽주석 2기

14 단국대학교사학과, 1998,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97쪽.

1 1. 영평천변 소공원내 익종태실 석물
2 3 2. 귀부 3. 태실비편과 사모지붕 이수
4 5 4. 중동석과 개첨석 5. 중동석 세부

1 2 1. 횡죽석, 동자석, 연엽주석 2. 연엽주석
3 4 3. 횡죽석 12간지 卯 4. 횡죽석 팔괘 乾
5 6 5. 태함 함신 6. 상석과 전석
7 8 7. 사방석 편 8. 횡죽석과 동자석

1 2 1. 하마비 2. 연자방아
3 4 3. 태봉 정상의 민묘 4. 태봉 주변의 가봉태실 석물
5 5. 1999년 영평천변 익종태실 석조물(①태함, ②가봉태실비)

6)

포천시 송우리 태실

(포천시 향토유적 제18호)

태 주	
소재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산28-6
좌 표	37°49′54″N / 127°08′38″E

포천 송우리 태실은 포천시 소흘읍 도심 한가운데 솟은 태봉 정상에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소생 정희왕녀 아기의 태를 태운 재를 묻은 곳이라 하여 왕녀봉이라고도 불린다.[15] 현재 모습은 산지와 동떨어져 평지에 솟은 잔구성 구릉의 평지돌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세지도에는 천보산의 석문령에서 동쪽으로 내려 뻗은 산줄기가 태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세지도

15 단국대학교사학과, 1998,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포천군, 296쪽.

송우리 태실 석물

현재 태봉 정상에는 팔각형 목조 보호각이 세워져 있으며, 보호각 내 석조물 주변에 콘크리트 보도블럭을 놓았다. 태항은 도굴되어 사라졌고, 석대와 개석만 남아 있다. 석대는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지름 97cm, 잔존높이 16cm이다. 석대 상면의 개석은 1993년 소흘면에서 복원하여 올린 것인데, 위가 좁은 원통형이고 크기는 높이 81cm, 윗지름 37cm, 아래지름 95cm이다.

안태비나 태지석 등 태주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없어 태주를 알 수 없다. 『조선의 태실』Ⅲ에서는 석함이 성종, 연산군, 중종 무렵의 석함들과 흡사한 것으로 보고 조선왕실의 태실로 보았다.[16]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이 상부 개석은 복원한 것이고, 하부의 석물은 태함이 아닌 대석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Ⅲ, 38쪽.

7)

포천시 주원리 군자동 태실

태 주	
소재지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248
좌 표	38°00′51″N / 127°09′15″E

주원리 군자동 태실은 군자동 마을 중앙의 태봉산 정상에 있다. 1990년대에 군부대에서 정상부에 진지공사를 진행하던 중 태항이 발견되었고, 청자빛의 태항아리를 수습하였다고 전하지만 행방은 알 수 없었다고 한다.[17]

87번 국도 진군교사거리 남쪽에 주원리 군자동 마을이 있다. 군자동 마을 서쪽 봉우리가 태봉이다. 남서쪽의 종현산(588m)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자락이 끝에서 완만하게 솟은 모양이다. 태봉 정상부는 진지공사로 인해 평탄화된 상태이며 능선을 따라 교통호가 파여 있다. 태봉 앞에는 영평천이 흐르고 있다.

태봉 정상 부근의 교통호 벽면에서 태함을 발견하였다. 태함은 동체 일부가 깨졌으며, 교통호 벽면 상부에 엎어진 상태로 낙엽에 덮여있었다. 진지공사로 인해 태실이 완전히 파괴되고 태함도 원위치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17 포천군지편찬위원회, 1997, 『포천군지』下, 505쪽.

1 1. 주원리 군자동 마을과 태봉
2 3 2. 태봉 정상부 모습 3. 태함 노출 전경
4 5 4. 태함(측면) 노출 전경 5. 태함 근경

태함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원통형 몸체에 원통형 감실을 팠다. 노출된 상태의 크기는 높이 70cm, 바닥지름 80cm이고, 바닥에는 지름 13cm, 깊이 25cm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태함 개석, 안태비 등 다른 석물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대에서 수습한 것으로 전하는 청자빛 태항아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진지공사 과정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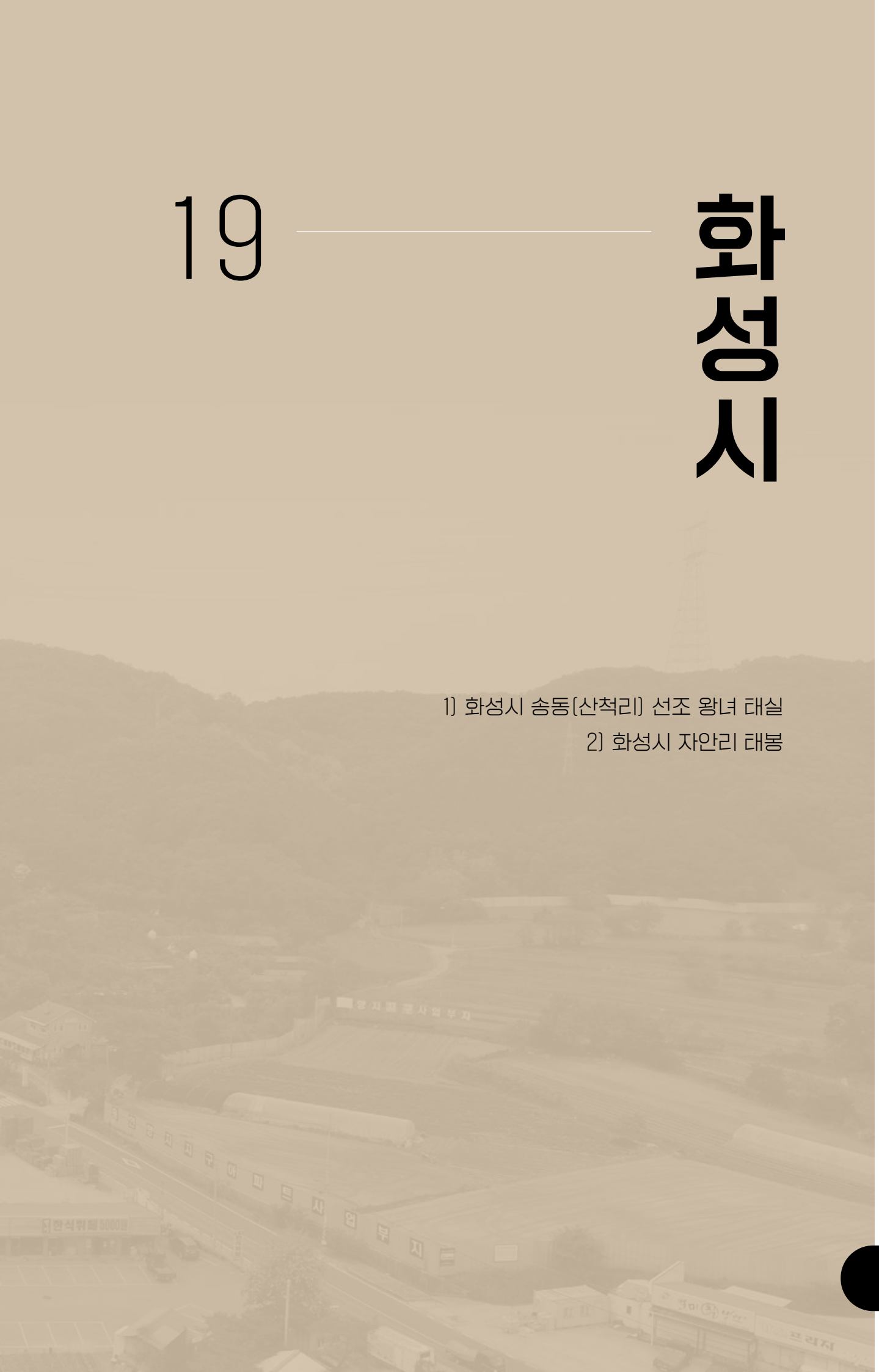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태실 위치도(구글어스)

19

화성시

1) 화성시 송동(산척리) 선조 왕녀 태실
2) 화성시 자안리 태봉



1)

화성시 송동(산척리) 선조 왕녀 태실

(화성시 향토문화재 제17호)

태 주	정숙옹주(貞淑翁主) / 1587-1627
소재지	화성시 송동 727
좌 표	37°10′12″N / 127°05′50″E

구)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183-1 산척저수지 옆 안태봉산에 있었는데, 근래 동탄 신도시 개발로 행정구역이 화성시 송동으로 바뀌었고 산척저수지의 이름도 동탄호수로 변경되었다. 현재 태봉산은 동탄호수와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 일대는 동탄신도시로 개발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근세지도에는 태봉산의 산줄기가 북동쪽의 왕배산(142m)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봉산 아래에 송리松里가 있는데, 삼태봉三胎峯 인근에 소나무가 무성한 숲속에 생겨진 부락이라 송촌, 송리라고 불렀다고 한다.[01] 송동 태봉산이 삼태봉의 하나인지, 아니면 송리에 다른 삼태봉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지만 택지개발로 송리가 있었던 구릉이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태봉산 정상에는 안태비가 서 있는데, 바닥에 세석을 깔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조성하였다. 석함은 땅 속에 묻혀있다고 전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도굴된 이후에도 3~4차례 다시 파헤쳐

01 경기도, 1987년, 『지명유래집』, 370쪽.

1. 안태비 앞면
2. 안태비 뒷면

일제강점기 근세지도(1917년)

졌다고 한다.[02] 안태비는 비대와 비신을 별석으로 만들었는데, 현재 비대의 앞·뒷면이 바뀐 상태로 세워져 있다. 비수는 반원형이며, 연화문이 매우 간략화 되었고 측면은 연대로 구분하여 2단처럼 보이게 조각했으며, 물끊이 홈이 있다. 상부는 무문 원좌를 둔 연봉이 장식되어 있다. 비대는 간엽있는 이중단판 복련 12개를 윗면에 장식하였고, 앞면에는 안상 각 2개를 조각하였으나 뒷면에는 없으며, 양 옆면에는 안상 각 1개를 조각하였다. 비문은 '王女阿只氏胎室(앞) 皇明萬曆十六年七月十一日乙時立(뒤)'으로 비는 1588년 7월 11일 세웠다.[03]

태주는 1588년(선조 21) 이전에 태어난 선조宣祖의 왕녀임을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태주 이름은 알 수 없다. 다만, 화성시에서는 정숙옹주貞淑翁主(1587-1627)의 태실로 추정하였고, 화성시 향토문화재(유형) 제17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02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I, 203쪽.
03 심현용, 2016, 앞의 책, 266쪽.

2)

화성시 자안리 태봉

태 주	
소재지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5-2
좌 표	37°13′01″N / 126°54′06″E

태행산太行山은 화성시 봉담읍과 비봉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태행산 서쪽 자락의 상봉에 태를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04] 청요리 태행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태를 묻었다는 상봉의 지번은 비봉면 자안리에 속한다.

이성계를 잉태한 후 부친 이자춘이 꿈을 꾸었을 때 잉태한 자식의 태胎를 명산에 묻으면 높은 직위를 갖는다고 하여 출산 후 태를 갖고 금강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명산을 찾다가 이곳에 태를 묻었다 하여 태행산胎行山으로 부르다가 세월이 흘러 태행산太行山으로 변음되어 불리우고 있다.[05]

04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III, 40쪽.
05 경기도, 1987년, 『지명유래집』, 4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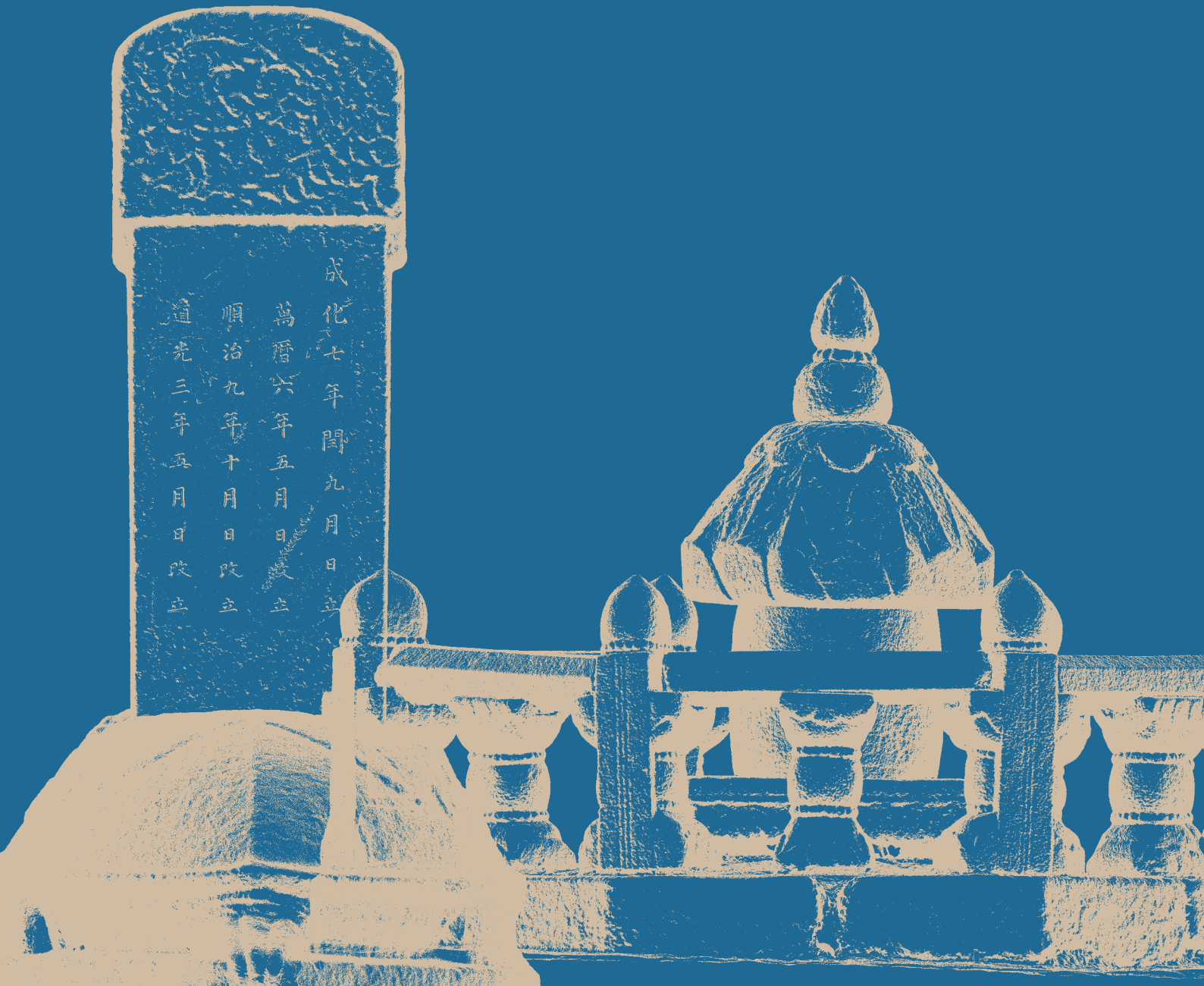
태봉 정상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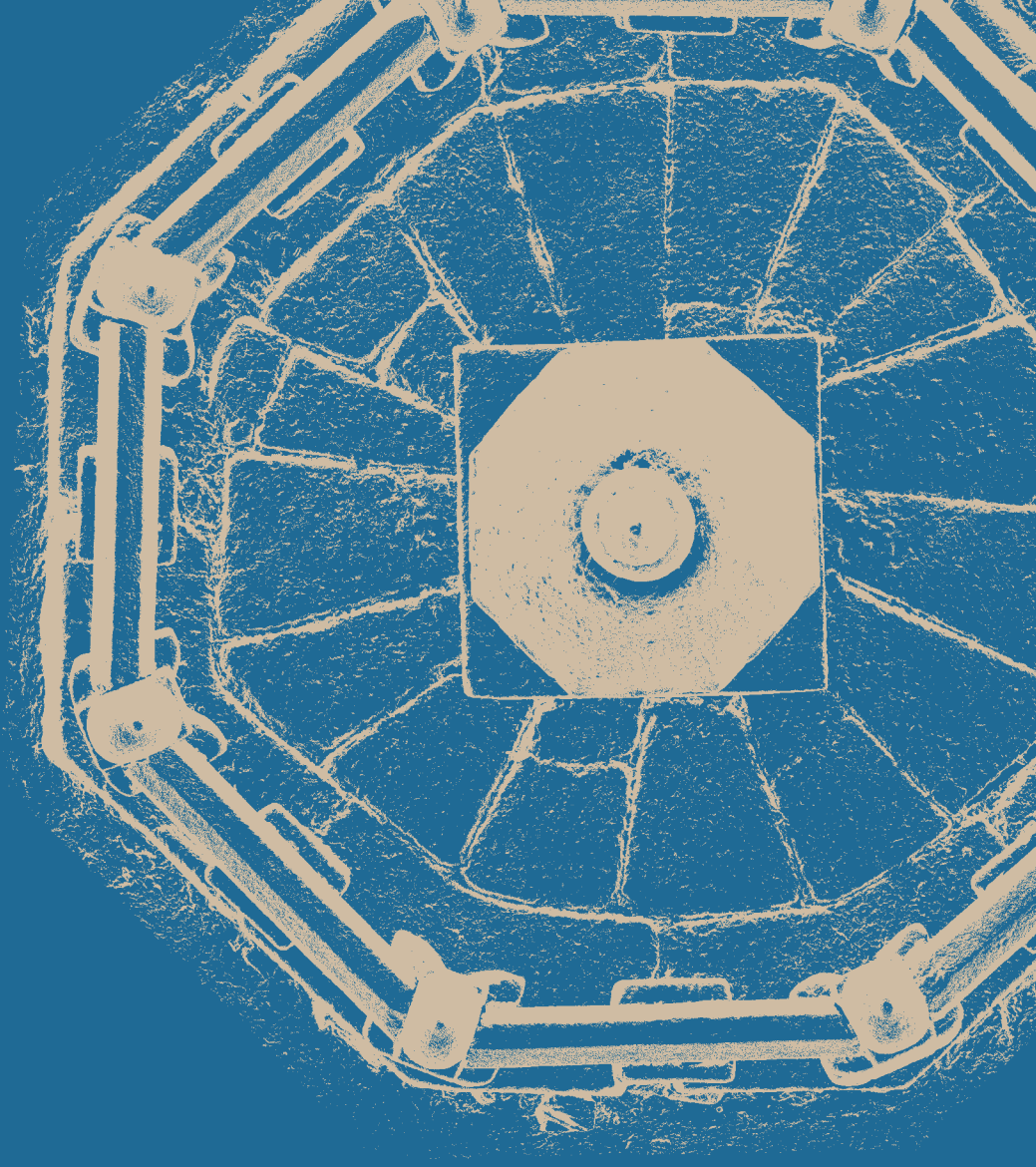
산 정상에서 장태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상봉 바로 위에는 고려시대 비봉면 일대를 관할하던 재양현載陽縣의 치소로 추정되는 포곡식 석축성인 재양현성載陽縣城이 있다.[06]

0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6,『화성시 문화유적분포지도』, 239쪽.

Ⅳ

경기도 태봉 태실 조사 결과





경기도 태봉·태실 조사 결과

1. 태봉 태실 현황

2020년 경기도의 태봉과 태실 조사는 기존 연구성과와 지명유래, 문화유적분포지도, 시·군지 조사 등 사전조사를 거쳐 70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위치를 비정하지 못한 고양 효자동 청담촌 1개소를 제외한 69개소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9개소 가운데 장태 흔적이나 전설이 남아 있는 유적은 분묘병장 2개소를 포함하여 65개소이다. 이 중에서 태주가 확인된 태실은 27개소이고, 안태비, 태함 등 장태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었거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제보를 토대로 유물 추적은 가능하지만 태주를 알 수 없는 태주 미확인 태실은 8개소이다.(표 1)

태주확인 태실 27개소는 가봉태실 3개소, 아기태실 24개소(분묘병장 2개소 포함)으로 구성된다.

가봉태실은 성종成宗, 중종中宗, 익종翼宗 태실 3개소이다. 성종태실은 일제강점기에 이왕직에 의해 창경궁으로 옮겨졌으며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중종태실은 일제강점기에 태실이 반출된 후 방치되어 훼손되어오다가 1982년 다시 발견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를 거쳐 1987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익종태실은 일제강점기 이후 태봉 정상에 민묘가 들어서면서 해체되어 흩어진 것을 한국전쟁 이후 육군 제5군단에서 인수하여 보관하였다가 1977년 영평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전하였다.

태주가 확인된 아기태실 24개소에는 서삼릉 왕자·왕녀묘역의 무덤에 태항아리를 함께 묻은 분묘병장 2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파주 정자리 왕자 옥량 태실과 안성 배태리 성종왕자 태실, 양평 대흥리 왕자 부수 태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파주 정자리 태실은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군사보호구역지표조사에서 『해동지도海東地圖』 장단부의 백련촌白蓮村에 표시된 태봉을 정자리 태봉으로 추정했던 것을 2019년 파주문화원의 민통선내 문화유적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존재를 확인하였다.[01] 안성 배태리 성종왕자 태실은 김희태님의 제보로 확인하였다. 태주 이름이 지워졌지만, 파주 정자리 왕자 옥량 태실과 남양주 광전리 왕자 금수 태실과 같은 해인 1493년(성종 24)에 조성된 성종왕자의 태실로 확인되었다. 양평 대흥리 왕자 부수 태실은 김희원님의 일기를 진한용님이 발굴하여 김희태님이 제보함으로써 태주를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연천 유촌리 태실의 태주가 화억옹주和億翁主가 아니라 화덕옹주和德翁主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밝혔다.

01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9, 「정자리 胎室 현황보고」, 『파주민통선 문화유적보고서』, 파주문화닷컴.

<표 1> 경기도 태봉 태실 조사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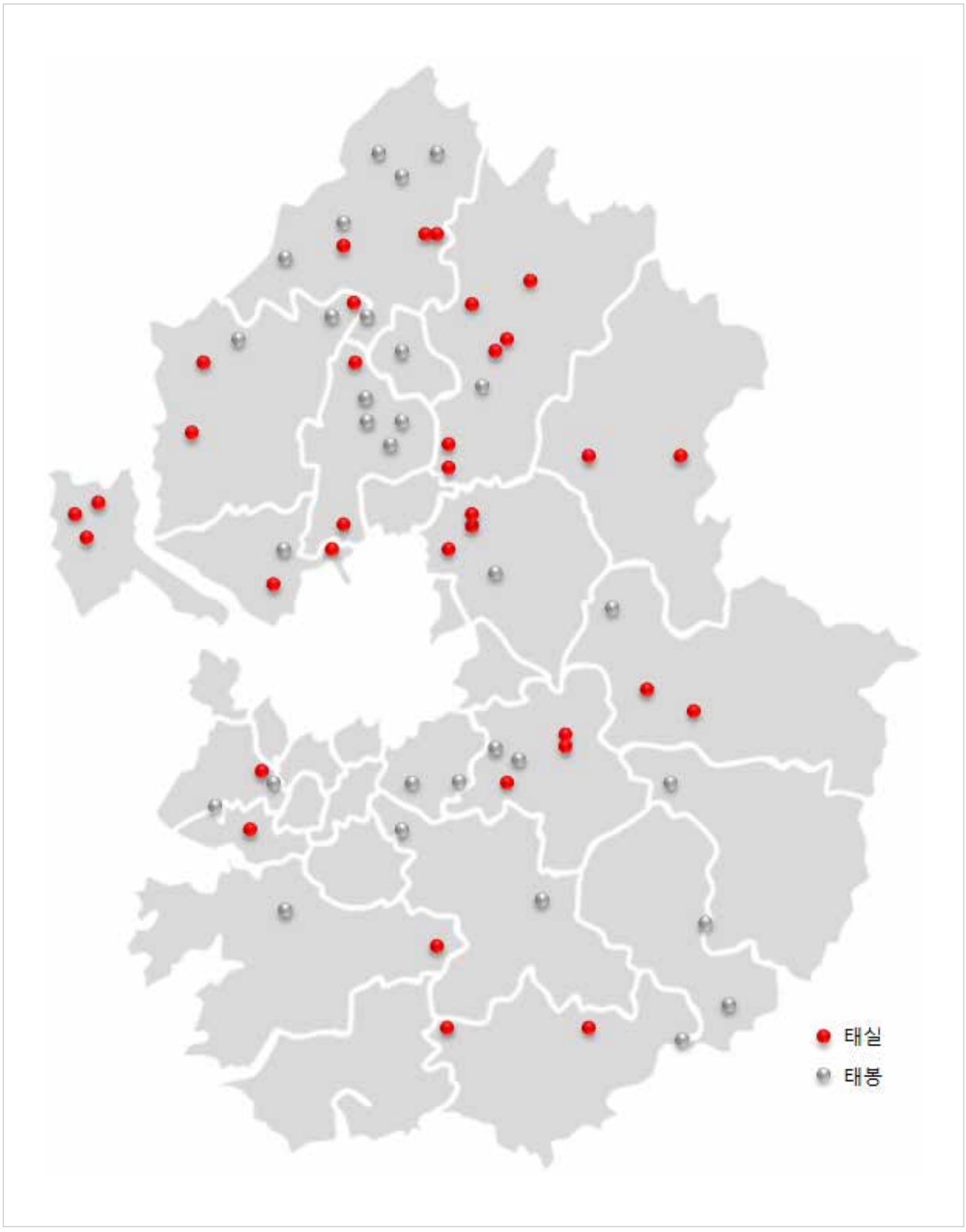
구분		개소	유적명	
분묘 병장	태주 확인	2	고양 대자동 정소공주 태실	고양 신도동 고종4남 태실
태실	태주 확인	25	가평 상색리 중종 태실 가평 태봉리 영창대군 태실 고양 지축동 성종왕녀 태실 광주 태전리 성종 태실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 광주 원당리 왕자돈수 태실 김포 고막리 신성군 태실 김포 조강리 인순공주 태실 남양주 광전리 왕자금수 태실 남양주 내각리 왕자수장 태실 남양주 내각리 배나무골 왕녀영수 태실 안산 고잔동 숙종왕녀 태실	**안성 배태리 성종왕자 태실*** 양주 황방리 정혜옹주 태실 **양평 대흥리 왕자부수 태실*** 양평 옥천리 제안대군 태실 **연천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 연천 동막리 부물현 혜정옹주 태실 파주 어유지리 영산군 태실 **파주 정자리 왕자옥량 태실*** 포천 무봉리 영조8왕녀 태실 포천 만세교리 화완옹주 태실 포천 성동리 익종 태실 화성 송동 선조왕녀 태실
	태주 미확인	8	김포 고양리 태실(안태비) 시흥 무지동 태실(태함) **양주 울대리 태실(주민 제보)*** 양평 대흥리 태실(태함) 연천 동막리 샘골 태실(태함)	파주 축현리 태실(태함, 비대) 포천 송우리 태실(태함) 포천 금주리 태실(주민 제보)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태함)***
태봉		30	고양 벽제동 태봉 광주 목현동 태봉(연산군 태실 추정) 광주 탄벌동 태봉 남양주 금곡동 태봉 동두천 안흥동 독도골 태봉 성남 대장동 태봉 성남 율 동 태봉 시흥 군자동 태봉 시흥 금이동 태봉 안성 화봉리 태봉 양주 상수리 태봉 양주 덕정동 태봉 양주 봉암리 태봉 양주 고읍동 태봉 양평 수입리 태봉	여주 태평리 태봉 여주 외평리 태봉 연천 노동리 태봉 연천 도신리 태봉 연천 두일리 태봉 연천 양원리 태봉 연천 옥계리 태봉 연천 적거리 태봉 용인 신봉동 태봉 용인 주북리 태봉 이천 제요리 종태봉 파주 객현리 태봉 파주 용산리 모녀봉 태봉 포천 가채리 태봉 화성 자안리 태봉

* : 신규 확인 유적 , ** : 태주 변경

태주 미확인 태실 8개소는 모두 아기태실이다. 양주 울대리 태실과 포천 금주리 태실은 장태 관련 유물을 실견하지 못했으나 주민 인터뷰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였기에 포함하였다.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은 『포천군지』[02]의 수록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태함을 찾았다. 양주 울대리 태실과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찾은 태실이다.

태봉 30개소는 장태와 관련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태봉 지명이 남아 있고 돌혈 지형 등 태실이 조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조사에서 태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이 가운데 안성 화봉리 태봉, 연천 두일리 태봉, 용인 신봉동 태봉은 개발로 인해 멸실되었다.

02 포천군지편찬위원회, 1997, 『포천군지』下, 505쪽.



<그림 1> 경기도 태봉과 태실 분포도

2. 경기도 태실 유물

1) 아기태실 유물

아기태실의 유물은 태를 담은 태항아리인 내호內壺와 내호를 담은 외호外壺, 태호에 매단 홍패, 태호 바닥에 놓은 동전, 금판, 은판, 태주의 출생일시와 장태일시를 기록한 태지석, 태호와 태지석을 부장하기 위해 감실을 판 태함, 아기태실의 주인공과 장태시기와 건립시기를 알려주는 표석인 안태비, 동·서·남·북 사방의 통제구역 경계에 세운 금표비로 구성된다.

경기도에서 유물이 확인된 아기태실은 30개소이다. 유물은 안태비 19기, 태함 19기, 태호(내외호) 12점, 태지석 10점, 동전 1점이 확인되었다.(표 2)

안태비는 비신과 비대 전체를 하나의 돌로 만든 일석 비가 10기이고, 비신과 비대가 분리된 별석 비는 9기이다. 일석 안태비는 1466년(세조 12)부터 1505년(연산군 11)까지 세워졌고, 별석 안태비는 1544년(중종 39)부터 1738년(영조 14)까지 세워졌다.(사진 1, 사진 2)

태함은 함개와 함신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19개소에서 함개 19기, 함신 15기가 확인되었다. 함신이 함개보다 적은 것은 땅 속에 묻혀 있어 함개만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함신은 개석 모양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477년(성종 8)부터 1544년(중종 39)까지는 매끈한 반원형 개석이고, 1584년(선조 17)부터 1696년(숙조 22) 까지는 함개에 4개의 돌기가 돋아 있다. 1728년(영조 4)부터 1738년(영조 14) 까지는 함개에 연봉형 보주를 장식하였다.(사진 3)

태호는 태실 8개소에서 내호 6점, 외호 8점이 확인되었다. 가평 중종 태실과 남양주 내각리 왕자 수장 태실의 태호는 외호만 남아 있다. 정소공주 태호는 내·외호 모두 분청자기로 제작되었고, 왕녀 영수 태호는 내·외호 모두 회청색의 경질 도기로 제작되었고, 분청자기 소형접시를 내호 뚜껑으로 썼다. 그런데 정소공주 묘에서 출토된 태항아리는 외호(21.2×14.9cm)와 내호(19.1×14cm)의 크기가 비슷해서 내호가 외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외호 구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종과 중종의 태항아리 외호는 모두 1930년경 일제강점기에 일괄 제작된 것으로, 성종 태항아리의 외호가 유리원판사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03]

태주의 출생일시와 장태일시를 기록한 **태지석**은 11점이 확인된다. 사암, 오석, 대리석 등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 왕녀 영수 태지석은 1929년 남양주 내각리에서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하면서 만들어 넣은 것이다. 태지석은 함신의 감실 벽 태호 앞에 글자가 태호 쪽을 향하게 세워놓는다.

금편은 중종 태실에서 1점이 나왔고, **동전**은 성종 태실과 영산군 태실에서 각각 1점씩 나왔다. 두 점 모두 朝鮮通寶이다.

03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서삼릉태실』, 414쪽.

<표 2> 경기도 태실 조성시기와 유물 현황

연번	유 적 명	태주	장태일 (가봉일)	유물									
				태실비	가봉 석물	안태비		태함		태호		태지석	기타
						身	臺	蓋	身	內	外		
1	가평 상색리 태실	중종	1492.9.7 (1507)	O	O	O		O	O		O	O	금편
2	가평 태봉리 태실	영창대군	1606.7.28			O	O					O	
3	고양 대자동 묘소병장 태실	정소공주	1424.2.25							O	O		
4	고양 지축동 태실	성종왕녀	1477.6.19			O		O					
5	광주 태전리 태실	성종	1458.3.1 (1471.윤9)	O	O					O	O	O	동전
6	광주 원당리 뒤태봉 태실	성종왕녀	1481.7.21 1481.7.24			O(3)		O (3)	O (3)	O	O	O	
7	광주 원당리 앞태봉 태실	왕자돈수	1505.2.19			O				O	O	O	
8	김포 고양리 태실	?	?			O							
9	김포 고막리 태실	신성군	1584.7.25			O	O	O				O	
10	김포 조강리 태실	인순공주	1544.7.18			O	O	O					
11	남양주 광전리 태실	왕자금수	1493.5.4					O	O				
12	남양주 내각리 태실	(왕자수장)	1482.6.23								O	O	
13	남양주 내각리 배나무골 태실	(왕녀영수)	1502.11.12							O	O	O	
14	시흥 무지동 태실	?	?					O					
15	안산 고잔동 태실	숙종왕녀	1696.1.21 이전					O	O				
16	안성 성은리 태실	영조옹주	1732.3.27			O	O	O	O				
17	안성 배태리 태실	성종왕자	1493.10.△			O							
18	양주 황방리 태실	정혜옹주	1492.7.17			O		O	O			O	
19	양평 대흥리 태실	왕자부수	1494.06.10					O	O				
20	양평 옥천리 태실	제안대군	1466.△.20			O							
21	연천 유촌리 태실	(화덕옹주)	1728.10.8			O	O	O	O				
22	연천 동막리 샘골 태실	?	?					O					
23	연천 동막리 부물현 태실	혜정옹주	1514.12.26									O	
24	파주 어유지리 태실	영산군	1494.8.25							O	O	O	동전
25	파주 정자리 태실	성종왕자	1493.9.6			O							
26	파주 축현리 태실	?	?				O	O	O				
27	포천 송우리 태실	?	?					O	O				
28	포천 무봉리 태실	영조8왕녀	1735.11.26			O	O	O	O				
29	포천 만세교리 태실	화완옹주	1738.3.26			O	O	O					
30	포천 금주리 태실	?	?						O				
31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	?	?						O				
32	포천 성동리 태실	익종	1809.12.21 (1836.3.21.)	(편)	O								
33	화성 송동(산척리) 태실	선조왕녀	1588.7.11			O	O						
계				2	3	11		19	15	6	8	11	금편 1 동전 2
						8	9						

양평 제안대군(1466)

고양 성종왕녀(1477)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1481)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1481)

양주 정혜옹주(1492)

가평 중종(1492)

안성 배태리(1493)

파주 정자리(1493)

광주 원당리 왕자 돈수(1505)

김포 고양리(?)

<사진 1> 일석형 안태비

김포 인순공주(1544)

김포 고막리 신성군(1584)

화성 선조왕녀(1588)

가평 영창대군(1606)

연천 유촌리(1728)

안성 성은리(1732)

포천 무봉리 (1735)

포천 만세교리(1738)

파주 축현리(?)

<사진 2> 별석형 안태비

고양 지축동 성종왕녀 태실(1477)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1(1481)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2(1481)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 태실3(1481)

양주 황방리 정혜옹주 태실(1492)

가평 중종 태실(1492)

남양주 광전리 왕자금수 태실(1493)

양평 대흥리 태실(1494)

김포 조강리 인순공주 태실(1544)

김포 고막리 신성군 태실(1584)

안산 고잔동 숙종왕녀 태실(1696년 이전

연천 유촌리 (화덕옹주) 태실(1728)

안성 성은리 영조옹주 태실(1732)

포천 무봉리 영조8녀 태실(1735)

포천 만세교리 화완옹주 태실(1738)

<사진 3> 태주확인 태함

시흥 무지동 태실

연천 동막리 샘골 태실

파주 축현리 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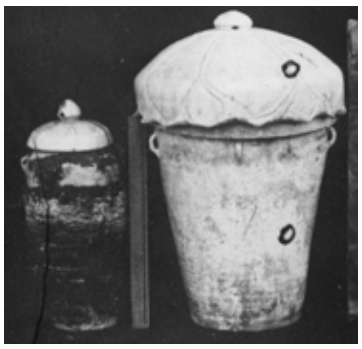
포천 송우리 태실

포천 금주리 태실

포천 주원리 태실

<사진 4> 태주 미확인 태함

정소공주 태호(외호와 내호)(1424)


성종 태호 유리건판사진(1458)

성종 태호(1458)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 태호 (1481)

왕자 수장 태호(외호)(1482)

중종 태호(외호)(1492)

파주 어유지리 영산군 태호(1494)

남양주 내각리 왕녀영수 태호(1502)

<사진 5> 태호

성종 태지석(1458)

성종왕녀 태지석(1481)

왕자 수장 태지석(1482)

중종 태지석(1492)

정혜옹주 태지석(1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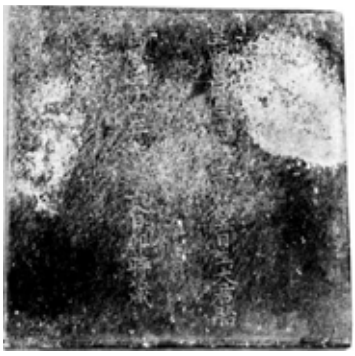
영산군 태지석(1494)

왕녀 영수 태지석(1502, 1929년)

연산군 왕자 돈수 태지석(1505)

혜정옹주 태지석(1514)

신성군 태지석(1584)



영창대군 태지석(1606)

<사진 6> 태지석

중종 태실 금편

성종 태실 동전

영산군 태실 동전

<사진 7> 기타 금속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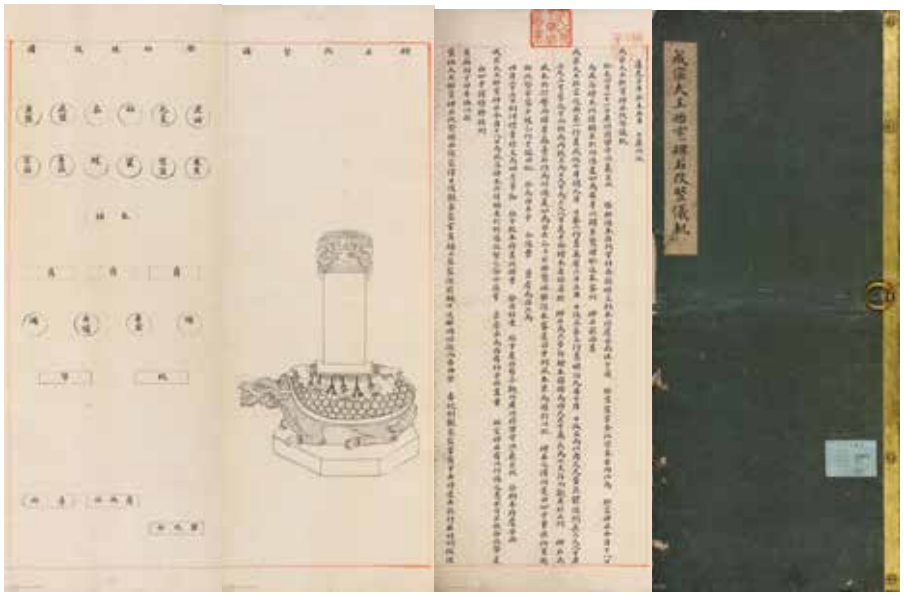
2) 가봉태실

경기도에는 성종 태실, 중종 태실, 익종 태실 3개소의 가봉태실이 있다.

성종 태실은 국왕 태실 가운데 형태가 가장 온전하게 남아 있어 일제 강점기에 이왕직李王職이 성종 태실 석물을 창덕궁 뒤 비원으로 강제 이전하여 새로 건설되는 태봉의 표본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1928년에 서울 창경원으로 옮겨 복원하였다.[04] 창경궁내 성종 태실은 편평한 땅 위에 전석을 팔각으로 두르고 중앙에 사방석을 놓은 후 그 사이에 상석을 배치하였는데 사방석 옆면의 가운데 홈을 파서 상석을 끼우게 하였고 옆면 상부에 앙련을 조각하였다. 사방석 위에 중동석, 개첨석을 차례로 올렸다. 중동석은 원통형으로 무문양이며 개첨석과 별석으로 만들었다. 개첨석은 평면 팔각형으로 낙수면에는 연줄기와 뒤집은 연잎을 장식하였는데, 상부에도 연잎을 덮고 이중의 연봉을 두었다.[05] 전석 위에는 주석과 동자석을 놓은 후 횡죽석을 올려 난간을 둘렀다. 태실의 규모는 직경 380cm, 높이 260cm이다. 가봉태실비는 팔각 난간석 면에서 90cm 앞에 서 있다. 귀부와 비신, 이수로 구성되는데, 귀부는 지대석과 일석으로 만들고 등 가운데에 홈을 파 비좌공을 만들었다.

<사진 8>광주 태전리 태봉

<사진 9> 창경궁 성종 태실



<그림 2>
成宗大王胎室碑石改竪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04 심현용, 2016, 앞의 책, 140쪽.
05 심현용, 2016, 위의 책, 390쪽.

<사진 10> 가평 상색리 태봉

<사진 11> 중종 태실

중종 태실은 일제강점기에 태함 속 유물을 서삼릉 구역으로 강제 이전하고 나머지 석물은 방치되어오다 1982년 산 주인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다시 발견되었다. 흩어져 있던 석물을 인근의 상색초등학교로 옮겨 보관해오다가 1987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06] 복원된 태실은 전석 위에 주석과 동자석을 놓고 횡죽석을 올려 팔각으로 둘렀으며, 안쪽에는 사방석 위에 태함이 놓여 있다. 가봉비는 태실 뒤에서 태실을 바라보도록 세워져 있다. 주변에는 안태비와 태석 일부가 함께 놓여 있다. 태실비는 대리석 재질로 비신 중간 부분이 파손되어 사라진 것을 복원하였으며, 귀부도 머리가 파손된 상태이다.

그러나 중종 태실의 현재 모습은 가봉태실의 원형과 많이 다르게 복원된 것이다. 태봉이 뻗은 산줄기 방향을 따라 태실의 팔각난간 모서리가 돌출되어야 하고 태실비의 위치는 태실 뒤가 아니라 태실 앞 상색리 마을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야 한다. 태함은 지상이 아닌 땅 속에 있어야 하고, 태함이 놓인 자리에는 중동석과 개첨석이 놓여야 하며, 사방석은 상석 위에 놓여야 한다. 앞으로 정확한 고증을 통한 복원정비가 필요하다.

익종 태실의 가봉태실 석물은 영평천변 소공원에 모여 있다. 소공원 입구에는 연자방아 2기와 하마비가 서 있고, 구릉 위에는 귀롱대석, 중동석, 개첨석, 사방석편, 연엽주석 6기, 동자석 1기, 횡죽석 1기, 상석과 전석 11기, 함신 1기, 태실비 이수편 1기, 사모지붕 이수 1기 등 26개의 석물이 남아 있다. 이 중에는 포천 금주리 태실에서 나온 태함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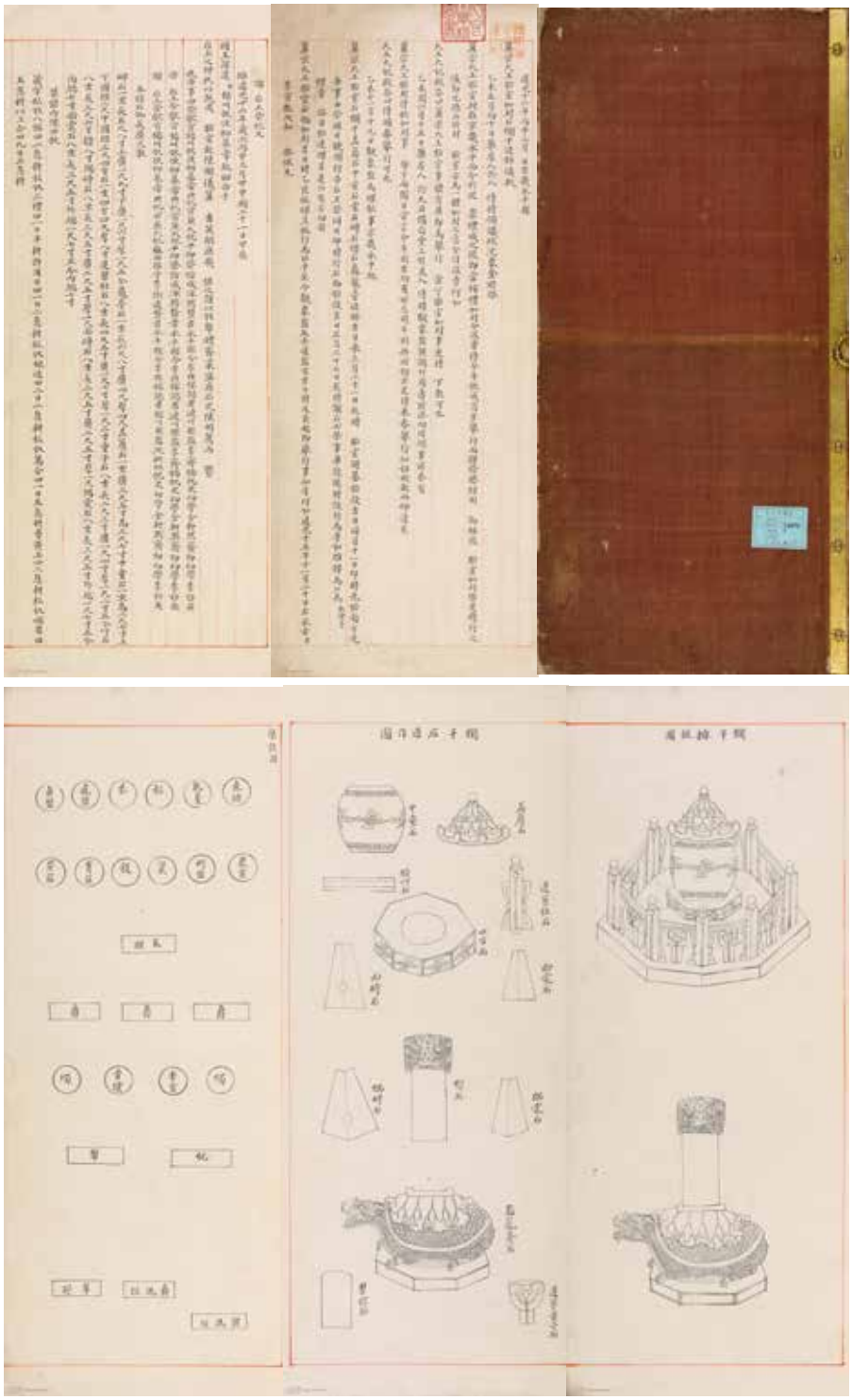
<사진 12> 영평천변 소공원내 익종태실 석물

익종태실 가봉은 1836년(헌종 2)에 작성된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07]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익종태실의 석물은 영조태실의 가봉시례加封時例를 따랐으며, 진설도陳設圖, 난간석조작도欄干石造作圖, 난간배설도欄干排設圖 등이 모두 실려 있다. 석물은 석비1좌, 귀대석 1좌, 개첨석 1좌, 중동석 1좌, 사방석 1좌, 연엽주석 8좌, 동자석 8좌, 죽석 8좌, 우전석 8좌,

06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 I , 141쪽.
07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https://kyudb.snu.ac.kr/pf01/rendererImg.do)

면전석 8좌, 우상석 8좌, 면상석 8좌, 금표석 1좌로 구성된다.

현재 남아 있는 가봉석물은 『조선의 태실』 I (1999)에 실린 사진보다 많이 줄어 있다. 특히 태함으로 보이는 석물은 사라진 상태이고, 태실비는 이수 편 일부만 남아 있다. 향후, 사라진 석물에 대한 추적 조사와 태봉 주변 정밀지표조사 등 석물을 찾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익종태실 복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태봉 태실의 훼손

태봉과 태실은 일제강점기와 이후의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많이 훼손되어왔다. 경기도 태봉, 태실의 훼손은 주로 군사시설 조성, 개발사업, 무덤 조성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군사시설 조성이나 무덤 조성은 태봉산에 부분적인 훼손을 끼치지만,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의 개발에 의한 훼손은 태봉산이 깎여나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멸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1) 무덤 조성에 의한 훼손

태실은 무덤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땅에 묻는 일종의 매장문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장문화는 풍수사상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태를 길지에 묻어 수壽와 복福을 기른다는 장태풍속과 땅 속의 정기가 사람과 서로 감응하여 복을 받는다는 풍수사상은 일맥상통한다.[08]

조선 왕실에서는 태가 당사자는 물론 국운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여 엄격하게 조성하여 관리하였다. 태실을 완성한 후에는 수호군을 두어 보호, 관리하였고, 금표구역을 두어 벌목, 채석, 개간 등을 엄격히 규제하였으며, 태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지방관은 처벌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1920년대부터 전국의 태실을 강제 철거하여 조선 왕실의 흔적을 지우고 백성과의 연결고리를 없애고자 하는 태실폐지정책을 식민통치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태실은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리 부재에 더하여 민간에서의 명당자리에 대한 욕구가 태실 자리에 묘를 쓰는 행위로 이어졌다.

경기도에는 12개소의 태봉 정상에 묘가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가평 태봉리 영창대군 태실과 성남 대장동 태봉, 성남 율동 태봉 3개소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묘가 들어선 사례이다. 영창대군 태실은 광해군 때 파괴되었다. 영창대군은 선조와 인목왕후의 소생으로 광해군 때 북인들의 주청에 의해 서인庶人이 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태실이 파괴된 것도 그 즈음으로 추정된다. 이후 인조 때 태봉 주변 일대를 월사 이정구선생의 유택으로 내려 사패지가 되었다. 성남 대장동 태봉 정상에는 평간공平簡公

<사진 15> 성남 대장동 태봉의 이예장 묘역

<사진 16> 남양주 금곡동 태봉의 민묘

<사진 17> 안성 배태리 태실 안태비와 민묘

08 심현용, 2016, 앞의 책, 169쪽.

<표 3> 경기도 태봉 태실 훼손 현황

군시설 조성	무덤 조성	개발사업
20	12	10
고양 지축동 성종왕녀 태실 김포 고양리 태실 김포 고막리 신성군 태실 남양주 광전리 왕자금수 태실 남양주 내각리 왕녀 영수 태실 양주 상수리 태봉 양주 고읍동 태봉 양주 울대리 태실 연천 옥계리 태봉 연천 도신리 태봉 연천 동막리 샘골 태실 연천 노동리 태봉 파주 객현리 태봉 파주 어유지리 영산군 태실 파주 용산리 모녀봉 태봉 파주 축현리 태실 포천 만세교리 화완옹주 태실 포천 금주리 태실 포천 가채리 태봉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	가평 태봉리 영창대군 태실 광주 탄벌동 태봉 남양주 금곡동 태봉 성남 대장동 태봉 성남 율동 태봉 시흥 금이동 태봉 안성 배태리 태실 양주 봉암리 태봉 양평 수입리 태봉 연천 동막리 혜정옹주 태실 연천 적거리 태봉 포천 성동리 익종 태실	광주 목현동 태봉 김포 조강리 인순공주 태실 시흥 군자동 태봉 안산 고잔동 태실 안성 화봉리 태봉 양주 황방리 정혜옹주 태실 양주 덕정동 태봉 양평 옥천리 제안대군 태실 연천 두일리 태봉 용인 신봉동 태봉

전성군全城君 이예장李禮長(1406~1456)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고, 성남 율동 태봉 일대는 성종대에 청주한씨의 사패지로 하사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묘가 들어선 것은 광주 탄벌동 태봉, 남양주 금곡동 태봉, 시흥 금이동 태봉, 안성 배태리 태실, 양주 봉암리 태봉, 양평 수입리 태봉, 연천 동막리 혜정옹주 태실, 연천 적거리 태봉, 포천 성동리 익종 태실 9개소이다. 안성 배태리 태실은 무덤과 안태비가 함께 남아 있지만, 나머지 태봉은 무덤이 들어서면서 태실 흔적은 사라진 상태이다. 포천 성동리 익종 태실은 정상에 해주최씨 부부묘가 들어서면서 파괴되었고, 가봉석물은 현재 영평천변의 소공원에 모여 있다. 연천 적거리 태봉은 일제강점기 때 강장군 후손이 태봉 정상에 조상묘 3봉상을 이장하면서 파괴되었다.

2) 군사시설에 의한 훼손

65개소 중에서 19개소가 군사시설 조성에 의해 훼손되었다. 태봉 정상과 8~9부 능선에 방어목적의 군사시설을 조성하였는데, 대부분 참호, 교통호, 콘크리트 벙커 등이다. 남양주 광전리 왕자 금수 태실은 태봉 정상에 참호를 파면서 태함이 구덩이 안에 드러났고, 개석이 열린 채로 노출되어 있다.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의 태함은 일부가 깨진 채로 교통호 한쪽 벽면에 박혀 있고, 양주 울대리 태봉 정상의 태함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콘크리트 벙커가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시설에 의해 훼손된 태봉은 모두 경기 북부지역에 분포한다. 김포, 파주, 연천의 접경지역을 포함하여 경기북부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엇

<사진 18> 남양주 광전리 왕자 금수 태실

<사진 19>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

<사진 20> 양주 울대리 태봉 벙커

보다 태봉의 입지조건이 군사적인 관점[09]에서 볼 때, 관측과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3) 개발에 의한 훼손

1980년대 이후 수도권의 급속한 도시화와 신도시개발, 2000년대 웰빙문화 확산과 함께 증가한 전원주택건립 등도 태봉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었다. 안산 고잔동 태봉, 시흥 군자동 태봉은 1980년대 도시개발로 인해 태봉이 멸실되었고, 용인 신봉동 태봉은 근래에 아파트부지조성 과정에서 멸실되었다. 양주 황방리 정혜옹주 태실, 안성 화봉리 태봉은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태봉이 깎여나갔다. 연천 두일리 태봉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태봉이 사라졌고, 광주 목현동 태봉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다. 김포 조강리 태봉은 재해예방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깎여나갔으며, 태실은 인근에 임시 이전하였다가 원래 위치에 복원하였다. 양평 옥천리 태봉은 전원주택개발이 진행되면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 21> 김포 조강리 태실의 2010년과 2020년 모습

<사진 22> 연천 두일리 태봉과 태양광발전시설

<사진 23> 양평 옥천리 태봉 동쪽사면

09 지형의 군사적 관점 : 관측과 사계, 은폐와 엄폐, 장애물, 중요 지형지물 및 접근로를 포함하는 전술적인 관점을 말한다.(출처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4. 보존관리

1) 조사연구

태실의 복원, 정비, 보존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양 지축동 태실, 광주 태전리 태실, 광주 원당리 돈수 태실, 남양주 내각리 태실, 시흥 무지동 태실, 안성 배태리 태실, 양평 옥천리 태실, 연천 유촌리 태실, 연천 동막리 샘골 태실, 파주 정자리 태실, 포천 금주리 태실 11개소는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태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태함 등 유물의 부존 여부와 안태비의 위치 등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복원 정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남양주 광전리 태실, 남양주 내각리 태실, 양주 황방리 태실, 파주 축현리 태실은 안태비가 태봉 일대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포천 성동리 익종 태실은 가봉석물이 태봉 사면에서 발견되고 있어 태봉에 대한 정밀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

양주 울대리 태실,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은 군사시설 조성 과정에서 훼손되었고, 이 과정에서 태호 등 유물을 수습하였다고 전하거나 노출되어 있던 태함이 사라진 상황이다. 군사시설 조성에 관여한 군부대에 대한 탐문 및 추적조사와 태봉 일대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확인한 연산군 태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광주 목현동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2) 복원 및 보존 관리

태실 기초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태실 복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태실이 도굴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형복원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기태실은 안태비와 봉분으로 복원되고, 봉분 안에 태함이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태봉 정상은 잡목제거와 수목정리를 통해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호울타리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진입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편의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봉태실도 아기태실의 보존 관리 조건과 같지만, 연엽주석과 동자석, 횡죽석이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울타리는 제외할 수 있다.

아기태실 중에 가평 태봉리 영창대군 태실 안태비는 마을 앞 이정표로 쓰이다가 월사 이정구선생묘 앞 공터로 옮겨 세웠는데, 앞뒤가 바뀐 상태이다. 화성 송동 선조왕녀 안태비는 비대 앞뒷면이 바뀐 상태로 서 있다. 2기 모두 원형복원 조치가 필요하다.

고양 지축동 태실, 안성 성은리 태실, 포천 무봉리 태실, 포천 금주리 태실, 양평 대흥리 태실은 태실 석물이 외부로 반출된 사례이다. 태실의 원형복원이 제자리 복원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원위치 복원시 유실, 파손 등의 위험요인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견될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의 보존,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문화재 지정

도내 35개 태실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태실은 6개소가 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는 없고 모두 시·군의 향토유적,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전국의 태실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명종태실(보물 제1976호), 세조태실(사적 제444호) 2개소가 있다. 도지정문화재로는 태조태실(충남 유형문화재 제131호), 세종태실(경남 기념물 제30호), 문종태실 가봉비(경북 유형문화재 제187호), 예종태실(전북 민속문화재 제26호), 폐비윤씨태실(경북 기념물 제174호), 인종태실(경북 유형문화재 제350호), 선조태실 가봉개건비(충남 문화재자료 제117호), 광해군태실 태호 및 태지석(보물 제1065호), 숙종태실(충남 문화재자료 제321호), 경종태실(충북 유형문화재 제6호), 영조태실(충북 기념물 제69호), 장조태실 감역감석문(경북 문화재자료 제623호), 정조태실(강원 유형문화재 제114호), 순조태실(충북 유형문화재 제11호) 14개소가 있다. 대부분의 가봉태실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가봉태실 3개소 가운데 중종태실과 익종태실이 시군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가봉태실이 가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형태가 가장 온전한 것으로 알려진 성종태실은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으로 강제 이전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태봉은 광주시내 한 복판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성종태실을 창경궁에서 광주 태전리 태봉으로 이전하여 완전성을 회복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면 도지정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익종태실은 영평천변 소공원에 석물 일부를 모아놓았고, 태봉 정상에 민묘가 들어서 있어 원형이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하지만 익종태실은 아기태실 장태의궤[10]와 가봉태실 조성을 기록한 의궤[11]가 모두 남아 있다. 흩어진 석물에 대한 추적조사와 태봉 주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가봉석물을 최대한 찾고, 사라진 석물은 사료와 유물을 바탕으로 원형을 복원할 수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태봉이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민묘를 이전하고, 태실을 복원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종태실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잘못 복원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정밀한 조사와 고증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재정비 후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표 4> 경기도 태실 문화재 지정 현황

시 군	문화재명	지정번호
가평군	상색리 중종 태실	가평군 향토문화재 제6호
시흥시	무지내동 태봉	시흥시 향토유적 제6호
포천시	송우리 태실	포천시 향토유적 제18호
	만세교리 화완옹주 태실	포천시 향토유적 제23호
	성동리 익종 태실	포천시 향토유적 제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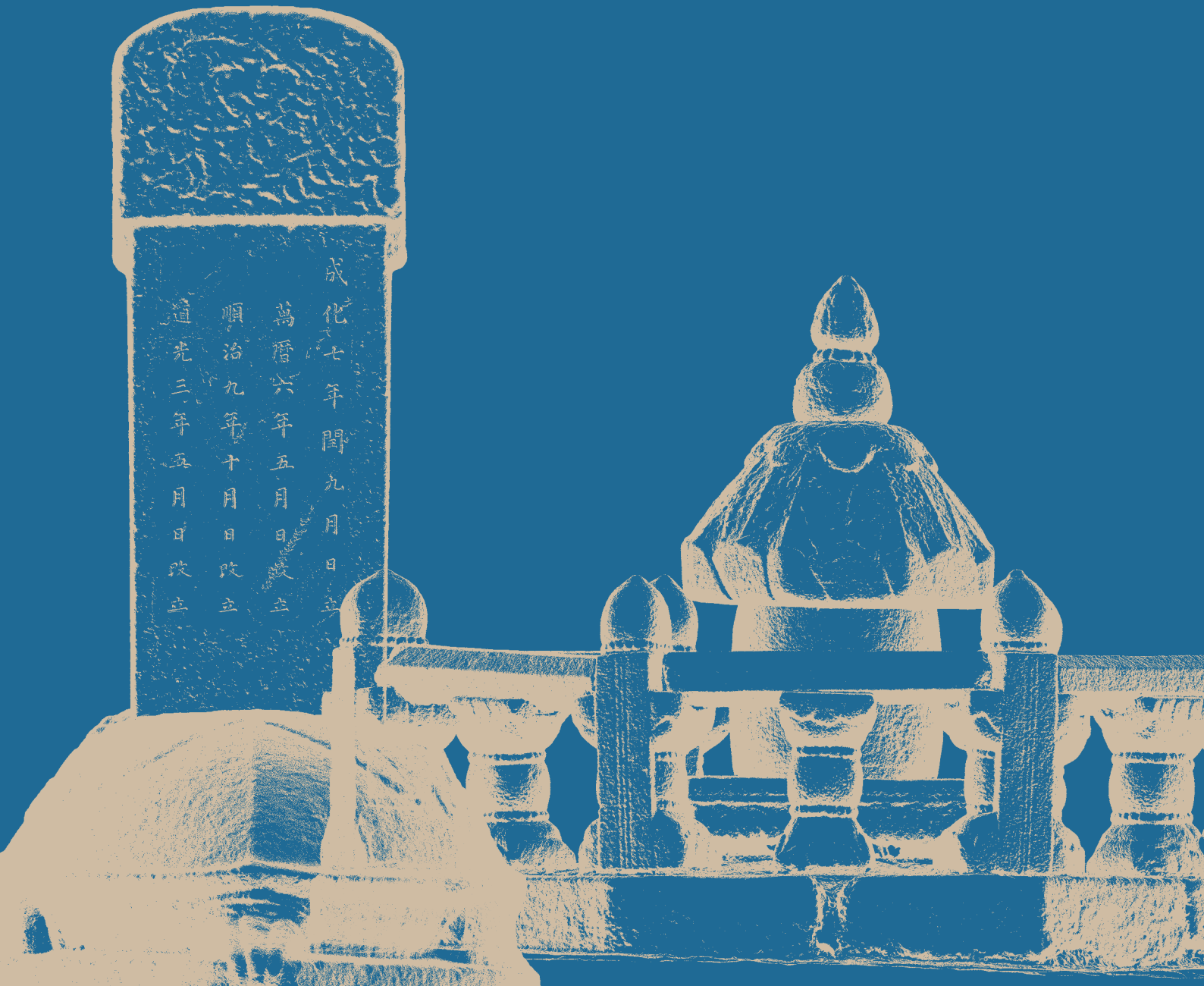
10 『元子阿只氏翼藏胎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11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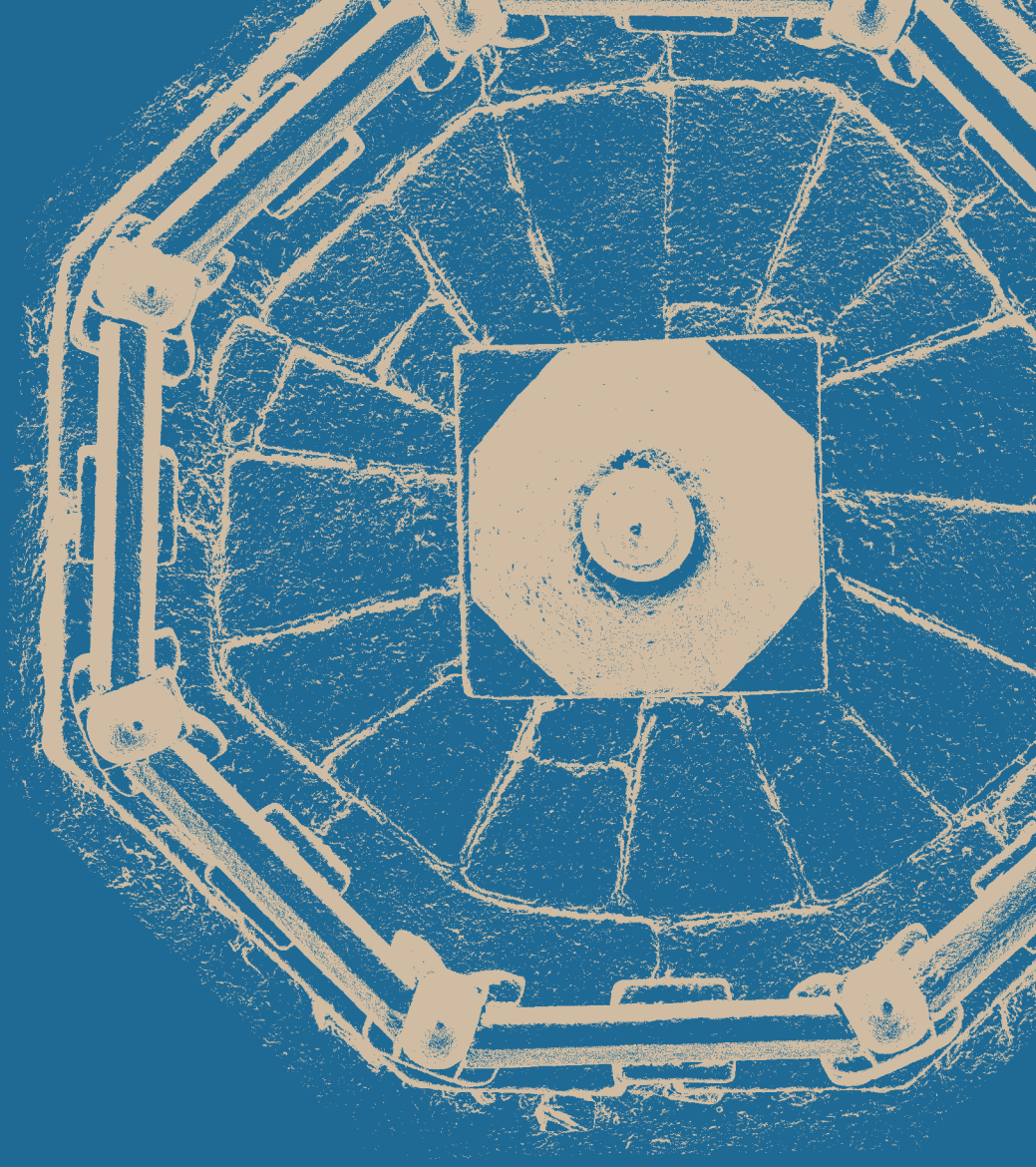
<표 5> 경기도 태실 보존관리 방안 및 대상 목록

연번	유 적 명	태주	보존관리방안			문화재지정
			조사	복원	정비	
1	가평 상색리 태실	중종	발굴조사	가봉태실 원형복원		도지정문화재
2	가평 태봉리 태실	영창대군		안태비 원형복원	태봉정비	
3	고양 대자동 묘소병장 태실	정소공주				
4	고양 지축동 태실	성종왕녀	시·발굴조사			
5	광주 태전리 태실	성종	발굴조사	가봉태실 이전복원	태봉정비	도지정문화재
6	광주 원당리 뒷태봉 태실	성종왕녀	발굴조사	원형복원	태봉정비	
7	광주 원당리 앞태봉 태실	왕자돈수	발굴조사	원형복원	태봉정비	
8	김포 고양리 태실	?				
9	김포 고막리 태실	신성군		원형복원	태봉정비	
10	김포 조강리 태실	인순공주				
11	남양주 광전리 태실	왕자금수	지표조사	원형복원	태봉정비	
12	남양주 내각리 태실	(왕자수장)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13	남양주 내각리 배나무골 태실	(왕녀영수)				
14	시흥 무지동 태실	?	발굴조사			
15	안산 고잔동 태실	숙종왕녀				
16	안성 성은리 태실	영조옹주			태봉정비	
17	안성 배태리 태실	성종왕자	시·발굴조사			
18	양주 울대리 태봉	?	지표조사, 추적조사			
19	양주 황방리 태실	정혜옹주	지표조사			
20	양평 대흥리 태실	왕자부수				
21	양평 옥천리 태실	제안대군	시·발굴조사		태봉정비	
22	연천 유촌리 태실	(화덕옹주)	발굴조사		태봉정비	
23	연천 동막리 샘골 태실	?	발굴조사		태봉정비	
24	연천 동막리 부물현 태실	혜정옹주				
25	파주 어유지리 태실	영산군				
26	파주 정자리 태실	성종왕자	시·발굴조사		태봉정비	
27	파주 축현리 태실	?	지표조사		태봉정비	
28	포천 송우리 태실	?				
29	포천 무봉리 태실	영조8왕녀		원형복원		
30	포천 만세교리 태실	화완옹주			태봉정비	
31	포천 금주리 태실	?	시·발굴조사		태봉정비	
32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	?	추적조사			
33	포천 성동리 태실	익종	지표조사, 추적조사	가봉태실 원형복원		도지정문화재
34	화성 송동(산척리) 태실	선조왕녀		안태비 원형복원		

V

맺음말





맺음말

2020년 경기도의 태봉과 태실을 조사하여 태실 35개소와 태봉 30개소를 확인하였다.

이전까지의 조사연구로 알려진 태실 25개소와, 장태와 관련한 지명이 남아 있는 곳을 시·군지, 지명유래, 문화유적분포지도, 지형도 등에서 찾아내 모두 조사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구글어스의 3D뷰 기능을 활용하여 태봉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능성이 높은 지형을 선정함으로써 현장조사 범위와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현장조사는 유적의 GPS좌표를 기록하여 위치의 정확성을 기하였고, 현재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여 앞으로의 조사, 관리, 정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내용은 시군별로 정리하였다.

35개소의 태실 가운데 태주가 확인된 태실은 27개소이고, 태주를 알 수 없는 태실은 8개소이다. 태주확인 태실 27개소에는 파주 정자리 왕자옥량 태실, 안성 배태리 성종왕자 태실, 양평 대흥리 왕자 부수 태실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연천 유촌리 태실의 태주가 화억옹주가 아닌 화덕옹주일 가능성을 새롭게 밝혔다. 포천 주원리 태실에서는 말로만 전해져오던 태함 실물을 찾았고, 양주 울대리 태실은 주민의 매우 구체적인 제보로 '강왕자태실'이 쓰여진 안태비와 태함을 추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산군 태실이 광주 목현동 일대에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훼손된 태실 사례를 정리하여 군사시설 조성, 민묘조성, 개발에 따른 멸실 등 세 가지 요인을 추려냈다. 이를 토대로 군사시설과 연관된 태실의 보존 관리와 사라진 태실 유물의 추적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위한 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태실과 태봉 유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에 따라 개발에 따른 훼손과 멸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성과이다.

또한 각 태실의 조사현황에 따라 앞으로 지표조사, 발굴조사, 유물 추적조사가 필요한 태실을 선정하였고, 복원 정비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 대상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현황들을 한 데 묶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한 점이 과제로 남았다.

다가올 2028년은 태실이 일제에 의해 강제 훼손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 이전에라도 태실에 대한 조사와 보존, 정비를 마무리하고, 타 시도와 함께 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태실훼손 100년을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권47.
『중종실록』.
『선조실록』.
『고종실록』.
『成宗大王胎室碑石改竪儀軌』.
『元子阿只氏藏胎儀軌』.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京畿 廣州牧 【山川】.

<단행본>

강원대학교박물관·가평군, 1999,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성경문화사.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8, 『양주 태봉산 보루Ⅲ Ⅳ』.
경기도, 1987, 『地名由來集』.
경기문화재단, 2008, 『朝鮮地誌資料』, 경인문화사.
경상북도·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경북의 태실』, 동아애드컴.
고려문화재연구원, 2019, 『영성위 신광수·화협옹주묘』, 태양출판사.
고려문화재연구원, 2020, 『김포시 소재 태실 학술조사보고서』.
고양시사편찬위원회, 2005, 『고양시사』 제2권 문화유산과 인물, 고양시.
광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광주시사』, 광주시·광주문화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영주시 고현동 의소세손 태실 긴급발굴조사보고』.
국립고궁박물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8,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西三陵 胎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역태봉등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조선왕실의 태봉』.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기전문화재연구원·시흥시, 2000,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김대진, 2016, 『성남지명총람』, 성남문화원.
김포군, 1995, 『지명유래집』.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남양주시지』 제3권 민속, 남양주시.
다온문화재연구원, 2020, 『대구 연경동 광해군 태실』.
단국대학교사학과·포천군, 1998,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1998, 『동두천시사』下.
심현용, 2016, 『한국태실연구』, 경인문화사.

시흥시문화원, 2006,『시흥시 지명유래』.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安山市史』.
안성시지편찬위원회, 2011,『안성시지』1 역사와 지리.
양주문화원, 2002,『양주 땅이름의 역사』.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양평군지』中 양평의 문화유산, 양평군.
여주군사편찬위원회, 2005,『여주군사』, 여주시.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연천군지 下』, 연천군.
연천군, 2014,『연천금석문대관』.
연천문화원, 1995,『鄕土史料集』, 이화상사.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조선의 태실』Ⅰ Ⅱ Ⅲ,
조선총독부, 1942,『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파주군, 1995,『파주군지』中 문화재와 민속.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9,『파주민통선, 문화유적보고서』, 파주문화닷컴.
포천군지편찬위원회, 1997,『포천군지』下, 포천군.
포천문화원, 2006,『포천의 지명유래집』.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성남시, 2001,『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양평군, 1991,『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양주군, 1998,『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6,『화성시 문화유적분포지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용인시, 2003,『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한글학회, 1985,『한국지명총람』제1편.
한백문화재연구원, 2012,『남양주 별내 유적』, 서경문화사.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태실(산58-4번지 일원 이전·복원 결과보고서』.
화서문화재연구원, 2021,『양주 봉암리 44번지 유적』.

<논문>

강병학·박천택, 2015,「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한양문화재연구원.
김영준, 2018,「조선시대 국왕 태실의 '加封'에 관한 연구-순조 태실의 가봉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대학원.
김지영, 2014,「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藏胎儀禮)'」,『역사와 세계』45, 효원사학회.
윤무병, 1965,「廣州 元堂里 胎封」,『考古美術』6(3·4), 한국미술사학회.
최순우, 1963,「白磁貞壽阿只氏胎缸」,『考古美術』4(6)

<온라인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검색.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검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pf01/rendererImg.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문화재청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https://intranet.gis-heritage.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radaks.

부록

1. 『成宗大王胎室碑石改竪儀軌』 성종대왕 태실비석개수의궤
2. 『元子阿只氏藏胎儀軌』 원자아기씨장태의궤, 익종(효명세자)
3.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익종대왕 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
4. 경기도 태실 관련 문헌자료

1.『成宗大王胎室碑石改竪儀軌』성종대왕 태실비석개수의궤

成宗大王 胎室碑石改竪儀軌

성종대왕 태실비석개수의궤

▶ 0003

道光三年癸未五月 日廣州地
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儀軌

癸未四月二十一日
廣州府留守洪義臣狀
啓卽接本府判官朴齊顯牒呈則本府慶安面佳夕嶺 胎室監官金仁哲來告內以爲 胎室碑石今月十八日爲風落檜木所撞觸至於折傷是如爲有等以聞甚驚懍馳進奉審則 碑石前面書成宗大王胎室後面第一行書成化七年閏九月 日第二行書萬曆六年五月 日改立第三行書順治九年十月 日改立而以周尺尺量其體樣則長六尺八寸廣二尺三寸厚九寸而折爲兩段上爲三尺下爲三尺八寸是乎旀檜木着根處距 碑石爲六步許檜木圍圓爲四尺五寸高長爲七丈許而觀其形止則 碑石爲風木所打壓而撞着龜臺石仍爲折傷是如爲白去乙臣不勝驚悚躬詣奉審是白乎則風木果爲摧打以致 碑石之撞折是白如乎事係所重趁卽改豎不容少緩乙仍于緣由馳啓爲白去乎 令該曹 稟處爲白只爲

四月二十三日
到付禮曹移文爲
相考事
節啓下敎本府書狀據曹 啓目粘連 啓下是白有亦觀此廣州府留守洪義臣狀 啓則本府慶安面成宗大王胎室碑石今月十八日爲風落檜木所撞觸至於折傷改豎之節令該曹 稟處亦爲白有臥乎所莫重 胎室碑石有此折傷之患不可不趁卽改豎是白如乎謹稽謄錄則英廟朝丁卯年林川郡宣祖大王胎室碑石改豎時令該監擇日後觀象監官員繕工監監役前期下送眼同始役而告由祭香祝則觀象監官員下去時受去設行石材則從便

도광道光 3년 계미년(1823, 순조 23) 5월 일 광주 지역
성종대왕 태실비석개수의궤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儀軌

계미년(1823) 4월 21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 홍희신洪義臣의 장계에,
"방금 본부 판관判官 박제현朴齊顯의 첩정을 보니, '본부 경안면慶安面 가마령佳夕嶺의 태실 감관胎室監官 김인철金仁哲이, 「태실의 비석이 18일에 바람이 불어 떨어진 회나무에 부딪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매우 놀랍고 두려워 급히 나아가 봉심奉審하니, 비석 전면前面에는 '성종대왕태실成宗大王胎室'이라 쓰였고, 후면後面 제1항行에는 '성화 7년(1471, 성종 2) 윤9월 일成化七年閏九月 日', 제2항에는 만력 6년(1578, 선조 11) 5월 일에 다시 세움[萬曆六年五月 日改立]' 제3항에는 '순치 9년(1652, 효종 3) 10월 일에 다시 세움[順治九年十月 日改立]'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비석을 주척周尺**01**으로 그 체양體樣을 척량해보니, 길이 6자 8치, 너비 2자 3치, 두께 9치였는데, 양단兩段으로 부러져 위가 3자, 아래가 3자 8치였습니다. 회나무가 심어진 곳은 비석과 6보쯤 떨어졌고, 회나무의 둘레는 4자 5치, 높이와 길이는 7장丈쯤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 비석은 바람이 불어 떨어진 나무에 부딪혀 짓눌렸고, 귀대석龜臺石도 그대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견디지 못해 직접 나아가 봉심하니, 바람이 불어 나무가 과연 꺾여 비석을 부러뜨렸습니다. 일이 매우 소중하니 진작 바로 다시 세워야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으므로 연유를 치계馳啓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4월 23일
방금 도착한 예조의 이문移文
상고하는 일
이번에 계하하신 본부本府의 서장은 근거하여 올린 예조의 계목에, "계하啓下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광주부 유수 홍희신의 장계를 보니, '본부 경안면에 있는 성종대왕 태실의 비석이 이달 18일에 바람이 불어 떨어진 회나무에 부딪혀 부러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세울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막중한 태실의 비석이 부러지는 걱정이 있었으니 진작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삼가 등록을 상고해보니, 영묘조 정묘년(1747, 영조 23)에 임천군林川郡에 있는 선조대왕宣祖大王의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울 때 해감該監으로 하여금 길일을 택하도록 한 뒤 관상감 관원과 선공감 감역이 기일 전에 내려가 함께 시역始役하였고, 고유제告由祭의 향축은 관상감 관원이 내려 갈 때 받아가 설행하였으며, 석재石材는 편의대로

01 주척周尺 : 주례周禮에 규정한 양척量尺

▶ 0004

取用於私儲本曹堂上卽廳則趁豎立時下去與本道監司監董後舊 碑則埋安於新 碑傍近處是白如乎今番幷依丁卯年例擧行爲白乎矣地方官兼監役亦多已例繕工監監役段勿爲下送令地方官本府判官兼監役擧行事幷以該監及守臣處分付何如

사저私儲에서 취하여 사용하였고, 당상과 낭청은 비석을 세울 때 내려 가 본도 감사와 함께 감독한 뒤 예전 비석은 새 비석 근방에 묻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정묘년의 예대로 거행하되, 지방관이 감역을 겸한 전례가 이미 많습니다. 선공감 감역은 내려 보내지 말고 지방관과 본부 판관으로 하여금 감역을 겸하여 거행하도록 아울러 해감該監과 수신守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道光三年四月二十三日右承旨臣李鶴秀次知啓依 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奉審施行宜當向事

도광 3년(1823) 4월 23일에 우승지右承旨 신 이학수李鶴秀가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계하내의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

四月二十四日
留守甘結判官爲
相考事
右粘連禮曹 啓下關奉審 碑石段私儲中如有品合可用者星火求貿爲旀應入工匠軍人器械雜物預爲措備待始役吉日推擇卽速擧行宜當向事

4월 24일
유수留守가 판관判官에게 보낸 감결甘結**02**
상고하는 일
위에 첨부한 예조의 계하 관문을 봉심하되, 비석은 사저 중에 만약 적합하게 쓸 만한 품질이 있으면 빨리 구해 두고, 들어가야 할 공장工匠·군인軍人·기계器械·잡물雜物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시역 길일을 택하기를 기다려 즉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함.

四月二十六日
留守移文繕工監爲
相考事
卽接兼監役本府判官所報則本府慶安面 成宗大王胎室碑改立役事今方經始而事係所重則不可專以鄕匠付役京石手二三名分付下送亦爲有等以玆以文移爲去乎慣善石手二名使之罔 夜起送以爲始役之地爲宜向事

4월 26일
유수가 선공감에 보낸 이문
상고하는 일
방금 겸 감역 본부 판관의 첩보를 보니,
"본부 경안면에 있는 성종대왕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우는 일은 방금 경시經始하였는데, 일이 매우 소중하니 향장鄕匠에게만 전담하여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경석수京石手 2, 3명을 분부하여 내려 보내 주소서."
하였다. 이에 이문하니, 솜씨 좋은 석수 2명을 밤을 새워서라도 보내 시역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五月初二日
留守移文禮曹爲
相考事
成宗大王胎室碑改立石材依貴曹 啓下關私儲中從便貿用而卽接兼監役本府判官牒呈則本府地德谷有私儲之石材而堅細美好故見方貿得運致爲去乎始役及豎碑吉日時推擇下送以爲擧行之地亦爲有等以馳進看審則石品甚美果合取用是乎所始役與豎立吉日時卽爲推擇以送而舊碑坐向爲酉坐卯向是置相考施行向事

5월 초2일
유수가 예조에 보낸 이문
상고하는 일
성종대왕의 태실 비석을 다시 세움에 석재石材 귀조貴曹에서 계하를 받은 관문대로 사저私儲 중에서 편의대로 사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겸 감역 본부 판관의 첩정을 보니, '본부本府의 지덕곡地德谷에 사저의 석재가 있는데 견고하며 아름다워 살펴보고 방금 사서 운반해왔으니 시역과 비석을 세울 길일과 길시를 택해 내려 보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급히 나아가 간심하니 돌의 품질이 매우 아름다워 과연 취하여 쓰기에 적합하였습니다. 시역과 비석을 세울 길일과 길시를 즉시 택하여 보내 주소서. 예전 비석은 좌향坐向이 유좌酉坐 묘향卯向입니다. 상고하여 시행할 것.

五月初六日
到付禮曹移文爲
相考事
節啓下敎觀象監牒呈內今此廣州地

5월 초 6일
방금 도착한 예조의 이문
상고하는 일
방금 계하하신 관상감의 첩정에,
"이번 광주 지역

02 감결甘結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문서. 명령이나 지시의 내용이 주主가 된다.

▶ 0005

成宗大王胎室碑改豎吉日今五月二十八日辰時先告事由祭同日曉頭行告后土祭同日卯時謝后土祭臨時設行始役同月初九日卯時推擇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廣州地 成宗大王胎室碑改豎吉日時依牒呈施行何如道光三年五月初六日右副承旨臣趙琮鎭次知 啓依 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事意奉審施行 向事

성종대왕의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울 길일은 이달 5월 28일 진시이고,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설행하며, 후토에 지내는 고유제는 같은 날 묘시이고,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는 때에 다다라 설행하며, 시역은 같은 날 초9일 묘시로 택하소서."
하였다. 이를 근거하여 올린 예조의 계목에,
"첩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광주 지역에 있는 성종대왕의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울 길일과 길시를 첩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도광 3년(1823) 5월 초6일 우부승지 신 조종진趙琮鎭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였다. 계하 내의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할 것.

五月初七日
留守甘結判官爲
相考事
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吉日今五月二十八日辰時先告事由祭同日曉頭行告后土祭同日卯時謝后土祭臨時設行始役同月初九日卯時推擇 啓下是如 禮曹關文來到乙仍于玆以發關爲去乎同軍人及應入雜物依前甘整待擧行俾無臨時窘速之弊向事

5월 초7일
유수가 판관에게 보낸 감결
상고하는 일
성종대왕의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울 길일은 이달 5월 28일 진시이고,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설행하며, 후토에 지내는 고유제는 같은 날 묘시이고,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는 때에 다다라 설행하며, 시역은 같은 날 초9일을 묘시로 택하여 계하를 받은 예조의 관문이 왔으므로 이에 관문하니, 군인과 들어가야 할 잡물을 이전에 올린 감결대로 정비한 뒤 거행하여 때에 닥쳐 군속한 폐단이 없도록 할 것.

兼監役判官爲牒報事
禮曹 啓下關據營門甘結內乙用良 胎室碑石今初九日及良始役計料爲乎旀軍人與雜物隨其容入次次整待擧 行緣由牒報爲臥乎事

겸 감역 판관이 첩보하는 일
예조에서 계하를 받은 관문에 근거하고, 영문營問에서 보낸 감결 내용에 따라 태실 비석은 이달 초9일에 미쳐 시역할 계획이며, 군인과 잡물은 그 용입容入에 따라 차차 정비整備하여 거행하겠습니다. 연유를 첩보합니다.

五月初八日
到付兼監役判官爲牒報事
今此 胎室進用新貿碑石已爲無弊運致於役所故自初九日始役緣由牒報爲臥乎事

5월 초8일
방금 도착한 겸 감역 판관이 첩보하는 일
이번에 태실에 나아가 사용할 새로 산 비석은 이미 폐단 없이 역소까지 잘 운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9일부터 시역하겠습니다. 연유를 첩보합니다.

留守題辭
內山村險路無弊奉運誠甚萬幸治鍊之節各別董飭擧行宜當向事

유수의 제사題詞에,
"산촌의 험한 길을 폐단 없이 받들어 운반했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스럽다. 다듬고 연마하는 일을 각별히 감독하고 신칙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五月初八日
留守報軍器寺爲
相考事
卽接兼監役本府判官牒呈則本府地 成宗大王胎室碑改立役事今方經始而磨正時各樣礪石中不足者後錄牒報爲去乎依此數下送亦爲有等以玆以牒報依後錄卽爲分付出給爲只爲

5월 초8일
유수가 군기시軍器寺에 보낸 첩보
상고하는 일
방금 겸 감역 본부 판관의 첩보를 보니,
"본부 지역에 있는 성종대왕 태실 비석을 다실 세우는 일이 방금 계획대로 시작되었습니다. 갈아서 매끈하게 할 때 각종 숫돌 중 부족한 것은 후록하여 첩보하니, 이 수효대로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첩보하니 후록한 대로 즉시 분부하여 출급해 주소서.

▶ 0006

後
强礪石十五塊 中礪石二塊 延日石二塊

<후록>
센 숫돌[强礪石] 15덩어리. 중간 숫돌[中礪石] 2덩어리. 연일석延日石 2덩어리.

同日
到付禮曹移文爲相考事節 啓下敎曹 啓辭廣州地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吉日纔已推擇 啓下矣觀象監官員例爲趁始役進去兼受告由祭 香祝以待豎碑日行事而今番役事旣令地方官兼監役專當擧行則始役時觀象監官員不必下送只正日臨時受 香祝進去事分付何如 傳曰允事 批下敎是置 啓下內辭意奉審施行向事

같은 날
방금 도착한 예조의 이문
상고하는 일
이번에 계하하신 예조의 계사에,
"광주 지역에 있는 성종대왕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울 길일은 이미 택한 길일로 계하하였습니다. 관상감 관원이 으레 시역할 때 맞춰 내려 갈 때 고유제의 향축을 겸하여 받아가 비석을 세우는 날을 기다려 행사行事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이미 지방관으로 하여금 감역을 겸하여 전담하여 거행하도록 했으니, 시역할 때 관상감 관원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정일正日이 임박했을 때 향축을 받아 내려가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고 비지批旨를 내렸다. 계하 내의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할 것.

五月十二日
到付禮曹移文爲
相考事節
啓下敎曹單子廣州地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吉日今五月二十八日辰時先告事由祭同日曉頭行告后土祭同日卯時謝后土祭事畢後臨時設行事啓下矣依前例獻官以守令中差定諸執事以守令或前銜生進中差定奏時官以觀象監官員兼行事分付何如 啓依所 啓施行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奉審施行宜當向事

5월 12일
방금 도착한 예조의 이문
상고하는 일
방금 계하하신 예조의 단자單子에,
"광주 지역에 있는 성종대왕의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울 길일은 이달 5월 28일 진시입니다.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설행하고, 후토에 지내는 고유제는 같은 날 묘시이며,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는 일을 마친 뒤 때에 다다라 설행하도록 계하하였습니다. 전례대로 헌관은 수령 중에서 차정하고, 제집사는 수령 혹은 이전 직함이 생원生員이거나 진사進士인 사람을 차정하며, 주시관은 관상감 관원이 겸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그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

同日
留守甘結判官爲
相考事右
粘連禮曹 啓下關奉審擧行向事

같은 날
유수가 판관에게 보낸 감결
상고하는 일
위에 첨부한 예조의 계하 관문을 봉심하여 거행할 것.

五月十三日
到付觀象監移文內節 啓下敎監官員以領事提調意 啓曰今此廣州地 成宗大王胎室碑石豎時書標官當爲差送而取考謄錄則監董之臣兼進擧行多有已例本府留守洪羲臣書標官差下使之擧行何如 傳曰 允事 批下敎是置 批旨內辭意奉審施行宜當向事

5월 13일
방금 도착한 관상감 이문에,
"이번에 계하하신 관상감 관원이 영사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에 광주 지역에 있는 성종 대왕의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울 때 서표관을 당연히 차정해야 하는데, 등록을 상고해 보니, 감독하는 신하가 겸하여 나아가 거행한 전례가 많습니다. 본부 유수 홍희신洪羲臣을 서표관으로 차하 差下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고 비지批旨를 내렸다. 비지 내의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五月十四日
留守移文禮曹爲
相考事

5월 14일
유수가 예조에 보낸 이문
상고하는 일

▶ 0007

成宗大王胎室碑石今方治鍊入刻是如乎謹稽舊碑書式則後面當中第一行書成化七年閏九月日下傍第二行低二字書萬曆六年五月日改立第三行列書順治九年十月日改立是如乎今此改豎時當以道光三年五月日改立九字添書矣下傍三行旣書改立二字則第一行月日下宜有立字是遣第一行旣當中則下傍三行終有行密字小之歎以全一面排四行列書而成化係是初碑高一字書刻何如是乎乙喩事係莫重不敢擅便玆以文移爲去乎指一回示以爲擧行之地向事

성종대왕 태실 비석은 금방 다듬어 연마하였으니 글자를 새겨야 합니다. 삼가 예전 비석의 서식을 상고해보니, 후면 중간 제1항에는 '성화 7년(1471, 성종 2) 윤9월 일成化七年閏九月 日'이라 썼고, 아래 곁 제2항에는 2자를 낮춰 '만력 6년(1578, 선조 11) 5월 일에 다시 세움[萬曆六年五月日改立]'이라 썼으며, 제3항에는 '순치 9년(1652, 효종 3) 10월 일에 다시 세움[順治九年十月日改立]'이라 열서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세울 때에는 '도광 3년(1823, 순조 23) 5월 일에 다시 세움[道光三年五月日改立]' 9자를 추가로 써야 합니다. 아래 곁 3항에 이미 '다시 세움[改立]'이라는 2자가 적혀 있으니 제1항의 월일 아래에 마땅히 '입立'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1항이 이미 중간을 차지했으니, 아래 곁 3항 끝이 행간이 조밀하여 글자가 작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전체 한 면을 4항으로 분배하여 열서하되, 성화는 최초의 비석이니 1자를 높여 새기는 것이 어떨지, 일이 매우 막중하니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에 이문합니다. 하나를 지적한 뒤 회시回示하여 거행하도록 하소서.

五月十七日
到付兼監役判官爲牒報事
今此 碑石治鍊形止已爲馳報爲有在果今旣釘鍊已成形體故自今日爲始磨礪緣由牒報爲臥乎事

5월 17일
방금 도착한 겸 감역 판관이 첩보하는 일
이번에 비석을 연마한 상황에 대해서는 벌써 치보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정釘으로 다듬어 형체가 완성되었으므로 오늘부터 숫돌로 다듬습니다. 연유를 첩보합니다.

留守題辭內磨沙磨礪之節另加董飭宜當向事

유수의 제사에,
"마사磨沙하고 마려磨礪하는 일은 따로 더 감독하고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五月十七日
到付禮曹回移爲
相考事
節到付關內節該今此成宗大王胎室碑石今方治鍊入刻而第一行月日下宜有立字是遣第一行若當中書之則下傍三行終有行密字小之歎以全一面排四行列書而成化係是初碑高一字書刻何如是乎乙喩指一回示事關是置有亦書式之如是磨鍊誠爲穩當依此爲之爲宜向事

5월 17일
방금 도착한 예조의 회이回移
상고하는 일
방금 도착한 관문에,
"절해節該[03] 이번에 성종대왕 태실의 비석이 지금 막다듬어져 글자를 새기려 합니다. 제1항의 월일 아래에 '입立'자가 있어야 하고, 제1항을 한 가운데 쓸 것 같으면 아래 곁 3항이 끝내 행간이 조밀하여 글자가 작다는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 한 면을 4항으로 분배하여 열서하되, '성화成化'는 처음 세웠던 비석이니만큼 1자를 높여 쓰는 것이 어떨지, 하나를 지적하여 회시回示해 주실 일로 관문합니다."
하였다. 서식을 이처럼 마련하는 것이 참으로 온당하니, 이대로 하는 것이 마땅함.

五月二十日
留守移文畿營爲
相考事
卽到禮曹關據本府慶安面 成宗大王胎室碑石今二十八日辰時豎立敎是時先告事由祭大祝以貴道守令察訪中前期差送爲旀形止回移爲宜向事

5월 20일
유수가 기영畿營에 보낸 이문
상고하는 일
방금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근거하여 본부 경안면에 있는 성종대왕의 태실 비석을 이달 28일 진시에 세울 때,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의 대축大祝은 귀도貴道의 수령과 찰방察訪 중에서 기일 전에 차송하며, 상황을 회이하는 것이 마땅함.

五月二十一日
到付畿營回移爲
相考事
卽到貴移據成宗大王胎室碑石今二十八日辰時改豎時先告事由祭大祝以慶安道察訪崔致輔差送爲去乎相考施行爲宜向事

5월 21일
방금 도착한 기영畿營의 회의回移
상고하는 일
방금 도착한 귀 이문을 근거하여, 성종대왕의 태실 비석을 이달 28일 진시에 다시 세울 때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의 대축은 경안도 찰방慶安道察訪 최지보崔致輔를 차송하니,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

03 절해(節該) : 말이나 글에서 요긴한 내용만 따서 줄여 적을 때 쓰는 말.

▶ 0008

五月二十一日
到付兼監役判官爲牒報事今此 碑石磨礪取色故龍頭爲先入刻緣由牒報爲臥乎事

5월 21일
방금 도착한 겸 감역 판관이 첩보하는 일
이번에 비석을 갈고 닦아 매만져 윤택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용두龍頭를 우선 새깁니다. 연유를 첩보합니다.

留守題辭內龍頭與鱗鬣務從深刻以爲宛然如動之地宜當向事

유수의 제사題辭에,
"용두와 인렵鱗鬣은 힘써 깊게 새겨 흡사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五月二十二日
留守甘結判官爲
相考事
觀於舊 碑其臺石趺孔果爲淺狹今番則限二寸許量宜加鑿以爲深固之地爲旀龜石殼紋年久刓缺一 新改釘改刻爲旀逼近樹木段當於豎 碑日更爲看審翦伐依此擧行宜當向事

5월 22일
유수가 판관에게 보낸 감결
상고하는 일
예전 비석을 살펴보니, 그 대석臺石의 받침 구멍이 과연 얕고 좁았다. 이번에는 2치 쯤 더 파서 깊고 단단하게 하며, 귀석龜石의 껍질 무늬도 세월이 오래되어 닳아 없어졌으니 한결같이 새롭게 다시 못을 박고 새기며, 근처의 나무는 비석을 세우는 날에 다시 간심하여 베도록 하라.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함.

五月二十二日
碑石畢磨鍊精後書標官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臣洪羲臣 碑石前面書成宗大王胎室後面第一行書成化七年閏九月日立第二行書萬曆六年五月日改立第三行書順治九年十月日改立第四行書道光三年五月日改立

5월 22일
비석을 다 갈고 다듬어 정치精緻하게 한 뒤 서표관 광주부 유수 겸 남한 수어사 南漢守禦使 신 홍희신이 비석 전면에 '성종대왕태실成宗大王胎室'이라 썼다. 후면 제1항에는 '성화 7년(1471, 성종 2) 윤9월 일에 세움[成化七年閏九月日立]'이라 쓰고, 제2항에는 '만력 6년(1578, 선조 11) 5월 일에 다시 세움[萬曆六年五月日改立]'이라 썼으며, 제3항에는 '순치 9년(1652, 효종 3) 10월 일에 다시 세움[順治九年十月日改立]'이라 쓰고, 제4항에는 '도광 3년(1823, 순조 23) 5월 일에 다시 세움[道光三年五月日改立]'이라 썼다.

五月二十五日
到付兼監役判官爲牒報事
碑石龍頭與鱗鬣依題辭深刻畢役而前面 書標與後面大年號月日排行謹依書式亦爲入刻後印出封裹上送緣由牒報爲臥乎事

5월 25일
방금 도착한 겸 감역 판관이 첩보하는 일
비석이 용두와 인렵은 제사題辭에서 말한 대로 깊이 파서 일을 끝냈습니다. 전면의 서표書標와 후면의 대년호월일大年號月日은 항을 배열하여 삼가 서식대로 또한 새긴 뒤 인출印出하여 봉과封裹한 다음 올려 보냅니다. 연유를 첩보합니다.

留守題辭
內印紙奉覽是在果前後面字劃益加深刻致精卽爲塡紅宜當向事

유수의 제사에,
"인지印紙를 받아 보았다. 전후면의 자획字劃을 더욱 더 깊이 파 정밀하게 하여 즉시 홍색紅色으로 메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五月二十六日
留守甘結判官爲
相考事
胎室石缸四方石裳石欄干石塗灰剝落處改塗次法油石灰及諸具措備以待俾無臨時窘速之弊宜當向事

5월 26일
유수가 판관에게 보낸 감결
상고하는 일
태실의 석함石缸·사방석四方石·상석裳石·난간석欄干石에 발랐던 회灰가 벗겨지고 떨어진 곳은 다시 바르기 위해 들기름[法油]과 석회石灰, 여러 가지 기구를 준비한 다음 기다려 기일에 닥쳐 군속한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五月二十八日
正憲大夫行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臣洪羲臣狀 啓臣以 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之意已爲馳 啓爲白有在果 碑石段前因禮曹 啓下關私儲中從便貿得磨鍊雕琢矣謹依舊 碑書式 碑石前面書 成宗大王胎室六字是白遣後面第一行書成化七年閏九月日立第二行書萬曆六年五月日改立第三行書順治九年十月日改立第四行書道光三年五月

5월 28일
정헌대부正憲大夫 행 광주부 유수 겸 남한 수어사 신 홍희신은 장계狀啓합니다. 신이 성종대왕의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우도록 이미 치계馳啟하였습니다. 비석은 전에 예조에서 계하를 받은 관문으로 인하여 사저 중에서 편의대로 사서 마련한 뒤 새기고 다듬었습니다. 삼가 이전 비석의 서식대로 전면에는 '성종대왕태실成宗大王胎室' 6자를 쓰고, 후면 제1항에는 '성화7년(1471, 성종 2) 윤9월 일에 세움[成化七年閏九月 日立]'이라 쓰고, 제2항에는 '만력 6년(1578, 선조 11) 5월 일에다시 세움[萬曆六年五月 日改立]'이라 쓰고, 제3항에는 '순치 9년(1652, 효종 3) 10월 일에 다시 세움[順治九年十月 日改立]'이라 썼으며, 제4항에는 '도광 3년(1823, 순조 23) 5월

▶ 0009

日改立三十六字是白乎旀
今月二十七日臣與禮曹參判臣金鎌同爲馳進慶安面佳夕嶺二十八日曉頭先行告事由祭卯時行告后土祭辰時正時至仍爲豎立而舊 碑埋安於傍近淨潔處爲白遣 胎室石缸四方石裳石欄干石塗灰間間剝落故以油灰一一改塗 胎室逼近處樹木不可不除去者亦爲翦伐而同日巳時行謝后土祭後臣則仍爲還營爲白乎旀祭官諸執事職姓名後錄馳 啓爲白臥乎事

일에 다시 세움[道光三年五月 日改立]'이라는 36자를 썼습니다.
이달 27일에 신이 예조 판서 신 김렴金鎌과 함께 급히 경안면慶安面 가마령佳夕嶺에 나아갔고, 28일 꼭두새벽에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냈으며, 묘시에 후토에 고하는 고유제를 지냈습니다. 진시辰時 정시正時에 이르러 바로 비석을 세웠고 예전 비석은 근방 깨끗한 곳에 묻었습니다. 태실의 석항石缸과 사방석·상석·난간석은 발랐던 회가 간간히 떨어져 다시 유회油灰로 낱낱이 다시 발랐으며, 태실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꼭 없애야 할 수목 또한 베었습니다. 같은 날 사시에 후토에 사례제를 지낸 뒤 신은 그대로 영營으로 돌아왔으며, 재관과 여러 집사의 직함과 성명을 후록하여 치계합니다.

後
獻官通訓大夫行廣州府判官朴齊顯 典祀官兼大祝通訓大夫慶安道察訪崔致輔 祝史幼學李南運 齋卽幼學安孟重 贊者前察訪崔宗大 謁者前別將李彦老

<**후록**>
헌관獻官 통훈대부 광주부 판관 박제현朴齊顯. 전사관典祀官 겸 대축 통훈대부 경안도 찰방 최지보崔致輔. 축사祝史 유학幼學 이남운李南運. 재랑齋卽 유학 안맹중安孟重. 찬자贊者 전 찰방 최종대崔宗大. 알자謁者 전 별장前別將 이언로李彦老.

同日
嘉善大夫禮曹參判五衛都摠府副摠管臣金鎌狀啓臣於本月二十六日與本曹佐郎林孝憲辭 朝二十七日到廣州府慶安面成宗大王胎室碑後所是白乎則本府留守兼書標官臣洪羲臣判官兼監役臣朴齊顯董飭役事已爲磨正刻字是白如乎石品極爲堅實頓勝於舊 碑而況以私儲貿得在於便近弊除功倍不日告就誠甚多幸是白乎所二十八日曉頭先行告事由祭卯時行告后土祭辰時與守臣眼同無事豎立後舊 碑段埋安於傍近淨潔處爲白乎旀 胎室石缸四方石裳石欄干石塗灰間間剝落故以油灰一一改塗爲白乎旀 胎室逼近處樹木之不可不除去者謹依前例亦爲翦伐後同日巳時行謝后土祭爲白遣仍爲復路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가선대부 예조참판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 신 김렴金鎌은 장계狀啓합니다. 신이 이달 26일에 본조本曹의 좌랑佐郎 임효헌林孝憲과 하직 인사를 하고, 27일에 광주부 경안면에 있는 성종대왕의 태실 비역소碑後所에 도착하니, 본부의 유수 겸 서표관 신 홍희신이 판관 겸 감역 신 박제현朴齊顯과 함께 감독하고 신칙하여 일을 끝낸 뒤 이미 돌을 매끈하게 하여 글자를 새겼습니다. 돌의 품질이 아주 견실하여 예전 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더구나 편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저에서 사게 했으니 폐단도 없었고, 일은 배로 많았지만 며칠이 되지 않아 완성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28일 꼭두새벽에 먼저 사유를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묘시에 후토에 고유제를 지냈습니다. 진시에 수신守臣과 함께 무사히 비석을 세운 뒤 예전 비석은 근방의 깨끗한 곳에 묻었습니다. 태실의 석항과 사방석·상석·난간석은 발랐던 회가 간간히 벗겨지고 떨어져 낱낱이 다시 발랐으며, 태실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꼭 없애야 할 나무는 삼가 전례대로 또한 베었습니다. 그런 다음 같은 날 사시에 후토에 사례제를 지내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치계합니다.

軍人雜物
碑石運致軍八十名 長杠木二箇 聯軺木八箇 熟麻大束㯳四巨里 熟麻大懸㯳四巨里 葛㯳六巨里 排地乃二箇 役所假家四間 監

<군인과 잡물>
비석을 운반할 군인 80명. 장강목長杠木 2개. 연초목 8개. 속마대속줄熟麻大束㯳 4꾸리[巨里]. 숙마대현줄熟麻大懸㯳 4꾸리. 칡줄[葛㯳] 6꾸리. 밀지레[排地乃] 2개. 역소役所 가가假家 4칸.

▶ 0010

役官假家二間 冶所假家二間 冶匠三名 揮帳二浮 空石五十立 網子八十部 鐵夢同二箇 大釘二十五箇 中釘三十箇 小釘三十箇 長釘四箇
大磨治四箇 小磨治四箇 飛金鐵二十箇 强鐵十五斤 冶炭二十石 靑笞木三丹 擔桶一坐 牛皮一張 狗鹿皮二張 翦板四箇 松烟墨五丁 使喚軍三名 已上治石所入
强礪石十五塊 中礪石五塊 延日石五塊 擔桶二坐 水瓮二坐 毛索四巨里 銑耳二柄 叉乃一柄 鍤二柄 木瓢子二立 杻三太五立 運沙軍五名
汲水軍五名 磨石匠五名 胡桃二幷 白蠟一兩 手巾布十五尺 黃筆一柄 眞墨一丁 壯紙三張 已上磨石及龍頭圖畫所入
白木三十尺 綿紬九尺 刻釘三十箇 刻刀三十箇 黃蜜三斗 粉五斗 眞末一升 多紅絲一巨里 牙膠三張 朱紅一兩 眞墨一丁 壯紙五張 黃筆二 柄 去核一斤 紫帽子二立 白帽子二立 毛綿紙五張 已上刻字及印出所入
綿紬二十尺 白木二疋 布一疋 紅木袱一件 大繩一百把 細繩一百把 壯紙十五張 壯油紙十五張 熟麻大叱四巨里 草席四立 碑石奉運軍六十名 竹篩一部 細篩一部 江灰七石 法油三斗 白紙五束 木槽一坐 土手三箇 陶所羅二坐 木瓢子一箇 擔桶一坐 已上碑石封裹及塗灰所入
漏水假家二間 日影高足床一坐 二層拱床一坐 擔桶一坐 水瓮一坐 陶所羅一坐 陶東海一坐 耳鐺一坐 水壺缸一坐 磨錚巾白木十二尺 拭錚巾白木 十二尺 黃蜜五斗 松脂三斗 馬尾篩一部 木瓢子一立 汲水軍二名 守直軍一名 地排空石十立 揮帳一浮 地衣一浮
香祝奉安假家三間 屛風一坐 高足床一坐 紅紬袱一件 揮帳一浮 仰帳一浮 地衣一浮 油芚三浮
祭物假家三間 揮帳一浮 仰帳一浮 地衣一浮
柳笥四部 細繩五十把 地排空石十立 堂上依接假家三間 祭官依接假家三間 結束假家三間 禮曹堂上郎廳支供三日 傳 香兼奏時官支供三日

감역관監役官 가가 2칸. 치소治所04 가가 2칸. 대장장이[冶匠] 3명. 휘장揮帳 2뜸[浮]. 빈 가마니 50닢[立]. 망자網子 80부部. 쇠몽둥이[鐵夢同] 2개. 대정大釘 25개. 중정中釘 30개. 소정小釘 30개. 장정長釘 4개. 큰 마치[大磨治] 4개. 작은 마치[小磨治] 4개. 비금철飛金鐵 20개. 강철强鐵 15근. 야탄冶炭 20섬. 청태목靑笞木 3단丹. 담통擔桶 1좌坐. 우피牛皮 1장張. 구록피狗鹿皮 2장. 전판翦板 4개. 송연묵松烟墨 5정丁. 사환군使喚軍 3명.<이상 치석治石에 들어감>
센 숫돌[强礪石] 15덩어리. 중간 숫돌[中礪石] 5덩어리. 연일석延日石 5덩어리. 담통 2좌. 수옹水瓮 2좌. 모삭毛索 4꾸리. 굉이[銑耳] 2자루. 가래[加乃] 1자루. 삽鍤 2자루. 나무 표자[木瓢子] 2닢. 싸리나무[杻] 3태太 5닢[立]. 운사군運沙軍 5명. 급수군汲水軍 5명. 마석장磨石匠 5명. 호도胡桃 2되. 백납白蠟 1냥. 수건포手巾布 15자. 황필黃筆 1자루. 참먹眞墨 1정. 장지壯紙 3장<이상 마석磨石 및 용두龍頭 도화圖畫에 들어감>
흰 무명 30자. 면주綿紬 9자. 각정刻釘 30개. 각도刻刀 30개. 황밀黃蜜 3돈[斗]. 분粉 5돈. 진말眞末 1되. 다홍사多紅絲 1꾸리. 아교牙膠 3장. 주홍朱紅 1냥. 참먹1정. 장지 5장. 황필 2자루. 거핵去核 1근. 자줏빛 모자[紫帽子] 2닢. 흰 모자[白帽子] 2닢. 모면지毛綿紙 5장.<이상 각자刻字 및 인출印出 할 때 들어 감>
면주綿紬 20자. 흰 무명 2필. 포布 1필. 홍목보[紅木袱] 1건. 큰 노끈[大繩] 100파把. 가는 노끈[細繩] 100파. 장지壯紙 15장. 장유지壯油紙 15장. 숙마대줄熟麻大叱 4꾸리. 짚으로 짠 자리[草席] 4닢. 비석 봉운군[碑石奉運軍] 60명. 대나무체[竹篩] 1부. 가는 체[細篩] 1부. 강회江灰 7섬. 들기름 3되. 백지 5속. 목조木槽 1좌. 흙손[土手] 3개. 도소라陶所羅 2좌. 나무 표자[木瓢子] 1개. 담통 1좌.<이상 비석 봉과封裹와 도회塗灰할 때 들어 감>
누수漏水 가카 2칸. 일영고족상日影高足床 1좌. 이층공상二層拱床 1좌. 담통 1좌. 수옹水瓮 1좌. 도소라陶所羅 1좌. 질동이[陶東海] 1좌. 이선耳鐺05 1좌. 수호항水壺缸 1좌. 마쟁건백목磨錚巾白木 12자. 식쟁건백목拭錚巾白木 12자. 황밀黃蜜 5돈. 송지松脂 3돈. 마미사馬尾篩 1부. 나무 표자 1닢. 급수군 2명. 수직군 1명. 땅에 깔 빈 가마니[地排空石] 10닢. 휘장揮帳 1뜸[浮]. 지의地衣 1뜸.
향축을 봉안한 가가 3칸. 병풍屛風 1좌. 고족상高足床 1좌. 홍주보 1건. 휘장 1뜸. 앙장仰帳 1뜸. 지의 1뜸. 유둔油芚 3뜸. 제물 가가 3칸. 휘장 1뜸. 앙장仰帳 1뜸. 지의 1뜸. 유사柳笥 4부. 가는 노끈[細繩] 50파. 땅에 깔 빈 가마니 10닢. 당상이 거처할 가가 3칸. 제관이 거처할 가가 3칸. 결속結束 가가 3칸. 예조의 낭성과 낭청 지공支供 3일. 전향 겸 주사관 지공 3일.

04 치소治所 : 원문의 '冶'는 오자이다.
05 이선耳鐺 : 귀때가 달린 복자.

大祝官支供三日 諸執事支供三日 柮炬二十柄 祭床一坐 香床一坐 香爐一坐 香盒一坐 籩四坐 豆四坐 簠器四坐 簋器四坐 松炬二十柄 爵三坐 具臺 尊二坐 燭臺一雙 祝板一坐 床一坐 幣床一坐 豕腥板一坐 床一坐 尊床一坐 盥洗器一坐 爵洗器一坐 篚一坐 布手巾一件 壯油紙一束 壯紙十張 油苫五浮 地衣二浮 揮帳四浮 遮日三浮 拜席一立 地排空石三十立 使喚軍五名 文書白紙三束 黃筆三柄 眞墨一丁

儀軌四件內一件御覽一件禮曹 一件觀象監 一件本府所入大好紙二束 粧衣次草綠禾紬六尺 豆錫片鐵二箇 菊花釘具花板十箇 紅紬袱一件 壯紙四張 壯油紙四張 入盛櫝一坐鑞染粧飾 豆錫鎖金一箇 草席二立 細繩三十把 粧衣三件次白木十八尺 片鐵六箇 菊花釘三十箇 壯紙一束 壯油紙十張 黃筆三柄 朱紅五戔

祭儀

祭前一日設饌幔於東方隨地之宜祀 后土祭設神坐于北方先告事由祭設神位於舊標石前南向設獻官位於東南西向執事位於其南向西北上設贊謁者位於獻官之西俱西向北上開坎於壬地深取容物設望瘞位於南獻官在南北脯設掌饌者率宰人割牲連皮煮熟祭日有司先陳幣篚於神位前次設香爐香盒次設黃燭祭器實饌每位各籩四在左爲二行右上 第一行型鹽在前乾棗次至第二行黃栗在前鹿脯次至 豆四在右爲二行左上 第一行靑菹在前鹿醢次至第二行芹菹在前魚醢次至 若土無者以類代之簠簋各二在籩豆間簠左簋右 簠實以稻粱在前簋實以黍稷在前 俎一在簠簋前 實以豕牲凡言前右者皆南也 爵三在俎前 各有坫 設酒尊二 一實以玄酒爲上一實以淸酒 在西南隅設洗於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罍洗在東加爵篚洗在西南 實以巾爵 有司入實饌畢獻官及大祝贊者謁者祝史齋郎俱着祭服臨時詣外位贊謁者先就拜位北向西上拜訖各就位謁

대축관大祝官 지공 3일. 제집사 지공 3일. 싸리나무 홰[柮炬] 20자루. 제상祭床 1좌. 향상香床 1좌. 향로香爐 1좌. 향합香盒 1좌. 변籩 4좌. 두豆 4좌. 보기簠器 4좌. 궤기簋器 4좌. 소나무 홰[松炬] 20자루. 대臺 갖춘 작爵 3좌. 준(尊 : 술통) 2좌. 촉대燭臺 1쌍. 축판祝板 1닢. 상床 1좌. 폐상幣床 1좌. 시성판豕腥板 1좌. 상床 1좌. 준상尊床 1좌. 관세기盥洗器 1좌. 작세기爵洗器 1좌. 광주리[篚] 1좌. 포수건布手巾 1건. 장유지 1속. 장지 10장. 유둔 5뜸. 지의 2뜸. 휘장 4뜸. 차일遮日 3뜸. 배석拜席 1닢. 땅에 깔 빈 가마니 30닢. 사환군使喚軍 5명. 문서백지文書白紙 3속. 황필 3자루. 참먹 1정.

의궤儀軌 4건 내 1건 어람御覽, 1건 예조, 1건 관상감, 1건 본부本府에 들어갈 대회지大好紙 2속. 장식할 옷감 초록화주草綠禾紬 6자. 두석편철豆錫片鐵 2개. 화판花板 갖춘 국화정菊花釘 10개. 홍주보 1건. 장지 4장. 장유지 4장. 납염鑞染 장식한 담을 궤 1좌. 두석자물쇠[豆錫鎖金] 1개. 짚으로 짠 자리 2닢. 가는 노끈 10파. 장식할 옷 3건 감 흰 무명 18자. 편철 6개. 국화정 30개. 장지 1속. 장유지 10장. 황필 3자루. 주홍 5돈.

제사를 거행한 의식[祭儀]

제사 지내기 하루 전에 동방 알맞은 곳에 찬만饌幔을 설치하였다. 후토에 제사함에 신위神位의 자리를 북방에 배설하고, 먼저 사유事由를 고하는 제사는 신위를 예전 표석標石 앞 남향에 배설하였다. 헌관위는 동남서향에, 집사위는 그 남향에 배설하되, 서북西北을 상위로 하였다. 찬자와 알자는 헌관의 서쪽에 배설하였으니 모두 서쪽을 향하여 서되, 북쪽을 상위로 하였다. 임지壬地에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구덩이를 깊이 팠다. 남쪽에 망예위望瘞位를 배설하고 헌관은 남북에 있었다. 포脯를 진설할 장찬자掌饌者가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희생犧牲을 갈라 껍질을 함께 삶았다. 제사 날에 유사有司가 먼저 폐백 광주리를 신위 앞에 진설하고, 다음은 향로와 향합을, 다음은 황촉을 배설하였다. 제기祭器에 담은 찬은 위位마다 변籩 4개는 왼쪽에 2행을 만든 오른 쪽 위에 있고, <제1행에는 형염型鹽이 앞에 있고, 건조乾棗가 다음으로 이른다. 제2행에는 황률黃栗이 앞에 있고 녹포鹿脯가 다음으로 이른다.> 두豆 4개는 오른쪽 2행을 만든 왼쪽 위에 있다.<제1행에는 청저靑菹가 앞에 있고 녹해鹿醢가 다음으로 이른다. 제2행에는 근저芹菹가 앞에 있고 어해魚醢가 다음으로 이른다.> 만약 그 지역에 없는 제수祭羞를 낼 경우에는 부류에 따라 대신 진설하였다. 보궤簠簋 각 2개는 변두籩豆의 사이에 있는데, 보簠는 왼쪽, 궤簋는 오른쪽이다. <보에는 도稻와 량粱을 담아 앞에 두고, 궤에는 서黍와 직稷을 담아 앞에 두었다.> 도마[俎] 1은 보궤 앞에 두었다. <시생豕牲을 담았다. 앞에서 오른쪽이라 말한 모든 것은 모두 남쪽이다.> 작爵 3은 도마 앞에 두었다. <각각 점坫이 있다.> 술통[酒尊] 2개를 배설하여 <한 통에는 현주玄酒를 담아 상등上으로 여기고, 한 통에는 청주淸酒를 담았다.> 남쪽 귀퉁이에 두었다. 남쪽에 세洗를 배설하고, 관세위盥洗位는 동쪽에, 작세爵洗는 서쪽에, 뇌세罍洗는 동쪽에, 추가한 작비세爵篚洗는 서남에 두었다. <수건과 잔을 담았다.>[06] 유사가 들어가 찬饌을 담는 것을 마쳤다. 그런 다음 헌관과 대축·찬자·알자·축사·재랑이 모두 제복을 입고 거행할 시각에 다다라 외위外位에 나아갔다. 찬자와 알자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되, 서쪽을 상위로 하여 사배한 뒤 각각 자리로 갔다.

06 <수건과 잔을 담았다.> 원문의 '實以巾爵'은 1847(헌종 13) 성상 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의 제의에 '實以巾爵'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者引諸執事入就拜位四拜鞠躬拜興平身謁者引諸執事詣盥洗位 盥洗訖各就位 贊者曰謁者引獻官入就拜位獻官四拜鞠躬拜興平身贊者曰謁者引獻官 詣盥洗位北向立盥洗訖引詣神位前贊者曰跪三上香 執事一人奉香爐一人奉香盒獻官三上香執事置爐於神位前 祝史以幣授獻官執幣祝史執幣奠于神位前贊者曰俯伏興引降復位 小頃贊者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贊者曰跪齋郎執事以爵授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者曰俯 伏興小退跪大祝讀祝訖俯伏興引降復位小頃贊者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行禮一如初獻儀引降復位小頃贊者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禮 幷同亞獻儀引降復位贊者曰行四拜獻官四拜鞠躬拜興平身贊者撤籩豆 祝史進少移奠處 贊者曰望瘞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祝史以篚取幣及 祝文置于坎實土贊者曰謁者引獻官出贊者曰謁者引諸執事俱復拜位四拜鞠躬拜興平身謁者引諸執事次次出

알자가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배위에 나아가 사배四拜하되, 국궁鞠躬하여 절하여 일어나 몸을 바로 세웠다. 알자가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갔다. <관세를 마치고 각각 자리로 갔다.>

찬자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시오.” 하자, 이에 따라 국궁하여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세웠다.

찬자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하자, 이에 따라 북쪽을 향해 서서 관세를 마치니,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갔다.

찬자가 “꿇어 앉아 세 번 향을 올리시오.” 하였다. <집사 1인이 향로를 받들고 1인은 향합을 받들었다. 헌관이 세 번 향을 사려 올렸다. 집사가 신위 앞에 향로를 두었다.> 축사가 폐백을 헌관에게 전해주니, 폐백을 잡았다. 축사가 폐백을 잡아서 신위 앞에 놓았다.

찬자가 “부복俯伏 흥興.” 하였다. 그런 다음 인도하여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시오.” 하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樽所로 나아가 서쪽을 상위로 하여 서서 작酌으로 술을 떠 담아 신위 앞에 나아갔다.

찬자가 “꿇어앉으시오.” 하였다. 이에 조금 물러나 꿇어앉았다. 대축이 축문을 읽은 다음 부복俯伏했다가 일어나 인도하여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시오.” 하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였다. 예식은 모두 아헌례의 의식과 같이 거행하였다. 그런 다음 인도하여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시오.” 하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였다. 예식은 모두 아헌례의 의식과 같이 거행하였다. 그런 다음 인도하여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찬자가 “사배하시오.” 하자, 헌관이 사배하되, 국궁하여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세웠다.

찬자가 “ 변두籩豆를 거두시오.” 하였다. <축사가 나아가 전처奠處를 조금 옮겼다.

찬자가 “망예望瘞를 하시오.” 하니,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섰다. 축사가 광주리로 폐백과 축문을 받아 구덩이에 놓고 흙을 채웠다.

찬자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하였다.

찬자가 “알자는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다시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시오” 하였다. 이에 국궁하여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세웠다. 알자가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갔다.

先告事由祭祝文
維道光三年歲次癸未五月己巳朔二十八日丙申 國王遣臣通訓大夫廣州府判官朴齊顯敢告于 胎室之神伏以有屹其石風松頹壓涓吉虔誠先告改立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尙 饗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에 쓴 축문[先告事由祭祝文]

유維 도광道光 3년 세차歲次 계미년(1823) 5월 기사己巳 삭朔 28일 병신丙申일에 국왕은 신臣 통훈대부通訓大夫 광주부 판관廣州府判官 박제현朴齊顯을 파견하여 감히 태실의 신에게 고하나이다.

삼가 아뢰건대,
우뚝 솟아 있던 돌이
바람이 불어 소나무가 넘어져 눌렀네.
좋은 날을 받아 경건히 정성을 바쳐
먼저 사유를 고하고 다시 세우네.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와
서적黍稷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들을
진설陳設하여 진헌進獻하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서서.

告 后土祭祝文
維道光三年歲次癸未五月己巳朔二十八日丙申國王謹遣臣通訓大夫廣州府判官朴齊顯敢昭告于

후토에 지내는 고유제에 쓴 축문[告后土祭祝文]

유維 도광 3년 세차 계미년(1823) 5월 기사 삭 28일 병신일에 국왕은 삼가 신 통훈대부 광주부 판관 박제현을 파견하여 감히 후토의 신에게 분명히 고하나이다.

▶ 0013

后土之神伏以碑頹石缺禮宜改築載潔芬苾爰告始役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尙 饗

삼가 아뢰건대,
비석이 넘어지고 부서졌으니
다시 세우는 것은 예에 당연하나이다.
정결하게 향을 피우고
이에 시역을 고하나이다.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와
서직黍稷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들을
진설陳設하여 진헌進獻하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서서.

謝 后土祭祝文
維道光三年歲次癸未五月己巳朔二十八日丙申國王謹遣臣通訓大夫廣州府判官朴齊顯敢昭告于后土之神伏以碑石重完補築載訖爰擧報祀永冀 陰騭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尙 饗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에 쓴 축문[謝后土祭祝文]
유維 도광 3년 세차 계미년(1823) 5월 기사 삭 28일 병신일에 국왕은 삼가 신 통훈대부 광주부 판관 박제현을 파견하여 감히 후토의 신에게 분명히 고하나이다.
삼가 아뢰건대,
비석을 중건하고
흙도 보충하여 다졌나이다.
이에 보사제報謝祭를 거행하니
길이 음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와
서직黍稷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들을
진설陳設하여 진헌進獻하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서서.

新豎碑石長廣厚尺數
碑石長五尺二寸內 龍頭長一尺三寸趺孔深六寸廣一尺七寸 厚七寸 龜籠臺石趺孔加鑿二寸五分一新改刻改釘
胎室石缸四方石面裳石欄干石隅磚石蓮葉柱石童子石罅隙處併油灰塗塡
舊 碑埋安於十步許未方淨潔處

새로 세운 비석의 각양 석물의 길이와 너비 척수
비석의 길이 5자 2치 내 <용두龍頭 길이 1자 3치, 받침대 구멍[趺孔] 깊이 6치>, 너비1자 7치, 두께 7치. 귀롱대석龜籠臺石의 바침 구멍을 2자 5푼 더 뚫어 한 층 새롭게 다시 새기고 다시 못질하였다. 태실의 석항石缸·사방석四方石·면상석面裳石·난간석欄干石·우전석隅磚石·연입주석蓮葉柱石·동자석에 틈이 난 곳은 모두 유회를 발라 메웠다.
이전 비석은 10보쯤 떨어진 미방未方 정결한 곳에 묻었다.

員役秩
別看役前郡守柳信儉 都牌將折衝吳彦基 奏時官全久煥 禮曹書吏全慶門 觀象監書員高廷祿 都廳色書吏李在根

원역질員役秩
별간역別看役 전 군수前郡守 유신검柳信儉. 도패장都牌將 절충折衝 오언기吳彦基. 주시관奏時官 전구환全久煥. 예조 서리禮曹書吏 전경문全慶門. 관상감 서원觀象監書員 고정록高廷祿. 도청색 서리都廳色書吏 이재근李在根

工匠秩
石手金成漢金鼎道洪儀得柳春根 刻手崔益大李世榮李完培 畫師僧宥義永學

공장질工匠秩
석수石手 김성한金成漢·김정도金鼎道·홍의득洪儀得·유춘군柳春根. 각수刻手 최익대崔益大·이세영李世榮·이완배李完培. 화사畫師 승僧 유의宥義·영학永學

▶ 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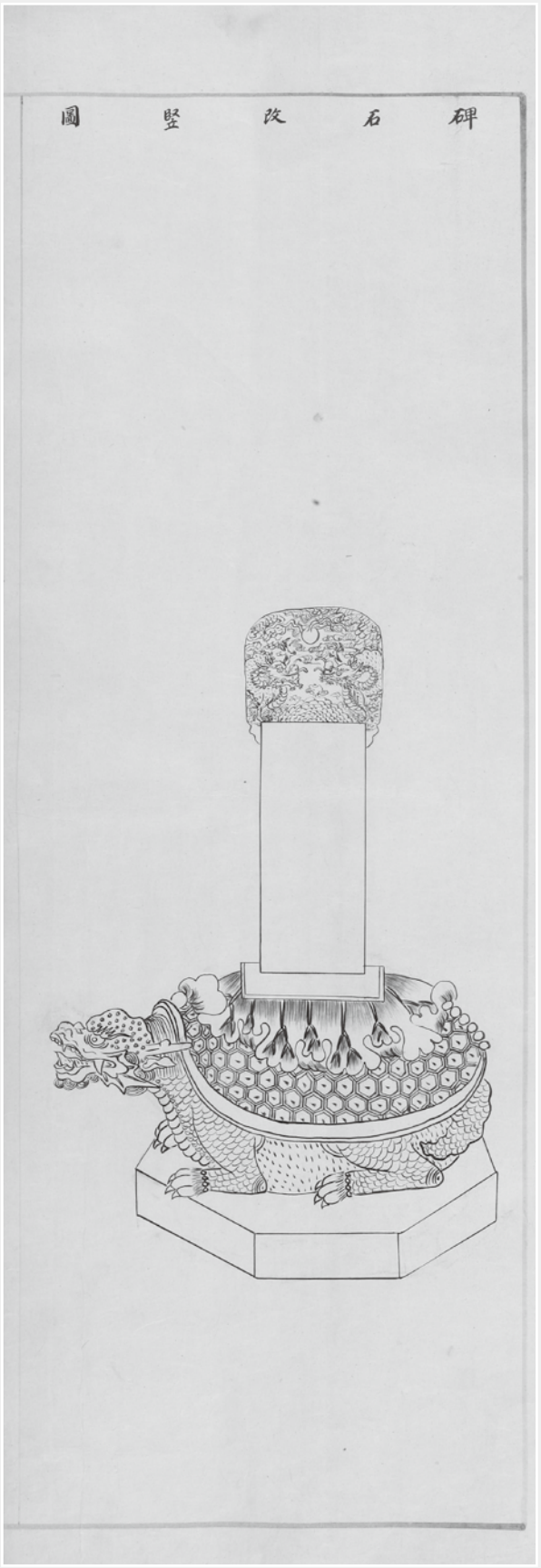
胎室監官金仁哲 守護軍金才孫金得只表六伊梁德仁金連哲金世得	태실 감역관胎室監役官 김인철金仁哲. 수호군守護軍 김재손金才孫·김득지金得只·표육이表六伊·양덕인梁德仁·김연철金連哲·김세득金世得
五月二十五日 留守甘結判官爲 相考事 胎室主山來龍與四山禁標界限詳細尺量以報向事	**5월 25일** 유수가 판관에게 보낸 감결 상고하는 일 태실 주산主山 내룡來龍과 사산四山의 금표禁標 한계限界를 상세히 척량하여 보고할 것.
五月二十六日 到付兼監役判官爲牒報事 卽到甘結內乙用良 胎室四山禁標步數尺量以報是乎在果來龍外東南北三面段皆以大川當初定限是乎喩東北則恰過三百餘步而南一面則未滿三百步是如乎謹稽府上久遠謄 錄則辛亥四月日因禮曹關四標尺量報備局而步數亦如後錄故依前界限申飭禁護爲乎旀緣由牒報爲臥乎事	**5월 26일** 방금 도착한 겸 감역 판관이 첩보하는 일 방금 도착한 감결 내용에 따라 태실의 사산의 금표 보수標步를 측량하여 보고합니다. 내룡 바깥 동남북 삼면은 모두 당초에 정한 큰 내[川]를 한계로 할지, 동북은 300보가 차지 않습니다. 삼가 부府에서 올라온 오래된 등록을 상고해 보니, 신해년 4월 일에 예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사표를 척량하여 비국에 보고하였는데, 보수標步는 또한 후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한계대로 신칙하여 금호禁護하며 연유를 첩보합니다.
後 四山禁標步數 西來龍 東至川三百七十步 南至川二百七十步 北至川三百二十步	**<후록>** 사산四山의 금표禁標 보수步數 서쪽 내룡來龍에서 동쪽 내[川]까지 370보, 남쪽 내까지 270보. 북쪽 내까지 320보.
六月初五日 到付觀象監移文爲 相考事 節啓下敎傳曰廣州府胎室碑石改豎時監董兼書標官留守洪羲臣禮曹參判金鎌各內下豹皮一令賜給地方官兼監役朴齊顯禮曹佐郎林孝憲各兒馬一匹賜給傳香兼奏時官全久喚上弦弓一張賜給別看役前郡守柳信儉陞敍都牌將員役工匠等幷考例施賞亦敎是置奉審施行宜當向事	**6월 초5일** 방금 도착한 관상감의 이문 상고하는 일 이번에 계하하신 전교에, "광주부에 있는 태실의 비석을 다시 세울 때 감동監董겸 서표관 유수 홍희신, 예조 참판 김렴金鎌에게는 각 내하內下**07** 표피豹皮 1령을, 지방관 겸 감역 박제현朴齊顯, 예조좌랑 박효헌朴孝憲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전향 겸 주시관 전구환全久喚에게는 상현궁上弦弓 1장을 사급하고, 별간역別看役 전 군수 유신검柳信儉에게는 승서陞敍하며, 도패장都牌將·원역員役·공장工匠들에게는 모두 규례를 살펴 시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를 봉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
同日 到付戶曹移文爲相考事今番	**같은 날** 방금 도착한 호조의 이문에서 상고하는 일

▶ 0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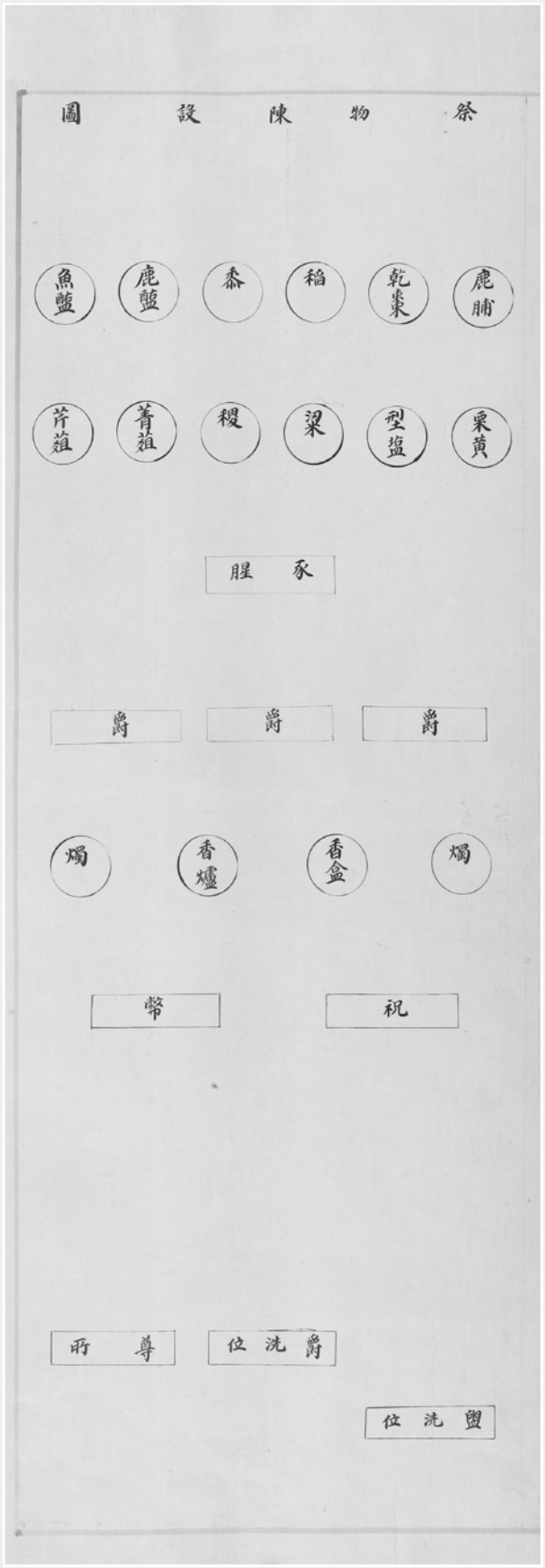
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敎是時都牌將以下別單考例施賞事 判下敎是乎等以曹單子內都牌將吳彦基都廳色吏李在根各木二疋布一疋石手金成漢等四名刻手崔益大等三名畫僧宥義等二名各木一疋考例磨鍊令本府依此施賞以公穀會減之意分付留守事 啓下爲有置相考擧行宜當向事	이번에 성종대왕의 태실 비석을 다시 세울 때 도패장都牌將 이하 별단別單은 규례를 상고하여 시상施賞하도록 판하判下하였다. 그러므로 예조의 단자內 도패장都牌將 오언기吳彦基, 도청 색리都廳色吏 이재근李在根에게는 각각 무명[木] 2필과 포布 1필을, 석수 김성한金成漢 등 4명, 각 수 최익대崔益大 등 3명, 화승畫僧 유의宥義 등 2명에게는 각각 무명 1필을 규례를 상고한 다음 마련하여 본부로 하여금 이대로 시상하도록 하고, 공곡公穀**08**으로 회감會減**09**하도록 유수에게 분부하라고 계하하였다. 이를 상고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함.

07 내하內下 : 내사內賜와 같음.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줌
08 공곡公穀 :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곡식.
09 회감會減 : 엇셈. 곧 주고 받는 것을 서로 비겨 에끼는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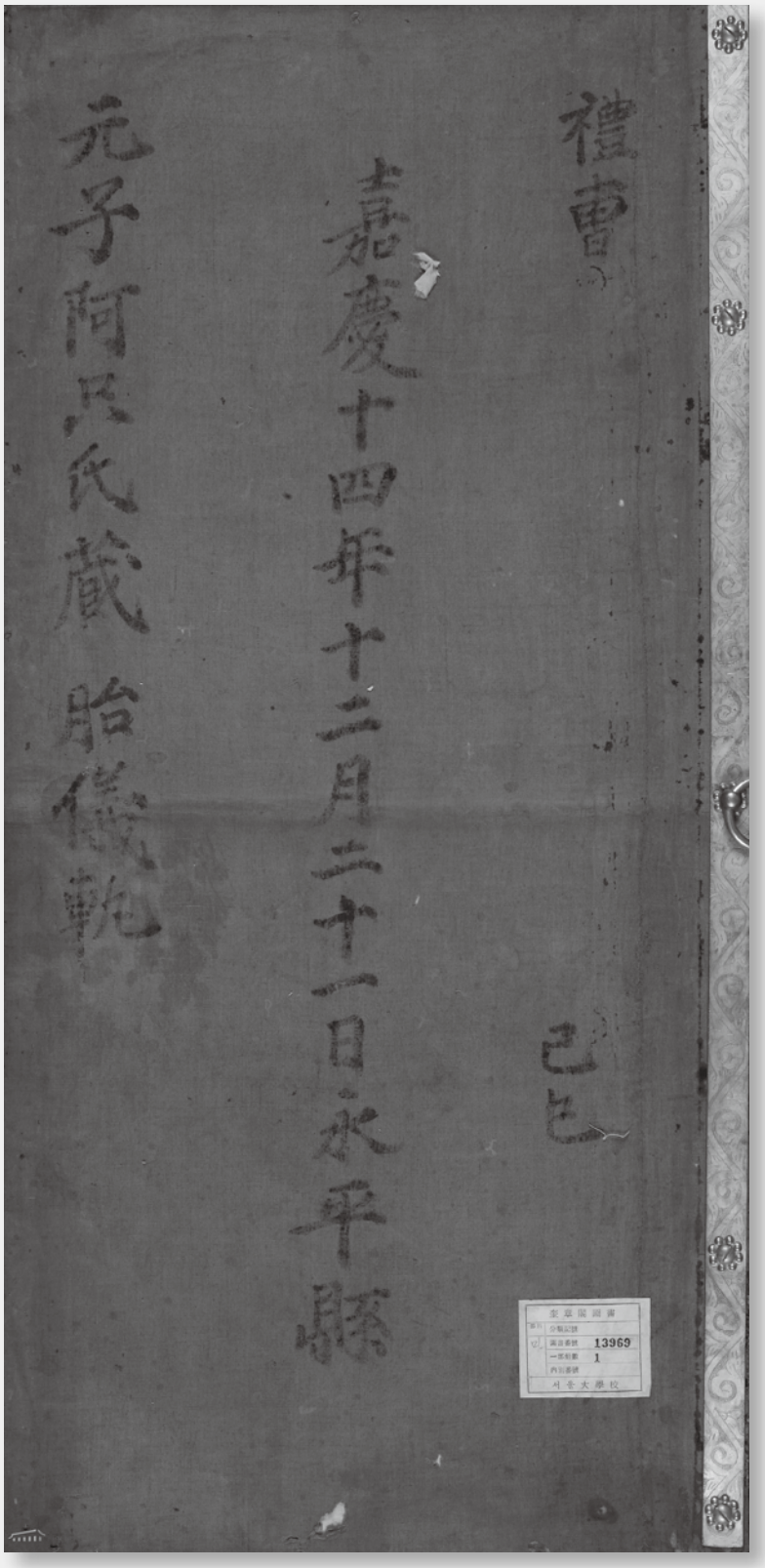
▶ 0016, 0017 비석개수도碑石改竪圖



▶ 0017 제물진설도祭物陳設圖



2.『元子阿只氏藏胎儀軌』원자아기씨장태의궤, 익종(효명세자)



元子阿只氏 藏胎儀軌

원자아기씨 장태의궤

▶ 0003

嘉慶十四年己巳十二月二十一日京畿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卯向地
元子阿只氏安 胎儀軌

가경嘉慶 14년 기사년(1809, 순조 9년) 12월 21일 경기京畿 영평현永平縣 상리면上里面 옛날 향교동鄕校洞 유좌酉坐 묘향卯向 터
원자아기씨 안태의궤元子阿只氏安胎儀軌

一己巳八月十六日
觀象監官員以提調意 啓曰今此 元子阿只氏 胎封依例擧行而取考本監所在謄錄則其中坐向吉利地只是江原道春川府水淸院子坐之原京畿永平 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之原公忠道報恩縣外俗離山下大佛寺後水晶峯下酉坐之原三處而入錄已爲年久難保無頃 依舊例發送本監相地官更加看審備望以入待 稟下以爲涓吉之地何如 傳曰允

1. 기사년(1809) 8월 16일
관상감 관원觀象監官員이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에 원자아기씨의 태를 묻는 일은 규례規例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감本監에 있는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보니 그 가운데 좌향坐向이 길吉한 곳은 오직 강원도江原道 춘천부春川府 수청원水淸院 자좌子坐의 언덕과, 경기原京 영평현永平縣 상리면上里面 옛날 향교동鄕校洞 유좌酉坐의 언덕, 공충도公忠道 보은현報恩縣 외속리산外俗離山 아래 대불사大佛寺 뒤 수정봉水晶峯 아래 유좌酉坐의 언덕 세 곳 뿐입니다. 그러나 입록入錄한 해가 이미 오래되어 탈頃이 없는지는 보장할 수 없으니, 구례舊例대로 본감의 상지관相地官을 보내어 다시 더 간심看審한 뒤 망단자望單子01를 갖추어 들이고 품하稟下하기를 기다려 길일吉日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一八月十七日
相地官地理學校授方慶國肅拜後永平春川報恩等地胎峯看審次下去

1. 8월 17일
상지관相地官 지리학 교수地理學校授 방경국方慶國이 숙배肅拜한 뒤 영평과 춘천, 보은 등 지역의 태봉胎峯을 간심하기 위하여 내려갔다.

一九月初二日
相地官方慶國入來肅拜

1. 9월 초2일
상지관 방경국이 들어와 숙배하였다.

一觀象監官員以提調意
啓曰 元子阿只氏 胎封吉利地江原道春川府水淸院子坐之原京畿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之原公忠道報恩縣外俗離山大佛寺 後水晶峯下酉坐之原三處依舊例發送本監相地官更加看審之意已爲草記蒙 允矣卽者本監地理學校授方慶國下去看審則三處俱爲可合而永平縣酉坐之原比之兩處尤爲吉利依例備望以入之意敢

1. 관상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원자아기씨元子阿只氏의 태胎를 묻을 길지吉地는 강원도 춘천부 수청원 자좌子坐의 언덕과 경기 영평현 상리면 옛날 향교동 유좌酉坐의 언덕, 공충도 보은현 외속리산 아래 대불사 뒤 수정봉 아래 유좌酉坐의 언덕 세 곳에 규례대로 본감 상지관을 보내어 다시 더 간심하도록 올린 초기草記02에 대해 윤허를 받았습니다. 방금 본감 지리학 교수 방경국이 내려가 간심하니, 세 곳이 모두 합당하지만, 영평현 유좌의 언덕이 두 곳에 비해 더욱 길吉하다고 합니다. 규례舊例대로 망단자를 갖추어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01 망단자望單子 : 삼망三望을 벌여 적은 단자.
02 초기草記 : 중앙 각 관아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

▶ 0004

啓 一觀象監 元子阿只氏 胎封吉利地備三望 京畿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卯向 江原道春川府水淸院子坐午向 公忠道報恩縣外俗離山大佛寺後水晶峯下酉坐卯向	**1. 관상감에서 원자아기씨 태를 묻을 길지에 대하여 상망을 갖추었다.** • 경기京畿 영평현永平縣 상리면上里面 옛날 향교동鄕校洞 유좌酉坐 묘향卯向 • 강원도江原道 춘천부春川府 수청원水淸院 자좌子坐 오향午向 • 공충도公忠道 보은현報恩縣 외속리산外俗離山 대불사大佛寺 뒤 수정봉水晶峯 아래 유좌酉坐 묘향卯向
一觀象監官員以提調意 啓曰 元子阿只氏藏 胎吉地京畿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卯向受點矣吉地旣爲完定安 胎吉日時令日官推擇以入何如 傳曰允	**1. 관상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원자아기씨의 태를 묻을 길지吉地는 경기 영평현 상리면 옛날 향교동 유좌 묘향으로 수점하였습니다. 길지는吉地 이미 완정完定되었으니 안태 길일吉日과 길시吉時를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택해서 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一九月初三日 觀象監官員以提調意啓曰 元子阿只氏安 胎吉日時令官推擇以入事草記蒙	**1. 9월 초3일** 관상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원자아기씨 안태할 길일과 길시를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택해서 들이도록 올린 초기草記에 대해

▶ 0005

允矣招問日官則藏 胎之法五朔以藏而來十二月既準五朔且是吉月云以此月擇入何如傳曰允

윤허를 받았습니다. 일관을 불러 물어보니, 장태법藏胎法에 다시 다섯 달 만에 태를 묻는데, 오는 12월이 다섯 달에 준하는데다 길월吉月이라 하였습니다. 이 달로 택입擇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一九月初五日
觀象監官員以提調意啓曰 胎封時安 胎使從事官書標官監役官陪 胎官奏時官各一員進去各監其任例也而庚戌年 胎封時因 特教從事官除之監役官以本邑守令陪 胎官奏時官以本監官員一員兼擧行矣今番則何以爲之敢 啓 傳曰依庚戌年例爲之

1. 9월 초5일
관상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태를 묻을 때 안태사安胎使·종사관從事官·서표관書標官·감역관監役官·배태관陪胎官·주시관奏時官 각 1원員을 나아가게 하여 각각 그 소임所任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 규례舊例였습니다. 경술년(1790, 정조 14)에 태를 묻을 때에는 특교特敎로 인해 종사관은 제외하고 감독관은 본읍의 수령이, 배태관과 주시관은 본감의 관원 1원員이 겸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술년 예대로 하라."
하였다.

一觀象監爲推擇事
今己巳八月初九日申時 誕生元子阿只氏一等 胎峯京畿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卯向落點敎是乎等以藏 胎吉日來十二月二十一日午時是在果始役十一月二十日卯時開基十二月初九日卯時告后土祭同日曉頭先行發胎十二月十八日卯時 胎神安慰祭封土後臨時謝后土祭事畢後臨時設行爲等如推擇爲只爲云云報禮曹

1. 관상감에서 추택하는 일
금년 기사년(1809, 순조 9) 8월 초9일 신시에 탄생한 원자아기씨의 일등一等 태봉胎峯을 경기 영평현 상리면옛날 향교리 유좌 묘향으로 낙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를 묻을 길일은 오는 12월 21일 오시午時입니다. 시역始役은 11월 20일 묘시이고, 개기開基**03**는 12월 초9일 묘시이며, 후토后土에 지내는 고유제告由祭는 같은 날 꼭두새벽이고, 먼저 가서 발태하는 일은 12월 18일 묘시이며, 태신에게 지내는 안위제는 봉토한 뒤 때에 다다라 하고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는 일이 끝난 뒤 때에 다다라 설행하는 것으로 모두 택하소서. 운운 – 예조에 첩보**04**함 -

禮曹 啓目
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 元子阿只氏藏 胎吉日時依牒呈施行何如

예조의 계목啓目**05**에,
"첩정牒呈을 첨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원자아기씨의 태를 묻을 길일과 길시는 첩정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嘉慶十四年九月初四日行右承旨臣李好敏次知啓依允

가경嘉慶 14년(1809, 순조 9) 9월 초4일에 행 우승지右承旨 이호민李好敏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03 개기開基 : 집을 짓기 위하여 터 닦기를 시작함.
04 첩보牒報 : 하급 관청(관원)에서 상급 관천(관원)에 서면으로 보고함.
05 계목啓目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계본啓本에 덧붙인 목록. 소사小事를 계啓할 때 계목으로 한다.

▶ 0006

一九月初七日觀象監官員以提調意
啓曰安 胎時石物古例則用瓮石蓋石內識石標石而庚戌年則因 特敎只用瓮石蓋石矣今番則何以爲之敢 啓 傳曰依庚以年例爲之

1. 9월 초7일
관상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태를 묻을 때 석물石物은 예전 규례規例는 옹석瓮石·개석蓋石·내지석內識石·표석標石을 사용하였는데, 경술년(1790, 정조 14)에는 특교로 인하여 옹석과 개석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술년 예대로 하라"
하였다.

一觀象監爲牒報事
元子阿只氏一等 胎峯京畿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卯向落點敎是乎等以藏 胎吉日今己巳年十二月二十一日午時是在果始役十一月二十日卯時開基十二月初九日卯時告后土祭同日曉頭先行發 胎十二月十八日卯時 胎神安慰祭封土後臨時謝后土祭事畢後臨時設行爲等如推擇爲有置同安 胎時所
入京各司進排物種及一路應行諸事竝以前儀軌相考後錄牒呈爲去乎依前例預先進排事各司及該道良中前期知
委俾無未及之弊爲只爲

1. 관상감에서 첩보하는 일
원자아기씨의 일등一等 태봉胎峯은 경기 영평현 상리면 옛날 향교동 유좌묘향으로 낙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를 묻을 길을은 금년 기사년(1809, 순조 9) 12월 21일 오시입니다. 시역은 11월 20일 묘시이고, 개기開基는 12월 초9일 묘시이며, 후토后土에 지내는 고유제는 같은 날 꼭두새벽이고, 먼저 발태하는 일은 12월 18일 묘시이며, 태신胎神에게 지내는 안위제安慰祭는 봉토한 뒤 때에 다다라 하고, 후토后土에 사례謝禮는 제사는 일이 끝난 뒤 때에 다다라 설행하도록 모두 택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태를 묻을 때 들어가는 경각사京各司에서 진배할 물종과 한 도道에서는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종전의 의궤儀軌를 상고한 다음 후록後錄하여 첩정하니, 전례대로 미리 먼저 진배進排하도록 각사各司와 해도該道에 기일 전에 통지하여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 예조에 첩보함-

後
樓子一諸俱 丹木漆櫃一諸俱 紅染熟麻縛多繪二十四把 三甲所三巨里 條所三巨里 已上繕工監 別紋方席一立 六張付 白紋席地衣一浮 油蓋也一部 柳笥一部 已上用後還下 楮注紙二束 櫃塗紙五張 單幅紙一張 已上長興庫 朱砂七戔 牛黃二分 龍腦 二分 石雄黃二兩 已上典醫監 金銀各六分 五色綃各三尺 毛獐皮四張 胎缸所裹鄕毛氈一浮半 已上戶曹 靑布一疋

<후록後錄>
누자樓子 1제구. 단목丹木으로 만든 칠궤漆櫃 1제구. 홍색으로 물들이 숙마熟麻로 짠 박다회縛多繪 24파. 세겹바[三甲所] 3꾸리[巨里]. 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바[條所] 3꾸리.<이상 선공감繕工監> 별문방석別紋方席 1닢[立]. 여섯 장 붙인 백문지의白紋地衣 1뜸[浮]. 기름 먹인 개야[油蓋也] 1부. 유사柳笥[06] 1부.<이상은 사용한 뒤 되돌려 줌> 저주지楮注紙 2속束. 궤자櫃子를 바를 종이 5장張. 단폭지單幅紙 1장. 주사朱砂 7돈. 우황牛黃 2푼. 용뇌龍腦[07] 2푼. 석웅황石雄黃 2냥.<이상 전의감典醫監> 금은金銀 각 6푼. 오색초五色綃 각 2자. 모장피毛獐皮 4장張. 태항胎缸을 싸는 데 쓸 향모전鄕毛氈 1뜸[浮] 반半.<이상 호조戶曹> 청포靑布 1필疋.

06 유사柳笥 : 버들고리로 결어 만든 상자 비슷한 그릇.
07 용뇌龍腦 : 용뇌수龍腦樹에서 뽑아 낸 무색 투명의 판상 결정板狀結晶. 좋은 향기가 있어 향료의 원료 또는 훈향薰香·구강제口腔劑·방충제防蟲劑 따위에 쓰임.

▶ 0007

青鼎紬四幅付甲褓一件 靑鄕絲三甲繩十尺 靑鼎紬三尺 已上濟用監 香祝 香室 漆燭四柄 義盈庫 杻炬四柄 工曹 藁草三束 司僕寺 擔軍十五名近仗引路二名使令一名皆着靑冠服 兵曹 道路修治 京畿

청정주靑鼎紬 네 폭을 붙여 만든 겹보[甲褓] 1건. 청향사靑鄕絲 세 겹으로 꼰 끈 10자[尺]. 청정주 3자.<이상 제용감濟用監> 향축香祝.<향실香室> 칠촉漆燭 4자루[柄].<의영고義盈庫> 싸리 홰[杻炬] 4자루.<공조工曹> 볏짚[藁草] 3속束.<사복시司僕寺> 담군擔軍 15명. 근장 인로近仗引路 2명. 사령使令 1명.<모두 청색의 관복을 입음. 병조> 도로 보수.<경기京畿>

禮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 元子阿只氏安 胎時所用雜物令該各司急速上下進排爲白乎矣道路修治乙良亦令京畿監司趁卽擧行事移文知委何如

예조의 계목에,
"첩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원자아기씨의 태를 묻을 때 들어갈 잡물을 해각사該各司로 하여금 급속히 차하[上下]하여 진배하도록 하되, 도로를 보수하는 일은 또한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하여금 진각 거행하도록 이문移文**08**하여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嘉慶十四年九月初十日同副承旨臣權丕應次知啓依允

가경 14년(1809, 순조 9) 9월 초10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 권비응權丕應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一觀象監爲牒報事
元子阿只氏一等 胎峯京畿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卯向落點敎是乎等以藏 胎吉日今己巳年十二月二十一日午時是在果始役十一月二十日卯時開基十二月初九日卯時告后土祭同日曉頭先行發胎十二月十八日卯時 胎神安慰祭封土後臨時謝后土祭事畢後臨時設行爲等如推擇爲有置今九月初五日因本監草記依庚戌年例爲之事命下矣 傳敎內辭意奉審擧行爲乎矣同安 胎時所入石物段依庚戌年例只用瓮石蓋石爲乎旀差使員兼監役官段置亦依庚戌年例仍令地方官差定使之浮取可合石監董造成爲乎旀其地應行諸事及外方備辦雜物幷以前儀軌相考後錄牒呈爲去乎依前例惕念擧行事該道良中行移知委爲只爲報禮曹

1. 관상감에서 첩보하는 일
원자 아기씨의 일등 태봉은 경기 영평현 상리면 옛날 향교동 유좌 묘향으로 낙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를 묻을 길일은 금년 기사년 12월 21일 오시입니다. 시역始役은 11월 20일 묘시이고, 개기開基는 12월 초9일 묘시이며, 후토后土에 지내는 고유제告由祭는 같은 날 꼭두새벽이고, 먼저 가서 발태發胎하는 일은 12월 18일 묘시이며, 태신胎神에게 지내는 안위제安慰祭는 봉토한 뒤 때에 다다라 하고, 후토后土에 사례하는 제사는 일이 끝난 뒤 때에 다다라 설행하는 것으로 모두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초5일에 본감本監에서 올린 초기로 인하여 경술년(1790, 정조 14)의 예대로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 내의 내용을 봉심奉審하여 거행하되, 앞에서 말한 태를 묻을 때 들어갈 석물은 경술년의 예대로 옹석과 개석만 사용하여, 차사원差使員 겸 감역관兼監役官 경술년의 예대로 그대로 지방관地方官을 차청하여 적합한 돌을 떠내어 감독하여 조성하도록 하며 그 밖에**09**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과 외방外方에서 준비해야 할 잡물들은 모두 종전 의궤를 상고한 다음 후록하여 첩정하니, 전례대로 척념惕念하여 거행하도록 해도에 이문移文하여 통지하소서. - 예조에 첩보함 -

後

<후록>

08 이문移文 : 관아와 관아 사이에 송사에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냄. 또는 그 문건.
09 원문의 '地'는 '他'의 오자이다. 동치 13년(1874, 고종 11) 안태등록 참조

▶ 0008

胎峯六面閣 甘湯二兩 磊碌三升 石灰三斗 法油一斗 柳笥二部 白筆五柄 眞墨五丁 公事紙三束 漏器排設諸具 告后土祭 胎神 安慰祭 謝后祭獻官本邑守令諸執事本邑儒生 謄錄書寫 御覽謄錄冊一卷所入敦厚紙十五張 紅衣 豆錫裝飾 所裹綿紬紅 裸唐紅絲二巨里 紅木櫃具鎖子 草席四立 小索二十巨里 儀軌四卷所入擣鍊紙二束 紅衣次細木 叟金頭釘具鑞染片鐵 唐朱紅二兩櫃子一部 胎峯直二名 本邑閑丁抄定

태봉胎峯의 육면각六面閣. 감탕甘湯[10] 2냥. 뇌록磊碌[11] 3되[升]. 석회 石灰 3말[斗]. 들기름[法油] 1말. 유사柳笥 2부部. 백필白筆 5자루[柄]. 참먹[眞墨] 5정丁. 공사지公事紙 3속束. 누기漏器를 배설排設할 제구諸具. 후토告后에 고하는 제사. 태신胎神에게 지내는 안위제安慰祭.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 헌관獻官 본읍 수령. 제집사諸執事 본읍 유생儒生. 등록謄錄을 서사書寫하는 일. 어람등록御覽謄錄 1권에 들어가는 돈후지敦厚紙 15장. 붉은 옷[紅衣]. 두석장식豆錫裝飾. 봉과封裹할 면주綿紬로 만든 홍색 보裸. 당홍사唐紅絲 2꾸리[巨里]. 자물쇠 딸린 붉은 목궤木櫃. 짚으로 짠 자리[草席] 4닢[立]. 가는 노끈[小索] 20꾸리. 의궤 4권에 들어갈 도련지擣鍊紙[12] 2속束. 홍색 옷감 세목細木. 편철片鐵에 납염鑞染한 걸쇠두정[叟金頭釘]. 당주홍唐朱紅 2냥[兩]. 궤자櫃子 1부部 태봉직胎峯直 2명.<본읍 한정閑丁 중에서 뽑아 정함>

禮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 元子阿只氏藏 胎時所入雜物乙良休所報令本道及各該司照例趁卽擧行事移文知委何如 嘉慶十四年九月初十日同副承旨臣權丕應次知 啓依允

예조의 계목에,
첩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원자아기씨의 태를 묻을 때 들어갈 잡물을 첩보한 대로 본도本道와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 진작 거행하도록 이문移文하여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가경 14년(1809, 순조 9) 9월 초10일에 동부승지 신臣 권비응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本道雜物分定
一永平謄錄書寫 胎峯直二名 役軍八十名 雇立冶土匠一名
光耳二 加乃二 釜子二 鍤二 空石一百立 漏器排設假家一間 松板五立 安 胎使入接假家一間

楊州 胎峯六面閣 瓮石蓋石
抱川告后祭祭物 柳笥二部 陪 胎官入接假家一間 小帳幕一件 六張付地衣一件
坡州 胎神安慰祭祭物 石灰三斗 草席四立

朔寧 謝 后土祭祭物 法油一斗
加平儀軌四卷所入擣鍊紙二束 紅衣次細木十八尺 叟金頭釘具鑞染 片鐵 櫃子具鎖子
積城 漏器排設諸具
安城 御覽儀軌所入敦厚
紙十五張 紅木豆錫裝飾
高陽白筆五柄眞墨五丁
楊根公事紙三束
長端磊錄三升 御覽儀軌裹次綿紬裸一 空石一百立
豊德 大帳一件 唐朱紅二兩 唐紅絲 二巨里
漣川 甘湯二兩 小索二十巨里
麻田雜物入置假家一間草苫七件 三甲條所十巨里
砥平 靑袋八件 靑襪二十件 各祭祭物所盛祭器以上用後還下
龍仁 大中小白席廣白席各一立
楊川儀軌櫃子一部

본도에 잡물을 분정分定한 내역
- 영평永平 : 등록을 서사하는 일. 태봉직胎峯直 2명. 역군役軍 80명.<고립雇立> 치토장冶土匠[13] 1명.
  괭이[光耳] 2. 가래[加乃] 2. 솥[釜子] 2. 삽鍤 2. 빈 가마니[空石] 100닢[立]. 누기漏器를 배설할
  가가假家 1칸. 송판松板 5닢. 안태사安胎使가 거처할 가가假家 1칸.
- 양주楊州 : 태봉胎峯의 육면각六面閣. 옹석瓮石. 개석蓋石.
- 포천抱川 : 후토에 고유제를 지내는데 쓸 제물. 유사柳笥 1부部. 배태관陪胎官이 거처할 가가假家 1칸. 작은 장막帳幕 1건件. 여섯 장 붙인 지의地衣 1건.
- 파주坡州 : 태신에게 안위제를 지내는데 쓸 제물. 석회石灰 3두斗. 짚으로 짠 자리[草席] 4닢.
- 삭령朔寧 :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쓸 제물. 들기름[法油] 1말.
- 가평加平 : 의궤 4권에 들어갈 도련지擣鍊紙 2속束. 옷감 세목細木 18자[尺]. 편철에 납염鑞染한 걸쇠두정[叟金頭釘]. 자물쇠 딸린 궤자[櫃子].
- 적성積城 : 누기漏器를 배설할 제구諸具
- 안성安城 : 어람의궤御覽儀軌에 들어갈 돈후지敦厚紙 15장. 홍의紅衣. 두석장식豆錫裝飾.
- 고양高陽 : 백필白筆 5자루. 참먹[眞墨] 5정.
- 양근楊根 : 공사지公事紙 3속束.
- 장단長端 : 뇌록磊錄 3되[升]. 어람의궤를 쌀 면주로 만든 보자기 1. 빈 가마니[空石] 100닢[立].
- 풍덕豊德 : 큰 장막 1건. 당주홍 2냥. 당홍사唐紅絲 3꾸리[巨里].
- 연천漣川 : 감탕甘湯 2냥. 가는 노끈 20꾸리[巨里].
- 마전麻田 : 잡물을 넣어 둘 가가 1칸. 초둔草苫[14] 7건. 세 겹 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바[三甲條所] 10꾸리.
- 지평砥平 : 푸른색 자루[靑袋] 8건. 푸른색 버선[靑襪] 20건. 각 제사의 제물을 담을 제기祭器.<이상은 사용한 뒤 돌려 줌>
- 용인龍仁 : 대大·중中·소小 백석·넓은 백석 각 1닢.
- 양천楊川 : 의궤 궤자櫃子 1부部.

一觀象監爲牒報事

1. 관상감에서 첩보하는 일
계하還下 하신

10 감탕甘湯 : 갖풀과 송진을 함께 끓여 만든 접착용 풀.
11 뇌록磊綠 : 산화된 동광상 지대에서 나는 녹색을 띤 광물. 채색의 원료로 쓴다.
12 도련지擣鍊紙 : 종이나 피륙을 다듬잇돌에 다듬질하여 부드럽게 만든 종이.
13 치토장治土匠 : 원문의 '冶'는 오자이다.
14 초둔草苫 : 짚·띠·부들 따위의 풀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

▶ 0009

元子阿只氏安 胎吉日來十二月二十一日午時是在果始役十一月二十日卯時開基十二月初九日卯時發 胎十二月十八日卯時爲等如推擇爲有置前儀軌相考則安 胎一員及陪 胎官兼傳香官奏時官地理學敎授方慶國竝以依前例差出 事移文吏曹爲只爲 報禮曹

一京畿監司臣金在昌
節到付禮曹關內節
啓下敎觀象監牒呈內 元子阿只氏一等 胎峯京畿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卯向 落點敎是乎等以藏 胎吉目今己巳年十二月二十一日午時始役十一月二十日卯時開基十二月初九日卯時告后土祭同日曉頭先行發 胎十二月十八日卯時 胎神安慰祭封土後臨時謝后土祭事畢後臨時設行爲等如推擇爲有置今九月初五日因本監草記依 庚戌年例爲之事 命下矣同安

胎時所入石物段依庚戌年例只用瓮石蓋石是乎旀差使員兼監役官段置亦依庚戌年例仍令地方官差定使 之浮取可合石監董造成事啓下爲有置應入物種後錄移文相考施行向事關是白置有亦

今十二月二十一日良中道內第一名山 元子阿只氏第一 胎峯敎是時應入物種今方另飭於分定各邑使之準備等待是白在果今此莫重之役專意盡誠處 惟是甕石與蓋石是白乎所謹當以軟石浮出鍊磨而地方官永平縣以深峽小之邑凡係擧行恐不無不逮之慮乙仍于

원자아기씨의 태를 묻을 길일은 오는 12월 21일 오시입니다. 시역始役은 11월 20일 묘시이고, 개기開基는 12월 초9일 묘시하며, 발태發胎하는 일은 12월 18일 묘시로 모두 택하였습니다. 종전 의궤를 상고하여 안태사 1원員과 배태관 겸 전향관傳香官·주시관奏時官에 지리학 교수地理學敎授 방경국方慶國을 모두 전례대로 차출하도록 이조에 이문하소서. - 예조에 첩보함 -

1. 경기 감사 신 김재창
방금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이번에 계하還下하신 관상감의 첩정에, '원자아기씨의 일등 태봉은 경기 영평현 상리면 옛날 향교동 유좌 묘향을 낙점落點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를 묻을 길일은 금년 기사년 12월 21일 오시입니다. 시역은 11월 20일 묘시이고, 개기開基는 12월 초9일 묘시이며, 후토后土에 지내는 고유제告由祭는 같은 날 꼭두새벽이고, 먼저 가서 발태發胎하는 일은 12월 18일 묘시이며, 태신胎神에게 지내는 안위제安慰祭는 봉토한 뒤 때에 다다라 하고, 후토后土에 사례하는 제사는 일이 끝난 뒤 때에 다다라 설행하는 것으로 모두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초5일에 본감에서 올린 초기草記로 인하여 경술년의 예대로 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하였다.
앞에서 말한 태를 묻을 때 들어갈 석물은 경술년(1790, 정조 14)의 예대로 옹석과 개석만 사용하며, 차사원差使員 겸 감역관監役官도 경술년의 예대로 그대로 지방관을 차정하여 적합한 돌을 떠내어 감독하여 조성하도록 계하하였다. 들어갈 물종物種을 후록하여 이문하니 상고하여 시행하도록 관문을 보낸다."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21일에 도내 제1명산名山에 원자아기씨 제1 태봉을 할 때 들어가야 할 물종은 금방 특별히 각읍에 분정하여 준비한 다음 기다리라고 신칙하였습니다. 지금 이 막중한 일에 성의를 다할 곳은 옹석과 개석뿐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연석軟石을 떠내어 연마해야 하는데, 지방관地方官인 영평현은 깊은 산골 구석진 작은 고을로 모든 일을 거행함에 있어서 미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 0010

同擇石治石之節已爲移定於楊州牧是白遣雖於向後事其在審愼之道有不可專責於永平縣是白如乎以楊州牧使閔命爀 仍定都差使員使之監董告完之地爲白乎旀緣由馳 啓爲白臥乎事是良旀詮次 善啓向敎是事
嘉慶十四年十一月二十八日
啓下禮曹

그 돌을 골라서 연마하는 일은 이미 양주목楊州牧에 이정移定하였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일이지만 살피고 삼가는 도에 있어서 영평현에만 책임을 전담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주 목사 민명혁閔命爀을 그대로 도차사원都差使員으로 정하여 일을 감독하여 완공하도록 했습니다. 연유를 치계馳啟하는 일인 만큼 전차詮次로 선계善啓[15]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 14년(1809, 순조 9) 11월 28일
예조에 계하하였다.

一吏曹今此
元子阿只氏藏 胎時安 胎使單洪明浩陪胎兼傳香奏時官地理學敎授方慶國陪胎節次

1. 이조吏曹에서 이번에 원자아기씨의 태를 묻을 때 안태사는 홍명호洪明浩를, 배태陪胎 겸 전향傳香・주시관奏時官은 지리학 교수 방경국方慶國을 단망單望하였다.

一陪胎節次
掖庭署先期設 胎缸奉安幕次於景福門內其日安胎使以下俱着黑團領詣幕次前時至奉出 胎缸安于幕次以毛獐皮鄕毛氈裹之安于函承旨傳于安胎使盛于樓子儀杖鼓吹擧火四柄由敦化門正路出十二月二十日到永平縣二十一日詣佛谷山下胎峯奉安于幕次安胎節次

1. 태를 모신 절차[陪胎節次]
액정서掖庭署에서 기일에 앞서 태항胎缸을 설치하고, 경복문景福門 안에서 막차를 봉인하였다. 그 날 안태사 이하의 관원들이 모두 흑단령黑團領[16]을 입고 막차幕次에 나아가 태항을 받들고 나와 작은 막차에 안치하였다. 쌌던 모장피毛獐皮와 향모전鄕毛氈으로 싸서 함에 안치하여 안태사에게 전하자, 누자樓子에 담아 의장儀杖과 고취鼓吹가 횃불 4자루를 들고 돈화문 정로正路를 통하여 나갔다. 12월 20일에 영평현에 도착하였으며, 21일에 불곡산佛谷山 아래의 태봉에 나아가서 막차에 봉안하였다.

一安 胎節次
十二月二十一日午時安 胎使以下俱着黑團領詣幕次奉出 胎缸安于小幕次去所裹毛獐皮鄕毛氈及外陶缸以靑鄕絲三甲繩纏結封之以朱砂題云

1. 태를 묻을 절차[安胎節次]
12월 21일 오시에 안태사 이하의 관원들이 모두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막차幕次에 나아가 태항을 받들고 나와 작은 막차에 안치하였다. 쌌던 모장피와 향모전 및 질항아리[陶缸]를 제거하고 청향사靑鄕絲 세 겹으로 묶어 싼 뒤 주사朱砂로

15 선계善啓 : 임금에게 서면을 아뢰는 일을 높이어 이르는 말.
16 흑단령黑團領 : 검은 빛깔의 단령. 단령은 문무 관원들이 입었던 공복으로 깃이 둥글고 소매가 넓으며 길이는 발뒤꿈치까지 내려오는 위아래가 붙은 포. 당상관은 무늬가 있는 검은 사, 당하관은 무늬가 없는 사를 사용하였음.

▶ 0011

元子阿只氏 胎安 胎使臣洪明浩以甘湯鎔缸缸蓋隙以靑鼎紬三尺修拭 胎缸午時安于石甕中封處向前靑黃赤白黑五色綃各三尺置于所屬方位金銀各六分置于中央靑鼎紬三尺甲褓一單幅紙一張次次覆于缸上以朱砂七銖牛黃 二分龍腦二分石雄黃二兩交合散布于缸外四面遂下蓋石又以油灰塗蓋石之隙用黃正土堅築平土行 胎神安慰祭作室封沙土室高三尺經十尺圓經三十尺 用營造尺 行謝后土祭

‘원자아기씨 태. 안태사 신 홍명호[元子阿只氏胎安胎使臣洪明浩]’라 썼다. 감탕으로 항아리 뚜껑의 틈에 욕사(鋊砂 : 구리가루와 모래)**17**를 바르고 청정주靑鼎紬 3자로 태항을 잘 닦았다. 오시에 석옹 속에 앙치하되 봉한 곳이 앞을 향하도록 하였다. 청靑·황黃·적赤·백白·흑黑 다섯 가지 색의 비단 각 3자[尺]를 해당되는 방위에 놓고 금과 은 각 6푼[分]을 중앙에 놓은 뒤 청정주 3자, 겹보[甲褓] 1, 단폭지單幅紙 1장을 차례차례 항아리 위에 덮고, 주사朱砂 7돈[銖], 우황牛黃 2푼, 용뇌 2푼, 석웅황 2냥을 서로 섞어 항아리 바깥쪽 네 면에 산포散布하였다. 마침내 개석을 덮고 또 유희로 개석의 틈을 바른 다음 좋은 황토 흙으로 단단히 다져서 땅을 고른 뒤에 태신에게 지내는 안위제를 지냈다. 태실을 짓고 사토沙土를 봉했는데, 태실은 높이가 3자이고, 지름이 10자이며, 둘레가 30자였다.<영조척營造尺**18**을 사용하였음> 후토에게 사례하는 제사를 거행하였다.

一瓮石蓋石浮取軟石於黃海道兎山地石品最好運致 胎峯下鍊精造成瓮石高二尺五寸圍七尺中央鑿深一尺三寸五 分圓圍三尺九分穿底孔深一尺一寸五分圍四寸蓋石高九寸圍七尺鑿深一寸五分

1. 옹석과 개석은 황해도 토산 지역의 품질이 가장 좋은 연석을 떼내어 태봉 아래로 운반하여 잘 다듬어 조성하였다. 옹석은 높이가 2자 5치이고, 둘레가 7자이며, 중앙을 파낸 깊이가 1자 3치 5푼이고, 원둘레가 3자 9푼이며, 바닥을 뚫은 구멍은 깊이가 1자 1치 5푼이고, 둘레가 4치였다. 개석은 높이가 9치이고, 둘레가 7자이며, 파낸 깊이가 1치 5푼이었다.

告后土祭祝文
一告后土祭祝文
維嘉慶十四年歲次己巳十二月丙戌朔初九日甲午 國王謹遣臣永平縣令曹文檢敢昭告于 后土之神伏以將營 胎室敢告 神明庶 歆菲儀 俯賜康寧謹以牲幣 醴齊粢盛 陳明薦尙 饗

1. 후토에 지내는 고유제에 쓴 축문[告后土祭祝文]
유維 가경 14년 세차歲次 기사년(1809, 순조 9), 12월 병술丙戌 삭朔 초9일 갑오甲午 일에 국왕은 삼가 신臣 영평 현령永平縣令 조문검曹文檢을 파견하여 감히 후토의 신神에게 분명히 고하나이다.
삼가 아뢰건대,
태실을 지어
감히 신명에게 고하나이다.
보잘 것 없는 의식을 흠향하시어
강녕을 굽어 내려주소서.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와
서직黍稷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들을
진설陳設하여 진헌進獻하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서서.

胎神安慰祭祝文
一胎神安慰祭祝文 維嘉慶十四年歲次己巳十二月丙戌朔二十一日丙午
國王謹遣臣永平縣令曹文檢敢昭告于 胎室之神伏以載涓吉日旣營 胎室庸展安慰冀行 歆格謹以牲幣醴齊 粢盛庶品式陳明薦尙 饗

1. 태신에게 지내는 안위제에 쓴 축문[胎神安慰祭祝文]
(維) 가경 14년 세차 기사년(1809), 12월 병술丙戌 삭朔 21일 병오일에 국왕은 삼가 신 영평 현령 조문검을 파견하여 감히 태실의 신에게 분명히 고하나이다.
삼가 아뢰건대,
좋은 날을 잡아
이미 태실을 지었나이다.
이에 안위제를 지내니
신명이 감응하여 이르소서.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와
서직黍稷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들을
진설陳設하여 진헌進獻하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서서.

謝后土祭祝文
一謝后土祭祝文

1. 후토에게 사례하는 제사에 쓴 축문[謝后土祭祝文]

17 원문의 용항龍缸은 ‘욕사鋊砂’의 오자이다.
18 영조척營造尺 : 목수들이 쓰는 자. 주척周尺의 1자 9푼 9리에 해당한다.

維 嘉慶 十四年 歲次 己巳 十二月 丙戌 朔 二十一日丙午
國王謹遣臣永平縣令曹文檢敢昭告于 后土之神伏以旣成 胎室敢陳謝儀冀 垂英顧庶幾佑之謹以牲幣醴齊
粢盛庶品式陳明薦尙 饗

(維) 가경 14년 세차歲次 기사년(1809), 12월 병술丙戌 삭朔 21일 병오일에 국왕은 삼가 신 영평 현령 조문검을 파견하여 감히 후토의 신에게 분명히 고하나이다.
삼가 아뢰건대,
이미 태실을 완공하여
감히 사례의 의식을 베푸나이다.
영령英靈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우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와
서직黍稷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들을
진설陳設하여 진헌進獻하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서서.

行祭儀
一行祭儀
獻官及大祝贊者謁者祝史齊郎俱着祭服行祭臨時詣外位贊者謁者先就拜位四拜後各就位贊者曰謁者引諸執 事入就拜位四拜鞠躬拜興平身謁者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後各就位贊者曰謁者引獻官入就拜位四拜鞠躬拜興 平身贊者曰謁者引獻官詣盥洗位盥洗訖引詣神位前跪執事一人奉香爐一人奉香盒獻官三上香訖執事置爐 于神位前祝史以幣授獻官獻官獻幣祝史執幣奠于神位前俯伏興降復位小頃贊者曰行初獻禮謁者引獻 官詣樽所酌酒引詣神位前齊郎執酌授獻官獻官執酌祝史受酌奠于神位前俯伏興小退跪大祝讀訖俯伏興 仍降復位小頃贊者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詣樽所酌酒引詣神位前齊郎執酌授獻官獻官執酌獻酌執事 受酌奠于神位前仍降復位小頃贊者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詣樽所行禮竝同亞獻儀贊者曰四拜獻官鞠 躬四拜興平身贊者曰撤籩笠祝史撤籩笠移古處贊者曰四拜獻官鞠躬四拜興平身贊者曰望瘞謁者引 獻官詣望瘞位祝史以篚取幣及祝文置于坎實土贊者曰謁者引獻官以次出謁者諸執事俱詣拜位鞠躬 四拜興平身謁者引諸執事出贊者亦就位四拜以次出

1. 제사를 거행한 의식
헌관과 대축大祝·찬자贊者·알자謁者·축사祝史·재랑齊郎이 모두 제복祭服을 착용하고 제사를 거행하였는데, 거행할 시각에 이르러 외위에 나아갔다. 찬자와 알자가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 사배四拜한 뒤 각각 위치로 갔다.
찬자가 "알자는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시오." 하자, 이에 따라 국궁鞠躬하여 사배四拜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세웠다. 알자가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한 뒤 각각 위치로 갔다.
찬자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시오." 하자, 이에 따라 국궁하여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세웠다.
찬자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시오." 하였다. 이에 관세하기를 마치고,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집사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고 1인이 향합香盒을 받들었다. 헌관이 세 번 향을 사려 올렸다. 그런 다음 집사가 향로를 신위 앞에 놓았다. 축사가 폐백을 헌관에게 전해주니, 헌관이 폐백을 바쳤다. 축사가 폐백을 잡아서 신위 앞에 놓은 다음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그대로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시오." 하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樽所로 나아가 작酌으로 술을 떠 담자, 신위 앞으로 인도하여 나아갔다. 재랑齊郎이 술을 떠 담은 작酌을 잡아 헌관에게 전해주니, 헌관이 작을 잡아 올렸다.[19] 이에 축사祝史가 작을 받아서 신위 앞에 놓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대축이 축문을 읽은 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그대로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시오." 하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갔다. 작으로 술을 떠 담자, 신위 앞으로 인도하여 나아갔다. 재랑이 술을 떠 담은 작酌을 잡아 헌관에게 전해주니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올렸다. 이에 집사執事가 작을 받아서 신위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시오." 하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갔다. 예식은 모두 아헌례의 의식과 같이 거행하였다.
찬자가 "사배하시오." 하니, 헌관이 국궁하여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세웠다.
찬자가 "변두籩豆를 거두시오." 하니, 축사가 변두를 거두어 예전 있던 곳으로 옮겼다.
찬자가 "사배하시오." 하니, 알자가 헌관이 국궁하여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세웠다.
찬자가 "망예望瘞하시오." 하니,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 위에 나아갔다. 축사가 광주리로 폐백과 축문을 받아 구덩이에 놓고 흙을 채웠다.
찬자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시오." 하였다. 이에 알자와 여러 집사들이 모두 배위에 나아가 궁궁하여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세웠다. 그러자 알자가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나갔다. 찬자도 역시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차례로 나갔다.

一各祭獻官以地方官差定仍行終獻禮諸執事亦以本官校生差定大祝齊郎祝史贊者謁者散齋二日致齋一日

1. 각종 제사의 헌관은 지방관으로 자청하여 그대로 종헌례를 행하고, 집사도 본관의 유생으로 차정하며, 대축·재랑·축사·찬자는 산재散齋 2일과 치재致齋 1일을 행하였다.

19 '獻酌' 두 글자가 누락되었다.

▶ 0013

一胎峯火巢依例以二百步定式事	1. 태봉의 화소峯火20는 규례대로 200보步를 정식定式으로 하였다.
一胎峯直二名本邑閑丁充定事	1. 태봉 지기[胎峯直] 2명은 본읍의 한정으로 충정하였다.
一安 胎使正憲大夫知敦寧府事臣洪明浩於本月十八日奉 命陪 胎發行同月二十日到永平縣二十一日詣佛舞 山下 胎峯午時與本道觀察使臣金在昌眼同安 胎是白遣 胎峯火巢依例二百步定標爲白乎旀臣一行 段完役後明日發行回還伏計緣由竝以馳 啓爲白臥乎事	1. 안태사 정헌대부正憲大夫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신臣 홍명호洪明浩는 이달 18일에 명을 받들어 태를 모시고 발행하여 같은 달 20일에 영평현에 도착하였고, 21일에 불무산佛舞山 아래의 태봉에 나아갔습니다. 오시에 본도 관찰사 신 김재창金在昌과 함께 태를 묻었고, 태봉의 화소는 규례대로 200보로 정표定標하였습니다. 신 일행一行은 완역完役한 뒤 명일明日에 발행하여 돌아갈 예정이므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馳啓합니다.
[員役] 嘉慶十四年十二月二十一日	가경 14년(1809, 순조 9) 12월 21일
一看役將校朴惠泰色吏朴時豊看役營吏金宗哲軟石鍊精石手李春三木手周鳳儀冊匠全致郁	1. 간역 장교看役將校朴는 박혜태朴惠泰, 색리色吏는 박시풍朴時豊, 간역 영리看役營吏는 김종철金宗哲, 연석軟石을 다듬은 석수石手는 이춘삼李春三, 목수木手는 주봉의周鳳儀, 책장冊匠은 전치욱全致郁이었다.
一陪 胎 香陪兼文書執吏郭載天奏時書員禹昌根	1. 배태향배陪胎香陪 겸 문서집리文書執吏는 곽재천郭載天, 주시서원奏時書員은 우창근禹昌根이었다.

▶ 0014

兼監役官通訓大夫行永平縣令 曺文檢[手決]	겸 감역관監役官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영평 현령行永平縣令 조문검曺文檢[착명着名]
監董都差使員通政大夫行楊州牧使 閔命爀[手決]	감동 도차사원監董都差使員 통정대부通政大夫 행 양주목사行楊州牧使 민명혁閔命爀[착명]
嘉義大夫京畿觀察使兼巡察使 金在昌[手決]	가의대부嘉義大夫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兼巡察使 김재창金在昌[착명]
陪胎兼傳香奏時官通訓大夫觀象監教授 方慶國[手決]	배태陪胎 겸 전향兼傳香 주시관奏時官 통훈대부通訓大夫 관상감觀象監 교수教授 방경국方慶國[착명]
安胎使正憲大夫知敦寧府事 洪明浩[手決]	안태사安胎使 정헌대부正憲大夫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홍명호洪明浩[착명]

20 화소火巢 :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묘의 해자 밖에 있는 초목을 불살라 버린 곳.

3.『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익종대왕 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

翼宗大王 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익종대왕 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

▶ 0003

道光十六年丙申三月 日京畿永平縣
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乙未五月初十日
藥房入診入 侍時領議政沈象奎所啓 翼宗大王胎室封在京畿永平而今於追 崇禮成之後卽當按禮加封令該曹待今年秋成涓吉擧行而謹稽謄錄則御極後 胎室加封係是應行之 儀節也德山所封胎室亦爲一體加封之意分付該曹何如 大王大妃殿答曰翼宗大王胎室事體有異卽爲擧行 當宁胎室加封事更待 下敎可也

乙未閏六月十五日
藥房入 診大臣備局堂上引見入 侍時觀象監提調朴周壽所啓向因領事所奏有 翼宗大王胎封待秋加封事 命下而聞日官言今年則坐向有所忌明年則無所拘云更待來春擧行似好故敢此仰達矣 大王大妃殿答曰待明春擧行可也

乙未十一月十九日
觀象監爲牒報事京畿永平地 翼宗大王胎室石欄干蓋簷石中童石裳石磚石標石龜籠臺造排吉日來三月二十一日辰時 胎室開基始役吉日同月十一日卯時先始南方先 告事由祭同日曉頭行告后土祭同日卯時行石物始役吉日正月二十七日辰時謝后土祭事畢後隨時設行爲等如推擇爲只爲 報禮曹

禮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
翼宗大王胎室石物加封吉日時乙良依牒呈施行爲白乎矣令觀象監及本道監司吉日時及良趁卽擧行事知委何如
道光十五年十一月二十日右承旨臣
李寅敎次知 啓依允

도광 16년 병신년(1836, 헌종 2) 3월 일 경기京畿 영평현永平縣
익종대왕 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을미년(1835, 헌종 1) 5월 초10일
약방藥房이 입진入診하러 입시했을 때, 영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익종대왕(翼宗大王 : 孝明世子)의 태실봉胎室封이 경기 영평永平에 있습니다. 지금 추숭追崇01하는 예를 마친 뒤 바로 예를 살펴 가봉해야하니 해조로 하여금 금년 추수를 기다려 길일吉日을 받아 거행하도록 하소서. 삼가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어극御極한 뒤 태실을 가봉加封하는 것은 당연히 거행해야 할 의식 절차입니다. 덕산德山에 봉한 태실도 일체 가봉하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이 답하기를
"익종대왕 태실은 사체事體가 남다르다. 즉시 거행하고, 당저當宁 태실을 가봉하는 일은 다시 하교下敎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을미년(1835) 윤6월 15일
약방이 입진하고,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이 때 입시한 관상감 제조 박주수朴周壽가 아뢰기를,
"지난 번 영사領事가 아뢴 바로 인하여 익종 대왕 태봉은 가을을 기다려 가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관日官의 말을 들으니, 금년은 좌향坐向이 꺼리는 바가 있지만 명년은 구애되는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내년 봄을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대왕대비전이 답하기를,
"내년 봄을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을미년(1835) 11월 19일
관상감에서 첩보하는 일
경기 영평 지역에 있는 익종대왕 태실의 석난간石欄干·개첨석蓋簷石·중동석中童石·상석裳石·전석磚石·표석標石·귀롱대龜籠臺를 조성하여 배설할 길일은 내년 3월 21일 진시이고, 태실의 개기開基 시역 길일은 같은 달 11일 묘시인데 먼저 남방부터 시역하며,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설행하고, 후토에 고하는 제사는 같은 날 묘시에 설행하며, 석물 시역 길일은 정월 27일 진시이고,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는 일을 마친 뒤 수시로 설행하도록 모두 택하소서. - 예조에 첩보함 -

예조의 계목에,
"첩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익종대왕 태실의 석을 가봉할 길일과 길시는 첩정대로 시행하되, 관상감과 본도 감사로 하여금 길일과 길시에 미쳐 즉시 거행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도광 15년(1835, 헌종 1) 11월 20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이인교李寅敎가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01 추숭追崇 :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제왕帝王의 칭호를 주는 일.

▶ 0004

乙未十一月二十一日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節到付禮曹關內節 啓下敎觀象監牒呈內 翼宗大王胎室石欄干蓋簷石中童石裳石磚石標石龜簏臺造排吉日來三月二十一日辰時 胎室開基始役吉日同月十一日卯時先始南方先告事由祭同日曉頭行告后土祭同日卯時行石物始役吉日正月二十七日辰時謝后土祭事畢後隨時設行爲等如推擇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 翼宗大王胎室石物加封吉日時乙良依牒呈施行爲白乎矣令觀象監及本道監司吉日時及良趁卽擧行事知委何如道光十五年十一月二十日右承旨臣 李寅敎次知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奉審施行宜當向事關是置有亦關內辭緣奉審應行諸事預先造備擧行爲乎矣 胎室加封旣係重大事役措辦亦甚不少若或一毫疎忽必致無限生梗多定勤愼解事吏校使之經紀擧行之地而石品先得可合處然後可以浮出
本邑境內與近處他境間廣加訪求後形止預先直報于該監亦報營門以爲看品取捨之地爲旀關到日時爲先牒報向事 右關永平縣

을미년(1835) 11월 21일
관찰사 겸 순찰사가 상고하는 일
방금 도착한 예조에 관문에,
"이번에 계하하신 관상감 첩정에, '익종대왕 태실의 석난간·개첨석·중동석·상석·전석·표석·귀롱대를 조성하여 배설할 길일은 내년 3월 21일 진시이고, 태실의 개기開基 시역하며,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설행하고, 후토에 고하는 제사는 같은 날 묘시에 설행하며, 석물 시역 길일은 정월 27일 진시이고,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는 일을 마친 뒤 수시로 설행하도록 모두 택하소서.' 하였다. 이를 근거한 예조의 계목啓目에, '첩정을 첩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익종대왕 태실 석물 가봉 길일과 길시를 첩정한 대로 시행하되, 관상감과 본조 감사로 하여금 길일과 길시에 미쳐 즉시 거행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도광 15년(1835) 11월 20일에 우승지 신 이인교李寅敎가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계하 내의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로 관문關文을 보낸다."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봉심하여 거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은 미리 먼저 만들어 준비한 뒤 거행하되, 태실 가봉은 이미 중대한 일이고 마련하는 것도 매우 적지 않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하면 반드시 한없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근실하고 신중하며 일을 잘 아는 이교吏校를 많이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기經紀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석재의 품질은 먼저 적합한 곳을 얻은 뒤에 떠낼 수 있으니, 본읍 경내와 근처 다른 경내 사이를 널리 더 찾아 구한 뒤 상황을 먼저 직접 해감該監에 첩보하고 또한 영문營門에도 첩보하여 간품看品한 다음 취사取捨하여 선택하도록 하며, 관문이 도착할 일시를 먼저 첩보할 것. - 위의 내용을 영평현永平縣에 관문을 보냄 -

乙未十一月二十六日
觀象監官員以提調意 啓曰在前 胎室加封時本監官員一員臨時下送監董工役矣今此 翼宗大王胎室加封時亦依已例磨鍊之意敢 啓 傳曰知道

을미년(1835) 11월 26일
관상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앞에서 말한 태실을 가봉할 때 본감 관원 1원員을 때에 닥쳐 내려 보내어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익종대왕 태실을 가봉할 때에도 전례대로 마련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乙未十二月初十日
藥房入 診大臣備局堂上引見入 侍時左議政洪奭周所啓 翼宗大王胎室加封吉日在於明春矣 胎室加封時觀象監提調一員繕工監提調各一員進去監董乃是舊例而曾在乙巳 景慕宮胎室加封時因特敎兩提調中一員兼進擧行書標官亦爲兼差其後辛酉年 正宗大王胎室加封丙寅年 先大王胎室加封時皆遵此例而伊時因雲觀草記擧行矣今亦當依此擧行而時無領事不敢如例直奏云故敢此仰達矣

을미년(1835) 12월 초10일
약방이 입진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 때 입시한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익종대왕 태실 가봉 길일이 내년 봄에 있습니다. 태실을 가봉할 때 관상감 제조 1원員, 선공감 제조 1원員이 나아가 감독하는 것이 구례舊例였습니다. 지난 을사년(1785, 정조 9)에 경모궁 태실을 가봉할 때에는 특교로 인하여 두 제조 가운데 1원員만 겸진兼進하여 거행하고, 서표관書標官도 겸차兼差하였습니다. 그 뒤 신유년(1801, 순조 1) 정종대왕의 태실을 가봉하고, 병인년(1806, 순조 6)에 선대왕의 태실을 가봉할 때 모두 이 전례를 따랐는데, 그 때 관상감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되, 현재 영사領事가 없어 감히 전례와 같이 직접 아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大王大妃殿答曰今番亦依此爲之可也

대왕대비전이 답하기를,
"이번에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觀象監爲牒報事京畿永平地
翼宗大王胎室加封吉日來丙申三月二十一日辰時加封是在石欄干蓋簷石中童石裳石磚石標石龜籠臺等石物始役吉日來丙申正月二十七日辰時幷只啓下爲有在果監役兼傳 香奏時官段依前儀軌以本監地理學敎授韓廷厚移文吏曹監役官差出 啓下以爲石物始役時先期馳進磨鍊擧行之地爲乎旀本監提調亦依前儀軌加封時趁期進參監董之意玆以牒報爲去乎以此定奪爲只爲 報禮曹題辭內監役官 啓下事移文吏曹向事

관상감에서 첩보하는 일
경기 영평 지역에 있는 익종대왕 태실 가봉 길일은 내년 병신년(1836, 헌종 2) 3월 21일 진시이고, 가봉할 석난간·개첨석·중동석·상석·전석·표석·귀롱대 등의 석물 시역 길일은 내년 병신년 정월 27일 진시로 모두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감역監役 겸 전향兼傳香·주시관奏時官은 이전 의궤儀軌대로 본감本監 지리학 교수地理學敎授 한정후韓廷厚를 이조에 이문移文하여 감역관으로 차출한 다음 계하하여 석물을 시역할 때 기일 전에 급히 나아가 거행하도록 하며, 본감 제조도 이전 의궤대로 가봉할 때 기일에 맞춰 진참進參하여 감독하도록 이에 첩보하니, 이를 정탈定奪하소서. - 예조에 첩보했더니, 제사題辭에, "감역관을 계하할 일을 이조에 이문할 것."이라 하였다. -

永平縣令爲牒報事
卽到禮曹關據本道巡營關內乙用良 胎室加封敎是時石物浮出處別定監色廣加訪求則本縣境內有三處而似可取捨是乎等以同地名及距 胎室里數幷爲後錄牒報爲臥乎事 報本監題辭內京石手下去後以爲取舍之地爲好向事報營門待該監知委看品後完定處所之地宜當向事

영평 현령이 첩보하는 일
방금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근거하고, 본도 순영의 관문으로 인하여 태실을 가봉할 때 석물을 떠낼 곳을 특별히 감색監色을 정해 널리 더 찾아 구했더니, 본현 경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취사取捨하여 선택할 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명과 태실과의 떨어진 이수里數를 모두 후록後錄하여 첩보합니다. - 본감에 첩보했더니, 제사에, "경석수가 내려 간 뒤 차사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영문營門에 첩보했더니, "해감의 통지를 기다려 간품한 뒤 처소를 완전히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後
城洞里大川邊有一處距 胎室爲五里
鵂巖洞有一處距 胎室爲十里
五養洞有一處距 胎室爲二十五里

<후록>
성동리城洞里 큰 냇가에 있는 한 곳은 태실과의 거리가 5리里가 됨.
휴암동鵂巖洞에 있는 한 곳은 태실과의 거리가 10리가 됨.
오양동五養洞에 있는 한 곳은 태실과의 거리가 25리가 됨.

乙未十二月十九日
觀象監爲牒報事
京畿永平地翼宗大王胎室已爲封 胎爲有等以石物明春加封事奉承 傳擇日擧行亦分付導良石欄干蓋簷石中童石裳石磚石標石龜籠臺造排吉日來三月二十一日辰時 胎室開基同月十一日卯時先始南方始役正月二十七日辰時爲等如推擇爲良旀軍人及雜物一依辛酉年
正宗大王胎室石物造排時及丙寅年

을미년(1835) 12월 19일
관상감에서 첩보하는 일
경기 영평 지역에 있는 익종대왕 태실은 이미 태를 봉하였으므로 석물을 내년 봄에 가봉할 일은 승전承傳을 받들어 길일을 택해 거행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드디어 석난간·개첨석·중동석·상석·전석·표석·귀롱대를 조성하여 배설할 길일은 내년 3월 21일 진시이고, 태실의 개기는 같은 달 11일 묘시인데 먼저 남방부터 시역하며, 시역은 정월 27일 진시로 모두 택하였는 만큼 군인과 잡물은 한결같이 신유년(1801, 순조 1) 정종대왕 태실의 석물을 조성하여 배설할 때와 병인년(1806, 순조 6)

▶ 0006

純宗大王胎室石物造排時儀軌抄出後錄爲去乎依例 啓下後本道及各該司良中預先知委正月二十七日始役及良工匠軍人及機械雜物一依後錄無遺進排 俾無臨時窘迫之弊爲只爲 報禮曹

순종대왕純宗大王 태실의 석물을 조성하여 배설 할 때의 의궤대로 가려낸 다음 후록하였습니다. 규례대로 계하한 뒤 본도와 각 해사에 미리 먼저 통지하여 정월 27일 시역에 미쳐 공장工匠과 군인, 기계, 잡물을 한결같이 후록한대로 빠짐없이 진배하여 때에 닥쳐 군색하고 급박한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 예조에 첩보함 -

後
赴役軍二百名 當令烟軍一朔赴役 領役事知使令二名庫直一名文書執吏一人 以上本監差定 石灰八石水夢同一箇正鐵一千斤內打造中夢同十箇小夢同二十五箇立釘五 十箇助乙釘一百三十箇串釘二百箇倚只金五十箇排之乃四箇漢馬赤三十箇銑伊五箇大釘三箇斧子四箇大錯三箇 長二尺 小錯七箇佐耳四箇刻刀 五十箇細漢十箇小馬赤十五箇添鐵二百斤 以上用還 油灰次法油八斗油灰交合次白休紙二十斤大小帳幕 以上分定各官 監役官齎去印信一顆 禮曹 書標官 提調兼行都差使員 本官定體 奏時官監役官兼行畫員本道 京石手二名鄕石手三十四名 本道各官 木手二名刻字匠二名 本道 熟麻迸 分定各邑用還柳笥二部一 應公事下紙筆墨 以上分定各官 爐冶匠四名 本官或隣近邑 儀軌五件內一件 御覽一件禮曹一件觀象監一件監營一件本官成籍擣鍊紙四束草注紙 一束紅衣次細布亖金頭釘鑞染石物結裹次空石一百立 以上分定各官 香祝三件香室 先告事由祭告后土祭謝后土祭各樣石物曳入僧軍或烟軍隨 其石物輕重容入 分定各官 監役官入接假家雜物入置庫間 分定各官 監役官支供及文書執吏庫直事知使令諸色匠人驅從奴子供饋 分定各官 漏器排設諸 具 本官 時急文書傳通驛子浮石所 胎室往來留待馬供饋 分定各官 儀軌書寫 本官校生 獻官祭官 守令中諸執事守令或前銜生進 事

<**후록**>
부역군 200명 <연군烟軍에게 한 달 동안 부역하게 함>. 영역 사지 사령
領役事知使令 2명. 고직庫直 1명. 문서집리文書執吏 1인. <이상은 본감에서 차정> 석탄 8섬. 물몽둥이[水夢同] 1개. 정철正鐵 1,000근, 내 두드려 만든 중몽둥이[中夢同] 50개와 소몽둥이[小夢同] 25개. 입정立釘 50개. 졸정助乙釘 130개. 꼬치정[串釘] 200개. 의지쇠[倚只金] 10개. 밀지레[排之乃] 4개. 큰 마치[漢馬赤] 30개. 괭이[銑伊] 5개. 대정大釘 3개. 도끼[斧子] 4개. 큰 줄[大錯] 3개 <길이 2자>. 작은 줄[小錯] 7개. 자귀[佐耳] 4개. 각도刻刀 50개. 세한細漢 10개. 작은 마치[小馬赤] 15개. 첨철 200근. <이상은 사용한 뒤 돌려줌> 유회油灰에 들어갈 들기름[法油] 8되. 유회와 섞어 합할 백휴지 20근. 크고 작은 장막. <이상은 각 관에 분정> 감역관이 가져갈 인신 1과顆. <예조> 서표관 제조 겸행 도차사원. <본관 정체定體> 주시관 감역관 겸행 화원兼行畫員. <본도> 경석수 2명. 향석수 34명. <본도 각관> 목수 2명. 각자장刻字匠 2명. <본도> 숙마줄熟麻迸. <각읍에 분정, 사용한 뒤 돌려줌> 유사柳笥 2부. 일응공사하지필묵一應公事下紙筆墨. <이상은 각관에 분정> 노야장爐冶匠 4명 <본관 혹 인근 읍> 의궤 5건 내 1건 어람御覽, 1건 예조, 1건 관상감, 1건 감영, 1건 본관. 성적成籍할 도련지 4속. 초주지 1속. 붉은 옷감 세포細布. 납염한 걸쇠 2정. 석물을 묶어 쌀 빈 가마니 100닢. <이상은 각관에 분정> 향축 3건. <향실香室>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 후토에 고하는 제사.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 각종 석물을 예입曳入할 승군僧軍 혹 연군烟軍은 그 석물의 경중에 따라 용입함. <각관에 분정> 감역관이 거처할 가가假家. 잡물을 넣어둘 창고. <각관에 분정> 감역관 지공支供과 문서집리, 고직, 사지사령, 제색장인, 구종驅從, 노자奴子 공궤. <각관에 분정> 누기漏器를 배설할 제구諸具. <본관> 시급한 문서를 전통傳通할 역자驛子. 부석소와 태실을 왕래할 유대마留待馬 공궤. <각관에 분정> 의궤서사. <본관 교생> 헌관과 제관. <수령 중에서 차정, 제집사는 수령이거나 이전 직함이 생원·진사중에서 차정함.>

禮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翼宗大王胎室石物造排時所入雜物工匠乙良依所報令本道及各該司趁卽擧行事移文知委何如道光十五年十二月二十日同副承旨臣黃秾次知 啓依允

예조의 계목에,
"첩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익종대왕 태실의 석물을 조성하여 배설할 때 들어갈 잡물과 공장을 첩보한 대로 본도와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도광 15년(1835, 헌종 1) 12월 20일에 동부승지 신 황협黃秾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乙未十二月二十二日
禮曹爲相考事
節啓下敎觀象監牒呈內京畿永平地翼宗大王胎室已爲封 胎爲有等以石物明春加封事奉承 傳擇日擧行亦分付導良石欄干蓋簷石中童石裳石磚石標石龜籠臺造排吉日來三月二十一日

을미년(1835) 12월 22일
예조에서 상고하는 일
이번에 계하하신 관상감의 첩정에,
"경기 영평 지역에 있는 익종대왕 태실은 이미 태를 묻었습니다. 그러므로 석물을 내년 봄에 가봉할 일은 승전을 받들어 길일을 택해 거행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드디어 난간석·개첨석·중동석·상석·전석·표석·귀룡대를 조성하여 배설할 길일은 내년 3월 21일

▶ 0007

辰時 胎室開基同月十一日卯時先始南方始役正月二十七日辰時爲等如推擇爲良旀軍人及雜物一依辛酉年 正宗大王胎室石物造排時及丙寅年 純宗大王胎室石物造排時儀軌抄出後錄爲去乎依例 啓下後本道及各該司良中預先知委正月二十七日始役及良工匠軍人及機械雜物一依後錄無遺 進排俾無臨時窘迫之弊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 翼宗大王胎室石物造排時所入雜物工匠乙良依所執令本道及各該司趁卽擧行事移文知委何如 啓依允事 啓下爲有置玆以後錄移文爲去乎相 考施行宜當向事 右關畿營

진시이고, 태실의 개기는 같은 날 11일 묘시인데 먼저 남방부터 시작하며, 시역은 정월 27일 진시로 모두 탁한 만큼 군인과 잡물을 한결같이 신유년(1801, 순조 1) 정종대왕 태실의 석물을 조성하여 배설할 때와 병인년(1806, 순조 6) 순종대왕 태실의 석물을 조성하여 배설할 때의 의궤에서 가려 낸 다음 후록하였습니다. 전례대로 계하한 뒤 본도와 각 해사에 미리 먼저 통지하여 정월 27일 시역에 미쳐 공장工匠과 군인, 기계, 잡물을 한결같이 후록한 대로 빠짐없이 진배하여 때에 닥쳐 군색하고 급박한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를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첩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익종 대왕 태실의 석물을 조성하여 배설할 때 들어갈 잡물과 공장을 처보한 대로 본도와 각 해사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이에 후록하여 이문하니,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 - 위의 내용을 기영畿營에 관문을 보냄 -

乙未十二月二十七日
觀察使兼巡察使
爲相考事節到付觀象監關內卽見永平縣令所執則 胎室加封敎是時石物浮出處廣加訪求本縣境內 有三處似可取舍云故京石手下去後以爲取舍之地爲好之意頃已題送爲有如乎正月初旬間京石手二名當爲下送矣浮石差使員以隣近邑守令趁卽差定是如可京石手下去後與都差使員馳詣浮石所詳細看品浮取後可合石物各各封裹一以呈禮曹一以呈本監以爲看品之意磨鍊 行會爲旀始役後所入雜物段置依已例分定各該邑俾無臨時生梗之弊爲旀分定雜物修成冊卽爲報來以爲憑考之地宜當向事關是置有 亦關內辭緣相考擧行爲乎矣始役後各樣應用雜物從當磨鍊分定是在果同浮石差使員以抱川縣監差定爲去乎待京石手下去卽 爲馳進浮石所與浮石差使員眼同詳細看品浮取後可合石物各各封裹上送以呈禮曹雲觀以爲看品停當之地爲旀地方官例兼監役官是如 應行諸事知此預先經紀措備及時擧行各項次知監色必以勤愼解事者各別擇定另加嚴飭俾無一毫不謹疎忽之弊爲旀關到日時及監色姓 名成冊卽速牒報向事 右關永平縣

을미년(1835) 12월 27일
관찰사 겸 순찰사가 상고하는 일
방금 도착한 관상감 관문에,
"지금 영평 현령의 첩보를 보니, '태실을 가봉할 때 석물을 떠낼 곳을 널리 더 찾아 구했더니, 본도 경내에 세군대가 있으니 취사取舍하여 선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기에, '경석수가 내려간 뒤 취사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번에 이미 제사를 보냈다. 정월 초순初旬 간에 경석수 2명이 내려갈 것이니, 부석 차사원은 인근 읍 수령으로 즉시 차정했다가 경석수가 내려간 뒤 도차사원과 함께 부석소에 급히 나아가 상세히 간품하여 떠낸 뒤 적합한 석물을 각각 봉과封裹하여 하나는 예조에 올리고, 하나는 본감에 올려 간품하도록 마련하여 행회行會하며, 시역한 뒤, 들어갈 잡물은 전례대로 각 해읍에 분정하여 때에 닥쳐 불화不和가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분정한 잡물은 성책成冊을 만들어 즉시 보고하여 빙고憑考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로 관문을 보낸다."
하였다. 관문 내의 내용을 상고하여 거행하되, 시역한 뒤 각양 사용할 잡물은 앞으로 마련하여 분정할 것이다. 부석 차사원은 포천 현감으로 차정하니, 경석수가 내려가기를 기다려 즉시 부석소에 나아가 부석 차사원과 함께 상세히 간품하여 떠낸 뒤 적합한 석물을 각각 봉과하여 올려 보내 예조와 운관雲觀에 올려 간품하여 정당(停當 : 상의)하도록 하라. 지방관이 으레 감역관을 겸하니 거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이를 알아 먼저 미리 경기經紀한 다음 마련하여 때에 미쳐 거행하며, 각항을 담당할 감색은 반드시 근실하고 신중하며 일을 잘 아는 사람을 각별히 차정한 다음 따로 엄중하게 신칙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삼가지 않아 소홀히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관문이 도착한 일시와 감색의 성명을 성책하여 속히 첩보할 것. - 위의 내용을 영평현 관문을 보냄 -

丙申正月初二日吏曹

병신년(1836, 헌종 2) 정월 초 2일

▶ 0008

翼宗大王胎室加封教是時監役兼傳 香奏時官望觀象監教授韓廷厚

이조에서 익종대왕의 태실을 가봉할 때 감역 겸 전향 주시관은 관상감 교수 한정후韓廷厚를 단망하였다.

丙申正月初三日
觀察使兼巡察使狀 啓節到付禮曹關內云云關是白置有亦 翼宗大王胎室加封教是時應入物種今方另飭於分定各邑以爲前期準備及時進排是白在果今此 胎室加封係是莫重之役而地方官永平縣以偏小 峽邑凡諸擧行之節恐有不逮之慮玆除良己巳年安 胎教是時以其地方邑擧行之難於專責其時道臣具由 啓聞後以楊州牧使別 定都差使員使之監董是白如乎見今加封工役旣係浩大該邑事勢甚於往時謹依己巳年已行之例以楊州牧使柳基常差定都差使員以爲 董役告完之地爲白乎旀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啓下禮曹

병신년(1836) 정월 초3일
관찰사 겸 순찰사의 장계에,
"방금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운운云云 관문을 보낸다.' 하였습니다. 익종대왕 태실을 가봉할 때 들어가야 할 물종을 금방 분정한 각읍에 따로 신칙하여 기일 전에 준비하여 때에 미쳐 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태실의 가봉은 더없이 중대한 일인데, 지방관인 영평현은 편소偏小한데다 산골에 있는 고을로 여러 가지 거행할 일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염려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년(1809, 순조 9)에 태를 봉안할 때 그 지방 읍에다 전적으로 책임 지워 거행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 때 도신이 연유를 갖추어 계문한 뒤 양주 목사를 특별히 도차사원으로 차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가봉하는 일이 이미 방대한데, 해읍의 사세가 과거보다 더 심합니다. 삼가 기사년에 이미 행한 전례대로 양주 목사 유기상柳基常을 도차사원으로 차정한 뒤 일을 감독하여 완공을 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유를 치계합니다. - 예조에 계하하였음 -

丙申正月初六日
觀象監官員以題調意 啓曰
翼宗大王胎室石物加封已爲擇日 啓下矣謹稽本監謄錄則 列聖朝胎室體樣不一其制故自乙巳年以後依 英廟朝胎室石物加封時例 稟定擧行矣今此加封石物長廣尺數依例擧行恐合事宜何以爲之敢 稟 傳曰依乙巳年例爲之

병신년(1836) 정월 초 6일
관상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익종대왕 태실의 석물 가봉은 이미 택한 날을 계하하였습니다. 삼가 본감 등록을 상고하니, 열성조의 태실 체양體樣이 그 제도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을사년(1785, 정조 9) 이후로는 영묘조의 태실 석물을 가봉할 때의 예대로 품정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가봉하는 석물의 길이와 너비 척수를 규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일에 합당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을사년(1785)의 예대로 하라."
하였다.

觀象監爲牒報事
今此京畿永平地 翼宗大王胎室加封教是時石物始役吉日以今月二十七日辰時推擇爲有置各項祭 香祝例傳于本道監營而與地方官道里稍遠則有直傳于 地方官之例今番則何以爲之是乎旀監役官齎去印信一顆依例題給爲只爲 報禮曹題辭內 香祝依前例直傳于地方官印信臨時輸送向事

관상감에 첩보하는 일
이번에 경기 영평 지역에 있는 익종대왕 태실을 가봉할 대 석물 시역 길일은 이달 27일 진시로 택하였습니다. 각항의 제사 향축香祝은 으레 본도 감영에 전하지만 지방관과 거리가 조금 멀면 바로 지방관에게 전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감역관이 가져갈 인신印信 1과顆를 규례대로 제급해 주소서. - 예조에 첩보했더니, 제사題辭에, "향축은 전례대로 직접 지방관에게 전하고 인신은 때에 닥쳐 보낼 것."이라 하였다. -

禮曹爲相考事
觀象監牒呈據今此永平地

예조에서 상고하는 일
관상감의 첩정에 근거하여 이번 영평지역에 있는

▶ 0009

翼宗大王胎室加封敎是時各項祭 香祝依前例令本監監役官直傳于地方官爲去乎相考施行宜當向事 右關畿營

익종대왕 태실을 가봉할 때 각항의 제사 향축은 전례대로 본감 감역관으로 하여금 직접 지방관에게 전하도록 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 - 위의 내용을 기영畿營에 관문을 보냄 -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節到付禮曹 啓下關內永平地翼宗大王胎室加封吉日來三月二十一日辰時 胎室開基同月十一日卯時浮石始役正月二十七日辰時推擇 啓下爲有如乎始役後各樣應用雜物從當分定發關是在果石物浮出處該縣境內有三處而正月初旬間當自雲觀下送京石手是如乎同浮石差使員縣監差定爲去乎監色這這探問臨期馳進浮石所與地方官眼同詳細看品浮取後石物各各封裹上送一呈禮曹一呈觀象監以爲看品停當之地爲乎矣凡係擧行諸事十分惕念檢飭監董俾無一毫疎忽之弊爲旀關到日時及擧行監色姓名成冊卽速牒報向事 右關浮石差使員抱川縣監

관찰사 겸 순찰사가 상고하는 일
반금 도착한 예조의 계하 관문에,
"영평 지역에 있는 익종대왕의 태실 가봉 길일은 오는 3월 21일 진시이고, 태실의 개기는 같은 달 11일 묘시이며, 부석 시역은 정월 27일 진시로 택하여 계하하였다."
하니, 시역한 뒤 각종 사용해야 할 잡물은 앞으로 분정하여 관문을 보낼 것이다. 석물을 떠낼 곳은 해현 該縣 경내에 세 군데가 있으니, 정월초순 간에 마땅히 운관에서 경석수를 보낼 것이라 한다. 그 부석 차사원은 현감을 차정하였으니 감색을 정한 다음 낱낱이 탐문하여 기일에 임박하여 부석소에 나아가 지방관과 함께 상세히 간품하여 돌을 떠낸 뒤 석물을 각각 봉과하여 올려 보내 하나는 예조에, 하나는 관상감에 올려 간품하여 정당(停當 : 상의)하도록 하되, 거행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매우 척념惕念한 뒤 검칙檢飭하고 감독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며, 관문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감색의 성명을 성책成冊하여 속히 첩보할 것. -위의 내용을 부석 차사원 포천 현감에게 관문을 보냄-

丙申正月十五日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卽接都差使員楊州牧使所報則今此 胎室加封敎是時石物看品次牧使今月十三日馳到永平縣與浮石差使員抱川縣監及監董官永平縣令眼同轉往于石在處詳細看審是乎則鵂巖五養城洞三處之中城洞石品最爲合用而石手所告亦爲可合是如故可合石玆以堅封上使是如仍于乙同石片入送爲去乎相考施行爲宜向事 右關禮曹

병신년(1836) 정월 15일
관찰사 겸 순찰사가 상고하는 일
방금 도차사원 양주 목사牧使의 첩보를 보니,
"이번 태실을 가봉할 때 석물을 간품하기 위하여 목사가 이달 13일에 영평현에 급히 도착하여 부석 차사원 포천 현감, 감동관監董官 영평 현령과 함께 돌이 있는 곳으로 옮겨 가 상세히 간심하니, 휴암鵂巖·오양五養·성동城洞 세 곳 가운데 성동의 석재 품질이 가장 쓰기에 적합하였습니다. 석수도 적합하다고 했으므로 적합한 돌을 이에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석편石片을 들여보냈으니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 -위의 내용을 예조와 관상감에 관문을 보냄-

觀象監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節到付禮曹 啓下關內永平地翼宗大王胎室加封吉日來三月二十一日辰時 胎室開基同月十一日卯時浮石始役正月二十七日辰時推擇 啓下爲有如乎所入役軍及機械雜物依儀軌謄錄後錄分定爲去乎到關卽時役軍段必以年少壯健者各別抄擇裹粮等待鐵物與雜物段依數措備運置官庫是如可待更關擧行爲乎矣可合石品在於 封山近處者爲三處是如爲置來正月初旬間待京石手下去看品其可用與否停當始役後卽當陸速輸納是如乎須悉此意預先經紀準備無或有臨時未及生事之弊爲旀今此加封之役本道則雖是初有之事分以他道謄錄觀之各樣雜物初不分定於民間亦無會減於公穀而各自本官自備擔當是遣一自分定之後邑無頃報之事營無聽施之例幷須知悉擧行爲旀關到日時及次知監色姓名成冊卽

관찰사 겸 순찰사가 상고하는 일
방금 도착한 예조의 계하 관문에,
"영평 지역에 있는 익종대왕 태실의 가봉 길일은 오는 3월 21일 진시이고, 태실의 개기는 같은 달 11일 묘시이며, 부석 시역은 정월 27일 진시로 택하여 계하하였다."
하였다. 들어갈 역군과 기계, 잡물은 의궤와 등록대로 후록後錄하여 분정하였으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역군은 반드시 젊고 건강한 사람을 뽑아 양식을 싸서 기다리게 하고, 철물과 잡물은 수효대로 마련하여 관고官庫에 운반해 두었다가 다시 관문을 기다려 거행하되, 적합한 석재 품질이 봉산封山 근처 세 곳에 있다 하였다. 오는 정월 초순 간에 경석수가 내려가기를 기다려 간품하여 그 돌이 쓸 만한지 여부를 상의하여 시역한 뒤 바로 육지로 속히 수납해야 할 것이다. 꼭 이런 뜻을 알아 미리 먼저 경기經紀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혹시라도 때에 닥쳐 미치지 못하여 일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이번에 가봉하는 일은 본도에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지금 다른 도의 등록을 보면 갑종 잡물을 당초에 민간民間에 분정하지 않았고 또한 공곡公穀에서 회감會減하지도 않았으며, 각각 본관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담당하였다. 한번 분정한 뒤로는 읍에서는 탈보頃報[02]하는 일이 없었고, 영營에서는 청시聽施[03]하는 일이 없었다. 아울러 부디 알아서 거행하며 관문이 도착한 일시와 담당 감색의 성명을 성책하여 즉시

02 탈보頃報 : 뜻밖에 탈이 일어난 사실을 보고함
03 청시聽施 : 청원이나 요구를 들어서 그대로 베풀어 줌.

▶ 0010

爲馳報宜當向事 右關分定各邑

後
楊州水夢同一箇中夢同二箇小夢同五箇排支乃四箇倚只金三箇助乙釘二十五箇添鐵二十斤法油五升空石一百立冶炭十五石生葛二同大雪馬一部石手六 名莎土匠一名畫僧二名刻字匠二名仰帳白木二疋提調支供一日監役官一行支供五日八面閣長湍利川驪州幷定 治石假家二間諸色工匠假家二間役軍一百 名五日赴役大錯三箇
驪州中夢同二箇小夢同五箇排支乃四箇依只金五箇助乙釘二十五箇串釘二十箇添鐵三十斤斧子一箇法油六升冶炭 十五石生葛二同石手五名役軍五十名四日赴役八面閣 楊州長湍利川幷定提調支供一日監役官一行支供五日治石假家二間小錯三箇仰帳白木二疋
坡州中夢同一箇小夢同三箇排支乃四箇倚只金五箇助乙釘十五箇串釘二十箇添鐵二十五斤法油五升冶炭十五石生葛二同淨土匠一名 役軍五十名四日赴役監役官一行五日支供治石假家二間小錯二箇
喬桐倚只金二箇漢馬赤三箇立釘五箇串釘二十箇中夢同一箇六張付地衣二 浮揮帳白木一疋强礪石一塊役軍二十五名二日赴役
長湍小夢同三箇倚只金三箇排支乃四箇串釘二十箇助乙釘十五箇添鐵二十五斤法油三升 冶炭十五石生葛二同石手四名役軍五十名四日赴役提調支供一日監役官一行支供五日治石假家二間小錯二箇八面閣 楊州利川驪州幷定
富平漢馬赤 三箇立釘五箇添鐵五斤揮帳白木一疋紅木袱二件法油二升强礪石一塊竹靑紙五張白毛面紙十張唐紅絲八絲同多會十六條役軍二十五名二日赴役
仁川漢馬赤三箇立釘五箇添鐵五斤揮帳白木一疋裹碑衾一部紅紬袱二件法油二升强礪石一塊定玉沙一石役軍 二十五名二日赴役
竹山漢馬赤三箇倚只金二箇大釘一箇立釘五箇油苫四張黃楊木十箇役軍二十五名二日赴役
南陽中夢同一箇漢馬赤三箇立釘五箇斧子一箇揮帳白木一疋法油二升强礪石一塊定玉沙一石茵席十立役軍二十名二日赴役
利川中夢同一箇小夢 同四箇排支乃四箇倚只金三箇助乙釘二十五箇串釘二十箇添鐵二十斤法油二升冶炭十五石生葛二同八面閣 長湍楊州驪州幷定 治石假家二間

치보하는 것이 마땅함. - 위의 내용을 분정한 각읍에 관문을 보냄 -

<후록>

- 양주楊州 : 물몽둥이[水夢同] 1개. 중몽둥이[中夢同] 2개. 소몽둥이[小夢同] 5개. 밀지레[排支乃] 4개. 의지쇠[倚只金] 3개. 졸정[助乙釘] 25개. 첨철添鐵 20근. 들기름[法油] 5되. 빈가마니[空石] 100닢. 야탄冶炭 15섬. 생칡[生葛] 2동. 큰 썰매[大雪馬] 1부. 석수石手 6명. 사토장莎土匠 1명. 화승畫僧 2명. 각자장刻字匠 2명. 양장仰帳 흰 무명[白木] 2필疋. 제조提調 지공 1일. 감역관 일행 지공 5일. 팔면각八面閣 <장단長湍·이천利川·여주驪州에서 모두 정함>. 치석治石 가가 2칸. 제색공장諸色工匠 가가 2칸. 역군 100명 5일 부역. 큰 줄[大錯] 3개.
- 여주驪州 : 중몽둥이 2개. 소몽둥이 5개. 밀지레 4개. 의지쇠 5개. 졸정 25개. 꼬치정[串釘] 20개. 첨철 30근. 도끼[斧子] 1개. 들기름 6되. 야탄 15섬. 생칡 20동. 석수 5명. 역군 50명 4일 부역. 팔면각 <양주·장단·이천에서 모두 정함>. 제조 지공 1일. 감역관 일행 지공 5일. 치석 가가 2칸. 작은 줄[小錯] 3개. 앙장 흰 무명 2필.
- 파주坡州 : 중몽둥이 1개. 소몽둥이 3개. 밀지레 4개. 의지쇠 5개. 졸정 15개. 꼬치정 20개. 첨철 25근. 들기름 5되. 야탄 15섬. 생칡 2동. 정토장淨土匠 1명. 역군 50명 4일 부역. 감역관 일행 5일 지공. 치석 가가 2칸. 작은 줄 2개.
- 교동喬桐 : 의지쇠 2개. 큰 마치[漢馬赤] 3개. 입정立釘 5개. 꼬치정 20개. 중몽둥이 1개. 여섯 장 붙인 지의地衣 2뜸[浮]. 휘장揮帳 흰 무명 1필. 센 숫돌 1덩어리[塊]. 역군 25명 2일 부역.
- 장단長湍 : 작은 몽둥이 3개. 의지쇠 3개. 밀지레 4개. 꼬치정 20개. 졸정 15개. 첨철 25근. 들기름 3되. 야탄 15섬. 생칡 2동. 석수 4명 역군 50명 4일 부역. 제조 지공 1일. 감역관 일행 지공 5일. 치석 가가 2칸. 작은 줄 2개. 팔면각. <양주·이천·여주에서 모두 정함>
- 부평富平 : 큰 마치 3개. 입정 5개. 첨철 5근. 휘장 흰 무명 1필. 붉은 무명 보[紅木袱] 2건. 들기름 2되. 센 숫돌 1덩어리. 죽청지竹靑紙 5장. 백모면지白毛面紙 10장. 당홍사唐紅絲 8사絲. 동다회同多會 16조條. 역군 25명 2일 부역
- 인천仁川 : 큰 마치 3개. 입정 5개. 첨철 5근. 휘장 흰 무명 1필. 비석을 쌀 이불 1부部. 홍주보[紅紬袱] 2건. 들기름 2되. 센 숫돌 덩어리. 정옥사定玉沙 1섬. 역군 25명 2일 부역.
- 죽산竹山 : 큰 마치 3개. 의지쇠 2개. 대정大釘 1개. 입정 5개. 유둔油芚 4장. 황양목黃楊木 10개. 역군 25명 2일 부역.
- 남양南陽 : 중몽둥이 1개. 큰 마치 3개. 입정 5개. 도끼 1개. 휘장 흰 무명 1필. 들기름 2되. 센숫돌 1덩어리. 정옥사 1섬. 인석茵席 10닢. 역군 20명 2일 부역.
- 이천利川 : 중몽둥이 1개. 소몽둥이 4개. 밀지레 4개. 의지쇠 3개. 졸정 25개. 꼬치정 20개. 첨철 20근. 들기름 2되. 야탄 15섬. 생칡 2동. 팔면각. <장단·양주·여주에서 모두 정함> 치석 가가 2칸.

堂上假家二間石手四名監役官一行支供五日役軍五十名四日赴役佐耳二箇仰帳白木一疋
通津大釘一箇立釘五箇漢馬赤三箇揮帳白木一疋强 礪石一塊茵席十立役軍二十五名二日赴役
高陽倚只金二箇漢馬赤二箇立釘二箇斧子一箇草苫一浮法油一升役軍二十五名二日赴役
安山 倚只金一箇漢馬赤二箇串釘十箇立釘二箇揮帳白木一疋草苫一浮法油一升冶炭五石役軍二十五名二日赴役
加平排支乃一箇倚只金二箇串 釘十五箇通穴釘二箇添鐵十斤法油四升中雪馬一部冶炭十五石生葛二同冶匠二名監役官一行支供五日諸色工匠假家二間儀軌櫃子一部具 鎖金役軍二十五名六日赴役
安城中夢同二箇小夢同五箇倚只金五箇排支乃四箇大釘一箇助乙釘二十五箇串釘十五箇斧子一箇添鐵二 十斤法油二升冶炭十五石生葛二同治石假家二間牛皮五張役軍五十名三日赴役佐耳二箇仰帳白木一疋
麻田倚只金二箇串釘十箇添鐵十斤法油一升冶炭十石監役官一行支供三日諸色工匠假家一間役軍二十五名五日赴役
金浦漢馬赤二箇串釘十五箇立釘二箇草苫一 浮茵席四立公事紙十卷眞墨四丁役軍二十五名二日赴役
楊根排支乃一箇倚只金三箇添鐵十斤小雪馬一部法油四升冶炭十五石生葛二同監役官一行支供五日木手一名諸色工匠假家二間治石假家二間沙器祭飯器四立香爐一坐香盒一坐俎一儀軌櫃子一部具鎖金役軍二十五名六日赴役 交河倚只金二箇漢馬赤二箇立釘二箇串釘十箇草苫一浮法油一升小遮日白木五疋治石假家一間監役官一行支供三日役軍二十五名二日赴役陽川通穴釘一箇立釘二箇刻刀十箇柳筲二部紅衣次細布二十尺役軍十五名二日赴役裹碑白木一疋
永平石灰八石空石一百立冶炭十石眞長木二十箇 靑笞木四駄大椽木四箇 中椽木四箇 網席三十四立豆錫圓環具花板三十二箇 御覽簇子櫃一部具鎖金叟金頭釘鑞染 御覽儀軌櫃子一部具鎖金叟金頭釘鑞染籩四笠四設酒罇二坐爵三文書傳通驛子浮石所 胎室往來留待馬 梁文驛 漏器諸具冶匠假家二間雜物入置庫間石手一名冶匠二名監役官一行支供二日儀軌書寫校生役軍二十五名五日赴役
振威立釘五箇刻刀五箇添鐵十斤草苫一部白帽子二立公事紙十束眞墨四丁白扇子紙十張成籍搗鍊紙四束役軍二十五名二日赴役
始興立釘五箇刻刀十箇細漢五箇

당상 가가 2칸. 석수 4명. 감역관 일행 지공 5일. 역군 50명 4일 부역. 자귀[佐耳] 2개. 앙장 흰 무명 1필.

- 통진通津 : 대정 1개. 입정 5개. 큰 마치 3개. 휘장 흰 무명 1필. 센 숫돌 1덩이리. 인석 10닢. 역군 25명 2일 부역.
- 고양高陽 : 의지쇠 2개. 큰 마치 2개. 입정 2개. 도끼 1개. 초둔草苫 1뜸. 들기름 1되. 역군 25명 2일 부역.
- 안산安山 : 의지쇠 1개. 큰 마치 2개. 꼬치정 10개. 입정 2개. 휘장 흰 무명 1필. 초둔 1뜸. 들기름 1되. 야탄 5섬. 역군 25명 2일 부역.
- 가평加平 : 밀지레 1개. 의지쇠 2개. 꼬치정 15개. 통혈정通穴釘 2개. 첨철 10근. 들기름 4되. 중간 썰매中雪馬 1부. 야탄 15섬. 생칙 2동. 대장장이[冶匠] 2명. 감역관 일행 지공 5일. 제색공장 가가 2칸. 자물쇠 딸린 의궤 궤자儀軌櫃子 1부. 역군 25명 6일 부역.
- 안성安城 : 중몽둥이 2개. 소몽둥이 5개. 의지쇠 5개. 밀지레 4개. 대정 1개. 졸정 25개. 꼬치정 15개. 도끼 1개. 첨철 20근. 들기름 2되. 야탄 15섬. 생칡 2동. 치석 가가 2칸. 우피牛皮 5장. 역군 50명 3일 부역. 자귀 2개. 앙장 흰 무명 1필.
- 마전麻田 : 의지쇠 2개. 꼬치정 10개. 첨철 10근. 들기름 1되. 야탄 10섬. 감역관 일행 지공 3일. 제색공장 가가 1칸. 역군 25명 5일 부역.
- 김포金浦 : 큰 마치 2개. 꼬치정 15개. 입정 2개. 초둔 1뜸. 인석 4닢. 공사지公事紙 10권. 참먹[眞墨] 4정. 역군 25명 2일 부역.
- 양근楊根 : 밀지레 1개. 의지쇠 3개. 첨철 10근. 작은 썰매[小雪馬] 1부 들기름 4되. 야탄 15섬. 생칡 2동. 감역관 일행 지공 5일. 목수 1명. 제색공장 가가 2칸. 치석 가가 2칸. 사기제반기沙器祭飯器 4닢. 향로香爐 1좌坐. 향합香盒 1좌. 도마[俎] 1. 자물쇠 딸린 의궤 궤자 1부. 역군 25명 6일 부역.
- 교하交河 : 의지쇠 2개. 큰 마치 2개. 입정 2개. 꼬치정 10개. 초둔 1뜸. 들기름 22되. 소차일小遮日. 흰 무명5필. 치석 가가 1칸. 감역관 일행 지공 3일. 역군 25명 2일 부역.
- 양천陽川 : 통혈전 1개. 입정 2개. 각도刻刀 10개. 유사柳笥 2부. 홍색 옷감 세포細布 20자. 역군 15명 2일 부역. 비석을 쌀 흰 무명 1필.
- 영평永平 : 석회石灰 8섬. 빈 가마니 100닢. 야탄 10섬. 진장목 20개. 청태목靑笞木 4바리[駄]. 대연목大椽木 4개. 중연목中椽木 4개. 망석網席 30닢. 화판 갖춘 두석 둥근 고리 32개. 자물쇠 딸린 어람족자궤御覽簇子櫃 1부. 납염鑞染한 걸쇠두정. 자물쇠 딸린 어람 의궤 궤자御覽儀軌櫃子 1부. 납염한 걸쇠두정[叟金頭釘]. 변籩 4. 두笠 4. 설주준設酒罇 2좌. 작爵 3. 문서를 전통할 역자驛子. 부석소와 태실을 왕래할 유대마留待馬 <양문역梁文驛>. 누기제구漏器諸具. 대장장이 가가 2칸. 잡물을 넣어 둘 곳간. 석수 1명. 대장장이 2명. 감역관 일행 지공 2일. 의궤서사교생儀軌書寫校生. 역군 25명. 5일 부역.
- 진위振威 : 입정 5개. 각도 5개. 첨철 10근. 초둔 1부. 백모자白帽子 2닢. 공사지 10속束. 참먹 4정. 백선자지白扇子紙 10장. 성적成籍할 도련지搗鍊紙 4속. 역군 25명 2일 부역.
- 시흥始興 : 입정 5개. 각도 10개. 세한細漢 5개.

白蠟二兩白休紙十斤粧衣次黃染紙唐紅絲一兩重黃扇子紙十張役軍十五名二日赴役
龍仁倚只金三箇串釘十五箇法油三升冶炭十石白蠟二兩熟麻迣大小各一巨里白扇子紙十張監役官一行支供五日諸色工匠假家二間役軍二十五名五日赴役
陽城通穴釘二箇漢馬赤二箇小馬赤五箇刻釘十箇草苫一部蠟二兩白休紙十斤熟麻迣大小各一巨里靑扇子紙十張役軍十五名二日赴役
陽智小馬赤五箇刻刀五箇草注紙一束白蠟二兩五錢小索二十巨里壯紙二束細漢二箇
抱川倚只金二箇法油三升空石三百立石物結裹空石一百立幷入冶炭十五石藁索五十沙里黃筆六柄白筆九柄眞墨十丁石手一名木手一名監役官一行支供五日浮石差使員假家草席七立儀軌櫝子一部具鎖金役軍二十五名四日赴役
積城倚只金二箇串釘十箇加乃二箇法油一升冶炭十五石軟礪石五塊漏器排設假家儀軌櫝子一部具鎖金役軍十五名五日赴役
漣川倚只金二箇銳耳二箇法油二升冶炭十五石軟礪石五塊監役官一行支供二日冶匠假家二間役軍十五名五日赴役營裨入接假家
果川倚只金一箇小馬赤五箇刻刀十箇通穴金二箇加乃二箇白蠟二兩五錢白木案息一坐唐朱紅二錢五分重大小彩筆各三柄松脂二斗五升冊子所粧片鐵十箇役軍十五名五日赴役
砥平加乃一箇細漢三箇銳耳三箇鍤子二箇刻刀五箇白蠟二兩五錢白木案息一坐常綿絲一兩重去核五兩重白苧布五尺壯油紙一束靑扇子紙十張役軍十五名五日赴役
陰竹漢馬赤二箇刻刀五箇鍤子二箇草苫一浮法油一升冶炭五石藁索五十沙里三甲助音所三巨里諸色工匠假家一間監役官一行支供五日役軍十五名二日赴役追分定靑花墨黃丹桃黃片臙脂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永平地 胎室加封敎是時雜物分定殆遍於道內而他各邑則趁始役日皆爲輸納是矣獨於本邑不卽輸納以關以通又無動靜該吏擧行萬萬駭痛瘕除良雜物中尤爲緊急所用者如是稽滯將至停役之境是如都差使員連爲報來是如乎本邑擧行之稽緩雖爲畿內之最甚事關 國役而不知爲重營門知委不欲擧行如許吏習曾未見聞當該擧行色吏定刑吏着枷計程上使同雜物段使首吏罔夜輸納于役所後今二十日內考還營門爲乎矣若又遲延首鄕首吏之嚴刑姑捨不飭之責卽當論勘知此暢

백납白蠟 2냥. 백휴지白休紙 10근. 옷감을 장식할 황염지黃染紙. 당홍사唐紅絲 1냥쭝[兩重]. 황선자지 10장. 역군 15명 2일 부역.
- 용인龍仁 : 의지쇠 3개. 꼬치정 15개. 들기름 3되. 야탄 10섬. 백납 2냥. 크고 작은 숙마줄熟麻迣 각 1꾸리[巨里]. 백선자지 10장. 감역관 일행 지공 5일. 제색공장 가가 2칸. 역군 25명 5일 부역.
- 양성陽城 : 통혈정 2개. 큰 마치 2개. 작은 마치 5개. 각정刻釘 10개. 초둔 1부. 백납 2냥. 백휴지 10근. 크고 작은 숙마줄 각 1꾸리. 청선자지靑扇子紙 10장. 역군 15명 2일 부역.
- 양지陽智 : 작은 마치 5개. 각도 5개. 초주지 1속. 백납 2냥 5돈[錢]. 작은 노끈[小索] 20꾸리. 장지壯紙 2속. 세한 2개
- 포천抱川 : 의지쇠 2개. 들기름 3되. 빈 가마니 300닢. 석물을 묶어 싼 빈 가마니 100닢, 모두 들어감. 야탄 15섬. 새끼 줄[藁索] 50사리沙里. 황필黃筆 6자루. 백필白筆 9자루. 참먹 10정. 석수 1명. 목수 1명. 감역관 일행 지공 5일. 부석 차사원 가가. 짚으로 짠 자리[草席] 7닢. 자물쇠 딸린 의궤 궤자 1부. 역군 25명 4일 부역.
- 적성積城 : 의지쇠 2개. 꼬치정 15개. 가래[加乃] 2개. 들기름 1되. 야탄 15섬. 연한 숫돌[軟礪石] 5덩어리. 누기漏器를 배설할 가가. 자물쇠 딸린 의궤 궤자 1부. 역군 15명 5일 부역.
- 연천漣川 : 의지쇠 2개. 굉이[銳耳] 2개. 들기름 2되. 연한 숫돌 5덩어리. 감역관 일행 지공 2일. 대장장이 가가 2칸. 역군 15명 5일 부역. 영비營裨가 거처할 가가.
- 과천果川 : 의지쇠 1개. 작은 마치 5개. 각도 10개. 통혈정 2개. 가래 2개. 백납 2냥 5돈. 흰 무명 안식[白木案息] 1좌. 당주홍唐朱紅 2돈 5푼쭝. 크고 작은 채필彩筆 각 3자루. 송지松脂 2말 5되. 책을 장식할 편철片鐵 10개. 역군 15명 5일 부역.
- 지평砥平 : 가래 1개. 세한 3개. 굉이 3개. 삽[鍤子] 2개. 각도 5개. 백납 2냥 5돈. 흰 무명 안식 1좌. 상면사常綿絲 1냥쭝. 거핵去核 5돈쭝. 백저포白苧布 5자. 장유지壯油紙 1속. 청선자지 10장. 역군 15명 5일 부역.
- 음죽陰竹 : 큰 마치 2개. 각도 5개. 삽 2개. 초둔 1뜸. 들기름 1되. 야탄 5섬. 새끼줄 50사리. 세겹 조음바[三甲助音所] 3꾸리. 제색공장 가가 1칸. 감역관 일행 지공 5일. 역군 15명 2일 부역. 추가로 청화먹[靑花墨], 황단黃丹**04**, 도황桃黃**05**, 편연지片臙脂**06**를 분정함.

관찰사 겸 순찰사가 상고하는 일

영평 지역에 있는 태실을 가봉할 때 잡물은 거의 도내에 고루 분정하였더니, 시역일에 맞춰 모두 수납했는데, 오직 본읍에서만 즉시 수납하겠다는 관문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또한 꼼짝도 하지 않으니 해리 該吏의 소행이 매우 놀랍다. 뿐만 아니라, 잡물 중에 더욱 긴급하게 쓸 것을 이처럼 지체하여 앞으로 일을 정지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도차사원이 연이어 보고하였다. 본읍이 거행을 지체한 것이 아무리 기내畿內에서 가장 심하다 하더라도 국역國役과 관계되는 일인데 중요함을 모르고 영문營門을 통지하여도 거행하고자 않으니, 이와 같은 이습吏習을 보고 들은 적이 없다. 해당 거행 색리를 형리刑理를 정하여 칼을 씌운 다음 계정計程**07**하여 올려 보내고, 그 잡물은 수리首吏로 하여금 밤을 새워서라도 역소에 수납한 뒤 20일 내에 영문 고환考還하되, 만약 지연하는 수향首鄕과 수리首吏는 엄형은 고사하고 신칙하지 않은 책임을 바로 논감論勘할 것이니 이를 알아

04 황단黃丹 : 주황색의 도료
05 도황桃黃 : 삼록三碌 중에서 약간 누른 빛을 띤 도료. 동황同黃
06 편연지片臙脂 : 붉은 물을 솜에 먹여 말렸다가 끓는 물을 담아 우려서 사용하는 중국산 물감.
07 계정計程 : 길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헤아려 따짐.

念擧行爲旀雜物發送形止星火馳報向事 右關雜物未納邑

척념하여**08** 거행하며 잡물을 발송한 상황에 대해 화급히 치보할 것 - 위 내용을 아직 잡물을 수납하지 않은 읍에 관문을 보냄 -

監役官爲牒報事
月二十二日受 香離發二十三日酉時量馳到永平縣傳 香于本官是白遣翌日辰時量馳進 胎室奉審後尺量其石物排設形止是白乎則四面長廣別無狹窄之慮誠不勝萬幸是白乎旀直往浮石所詳細看審是白乎則與巡營所報看品石少無相左是白只還到本邑浮石時各樣擧行申飭於本邑都色吏處是白遣故留本邑以待浮石日時緣由馳報爲只爲 報本監題辭內聞甚欣幸向事

감역관이 첩보하는 일
□월 22일에 향을 받아 출발하여 23일 유시쯤에 영평현에 급히 도착하여 본관에게 향을 전해 주고, 다음 날 진시 쯤에 태실에 급히 나아가 봉심한 뒤 그 석물을 배설할 상황을 척량尺量하니, 사면의 길이와 너비가 별로 좁은 염려가 없었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부석소에 가서 상세히 간심하니, 순영巡營이 보고한 간품석看品石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기에, 다시 본읍에 도착하여 부석할 때 각종 거행을 본읍 도색리道色吏에게 신칙하고, 우선 본읍에 머물면서 돌을 떠 낼 일시를 기다리며 연유를 치보합니다. - 본감에 첩보했더니, 제사에, “이를 들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 하였다. -

丙申二月二十五日
監役官爲牒報事今此役所各樣石物董督治鍊而其中龜臺石蓋簷石雕琢之役已爲了畢是白遣其他四方石中童石磚石甃石柱石童子石橫竹石則治鍊之役亦已過半似於三月初旬前庶可告訖是白乎旀碑石書標前期入刻然後可免臨時窘速之弊是白如乎碑石畢磨之役似在於三月初二三日間故同碑石本紙上送爲只乎旀取考各年儀軌碑石書標事例似抄出後錄馳報爲白只爲 報本監題辭內碑石前面大字後面小字玆以書送向事

병신년(1836) 2월 25일
감역관이 첩보하는 일
지금 역소의 각종 석물을 감독하여 다듬었습니다. 그 가운데 귀대석龜臺石·개첨석蓋簷石을 새기는 일은 벌써 완료하였고, 그 밖에 사방석四方石·중동석中童石·전석磚石·상석甃石·주석柱石·동자석童子石·횡죽석橫竹石을 다듬는 일은 반을 넘었으니 아마도 3월 초순 전에는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석의 서표書標는 기일 전에 새겨 두어야 때에 닥쳐 군속한 폐단을 면할 수 있다 하니, 비석을 다듬는 일을 마치기는 아마도 3월 초 2, 3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석의 본지本紙를 올려 보내며, 각년 의궤를 상고하여 비석에 서표書한 사례를 가려 낸 다음 후록하여 치보합니다. -본감에 첩보했더니, 제사에, “비석 전며의 큰 글자와 뒷면의 작은 글자를 이에 써서 보낼 것.”이라 하였다.-

丙申三月初五日
碑石畢磨後書標官觀象監提調知中樞府事申在植前面書翼宗大王胎室後面書道光十六年三月二十一日建

병신년(1836) 3월 초5일
비석을 다듬는 일을 마친 뒤 서표관 관상감 제조 지 중추부사 신재식申在植이 전면에 ‘익종대왕 태실翼宗大王胎室’이라 쓰고, 후면에 ‘도광 16년(1836, 헌종 2) 3월 21일에 세움[道光十六年三月二十一日建]’이라 썼다.

祭儀
祭前一日設饌幔於東方隨地之宜祀 后土祭設神坐于北方先告事由祭設神位於舊標前南向設獻官位東南西向執事位於其南向西北上設贊謁者於獻官之西俱西向北上開坎於壬地深取容物設望瘞位於獻官在南北脯設掌饌者率宰人割牲連皮煮熟

제사를 거행한 의식[祭儀]
제사 지내기 하루 전에 동방 알맞은 곳에 찬만饌幔을 설치하였다. 후토에 제사함에 신위信位의 자리를 북방에 배설하고, 먼저 사유事由를 고하는 제사는 신위를 예전 표석標石 앞 남향에 배설하였다. 현관위는 동남서향에, 집사위는 그 남향에 배설하되, 서북을 상위로 하였다. 찬자와 알자는 헌관의 서쪽에 배설하였으니 모두 서쪽을 향하여 서되, 북쪽을 상위로 하였다. 임지壬地에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구덩이를 깊이 팠다. 남쪽에 망예위望瘞位를 배설하고**09** 헌관은 남북에 있었다. 포脯를 진설한 장찬자掌饌者가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희생犧牲을 잘라 껍질과 함께 삶았다.

祭日有司先陳幣篚於神位前次設香爐香盒次設黃燭祭器實果每位右籩四在左爲二行右上 第一行刑鹽在第二行黃栗在乾棗至前鹿脯次至 簠四在右爲二行左上 第一行菁葅在前鹿醢次至第二行芹葅在前魚醢次至若出無者以類之簠簋各二在籩簠間簠左簋右 簠實以稻粱在前簋實以黍稷 俎一在簠簋前 實以豕牲凡言前右者皆南也 爵三在俎前 各有坫 設酒樽二 一實以玄酒爲上一實以淸酒 在南隅設於南盥洗位在東爵洗在西罍洗在東加爵篚洗在西南 實以中爵 有司入實饌畢獻官及大祝贊者謁者祝史齋郎俱着祭服臨時

제사 날에 유사有司가 먼저 폐백 광주리를 신위 앞에 진설하고, 다음은 향로와 향합을, 다음은 황촉을 배설하였다. 제기祭器에 담은 찬은 매 위位의 오른쪽 변籩 4개는 왼쪽에 2행을 만든 오른쪽 위에 두고, <제1행에는 형염刑鹽이, 제2행에는 황률黃栗이 있다. 건조乾棗가 먼저 이르고 녹포鹿脯가 다음으로 이른다.> 두簠 4개는 오른쪽 2행을 만든 왼쪽 위에 두었다. <제1행에는 청저菁葅가 앞에 있고 녹해鹿醢가 다음으로 이른다. 제2행에는 근저芹葅가 앞에 있고 어해魚醢가 다음으로 이른다.> 만약 그 지역에 없는 것은 부류에 따라 대신 진설하였다. 보궤簠簋 각 2개는 변두籩簠의 사이에 있는데, 보簠는 왼쪽 궤簋는 오른쪽이다. <보에는 도稻와 량粱을 담아 앞에 두고, 궤에는 서黍와 직稷을 담았다.> 도마[俎] 1은 보궤 앞에 두었다. <시생豕牲을 담았다. 앞에서 오른쪽이라 말한 모든 것은 모두 남쪽이다.> 작爵 3은 도마 앞에 두었다. <각각 점坫이 있다.> 술통[設酒] 2개를 배설하여 <한 통에는 현주玄酒를 담아 상上등으로 여기고, 한 통에는 청주淸酒를 담았다.> 남쪽 귀퉁이에 두었다. 남쪽에 세洗를 배설하고, 관세위盥洗位는 동쪽에, 작세爵洗는 서쪽에, 뇌세罍洗는 동쪽에, 추가한 작비세爵篚洗는 서남에 두었다. <수건과 잔을 담았다.> 유사가 들어가 찬饌 채우는 것을 마쳤다. 그런 다음 헌과과 대축·찬자·알자·축사·재랑이 모두 제복을 입고 거행할 시각에 다다라

08 척념하여 : 원문의 ‘暢’은 ‘惕’의 오자이다.
09 남쪽에 망예위를 배설하고 : 1806(순조 6) 성상 태실석난간조배의궤聖上胎室石欄干造排儀軌의 제의祭儀에 ‘設望瘞位於南’을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 0014

諸外位贊者謁者先就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謁者引諸執事入就拜位四拜鞠躬拜興平身謁者引諸執事詣盥洗位 盥洗訖各就位 贊者謁者引獻官入就拜位四拜鞠躬拜興平身贊者曰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洗訖引詣神位前贊者曰跪三上香 執事一人奉香爐一人奉香盒獻官三上香執事置爐神位前 祝史以幣授獻官執幣奠于神位前贊者曰俯伏興引降復位小頃贊者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西上立酌酒引詣神位前贊者曰跪齋郎執事以爵授獻官執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者曰俯伏興小退跪大祝讀祝訖引降復位小頃贊者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行禮一如初獻儀引降復位小頃贊者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禮幷同亞獻禮儀引降復位贊者曰行四拜獻官四拜鞠躬拜興平身贊者徹籩豆 祝史進小移奠處 贊者曰望瘞位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祝史以篚取幣及祝文置於實坎土贊者曰謁者引獻官出贊者引執事俱復拜位四拜鞠躬拜興平身謁者引諸執事次次出

외위外位에 나아갔다. 찬자와 알자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되, 서쪽을 상위로 하여 사배한 뒤 각각 자리로 갔다.
알자가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배위에 나아가 사배四拜하되, 국궁鞠躬하여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세웠다. 알자가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갔다. <관세를 마치고 각각 자리로 갔다.>
찬자가**10**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시오." 하자, 이에 따라 국궁하여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세웠다.
찬자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하자, 이에 따라 북쪽을 향서 서서 관세를 마치니,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갔다.
찬자가 "꿇어 앉아 세 번 향을 올리시오." 하였다. <집사 1인이 향로를 받들고 1인은 향합을 받들었다. 헌관이 세 번 향을 사려 올렸다. 집사가 신위 앞에 향로를 두었다.> 축사가 폐백을 헌관에게 전해주니, 폐백을 잡아서 신위 앞에 놓았다.
찬자가 "부복俯伏 흥興." 하였다. 그런 다음 인도하여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시오." 하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樽所로 나아가 서쪽을 상위로 하여 서서 작酌으로 술을 떠 담아 신위 앞에 나아갔다.
찬자가 "꿇어앉으시오." 하였다. 재랑과 집사가 잔[爵]을 헌관에게 전해주니, 헌관이 잔을 잡아 집사에게 전해주어 신위 앞에 올렸다.
찬자가 "부복俯伏 흥興." 하였다. 이에 조금 물러나 꿇어앉았다. 대축이 축문을 읽은 다음 인도하여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시오." 하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였다. <예식은 한결같이 초헌례의 의식과 같이 거행하였다.> 그런 다음 인도하여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시오." 하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였다. <예식은 아헌례의 의식과 같이 거행하였다.> 그런 다음 인도하여 내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찬자가 "사배하시오." 하자, 헌관이 사배하되, 국궁하여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세웠다.
찬자가 "변두籩豆를 거두시오." 하였다. <축사가 나아가 전처를 조금 옮겼다.>
찬자가 "망예위望瘞位를 하시오." 하니,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섰다. 축사가 광주리로 폐백과 축문을 받아 구덩이에 놓고 흙을 채웠다.
찬자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하였다. 이에 찬자가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에 가서 사배하되, 국궁하여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세웠다. 알자가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갔다.

先告事由祭祝文
維道光十六年歲次丙申三月甲申朔十一日甲午
國王遣臣楊州牧使柳基常昭告于
胎室之神伏以載涓吉日旣營 胎室庸展安慰冀行 歆格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尙 饗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에 쓴 축문[先告事由祭祝文]
유維 도광 16년 세차歲次 병신년(1836, 헌종 2), 3월 갑신甲申 삭朔 11일 갑오甲午일에 국왕은 신 양주 목사 유기상柳基常을 파견하여 태실의 신에게 분명히 고하나이다.
삼가 아뢰건대, 좋은 날을 잡아 이미 태실을 지었나이다.
이에 안위제를 지내니
신명이 감응하여 이르소서.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와
서직黍稷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들을
진설陳設하여 진헌進獻하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소서.

告 后土祭祝文
維道光十六年歲次丙申三月甲申朔十一日甲午
國王謹遣臣楊州牧使柳基常敢昭告于
后土之神伏以將營 胎室敢告 神明庶 歆菲儀優賜康寧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尙 饗

후토에 지내는 고유제에 쓴 축문[告后土祭祝文]
유維 도광 16년 세차歲次 병신년(1836), 3월 갑신甲申 삭朔 11일 갑진甲辰일에 국왕은 신 양주 목사 유기상을 파견하여 감히 후토의 신에게 분명히 고하나이다.
삼가 아뢰건대,
태실을 지어
감히 신명에게 고하나이다.
보잘 것 없는 의식을 흠향하시어
강녕을 넉넉하게 내려주소서.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와
서직黍稷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들을
진설陳設하여 진헌進獻하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소서.

10 찬자가 : '贊者' 뒤에 '曰'자가 누락되었다. 위의 의궤 등 참조.

▶ 0015

謝 后土祭祝文
維道光十六年歲次丙申三月甲申朔二十一日甲辰國王謹遣臣楊州牧使柳基常敢昭告于后土之神伏以旣成 胎室敢陳謝儀冀 垂英顧庶幾 佑之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尙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에 쓴 축문[謝后土祭祝文]
유維 도광 16년 세차歲次 병신년(1836), 3월 갑신甲申 삭朔 21일 갑진일에 국왕은 신 양주 목사 유기상을 파견하여 감히 후토의 신에게 분명히 고하나이다.
삼가 아뢰건대,
이미 태실을 완공하여
감히 사례의 의식을 베푸나이다.
영령英靈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우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와
서직黍稷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들을
진설陳設하여 진헌進獻하오니,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소서.

饗先告事由祭獻官楊州牧使柳基常典祀官兼大祝平邱察訪成泳默贊者永平縣令李在稼謁者漣川縣監李齊楠祝史幼學金軒默齋郎幼學李好英告

먼저 사유에 고하는 제사의 헌관은 양주 목사 유기상柳基常, 전사관 겸 대축은 평구 찰방平邱察訪 성영묵成泳默, 찬자는 영평 현령 이재가李在稼, 알자는 연천 현감漣川縣監 이제남李齊楠, 축사는 유학 김헌묵金軒默, 재랑은 유학 이호영李好英이었다.

后土祭獻官楊州牧使柳基常典祀官兼大祝平邱察訪成泳默贊者永平縣令李在稼謁者漣川縣監李齊楠祝史幼學金軒默齋郎幼學李好英謝

후토에 고하는 제사의 헌관은 양주 목사 유기상, 전사관 겸 대축은 평구 찰방 성영묵, 찬자는 영평 현령 이재가, 알자는 연천 현감 이제남, 축사는 유학 이헌묵, 재랑은 유학 이호영이었다.

后土祭獻官楊州牧使柳基常典祀官兼大祝麻田郡守李衡遠贊者永平縣令李在稼謁者抱川縣監沈興祖祝史幼學金軒默齋郎幼學李好英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의 헌관은 양주목사 유기상, 전사관 겸 대축은 마전군수麻田郡守 이형원李衡遠, 찬자는 영평 현령 이재가, 알자는 포천 현감 심흥조沈興祖, 축사는 유학 김헌묵, 재랑은 유학 이호영이었다.

各樣石物長廣尺數
碑石一坐長五尺八寸上廣一尺九寸下廣一尺六寸厚一尺五分龜臺石一坐長六尺八寸廣四尺厚四尺蓋簷石一坐廣三尺五寸高三尺七寸中童石一坐高二尺七寸上下圓經二尺中圓經三尺四方石一坐四方四尺厚八寸連葉柱石八坐長四尺五寸廣一尺七寸厚一尺三寸童子石八坐長二尺三寸廣一尺四寸厚一尺二寸五分竹石八坐長三尺六寸體八寸隅磚石八坐長三尺五寸廣二尺五寸厚一尺面磚石八坐長三尺五寸廣二尺五寸厚一尺隅裳石八坐長三尺五寸外端一尺七寸五分內端七寸面裳石八坐長三尺五寸外端一尺七寸五分內端七寸

각양 석물의 길이와 너비 척수
비석 1좌 길이 5자 8치, 위 너비 1자 9치, 아래 너비 1자 6치, 두께 1자 5푼. 귀대석 1좌 길이 6자 8치, 너비 4자, 두께 4자. 개첨석 1좌 너비 3자 5치, 높이 3자 7치. 중동석 1좌 높이 2자 76치, 상하 원지름 2자, 가운데 원지름 3자. 사방석四方石 1좌 사방 4자, 두께 8치. 연입주석連葉柱石 8좌 길이 4자 5치, 너비 1자 7치, 두께 1자 3치. 동자석 8좌 길이 2자 3치, 너비 1자 4치, 두께 1자 2치 5푼. 죽석竹石 8좌 길이 3자 6치, 체體 8치. 우전석隅磚石 8좌 길이 3자 5치, 너비 2자 5치, 두께 1자. 면전석面磚石 8좌 길이 3자 5치, 외단外端 1자 7치 5푼, 내단內端 7치.

禁標內陳田秩
藏字私奴八福田二息耕私奴三禮田一日半耕許用日田一日二息耕私奴銀述田二日二息耕私奴萬全田一日五息耕曺黃玉田二息耕私奴順男田五息耕以上合田九日三息耕

금표禁標 내 진전질陳田秩
장자藏字 사노私奴 팔복八福의 밭 2식경息耕. 사노 삼례三禮의 밭 1일 반경半耕. 허용일許用日의 밭 1일 2식경. 사노 은술銀述의 밭 2일 2식경. 사노 만전萬全의 밭 1일 5식경. 조황옥曺黃玉의 밭 2식경. 사노 순남順男의 밭 5식경. 이상 도합 밭 9일 3식경.

▶ 0016

胎室守護軍元定二名曺黃玉金命得加定六名申次孫朴三得張氏種金成大高和春金氏同

태실 수호군으로 원래 정해진 2명은 조황옥曺黃玉·김명득金命得이고, 추가로 정한 6명은 신차손申次孫·박삼득朴三得·장씨종張氏種·김성대金成大·고화춘高和春·김씨동金氏同이다.

員役秩
都看役營裨通訓前郡守金魯鵬營校嘉善崔重元文書執吏金樂元庫直高廷祿領役使令金千石李吉得奏時書員文道衡看役營吏韓命錫文書次知營吏李聖祐看役將校前哨官李在儞前僉正申顯謨都色朴龍憲色吏李道容雜物色吏鄭啓喆曳石將校折衝姜遇聖閑良李洙培色吏盧有觀浮石時看役營校折衝金鎭泰嘉善金厚在將校折衝辛錫允副司果宋啓英都色折衝朴龍瑞雜物色吏朴昌獻

원역질
도간역 영비都看役營裨 통훈 전 군수 김노붕金魯鵬. 영교營校 가선嘉善 최중원崔重元. 문서 집리文書執吏 김낙원金樂元. 고직庫直 고정록高廷祿 영역 사령領役使令 김천석金千石·이길득李吉得. 주시 서원奏時書員 문도형文道衡. 간역 영리看役營吏 한명석韓命錫. 문서 차지 영리文書次知營吏 이성우李聖祐. 간역 장교看役將校 전 초관前哨官 이재이李在儞, 전 첨정 신현모申顯謨, 도색都色 박용헌朴龍憲, 색리色吏 이도용李道容, 잡물색리雜物色吏 정계철鄭啓喆. 예석장교曳石將校 절충 강우성姜遇聖, 한량閑良 이수배李洙培, 색리色吏 노유관盧有觀. 부석 간역 영교浮石看役營校 절충 김진태金鎭泰, 가선 김후재金厚在. 장교將校 절충 신석윤辛錫允, 부사과副司果 송계영宋啓英, 도색 절충 박용서朴龍瑞, 잡물색리 박창헌朴昌獻.

工匠秩
京石手車永福張錫伊鄕石手松都朴貴得孫十月金梁貴得趙茂應於里鄭允喆李二乭文明喆崔得化宋於叱金金無金徐義甲

공장질
경석수京石手 차영복車永福 장석이張錫伊
향석수송도松都 박귀득朴貴得 손시월쇠孫十月金 양귀득梁貴得 조무응어리趙茂應於里 정윤철鄭允喆 이이돌李二乭 문명철文明喆 최득화崔得化 송엇쇠宋旕金 김무쇠金無金 서의갑徐義甲

江華孫成道李中燁金彭中金福順李元福梁仁石崔光律田啓尙金又乭黃心元韓京信華城金成老未金貴得
楊州洪次京李二得李二尙申三得金成祿金千得

강화江華 손성도孫成道 이중엽李中燁 김팽중金彭中 김복순金福順 이원복李元福 양인석梁仁石 최광률崔光律 전계상田啓尙 김우돌金又乭 황심원黃心元 한경신韓京信 화성華城 김성노미金成老未 김귀득金貴得
양주楊州 홍차경洪次京 이이득李二得 이이상李二尙 신삼득申三得 김성록金成祿 김천득金千得

長湍李應祿邵良孫金乭金
抱川徐中得楊州冊匠崔鳳岐木手
楊州朴萬孫永平崔才完冶匠永平朴枝豊

장단長湍 이응록李應祿 소양손邵良孫 김돌쇠金乭金
포천抱川 서중득徐中得
책장冊匠 양주[11] 최봉기崔鳳岐
목수木手 양주 박만손朴萬孫
영평 최재완崔才完
야장冶匠 영평 박지풍朴枝豊

加平李春得畫員僧楊州德寺僧就辛

가평 이춘득
화원華院 승僧 양주 덕사德寺 승 취행就辛

水原龍珠寺僧愼善

수원 용주사龍珠寺 승 신선愼善

觀象監提調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知經 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知實錄事臣申臣於本月二十日馳到永平縣二十一日進詣上里面古鄕校洞翼宗大王胎室加封處與觀察使臣金道喜同爲奉審是白乎則各樣石物已爲造成磨琢精緻隨卽運上二十一日辰時一齊安排後謝后土祭依例設行是白乎旀火巢界限依定式與地方官眼同豎立四標後守護軍八名亦爲定額爲白遣被莎補土等節

관상감 제조 자헌대부 지 중추부사 겸 지 경연 춘추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 성균관사 지 실록사 신臣 신申 입니다. 신이 이달 20일에 영평현에 급히 도착하여 21일에 상리면上里面 옛날 향교동鄕校洞에 있는 익종대오아 태실을 가봉하는 곳에 나아가 관찰사 신 김도희金道喜와 함께 봉심하니, 각양 석물이 이미 조성되어 다듬어 정치精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 운반해 올라와 21일 진시에 일제히 안배한 뒤 후토에 사례하는 제사는 규례대로 설행하였습니다. 화소火巢의 한계는 정식대로 지방관과 함께 사표四標를 세운 다음 수호군 8명도 정액定額하였습니다. 띠를 입히고 흙을 보충하는 등의 일은

11 책장冊匠 양주 : 체제에 따라 앞 뒤 문맥을 바꾸었다.

▶ 0017

看檢畢役後臣與監役官韓廷厚仍爲復路緣由幷以馳 啓爲白臥乎事

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巡察使臣金 臣以翼宗大王胎室加封石物排設事今月二十日馳到永平縣二十一日進詣上里面古鄕校洞 胎室役所則各樣石物已盡鍊精次第運上標石入刻亦爲了畢乙仍于謹與觀象監提調臣申在植同爲奉審後二十一日辰時正時至一齊排設爲白遣被莎補土等節看檢畢役後謹依定式守護軍段元定二名外六名加數定額是白遣禁標段置元定二百步外又加百步而與地方官眼同尺量豎立四標是白乎則民田九十二負二束入於加定標內是白如乎田土給代一款 令該曹稟旨爲白乎旀臣仍爲復路緣由幷以馳 啓爲白臥乎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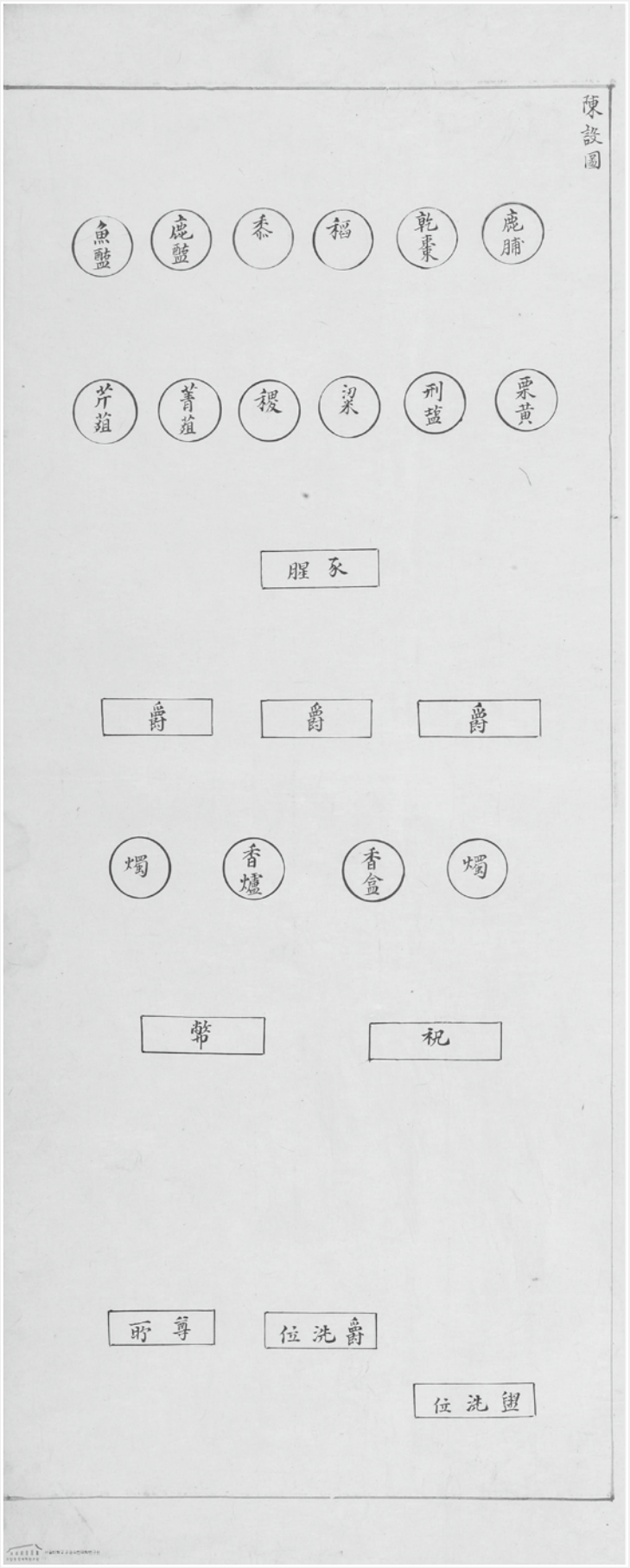
[賞典]
丙申三月二十三日
傳曰 翼宗大王胎室加封時觀象監提調以下別單書入傳曰提調兼書標官知事申在植京畿監司金道喜監役兼都差使員楊州牧使柳基常竝加資地方官永平縣令李在稼陞敍浮石差使員抱川縣監沈興祖兒馬一匹賜給都看役前郡守金魯鵬準職除授奏時官觀象監教授韓廷厚及其餘員役將校工匠等竝考例施賞

간검하여 일을 마친 뒤 신은 감역관 한정후韓廷厚와 함께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치계합니다.

가선대부 경기 관찰사 겸 순찰사 신 김金입니다. 신이 익종대왕 태실을 가봉할 때 석물을 배설할 일로 이달 20일에 영평현에 급히 도착하여 21일에 상리면 옛날 향교동에 있는 태실 역소에 나아가니, 각양 석물이 이미 다 다듬어져 정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차례로 운반해 올라와 표석에 새기는 일도 마쳤으므로 삼가 관상감 제조 신 신재식申在植과 함께 봉심한 뒤 21일 진시 정시에 이르러 일제히 배설하였습니다. 띠를 입히고 흙을 보충하는 등의 일은 간검하여 일을 마친 뒤 삼가 정식대로 수호군은 원래 정해 진 2명 외에 6명을 추가하여 정액定額하였고, 금표는 원래 정해진 200보 외에 또 100보를 추가하여 지방관과 함께 척량하여 사표를 세웠더니, 민전民田 92부負 2속束이 추가로 정한 금표 안에 들어갔다 합니다. 전토田土를 급대給代할 일은 해조로 하여금 품지하도록 하며, 신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치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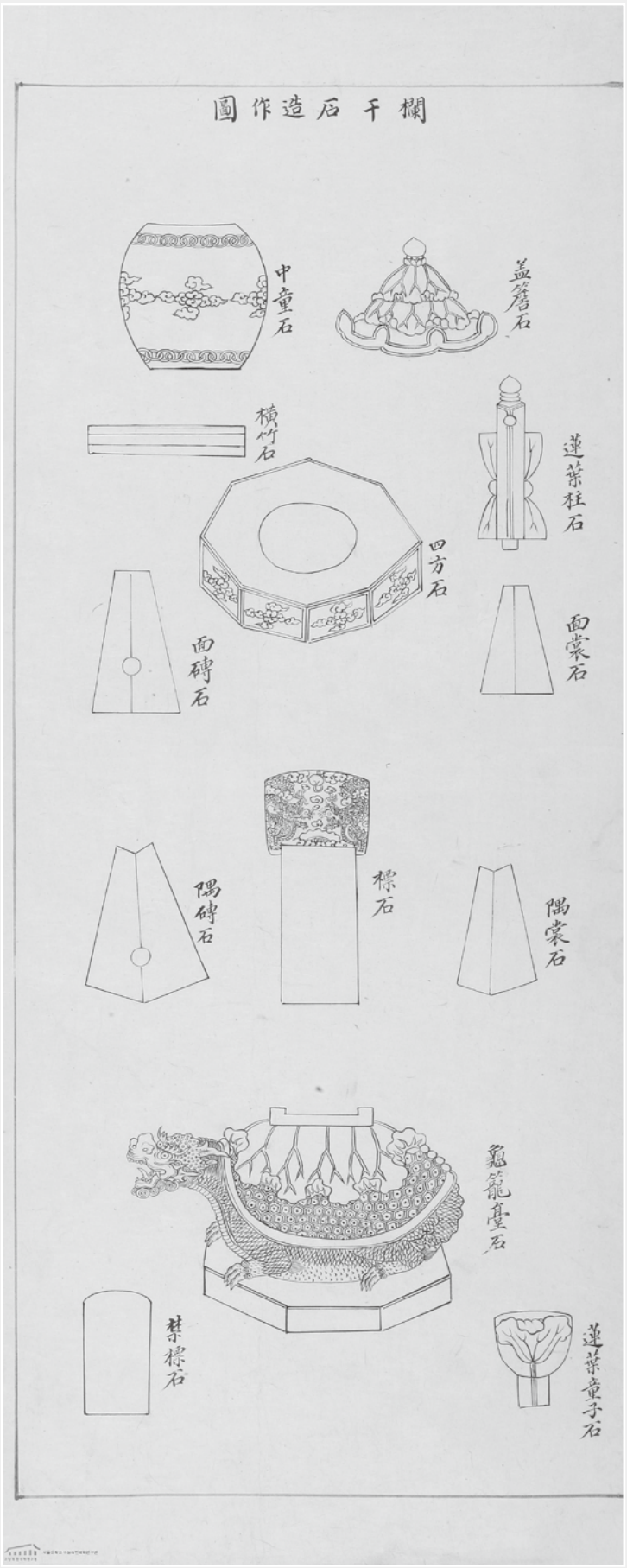
병신년(1836) 3월 23일
전교하기를,
"익종대왕 태실을 가봉할 때 관상감 제조 이하를 별단에 써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저조 겸 서표관 지書標官知事사 신재식申在植, 경기 감사 김도희金道喜, 감역 겸 도재사원 양주 목사 유기상柳基常에게는 모두 가자하고, 지방관 영평 현령 이재가李在稼는 승서陞敍[12]하며, 부석차사원 포천 현감 심흥조沈興祖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고, 도간역 전 군수 김노붕金魯鵬에게는 준칙準職[13]을 제수하며, 주시관 관상감 교수 한정후韓廷厚와 그 밖의 원역 장교員役將校, 공장工匠 등은 모두 전례를 살펴 시상하라."
하였다.

12 승서陞敍 : 벼슬을 올려 줌.
13 준칙準職 : 당하관인 정3품 벼슬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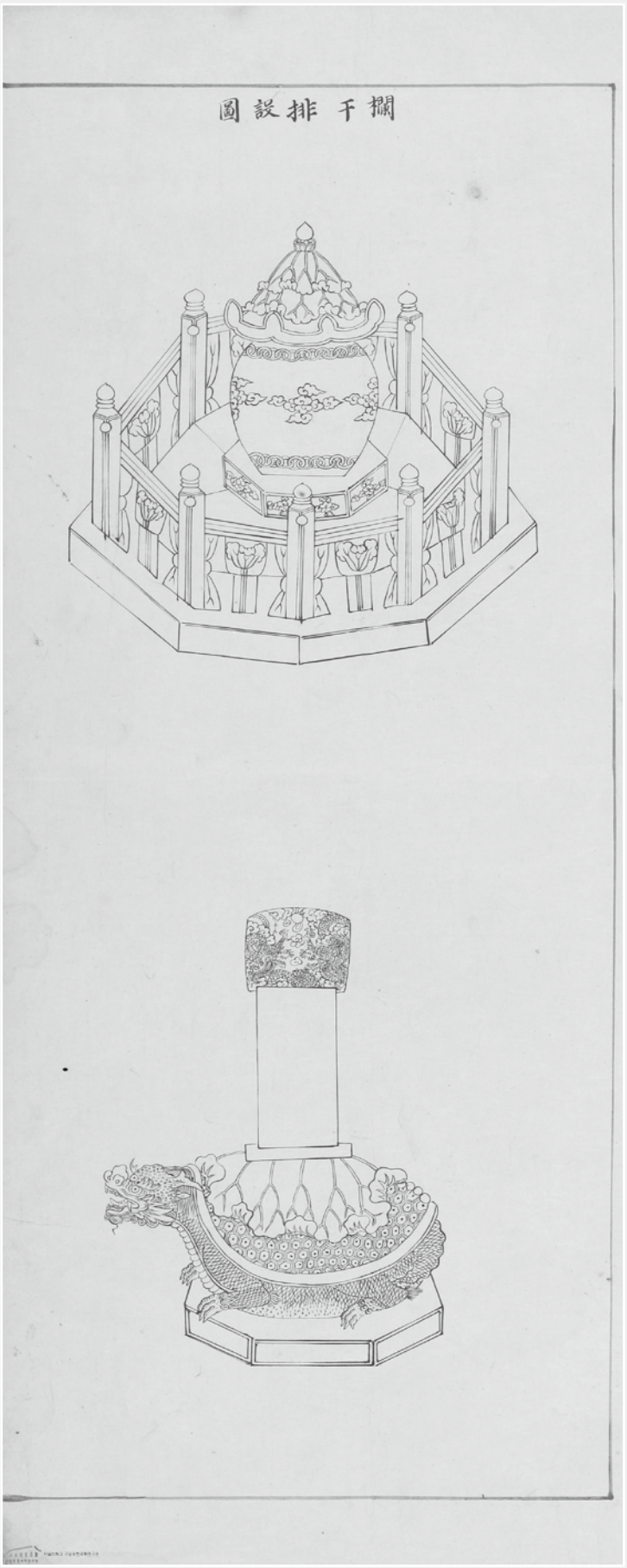
▶ 0019

陳設圖
鹿脯 乾棗 稻 黍 鹿醢 魚醢
栗黃 刑鹽 粱 稷 菁菹 芹菹
豕腥
爵 爵 爵
燭 香盒 香爐 燭
祝 幣
爵洗位 尊所
盥洗位



▶ 0020

欄干石造作圖
蓋簷石 中童石
蓮葉柱石 四方石 橫竹石
面裳石 面碑石
隅裳石 標石 隅碑石
龜籠臺石
蓮葉童子石 禁標石



▶ 0021

欄干排設圖

▶ 0022

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巡察使 臣金道喜[手決] 浮石差使員通訓大夫抱川縣監 臣沈興祖[手決] 監役兼傳 香奏時官通訓大夫觀象監敎授 臣韓廷厚[手決] 兼監役地方官通訓大夫永平縣令 臣李在稼[手決] 監役兼都差使員通政大夫楊州牧使 臣柳基常[手決] 提調兼書標官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知經 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知 實錄事 臣申在植[手決]	가선대부 경기 관찰사 겸 순찰사 신臣 김도희金道喜 [착명着名] 부석차사원 통훈대부 포천 현감 신 심흥조沈興祖[[착명] 감역 겸 전향 주시관 통훈대부 관상감 교수 신 한정후韓廷厚 [착명] 겸 감역 지방관 통훈대부 영평 현령 신 이재가李在稼 [착명] 감역 겸 도차사원 통정대부 양주 목사 신 유기상柳基常 [착명] 제조 겸 서표관 자헌대부 지 중추부사 겸 지 경연 춘추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 성균관사 지 실록사 신 신재식申在植 [착명]

4. 경기도 태실 관련 문헌자료

가평군 상색리 중종 태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1권 경기(京畿) 가평현(加平縣) 建置沿革條 官員	
〔新增〕 正德丁卯, 以縣地安今上御胎, 陞爲郡	『신증』 정덕(正德) 정묘년에 현의 구역 안에 지금 임금의 어태(御胎)를 안치하였다는 것으로써 군으로 승격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2일 을미 1번째 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左議政朴元宗奉審胎峯	좌의정 박원종(朴元宗)이 태봉(胎峯)을 봉심(奉審)한 일을 마치고 와서 복명하였다.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10월 16일 병술 5번째 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陞京畿 加平縣爲郡, 仍遞縣監柳沔, 蓋以主上胎室所在也。	경기 가평현(加平縣)을 올려 군(郡)으로 삼고, 현감(縣監) 유면(柳沔)을 체임시켰으니, 이 곳은 주상(主上)의 태실(胎室)이 있는 곳이다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10월 25일 을미 1번째 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大司憲李惟清曰: “姜渾事, 他人聞之, 果似謀害。金應箕爲尙衣院提調, 而以造排胎室石欄干, 往加平, 臣以承旨爲副提調, 而不與同議, 獨啓請還屬尙衣院, 用心綢繆, 推問甚當。” 大司諫權弘曰: “殿下初政, 大臣義當薦賢, 而姜渾擧廢朝奇技淫巧之人, 啓請還屬尙衣院。今聞李惟清所啓, 用心果譎, 命推爲當。” 上命推問姜渾。	대사헌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강혼(姜渾)의 일은, 타인(他人)이 듣기에는 과연 모해(謀害)하는 것 같습니다. 김응기(金應箕)는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로서 태실 석난간(胎室石欄干)을 설치하는 일로 가평에 가고, 신은 승지(承旨)로서 부제조(副提調)였는데, 강혼은 신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홀로 아뢰어 폐조 때 사람을 그대로 상의원에 환속(還屬)하기를 청하니, 마음 쓰는 것이 계획적이라 마땅히 추문(推問)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양시 대자동 정소공주 태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25일 신미 1번째 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王女卒于宮內, 年十三。停朝市三日, 輟肉膳, 設禮葬, 造墓兩都監, 命副正尹碩主喪。	왕녀(王女)가 궁중에서 졸(卒)하였으니, 나이 13세이었다. 3일 동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육선(肉膳)도 철수하였다. 예장(禮葬)·조묘(造墓) 두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부정윤(副正尹) 이석(李碩)이 상례를 주장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27일 계묘 2번째 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追贈王女貞惠公主。	왕녀(王女)에게 추증(追贈)하기를 정혜 공주(貞惠公主)로 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4일 기유 4번째 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改謚王女貞惠爲貞昭, 以與雲城君 朴從愚翁主同號故也。	왕녀(王女)의 시호(諡號) 정혜(貞惠)를 고쳐서 정소(貞昭)라고 하였는데, 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 옹주와 시호가 같은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15일 경신 1번째 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葬貞昭公主于高陽縣。三功臣及議政府, 六曹堂上送至門外, 各設路祭。	정소 공주(貞昭公主)를 고양현(高陽縣)에 장사(葬事)지냈다. 삼공신(三功臣)과 의정부 육조 당상이 성문 밖까지 장송(葬送)하고 각기 노제(路祭)를 베풀었다.

고양시 신도동 고종 제4남 태실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2월 18일 무술 1번째 기사

十八日。寅時, 大君生。

인시(寅時)에 대군(大君)이 탄생하였다.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4월 17일 병신 1번째 기사

十七日。敎曰: “大君安胎使, 以亞卿差下, 嫡王孫安胎使, 以堂上差下事, 分付銓曹。”

“대군(大君) 안태사(安胎使)는 아경(亞卿)으로 임명하고, 적왕손(嫡王孫) 안태사는 당상(堂上官)으로 차하(差下)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광주시 원당리 왕자 돈수 태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5번째 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僉啓曰: “?? 旌善, 仁 遂安, 誠 堤川, 敦壽 牛峯, 竝於官家近處置之, 高其垣墻, 常令鎖閉。凡出納衣食等物, 令官人監掌。其支供, 以所在官倉之米, 炊爨, 使其官奴婢, 又令軍士, 守直有無事, 守令每月季, 報觀察使。” 傳曰: “依啓。”

모두 아뢰기를, “이황(李㙫)은 정선(旌善), 이인(李仁)은 수안(遂安), 이성(李誠)은 제천(堤川), 이돈수(李敦壽)는 우봉(牛峯)에 보내어 모두 관가 근처에 안치하되, 그 담을 높직이 쌓고 항상 문을 잠그게 하소서. 그리고 옷과 먹는 물품의 출납은 관인(官人)으로 하여금 감독 관장하게 하고 그 공급은 소재처 관창(官倉)의 쌀로 하되, 관노비(官奴婢)를 시켜 음식을 마련하며, 또 군사로 하여금 수직(守直)하게 하고, 일이 있건 없건 수령은 매월 월말에 관찰사에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4일 경자 3번째 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廢世子 ??, 昌寧大君 誠, 陽平君 仁及敦壽等, 不宜久存, 須早處斷。且燕山君廢妃愼氏, 今在貞淸宮, 不可與先王後宮同處, 移置東大門外廣平大君家何如?”

“??等事, 不忍處斷, 政丞以爲事關宗社, 故敢從之。” 命??, 誠, 仁, 敦壽竝賜死。

“폐세자 이황(李㙫)·창녕 대군 이성(李誠)·양평군 이인(李仁) 및 이돈수(李敦壽) 등을 오래 두어서는 안 되니, 모름지기 일찍 처단하소서. 또 연산군의 폐비 신씨가 지금 정청궁(貞淸宮)에 있는데 선왕의 후궁과 함께 거처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동대문 밖 광평 대군(廣平大君) 집에 옮겨 안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황 등은 나이가 모두 어리고 연약하니, 차마 처단하지 못하겠다. 폐비는 스스로 허물이 없는데, 문밖으로 내쳐 보내기가 정의상 몹시 가련하니, 성안에 옮겨 안치한다고 무슨 안 될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황 등의 일은 차마 처단하지 못하겠으나, 정승이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므로 과감히 좇겠다.” 하였다. 명하여 황·성·인·돈수를 아울러 사사(賜死)하였다.

광주시 태전동 성종 태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28일 무진 2번째 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傳曰: “前此安胎皆於下三道, 其意何也? 可問於風水學。” 風水學啓: “無論遠近, 期得吉地耳。” 傳曰: **“懿旨云: ‘凡人必皆藏胎于家山。比來國家擇地雖精, 無大吉應, 風水之說, 可謂虛誕。’ 其令擇于京畿。”**

전교(傳敎)하기를,

“종전에 안태(安胎)는 모두 하삼도(下三道)에다 하였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풍수학(風水學) 〈관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하다.” 하니, 풍수학 〈관원이〉 아뢰기를, “멀고 가까운 것을 논할 것 없이 길지(吉地)를 얻기를 기할 뿐입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의지(懿旨)에 이르기를, ‘일반 사람은 반드시 모두들 가산(家山)에다가 태(胎)를 묻는데, 근래에는 나라에서 땅을 가리는 것이 비록 정결(精潔)하기는 하나, 대길(大吉)한 응험(應驗)이 없으니, 풍수(風水)의 설(說)은 허탄(虛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였으니, 그 〈안태(安胎)〉 할만한 땅을 경기(京畿)에서 고르도록 하라.”**

하였다.

『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 6월 2일 기해 2번째 기사 1823년 청 도광(道光) 3년

廣州府 成宗大王胎室碑石改竪後, 監董留守以下施賞。

광주부(廣州府)에 있는 성종 대왕의 태실(胎室) 비석을 다시 세운 뒤에 감독한 유수(留守) 이하에게 시상하였다.

『승정원일기』 125책 (탈초본 7책) 효종 3년 10월 7일 을사 19/28 기사 1652년 順治(淸/世祖) 9년

又啓曰, 廣州胎室碑名刻字刻手, 令該司急速下送之意, 曾已入啓知委, 而校書館·漢城府, 皆以無爲稱, 不卽起送, 立石吉日, 在於十二日, 自此去彼, 未滿四五日。今見該道監司移文, 則事勢極爲窘迫。刻手, 本是校書館所管, 令該館別擇善手, 罔夜下送, 使之及期完役, 何如? 傳曰, 事極駭異, 催促發送。

※ 『성종대왕태실비』에 1578년(선조 11)·1652년(효종 3)·1823년(순조 23) 각각 개립(改立)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음. 이를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광주 태실은 성종 태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승정원일기』 2166책(탈초본 111책) 순조 23년 5월 6일 갑술 14/25기사 1823년 도광(청/순종) 3년

李光憲, 以禮曹言啓曰, 廣州地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吉日, 纔已推擇啓下矣。 觀象監官員例爲趁始役進去, 兼受告由祭香祝, 以待豎碑日行事, 而今番役事, 旣令地方官兼監役專掌擧行, 則始役時觀象監官員, 不必下送, 只正日臨時受香祝進去事, 分付,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2166책 (탈초본 111책) 순조 23년 5월 10일 무인 19/21 기사 1823년 道光(淸/宣宗) 3년

林東鎭以觀象監領事, 提調意啓曰, 今此廣州地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時, 書標官當爲差送, 取考謄錄, 則監董之臣, 兼進擧行, 多有已例, 本府留守洪羲臣, 書標官差下, 使之擧行,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2166책 (탈초본 111책) 순조 23년 5월 29일 정유 8/34 기사 1823년 道光(淸/宣宗) 3년

李止淵啓曰, 卽見廣州留守洪羲臣·禮曹參判金鎌·成宗大王胎室碑石改豎狀啓, 則霑濕之痕, 如是狼藉, 狀啓封裏, 何等愼審, 而不能堅緻, 有此水沈之境, 事甚疎忽。原狀啓係是祀典, 雖不得不捧入, 當該守臣及禮曹堂上, 不可無警, 竝推考,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2167책 (탈초본 111책) 순조 23년 6월 2일 기해 14/29 기사 1823년 道光(淸/宣宗) 3년

以廣州府胎室碑石改豎別單, 傳曰, 監董兼書標官留守洪羲臣, 禮曹參判金鎌, 各內下豹皮一令賜給, 地方官兼監役判官朴齊顯, 禮曹佐郎林孝憲, 各兒馬一匹賜給, 傳香兼奏時官全久煥, 上弦弓一張賜給, 別看役前郡守柳信儉陞敍, 都牌將·員役·工匠·畫僧等, 竝考例施賞。

『태봉등록』 효종 임진(1652) 3월 22일

京畿監司狀 啓廣州慶安面 成宗大王胎室碑石石品莫如忠原浮出流下則當自本道始役事請令該曹速爲知委當道以爲趁時擧行之地事據曹 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狀 啓則石品必是忠原之石云依狀啓令洪淸監司急速知委於忠原卽爲浮出流下後亦令京畿磨正以立之意兩道監司處行移何如啓依允

경기감사 장계에,
광주(廣州) 경안면(慶安面)에 있는 성종대왕 태실 비석(成宗大王胎室碑石)의 석품(石品 : 돌의 등급)이 충원(忠原:충주) 돌만 못하니, 충원돌을 떠내서 떠내려 보내면, 본 경기도에서 당연히 역사(役事)를 시작하겠사오니, 해조(該曹 : 해당 부서, 곧 예조를 가리킴)로 하여금 해당 도에 시켜서 즉시 거행하라는 일은,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거하여 계하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계를 보니, 빗돌은 반드시 충원 돌이어야 한다는 말이오니, 장계대로 홍청도(충청도) 감사에게 명하되, 급속히 충원군에 시켜서 돌을 떠내서 강물을 이용하여 광주(廣州)로 운반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감사에게 명하여 돌을 매끈하게 다듬어[磨正] 세우라는 뜻으로, 양쪽 감사에게 행이(行移)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태봉등록』 효종조 임진(1652) 9월 24일

京畿監司狀 啓廣州地 成宗大王胎峯立碑吉日令該 曹推擇下送寫字官刻手等前期定送事據曹啓目

경기 감사 장계에,
광주(廣州)에 있는 성종대왕 태봉에 빗돌 세울 길일(吉日)을 해조(예조)로 하여금 택일하도록 내려 보내도록 하시고, 사자관(寫字官 : 글씨 쓸 사람)과 각수(刻手 : 조각할 기술자) 등도 미리 정해서 보내도록 하소서.

粘連 啓下是白有亦胎峯本非行祭之所故自前無告祭之擧是白在果立碑吉日乙良令日官推擇寫字官刻手乙良置前期定送事分付各該司何如 啓依允立碑吉日來十月十二日辰時 啓下移文

라고 하였는데,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거하여 계하하였습니다.
태봉은 본시 제사 지내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종전부터[告由祭]를 지낸 적은 없지만 빗돌을 세우는 길일만은 일관(日官)에게 시켜서 택일하도록 하고 글씨 쓰는 사람과 각수는 미리 정해서 보낸 일이므로 각 해당 부서에 분부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빗돌 세우는 날은 오는 10월 12일 진시(辰時)로 계하하여 이문하였다.

『태봉등록』 숙종 임오(1702) 윤 6월 25일

今閏六月二十五日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禮曹判書金 所 啓頃日刑曹因廣州人安後謙作舍於於胎室步數外長養處考律科罪後胎室定限事令禮曹 稟處事 允下而此非泛然覆啓之事似當自今定式分付故今始仰達胎室禁標則當依事目以三百步定限而雖三百步外若是長養茂密之山則一朝濯濯至爲未安後謙之任自伐木至於作舍誠極可駭本道及刑官之所處置可謂得當矣士夫家墳山雖步數之外若是長養之地[則]他人尙不敢伐木作舍況 祖宗胎室是何等重大之所而其長養之木爲臣庶者何可任意斫伐乎凡胎室三百步外無長養樹木之處則今不必加定禁斷而至於已爲長養自前禁護之處則雖是步數之外竝爲一體禁斷事定式分付諸道何如上曰禁斷爲宜依所啓施行可也[移文八道]

이번 윤 6월 25일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할 적에 입시한 예조판서 김(金)이 아뢰기를,
"지난날 광주 사람 안후겸(安後謙)이 태실 경계 바깥 장양처(長養處)에 집을 지을 문제로 인하여, 형조(刑曹)가 '형률(刑律 : 형법)에 맞게 처벌한 뒤에, 태실의 경계 제한 문제를 예조로 하여금 품처할 것'이란 품의에 대해서 윤허가 하달되었지만, 이것은 범연하게 복계(覆啓)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정식화(定式化)해야 한다고 분부하셨으므로, 이제 처음으로 태실의 금표 문제를 아뢰었으니 마땅히 사목(事目 : 공사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경계를 300보로 정해야겠지만, 만약 그 300보로 제한된 경계 밖이 장양처(長養處)로서 산림이 우거진 산이라면 하루아침에 민둥산을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후겸이 제 마음대로 나무를 베었고 심지어 집까지 지은 것으로 참으로 지극히 놀랄 일이오니, 본도(本道 : 여기서는 경기도)와 형관(刑官)이 처치한 바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분산(墳山 : 묘를 쓴 산)도 아무리 경계 밖이지만, 장양지지(長養之地 : 산림을 크게 배양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베고 집을 짓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조종 태실(祖宗胎室)이 얼마나 중대한 곳인데, 크게 자란 나무[長養之木]들을 신하된 백성[臣庶]으로서 어떻게 멋대로 벨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태실에서 300보 바깥에 커다랗게 자란 수목이 없다면, 즈금 다시 추가로 금단(禁斷)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미 크게 자란 수목이 있고 종전부터 금지하고 보호해오던 곳이라면, 아무리 경계 밖[步數之外이라 해도 금단(禁斷)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것을 모든 도(道)에 분부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단함이 마땅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윤허하였다. - 팔도(八道)에 공문을 보냈다. -

『태봉등록』 숙종 임오(1702) 3월 15일

禮曹 啓目粘連 啓下是白有亦觀此京畿前監司李益壽 啓本則因廣州前府尹李濟査報成宗大王胎室禁標當依事目以三百步定限是白乎矣三百步外長養茂密之山一朝濯濯至爲未安仍前禁護固無悖於古 先王厲禁之政令該曹 稟處亦爲白有臥乎所胎室禁標以三百步定限者自是法典是白乎矣今此 成宗大王胎室奉安之處段自昔廣其火巢長養茂密則今不可諉以限外而一任民人之斫伐依前禁護似爲得宜是白去乎以此回移何如康熙四十三年三月十五日右副承旨臣黃一夏次知 啓依允

"예조의 계목과 점련을 계하하셨습니다. 이번에 전(前) 경기 감사 이익수(李益壽)의 계본을 보았더니,
'전(前) 광주 부윤(廣州府尹) 이제(李濟)의 사보(査報 : 조사보고서) -성종대왕 태실의 금표(禁標)에 대한-를 사목(事目)에 따라 300보로 경계를 삼는 것이 마땅하겠사오나, 길러진 나무들이 울창한 산일 경우, 벌목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민둥산이 되는 것은 지극히 미안스런 일이오니, 종전대로 벌목을 금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한 옛 선왕(先王)들의 법령[政令]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을, 해조(該曹 : 해당 부서, 여기서는 예조를 지칭)로 하여금 품처(稟處 : 임금을 윤허를 받아 일을 처리하게 하였거니와, 태실의 금표를 태실로부터 300보에 세우는 것은 법전(法典)에 맞지마는, 지금 성종대왕(成宗大王) 태실 봉안처(成宗大王胎室奉安) 문제는 옛날부터 화소(火巢)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길렀던 것이오니, 이제 와서 경계 밖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민간[民人]의 자유로운 벌목에 일임해 오던 것을 이제는 과거처럼 금지 보호[禁護]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런 뜻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라고 강희 43년 3월 15일 우부승지 신(臣) 황일하(黃一夏)차지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광주시 목현동 연산군 태실(추정)

『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경기(京畿) 광주목(廣州牧) 산천조(山川條)

佳乃嶺。在州東四十五里。**安成宗御胎**。 **梨嶺**。在州南三十里。安今上御胎。	**가마령(佳乃嶺)** 주 동쪽 45리에 있는데 **성종 어태(御胎)**를 봉안했다. **이령(梨嶺)** 주 남쪽 30리에 있는데 지금 임금의 어태를 봉안했다.

김포시 고막리 신성군 태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5일 신유 7번째 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王子信城君卒。	왕자(王子) 신성군(信城君)이 졸(卒)했다.

김포시 조강리 인순공주 태실

『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22일 임인 1번째 기사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以《事文類聚》中, 齊 景公暴露於野三日處, 付標, 下于政院曰: “此事, 大臣非不知也, 然命召議之。禮曹堂上亦可竝招也。 予觀日候, 二十日內不雨, 則至爲憂矣。予欲親祭廟社, 今朔有未可親祭之事。【中宮誕公主。】”	《사문유취(事文類聚)》 가운데의 ‘제경공(齊景公)이 들에 나가 사흘 동안 한데에 있었다.’는 곳에 부표하여 정원(政院)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일은 대신이 모르는 것이 아니나, 명소(命召)하여 의논하라. 예조의 당상도 아울러 불러야 하겠다. 내가 날씨를 보니, 스무날 안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극히 근심되겠다. 내가 종묘와 사직에 친제(親祭)하려 하나, 이달에는 친제할 수 없는 일 【중궁(中宮)이 공주(公主)를 낳았다.】 이 있다.”

남양주시 내각리 배나무골 태봉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8일 병오 1번째 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王嬖綠水生一女, 名曰靈壽, 王愛之甚。	왕이 녹수(綠水)를 총애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영수(靈壽)라고 했다.

안산시 고잔동 태실

『태봉등록』 현종 임인(1662) 2월 초 1일 胎峯步數定奪

京畿監司鄭知和狀　啓內安山地　王女胎峯步數及海寧君卜葬當否令該曹定奪事據曹　啓目粘連　啓下是白有亦觀此狀　啓安山地　王女胎峯近處宗室海寧君將爲卜葬是如因本郡牒報至於定差使員摘奸有此啓聞是白在果　大王胎峯則以三百步爲限且有守直看護之事是白乎旀　王子與諸阿只氏胎峯以一百步爲限別無定人守直之事是白如乎往在　宣朝祖祖朝萬曆三十三年公主胎峯則以二百步爲限自本曹定奪施行是如載在觀象監謄錄是白置凡胎峯例用於山頂元無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今此王女胎峯步數似當依　宣祖朝定式爲之是白置以此意回移何如康熙元年二月初二日右承旨臣鄭萬和次知啓依允	경기 감사 정지화의 장계에, 안산에 있는 왕녀의 태봉 보수(步數 : 크기)와 해령군(海寧君)의 복장(卜葬 : 장례에 대한 결정) 여부(與否)를 예조로 하여금 정탈(定奪 : 왕의 재가)하게 하라는 일은, 예조 계목(啓目)의 점련에 의거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계를 보니, 안산(安山)에 있는 왕녀 태봉(王女胎封) 근처에 종실(宗室) 해령군(海寧君)이 장지로 택할 것이라는 본군(本郡 : 안산군)의 첩보(牒報 : 보고서)가 정차사원(定差史員)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이렇게 계문(啓聞)하는 것입니다. 대왕 태봉(大王胎封 : 선왕의 태봉)은 둘레를 300보로 제한하고 수직(守直 : 맡아서 지킴)을 두어서 태봉을 돌보게 합니다. 왕자와 여러 아기씨의 태봉은 100보로 제한하고 따로 수직은 두지 않습니다. 지난 선조(宣祖) 때인 만력 33년에 공주의 태봉은 2백보로 제한한다는 정탈을 예조에서 받아 시행했다는 기록이 지금 <관상감등록(觀象監謄錄)>에 올라 있습니다. 무릇 태봉은 산의 정상을 쓰는 것이 전례이며, 내맥(來脈 : 종산(宗山)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 풍수지리용어. 내룡(來龍)이라고도 함)이나 좌청룡 우백호나 안산은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번 왕녀의 태봉 구역 제한[步數] 선조(宣祖) 때 만들어진 규정[定式]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할 듯하오니 이런 취지로 회이(回移 : 조회문건, 이문)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강희 원년 2월 초 2일 우승지 정만화(鄭萬和)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태봉등록』 숙종 병자(1696) 정월 21일 胎峯作變

曹 啓目粘連 啓下是白有亦觀此京畿監司金載顯狀 啓則安山仍火谷面 王女胎峯掘破丈餘此必愚氓疑有寶貨如是掘破是如爲白有臥乎所近來人心奸惡有此意外之變誠極驚駭是白在果令本道別定差使員與本官眼同更爲看審擇日完封後啓 聞爲白乎旀作變之賊多般機察期於必捕之意更加嚴飭何如康熙三十五年正月二十一日右承旨臣尹德駿次知 啓依允

예조의 단자에, '안산에 있는 왕녀(王女)태봉 도굴이 있었던 곳을 개수[修改]할 길일을 상지관(相地官 : 지관)을 시치서 추택하게 하였더니, 다가오는 2월 초 6일 진시와 13일 진시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날짜 중에서 알맞게 변통하여 역사를 거행하도록 본도(本道 : 이 때 본도는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니,
'아뢴 바대로 시행하라.' 고 하시었다.

『태봉등록』 숙종 병자(1696) 2월 15일 胎峯修改

京畿監司金載顯 啓本安山 王女胎峯修改吉日來二月初六日辰時十三日辰時爲吉云以此兩日中推移擧行事關是白乎等以行移知委爲白有如乎差使員衿川縣監崔聖任地方官安山郡守鄭尙樸牒呈內本月十三日曉頭會同于胎峯眼同看審同日辰時無弊完封緣由馳 啓事

경기 감사 김재현(金載顯)의 계본에,
"안산에 있는 왕녀(王女) 태봉 개수 길일은 오는 2월 초6일 진시와 13일 진시가 좋다고 하기에, 이 양일 중에서 알맞게 변통하여 결정하라는 관문(關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시달하는 공문서)을 보내왔으므로 (안산군수 등에게) 공문으로 지시하였더니, 차사원(差使員) 금천 현감(衿川縣監) 최성임(崔聖任)과 지방관(地方官) 안산 군수(安山郡守) 정상박(鄭尙樸)이 보낸 공문[牒呈]에,
'이달 13일 새벽에 태봉에서 회동(會同)하고 합동으로 조사[看審]하여, 그날 진시에 아무사고 없이 완전히 봉합하였기에 그 자초지종을 치계(馳啟)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성시 성은리 영조 옹주 태실

『태봉등록』 영조 임자(1732)년 2월 초3일

觀象監官員以領事提調意 啓曰次知內官招致地官金一甲以新生翁主阿只氏藏胎依例擧行事敎〔傳〕敎矣卽令地官推擇則以爲女胎三朔乃是方書藏胎之法而今壬子三月旣準三朔之期且是吉月云胎峯可合處則就曾前審定所錄擇其三處備望以 入落 點後擇日擧行何如 傳曰允

관상감(觀象監) 관원(官員)이 영사(領事)와 제조(提調)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차지 내관(內官)이 지관(地官) 김일갑(金一甲)을 불러, '새로 태어난 옹주 아기씨 장태의 일을 전례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라'는 전교를 받들고, 즉시 지관을 불러서 추택(推擇)하였더니, 여자의 태는 3개월째 장태하는 것이 방서(方書)의 장태법에 맞으므로, 금년 임자(壬子 : 영조 8, 1732)년 삼월(三月)달이 바로 석 달 되는 기간으로 길월(吉月)이라고 하였습니다. 태봉으로 합당한 곳은 이미 전에 조사하여 기록해 둔 곳이 있으니 그 중에서 3곳을 골라 비망(備望)으로 올려서 낙점을 얻은 뒤 택일(擇日)해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태봉등록』 영조 임자(1732)년 2월 초9일

觀象監官員以領事提調意 啓曰今此新生翁主阿只氏藏胎可合處以京畿近而稍穩處更爲擬望以入事 命下矣胎峯置簿中陽城楊州等地雖有審定處而此皆萬歷萬曆甲辰年看審處也在久遠其間無故與否有不可知發遣本監相地官更爲看審後擬望以 入之意敢啓 傳曰知道

관상감(觀象監) 관원(官員)이 영사(領事)와 제조(提調)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지금 신생 옹주 아기씨의 장태에 적합한 곳을 경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시 의망(擬望)**01**하여 올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태봉 치부(置簿 : 장부)에 양성(陽城)·양주(楊州)가 비록 조사하여 정해진 곳이니, 그 동안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상감의 상지관(相地官)를 보내 다시 살피고 조사하게 한 뒤에, 의망(擬望)을 들이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고 하였다.

01 의망(擬望) : 1인이나 1처를 결정하기 위해 3인 또는 3곳 등을 후보로 올려서, 상관의 낙점을 거쳐서 임금의 최종 낙점을 받아 그 중 하

『태봉등록』 영조 임자(1732)년 2월 13일 胎峯以陽城用 / 定用藏胎吉日時

觀象監官員以領事提調意 啓曰今此新生翁主阿只氏藏胎可合處陽城楊州等地發遣相地官金佑夏看審則楊州北面椵停子退伊洞午坐子向處山體皆石石根深入陽城西面陞良院望海山淸深寺洞口卯坐酉向處別無疵欠云而此兩處外畿邑中他無胎峯置簿處以此兩處備二望以 入之意敢 啓 傳曰以陽城西面觀象監牒呈內今壬子正月初一日寅時生翁主阿只氏藏胎京畿陽城西面陞良院望海山淸深寺洞口卯坐酉向處定用事 命下敎是乎等以藏胎吉日來三月二十七日卯時始役今二月二十四日午時開基來三月十五日辰時告后土祭同日曉頭行發胎來三月二十五日卯時胎神安慰祭封土後臨時行謝后土祭事畢後臨時設行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藏胎吉日時依牒呈施行何如雍正十年二月十三日同副承旨臣金 次知 啓依允

관상감(觀象監) 관원(官員)이 영사(領事)와 제조(提調)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이번에 신생 옹주 아기씨의 장태에 적합한 곳으로, 양성·양주 등지로 상지관(相地官) 김우하(金佑夏)를 시켜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양주(楊州) 북면(北面) 가정자(椵停子) 퇴이동(退伊洞) 오좌자향(午坐子向)**02**에 위치했는데, 산의 몸통은 다 바위요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며, 하나는 양성(陽城) 서면(西面) 승량원(陞良院) 망해산(望海山) 청심사(淸深寺) 들어가는 동구(洞口)에 묘좌유향**03**에 위치한 자리가 별로 흠이 없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곳 외에는 경기도에서 기록에 실려 있는 태봉이 없습니다. 이 두 곳을 비이망(備二望)**04**을 올리라는 뜻으로 감히 아뢰나이다."

라고 하니, ' 양성 서면(西面)으로 결정하라.' 라고 전교하였다.

관상감(觀象監) 첩정(牒呈) 안에,

"금년 임자(壬子)년 정월 초하룻날 인시(寅時)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는 경기도 양성 서면 승량원 망해산 청심사 동구의 묘좌유향(卯坐酉向)으로 정하라는 전교를 받았으므로, 장태 길일(吉日)을 오는 3월 27일 묘시(卯時)로 하옵고, 공사 시작은 이달 2월 24일 오시(午時)로 하며, 개기(開基)는 오는 3월 15일 진시(辰時)로 하며, 고후토제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행하오며, 발태는 오는 3월 25일 묘시에 거행하며, 태신 안위제는 봉토 후에 적당한 시간에 행하며, 사후토제는 일이 다 마친 뒤 적당한 때에 설행합니다."

라는 첩정이, 예조의 계목에 점련되어 첩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생옹주 아기씨의 장태 길일과 길시는, 첩정대로 시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옹정(雍正) 10년(영조 8, 1732) 2월 13일, 동부승지 신(臣) 김의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태봉등록』 영조 임자(1732)년 2월 15일 安胎時雜物 / 道路勿治

觀象監牒呈內新生翁主阿只氏藏胎吉日云云旣已推擇 啓下爲有置安胎時所用京中備辦雜物及一路應行諸事前儀軌相考牒呈後錄爲去乎依前預先進排待令事各司各邑良中前期知委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安胎時所用雜物令本道及各該司急速上下進排爲白乎矣道路乙良置亦令本道趁速修治擧行事移文知委何如雍正十年二月十五日右承旨臣徐命淵次知 啓依允本曹 啓目翁主安胎時道路修治事 傳曰最險處外勿爲修治事分付

"관상감(觀象監)의 첩정에,

'신생 옹주 아기씨 장태 길일……이라고 한 전교에 대하여 이미 추택(推擇)하여 계하(啓下)되었사오나, 태를 안장할 때 소요되는 경중(京中 : 서울)에서 비판[備辦 : 준비]할 잡물(雜物)과 어디까지나[一路] 행해야 할 모든 일, 종전의 의궤(儀軌)를 상고하여 첩정(牒呈)한 뒤에 기록하여 전례대로 미리 진배(進排)_하고 대령(待令)하는 일 등을 각사(各司)와 각읍(各邑)에게 미리 지위(知委)하소서.'

라고 한 것은, 예조의 계목에 점련되어 첩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생옹주 아기씨 안태(安胎) 때 소요되는 잡물은 본도와 해당 부서[該司]로 하여금 급속히 차하[上下]하여 진배(進排)하도록 하되, 도로(道路) 문제도 역시 본도로 하여금 수치(修治)_하여 거행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위(知委)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옹정 10년 2월 15일, 우승지 신(臣) 서명연(徐命淵)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본조의 계목에,

'옹주 안태 때 도로를 닦는 일은 가장 험한 곳 이외는 하지 말라고 분부함.' 이라고 하였다.

나를 결정하는 제도. 비삼망.

02 오좌자향(午坐子向) : 남쪽을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는 방향. 거주하는 가옥은 대개 이와 반대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인 자좌오향(子坐午向)을 택하는 것이 풍수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03 묘좌유향(卯坐酉向) : 동쪽을 등지고 서 을 바라보는 방향.

04 비이망(備二望) : 비삼망 제도를 적용하되 3곳이 아니라 2곳을 올리는 의망(擬望)

『태봉등록』 영조 임자(1732)년 2월 20일[05] 胎峯役軍及不緊物減

觀象監牒呈內今壬子正月初一日寅時生翁主阿只氏藏胎京畿陽城西面陞良院望海山清源寺洞口卯坐酉向處定用事　命下敎是乎等以藏胎吉日云云推擇　啓下爲有置同藏胎時赴役軍及外方備辦雜物應行諸事竝以前儀軌相考牒呈後錄爲去乎始役日及良無遺依依進排爲乎矣受　敎內凡安胎時令所在官守令差使員定體諸事預備亦爲有旀節乙置依前例差使員定體爲旀藏胎次瓮石蓋石標石臺石各一件浮取是置同浮石可合處前期探問爲有如可監役官下去卽時依　啓下使內乎矣其中各樣鐵物段始役日前期輸納爲良沙定日浮取石物是置除尋常惕念擧行事本道良中前期行移知委爲旀役軍乙良移文兵曹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藏胎時所入雜物乙良依所報令本道及各該司照例趁卽擧行何如雍正十月二十日同副承旨臣金濰次知　啓依允

傳曰役軍又減十名所用雜物中不緊者令本監又爲姑減自本官不可已進排者外令京司進排凡干等事務從節約事分付該監本道

관상감(관상감)의 첩정(牒呈)에,

"금년 임자(壬子) 정월(正月) 초하루 인시(寅時)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를 경기의 양성 서면(西面) 승량원 망해산 청원사(淸源寺)[06] 동구의 묘좌유향(卯坐酉向)으로 결정되었다는 하교(下敎)가 있었으므로, 장태 길일 등을 추택(推擇)하여 계하(啓下)되었으나, 장태할 적에 쓸 부역군(負役軍)과 지방에서 준비할 잡물[外方備辦雜物]과 응당 거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해 이전의 의궤(儀軌)를 상고해서 첩정(牒呈)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과 공사 시작하는 날에 진배(進排)토록 하되, 수교(受敎 : 임금에게 받은 교명) 안에,

'무릇 태를 안치할 적에 임하는 관원(官員)과 지방수령, 차사원(差使員)이 정체(定體)할 모든 일을 다 미리 준비할 것이며, 이번 일도 전례를 따라 차사원(差使員)을 정체할 것이며, 장태에 쓸 옹석(瓮石)·개석(蓋石)·표석(標石)·대석(臺石) 각각 1개씩 채석(採石)하더라도 채석하기에 적당한 곳을 미리 탐문하여 두었다가 감역관(監役官)이 내려가는 즉시, 계하(啓下)한 그대로 시키되, 그 중에 각종 철물(鐵物)은 공사 시작하기 이전에 싣고 와야만 정한 날ᄌᆞ ᆞ에 석물(石物)을 채취하는 일이 걱정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본도(本道 : 본도는 경기도)에 미리 공문을 보내 지위(知委)하도록 할 것이며, 역군(役軍)은 병조(兵曹)에 공문을 보내서 동원할 것.' 이라고 하신 전교가 예조의 계목에 점련되어 첩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 때 들어갈 잡물(雜物)을 첩보의 내용대로 경기도와 각 해당 사(司 : 부서)에 명하여, 전례대로 진작 거행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옹정 10월 20일에 동부승지 신(臣) 김유(金濰)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역군(役軍)은 다시 10명을 감축할 것이며, 소요 잡물(雜物) 가운데, 긴요하지 않는 것은,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우선 감축하도록 하고, 양성군에서 미처 진배(進排)하지 못한 것 이외에, 서울에서 진배할 모든 사무(事務)들을 될수록 절약하도록 관상감(觀象監)과 경기도에 분부하라."

고 하였다.

『태봉등록』 영조 임자(1732)년 2월 22일 胎峯雜物依 / 傳敎改磨鍊

觀象監牒呈內今此新生翁主阿只氏藏胎時役軍及應行雜物磨鍊牒呈本曹粘目　傳曰役軍又減十名所用雜物中不緊者令本監又爲姑減自本官不可已進排之外令京司進排凡干等事務從節約分付該監本道事

관상감(觀象監)의 첩정(牒呈)에,

"이번에 새로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 때 쓸 역군(役軍)과 응당 써야 할 잡물(雜物)을 마련하라는 첩정(牒呈)이 예종의 계목(啓目)에 점련된 뒤에 내린 전교에,

'역군(役軍)은 다시 10명을 감축할 것이며, 소요 잡물(雜物) 가운데 긴요하지 않는 것은,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우선 감축하도록 하고, 양성군에서 미처 진배(進排)하지 못한 것 이외 서울에서 진배할 모든 사무(事務)들을 될수록 절약하도록 관상감(觀象監)과 경기도에 분부하라.'

05 『조선의 태실』에서는 태봉등록 영조 己巳(1749) 2월 20일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壬子(1732) 2월 20일에 해당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06 청원사(淸源寺) : 앞에는 '청심사'여요, 여기는 '청원사'라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함.

判下敎是乎等以役軍及不緊雜物區別減除後更爲牒報爲去乎本官不可已進排者外令京司從約進排等事自本曹啓下知委擧行之地爲只爲後赴役軍一百名內[丁未年姑減三十名戊申年姑減二十名用僧軍]五十名內[今因傳敎姑減十名]水夢同一小夢同十內[今因傳敎姑減四介]立釘十串釘二十召乙釘二十非只金二十倚只金一漢丫赤六銑屎二加乃二內[今因傳敎姑減一介]鍤二內[今因傳敎姑減一介]排地乃二大釘三刻釘十刀子十大小熟麻注乙各一內[今因傳敎全減以上繕工監用還]添鐵五斤磊綠三斤內[今因傳敎姑減二斤]石灰三斗大小帳幕各一[用還]草苫七蕃內[今因傳敎姑減三番]白休紙八兩[司贍司贍]法油一斗甘湯二兩[義盈庫]六張付白紋地衣一浮[用還]

助役石手二名冶匠二名刻匠一名莎土匠一名空石四百立內[今因　傳敎姑減二百立]筆墨公事下紙七卷柳笥三部[以上本道]

御覽謄錄一件儀軌四件成冊次搗鍊紙二卷[戶曹長興]紅衣次細布巨乙金頭釘中使安胎使書標官監役官陪胎官奏時官支供及入接假家文書執吏庫直事知使令京石手二名奏時使令諸色丘從奴子等供饋浮石後曳石軍一百名[丁未年姑減二十名戊申年姑減三十名]用僧軍漏器排設諸具謄錄書寫安胎都色吏[以上本官]告后土祭胎神安慰祭獻官[本官守令]諸執事[本官校生]樓子奉安假家雜物入置庫間時急傳通驛子浮石所及胎峯所往來所騎馬留待胎峯直二名本官閑丁抄定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藏胎時所入雜物乙良依此改磨鍊所報令本道及各該司照例趁卽擧行何如　啓依允

고 판하(判下)**07**하시었으므로, '역군(役軍)과 긴요하지 않은 잡물을 구별하여, 감축하거나 아예 빼거나 한 뒤에 다시 첩보하겠사오며, 양성군이 이미 바칠[進排]지 못한 것 이외에는 경사(京司 : 서울에 있는 관서)가 가급적 줄여서 바칠[進排]것을, 예조가 지위(知委 : 명령, 지시)하여 거행하도록 하겠사오며, 부역군 100명 이내-정미(丁未)년에 임시로 30명을 감축했고, 무신(戊申)년에 임시로 20명을 감축했고 모두 승군(僧軍)을 사용했다-를 50명 이내-이번에는 전교로 인하여 우선 10명을 감축함-로 하며, 물몽동[水夢同]**08** 한 자루. 작은 몽두이 10자루 이내-이번에 전교를 뚜라 우선 4자루를 줄임-로. 설못[立釘] 10개. 꼬치못[串釘] 20개. 솔못[召乙釘] 20개. 비기음쇠[非只金] 20개. 이음쇠[倚只金] 1개. 한마치[漢丫赤] 6자루. 광이 2자루. 가래[加乃] 2개 이내-이번엔 전교로 말미암아 우선 1개로 줄임-로. 삽(鍤) 2자루 이내-이번엔 전교로 인해 우선 1개로 줄임-로. 밀지래[排地乃] 2개. 큰 못 3개. 각정(刻釘)**09** 10개. 작은 칼() 10자루. 대 숙마(熟麻) 밧줄 1사리. 소 숙마 밧줄 1사리 이내로-지금은 전교로 말미암아 모두 줄여서 선공감 용으로 돌림-. 첨철(添鐵) 5근. 뇌록(磊綠)**10** 3근 이내로-지금은 전교로 말미암아 모두 줄여서 우선 2근을 줄인다-. 석회(石灰) 3두(斗). 대 장막 1장. 소장막 1장-쓰고 돌려줌-. 초둔(草苫) 7번(蕃 : 단위임) 이내로-이번에는 전교로 인하여 우선 3번을 줄임-로. 백색 휴지(白休紙) 8량(兩)-사섬시에서-. 법유(法油) 1두(斗). 감탕(甘湯) 2량(兩)-의영고(義盈庫)에서 6장(張)을 붙여서 만든 지의(地衣) 1부(浮)-쓴 뒤에 돌려줌.

조역(助役) 석수(石手) 2명. 대장장이[冶匠] 2명. 새김장이[刻匠] 1명. 사토장이[莎土匠] 1명. 빈 섬[空石] 400립-이번엔 전교로 인하여 우선 200립을 줄임-. 붓. 먹. 공사하지(公事下紙) 7권. 버들고리[柳笥] 3부-이상은 본도에서-.

어람(御覽) 등록(謄錄) 1건과 의궤(儀軌) 4건을 책으로 만들 도련지(擣鍊紙) 2권-호조(戶曹) 장흥고(長興庫)에서-. 홍의(紅衣) 만들 가는 베[細布]. 걸쇠[巨乙金頭釘]. 중사(中使). 안태사(安胎使). 서표관(書標官). 감역관(監役官). 배태관(陪胎官). 주시관(奏時官)들의 음식 대접[支供]과 이들 관원이 들어갈 가건물[假家]. 문서(文書) 집리(執吏). 고직이(庫直). 일머리를 잘 아는 사령(使令). 서울 석수(石手) 2명. 주시 사령(奏時使令). 각색 구종(驅從). 노자(奴子) 등의 식사 제공. 석재를 채취한 뒤에 끌어 운반할 일꾼 100명은-정미(丁未)년에 임시로 20명 감축했고, 무신(戊申)년에 임시로 30명 감축했다. -승군(僧軍)을 사용하며, 물시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부속 기구. 등록(燈錄)을 쓸 사람과 안태(安胎) 도색리(都色吏)-이상은 양성군수가 준비한다-

이번 신생 옹주 아기씨 자태 때 소요되는 잡물은 이 첩보(牒報)대로 마련하도록 경기도와 해당 각사(各司)에 명하여, 전례를 따라서 진즉 거행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고후토제. 태신안위제의 헌관(獻官) -양성 군수가 한다-. 여러 집사(執事)-양성군 향교의 교생이 한다-. 누자(樓子)를 봉안할 임시 건물. 잡물(雜物)을 들여놓을 곳간. 시급한 연락을 맡은 역자(驛子). 석재를 뜨는 채석장(採石場)과 태봉을 왕래할 적에 타고 다니는 말을 대기시키는 곳과 태봉 직이 2명은 양성 군수가 한정(閑丁)**11** 중에서 차출함'

이라고 한 관상감의 첩보가 예조의 계목에 점련되어 첩정(牒呈)되었습니다.

07 판하(判下) : 상주(上奏)한 안건(案件)을 임금이 허가하는 일

08 물몽동[水夢同] : 조선 시대의 일종의 쇠망치. 메 또는 종규(杵揆)라고도 하며, 무거운 쇳덩어리에 나무 자루를 박아서 만든다. 대(大)·중(中)·소(小)가 있는데, 그 무게는 각각 80근·70근·60근이다.

09 각정(刻釘) : 비석 따위에 글자 등을 조각할 때 사용하는 정.

10 뇌록(磊綠) : 산화된 동솽석(銅鑛石) 지대에서 나는 녹색을 띤 광물. 채색의 원료로 쓴다. 녹(綠)은 녹(碌)으로도 쓴다.

11 한정(閑丁) : 군적(軍籍)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복무(服務)하지 않고 놀고 있는 장정.

양주시 황방리 정혜옹주 태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6일 丁丑 3번째 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靜惠翁主卒。停朝市, 停延恩, 文昭兩殿親祭。	정혜 옹주(靜惠翁主)가 죽었다. 공사와 저자를 정지하고 연은(延恩)·문소(文昭) 양전(兩殿)에 친히 제사지내는 일을 정지하였다.

양평군 옥천리 제안대군 태실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2월 13일 을유 4번째 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世子昭訓韓氏 【卽今王大妃。】 生王孫。	세자(世子)의 소훈(昭訓) 한씨(韓氏)가 【곧 지금의 왕대비(王大妃)이다.】 왕손(王孫)을 낳았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5일 甲午 4번째 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封睿宗大王子琄爲齊安大君。	예종 대왕(睿宗大王)의 아들 이현(李琄)을 봉하여 제안 대군(齊安大君)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56권, 중종 20년 12월 14일 무술 7번째 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齊安大君 琄卒。 傳曰: “屬尊宗室卒, 予甚痛悼。” 命賜別致賻, 擇給棺槨, 令禮曹速辦葬事。 琄無後, 命以伊川正 壽禮, 爲喪主。 【史臣曰: “琄, 睿宗嗣也。 性戇, 不識男女間事, 日以作樂侑食爲事, 然或有行事合禮, 人謂之佯愚。”】	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이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항렬 높은 종실(宗室)이 죽어 내가 매우 애통스럽다.” 하고, 특별한 부의를 내리고 널을 가려서 주도록 하였고 예조로 하여금 시급히 장사에 관한 일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 현이 후손이 없으므로 이천정(伊川正) 이수례(李壽禮)로 상주를 삼도록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이현은 예종(睿宗)의 아들로 성격이 어리석어서 남녀 관계의 일을 몰랐고, 날마다 풍류잡히며 음식 대접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그러나 더러는 행사가 예에 맞는 것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거짓 어리석은 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천군 동막리 부물현 혜정옹주 태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4월 11일 경진 1번째 기사 1580년 명 만력(萬曆) 8년

庚辰/傳曰: “南道虞候尹琥, 昨日下直矣。 但惠靜翁主病重, 無他子女, 情理甚迫。 本職遞差。”	전교하였다. “남도 우후(南道虞候) 윤호(尹琥)가 어제 하직하였다. 그러나 혜정옹주(惠靜翁主)의 병이 위중한 데다 간호할 다른 자녀도 없어서 그 사정이 매우 절박하니 본직을 체차하라.”

연천군 유촌리 영조옹주 태실

『태봉등록』 영조 무신(1728) 8월 초 9일 新生翁主藏胎

觀象監官員以領事提調意 啓曰次知內官招致相地官金佑夏以新生翁主阿只氏藏胎依例擧行事傳敎矣卽令相地官推擇則以爲女胎三朔以藏乃是方書藏胎之法而今戊申年十月旣準三朔之期且是吉月云胎峯可合處則就曾前審定所錄擇其三處備望以 入落點後擇日擧行何如 傳曰允	관상감 관원이 영사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차지 내관(次知 內官 : 담당 내관)이 상지관(相地官) 김우하(金佑夏)를 불러서 신생옹주 아기씨의 장태를 전례대로 거행할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즉시 상지관을 시켜서 길일을 추택(推擇)해보니, 여자의 태는 석달[三朔]이 되므로 방서에도 맞고 또 길월(吉月)이라고 하였습니다. 태봉에 합당한 곳은 이미 예전에 잘 살펴서 잡아둔 곳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가운데 세 곳을 택하여 비망(備望)으로 올려서 낙점(落點)을 받은 뒤에, 장태를 거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태봉등록』 영조 무신(1728) 8월 15일 藏胎吉日 / 藏胎雜物 / 藏胎時道路修治

觀象監爲推擇事今戊申年八月初三日申時生翁主阿只氏藏胎事 傳敎矣一等胎峯京畿麻田縣東面柳村申坐寅向落 點敎是乎等以藏胎吉日來十月初八日卯時始役來九月初八日午時開基來九月二十二日午時告后祭后土祭同日曉頭行發胎來十月初六日卯時胎神安慰祭封土後臨時行謝后土祭事畢後臨時行爲等如推擇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藏胎吉日時依牒呈施行何如 啓依允

觀象監牒呈據曹粘目云云向前新生翁主阿只氏藏胎時所入雜物乙良依所報令本道及各該司照例趁卽擧行何如雍正六年八月十五日同副承旨臣金始炯次知 啓依允

觀象監牒呈據曹粘目云云向前新生翁主阿只氏安胎時所用雜物令本道及各該司急速上下進排爲白乎矣道路乙良置亦令本道趁卽修治擧行事移文知委何如雍正六年八月十五日同副承旨臣金始炯次知 啓依允

"관상감에서 추택(推擇)할 일에,
'금년 무신 8월 초 3일 신시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의 일을 전교 받았습니다. 일등 태봉은 경기도 마전현(麻田縣) 동면(東面) 유촌(柳村) 신좌 인향(申坐寅向)으로 낙점하옵신 바로, 장태 길일인 오는 10월 초 8일 묘시에 공사를 시작 합니다.
오는 9월 22일 오시에 토지신에게 고하는 제사[告后土祭]를 지내며, 이날 꼭두새벽에 발태(發胎)를 거행하고, 오는 10월 초 6일 묘시에 태신안위제(胎神安慰祭)를 지내되 봉토 후에 적당한 때를 지내며, 사후토제는 공사를 다 끝낸 뒤에 적당한 때에 지내기로 추택(推擇)합니다.'
라고,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거하여 첩정하였습니다. 이번 신생옹주 장태 길일과 길시는 관상감의 첩정대로 시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관상감의 첩정이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신생옹주 아기시의 장태 때 소요되는 잡물(雜物)은 관상감의 첩보대로, 본도(本道)와 각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전례를 참조하여 때에 늦지 않게 거행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옹종 6년 8월 15일, 동부승지 신(臣) 김시경(金始炯)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관상감 첩정이 예조의 계목과 점련에 의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생 옹주 아기씨 장태 때 소요되는 잡물(雜物)은 본도(本道)와 각 해당 부서로 하여금 급속히 지급하여 진배(進排)토록 하사오되, 도로(道路)도 역시 본도(本道)로 하여금 때에 늦지 않게 도로공사를 거행하도록 공문을 보내어 지위(知委)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옹정 6년 8월 15일, 동부승지 신(臣) 김시경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태봉등록』 영조 무신(1728) 9월 초 5일 胎峯百步內古塚掘移

胎峯監役官牒報內新生翁主阿只氏胎峯前後有新舊塚何以爲之事據手決內百步內古塚當爲掘移是遣百步外不當掘移與本官相議斯速擧行向事

태봉 감역관 첩보 내에,
'신생 옹주 아기씨 태봉 앞뒤로 있는 새로 쓴 무덤과 고총을 어떻게 하리끼?'
라는 일을 수결(手決)한 제(題) 안에,
'100보 내 거리가 있는 고총은 파서 옮기는 것이 마땅하며, 100보 바깥에 있는 것을 파서 옮기는 것이 부당한 무덤은 본관(本官 : 그 고을 사또)과 상의하여 속히 결정할 것.'
이라도 하였다.

파주시 어유지리 영산군 태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3일 경자 1번째 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後宮沈氏生兒。兵曹啓定藏胎之軍。傳曰: "藏胎亦不得已之事, 然今方旱, 農務甚殷, 豈可以予子之故, 煩苦農民乎? 姑令停罷。"

후궁(後宮) 심씨(沈氏)가 아이를 낳자, 병조(兵曹)에서 태(胎)를 간직할 군사를 정하도록 아뢰니, 전교하기를,
"태를 간직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바야흐로 가뭄이 들고 농사 업무가 매우 바쁜데, 어찌 나의 자식 때문에 농민(農民)을 번거롭고 고달프게 하겠는가? 우선 정파(停罷)하도록 하라." 하였다.

포천시 만세교리 화완옹주 태실

『태봉등록』 영조 무오년(1738) 2월 18일 新生翁主藏胎吉日 / 新生翁主藏胎時雜物 / 新生翁主安胎時雜物

觀象監牒呈內今戊午正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藏胎事 傳敎矣胎峯京畿抱川縣北面萬世橋東邊乙坐辛向落 點敎是乎等以藏胎吉月來三月二十六日午時始役二月二十六日辰時開基三月十九卯時告后土祭同日先行發胎三月二十五日卯時胎神安慰祭封土後臨時行謝后土祭事畢後設行事爲等如推擇事牒呈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藏胎吉日時依牒呈施行何如乾隆三年二月十八日右承旨臣兪健基次知啓依允

觀象監牒呈內戊午正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藏胎吉日等上同云云推擇爲有置藏胎時赴役軍及外方備辦雜物應行諸事幷以前儀軌相考牒呈後錄爲去乎始役日及良無遺進排爲乎矣受敎內凡藏胎時令所在官守令差使員定體諸事預備亦爲乎旀藏胎次瓮石蓋石標石臺石各一件浮取是置同浮取可合處前期探問爲有如可監役官下去卽時依 啓下使內乎矣其中各樣鐵物段始役日前期輸納爲良沙定日內浮取石物是置除尋常惕念擧行事本道良中前期移文知委役軍乙良移文兵曹爲只爲後赴役軍一百名內[丁未年姑減三十名]七十名內[戊申年姑減二十名用僧軍]曳石軍一百名[丁未年姑減二十名]八十名內[戊申年姑減三十名用僧軍]浮石時鐵物水夢同一中夢同四小夢同十立釘十介串釘二十介召乙釘二十介倚只金二十介汗亍赤六介加乃二銑伊二鍤二斧子二排地乃二長三尺大釘三介長三尺刻釘二十介刻刀十介添鐵五斤磊泉三斤石灰三斗[以上繕工]大小帳幕各一草苫

七番休紙八兩法油一斗甘湯二兩六張付白紋席地衣一浮助役石手二名冶匠二名刻字匠一名沙土匠一名空石四百立黃筆五柄眞墨七丁公事下紙七卷柳笥二部 御覽謄錄一件[敦厚紙兩折黃衣]儀軌四件成冊次搗練紙二卷紅衣次細布巨乙金頭釘具鑞染中使安胎使書標官監役官陪胎官奏時官支供及入接假家文書執吏庫直事知使令京石手二名奏時使令諸色工匠丘從奴子等供饋漏器排設諸具謄錄書寫安胎都色[以上本官]

"관상감의 첩정에

'금년 무오년 정월 19일 축시(丑時)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 장태사를 전교 받았습니다. 태봉은 경기도 포천현 북면(北面) 만세교(萬世橋) 동쪽 을좌신향(乙坐辛向)으로 낙점하셨으므로, 장태 길월(吉月)을 오는 3월 26일 오시(午時)로 하였습니다.

공사 시작은 2월 26일 진시(辰時)이며, 개기(開基)는 3월 10일 묘시이며, 고후토제는 같은 날에 먼저 거행하며, 발태(發胎)는 3월 25일 묘시이며, 태신 안위제는 봉토 후에 적당한 때에 지내며, 사후토제는 일을 다 마친 뒤에 설행하는 것 등을 통틀어서 추택(推擇)하였습니다.'

라고, 내용이 예조의 계목에 점련하여 첩정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탄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 길일(吉日)과 길시(吉時)를 첩정된 내용대로 시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건륭(乾隆) 3년 2월 18일, 우승지 유건기(兪健基)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관상감(觀象監)의 첩정 안에,

"무오(戊午)년 정월 19일 축시(丑時)에 탄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 길일(吉日) 등은 위와 같이 '……'라고 추택(推擇)하였으나, 장태할 적에 투입할 일꾼과 지방에서 준비해야 할 잡물(雜物)과 응당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종전의 의궤(儀軌)를 참고하여 첩정(牒呈)하고 기록한 뒤에 시역일(始役日 : 공사 시작 날)에 맞추어 빠뜨림 없이 진배(進排)하되 수교(受敎 : 임금의 교명) 내에,

'무릇 태를 안장할 적에 참석해야 하는 관(官)과 수령(守令)과 차사원(差使員)과 정체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할 것이며, 태를 안장할 적에 쓸 옹석(瓮石)·개석(蓋石)·표석(標石)·대석(臺石) 각가 1개씩을 만들 석재를 각각 한 벌씩 채석하되, 석재 채취에 합당한 곳을 미리 탐문해 두었다가 감역관(監役官)이 내려가는 즉시, 계하(啓下)의 내용대로 시키되 이 가운데 각종 철물(鐵物)들은 공사 시작 전에 수납하여야만 정한 날짜에 석물도 채취할 수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할 것을 본도(本道)에 기한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지위(知委)할 것입니다.

일꾼은 병조로 공문을 보내도록 한 뒤에, 역군(役軍) 1백명 이내와-정미년에는 우선 30명을 줄였음- 70명 이내와-무신년에는 우선 20명을 줄이고 승군(僧軍)을 썼다- 예석군(曳石軍) 100명과-정미년에 임시로 20명을 감축했다- 80명 이내와-무신년에는 임시로 30명을 감축하고 승군(僧軍)을 사용했다- 돌을 뜰 적에 쓸 철물(鐵物)인 물몽둥이 하나와 중몽둥이 4개. 작은 몽둥이10개와 설못(立釘) 10개. 꼬치못(串釘) 20개. 솔못[召乙釘] 20개. 이음쇠(倚只金) 20개. 한마치[漢亍赤] 6개. 가래(加羅) 2개. 광이[銑屎] 2자루. 삽(鍤) 2자루. 도끼 2자루. 밀지레(排地乃) 2자루[길이 3척(尺)]. 큰못(大釘) 3개[길이 3척(尺)]. 새김못[刻釘] 20개. 새김칼 10개. 첨철(添鐵) 5근. 뇌록(磊泉) 3근(斤). 석회(石灰) 3두(斗)-이상은 선공감에서-. 큰 장막(帳幕) 1개. 작은 장막(帳幕) 1개. 초둔(草苫) 4개. 휴지 8냥. 법유(法油) 1두(斗). 감탕(甘湯) 2냥(兩)과 6장을 붙인 백문석(白紋席) 지의(地衣) 1부(部)와 조역 석수(石手) 2명. 대장장이[야장(冶匠)] 2명. 각자장(刻字匠) 1명. 사토장(莎土匠) 1명. 빈 섬[공석(空石)] 400립(立). 황필(黃筆) 5자루. 진먹 7자루. 공사(公事) 하지(下紙) 7권. 버들로 만든 고리짝 2부. 어람(御覽) 등록(謄錄) 1건. -양절 돈후지(敦厚紙)에 황의(黃衣 : 누런 책갈피)- 의궤(儀軌) 4건(件)을 책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련지(擣鍊紙) 2권. 홍의(紅衣)를 만드는 데 쓸 가는 베[세포(細布)]. 걸쇠[巨乙金] 머리못. 납엽(鑞染)과 따르는 중사(中使)·안태사(安胎使)·서표관(書標官)·감역관(監役官)·배태관(陪胎官)·주시관(奏時官) 등에게 먹일 지공(支供 : 음식을 이바지함)과 사람이 들어앉을 임시 가옥[가가(假家)]과 문서(文書) 집리(執吏). 고직(庫子)이와 일머리를 잘 아는 사령(使令). 서울 석공[京石手] 2명. 주시사령(奏時使令). 제색 장인(諸色匠人 : 각 분야 기술공). 구종(驅從). 노자(奴子 : 사내종)들을 위한 공궤(供饋 : 음식물을 제공함)와 누기(漏器 : 물시계)를 설치할 여러 가지 도구와 등록(登錄)을 기록할 사람과 안태도색리(安胎都色史)-이상은 본관(本官)에서 맡는다-.

告后土祭胎神安慰祭謝后土祭獻官本官守令諸執事本官校生樓子奉安假家雜物入置庫間時急文書傳通驛子浮石所及胎峯所往來所騎馬留待胎峯直二名本官閑丁抄定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藏胎時所入雜物乙良依所報令本道及各該司照例趁卽擧行何如乾隆三年二月十八日右承旨臣兪健基次知 啓依允

觀象監牒呈內今戊午正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藏胎吉日等推擇上同云云爲有置安胎時所用京中備辦雜物及一路應行諸事前儀軌相考後錄牒呈爲去乎依前預先進排待令事各司及本道知委俾無未及之患爲只爲後樓子一諸具墨漆木櫃子一諸具紅染熟麻縛多繪二十四把[以上用還]三甲所三巨里事知石手二名[以上繕工監]別紋草方席一立白紋地衣一浮柳笥一油蓋也一[以上用還]楮注紙三卷櫃塗紙十張單幅紙一張[以上長興庫]朱砂七錢金銀各六分龍腦二分[以上戶曹]牛黃二分石雄黃二分[典醫監]漆燭四柄[義盈庫]靑布一疋靑鼎紬四幅付甲袱一靑鄕絲三甲繩十尺五色綃各三尺靑鼎紬三尺[以上濟用監]草苫五番[兩倉]帳幕[司鑰房]胎缸結裹鄕氈一浮半誌石結裹鄕氈一浮杻炬四柄[以上工曹]穀草五束[司僕寺]毛獐皮四張[戶曹]香祝[香室]誌石一[用靑石長廣各一尺尙衣院造承文院書校書館刻]監役官齎去印信一[禮曹]擔持軍三十名引路二名使令一名[兵曹]一路擔持軍引路及使令等各其境上待候靑冠服[濟用監]次次傳授道路橋樑自闕門至京畿抱川縣胎峯所修治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安胎時所用雜物令本道及各該司急速上下進排爲白乎矣道路乙良置亦令本道趁卽修治擧行事移文知委何如乾隆三年二月十八日右承旨臣兪健基次知 啓依允

고후토제(告后土祭)와 태신 안위제(胎神安慰祭)와 사후토제(謝后土祭)의 헌관(獻官)은 본관(本官) 수령이, 여러 집사(諸執事)는 본관의 교생(校生)이, 누자(樓子)를 봉안(奉安)할 가가(假家 : 임시 가옥)와 잡물(雜物)을 들여놓을 곳간과 시급한 문서(文書)를 전통(傳通)할 역자(驛子)와 채석장[부석소(浮石所)]과 태봉(胎峯)을 왕래할 때 타고 다닐 말을 대기시키는 일과 태봉직이 2명은 본관(本官)]이 한정(閑丁) 중에서 차출(差出)한다.'

라고, 예조의 계목에 점련하여 첩정(牒呈)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 장태 때 들일 잡물(雜物)들은 본 첩보(牒報)에 의해서 준비할 것을 본도(本道)와 각 해당 관서로 하여금 전례를 참조[조례(照例)]해서 때에 늦지 않게 거행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건륭(乾隆) 3년 2월 18일, 우승지 신(臣) 유건기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관상감(觀象監)의 첩정에,

"무오(戊午)년 정월 19일 축시(丑時)에 탄생한 옹주아기씨의 장태 길일(吉日) 등은 위와 같이 '……'라고 추택(推擇)하였으나, 안태할 적에 소용되는 서울과 지방에서 준비해야 할 잡물(雜物)과 처음부터 끝까지[일로(一路)] 응당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종전의 의궤(儀軌)를 참고하여 기록한 뒤에 첩정하오니, 종전대로 미리 진배(進排 : 물품을 진상함)하여 대령할 것을 각사(各司)와 본도(本道)에 지위(知委)하여 제때에 맞추지 못할 염려가 없도록 하소서.

누자(樓子) 하나와 그에 딸린 모든 도구. 흑칠목(黑漆木)으로 만든 궤자(櫃子) 하나와 모든 도구, 붉은 물을 들인 숙마(熟馬) 밧줄 24파(把)-이상은 쓴 뒤에 되돌려 보냄-. 삼겹 밧줄[三甲所 : 3겹바] 3거리(巨里). 일에 익숙한 석공 2명. -이상은 선공감에서-. 별문초(別文單) 방석(方席) 1립(立). 백문석(白紋席) 지의(地衣) 1부(部). 버들 고리짝 1부. 유개아(油蓋也) 1개-이상은 쓴 뒤에 되돌려 보냄-. 저주지(楮注紙) 3권. 궤짝 바르는데 쓸 종이 10장. 단복지(單福紙) 1장.-이상 장흥고(長興庫)가 부담한다-. 주사(朱砂) 7잔. 금(金) 6푼. 은(銀) 6푼. 용뇌(龍腦) 2푼-이상은 호조(戶曹)가 부담한다-. 우황(牛黃) 2푼. 석웅황(石雄黃) 2냥.-이상은 전의감(典醫監)에서 부담한다-. 칠촉(漆燭) 4병(柄).-이상은 의영고(義盈庫)에서 지급한다-. 청포(靑布 : 푸른색 물들인 베) 1필(匹). 청정주(靑鼎紬) 4폭을 붙여서 만든 갑보(甲袱 : 겹으로 된 보자기) 1장. 청향사(靑鄕絲)로 만든 삼겹 노끈 10척. 오색 깁(五色綃) 각 3척. 청정주 3척.-이상은 제용감(濟用監)에서 지급-. 초둔(草苫) 5부. -이상은 양창(兩倉)[12]에서 지급함-. 장막(帳幕)-사약방(司鑰房)에서 지급-. 태항아리를 묶어서 싸는 데 쓸 향전(鄕氈) 1부(浮) 반(半). 반. 지석(誌石)을 묶어서 싸는 향전 1부(浮). 축거(杻炬)[13] 4자루[병(炳)].-이상은 공조(工曹)에서 지급- 곡초(穀草 : 짚·밀짚 등) 5단[속(束)]-사복시(司僕寺)에서 지급-. 노루 모피[毛獐皮] 4장-호조에서-. 향과 축-향실에서-. 지석(誌石) 1개-청석(靑石)으로 만들고, 가로 세로 각 1자다.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고, 승문원(承文院)에서 글을 쓰고, 교서관(校書館)에서 각자(刻字)한다.- 감역군(監役軍)이 싸가지고 갈 인신(印信) 1과(顆)-예조에서-. 짐꾼[擔持軍] 30명. 길라잡이[인로(引路)] 2명과 사령(使令) 1명-병조에서-. 일로담지군(一路擔持軍). 길라잡이와 使令 등은 각 처의 경계에서 대기하며, 청관복(靑冠服)-제용감에서 차례로 전해 받아서 입는다-. 도로(道路)와 교량(橋梁)은 대궐 문에서부터 경기도 포천현 태봉(胎封)까지 닦게 한다."

라고, 예조의 계목에 점련하여 첩정(牒呈)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태를 안치할 적에 소용되는 잡물은 본도(本島 : 경기도)와 해당되는 각사(各司)로 하여금, 급속히 차하[上下 : 지급, 지불]하여 진배(進排)하게하시되, 도로(道路)도 역시 본도로 하여금 좀 더 일찍이 닦아서 대비하도록 공문을 보내어 지위(知委)하게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건륭 3년 2월 18일 우승지 유건기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12 양창(兩倉) : 군자창(軍資倉)과 광흥창(廣興倉)을 아울러 이르는 말.

13 축거(杻炬) : 마른 싸리나무를 묶어서 만든 홰. 야간 작업 등을 할 적에 흔히 횃불로 썼다.

『태봉등록』 영조 을묘년(1735) 10월 초2일 新生翁主胎峯議定

觀象監官員以提調意　啓曰次知內官招致地官朴尙淳新生翁主阿只氏藏胎依前例擧行事　傳敎矣卽令地官推擇則以爲女胎則三朔乃是方書藏胎之法而今乙卯十一月旣準三朔之期且是吉月云胎峯可合處備三望以入落　點後擇日擧行何如傳曰允
新生翁主胎峯望單子　傳曰以京畿改望以入

관상감(觀象監) 관원이 제조(提調)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차지 내관(內官 : 담당 내관)이 지관(地官) 박상순(朴尙淳)을 불러서 새로 탄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를 전례에 따라서 거행하라는 하교를 전하였으므로, 즉시 지관으로 하여금 추택(推擇)하게 하였더니,
'여태(女胎)는 석달이 되어야 잡는 것이 방서(方書)에 있는 장태법인데, 금년 을묘(乙卯)년 동짓달[十一月]이 바로 석달이 되는 달이며 또 길월(吉月)이다.'
고 하였습니다. 태봉으로 합당한 곳을 삼망(三望)을 갖추어서 올리오니, 낙점된 뒤에 택일(擇日)하여 거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윤허한다.' 고 전교하였다.
신생옹주 태봉 망단자(望單子) :
전교하기를, 비망(備望)을 경기로 고쳐서 올려라.'
라고 하였다.

『태봉등록』 영조 을묘년(1735) 10월 15일 新生翁主胎峯備三望以入

觀象監官員以提調意　啓曰新生翁主胎峯畿邑中可合處令本監官員看審以來事　命下矣卽令本監地官金佑夏發遣畿邑諸處看審則抱川丙坐壬向之原同縣乙坐辛向之原永平庚坐甲向之原酉坐卯向之原合得四處而其中抄擇可合三處備望以入落　點後擇日擧行何如傳曰允

관상감(觀象監) 관원이 제조(提調)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새로 탄생한 옹주의 태봉(胎峯)은 경기도 고을 가운데서 합당한 곳을 골라서, 관상감 관원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조사해 오도록 하라.'
고 하였으므로, 즉시 관상감 지관(地官) 김우하(金佑夏)를 경기도로 보내서 각 고을을 살펴 조사하게 하였더니, 포천(抱川)의 병좌임향(丙坐壬向)**14** 언덕과 같은 곳의 을좌신향(乙坐辛向)**15** 언덕과 영평(永平)의 경좌갑향(庚坐甲向)**16**과 유자묘향(酉坐卯向)**17** 언덕을 합하여 모두 4곳 중에서 적합한 3곳을 선택하여 삼망(三望)을 갖추어 올려서 낙점을 받은 뒤에 거행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포천시 무봉리 영조옹주 태실

『태봉등록』 영조 을묘년(1735) 10월 21일 胎峯落點 / 新生翁主藏胎時所用雜物 / 新生翁主藏胎時雜物行移

觀象監牒呈內今乙卯年九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藏胎事　傳敎矣一等胎峯京畿抱川縣西所屹山面藥師洞丙坐壬向落　點敎是乎等以藏胎吉日來十一月二十六日辰時始役今十月二十五日辰時開基來十一月十九日辰時告后土祭同日曉頭先行發胎來十一月二十五日卯時胎神安慰祭封土後臨時行謝后土祭事畢後臨時設行爲等如推擇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藏胎吉日時依牒呈施行何如雍正十三年十月二十一日左副承旨臣南泰慶次知　啓依允

"관상감(觀象監)의 첩정 안에,
'금년 을묘년 9월 19일 축시(丑時)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 장태의 일을 전교 받았습니다. 일등 태봉으로, 경기도 포천현 서쪽 소흘산면(所屹山面) 약사동(藥師洞) 병좌임향(丙坐壬向)**18**으로 낙점하셨으므로, 장태 길일(吉日)을 오는 11월 26일 진시(辰時)로, 개기(開基)는 오는 11월 19일 진시(辰時)로, 고후토제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먼저 거행하며, 발태는 오는 11월 25일 묘시(卯時)에, 태신 안위제는 봉토 뒤에 적당한 때에 행하며, 사후토제는 일이 다 끝난 뒤에 적당한 때에 설행하기로 통틀어서 추택(推擇)하였습니다.'
라고, 예조의 계목에 점련하여 첩정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태어난 옹주 아기씨의 장태 길일(吉日)과 길시(吉時)는 (관상감의) 첩정대로 시행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옹정 13년 10월 21일, 좌부승지 남태경(南泰慶)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14　병좌임향(丙坐壬向) : 남남동을 뒤로 하고, 북북서를 바라보는 방향.
15　을좌신향(乙坐辛向) : 동동남을 뒤쪽으로 하고, 서서북을 바라보는 방향.
16　경좌갑향(庚坐甲向) : 서서남을 뒤로 하고, 동동북을 바라보는 방향.
17　유자묘향(酉坐卯向) : 묏자리나 집터 따위가 유방(酉方)을 등지고 묘방(卯方)을 바라보는 방향.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18　병좌임향(丙坐壬向) : 남남동을 뒤로 하고, 북북서를 바라보는 방향.

觀象監牒呈內　啓下內乙用良乙卯九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藏胎吉日來十一月二十六日辰時始役吉日十月二十五日辰時開基來十一月十九日辰時告后土祭同日曉頭行發胎來十一月二十五日卯時旣已推擇　啓下爲有置安胎時所用京中備辦雜物及一路應行諸事前儀軌相考牒呈後錄爲去乎依前預先進排待令事各司各道良中行下爲乎矣前期知委俾無未及之患爲只爲後樓子一諸具黑漆木櫃子一諸具紅染熟麻縛多繪二十二把[以上用還下]三甲所三巨里條所三巨里事知石手二名[以上繕工監]別文單方席一立白紋地衣一浮柳笥一部油蓋也一[以上用還下]楮注紙三卷塗櫃紙十張單幅紙一張[以上長興庫]朱砂七錢金銀各六分龍腦二分[以上戶曹]牛黃二分石雄黃二兩[典醫監]漆燭四柄[義盈庫]靑布一疋靑鼎紬四幅付甲袱一靑鄕絲三甲繩十尺五色綃各三尺靑鼎紬三尺[以上濟用監]草苫五番[兩倉]帳幕[司鑰房]胎缸結裹鄕氈一浮半誌石結裹鄕氈一浮杻炬四柄[以上工曹]穀草三束[司僕寺]毛獐皮四張[戶曹]香祝[香室]監役官齎去印信一顆[禮曹]誌石一[用靑石長廣各一尺尙衣院造承文院書校書館刻]擔持軍三十名引路軍二名使令一名皆着靑冠服[兵曹]一路擔持軍引路及使令等服色各其境上待候以京冠服次次傳授道路橋樑自　闕門至京畿抱川縣胎峯所修治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安胎時所用雜物令本道及各該司急速上下進排爲白乎矣道路乙良置亦令本道趁速修治擧行事知委何如雍正十三年十月二十二日行都承旨臣金始炯次知啓依允

관상감의 첩정에,

'계하(啓下)로 말미암아, 을묘 9월 19일 축시(丑時)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장태 길일을 오는 11월 26일 진시(辰時)로 하였으며, 공사 시역(始役) 길일(吉日)을 10월 25일 진시(辰時)로, 개기(開基)는 오는 11월 19일 진시(辰時)로, 고후토제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먼저 거행하며, 발태는 오는 11월 25일 묘시(卯時)에 하기로 이미 추택(推擇)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안태(安胎) 때 소요되는 것 중에서 경중(京中 : 서울 안)에서 준비해야 할 잡물(雜物)과 이번 일에 수반되는 모든 일은 종전의 의궤(儀軌)를 상고하여 후록(後錄)을 첩정(牒呈)한 뒤에 종전대로 미리미리 진배(進排)하여 제때를 놓치는 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누자(樓子)와 그에 딸린 모두 도구와 흑칠목으로 만든 궤[黑漆木櫃子] 하나와 모든 도구, 붉은 물을 들인 숙마(熟馬) 밧줄 22파(把)-이상은 쓴 뒤에 되돌려 보냄-. 삼겹 밧줄[三甲所 : 3겹바] 3거리(巨里). 좀 가는 밧줄[條所] 3거리와 일에 익숙한 석공 2명.-이상은 선공감에서 맡는다.- 별문초(別文單) 방석(方席) 1립(立). 백문석(白紋席) 지의(地衣) 1부(部). 버들 고리짝 1부. 유개아[油蓋也] 1개-이상은 쓴 뒤에 되돌려 보냄-. 저주지(楮注紙) 3권. 궤짝 바르는데 쓸 종이 10장. 단복지(單福紙) 1장.-이상 장흥고(長興庫)가 부담한다-. 주사(朱砂) 7잔. 금(金) 6푼. 은(銀) 6푼. 용뇌(龍腦) 2푼-이상은 호조(戶曹)에서-. 우황(牛黃) 2푼. 석웅황(石雄黃) 2냥.-이상은 전의감(典醫監)에서- 칠촉(漆燭) 4병(柄).-이상은 의영고(義盈庫)에서 지급한다-. 청포(靑布 : 푸른색 물들인 베) 1필(匹). 청정주(靑鼎紬) 4폭을 붙여서 만든 갑보(甲袱 : 겹으로 된 보자기) 1장. 청향사(靑鄕絲)로 만든 삼겹 노끈 10척. 오색 깁(五色綃) 각 3척. 청정주 3척.-이상은 제용감(濟用監)에서 지급-초둔(草苫) 5부. -이상은 양창(兩倉)에서 지급함-. 장막(帳幕)-사약방(司鑰房)에서 지급-. 태항아리를 묶어서 싸는 데 쓸 향전(鄕氈) 1부(浮) 반. 지석(誌石)을 묶어서 싸는 향전 1부(浮). 축거(杻炬)**19** 4자루[병(炳)].-이상은 공조(工曹)에서 지급-

곡초(穀草 : 짚·밀짚 등) 3단[속(束)]-사복시(司僕寺)에서 지급-. 노루 모피[毛獐皮] 4장-호조에서-. 향과 축-향실에서-. 감역관(監役官)이 싸가지고 갈 인신(印信) 1과(顆)-예조에서-. 지석(誌石) 1개-청석(靑石)으로 만들고, 가로 세로 각 1자다.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고, 승문원(承文院)에서 글을 쓰고, 교서관(校書館)에서 각자(刻字)한다.- 짐꾼[擔持軍] 30명. 길라잡이[인로(引路)] 2명과 사령(使令) 1명은 다 청관복(靑冠服)을 입는다-병조에서-. 모든 짐꾼과 길라잡이와 사령들은 각자 자기 고을 경계에서 대기하다가 경관(京官)**20** 복색(服色)을 차례대로 전해 받아 입는다. 도로(道路)와 교량(橋梁)은 대궐 문에서부터 경기도 포천현 태봉(胎封)까지 길을 닦겠습니다.'

라고, 예조의 계목에 점련하여 첩정(牒呈)하였습니다.

지난번 새로 출생한 옹주 아기씨의 태를 안치할 적에, 소요되는 잡물은 본도(本道 : 경기도)와 해당되는 각사(各司)로 하여금 급속히 차하[上下 : 지급, 지불]하여 진배(進排)하게 하시되, 도로(道路)도 역시 본도로 하여금 진작 닦아서 거행하도록 공문을 보내어 지위(知委)하게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옹정 13년 10월 22일, 행 도승지 김시경(金始炯)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19　축거(杻炬) : 마른 싸리나무를 묶어서 만든 홰. 야간 작업등을 할 적에 흔히 횃불로 썼다.

20　경관(京官) : 서울 안의 관원. 이때 서울이란 서울을 비롯하여, 개성(開成)·강화(江華)·수원(水原)·광주(廣州)도 다 포함한다.

觀象監牒呈內乙卯九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藏胎事　傳敎矣一等胎峯京畿抱川縣西所屹山面藥師洞丙坐壬向落　點敎是乎等以藏胎吉日來十一月二十六日辰時始役吉日十月二十五日辰時開基來十一月十九日辰時告后土祭同日曉頭先行發胎來十一月二十五日卯時胎神安慰祭封土後臨時行謝后土祭事畢後臨時設行爲等如推擇爲有置同藏胎時赴役軍及外方備辦雜物應行諸事幷以前儀軌相考牒呈後錄爲去乎始役日及良依例無遺進排爲乎矣受　敎內凡藏胎時令所在官守令差使員定體諸事預備亦爲有旀節乙置依前例差使員定體爲旀藏胎次瓮石蓋石標石臺石各一件浮取是置同浮取可合處前期探問爲有如可監役官下去卽時依　啓下使內乎矣其中各樣鐵物段始役日前期輸納爲良沙定日浮取石物是置除尋常惕念擧行事本道良中前期行移知委爲旀役軍乙良移文兵曹爲只爲後赴役軍一百名內[丁未年姑減二十名]七十名內[戊申年二十名姑減用僧軍]曳石軍一百名內[丁未年姑減二十名]八十名內[戊申年姑減三十名用僧軍]水夢同伊一中夢同伊四小夢同伊六立釘十串釘二十召乙釘二十倚只金二十非只金一漢亍赤六加羅二銧伊二鍤二斧子二排地乃二長三尺大釘三長三尺刻釘二十刻刀二十添鐵五斤菁苔木生葛炭入量大小雪馬各一大小熟麻注乙各一磊泉三斤石灰三斗大小帳幕各一草苫四浮休紙八兩法油一斗甘湯二兩祭席三立六張付白紋地衣一浮助役石手四名刻字匠一名冶匠二名沙土匠一名空石二百立筆墨公事下紙七卷柳笥二部　御覽謄錄一件敦厚紙兩折儀軌四件次擣練紙二卷紅衣次細布巨乙金頭釘具鎖黃衣鑞染中使安胎使書標官監役陪胎官奏時官支供及入接假家文書執吏庫直使令京石手二名奏時使令諸色匠人丘從奴子等供饋漏器排設諸具謄錄書寫[以上各邑本官]

관상감의 첩정에,

"을묘년 9월 19일 축시(丑時)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 장태의 일을 전교 받았습니다. 일등 태봉으로, 경기도 포천현 서쪽 소흘산면(所屹山面) 약사동(藥師洞) 병좌임향(丙坐壬向)으로 낙점하셨으므로, 장태 길일(吉日)을 오는 11월 26일 진시(辰時)로 하였사오며,

공사 시역(始役)은 이달 10월 25일 진시(辰時)로, 개기(開基)는 오는 11월 19일 진시(辰時)로, 고후토제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먼저 거행하며, 발태는 오는 11월 25일 묘시(卯時)에, 태신 안위제는 봉토 뒤에 적당한 때에 행하며, 사후토제는 일이 다 끝난 뒤에 적당한 때에 설행하기로 통틀어서 추택(推擇)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태할 때 부역군과 지방에서 준비할 잡물과 응당 행해야할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이전의 의궤(儀軌)를 참고하여 첩정(牒呈)하고 기록하옵니다.

시역일(始役日 : 공사 시작 날)에 다다라 빠뜨림 없이 진배(進排 : 물품을 진상함)하되, 수교(受敎 : 임금의 교명) 내에,

'무릇 태를 안장할 적에 참석해야 하는 관(官)과 수령(守令)과 차사원(差使員)과 이 일의 특성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준비하여 둘 것이며, 이번에도 전례에 따라서 차사원(差使員)의 성격을 정할 것이며, 태를 안장할 때 쓸 옹석(瓮石)과 개석(蓋石)·표석(標石)·대석(臺石) 각각 1개씩 만들 석재를 뜨되 [浮石 : 석재 채취] 채취에 합당한 곳을 미리 탐문해두었다가, 감역(監役)관이 내려가는 즉시 계하(啓下)의 내용대로 시키되, 이 가운데 각종 철물(鐵物)들은 공사 시작 전에 수납하여야만 정한 날짜에 석물도 채취할 수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작심하여 거행할 것을 본도(本道)에 미리 기한 전에 공문을 보내서 지위(知委)할 것이며, 일꾼은 병조로 공문을 보내어 역군(役軍) 1백명 이내-정미년에는 우선 20명을 줄였음-와 70명 이내-무신년에는 우선 20명을 줄이고 대신 승군(僧軍)을 썼다-. 석재를 끌어서 운반하는 일꾼 1백명 이내와-정미년에 우선 20명을 줄임-80명 이내와-무신년에 비로서 30명을 줄이고 승군을 썼다-물몽동이 1개. 중몽동이 4개. 소몽동이 6개. 설못 10개. 꼬치못 20개. 솔못[召乙釘] 20개. 의지쇠(倚只金) 20개. 비지음쇠(非其金) 1개. 한마치[漢亍赤] 6개. 가래(加羅) 2개. 광이[銧屎] 2자루. 삽(鍤) 2자루. 도끼 2자루. 밀지레(排地乃) 2개-길이 3척-. 큰 못 3개-길이 3척(尺)-. 새김못[刻釘] 20개. 새김칼 20개. 첨철(添鐵) 5근. 청태목(菁苔木). 생칡. 숯. 입량(入量)하고, 큰썰매(大雪馬) 1개. 작은 썰매 1개. 대숙마(大熟麻) 줄 1개. 소숙마(小熟麻) 줄 1개. 뇌록(磊泉) 3근(斤). 석회(石灰) 3두(斗). 큰 장막(帳幕) 1개. 작은 장막(帳幕) 1개. 초둔(草苫)**21** 4개. 휴지 8냥. 법유(法油) 1두(斗). 감탕(甘湯)**22** 2냥(兩) 제석(祭席) 3립(立). 6장을 붙여서 만든 백문(白紋) 지의(地衣)**23** 1부와 조역 석수(石手) 4명, 각자장(刻字匠) 1명. 대장장이[야장(冶匠)] 2명. 사토장(莎土匠) 1명. 빈 섬[공석(空石)] 200립(立). 붓. 먹. 공사(公事) 하지(下紙) 7권. 버들로 만든 고리짝 2부. 어람(御覽) 등록(謄錄) 1건. 돈후지(敦厚紙)를 양절지(兩折儀)로 끊어서 만든 의궤(儀軌) 4건(件)을 책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련지(擣鍊紙) 2권. 홍의(紅衣)를 만드는 데 쓸 가는 베[세포(細布)]. 걸쇠[巨乙金] 머리못. 열쇄 잠을통. 황의(黃衣). 납염(鑞染)**24**. 중사(中使)**25**·안태사(安胎使)·서표관(書標官)·감역관(監役官)·배태관(陪胎官)**26**·주시관(奏時官)**27** 등에게 먹일 지공(支供 : 음식을 이바지함)과 사람이 들어앉을 임시 가옥[가가(假家)]과 문서(文書) 집리(執吏)**28**. 고자(庫子)**29**와 사령(使令). 서울 석공[京石手] 2명. 주시사령(奏時使令). 제색 장인(諸色匠人 : 각 분야 기술공). 구종(驅從)**30**. 노자(奴子 : 사내종)들을 위한 공궤(供饋 : 음식물을 제공함)와 누기(漏器)와 그것을 설치할 여러 도구. 서사(書寫)-이상은 각 고을 본관이 맡는다.-

21 초둔(草苫) : 띠나 부들 같은 풀로 거적처럼 엮어서 만든 뜸. 비올 적에 물건을 덮거나 햇볕을 가리는 데 쓴다.
22 감탕(甘湯) : 엿을 고아내거나 메주를 쑤고 난 뒤에 솥에 남아 있는 단물.
23 지의(地衣) :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ㅇ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들어, 제사 등 행사에 쓰는 돗자리.
24 납염(鑞染) : 금속 표면에, 납을 녹여서 입힘.
25 중사(中使) : 궁명에서 왕명을 전하는 내시(內侍)
26 배태관(陪胎官) : 왕실의 태를 봉산(封山)에 안치(安置)하기 위하여 가지고 갈 적에 배행(陪行)하는 임시직
27 주시관(奏時官) : 시시각각 시간을 알려 주는 임시직
28 집리(執吏) : 육조(六曹)·의정부(議政府)·선혜청(宣惠廳) 등 관청에서 사무를 분장(分掌)하는 주임(主任) 서리(書吏).
29 고자(庫子) : 지방의 현(縣)이나 군(郡)에서 부리는 심부름꾼.
30 구종(驅從) : 벼슬아치를 모시고 다니는 하인.

告后土祭胎神安慰祭謝后土祭獻官本官守令諸執事本官校生樓子奉安假家雜物入置庫間時急文書傳通驛子浮石所入胎峯所往來所騎馬留待胎峯直二名本官閑丁抄定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翁主阿只氏藏胎時所入雜物乙良依所報令本道及各該司照例趁卽擧行何如雍正十三年十月二十二日行都承旨臣金始炯次知　啓依允	고후토제와 태신안위제와 사후토제의 헌관은 본관(本官 : 그 고을) 수령이 수행하고, 제집사(諸執事)의 일은 본관(本官)의 교생(校生)이 수행하며, 누자(樓子)**31**를 봉안(奉安)할 가가(假家 : 임시 가옥)와 잡물을 들여 놓을 곳간과 시급한 문서(文書)를 전통(傳通)할 역자(驛子)**32**와 채석장[부석소(浮石所 : 채석장)]과 태봉(胎峯)을 왕래할 때 타고 다닐 말을 대기시키는 일과 태봉 직이 2명 등은 본관(本官)의 한정(閑丁)**33** 중에서 차출(差出)합니다.' 라고, 예조의 계목에 점련하여 첩정(牒呈)하였습니다. 접때 새로 출생한 옹주 아기씨 장태 때 쓸 잡물(雜物)들은 본 첩보(牒報)에 의해서 준비할 것을 본도(本道)와 각 해당 관서로 하여금, 전례를 참조[조례(照例)]해서 때에 늦지 않게 거행할 것을 공문으로 보내심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옹정 13년 10월 22일 행 도승지 김시형 차지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고 윤허하였다.

포천시 성동리 익종 태실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8월 9일 정유 1번째 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申時。】元子誕生于昌德宮之大造殿。	【신시(申時)이다.】 원자(元子)가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탄생하였다.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8월 9일 정유 2번째 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命元子宮供上, 依庚戌年例爲之。	원자궁(元子宮)의 공상(供上)은 경술년(1790, 정조 14) 의 예(例)에 의거하여 하라고 명하였다.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9월 2일 기미 1번째 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元子宮胎封吉地, 定於京畿 永平縣, 從雲觀啓也。	원자(元子) 태봉(胎封)의 길지(吉地)를 경기도 영평현(永平縣)으로 정하였는데, 운관(雲觀)에서 아뢴 것을 따른 것이다.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12월 24일 기유 2번째 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命安胎使洪明浩加正憲, 都差使員楊州牧使閔命爀加嘉善, 安胎後復命也。	안태사(安胎使) 홍명호(洪明浩)에게는 정헌 대부를 가자하고 도차사원(都差使員) 양주 목사(楊州牧使) 민명혁(閔命爀)에게는 가선 대부를 가자하라고 명하였는데, 이것은 안태(安胎)한 뒤 복명(復命)했기 때문이었다.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970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8월 16일 갑진 14/25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李好敏, 以觀象監提調意啓曰, 今此**元子阿只氏**胎封, 依例擧行, 而取考本監所在謄錄, 則其中坐向吉利地, 只是江原道春川府水靑院子坐之原, 京畿道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之原, 公忠道報恩縣外俗離山下大佛寺後水晶峯下酉坐之原三處, 而入錄已爲年久, 難保無頃。 依舊例發送本監相地官, 更加看審後, 備望以入, 待稟下以爲涓吉之地, 何如? 傳曰, 允。	이호민이 관상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 원**자 아기씨(元子阿只氏)**의 태봉(胎封)을 규례대로 거행하되 본감(本監)에 있는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그 가운데 좌향(坐向) 길리(吉利)는 단지 강원도 춘천부(春川府) 수청원(水靑院) 자좌지원(子坐之原), 경기도 영평현(永平縣) 상리면(上里面) 고향교동(古鄕校洞)의 유좌지원(酉坐之原), 공충도 보현(報縣) 밖의 속리산(俗離山) 아래에 있는 수정봉(水晶峯) 아래의 유좌지원(酉坐之原) 3곳인데, 기록된 지 이미 오래되어 탈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어째서인가. 옛 규례대로 본감(本監)의 상지관(相地官)을 보내어 다시 간심한 뒤에 삼망(三望)을 갖추어 들이게 하고, 품하한 다음 길일을 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1 누자(樓子) : 조서(詔書)나 책보(册寶) 따위를 실어 나르는 데 쓰는 다락집처럼 꾸며 만든 작은 가마.
32 역자(驛子) : 역(驛)에 소속된 마부(馬夫). 역졸(驛卒)
33 한정(閑丁) : 국역(國役 :국가에서 벌이는 공사)에 나가 일하지 않는 장정

『승정원일기』 1971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9월 2일 기미 14/24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韓義運, 以觀象監提調意啓曰, 元子阿只氏胎封吉利地, 江原道春川府淸院子坐之原, 京畿道永平縣上里面古鄕校洞酉坐之原, 公忠道報恩縣外俗離山大佛寺後水晶峯下酉坐之原三處, 依舊例發送本監相地官, 更加看審之意, 已爲草記蒙允矣。卽者本監地理學敎授方慶國, 下去看審, 則三處俱爲可合, 而永平縣酉坐之原, 比之兩處, 尤爲吉利, 依例備望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한의운이 관상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원자 아기씨(元子阿只氏)의 태봉(胎封) 길리(吉利)는 강원도 춘천부(春川府) 청원(淸院) 자좌지원(子坐子原), 경기도 영평현(永平縣) 상리면(上里面) 고향교동(古鄕校洞)의 유좌지원(酉坐之原), 공충도(公忠道) 보은현(報恩縣) 밖의 속리산(俗離山) 대불사(大佛寺) 뒤 수정봉(水晶峯) 아래의 유좌지원(酉坐之原) 세 곳을 옛 규례대로 본감의 상지관(相地官)을 보내어 다시 간심하도록 이미 초기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방금 본감(本監)의 지리학 교수(地理學敎授) 방경국(方慶國)이 내려가 살펴보니 세 곳이 모두 적합한데, 영평현(永平縣)의 유좌(酉坐)의 언덕은 두 곳에 비해 더욱 길하므로 규례대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1971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9월 3일 경신 12/14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李好敏, 以觀象監提調意啓曰, 元子阿只氏安胎吉日時, 令日官推擇以入事, 草記蒙允矣。招問日官, 則藏胎之法, 五朔以藏, 而來十二月, 旣準五朔, 且是吉月云, 以此月擇入, 何如? 傳曰, 允。

이호민이 관상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원자 아기씨(元子阿只氏)가 안태를 안장할 길일과 시간을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택하여 들이도록 초기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일관(日官)을 불러 물어보니, 태를 묻는 방법은 다섯 달 만에 간직하는데, 오는 12월은 이미 다섯 달이 되었고 또 길한 달이라고 하니, 이 달을 택하여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1971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9월 5일 임술 14/18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李好敏, 以觀象監提調意啓曰, 胎封時, 安胎使·從事官·書標官·監役官·陪胎官·奏時官各一員進去, 各監其任, 例也, 而庚戌年胎封時, 因特敎, 從事官除之, 監役官, 以本邑守令, 陪胎官·奏時官, 以本監官員一員, 兼擧行矣, 今番則何以爲之? 敢啓。傳曰, 庚戌年例爲之。

이호민이 관상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태봉(胎封) 할 때 안태사(安胎使), 종사관(從事官), 서표관(書標官), 감역관(監役官), 배태관(陪胎官), 주시관(奏時官) 각 1원(員)이 나아가 각기 그 직임을 살피는 것이 규례인데, 경술년에 태봉(胎封) 할 때에는 특교(特敎)에 따라 종사관(從事官)을 제수하고 감역관(監役官)은 본읍의 수령이 태관(胎官)과 주시관(奏時官)으로, 본감 관원 1원이 겸하여 거행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전교하기를, 경술년의 예대로 하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1971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9월 5일 임술 16/18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禮曹啓目粘連, 元子宮藏胎吉日, 來十二月二十一日午時, 始役十一月二十日卯時, 開基十二月初九日卯時, 發胎十二月十八日卯時, 何如? 判付啓, 依允。

예조 계목(禮曹啓目)에, 원자궁(元子宮)의 태(胎)를 간직하는 길일은 오는 12월 21일 오시(午時)로, 시역(始役)은 11월 20일 묘시(卯時)로, 개기(開基)는 12월 9일 묘시가, 발태(發胎)는 12월 18일 묘시(卯時)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윤허한다고 판부하였다.

『승정원일기』 1971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9월 7일 갑자 29/38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朴宗薰, 以觀象監提調意啓曰, 安胎時石物, 古例則用瓮石·蓋石·內識石·標石, 而庚戌年則因特敎, 只用瓮石·蓋〈石〉, 今番則何以爲之? 敢啓。傳曰, 依庚戌年例爲之。

박종훈이 관상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태(胎)를 안치할 때의 석물(石物)은 고례(古例) 에는 옹석(瓮石)과 개석(蓋石)을 쓰고 안으로는 돌을 지석(誌石)과 표석(標石)으로 썼는데, 경술년에는 특교로 인하여 옹석(瓮石)과 뚜껑을 사용하였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전교하기를, 경술년의 예대로 하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1976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12월 15일 경자 16/45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吏曹, 安胎使單洪明浩。

이조가 안태사(安胎使)에 홍명호(洪明浩)를 단부하였다.

『승정원일기』 1976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12월 18일 계묘 7/22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傳于朴大圭曰, 今日安胎行時奉函承旨朴大圭, 兒馬一匹賜給, 觀象監官員·禁漏官, 令該衙門, 高品付料, 分軍部將, 上弦弓一張賜給, 典樂加資, 鼓吹·工人·員役·下人等, 依前例, 米·布分等施賞。

박대규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안태를 행할 때 봉함 승지(奉函 承旨) 박대규(朴大圭)에게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고, 관상감 관원과 금루관(禁漏官)은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높은 품계로 부료(付料) 하게 하고, 분구는 부장(分軍部將) 에게는 상현궁 1장을 사급하고, 전악(典樂)은 가자하고, 고취(鼓吹), 공인(工人), 원역(員役), 하인 등은 전례대로 미(米)와 포(布)를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라.

『승정원일기』 1976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12월 18일 계묘 22/22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己巳十二月十八日卯時, 上御大造殿。 安胎使入侍時, 同副承旨朴大圭, 假注書李龍秀, 記注官金初燮, 記事官李光文, 安胎使洪明浩, 以次進伏訖。上曰, 陪胎下往時, 勿爲貽弊於列邑, 而各別申飭, 可也。明浩曰, 謹當嚴飭矣。遂退詣封裹所, 監封裹畢, 陪彩轝退出, 承史亦以次退出。

기사년 12월 18일 묘시에 상이 대조전(大造殿)에 나아갔다.
안태사(安胎使)가 입시할 때 동부승지 박대규(朴大圭), 가주서 이용수(李龍秀), 기주관 김초섭(金初燮), 기사관 이광문(李光文), 안태사 홍명호(洪明浩)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태를 모시고 가는 때에 열읍에 폐를 끼치지 말고 각별히 신칙하라고 하였다.
명호가 아뢰기를, 삼가 엄히 신칙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물러나 봉과소(封裹 所)로 가서 감봉(監封)을 마치고, 채여(彩轝)를 모시고 물러 나가고, 승지와 사관도 차례로 물러 나갔다.

『승정원일기』 1976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12월 24일 기유 9/23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傳于金愚淳曰, 安胎使洪明浩, 都差使員楊州牧使閔命嫺竝加資, 地方官永平縣令曺文檢陞敍, 陪胎官方慶國, 相當職除授, 本道伯金在昌, 虎皮一領賜給, 鄕看役將校, 令道伯, 拔例陞差, 京鄕吏隷·工匠等, 令該曹·該道, 從厚施賞, 草記狀聞事, 分付。

김우순에게 전교하기를, 안태사(安胎使) 홍명호(洪明浩), 도차사원(都差使員)인 양주 목사(楊州牧使) 민명혁(閔命爀)은 모두 가자(加資) 하고, 지방관인 영평 현령(永平縣令) 조문검(曺文儉)은 승서(陞敍) 하고, 태(胎)를 모시고 있는 관원과 임경국(任慶國)은 그에 상당하는 관직에 제수하고, 본도의 방백 김재창(金在昌)은 호피(虎皮) 1령(領)을 사급하고, 향간역(鄕看役) 장교는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규례대로 승차(陞差) 하게 하고, 경향(京鄕)의 이례(吏隷), 공장(工匠) 등은 해당 조(曹)와 해도(該道)로 하여금 후하게 시상하게 하고, 초기(草記) 하여 장계로 보고하라고 분부하라.

『승정원일기』 1976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12월 24일 기유 18/23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金愚淳, 以戶曹言啓曰, 安胎時京鄕吏隷·工匠等, 令該曹·該道, 從厚施賞, 草記狀聞事, 命下矣。問于該監, 則自京隨往者, 只是香陪兼陪胎書員一人, 奏時書員一人云, 各木二疋·布二疋·米三斗, 參考前例, 從厚題給, 而鄕吏隷·工匠, 則從厚施賞後狀聞事, 分付該道之意, 敢啓。傳曰, 知道。

김우순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태(胎)를 안치할 때 경향(京鄕)의 이례(吏隷), 공장(工匠) 등을 해당 조(曹)와 해도(該道)로 하여금 후하게 시상하게 하고 초기(草記)로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해당 감(監)에 물어보니, 서울에서 따라가는 자는 향배(香陪)와 겸배태 서원(兼陪胎書員) 1인, 주시서원(奏時書員) 1인이라고 하니, 각각 목면 2필, 포 2필, 미 3두를 전례를 참고하여 후한 쪽으로 제급하되, 향리(鄕吏)와 하례(下隷), 공장(工匠)은 후하게 시상한 뒤 장계로 보고하라고 해당 도에 분부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1976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12월 27일 임자 23/25 기사 1809년 嘉慶(淸/仁宗) 14년

知敦寧洪明浩疏曰, 伏以, 惟天眷佑, 慶祿滋至, 元子宮百日已過, 寶牒編成, 藏胎禮竣, 億萬年磐泰無疆之休, 其始自今, 大小歡祝, 曷有其極? 顧臣衰憒病伏之蹤, 獲奉往役董事之命, 恩至渥也, 與有榮矣。不自量力, 冒昧承當, 王靈所暨, 如期反命, 私心慶幸, 自倍他人而已。實無一半分可紀之勞勩, 而乃殿下, 推廣慶之念, 施懋賞之典, 卽日寵旨, 加臣崇政之階, 聞命驚惶, 靡所容措。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홍명호(洪明浩)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늘이 도우시고 경사스러운 복록이 더욱 이르러 원자궁(元子宮)의 백일(百日)이 이미 지났고 보첩(寶牒)이 완성되어 태(胎)를 감추는 예가 끝나고 억만년 공석(功石)처럼 무궁한 아름다움이 시작되었으니, 지금부터 대소 환경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신은 노쇠하고 병으로 몸져누워 있는 몸으로 역사(役事)에 나아가 역사(役事)를 감독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명을 받든다 하더라도 성상의 위령(威靈)이 미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명을 어기게 되었으니, 사사로운 마음에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절로 다른 사람보다 갑절은 더합니다.
실로 조금도 기록할 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전하께서 경사를 널리 누리게 하려는 생각을 미루어 포상하는 은전을 베푸시고 그날로 총지(寵旨)를 내려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더하시니, 명을 듣고는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臣本庸愚下品, 猥蒙我三朝生成之澤, 歷揚兜攬, 罔非逾分, 白首卿列, 何所裨補? 重以父子叔姪, 聯翩華膴, 盈盛之懼, 恒切于中, 今又夤緣事會, 以無勞而媒非分, 叨此上大夫崇秩, 則臣身之忝竊愧恧, 固無可言, 在聖上愼惜名器之政, 豈不爲累乎? 況今之從一品, 卽周官孤卿之班也。地望簡畀, 非人人可據, 臣何敢憑恃寵靈, 若固有之, 不思所以循墻之義哉? 玆庸披瀝控籲於天地父母之前。伏乞聖慈, 諒臣之情, 察臣之懇, 亟命收還臣新授資級, 以幸公私, 不勝至祝。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卿其勿辭行公。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은 하품(下品)으로 외람되이 우리 삼조(三朝)의 생성해 주시는 은택을 입어 두루 거치고 두루 벼슬을 차지한 것이 분수에 넘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백발의 경(卿)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부자(父子)와 숙질(叔姪)이 화려한 관직에 연이어 올라 가득 찬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가득하였는데, 지금 또 일이 기회를 틈타서 공로가 없는데도 분수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하여 이 상대부(上大夫)의 높은 품계를 차지한다면, 신의 부끄러움이야 실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상께서 명기(名器)를 신중히 하는 정사에 어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의 종 1품은 바로 주관(周官)의 고경(孤卿)의 반열입니다. 지망(地望)과 간선(簡選)은 사람마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신이 어찌 감히 성상의 총애만 믿고 마치 본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여겨 담장을 따라 달아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 피력하여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의 사정을 헤아리고 신의 간절한 마음을 살피시어 속히 신에게 새로 제수한 자급을 도로 거두어들이도록 명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다행스럽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승정원일기』 1978책 (탈초본 104책) 순조 10년 2월 8일 임진 23/23 기사 1810년 嘉慶(淸/仁宗) 15년

(중략) 淵常曰, 日前禁府時囚議處及上言回啓, 有次堂擧行之命, 而次堂, 以上言回啓之次堂擧行, 實罕其例, 陳疏到院, 故原疏退却, 推考警責之意, 已爲蒙允, 而至今終不擧行, 誠萬萬未安矣。上曰, 議處則申飭勿拘齋日, 令次堂擧行, 上言回啓, 當待判堂, 而判堂有實病乎? 淵常曰, 方以病呈辭, 而且聞有新資人, 以妨賢爲嫌云矣。上曰, 新資者誰也? 淵常曰, **洪明浩以安胎使**, 爲新資矣。上曰, 此則非筵席可奏之事矣。命書榻敎曰, 禁府議處, 勿拘齋日爲之。又敎曰, 政官申飭, 使之初牌入來, 可也。仍命諸宰先退, 象奎等退出, 又命退, 承史以次退出。

(중략) 정연상이 아뢰기를, 일전에 의금부 시수(時囚)에 대한 의처(議處)와 상언(上言)에 대한 회계(回啓)는 차당상(次堂上)이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차당(次堂)이 상언(上言) 하여 회계(回啓) 한 다음 차당(次堂)이 거행하는 것은 실로 전례가 드물기 때문에 올린 상소가 본원에 도착하였으므로 원래의 상소를 물리치고 추고하여 경책하는 뜻으로 이미 윤허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의처(議處)는 재일(齋日)에 구애받지 말고 차당상(次堂上)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상언(上言)에 대한 회계는 판당(判堂)을 기다려야 하는데 판당이 실제로 병이 있는가?
정연상이 아뢰기를, 현재 병으로 정사(呈辭) 하고 있고, 또 듣건대 새로 받은 사람이 어진 이의 진출을 방해한다고 혐의스럽다고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새 자급이 누구인가?
윤연상이 아뢰기를, **홍명호(洪明浩)는 안태사(安胎使)**로 새 자급을 삼았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연석에서 아뢸 만한 일이 아니다.
탑교(榻敎)를 쓰라고 명하기를, 의금부는 의처(議處) 하되 재일(齋日)에 구애받지 말고 하라.
또 하교하기를, 정관(政官)을 신칙하여 처음 패초에 들어오게 하라고 하였다.
이어 여러 재신(宰臣)에게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니, 규 등이 물러나고 또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승정원일기』 1983책 (탈초본 104책) 순조 10년 5월 14일 정묘 19/19 기사 1810년 嘉慶(淸/仁宗) 15년

行同副承旨閔命爀疏曰, 伏以, 惟天惟祖宗, 篤佑我邦家, 元良誕降, 尺衣漸長, 擧國懽慶, 彌久彌切。臣適縻下邑, 跡阻班聯, 鰲忭之忱, 無以自伸。廼者福星垂照, 吉地鞠兆, 胎室之封, 卜在隣縣, 猥以下乘之賤, 得備執事之末者, 列郡之常例也, 其所陳力者, 臣分之當爲也, 徒切與榮之私, 初無可紀之勞。

행 동부승지 민명혁(閔命爀)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시어 원량(元良)이 탄생하고 자지(尺衣)가 점점 자라나 온 나라의 환경이 갈수록 더욱 간절합니다.
신은 마침 하읍(下邑)에 매여 있어 조정의 반열에 발을 들이지 못하였으니, 기쁜 마음을 스스로 펼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복성(福星)이 비추고 길지(吉地)에서 길일을 잡아 태실(胎室)의 봉지(封地)를 인현(隣縣)에 짐을 지우고, 외람되이 하초(下乘)의 미천한 신분으로 집사(執事)의 말석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고을의 상례(常例)이고, 그가 힘을 다한 것은 신하의 분수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 한갓 간절한 마음만 간절하여 애초에 기록할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승정원일기』 2316책 (탈초본 116책) 헌종 1년 5월 10일 무진 24/25 기사 1835년 道光(淸/宣宗) 15년

(중략) 象奎曰, 翼宗大王胎室, 封在於京畿永平, 而今於追崇禮成之後, 卽當按例加封, 令該曹待今年秋成, 涓吉擧行, 而謹稽謄錄, 則御極後胎室加封, 係是應行之儀節也, 德山所封胎室, 亦爲一體加封之意, 分付該曹, 何如? 大王大妃殿答曰, 翼宗大王胎室, 事體有異, 卽爲擧行, 當宁胎室加封事, 更待下敎, 可也。(중략)

(중략) 임상규가 아뢰기를, 익종 대왕의 태실(胎室)이 경기 영평(永平)에 있는데 지금 추숭례(追崇禮)가 끝난 뒤에 즉시 규례를 살펴 가봉(加封)해야 하니, 해당 조로 하여금 올해 추수하기를 기다려 길일을 택하여 거행하게 하고, 삼가 등록을 살펴보니, 즉위한 뒤에 태실에 가봉(加封) 하는 것은 응당 행해야 하는 의절(儀節)이니, 덕산에서 봉진하는 태실도 일체로 더 봉진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왕대비전이 답하기를, 익종대왕 태실은 일의 체모가 다르니 즉시 거행하고, 당저(當宁)의 태실을 가봉하는 일은 다시 하교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중략)

『승정원일기』 2324책 (탈초본 116책) 헌종 1년 11월 26일 신해 13/15 기사 1835년 道光(淸/宣宗) 15년

又以觀象監提調意啓曰, 在前胎室加封時, 本監官員一員, 臨時下送, 監董工役矣。今此翼宗大王胎室加封時, 亦依已例磨鍊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관상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에 태실(胎室)에 가봉(加封) 할 때 본감(本監)의 관원 1원이 그때 가서 내려보내 공사를 감독하였습니다.
이번 익종 대왕 태실을 가봉할 때에도 전례대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2325책 (탈초본 116책) 헌종 1년 12월 10일 갑자 14/14 기사 1835년 道光(淸/宣宗) 15년

(중략) 奭周曰, 翼宗大王胎室加封吉日, 在於明春矣。胎室加封時, 觀象監提調·繕工監提調各一員, 進去監董, 乃是舊例, 而曾在乙巳景慕宮胎室加封時, 因特敎兩提調中一員, 兼進擧行, 書標官亦爲兼差。其後辛酉年正宗大王胎室加封, 丙寅年先大王胎室加封時, 皆遵此例, 而伊時則因雲觀草記擧行矣。今亦當依此擧行, 而時無領事, 不敢如例直奏云, 故敢此仰達矣。大王大妃殿答曰, 今番亦依此爲之, 可也。(중략)

(중략) 강석주가 아뢰기를, 익종 대왕 태실에 가봉할 길일이 내년 봄에 있습니다. 태실(胎室)을 가봉(加封) 할 때 관상감 제조와 선공감 제조 각 1원이 나아가 감독하는 것이 옛 규례인데, 일찍이 을사년 경모궁(景慕宮) 태실(胎室)에 가봉(加封) 할 때 특교로 인하여 두 제조 가운데 1원이 겸하여 거행하고, 서표관(書標官)도 겸차(兼差) 하였습니다.
그 뒤 신유년에 정종대왕 태실을 가봉(加封) 하고 병인년에 선대왕의 태실을 가봉할 때 모두 이 예를 따랐는데, 그때는 운관(雲觀)의 초기로 인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해야 하는데, 현재 영사(領事)가 없어 감히 규례대로 직접 아뢰지 못한다고 하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대왕대비전은 답하기를, 이번에도 이대로 하라고 하였다. (중략)

『승정원일기』 2326책 (탈초본 116책) 헌종 2년 1월 6일 경인 14/16 기사 1836년 道光(淸/宣宗) 16년

李啓朝, 以觀象監提調意啓曰, 翼宗大王胎室石物加封, 已爲擇日啓下矣, 謹稽本監謄錄, 則列聖朝胎室體樣, 不一其制, 故自乙巳年以後, 依英廟朝胎室石物加封時例, 稟定擧行矣, 今此加封石物長廣尺數, 依已例擧行, 恐合事宜, 何以爲之? 敢稟。傳曰, 依乙巳年例爲之。(중략)

이계조가 관상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익종 대왕 태실의 석물을 가봉(加封)하는 것을 이미 택일하여 계하받았는데, 삼가 본감의 등록을 살펴보니, 열성조의 태실의 모양이 일정한 제도가 같지 않아서 을사년 이후로는 영묘조 태실의 석물을 더 봉진할 때의 예에 따라 여쭈어 정하여 거행하였는데, 이번에 더 봉진한 석물의 길이와 너비는 전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한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전교하기를, 을사년의 예대로 하라고 하였다. (중략)

『승정원일기』 2328책 (탈초본 116책) 헌종 2년 3월 23일 병오 4/10 기사 1836년 道光(淸/宣宗) 16년

傳于尹滋畊曰, 翼宗大王胎室加封時, 觀象監提調以下, 別單書入。

윤자경에게 전교하기를,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태실(胎室)을 가봉(加封) 할 때 관상감 제조 이하를 별단에 써서 들이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2329책 (탈초본 116책) 헌종 2년 4월 5일 정사 24/24 기사 1836년 道光(淸/宣宗) 16년

(중략) 奭周曰, 胎室加封之邑, 以縣陞郡, 旣有已例矣。永平縣胎室加封之役, 今旣告完, 依例陞爲郡守之意, 分付銓曹, 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중략)

(중략) 강석주가 아뢰기를, 태실에 가봉(加封) 한 고을은 현(縣)으로 고을을 승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영평현(永平縣)의 태실을 가봉(加封) 하는 일을 이제 다 마쳤으니, 전례대로 군수로 올려 주도록 전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왕대비전은 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중략)

경 기 도

태봉 胎峰
태실 胎室

총괄 장덕호(경기문화재연구원장)
이희완(경기도문화유산과장)

기획 이병훈(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김민헌(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김선미(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학예연구사)

자문 박용만(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심현용(한국태실연구소장)

진행 김종헌(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선임연구원)
전한수(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최운상(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사진촬영 김종헌(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선임연구원)

사진협조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심현용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저자 김종헌(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선임연구원)
심현용(한국태실연구소장)

발행처 경기도 문화유산과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67 팩스 031-898-7991

발행일 2021년 12월 16일

인쇄·제작 디자인달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1031-01
ISBN 979-11-88858-67-5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